레닌선집

전 세계 무산자는 련합하라!

레 닌 선 집

2

(2)

민 족 출 판 사

민족자결권에 관하여

민족자결권에 관하여 론하고있는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강령 제9조는 최근(우리가 이미 《계몽》잡지155에서 지적한바와 같이①) 기회주의자들의 일대공격을 초래하였다. 로씨야취소파132인 셈꼽스끼는 뻬쩨르부르그취소파신문에서, 또 분드파172인 리브만과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적사회주의자인 유르께위치는 각각 자기들의 기관지에서 이 조항을 극력 공격하였으며 극단적인 멸시의 태도로써 이 조항에 달려들었다. 우리의 맑스주의적강령에 대한 기회주의의 이 《12개 민족의 침공》188은 지금의 민족주의적동요일반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시기에 맞는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지적할것은 우에 제기된 기회주의자들중에서 독자적론거를 내놓은 사람이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모두가 로자 룩셈부르그가 1908~1909년에 뽈스까어로 쓴 장편론문 《민족문제와 자치》의 론거들을 되풀이하고있을따름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론문에서 룩셈부르그의 《독특한》 론거를 의연히 가장 많이 취급하게 될것이다.

1. 민족자결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자결이라는것을 맑스주의적으로 고찰하려고 할 때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0권, 1~35페지를 보라.—편집자

제일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결이란것은 어떻게 리해해야 할것인가? 법의 온갖 《일반적개념》으로부터 얻어낸 법률적정의에서 해답을 찾을것인가, 아니면 민족운동에 대한 력사적-경제적연구에서 해답을 찾을것인가?

쎔꼽스끼, 리브만, 유르께위치제씨들은 맑스주의적강령이 《불명확하다》고 단순히 조소하는것으로 어물어물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우매성때문인지 심지어 1903년의 로씨야의 당강령뿐아니라 1896년의 런던국제대회의 결정(이것에 관해서는 그 항에서 상세히 론할것이다.)도 민족자결문제를 론하였다는것마저 알지 못하고 이 문제의 설정을 생각조차 못하였다는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은 이 조항이 마치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되여있는듯이 무척 떠들던 로자 룩셈부르그자신이 바로 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오유를 범하였다는것이다. 다름아닌 로자 룩셈부르그는 문제의 본질이 법률적규정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 민족운동의 경험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어디서도 명확히 제기하지 않고서(심지어 민족의 의사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는데 관해서 참으로 가소로운 공담까지 하면서) 항상 민족자결에 관한 일반적론의에 혼미해있다.

맑스주의자로서는 피할수 없는 이 문제를 정확히 설정하기만 하면 로자 룩셈부르그의 론거의 10분의 9는 대번에 분쇄될것이다. 민족운동은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발생하고있는것도 아니며 로씨야에만 특유한것도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봉건주의에 대하여 자본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한 시대는 민족운동과 련계되여있다. 이 운동의 경제적기초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즉 상품생산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는 자산계급이 국내시장을 획득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의 거주지역을 국가형태로 통일(동시에 이 언어의 발전과 이 언어를 문자

로 고착시키는것을 방해하는 모든것을 배제함으로써)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언어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교제수단이다. 언어의 통일과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은 현대자본주의에 적응되는 참으로 자유롭고 광범한 상업거래와 주민의 각 계급별로의 자유롭고 광범한 집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이며 끝으로 시장을 매개 대소경영자, 판매자 및 구매자들과 긴밀히 련결시키는 조건이다.

그렇기때문에 현대자본주의의 이 요구를 가장 많이 충족시켜주는 민족국가의 형성은 온갖 민족운동의 추세(지향)인것이다. 가장 뿌리깊은 경제적요인들이 인간을 이 방향에로 추동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민족국가는 서구라파전체에 대해서 — 아니 그보다도 전 문명세계에 대해서—자본주의시대의 전형적이고 정상적인 국가형태인것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법률적정의를 가지고 놀며 추상적규정들을 《고안》해내는것이 아니라 민족운동의 력사적-경제적 조건들을 연구하는것으로써 민족자결의 의의를 리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피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즉 민족자결이란 타민족집단으로부터의 민족의 국가적분리를 의미하며 독립적민족국가의 형성을 의미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것이다.

자결권을 국가의 분립권이외에 어떤 다른것으로 리해하는것이 어째서 옳지 않은가에 대한 또 다른 리유들을 아래에서 서술하기로 하자. 이제 우리는 로자 룩셈부르그가 민족국가에로의 지향에는 깊은 경제적원인이 있다는 이 불가피적인 결론을 어떻게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는가에 대하여 론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카우쯔키의 소책자 《민족성과 국제성》(《신시대》[24] 1907~1908년권 제1호 부록, 로문번역본은 1908년 리가에서 발행된 잡지 《과학사상》에 게재되였음.)을 잘 알

고있다. 카우쯔키가 이 소책자의 제4절에서 민족국가에 관한 문제를 상세히 구명한 다음 오토 바우에르는 《민족국가창건의 지향력을 과소평가하고있다.》는 결론에 도달한것(소책자 23페지)을 로자 룩셈부르그는 알고있는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자신이 《민족국가는 현대의 조건〔중세기적이며 전자본주의적인 등등의 조건과는 구별되는 자본주의적이고 문명하고 경제적으로 진보된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국가형태이며 또 국가가 자신의 임무〔즉 자본주의를 가장 자유롭고 광범하고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임무〕를 가장 용이하게 수행할수 있게 하는 국가형태이다.》고 하는 카우쯔키의 말을 인용하고있다. 여기에 카우쯔키의 더 정확한 결론 즉 민족구성이 복잡한 국가들(민족국가와는 구별되는 소위 다민족국가들)은 《항상 그 내부적구조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비정상적인것으로 되였거나 혹은 불충분하게 발달된〔락후한〕 국가이다.》라고 한 말을 더 첨부하여야 할것이다. 카우쯔키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것은 발전중에 있는 자본주의의 제 요구에 가장 많이 적응된 그러한것에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는것이다.

이제 문제로 되는것은 로자 룩셈부르그가 카우쯔키의 이력사적-경제적결론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이 결론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카우쯔키가 제기한 력사적-경제적리론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바우에르가 제기한, 근본상 심리학적인 그 리론이 옳은가? 바우에르의 의심할수 없는 《민족기회주의》, 민족문화자치189의 옹호, 민족주의적도취(카우쯔키가 말한바와 같이 《어떤 개소들에서의 민족적계기의 강조》), 그의 《민족적계기의 굉장한 과장과 국제적계기의 완전한 망각》(카우쯔키) 등과 그의 민족국가수립에로의 지향력에 대한 과소평가와의 련결은 어디 있는가?

로자 룩셈부르그는 이 문제를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 편견을 감축하지 못하였다. 그는 바우에르의 리론적견해전체를 숙고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문제에서의 력사적-경제적리론과 심리학적리론을 대립시키는것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카우쯔키를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데 그치였다.

《…이 〈가장 좋은〉 민족국가라는것은 리론적으로 전개하거나 리론적으로 옹호하는것은 용이하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추상에 지나지 않는다.》(《사회민주당평론》[190], 1908년, 제6호, 499페지)

그리고 이 과감한 성명에 대한 확증으로서 그다음에 나오는것은 자본주의렬강의 발전과 제국주의가 약소민족들의 《자결권》을 환상으로 만든다는 론의이다. 《형식상에서 독립한 몬테네그로인, 벌가리아인, 로므니아인, 쎄르비아인, 희랍인과 어느 정도는 심지어 스위스인의 〈자결〉을 진정으로 〈자결〉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그들의 독립자체가 〈구라파음악회〉의 정치투쟁과 외교유희의 산물이 아닌가?》(500페지) 하고 로자 룩셈부르그는 절규한다. 제 조건에 가장 잘 적응되여있는 국가는 《카우쯔키가 생각하고있는것과 같은 민족국가가 아니라 략탈국가인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영국, 프랑스 및 기타에 속하는 식민지의 면적에 관한 수십개의 수자를 인용하고있다.

이와 같은 론의를 읽으면서 사리불통한 저자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약소국가는 강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여있다는것, 자산계급국가간에는 타민족을 강도적수단에 의하여 정복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있다는것, 제국주의와 식민지가 의연히 존재하고있다는것 등을 카우쯔키에게 엄숙한 태도로 가르쳐주는것은 일종의 가소로운 그리고 어린애처럼 약은 체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왜냐 하면 이 모든것은 당면한 문제

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때문이다. 작은 나라뿐만아니라 례컨대 로씨야와 같은 큰 나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유한》 자산계급국가들의 제국주의적금융자본의 힘에 예속되여있다. 이미 맑스가 《자본론》에서 지적한바와 같이191 발칸의 몇몇 미소한 국가들뿐만아니라 19세기의 미국도 경제적으로는 구라파의 식민지였다. 이 모든것은 카우쯔키뿐아니라 모든 맑스주의자들이 잘 알고있는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민족운동과 민족국가에 관한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자산계급사회에서의 민족의 정치적자결, 민족의 국가적독립 등에 관한 문제를 민족의 경제적자립 및 경제적독립에 관한 문제로 슬쩍 바꾸어버렸다. 이것은 마치 자산계급국가의 의회(즉 인민대표회의)의 주권에 관한 강령적요구를 심의하는 사람이 자산계급국가제도가 어떠한것이든간에 주권을 장악하고있는것은 대자본이라는 자기의 아주 정당한 확신을 피력하려고 드는것만치나 현명하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주밀한 아세아의 대부분이 《렬강들》의 식민지의 처지에 있든가 혹은 민족적으로 극히 종속적이며 억압을 당하는 국가의 처지에 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있는 이 사정이 바로 그 아세아에서 상품생산이 가장 충분히 발전할수 있는 모든 조건 즉 자본주의가 가장 자유롭고 광범하고 급속하게 발전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일본에서만 다시말하면 독립적민족국가에서만 조성되였다는 그 움직일수 없는 사실을 그래 조금이라도 동요시킬수 있겠는가? 이 국가는 자산계급국가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국가자신이 타민족들을 압박하며 식민지를 예속하기 시작한것이다. 자본주의가 붕괴하기전에 아세아가 구라파처럼 독립적민족국가들의 한 체계로 형성될수 있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아세아를 각성시키고 아세아 각지에서 민족운동을

불러일으켰다는것, 아세아에서 민족국가를 건립하는것이 이러한 운동의 지향이라는것, 또 자본주의발전의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보장하는것이 바로 이러한 국가들뿐이라는것은 여전히 론쟁할 여지가 없다. 아세아의 이 실례는 카우쯔키에게는 유리하며 로자 룩셈부르그에게는 불리한것이다.

발칸의 여러 나라들의 실례도 역시 로자 룩셈부르그에게 불리하다. 왜냐 하면 지금 누구나 보고있는바와 같이 발칸에서 독립적민족국가들이 건립됨에 따라 이 반도에서 자본주의발전의 가장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선진문명인류의 실례도, 발칸의 실례도, 아세아의 실례도 로자 룩셈부르그의 말과는 반대로 카우쯔키의 론점 즉 민족국가는 자본주의의 통례이며 《일반적규칙》이며 민족구성이 복잡한 국가는 락후하거나 혹은 례외적인 국가라는 론점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민족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국가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이것은 물론 이러한 국가가 자산계급관계의 토대우에서 제 민족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배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만 맑스주의자들은 민족국가를 건립하려는 지향을 낳게 하는 강력한 경제적요인들을 홀시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이것은 맑스주의자들의 강령에 들어있는 《민족자결》이라는것이 력사적-경제적관점으로 보아서 정치적자결, 국가의 독립, 민족국가의 건립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질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맑스주의적관점에서 즉 무산계급의 계급적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조건하에서 《민족국가》에 대한 자산계급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지지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론할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결》이란 개념의 정의만 밝힐뿐이

다. 그리고 다만 한가지 지적해야 할것은 로자 룩셈부르그는 이 개념(《민족국가》)의 내용을 **알고**있지만 그의 기회주의적지지자들인 리브만, 쎔꼽스끼, 유르께위치 일파는 **이것조차도 모른다**는것이다!

2. 문제의 력사적구체적설정

어떠한 사회적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맑스주의리론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것은 **일정한** 력사적범위내에서 그것을 설정하는것이며 그다음으로 만일 어떤 나라가(례컨대 이 나라의 민족강령이) 문제로 된다면 동일한 력사적시대의 한계내에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는 구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는것이다.

만일 맑스주의의 이 무조건적인 요구를 여기서 우리가 론하는 문제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으로 되는가?

우선 그것은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다른 자본주의의 두 시대를 엄격히 구별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의미한다. 한 시대는 봉건제도와 전제제도가 붕괴하는 시대이며 자산계급민주주의적사회 및 국가가 형성되는 시대인바 이 시대에 민족운동은 처음으로 대중적운동으로 되며 출판물과 대의기관에의 참가 등등을 통하여 주민의 **모든** 계급을 어떻게든지 정치생활에 인입한다. 다른 한 시대는 립헌제도가 확립된지 오래고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간의 적대관계가 극도로 발전된, 이미 완성된 오늘날의 자본주의국가의 시대 즉 자본주의붕괴의 전야라고 할수 있는 시대이다.

제1시대에 있어서 전형적인것은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자유를 위한, 특수적으로는 민족적권리를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민족운동이 각성하고 인수가 가장 많으며 《발동하기 가장 힘든》 주민층인 농민이 민족운동에 인입되는것이다. 제2시대에 있어서 전형적인것은 대중적자산계급민주주의운동의 결여인바 이 시대에는 발전된 자본주의가 이미 완전히 상품거래에 인입된 민족들을 점점 더 접근시키고 뒤섞어놓음으로써 국제적으로 융합된 자본과 국제적로동운동과의 적대관계를 전면에 내놓는다.

물론 이 두 시대는 성벽에 의하여 서로 분리되여있는것이 아니라 허다한 과도적고리에 의해 련결되여있다. 그리고 또한 각국은 민족적발전의 속도, 주민의 민족적구성, 주민의 분포 등등에서 구별되는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반적력사적조건들과 구체적국가적조건들을 무시하고서는 그 나라의 맑스주의자들의 민족강령을 론의한다는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로자 룩셈부르그의 론의의 가장 큰 약점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굉장히 열심히 우리 강령의 제9조를 반대하여 이것을 《일반적》이라느니, 《판에 박은것》이라느니, 《형이상학적문구》라느니 무엇이니 하고 끝없이 선언하면서 《센》 말마디를 주어모아 자기의 론문을 장식하고있다. 그가 형이상학(맑스주의적의미에서는 즉 반변증법)과 공허한 추상을 그렇게도 훌륭히 비난하는 저술가이니만큼 문제에 대한 구체적-력사적고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줄것을 기대하는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있는것은 일정한 한 시대, 즉 20세기초엽의, 그리고 일정한 한 나라, 즉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의 민족강령이다. 아마 로자 룩셈부르그도 어떠한 력사적시대를 로씨야가 경과하고있는가,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문제와 민족운동의 구체적인 특수성들은 어떠한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는것이 아닐가?

이 점에 관해서 로자 룩셈부르그는 전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력사적시대에 있어서 로씨야에서는 민족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있는가, 또 이 점에서의 로씨야의 특수성은 어떠한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의 저서에서는 분석의 그림자조차 발견할수 없다!

우리는 발칸에서의 민족문제는 아일랜드에서와는 다르게 제기되고있다느니, 맑스는 뽈스까와 체스꼬의 민족운동을 1848년의 구체적조건하에서 이러저러하게 평가하였다느니(한페지나 되게 맑스의 말을 인용), 엥겔스도 오지리를 반대하여 스위스의 삼림주들에서 일어난 투쟁과 또 1315년에 일어난 모르가르텐부근의 전투를 이러저러하게 평가하였다느니(한페지나 되게 엥겔스의 말을 인용하고 이에 대한 카우쯔키의 주석을 인용), 라쌀은 16세기의 독일농민전쟁을 반동적이라고 보았다느니 무어니 하는 말들을 듣는다.

이 의견과 인용이 신기한것이라고 할수는 없으나 하여튼 맑스, 엥겔스 및 라쌀이 개개의 나라들의 구체적-력사적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는것을 재삼 상기해보는것은 독자들에게 흥미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맑스 및 엥겔스로부터 발취한 교훈적인 인용문들을 다시 읽어보면 로자 룩셈부르그가 얼마나 가소로운 처지에 있는가를 특히 명백히 알게 된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각 시대, 각국의 민족문제를 구체적으로 력사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또 분연히 설교하고있지만 20세기초엽의 로씨야가 자본주의발전의 어떠한 력사적단계를 경과하고있는가, 또 이 나라의 민족문제의 특수성은 어떠한것인가를 확정하려는 시도는 꼬물만큼도 하지 않는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 분석하였는가 하는 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얼마나 자주 닦고있는가, 또 선량한 충고는 실제에 있어서는 선량한 충고를 받아

들이기를 원하지 않든가 또는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것을 은폐하는 일이 많다는것을 일부러 강조하는것과 같다.

여기에 한가지 아주 교훈적인 비교가 있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뽈스까독립의 구호를 반대하여나서면서 로씨야에 대한 공장생산품의 판매에 의한 급격한 《뽈스까의 산업발전》을 론증한 1898년의 자기의 저작을 인용하고있다. 이로부터는 자결권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으며 이것에 의해서는 다만 구귀족뽈스까의 소멸 등등만이 증명될따름이다.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그는 항상 로씨야와 뽈스까를 결합시키는 요인중에서 이제는 벌써 현대자본주의적 제 관계의 순 경제적 요인들이 우세를 점하고있다는 결론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로자는 자치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고있는데 그의 론문이 《민족문제와 자치》라는 일반적제목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뽈스까왕국의 특수자치권만을 증명하기 시작한다(이에 관해서는 《계몽》잡지 1913년 제12호의 평론①을 참조). 자치에 대한 뽈스까의 권리를 확증하기 위하여 로자 룩셈부르그는 확실히 경제적, 정치적, 풍습적, 사회학적 특징들에 의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아세아적전제제도》의 개념을 주는 특징들의 총체에 의하여 로씨야의 국가제도를 특징짓고있는것이다.(《사회민주당평론》, 제12호, 137페지)

이러한 종류의 국가제도가 부가장적인 특징과 전자본주의적인 특징들이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상품경제와 계급분화의 발전이 미미할 경우에는 대단히 견고하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만일 국가제도가 특히 전자본주의의 성격을 띠고있는 그런 나라에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는, 민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0권, 28～35페지를 보라.—편집자

족적으로 획분된 지방이 존재한다면 이 자본주의적발전이 급속하면 급속할수록 이 자본주의적발전과 전자본주의국가제도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또 이 선진적인 지방—《현대자본주의적》관계로써가 아니라 《아세아적전제제도》의 관계로써 전체와 련결된 지방—이 전체와 분리되는것은 더 가능한것으로 될것이다.

이와 같이 로자 룩셈부르그는 자산계급적뽈스까와 관련된 로씨야정권의 사회적구조에 관한 문제까지도 극히 애매하게 취급하였으며 또 로씨야민족운동의 구체적-력사적특수성에 관한 문제는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우리는 론하여야 할것이다.

3. 로씨야민족문제의 구체적인 특수성과 로씨야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개혁

《…로씨야에 살고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독일, 오지리, 스위스, 스웨리예, 아메리카 및 오스트랄리아에 살고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순전히 일반적조항인 〈민족자결권〉의 원칙은 신축성있게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사회당들의 어느 하나의 강령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한다. …》(《사회민주당평론》, 제6호, 483페지)

로자 룩셈부르그는 맑스주의강령 제9조를 공격하는 자기 출정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그는 강령의 이 조항을 《순전히 일반적인 조항》으로 우리에게 슬그머니 리해시키려고 하면서 마치 이 조항이 로씨야, 독일 등등에 《확실히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처럼 가소로울 정도로 대담하게 성명함으로써 그자신이 바로 이 과오를 범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로자 룩셈부르그가 자기 론문을 중학생들의 학습에나 쓸 론리적오유집으로 만들기로 결심한것이 명백하다고 대답한다. 왜냐 하면 로자 룩셈부르그의 장광설은 전혀 무의미한것이며 또 문제의 력사적-구체적설정에 대한 조소이기때문이다.

만일 맑스주의적강령을 어린이식으로가 아니라 맑스주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강령이 자산계급민주주의적민족운동에 해당한다는것을 리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물론 이것은 그렇다.) 여기로부터 《명백한것은》 이 강령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조항》 등등으로써 자산계급민주주의적민족운동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는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가 좀더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의 강령이 다만 그러한 민족운동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어내게 되였을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가 이 명백한 사리를 좀더 생각하였더라면 자기가 어떠한 무의미한 말을 하였는가 하는것을 아주 쉬사리 알았을것이다. 《일반적인 조항》을 내놓았다고 우리를 비난하면서 그는 우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민족자결에 관한 조항은 자산계급민주주의적민족운동이 없는 그런 나라들의 강령속에는 없다고 하는 론거를 내놓고있다. 얼마나 총명한 론거인가!

각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의 비교와 또한 각국의 맑스주의적강령의 비교는 맑스주의의 견지에서 볼 때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현대국가들의 공통적인 자본주의적성격이나 그 국가들의 공통적인 발전법칙에 대해서는 하등의 의심도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교는 타당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초보적조건으로 되는것은 비교되는 나라들의 력사적발전의 시대가 비교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다. 례컨대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토지강령을 서구라파의 토지강령과 《비교》할수 있는것은 매우 무식한자들뿐이다(《로씨야사상》175에서 예.뜨루베쯔꾀이공작이 한것과 같은). 왜냐하면 우리의 강령은 서구라파나라들에서는 문제도 되지 않는 자산계급민주주의적토지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고있기때문이다.

이와 꼭같은것을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말할수 있다. 이 문제는 대다수의 서구라파의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여있다.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서구라파나라들의 강령에서 찾는다는것은 우스운 일이다. 여기서 로자 룩셈부르그는 바로 가장 중요한것, 즉 자산계급민주주의적개혁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나라와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와의 차이를 망각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모두 이 차이가운데 있는것이다. 이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것이 또한 로자 룩셈부르그의 장편론문을 무의미하고 내용없고 평범한 구절집으로 만들었다.

서구라파대륙에서는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시대는 어느정도 일정한 기간 즉 대략 1789년으로부터 1871년까지를 포함하고있다. 바로 이 시대가 민족운동과 민족국가형성의 시대였다. 이 시대가 끝난후 서구라파는 자산계급국가, 그리고 대체로는 단일민족국가의 확고한 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자결권을 서구라파사회주의자들의 강령에서 찾는것은 맑스주의의 초보적인 원칙도 리해하지 못하는것을 의미한다.

동구라파와 아세아에서는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시대가 1905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였다. 로씨야, 페르샤, 토이기, 중국의 혁명, 발칸에서의 전쟁 등 이 모든것은 우리 《동방》의 현시대의 세계적사건의 련쇄인것이다. 그리고 오직 소경만이 사건의 이 련쇄속에서 많은 자산계급민주주의적민족운동의 각

성과 민족적으로 독립하고 민족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건립하려는 지향 등을 보지 못한다. 로씨야가 린접되여있는 나라들과 함께 이 시대를 경과하고있다는 바로 그 리유로 그리고 오직 그 리유로써만 민족자결권에 관한 조항이 우리 강령가운데 필요한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로자 룩셈부르그의 상기론문으로부터 좀더 인용하기로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특히는 민족적구성이 아주 복잡한 국가에서 활동하고있으며 또 민족문제가 제1차적역할을 놀고있는 그런 당의 강령 즉 오지리사회민주당의 강령에는 민족자결권에 관한 원칙이 들어있지 않다.》(우와 같은 책)

이와 같이 《특히》 오지리의 실례를 가지고 독자를 납득시키려고 한다. 이 실례가운데 합리적인것이 많은가 어떤가 구체적-력사적관점에서 검토하여보자.

첫째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완수라고 하는 기본적문제를 제기하여보자. 오지리에서는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1848년에 시작되여 1867년에 끝났다. 이때로부터 거의 반세기동안 그곳에서는 대체로 이미 확립된 자산계급헌법이 지배하고있으며 또 이 헌법의 기초우에서 합법적인 로동자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다.

이때문에 오지리의 발전의 내부적조건가운데는(즉 일반적으로는 오지리의 자본주의의 발전, 특수적으로는 오지리의 개별적민족들의 자본주의발전의 관점으로 보아) 민족적독립국가들의 형성이 부산물의 하나로 될수 있는 그러한 비약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없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자기의 비교에 의하여 로씨야가 이 점에서 류사한 조건하에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반력사적가정을 할뿐만아니라 저도

모르게 취소주의에로 전락하고있다.

둘째로, 오지리와 로씨야에 있어서 서로 다른 민족들간의 상호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토론하고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오지리는 다년간 독일인들이 우세를 차지한 국가였을뿐만아니라 오지리의 독일인들은 전체 독일민족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있었다. 로자 룩셈부르그(일반적인것이나 진부한것이나 추상적인것이나…를 그렇게도 싫어하는듯한)도 아마 회상하려 하겠지만 이 《야심》은 1866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분쇄되였던것이다. 오지리에서 지배적민족이던 독일민족은 1871년에 종국적으로 수립된 독립적독일국가의 경계밖에 있게 되였다. 한편 독립적민족국가를 창건하려던 웽그리아인의 기도는 벌써 1849년에 로씨야 농노군대의 공격하에 분쇄되고말았다.

이리하여 아주 특수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즉 웽그리아인들 그후에는 체스꼬인들은 오지리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오지리의 전일성을 보존하려는 바로 그런 경향이 생기였는바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더 략탈적인 강대한 린국에 의하여 민족적독립이 완전히 유린될수도 있기때문이다! 오지리는 이 특수한 사태로 말미암아 두개의 중심을 가진(2원적) 국가로 형성되였고 지금은 세개의 중심을 가진(3원적인 즉 독일인, 웽그리아인, 슬라브인) 국가로 되고있다.

로씨야에 이와 류사한것이 있는가? 가장 심한 민족적압박의 위협하에서 《이민족》들이 대로씨야인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우리 나라에 있는가?

민족자결문제에 관해서 로씨야와 오지리를 비교하는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것이며 진부한것이며 우매한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하다.

민족문제에 있어서 로씨야의 특수한 조건들은 우리가 오지리에서 본것과는 정반대이다. 로씨야는 하나의 민족, 즉 대로씨야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이다. 대로씨야인은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있으며 그 인구는 약 7,000만명에 달한다. 이 민족국가의 특수성은 첫째로 《이민족》들(모두 전 인구의 57%라는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다.)이 변강에 살고있다는것, 둘째로 이 이민족들이 받는 압박이 그들이 린접국가(그것도 구라파의 린접국뿐만이 아니다.)에서 받는것보다 훨씬 심하다는것, 셋째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변강에 살고있는 피압박민족들은 보다 더 민족적독립을 향유하고있는 자기 동족을 국경건너편에 가지고있다는것(로씨야의 서부 및 남부 국경에서 핀란드인, 스웨리예인, 뽈스까인, 우크라이나인, 로므니아인들만을 상기하여도 충분하다.), 넷째로 《이민족》변강지구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일반문화수준이 국가의 중심지방보다 종종 더 높다는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린접한 아세아 각국에서 자산계급혁명과 민족운동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였으며 그것이 이 나라들과 혈연적관계가 있는 로씨야경내의 민족들에게도 부분적으로 만연되고있다는것을 본다.

이와 같이 바로 로씨야에서의 민족문제의 이 력사적-구체적특수성은 현시대에 있어 민족자결권을 인정하는것을 특히 긴절케 한다.

그런데 오지리사회민주당의 강령에는 민족자결권을 인정한것이 없다고 하는 로자 룩셈부르그의 주장은 순 실제적 면에서 보더라도 옳지 않은것이다. 민족강령을 채택한 브륜대회의 회의록을 펼쳐보기만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뽈스까의 두 민족의 오지리사회민주당원들은 자기 민족의 민족적통일과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요구를 자기들의 요구중에 포함시킨다고 한, 전체 우크라이나인(소로씨야인)대표단을 대표

한 소로씨야인사회민주당원 간께위치의 성명(회의록 85페지)과 전체 뽈스까인대표단을 대표한 뽈스까인사회민주당원 레게르의 성명(회의록 108페지)을 볼것이다. 따라서 오지리사회민주당은 자기 강령가운데 민족자결권에 대한 요구를 직접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의 **각개 부분**들에서 민족독립의 요구를 내세운것을 완전히 허용하고있다. 사실상 이것은 물론 민족자결권을 승인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가 오지리를 인증한것은 이와 같이 **모든** 점에 있어서 로자 룩셈부르그자신을 **반대하고**있다.

4. 민족문제에서의 《실제주의》

기회주의자들은 우리 강령의 제9조가 《실제적》인 아무것도 포함하고있지 않다고 하는 로자 룩셈부르그의 론거를 붙잡기에 특히 열중하고있다. 로자 룩셈부르그자신도 자못 이 론거에 매혹되고있다. 우리는 로자 룩셈부르그의 론문에서 때로는 이 《구호》가 한페지에 8차나 반복되고있음을 보게 된다.

제9조는 《무산계급의 일상적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실천적 지시도 주지 않으며 민족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실천적인 해결책도 주지 않는다.》고 로자 룩셈부르그는 쓰고있다.

제9조는 전혀 아무것도 표현하고있지 않는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민족적지향을 지지할것을 책임지우는것이라고 설명하고있는 그의 이 론거를 검토하여보자.

민족문제에 있어서 《실제성》을 요구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모든 민족적지향의 지지를 의미하든가 혹은 매개민족의 분리문제에 대한 《가부》의 대답을 의미하든가 혹은 일반적으로 민족적요구의 직접적인 《실현의 가능성》을 의미할것

이다.

《실제성》에 대한 요구가 가질수 있는 이 세가지 의미를 모두 검토하여보자.

온갖 민족운동의 초기에 있어서 자연히 운동의 령도자(지도자)로 나서게 되는 자산계급은 모든 민족적지향에 대한 지지를 실제적인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에서의 무산계급의 정책은(기타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일정한 방향에 있어서만 자산계급을 지지하는것이지 결코 자산계급의 정책과 일치되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은 오직 민족적평화(자산계급은 이것을 완전히 확립할수 없으며 또 이것은 오직 완전히 민주화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를 위해서만, 평등권을 위해서만, 계급투쟁의 가장 유리한 환경을 위해서만 자산계급을 지지한다. 그렇기때문에 무산자는 자산계급의 실제주의를 반대하여 민족문제에 있어서의 원칙적정책을 내놓으며 언제든지 조건부로써만 자산계급을 지지할뿐이다. 모든 자산계급은 민족문제에 있어서 자기 민족이 특권을 가지거나 혹은 자기 민족이 독립적인 리익을 가질것을 바란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성》이라고 칭한다. 무산계급은 일체의 특권, 일체의 특수성을 반대한다. 무산계급으로부터 《실제주의》를 요구하는것은 자산계급의 뜻대로 행동하여 기회주의에 빠져들어가는것을 의미한다.

매개 민족의 분리문제에 대하여 《가부》의 대답을 줄것인가? 이것은 극히 《실제적인》 요구같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리론적으로는 황당무계한것이고 형이상학적인것이며 실천적으로는 무산계급을 자산계급의 정책에 예속시키는것이다. 자산계급은 항상 자기의 민족적요구를 첫자리에 내세우며 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세운다. 무산계급은 민족적요구가 계급투쟁의 리익에 종속된다고 생각한다. 자산계급민

주주의혁명을 완성하는것이 그 민족의 분리이겠는가 혹은 그 민족이 타민족과 평등한 지위를 달성하는것이겠는가 하는것을 미리 보증하는것은 리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산계급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자기 계급의 발전을 보장하는것이며 자산계급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러한 발전을 저애하고 무산계급의 과업을 《자기》 민족의 과업뒤에 밀어버리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무산계급은 자결권을 승인하는데만, 말하자면 소극적인 요구에만 국한하고 어느 민족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민족을 희생으로 하여 무엇인가를 줄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설사 《실제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있을수 있는 해결방법중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해결을 가장 확실히 보장한다. 무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은 오직 이러한 보장만인데 각 민족의 자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은 타민족의 처지에(어떠한 손해를 주든지)는 관계없이 자기자신의 리익을 보장하는것이다.

자산계급이 가장 관심하고있는것은 이런 요구의 《실현》여부이다. 여기로부터 무산계급을 희생으로 하여 타민족의 자산계급과 결탁하는 변함없는 정책이 나오는것이다. 그런데 무산계급에게 중요한것은 자산계급을 반대해서 자기 계급을 강화하는것이며 철저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는것이다.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설사 이것이 《실제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유일한 보증이며 봉건령주나 민족주의적자산계급과는 달리 최대한의 민족 평등과 평화를 보증하는것이다.

민족문제에서의 무산자의 모든 과업은 각 민족의 민족주의적자산계급의 관점에서는 《비실제적》이다. 왜냐 하면 무산

자는 온갖 민족주의를 적대시하면서 《추상적》평등을 요구하며 사소한 특권일지라도 모두 원칙적으로 배제할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실제주의를 어리벙벙하게 찬미함으로써 기회주의자들에게, 특히 대로씨야민족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적양보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어째서 대로씨야민족주의에 대한 양보인가? 그것은 대로씨야인이 로씨야에서 압박민족이며 민족문제에서는 기회주의가 피압박민족사이에서와 압박민족사이에서 자연히 달리 표현될것이기때문이다.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은 자기들의 요구가 《실제성》에 맞는다는것을 구실로 그의 지향을 무조건 지지할것을 무산계급에게 호소할것이다. 모든 민족의 분리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민족의 분리에 대해서 직접 《가하다》라고 말하는것이 가장 실제적인것이다!

무산계급은 이러한 실제주의를 반대한다. 무산계급은 평등권과 민족국가를 세울데 대한 각 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승인하는 동시에 온갖 민족적요구, 온갖 민족적분리를 로동자들의 계급투쟁의 각도에서 평가함으로써 모든 민족의 무산자들사이의 련합을 가장 높이 평가하며 가장 높은 자리에 놓는것이다. 실제주의의 구호는 사실에 있어서 자산계급의 지향을 덮어놓고 따라가는 구호에 불과하다.

당신들은 민족분리권을 지지함으로써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민족주의를 지지하고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로자 룩셈부르그가 그렇게 말하며 또 기회주의자 쎔꼽스끼가 그의 뒤를 따라 그렇게 반복한다. 말이 난김에 말하거니와 쎔꼽스끼는 취소파신문에서 이 문제에 관한 취소파적사상을 고취한 유일한 대표자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그렇지 않다, 이 문제에서 자산계급에게야말로 《실제적》인 해결이 중요하나 로동자에게는 두 경향을 원칙적으로 구별하는것이 중요하다.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이 압박민족과 투쟁하는 한 우리는 어느때나,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또 누구보다도 결정적으로 그것을 지지한다. 왜냐 하면 우리들은 압박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 철저한 반대자이기때문이다.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이 자기의 자산계급민족주의를 주장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압박민족의 특권이나 폭력을 반대하는 동시에 특권을 요구하는 피압박민족의 지향을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분리에 대한 권리라는 구호를 내세우지 않으며 선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압박민족의 자산계급뿐만아니라 봉건령주나 전제제도의 방조자노릇을 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론거는 카우쯔키가 이미 오래전에 로자 룩셈부르그를 반대하여 내놓았다. 그리고 이 론거는 론쟁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뽈스까의 민족주의적자산계급을 《돕》는것으로 될가 두려워하여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강령안에 있는 분리에 대한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대로씨야 민족흑백단원들을 도와주고있다. 그는 실제에 있어서는 대로씨야인들의 특권(그리고 특권보다 더 나쁜것)과의 기회주의적 타협을 도와주고있다.

뽈스까의 민족주의를 반대하는데 도취되다보니 로자 룩셈부르그는 바로 대로씨야인의 민족주의가 현재 가장 무서운것이며 자산계급적이라기보다도 봉건적이며 민주주의운동과 무산계급투쟁의 주요한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주의를 망각하였던것이다.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민족주의에는 어느것이나 압박을 반대하는 일반민주주의적내용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민족이 민족적특수성에로 나가는 경향을 엄격히

구별하며 유태인을 압박하는 뽈스까자산계급의 경향 등등과 투쟁하는 동시에 바로 이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은 자산자와 소시민의 관점에서는 《비실제적》이다. 이것은 민족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게 실제적이고 원칙적이며 민주주의와 자유와 무산계급의 련합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정책인것이다.

모든 민족에 대해서 분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것이며 온갖 불평등, 온갖 특권, 온갖 특수성을 배제하는 관점에서 분리에 관한 매개 구체적문제를 평가하는것이다.

압박민족의 처지에 대해서 말해보자. 다른 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이 자유로울수 있겠는가? 자유로울수 없다. 대로씨야주민①이 자유를 얻으려면 이러한 압박과 투쟁하여야 한다. 피압박민족운동을 탄압한 장구한 력사, 수백년에 걸친 력사, 이러한 탄압에 대한 상층계급의 체계적인 선전 등은 대로씨야민족자체의 해방의 위업에 대해서 편견 및 기타의 형식으로 큰 장애물을 조성하였다.

대로씨야민족흑백단원들은 이 편견을 의식적으로 지지하며 그것을 선동하고있다. 대로씨야민족자산계급은 이 편견에 타협하고있거나 또는 맞장구를 치고있다. 대로씨야민족무산계급은 이 편견과 꾸준히 투쟁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으며 자유에로의 길을 개척할수 없다.

독립자주적민족국가의 건립은 로씨야에서는 아직은 오직 대로씨야민족 한 민족만의 특권으로 되여있다. 우리들 대로씨

① 빠리에 있는 엘.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비맑스주의적인것으로 보인다. 이 엘.울.은 가소로울 정도로 《superklug》(비꼬아 번역한다면, 《령리한》)한 사람이다. 《령리한》 엘.울.은 우리의 최저강령에서(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주민》, 《민족》 등등의 말을 없애버리라는 연구론문을 쓰려고 하는 모양이다.

야민족무산자는 그 어떠한 특권도 옹호하지 않으며 대로씨야 민족의 특권도 역시 옹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정한 국가를 지반으로 하여 투쟁하며 일정한 국가의 모든 민족의 로동자들을 단결시킨다. 우리는 민족적발전의 이런 또는 저런 길을 보증할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길을 통하여 자기의 계급적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러나 온갖 민족주의와 투쟁하지 않고 각 민족의 평등을 수호하지 않고는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수 없다. 례컨대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를 건립할 운명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미리 알수 없는 천백개의 요인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이 《추측》하려고 하지 않고 의심할 여지 없는 원칙, 즉 그러한 국가를 세울데 대한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견결히 지지하는것이다. 우리는 이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로씨야인의 특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권리를 시인하는 정신으로, 또 어떠한 민족의 국가적특권도 부인하는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한다.

자산계급혁명시기에 모든 나라가 경험한 비약에 있어서는 민족국가를 건립할 권리문제를 둘러싸고 충돌과 투쟁이 일어나는것은 가능하며 또 긍정적인것이다. 우리들 무산자는 미리 자기를 대로씨야인의 특권에 대한 반대자로 선언하며 또 이 방향에서 자기의 모든 선전 및 선동 사업을 하는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실제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대로씨야인무산계급과 타민족무산계급의 주요한 실제적과업, 즉 온갖 국가적-민족적특권을 반대하며 모든 민족이 자기의 민족국가를 건립할 동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일상적 선전 및 선동 과업을 홀시한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업은 민족문제에서의 우리의 주요한(현재에 있어서) 과업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써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리익과 모든 민족의 전체 무산자

의 평등한 련합의 리익을 고수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선전이 대로씨야민족압박자들의 견지에서도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의 견지에서도 《비실제적》이라고 하자(이 량자는 사회민주당의 《애매성》을 비난하면서 가부를 긍정적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바로 이 선전이, 오직 이 선전만이 참으로 민주주의적이며 참으로 사회주의적인 대중교양을 보장한다. 만일 로씨야가 다민족국가로 남아있게 된다면 이러한 선전만이 로씨야에서의 민족적평화의 최대의 가능성을 보장하며, 만일 여러 민족국가로 분리될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선전만이 여러 민족국가에로의 가장 평화적인(그리고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에 해를 끼치지 않는) 분리를 보장한다.

민족문제에서의 유일하게 무산계급적인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족자결》에 대한 대로씨야인 자유주의파의 태도와 또 스웨리예로부터 노르웨이가 분리한 실례를 검토하여보기로 하자.

5. 민족문제에서의 자유주의적자산계급과 사회당적기회주의자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로자 룩셈부르그는 자결권의 인정이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민족주의를 지지하는것과 같다고 하는 론거를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강령을 반대할 때의 자기의 주요한 《주패》의 하나로 간주하고있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말하기를 다른 한편 만일 이 권리를 모든 민족에 대한 온갖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만 리해한다면 강령의 특별한 조항은 필요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사회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온갖 민족적 압제와 불평등을 반대하기때문이라고 한다.

거의 20년전에 카우쯔키가 반박할 여지 없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 첫째 론거는 자기의 민족주의를 남에게 들씌우는것이다. 왜냐 하면 로자 룩셈부르그는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민족주의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실제에 있어서는 대로씨야인의 흑백단적민족주의의 조력군노릇을 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론거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평등의 승인이 분리권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가 혹은 포함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부터의 비겁한 도피인것이다. 만일 포함한다면 그것은 로자 룩셈부르그가 우리 당강령의 제9조가 원칙적으로 정당함을 인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일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민족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도피하거나 회피하는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론거들이나 그와 류사한 모든 론거들에 대한 가장 좋은 검토로 되는것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 각 계급의 태도를 연구하는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맑스주의자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객관적인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이 조항에 대한 각 계급의 호상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때문에 로자 룩셈부르그는 그가 자기의 반대자들에게 무익하게도 들씌우려고 시도한 바로 그 형이상학성, 추상성, 상투적조항, 일반성 등등의 과오를 범하게 되는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로씨야맑스주의자들, 즉 로씨야의 모든 민족의 맑스주의자들의 강령이다. 그렇다고 하여 로씨야지배계급들의 립장을 고찰할 필요는 없겠는가?

《관료층》(부정확한 말을 용서하라)과 련합귀족평의회192의 봉건지주들의 립장은 모두가 아는바이다. 이들은 민족평등도, 자결권도 무조건적으로 부인한다. 그들에게는 농노제도시대에서 취한 낡은 구호, 즉 전제, 정교, 민족이란 구호가 있는데 이 민족이라는 말은 오직 대로씨야민족만을 가리킨다. 우크라

이나인까지도 《이민족》으로 선포하며 심지어 그들의 민족언어에 대하여서까지도 박해를 가하고있다.

정권, 즉 《6월 3일》의 립법 및 행정조직[124]에 참가할—사실 정권에서의 그의 지위는 대단히 보잘것없는것이기는 하나 역시 참가는 참가다.—《사명을 떤》로씨야자산계급을 보기로 하자. 10월당원[125]들이 이 문제에서 사실상 우익의 뒤를 따르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맑스주의자들은 대로씨야의 자유주의적자산계급, 진보당원[167]들 및 립헌민주당원[6]들의 립장에 대해서 아주 적은 주의를 돌리고있다. 그런데 이 립장을 연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자는 민족자결권을 토의함에 있어서 불가피적으로 추상성과 무근거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

작년에 《쁘라우다》지[157]가 《언론》지[110]와 진행한 론쟁은, 《불유쾌》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 대답할것을 외교적으로 회피하는데 있어서 그렇듯 교묘한, 립헌민주당의 이 주요한 기관지로 하여금 약간의 가치있는 승인을 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이 론쟁은 1913년 여름에 리워브에서 개최되였던 전우크라이나학생대회에서 일어났다. 유명한 《우크라이나문제전문가》이며 《언론》지의 우크라이나문제기고자인 모길랸스끼씨는 우크라이나분렬(분리)의 사상, 즉 민족사회주의자 돈쪼브가 주장하였으며 상술한 대회가 찬성한 사상에 대하여 아주 지독한 욕설(《잠꼬대》, 《모험주의》 등등)을 퍼부은 론문을 발표하였다.

신문 《로동자쁘라우다》[157]는 돈쪼브씨의 의견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또 그가 민족사회주의자라는것, 우크라이나의 많은 맑스주의자들이 그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지적하면서도 《언론》의 론조,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언론》의 **원칙적인 문제설정**은 대로씨야인민주주의자 또

는 민주주의자라는 평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례하며 허용될수 없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① 《언론》지가 돈쪼브씨일파를 직접 론박할테면 하라, 그러나 민주주의파로 자처하는 대로씨야인기관지로서 분리의 자유, 분리에 대한 권리를 망각한다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수개월이 지나서 모길랸스끼씨는 《〈언론〉지의 배외주의적 공격을 적절히 비난한〔락인을 찍은것이 아니였던가?〕것은 오직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출판물만이였다.》라는것을 겸하여 지적한 돈쪼브씨의 반박을 리워브의 우크라이나신문 《길》193에서 읽고 《언론》지 제331호에서 《해명》을 하였다. 모길랸스끼씨의 《해명》은 《돈쪼브씨의 해결책에 대한 비판》은 《민족자결권에 대한 부인과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고있지 않다.》고 세번이나 반복한것이였다.

모길랸스끼씨는 이렇게 썼다. 《〈민족자결권〉도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어떤 우상화된것〔들어보라!!〕이 아니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민족들의 불건전한 생활조건이 민족자결문제에 있어서 불건전한 경향을 산생할수 있는데 그런 불건전한 경향을 밝히는것은 민족자결권을 부인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는바와 같이 《우상화된것》을 운운하는 자유주의자의 말은 로자 룩셈부르그의 말과 똑같은것이다. 모길랸스끼씨가 정치적자결권, 즉 분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가 혹은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려고 한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신문 《무산계급쁘라우다》157(1913년 12월 11일부 제4호)는 이 문제를 모길랸스끼씨에게도 립헌민주당에도 직접적으로 제기하였다.②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19권, 260～261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526～528페지—편집자

신문 《언론》은 당시(제340호에서) 이 문제에 대답하는 서명없는 성명 즉 편집부의 공식성명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 귀착된다.

(1) 립헌민주당강령 제11조는 민족들의 《자유로운 문화적 자결의 권리》에 관하여 솔직하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서술하고있다.

(2) 《언론》이 확신하는바에 의하면 《무산계급쁘라우다》는 자결을 분리주의와 즉 이런 또는 저런 민족의 분리와 《여지없이 혼동하고있다》.

(3) 《사실상 립헌민주주의자들은 로씨야로부터의 〈제 민족의 분리〉의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결코 없다.》 (《무산계급쁘라우다》지 1913년 12월 20일부 제12호에 게재된 론문 《민족적자유주의와 민족자결권》을 참조하라.①)

우선 《언론》의 성명의 둘째 점에 주의를 돌리기로 하자. 이것은 《자결》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느니 《애매》하다느니 하는 쎔꼽스끼, 리브만, 유르께위치 및 기타 기회주의자들의 아우성이 사실에 있어서는, 즉 로씨야에서의 각 계급의 호상관계와 계급투쟁의 객관적정세에서 본다면 자유주의적-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말을 단순히 되풀이하는것이라는것을 이들 제씨에게 얼마나 여실히 보여주고있는가!

《무산계급쁘라우다》가 《언론》의 교양있는 《립헌민주주의자》제씨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 즉 (1) 국제민주주의운동의 전 력사에 있어서, 특히 19세기중엽부터 민족자결이란 말이 다름아닌 정치적자결, 독립적민족국가형성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는것을 당신들은 부인하는가? (2) 1896년의 런던국제사회주의자대회의 유명한 결정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0권, 41~43페지를 보라.—편집자

지고있다는것을 당신들은 부인하는가? (3) 일찍 1902년에 민족자결에 관하여 서술할 때 쁠레하노브가 그 말을 바로 정치적자결로 리해하였다는것을 부인하는가 하는 이 세가지 질문을 제기하였을 때 **립헌민주주의자제씨들은 침묵을 지켰던것이다!!**

그들은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답변할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들은 《무산계급쁘라우다》가 무조건적으로 옳다는것을 무언중에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것이다.

《자결》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느니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결을 분립주의와 《여지없이 혼동》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아우성은 문제를 혼란시키며 민주주의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확정된 원칙을 인정할것을 회피하려는 노력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쎔꼽스끼, 리브만 및 유르께위치일파의 제씨들이 그렇게까지 무식하지 않다면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의 말투로 로동자들앞에서 말하는것을 부끄러워할것이다.

그러나 더 앞으로 나가보자. 《무산계급쁘라우다》는 《언론》으로 하여금 《문화적》자결이란 말이 립헌민주당의 강령에서는 바로 **정치적**자결을 **부인**하는 의미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사실상 립헌민주주의자들은 로씨야로부터의 〈제 민족의 분리〉의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결코 없다.》고 하는 《언론》의 이 말을 《무산계급쁘라우다》가 우리 나라 립헌민주주의자들의 《성실성》의 모범으로서 《신시대》와 《서민》194에 소개한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신문 《신시대》는 제13,563호에서 《유태놈》에게 욕설을 퍼붓고 립헌민주주의자들에게 온갖 야유를 퍼부을 기회를 물론 놓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성명

하였다.

《사회민주주의자에게 있어서 현명한 정치적공리로 되여있는것이 〔즉 민족자결권과 민족분리권을 인정하는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심지어 립헌민주주의자들사이에서까지 의견불일치를 야기시키기 시작하고있다.》

립헌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이 《로씨야로부터의 제 민족의 분리의 권리를 옹호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결코 없다.》고 성명함으로써 《신시대》와 원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립장을 취하였던것이다. 이 점에야말로 립헌민주주의자들의 민족적자유주의, 그들과 뿌리슈께위치일파와의 친근성, 그들이 뿌리슈께위치일파에 사상-정치적 및 실천-정치적으로 의존하고있는 기본원칙의 하나가 있다. 《립헌민주주의자제씨는 력사를 배웠고 또한 뿌리슈께위치도배가 〈끌어들이고 내보내지 말라〉[195]는 옛날부터의 권리를 실시한 결과가 실지에 있어서 종종 어떠한—부드럽게 말해서—〈유런적〉행위를 초래하였는가를 잘 알고있다.》고 《무산계급쁘라우다》는 썼다. 립헌민주주의자들은 뿌리슈께위치도배의 무제한한 권력의 봉건적인 근원과 성격을 잘 알면서도 바로 이 계급이 조작한 제 관계와 국계를 지지하는 립장에 전적으로 서있는것이다. 립헌민주주의자제씨들은 이 계급이 조작하고 또는 제정한 제 관계와 국계내에 비구라파적인것과 반구라파적인것이(아세아적인것이—만일 이 말이 일본사람과 중국사람에게 대한 멸시의 부당한 말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싶다.) 얼마나 많은가 하는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한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뿌리슈께위치도배에 대한 순종이며 그들앞에서의 아첨이며 그들의 지위를 동요시킬가봐 겁내는것이며 인민운동과 민주주의운동으로부터 그들을 수호하는것이다. 《이섯

은 사실에 있어서 농노주의 리익에 순종함을 의미하며 또 지배민족의 최악의 민족주의적편견과 부단히 투쟁할 대신에 이 편견에 순종함을 의미한다.》고 《무산계급쁘라우다》는 썼다.

력사를 알며 또 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오늘날 동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반적특징으로 되고있는 민주주의운동, 문명한 자본주의나라들을 모범으로 하여 동구라파와 아세아를 개조하려고 노력하는 민주주의운동이 봉건시대에 의하여, 뿌리슈께위치도배의 무제한한 권력과 광범한 자산계급 및 소자산계급층의 무권리의 시대에 의하여 결정된 국계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남겨둘것이라고는 감히 주장하지 않는다.

《무산계급쁘라우다》와 《언론》과의 론쟁으로 말미암아 제기된 문제는 결코 문헌상의 문제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며 이 문제는 실제상 당면의 정치문제와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증명한 것은 그중에도 1914년 3월 23~25일에 있은 최근의 립헌민주당대표자회의였다. 이 대표자회의에 관한 《언론》(1914년 3월 26일부 제83호)의 공식보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볼수 있다.

《민족문제도 역시 특별히 열렬하게 토의되였다. 끼예브대표들은(엔.웨.네크라쏘브와 아.엠.꼴류바낀은 그들의 의견에 찬동하였다.) 민족문제가 이전보다 더 결정적으로 취급되여야 할 긴절한 일대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이 《그러나》는 쉐드린식의 《그러나》 즉 《귀는 이마보다 높이는 붙지 않는다.》는 식의 《그러나》와 일치하는 그러한 《그러나》이다.〕 에프.에프.꼬꼬슈낀은 강령이나 종래의 정치적경험이 〈제 민족의 정치적자결〉이라는 〈아무렇게나 해석될수 있는 공식〉을 극히 신중히 취급할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립헌민주당대표자회의에서의 이 극히 주목할만한 론의는 모든 맑스주의자와 모든 민주주의자의 큰 주의를 끌만한것이다.

(괄호안에서 지적하려는것은 내막을 아주 익숙히 알고있으며 또 확실히 쁘쁘슈낀씨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옳게 전하고있는 《끼예브사상》196은 쁘쁘슈낀씨가 물론 자기의 반대자에 대한 경고로서 국가《붕괴》의 위험을 특별히 내세웠다는것을 첨부하였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공식보도는 될수 있는대로 내막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또 될수 있는대로 많이 감추도록 교묘한 외교적필치로써 씌여져있다. 그러나 역시 무엇이 립헌민주당대표자회의에서 일어났는가 하는것은 대체로 명백하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잘 아는 대표들인 자유주의적자산자대표들과 《좌익》립헌민주주의자는 바로 민족의 정치적자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것이였다. 그렇지 않다면 쁘쁘슈낀씨가 이 《공식》을 《신중히 취급》할것을 호소할 리유는 없었을것이다.

립헌민주당대표자회의 대표들이 물론 잘 알고있는 립헌민주당의 강령에는 바로 정치적자결이 아니라 《문화적》자결이란것이 있다. 따라서 쁘쁘슈낀씨는 우크라이나대표들과 좌익립헌민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이 강령을 옹호하였고 《정치적》자결을 반대하여 《문화적》자결을 옹호한것이다. 《정치적》자결을 반대하여나서며 《국가붕괴》의 위험을 내세우며 《정치적자결》이란 공식을 《아무렇게나 해석될수 있는》것이라고 함으로써 (로자 룩셈부르그와 꼭같은 취지에서!) 쁘쁘슈낀씨가 립헌민주당의 보다 《좌익적》인 혹은 보다 민주주의적인 분자들과 우크라이나자산계급을 반대하여 대로씨야인의 민족적자유주의를 옹호하였다는것은 아주 명백하다.

《언론》의 보도에 있는 《그러나》라는 변절적어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쁘쁘슈낀씨는 립헌민주당대표자회의에서 승리하였다. 대로씨야인의 민족적자유주의는 립헌민주주의자들사이에서 개가를 올렸다. 이 승리가, 립헌민주주의자들의 뒤를 따라

《제 민족의 정치적자결이라는 아무렇게나 해석될수 있는 공식》을 역시 겁내기 시작한 로씨야맑스주의자중의 우둔한 소수분자들의 두뇌를 명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없겠는가?

《그러나》 끄끄슈낀씨의 사유행정을 본질적으로 고찰하여 보자. 끄끄슈낀씨는 《종래의 정치적경험》(즉 명백히 대로씨야 자산계급이 자기들의 민족적특권에 위협을 느끼고 자기들의 공포로써 립헌민주당을 위협한 1905년의 경험)을 인증하며 《국가붕괴》의 위험을 내세움으로써 정치적자결이 분리와 독립적민족국가건립에 대한 권리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의미할수 없다는것을 그가 잘 리해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 끄끄슈낀씨의 이 위구를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특수적으로는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끄끄슈낀씨는 분리권을 인정하는것이 《국가붕괴》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끌어들이고 내보내지 말라》는것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경찰 미레쪼브의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는 정반대이다. 즉 분리권의 인정은 《국가붕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것이다.

끄끄슈낀씨는 완전히 민족주의자들의 정신으로 론의하고 있다. 민족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최근 대회에서 우크라이나 《마제빠분자》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우크라이나인의 운동은 우크라이나와 로씨야와의 련결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왜냐 하면 오지리는 친우크라이나정책으로 우크라이나인과 오지리인과의 련결을 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라고 싸웬끄씨와 그의 일파는 절규하였다. 그러면 어째서 로씨야는 싸웬끄일파가 오지리를 비난하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말하면 본 민족어를 사용할 자유, 자치를 실행할 자유, 자치적의회를 성립할

자유를 우크라이나인에게 허여하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인들과 로씨야인들과의 련결을 《강화》하여볼수 없는가 하는것은 여전히 알수 없다.

싸웬꼬일파와 끄끄슈낀일파의 론의는 완전히 같은것이며 순 론리적면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가소롭고 황당무계한것이다. 우크라이나민족이 어떤 나라에서 자유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민족과 그 나라와의 련결은 더욱 공고히 되리라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모든 전제를 결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 초보적진리를 부인할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분리의 자유, 독립적인 민족국가건립의 자유보다 더 큰 민족의 자유가 있을수 있겠는가?

자유주의자들(또한 자기들의 몰리해로 하여 그들을 붙좇는자들)에 의하여 혼란된 이 문제를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가장 간단한 례를 들기로 하자. 즉 리혼에 관한 문제를 들기로 하자. 로자 룩셈부르그는 자기 론문에서 중앙집권적민주주의 국가는 개개의 부분의 자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리혼에 관한 립법도 포함한 립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중앙의회의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고 쓰고있다. 민주주의국가의 중앙정권이 리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주의를 돌리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반동파들은 리혼의 자유를 반대하며 그것을 《신중히 취급》할것을 호소하며 또 리혼의 자유는 《가정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웨치고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자들은 반동파들이 사실에 있어서는 경찰과 관료의 전횡, 남성의 특권 및 녀성에 대한 가혹한 압박을 옹호하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고있다는것과 사실에 있어서는 리혼의 자유가 가정관계의 《붕괴》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명사회에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하고 확고한 민주주의적토대우에서 가정관계를 강화함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결의 자유 즉 분리의 자유의 지지자들이 분렬주의를 고취한다고 비난하는것은 리혼의 자유의 지지자들이 가정관계의 파괴를 고취한다고 비난하는것과 똑같이 어리석은짓이며 또한 그것과 똑같이 위선적인짓이다. 자산계급사회에 있어서 리혼의 자유를 반대하고나서는자들이 자산계급적결혼성립의 특권과 매매성을 옹호하는자들인것과 같이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민족자결의 자유, 즉 민족분리의 자유를 부정하는것은 지배민족의 특권과 또 민주주의적통치방법을 짓밟는 경찰식통치방법을 옹호하는것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정치적책동이 가끔 어떤 민족의 분리에 관한 국회의원들과 정론가들의 극히 경솔하며 또 아주 황당무계하기까지 한 공담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오직 반동파들만이 이와 같은 공담에 놀랄수 있다.(혹은 놀란척할수 있다.) 민주주의관점, 즉 주민대중이 국가적문제를 결정한다는 관점에 서있는 사람은 책략가들의 공담으로부터 대중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에는 《막대한 거리》197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주민대중은 일상적생활경험에 의하여 지리적 및 경제적 련계의 의의, 큰 시장과 큰 나라의 우월성을 잘 알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대중은 민족적압박과 민족적알륵이 공동생활을 전혀 견딜수 없는것으로 만들며 온갖 경제적관계를 저애하는 그러한 경우에만 분리의 길로 갈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적발전과 계급투쟁의 자유의 리익은 바로 분리하는자들을 지지할것이다.

이와 같이 ㅍㅍ슈낀씨의 론의를 어떤 면으로부터 취급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황당무계한것이며 또 민주주의원칙에 대한 조소이다. 그러나 이 론의가운데는 일정한 론리가 있다. 그것은 대로씨야자산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의 론리인것이다.

끄끄슈낀씨는 립헌민주당의 대다수와 같이 자산계급의 돈주머니의 충복인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자산계급의 특권을, 특수적으로는 자산계급의 국가적특권을 옹호하며 뿌리슈께위치와 더불어 이 특권을 옹호한다. 그런데 단 한가지 다른것은 뿌리슈께위치는 농노제적곤봉을 더 믿는데 끄끄슈낀일파는 이 곤봉이 1905년의 사변에 의하여 여지없이 꺾어졌다는것을 알고 오히려 대중을 기만하는 자산계급적수단에, 례컨대 《국가붕괴》라는 유령으로써 소시민과 농민을 위협하며 《인민의 자유》와 력사의 토대와의 결합 등등에 관한 공담으로써 그들을 기만하는데 더 기대를 걸고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자들이 민족의 정치적자결의 원칙을 적대시하는 현실적인 계급적의의는 오직 하나뿐인바 그것은 바로 민족적자유주의, 대로씨야자산계급의 국가적특권의 보호이다. 그리고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중에서 바로 오늘날 즉 6월3일체제의 시대에 민족자결권을 극력 반대하는 로씨야기회주의자들, 즉 취소파인 셈팝스끼, 분드파인 리브만, 우크라이나의 소자산자인 유르께위치와 같은자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순전히 민족적자유주의자들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민족적자유주의사상으로 로동계급을 타락시키고있다.

로동계급의 리익 및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의 리익은 모든 민족의 로동자들의 완전한 련대성과 가장 긴밀한 통일을 요구하며 또 어떤 민족의 자산계급임을 물론하고 그들의 민족주의적정책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것을 요구한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사회민주당이 자결권, 즉 피압박민족의 분리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의 모든 민족적요구를 지지하려고 든다면 이것은 모두 무산계급정책의 제 과업으로부터 벗어져나가는것이며 로동자들을 자산계급정책에 종속시키는것으로 될것이다.

임금로동자들에게는 이민족의 자산계급보다 대로씨야자산계급이 로동자에 대한 주되는 착취자로 되든가 혹은 유태인자산계급보다 뽈스까인자산계급이 주되는 착취자로 되든가 하는것은 아무래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계급의 리익을 의식한 임금로동자는 대로씨야인자본가들의 국가적특권에 대해서도, 뽈스까인 혹은 우크라이나인 자본가들의 약속—그들이 국가적특권을 가지게 될 때에는 지상에 극락세계가 나타난다는—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에 있어서나 개개의 민족국가들에 있어서나 여하튼 전진하고있으며 또 계속 전진할것이다.

어쨌든 임금로동자는 착취의 대상인것이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이 착취를 반대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주의로부터 떨어져나오며 패권을 쥐기 위한 각 민족의 자산계급의 투쟁에서 이른바 완전한 중립을 지키는것이 필요하다. 어떤 민족의 무산계급이 《자기》 민족의 자산계급의 특권을 조금이라도 지지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민족의 무산계급의 불신임을 일으킬것이며 로동자들의 국제적인 계급적련대성을 약화시킬것이며 자산계급이 기뻐하게 로동자들을 분렬시킬것이다. 그런데 자결 혹은 분리에 대한 권리의 부인은 실제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지배민족의 특권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게 되는것이다.

우리들은 노르웨이가 스웨리예로부터 분리한 구체적실례를 들어본다면 이 점을 더 명확히 확신할수 있다.

6. 스웨리예로부터의 노르웨이의 분리

로자 룩셈부르그는 바로 이 실례를 들어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론의한다.

《련방관계의 력사에서의 최근의 사건, 즉 스웨리예로부터의 노르웨이의 분리—당시 이 문제는 뽈스까의 사회-애국주의자신문(크라꼬브에서 발행되는 《전진》198을 보라.)에 의해서 인차 국가적분리의 지향의 힘과 진보성의 기뻐할 발현으로서 취급되였다.—는 곧 련방제도와 여기로부터 나오는 국가적분리가 결코 진보성 또는 민주주의의 표현이 아님을 명확하게 증명하여주는것으로 되였다. 스웨리예왕이 페위되여 노르웨이로부터 몰려가게 된 소위 노르웨이〈혁명〉후 노르웨이인들은 국민투표로써 공화국수립초안을 정식으로 부결하고 태연히도 다른 왕을 선출하였다. 온갖 민족운동 및 각종 독립에 대한 천박한 숭배자들이 〈혁명〉이라고 선언한 그것은 농민적 및 소자산계급적 분립주의의 표현이며 또 스웨리예귀족이 강요한 왕 대신에 자기 돈으로써 〈자기의〉 왕을 가지려는 욕망의 표현임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혁명적정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가지지 않는 운동이였다. 이와 동시에 스웨리예-노르웨이련합이 파탄된 이 사실은 그때까지 존재해온 련방이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얼마나 순 왕조적리해관계의 표현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군주주의와 반동의 형태에 불과하였는가를 다시한번 증명하였다.》(《사회민주당평론》)

이것은 로자 룩셈부르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한것을 그대로 적은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가 이 례에서 폭로한것보다 더 뚜렷하게 자기의 연약한 립장을 폭로하기는 어려우리라는것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문제는 자결권 혹은 분리권을 인정하는 강령이 민족구성이 복잡한 국가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에 필요한가 어떤가에 있었고 또 현재도 그렇다.

로자 룩셈부르그자신이 든 노르웨이의 실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우리의 저자는 《전진》지를 반대하여 이리저리 말공부를 하며 총명한체하며 떠들어대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있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문제의 본질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딴것만을 말하고있다!!

노르웨이의 소자산자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민족의 왕을 가지려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공화국수립초안을 파탄시킴으로써 극히 나쁜 소시민적본성을 폭로한것은 의심할바없다. 《전진》지도 비록 그자체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꼭같이 나쁘고 꼭같이 소시민적인 본성을 폭로한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문제는 민족자결권과 이 권리에 대한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의 태도에 달려있는것이 아닌가! 어째서 로자 룩셈부르그는 이 문제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 주위를 빙빙 돌고만 있는가?

쥐에게는 고양이보다 더 사나운 짐승은 없다고 한다.[37] 로자 룩셈부르그에게는 아마도 《프라크파》186보다 더 사나운 짐승은 없는 모양이다. 《뽈스까사회당》, 즉 소위 혁명적분파를 속어로 《프라크파》라고 한다. 그리고 크라꼬브의 신문 《전진》은 이 《분파》의 사상을 가지고있다. 이 《분파》의 민족주의와의 로자 룩셈부르그의 투쟁은 《전진》지외에는 그의 시야로부터 모든것이 사라질 정도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

만일 《전진》지가 《그렇다》고 말하면 로자 룩셈부르그는 즉시 《아니다》라고 선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고있는데 이러한 수단을 취함으로써 자기가 폭로하는것은 《전진》지에 대한 자기의 독립이 아니라 정반대로 《프라크파》에 대한 자기의 가소로운 예속이며 또한 크라꼬브의 개미둑의 관점보다 좀더 깊고 넓은 관점에서 사물을 볼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이라는것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물론 《전진》지는 극히 저렬하며 또 맑스주의적인 기관지는 전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르웨이의 례를 든 이상 그것은 우리들이 이 례를 본질적으로 구명하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을것이다.

이 실례를 맑스주의적으로 구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몹

시 무시무시한 《프라크파》의 악랄한 품성을 론할것이 아니라 첫째로, 노르웨이가 스웨리예로부터 분리한 구체적력사적특성과 둘째로, 이 분리에 있어서 두 나라 무산계급의 과업이 어떠한것이였는가에 대하여 론하여야 한다.

노르웨이를 스웨리예와 접근시키고있는 지리적, 경제적 및 언어적 련계는 대로씨야민족이 아닌 다수의 슬라브민족과 대로씨야인을 접근시키고있는 련계보다 못하지 않게 밀접하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스웨리예와의 련합은 자원적인것이 아니였다. 그렇기때문에 로자 룩셈부르그가 《련방》을 운운하는것은 아무런 리치도 없는것인데 그것은 단지 그가 무엇을 말할지 모르기때문에 하는 말인것이다. 노르웨이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르웨이를 스웨리예에 팔아먹은것은 나뽈레옹전쟁예의 왕들이였으며 또 스웨리예인들은 노르웨이를 자기에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군대를 노르웨이에 진주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노르웨이가 극히 광범한 자치(자기의 의회 등)를 향유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수십년간 노르웨이와 스웨리예간의 알륵은 부단히 존재하였으며 또 노르웨이인들은 전력을 다하여 스웨리예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1905년 8월에 그들은 드디여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즈 노르웨이의회는 스웨리예왕이 금후에는 노르웨이왕이 아니라는것을 결정하였고 그후에 실시된 노르웨이의 국민투표에서 압도적다수(약 20만표 대 수백표)가 스웨리예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에 찬성투표하였다. 스웨리예인들은 약간의 동요가 있은후 분리의 사실을 용인하고말았다.

이 실례는 현대의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민족분리의 사건이 어떠한 토대우에서 가능하며 또 발생하는가 또 분리가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의 환경속에서 가끔 어떠한 형

대를 취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떠한 사회민주주의자도 만일 그가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라고 선언하려하지 않는다면(만일 그렇게 선언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는 벌써 사회민주주의자로 되지 않을것이다.) 민족분리에 기인한 있을수 있는 충돌이 《로씨야식》으로가 아니라 1905년에 노르웨이와 스웨리예간에 해결된것처럼 오직 그렇게 해결되도록 계통적으로 선전하고 준비하는것은 자각적로동자들의 의무라는것을 이 실례가 실제적으로 립증한다는것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족자결권의 인정에 대한 강령적요구에 의하여 표현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그는 노르웨이소시민들의 소시민적근성과 크라꼬브의 《전진》지에 대하여 맹렬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자기의 리론에 불리한 사실을 회피하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는 민족자결권은 《공상》이며 그것은 《황금대접으로 먹을》 권리와 같다는 등의 자기 말을 이 력사적사실이 얼마나 여지없이 반박하고있는가를 잘 리해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 말은 다만 동구라파 제민족간의 현재의 세력관계가 불변하다는 한심한 자기만족적, 기회주의적 신념을 표현하는데 불과하다.

더 앞으로 나아가자. 기타 모든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자결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것은 각 민족내부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자결이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그가 든 노르웨이의 실례에서 이 문제를 구명하는것이 자기의 《리론》에 대하여 얼마나 불리한가를 느끼기때문에 이 문제도 겸손하게 회피하였다.

분리에 기인한 분쟁에 있어서 노르웨이와 스웨리예의 무산계급의 립장은 어떠하였으며 또 어떠하여야 하였는가? 노르

웨이의 각성한 로동자들은 물론 분리후에 공화제①에 찬성투표하였을것이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투표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구라파사회주의운동내에 때로는 우둔하고 소시민적인 기회주의요소가 얼마나 많은가를 증명할따름이다. 이에 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언급하는것은 오직 로자 룩셈부르그가 주제와는 관계없는 공담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말살하려고 시도하기때문이다. 분리의 문제에 관해서 노르웨이의 사회주의강령이 노르웨이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한가지 의견을 견지할 의무를 지웠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자. 즉 노르웨이의 자치가 자유로운 계급투쟁을 위하여 얼마나 충분하였던가 또 스웨리예귀족계급과의 한없는 알륵과 분쟁이 경제생활의 자유를 얼마나 저해하는가 하는 문제를 노르웨이사회주의자들은 미해결문제로 남겨두었다고 하자. 그러나 노르웨이무산계급이 이 귀족계급을 반대하고 노르웨이의 농민적민주주의운동(이 운동의 모든 소시민적제한성에도 불구하고)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스웨리예무산계급은 어떠하였는가? 스웨리예승려들의 지지를 받는 스웨리예지주들이 노르웨이를 반대하는 전쟁을 고취하고있은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또 노르웨이가 스웨리예보다 퍽 약하기때문에 또 노르웨이가 이미 스웨리예의 침입을 맛보았기때문에 또 스웨리예귀족들이 자국내에서 대단히

① 만일 그 당시 노르웨이민족의 대다수가 군주제에 찬성하고 무산계급이 공화제에 찬성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노르웨이무산계급앞에는 두 길이 즉 혁명에 대한 조건이 성숙하였을 경우에는 혁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수에 복종하고 장기간에 걸친 선전선동사업을 하든가 하는 두 길이 놓였을것이다.

큰 세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이러한 고취는 아주 엄중한 위협이였다. 스웨리예의 끄끄슈낀도배가 《제 민족의 정치적자결이라는 아무렇게나 해석될수 있는 공식》을 《신중히 취급할것》을 호소하며 《국가붕괴》의 위협이라는것을 꾸며대며 또 《인민의 자유》와 스웨리예귀족제도의 기초가 상용될수 있다고 설복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또 열심히 스웨리예의 대중을 타락시켰다고 단언할수 있다. 만일 스웨리예사회민주당이 전력을 다하여 지주적인 사상 및 정책 또는 《끄끄슈낀적인》 사상 및 정책과 투쟁하지 않았다면, 또 만일 이 당이 민족평등일반(끄끄슈낀도배도 인정하는)이외에 민족자결권 즉 노르웨이의 분리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았다면 이 당은 사회주의사업과 민주주의사업을 배반한것으로 된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노르웨이와 스웨리예의 로동자들의 긴밀한 련합, 그들의 완전하고 동지적인 계급적련대성은 분리에 대한 노르웨이인들의 권리를 스웨리예로동자들이 승인하였기때문에 얻어진것이였다. 왜냐 하면 노르웨이로동자들은 스웨리예로동자들이 스웨리예민족주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것과 노르웨이무산자와의 형제적련합이 스웨리예로동자들에게는 스웨리예 자산계급과 귀족들의 특권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확신하고있었기때문이다. 구라파 각국의 군주들과 스웨리예귀족들이 노르웨이에 강요하였던 이런 련계의 파괴는 노르웨이로동자와 스웨리예로동자간의 련계를 강화하였다. 스웨리예로동자들은 자산계급정책의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도—노르웨이인들을 스웨리예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또다시 예속시키는것은 자산계급적 제 관계의 토대우에서는 매우 가능한것이였다!—그들이 스웨리예자산계급도 반대하며 노르웨이자산계급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이 두 민족의 로동자들의 완전한 평등과 계급적련대성을 능히 유지,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명백한것은 《프라크파》들이 뽈스까사회민주당을 반대함에 있어서 우리와 로자 룩셈부르그와의 의견차이를 때때로 《리용》하려고 시도하는것이 얼마나 무근거하며 또 그야말로 얼마나 엄숙하지 못한가 하는것이다. 《프라크파》들은 무산계급적당이 아니며 사회주의적당이 아니다. 그들은 소자산계급적민족주의당이며 뽈스까사회혁명당과 비슷한것이다. 이 당과의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어떠한 통일도 운운된적이 결코 없으며 또 운운될수도 없었다. 반대로 어떤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도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과의 접근과 련합에 대해서는 《후회》한 일이 결코 없었다. 민족주의적 지향과 열광으로 완전히 물젖은 뽈스까에서 진정으로 맑스주의적이며 진정으로 무산계급적인 당을 처음으로 창건한 력사적공적은 뽈스까사회민주당에 속한다. 그러나 뽈스까사회민주당의 이 공적이 위대한것은 로자 룩셈부르그가 로씨야의 맑스주의적강령의 제9조에 대하여 무의미한 말을 퍼부었다는 그러한 사정때문인것이 아니라 도리여 이 슬픈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것이다.

뽈스까사회민주당에 대해서는 《자결권》이 물론 로씨야사회민주당에 대해서와 같이 그렇게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지 않다. 민족주의적으로 눈이 어두운 뽈스까소자산계급과의 투쟁이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로 하여금 특별한(가끔 좀 지나친듯한) 열성을 가지고 《극단에 빠지게》 하였다는것은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는 한사람도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이 뽈스까의 분리를 반대한다고 그들을 비난하려고 생각한 일이 결코 없다.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오직 로씨야 맑스주의자들의 강령가운데 있는 자결권을 승인할 필요성을 로자 룩셈부르그처럼 부인하려 하는 그때에만 과오를 범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크라쁘브의 견지에서 리해할수 있는 관계를 대로씨야인도 포함한 로씨야의 모든 민족에 옮기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안팎이 뒤집힌 뾸스까민족주의자》인것을 의미하며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며 국제적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국제적사회민주주의자는 바로 민족자결권의 승인에 립각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자.

7. 1896년의 런던국제대회의 결정

이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대회는 모든 민족의 완전한 자결권(Selbstbestimmungsrecht)을 지지하며 현재 군사적, 민족적 또는 기타의 전제제도의 억압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모든 나라 로동자들에게 동정을 보낸다는것을 선언한다. 대회는 이러한 모든 나라의 로동자들이 전 세계의 자각적인〔Klassenbewußte, 즉 자기 계급의 리익을 자각하는〕 로동자들의 대렬에 가입하며 이들과 함께 국제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국제사회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한다.》①

우리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의 기회주의자들인 쎔꼽스끼, 리브만, 유르께위치제씨는 이 결정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있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그는 그것을 알고있으며 또 그 전문을 인용하고있는데 그가운데는 우리 강령에 있는것과

---

① 독일문으로 공포된 런던대회의 공식적문헌, 즉 《런던국제사회주의로동자 및 직업동맹대회 회의록과 결정(189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Verhandlungen und Beschlüsse des internationalen sozialistischen Arbeiter-und Gewerkschafts-Kongresses zu London, vom 27. Juli bis 1. August 1896》), 1897년 베를린판, 18페지를 보라. 모든 국제대회의 결정들을 수록한 로씨야문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결》로 번역되여있지 않고 《자치》로 오역되여있다.

동일한 표현인 《자결》이란 말이 있다.

그럼 로자 룩셈부르그는 그의 《독창적인》 리론의 길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배제하고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즉…여기서 중심은 결정서의 둘째부분에 있으며…결정서가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오직 오해에 의해서만 그것을 인증할수 있다!!

우리 저자의 무기력과 대혼란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철저한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강령이 선언적성격을 띠고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조항에 대하여 직접 론쟁하기를 비겁하게 회피하는것은 보통 기회주의자들뿐이다. 이번에 로자 룩셈부르그가 셈팝스끼, 리브만 및 유르께위치제씨의 가련한 일파가운데 들어있다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그가 인용한 결정서를 옳은것으로 인정하는가 혹은 잘못된것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성명하기를 주저하고있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결정서의 뒤부분을 읽느라면 그 앞부분을 잊어버리는 독자 또는 런던대회직전에 있은 사회주의적 출판물에서 진행된 론쟁에 관해서 전혀 듣지 못한 독자, 그렇게 세심하지 못하고 철이 들지 못한 독자를 바라기나 하는듯이 말을 회피하거나 본심을 감추거나 한다.

그러나 만일 로자 룩셈부르그가 로씨야의 자각적인 로동자들앞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원칙문제에 관한 국제당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고조차 하지 않고 그 결정을 그렇게도 용이하게 유린하는데 성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로자 룩셈부르그의 관점은 런던대회직전에 있은 론쟁에서—주로 독일맑스주의자들의 잡지 《신시대》에서—표명되였는바 이 관점은 사실상 국제당앞에서 패배를 당하고말았다! 바로 이 점에 로씨야의 독자가 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의

본질이 있다.

당시 론쟁은 뽈스까독립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이 표명되였다:

(1) 《프라크파》들의 관점이다. 그들을 대표하여 헤케르가 나섰다. 그들은 국제당이 뽈스까독립의 요구를 자기의 강령가운데서 인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제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관점은 국제당앞에서 패배를 당하였다.

(2)로자 룩셈부르그의 관점이다. 뽈스까사회주의자들은 뽈스까의 독립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민족자결권의 선언은 전혀 운운될수 없다. 이 관점도 역시 국제당앞에서 패배를 당하였다.

(3) 그 당시 칼 카우쯔키가 로자 룩셈부르그를 반대하고 그의 유물론사상의 극단적《일면성》을 증명하면서 가장 상세하게 발전시킨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카우쯔키는 국제당은 뽈스까의 독립을 자기의 강령으로 지금 내세울수는 없으나 뽈스까사회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요구를 내세우는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민족적압박의 환경속에서 민족적해방의 과업을 무시하는것은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오유이다.

국제당의 결정에는 이 관점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명제들이 표현되여있다. 즉 한면으로는 모든 민족들에 완전한 자결권이 있다는것을 아주 솔직하게 또 어떠한 곡해도 없이 인정하며 다른 한면으로는 로동자들의 계급투쟁의 국제적통일에로 그들을 역시 그만큼 명백하게 호소한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이 아주 옳으며 또 20세기초엽의 동구라파와 아세아 나라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 결정만이, 다름아닌 그 결정의 두 부분을 밀접히 련결시킨 경우에만이 민족문제에서의 무산계급의 계급적정책에 유일하게 정확한 지령을 줄수 있

다고 생각한다.

상술한 세가지 관점을 좀더 상세하게 론하기로 하자.

다 아는바와 같이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뽈스까 독립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것은 전체 서구라파민주주의파에게 더우기 사회민주당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라고 인정하였다. 지난 세기 40년대와 60년대, 즉 오지리 및 독일의 자산계급혁명시대와 로씨야의 《농민개혁》199시대에 있어서는 이 관점은 전적으로 정확하고 유일하게 철저한 민주주의적, 무산계급적 관점이였다. 로씨야와 대다수의 슬라브나라들의 인민대중이 깊은 잠을 자고있었던 동안은, 또 이 나라들에서 자립적인 대중적민주주의운동이 없었던 동안은 뽈스까에서의 귀족해방운동200은 비단 전 로씨야 및 전 슬라브의 민주주의운동의 견지에서뿐아니라 전 구라파의 민주주의운동의 견지에서 보아도 거대한 제1차적의의를 가지고있었다.①

그러나 맑스의 이 관점은 19세기의 제2.3분기 또는 제3.4분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옳은것이였지만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옳지 않은것으로 되였다. 자립적인 민주주의운동들이 그리고 자립적인 무산계급운동조차 대다수의 슬라브나라들에서 심지어는 가장 뒤떨어진 슬라브나라들중의 하나인 로씨야에서까지도 일어났다. 귀족적뽈스까는 소실되고 자본주의뽈스

① 1863년의 뽈스까귀족반란자의 견지 및 전 로씨야적인 혁명적민주주의자 체르느이솁스끼의 견지—그도(맑스와 같이) 뽈스까운동의 의의를 평가할 줄 알았다.—와 또 훨씬 늦게 나타난 우크라이나의 소시민 드라고마노브의 견지—그는 전 로씨야 민주주의파에 대하여 가지는 뽈스까지주들의 투쟁의 의의를 이 지주들에 대한 당연한 증오심으로 인하여 리해못할만치 아직 미개하며 잠을 자고있으며 또 자기의 눈앞의 거름더미만 중시하고있는 농민의 관점을 표현하였다.—를 대비하여보는것은 매우 흥미있는 력사적연구일것이다.(드라고마노브의 《력사적뽈스까와 대로씨야민주주의》를 보라.) 드라고마노브는 후에 이미 민족자유주의자로 된 뻬.베.스뜨루웨씨에게서 열렬한 키스를 받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까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뽈스까는 자기의 특별한 혁명적의의를 상실하지 않을수 없었다.

만일 《뽈스까사회당》(오늘의 《프라크파》들)이 1896년에 다른 시대의 맑스의 관점을 《고착》시키려고 시도하였다는것은 벌써 맑스주의의 정신을 반대하여 맑스주의의 문자를 리용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이 뽈스까소자산계급의 민족주의적열광성을 반대하여나섰으며 민족문제가 뽈스까로동자들에게 있어서 부차적인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지적하였으며 뽈스까에서 처음으로 순 무산계급적당을 창건하였으며 계급투쟁에서 뽈스까로동자와 로씨야로동자가 가장 긴밀한 동맹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가장 중대한 원칙을 선포한것은 완전히 옳은 일이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20세기초엽에 있어서 국제당이 제 민족의 정치적자결의 원칙과 제 민족의 분리에 대한 권리를 동구라파 및 아세아에 대하여 불필요한것으로 인정할수 있었다는것을 의미하였을것인가? 그것은 황당무계한 론조일것이다. 이 황당무계한 론조는(리론적으로는) 토이기, 로씨야, 중국 등 나라들의 제도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개혁을 완성된것으로 인정하는것과 같은것일것이며 또(실천적으로는) 전제제도에 대한 기회주의와 같은것일것이다.

아니다.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시작된 시대, 민족운동의 각성과 첨예화의 시대, 자립적인 무산계급당들이 산생되는 시대의 동구라파와 아세아에 있어서는 이러한 당들의 민족정책상의 과업은 2중적인것이여야 한다. 그 하나는 모든 민족에 대한 자결권의 인정—왜냐 하면 자산계급민주주의적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또 로동자민주주의파는 자유주의적으로가 아니라, 끄꼬슈낀식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정으로 또 충심으로 제 민족의 평등을 옹호하기때문이다.—이고 다음으로는

소여국가의 력사의 어떠한 급변에 있어서나 자산계급에 의한 각 국가들의 어떠한 국경변경에 있어서나 그 국가내에 있는 모든 민족의 무산자의 계급투쟁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고 불가분적인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것이다.

1896년의 국제당의 결정은 바로 이 2중적과업을 규정하고 있다. 1913년의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하기협의회의결정201은 그 원칙적기초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것이다. 이 결정의 제4조에서는 자결권, 즉 분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민족주의에 최대한도의 양보를 《부여》하는듯이(사실상 모든 민족들의 자결권인정에는 최대한도의 민주주의와 최저한도의 민족주의가 있다.) 되여있음에 반하여 제5조에서는 그 어떤 자산계급의 민족주의적구호든 모두 반대하라고 로동자들에게 경고하며 각 민족 로동자들이 국제적으로 유일한 무산계급조직에 통일결속될것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순》을 보는자는, 례컨대 스웨리예와 노르웨이의 무산계급의 통일과 계급적련대성은 노르웨이가 독립국가로 분리되는 자유를 스웨리예로동자들이 고수하였을 때에 어째서 강화되였는가를 리해할 능력이 없는 아주 천박한 두뇌의 소유자들뿐이다.

8. 공상가 칼 맑스와 실천적인 로자 룩셈부르그

로자 룩셈부르그는 폴스까의 독립을 《공상》이라고 선언하고 또 구역질날 정도로 이것을 자주 되풀이하면서 어째서 아일랜드독립의 요구는 제기하지 않는가 하고 비꼬아 부르짖는다.

《실천적인》 로자 룩셈부르그가 아일랜드의 독립문제에 대

하여 칼 맑스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모르고있다는것은 명백하다. 민족적독립에 대한 구체적요구를 어떻게 기회주의적관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맑스주의적관점에서 분석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문제를 론할 필요가 있다.

맑스는 자기가 아는 사회주의자들의 의식과 신념을 검열하면서 그가 말한바와 같이 그들의 《이발을 검사》하는 습관이 있었다. 로빠찐과 알게 된 맑스는 1870년 7월 5일에 엥겔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로씨야의 젊은 사회주의자에 대하여 매우 높이 칭찬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약점은 뽈스까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로빠찐은 영국인이—말하자면 낡은 파의 영국헌장주의자가— 아일랜드에 관하여 말하는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말하고있다.》202

맑스는 압박민족에 속하는 사회주의자에게 피압박민족에 대한 그의 태도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즉시로 지배민족(영국민족과 로씨야민족)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공통적인 결점 즉 피압박민족에 대하여 지는 그들의 사회주의적의무에 대한 몰리해, 《강대국》자산계급으로부터 받은 편견들의 반복을 폭로한다.

아일랜드에 관한 맑스의 적극적성명으로 넘어가기전에 맑스와 엥겔스가 민족문제일반에 대하여 이 문제의 조건적-력사적의의를 평가하면서 엄격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을 말해둘 필요가 있다. 례컨대 엥겔스는 1851년 5월 23일에 맑스에게 쓴 편지에서 력사연구는 자기를 뽈스까에 관하여 비관적결론에 이르게 하며 뽈스까의 의의는 일시적이며 로씨야에서 토지혁명이 있기전까지만이라고 하였다. 력사에 있어서의 뽈스까인들의 역할은 《대담한 맹동이다》. 《뽈스까를 로씨야와 대비하여서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진보를 대표하였다거나

혹은 어떠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고 일순간이라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로씨야에는 《소귀족적인 잠자는 뽈스까》보다 문명, 교육, 공업 및 자산계급적 요소가 더 많다. 《뻬쩨르부르그, 모스크바 및 오데싸에 비한다면 와르샤와와 크라꼬브가 무엇이겠는가!》[203] 엥겔스는 뽈스까귀족들의 폭동의 성공을 믿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진 이 모든 사상은 12년이 지난후에 즉 로씨야는 여전히 잠을 자고있었고 뽈스까는 물끓듯하고있었던 때에 맑스와 엥겔스가 가장 깊고 뜨거운 동정을 가지고 뽈스까운동을 대하는데는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았다.

1864년에 맑스는 국제당의 선언서[204]를 작성하면서 마찌니의 민족주의와 투쟁하게 되였다는것을 엥겔스에게(1864년 11월 4일) 써보냈다. 《선언서에서 국제정책에 언급할 때에 내가 말하는것은 민족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대해서이며 내가 폭로하는것은 차요한 국가들이 아니라 로씨야인것이다.》[205]라고 맑스는 썼다. 맑스는 민족문제가 《로동자문제》에 비하여 종속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맑스의 리론은 민족운동에 대한 무시와는 천양지차가 있다.

1866년이 시작되였다. 맑스는 빠리에 있는 《쁘루동도당》에 관하여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도당은 《민족을 무의미한것으로 선언하고 비스마르크와 가리발디를 공격한다. 배외주의와의 론쟁으로서는 이 전술은 유익하며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쁘루동을 신봉하는자들(이곳에 있는 나의 좋은 벗들인 라파르그와 롱게도 역시 이런자들에 속한다.)이 전체 구라파는 프랑스에 있는 신사제씨가 빈곤과 무지를 없앨때까지 자기 뒤방에 조용히 그리고 온순히 앉아있을수 있으며

또 앉아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가소로운자들이다.》(1866년 6월 7일부 서한)[206]라고 썼다.

맑스는 1866년 6월 20일에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어제 국제당 총무위원회에서는 목전 전쟁문제에 관하여 토론이 진행되였다. … 토론은 예기한바와 같이 〈민족성〉에 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문제에 귀착되였다. … 〈청년프랑스〉의 대표자들(로동자가 아닌)은 온갖 민족성과 민족 그자체가 낡은 편견이라는 관점을 내놓았다. 이것은 쁘루동화한 슈티르네르주의이다. 전 세계는 프랑스인들이 사회혁명을 할만큼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 민족성을 철폐한 우리의 벗 라파르그와 기타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즉 청중의 10분의 9가 모르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한다는것으로부터 내가 자기의 연설을 시작하였을 때 영국인들은 크게 웃었다. 그다음에 나는 라파르그가 무의식적으로 모범적인 프랑스민족이 각 민족을 병탄하는것을 민족성에 대한 부인으로 리해하는것 같다고 암시하였다.》[207]

맑스의 이 모든 비판적지적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명백하다. 즉 로동계급은 민족문제를 우상화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모든 민족을 독립적생활에로 반드시 불러일으키지는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대중적인 민족운동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며 그속의 진보적인것을 지지하기를 거부하는것은 사실상 민족주의적편견에 빠지는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의 민족을 《모범적민족》으로(부언한다면 혹은 국가건립의 특권을 소유한 민족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①

---

① 또 엥겔스에게 보낸 1867년 6월 3일부 맑스의 서한을 참조하라. …《로씨야를 반대하는 빠리사람들의 친뽈스까적인 고함소리를 〈타임스〉지[208]의 빠리통신으로부터 알고 참으로 만족하다. … 쁘루동씨와 그의 조그마한 공론가도당은 프랑스인민이라고 말할수 없다.》[209]

이제는 아일랜드문제로 돌아가기로 하자.

이 문제에 관한 맑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그의 서한들의 발취에서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표현되여있다.

《나는 페니아운동210을 원조하도록 영국로동자들의 시위를 불러일으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이전에는 나는 영국으로부터의 아일랜드의 분리를 불가능한것으로 생각하였다. 지금은 나는 설사 분리후 또 련방을 성립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맑스는 엥겔스에게 보내는 1867년 11월 2일부 서한에서 썼다.211

맑스는 같은 해 11월 30일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첨가하였다.

《우리는 영국로동자들에게 무엇을 권고하여야 하는가? 나의 의견에 의하면 그들은 동맹에서의 Repeal〔분리, 소위 동맹이란 영국과 아일랜드의 동맹이며 동맹으로부터의 분리란 영국으로부터의 아일랜드의 분리〕—간단히 말한다면 오직 민주화된 그리고 지금의 조건에 적합한 1783년의 요구를 자기 강령의 한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아일랜드해방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형태이며 또한 그때문에 영국당의 강령에 채납될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이다. 량국간의 단순한 군합제가 계속 존재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후일에 경험이 반드시 보여줄것이다.…

…아일랜드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것이 필요하다.

1. 자치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2. 토지혁명…》212

맑스는 아일랜드문제를 매우 중시하면서 독일로동자협회에서 이 제목에 대하여 한시간 반에 걸친 보고를 하였다.(1867년 12월 17일부 서한)213

엥겔스는 1868년 11월 20일부 서한에서 《영국로동자들속

에 있는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지적하였고 거의 1년이 경과한후(1869년 10월 24일)에 이 제목에 다시 돌아와 다음과 같이 썼다.

《아일랜드로부터 로씨야까지는 il n'y a qu'un pas (단지 한걸음이 있을뿐이다.)… 만일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예속하였다면 그것이 그 민족에 대하여 얼마나 불행인가를 아일랜드력사의 실례에서 볼수 있다. 영국인들의 모든 비렬성은 그 뿌리를 아일랜드의 경계내에 가지고있다. 크롬웰시대를 나는 더 연구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에게 의심할바없는 것은, 만일 아일랜드에서 군사적으로 지배하며 새로운 귀족을 형성할 필요성이 없었다면 영국에 있어서도 사태가 달리 전환되였으리라는것이다.》

여기서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1869년 8월 18일부 서한을 잠간 지적하기로 하자.

《뽀즈난에서 뽈스까로동자들은 그들의 베를린동지들의 원조의 덕택으로 승리적인 파업을 단행하였다. 〈자본이란 주인〉을 반대하는 이 투쟁은—심지어 그 가장 낮은 형태, 즉 파업의 형태에 있어서도—자산계급나으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평화에 대한 텅 빈 선언보다는 더 철저하게 민족적편견을 청산할것이다.》214

맑스가 국제당에서 아일랜드문제에 대하여 실시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것에서 알수 있다.

1869년 11월 18일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맑스는 국제당 총위원회에서 아일랜드인특사에 대한 영국내각의 태도문제에 관하여 1시간 15분에 걸쳐 연설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제의하였다고 썼다. 즉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아일랜드애국자들을 석방하라는 아일랜드인의 요구에 대

한 자기의 답변에서 글랫스톤씨는 아일랜드민족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고있다.

그가 조건부로 내놓은 정치적특사는 흉악한 정부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나 희생자들이 속해있는 인민에 대해서나 동일하게 모욕적인것이다.

글랫스톤은 일적 자기가 정부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노예소유자들의 폭동을 공개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환영하였는데 현재에 와서는 아일랜드인민에게 소극적으로 복종할데 관한 학설을 설교하기 시작한다.

아일랜드인특사문제에 대한 그의 모든 정책은 글랫스톤씨가 이전에 폭로함으로써 자기의 정적(政敵)인 토리당215내각을 전복하였던 그 〈정복정책〉의 틀림없는 발현인것이다.

국제로동자협회216 총무위원회는 아일랜드인민이 특사를 위한 자기들의 운동을 얼마나 용감하고 견결하게 그리고 숭고하게 수행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자기의 환희를 표시한다.

이 결의문은 구라파 및 아메리카 각국의 국제로동자협회의 모든 지부 및 협회와 련계를 가진 모든 로동자단체에 전달되여야 한다.》218

1869년 12월 10일에 맑스는 국제당 총무위원회에서의 아일랜드문제에 관한 그의 보고가 다음과 같이 구성될것이라고 썼다.

《…〈아일랜드에 대한 공정〉이라고 하는 온갖 〈국제주의적〉 및 〈인도주의적〉 문구와는 전혀 관계없이—왜냐 하면 이것은 국제당총무위원회내에서 자명한것으로 되여있기때문이다.—**영국로동계급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리해관계는 영국로동계급과 아일랜드와의 현재의 관계를 단절시킬것을 요구한다.** 이러한것이 나의 가장 깊은 신념이며 또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영국로동자들자신에게 밝혀줄수 없는 리유들에 근거한

신념이다. 나는 영국로동계급운동의 앙양으로써 능히 아일랜드의 통치제도를 전복할수 있으리라고 오래동안 인정하여왔다. 나는 항상 <뉴욕연단>지217〔맑스가 오래동안 기고한 미국신문〕에서 이 견해를 옹호하였다.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는 나로 하여금 이와 상반되는 신념을 가지게 하였다. 영국로동계급은 그들이 아일랜드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지 못할것이다.**… 국내에 있어서 영국의 반동세력은 아일랜드를 예속시키는데 뿌리를 박고있는것이다.》(고시크체는 맑스의것)218

이제는 독자들에게 아일랜드문제에 관한 맑스의 정책이 아주 명백하게 되였을것이다.

《공상가》 맑스는 반세기가 경과한후에도 실현되지 못한 그런 아일랜드의 분리에 찬성할 정도로 《비실천적》이다.

맑스의 이 정책은 무엇에 의하여 생겼으며 또 그것은 오유가 아니였는가?

최초에 맑스는 아일랜드를 해방할수 있는것은 피압박민족의 민족운동이 아니라 압박민족내부의 로동운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맑스는 오직 로동계급의 승리만이 모든 민족에게 완전한 해방을 줄수 있으리라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결코 민족운동을 절대적인것으로 꾸며내지 않았다.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해방운동과 압박민족내부의 무산계급해방운동간의 모든 가능한 호상관계(현대의 로씨야에서 민족문제를 그렇게 곤난하게 만드는 문제도 바로 그것이다.)를 미리 타산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후에 영국로동계급이 오래동안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에 빠지고 그들의 꼬리로 되였으며 그리하여 자유주의적로동자정책에 의하여 자기의 령도를 상실하게 된 그러한 사태가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자산계급해방운동은 강화되여 혁명적형

태를 취하였다. 맑스는 자기의 견해를 재검토하고 그것을 시정하였다. 《만일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예속한다면 그것은 그자신의 불행이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영국의 로동계급은 해방되지 못한다. 아일랜드의 예속은 영국의 반동세력을 강화하며 양육하고있다. (로씨야에 의한 일련의 민족의 예속이 로씨야의 반동세력을 양육하고있는것과 같이!)

그러므로 맑스는 국제당에서 《아일랜드민족》, 《아일랜드인민》에 대하여 동정을 표시하는 결의문을 제출하면서(현명한 엘.올.은 아마 계급투쟁을 망각하였다고 가련한 맑스를 비난하였을것이다!) 《비록 사태가 분리후 련방을 성립하는데 이른다 할지라도》 영국으로부터의 아일랜드의 분리를 선전하였던것이다.

맑스의 이 결론의 리론적전제는 어떠한것인가?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자산계급혁명이 끝났다. 그러나 아일랜드에서는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영국자유주의자들의 개량이 그것을 끝내고있다. 만일 맑스가 처음에 기대하였던것처럼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그렇게 빨리 전복되였더라면 아일랜드에서는 전 민족적 자산계급민주주의운동이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그 운동이 발생한 이상 맑스는 영국로동자들에게 그것을 지지하며 그것을 혁명적으로 추동하며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그것을 끝까지 수행할것을 권고하였다.

19세기 60년대에 있어서 아일랜드와 영국과의 경제적련계는 로씨야와 뽈스까, 우크라이나 등등과의 련계보다는 물론 더 긴밀하였다. 아일랜드분리의 《비실제성》과 《비실현성》(지리적 제 조건이나 영국의 방대한 식민지위력만으로도)은 확연한것이였다. 맑스는 련방제의 원칙적인 반대자이면서도 이 경

우에 있어서 오직 아일랜드의 해방이 개량주의적방법으로가 아니라 혁명적방법으로, 즉 영국로동계급의 지지를 받은 아일랜드인민대중들의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련방제①도 허용하고있다. 력사적과업의 이러한 해결만이 무산계급의 리익에 부합되고 급속한 사회발전을 촉진하였으리라는것은 아무런 의심도 있을수 없다.

그러나 사태는 다르게 되였다. 아일랜드인민도 영국무산계급도 약하였다. 오늘에 와서야 영국자유주의자들과 아일랜드자산계급과의 가련한 흥정에 의하여 아일랜드문제는 토지개혁(속매금으로써)과 자치(아직은 실시되지 않은)로써 해결되면서 있다(얼스터의 실례는 얼마나 이것이 곤난한가를 보여준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것으로부터 맑스와 엥겔스가 《공상가》들이였으며 그들이 《실현될수 없는》 민족적요구를 제기하였으며 그들이 아일랜드소자산계급적민족주의자들(《피니아》운동의 소자산계급적성격에 대해서는 의심할바없다.)의 영향에 굴복하였다는 등의 결론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 맑스와 엥겔스는 아일랜드문제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는 철저한 무산계급적정책을 실시하였던것이다. 오직 이 정책만이 필요한 개혁을 반세기동안이나 지연시키며 또 자유주의자

① 첨부하여 말하면 어째서 민족《자결》권이란것을 사회민주당의 관점에서 련방제로도, 자치제로도(추상적으로 말하면 이 량자가 다 《자결》이란 개념안에 들기는 하지만) 리해하여서는 안되는가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련방권이라는것은 전혀 무의미한것이다. 왜냐 하면 련방제라는것은 쌍무조약이기때문이다. 맑스주의자들이 결코 일반적으로 련방제의 옹호를 자기 강령속에 넣을수 없다는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자치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맑스주의자들이 옹호하는것은 자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착잡한 민족적구성을 가지며 또 지리적 및 기타 조건들의 엄연한 차이를 가진 민주주의국가의 일반적보편적원칙으로서의 자치 그자체이다. 그렇기때문에 《민족의 자치권리》를 인정하는것은《민족의 련방권리》를 인정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것이다.

들이 반동세력에 잘 보이기 위해 이 개혁을 짓밟는것으로부터 아일랜드도, 영국도 구출할수 있었던것이다.

아일랜드문제에 있어서의 맑스와 엥겔스의 정책은 압박민족들의 무산계급은 민족운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것인가 하는데 대한, 오늘날까지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가장 위대한 표본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및 모든 민족의 속물—그들은 어떤 민족의 시주와 자산계급의 폭력과 특권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들의 국경을 변경하는것을 《공상적》이라고 성급히 인정한다.—들의 《노예적조급성》을 반대할것을 경고하였다.

만일 아일랜드와 영국의 무산계급이 맑스의 정책을 접수하지 않고 아일랜드의 분리를 자기의 구호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들의 최악의 기회주의이며 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임무의 망각이며 영국 반동세력과 자산계급에 대한 양보일것이다.

9. 1903년의 강령과 그 취소파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강령을 채택한 1903년대회187의 회의록은 지금은 극히 희귀한것으로 되여 현대의 로동운동활동가의 대다수는 강령의 매개 조항의 리유를 모르고있다(이에 속하는 문헌의 전부가 합법성을 얻은것은 결코 아닌것만큼 더우기 그렇다. …).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문제에 대한 1903년대회의 토론정황을 구명하는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적해야 할것은 《민족자결권》에 관계되는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문헌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여하튼 이 자결에 관한 권리가 항상 분리에 대한 권리라는 의미로 리해되고있는것은 지금 남아있는 문헌에서 아주 명백히 알수 있다는 사실

이다. 셈꼽스끼일파, 리브만일파 및 유르께위치일파가 이 점을 의심하며 또 제9조를 《불명확하다》느니 어쩌니 하고 선언하는것은 단지 그들이 극단적으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기때문이다. 이미 1902년에 쁠레하노브는 《서광》잡지에서 강령초안에 있는 《자결권》을 옹호하면서 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적이 아닌 이 요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적이다.》라고 썼다.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대로씨야족동포들의 민족적편견에 저촉될가 두려워 민족자결권에 대하여 망각하거나 혹은 그것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무산자는 련합하라!〉는…구호는…우리의 입에서 수치스러운 거짓말로 될것이다.》219라고 쁠레하노브는 썼다.

이것은 이 강령을 옹호하는 기본론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이며 그리고 이 설명이 아주 정확하기때문에 《근본을 잃은》 우리의 강령의 비판자들이 그것을 비겁하게 회피하였으며 또 회피하고있다. 이 조항에 대한 거부는 그것을 어떠한 리유로 가색한다 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는 대로씨야민족주의에 대한 《수치스러운》 양보를 의미한다.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운운되고있는데 어째서 대로씨야민족주의에 대한 양보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대로씨야인들로부터의 분리가 운운되고있기때문이다. 무산자들의 련합의 리익, 그들의 계급적단결의 리익은 제 민족의 분리권을 인정할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쁠레하노브가 12년전에 상술한 인용문내에서 인정한것이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우리의 기회주의자들은 아마 자결문제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황당무계한 말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쁠레하노브가 옹호한 이 강령초안이 승인된 1903년대회에서는 주요사업이 강령위원회에 집중되였었다. 유감스럽게도 강령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항에

관해서는 그 회의록이 있었더라면 특히 흥미있었을것이다. 왜냐 하면 오직 이 위원회에서만 뽈스까사회민주당대표인 와르샵스끼와 가네쯔끼가 자기들의 견해를 옹호하여 《자결권의 인정》에 대하여 론쟁하려고 하였기때문이다. 그들의 론거(즉 와르샵스끼의 연설과 또 그와 가네쯔끼의 성명에서 설명된 론거, 회의록 134~136폐지 및 388~390폐지를 보라.)와 로자 룩셈부르그의 론거 즉 우리가 우에서 분석한 로자 룩셈부르그의 뽈스까어로 된 론문에서 서술된 론거를 비교하기를 원하는 독자는 그들의 론거가 완전히 동일한것을 발견할것이다.

쁠레하노브가 가장 많이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나섰던 제2차대회의 강령위원회는 이 론거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던가? 이 론거들을 무자비하게 조소하였던것이다! 민족자결권의 인정을 취소하라고 로씨야맑스주의자들에게 제의한것이 황당무계하다는것은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이 심지어 대회전원회의에서 자기들의 론거를 감히 되풀이하지 못할만큼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대로씨야인, 유태인, 그루지야인, 아르메니야인 등의 맑스주의자들의 최고회의에서 자기들의 주장이 채택될수 없다는것이 알리였으므로 대회에서 퇴장하고말았다.

이 력사적에피소드는 자기의 강령을 진정으로 관심하고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물론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회의 강령위원회에서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의 론거가 완전히 분쇄되였으며 또 대회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수호하려는 시도를 포기한것은 비상히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로자 룩셈부르그가 이 점에 관하여 1908년의 자기의 론문에서 《겸손하게》 침묵을 지킨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대회에 관하여 회상하는것은 아마도 너무나 불유쾌하였던 모양이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강령 제9조를 《수정》하자는 가소롭기 짝이 없는

출렬한 제의 즉 1903년에 와르샤스끼와 가네쯔끼가 전체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의 이름으로 제의하였으며 또 로자 룩셈부르그도, 기타 뽈스까사회민주당원들도 감히 되풀이하려 하지 못한 (또 지금도 되풀이하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의에 관하여서도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그러나 만일 로자 룩셈부르그가 1903년의 자기의 패배를 은폐하면서 이 사실들에 관하여 침묵을 지켰댔자 자기 당의 력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알며 그 의의를 깊이 생각하려고 고심할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의 친우들은 1903년의 대회에서 퇴장하면서 대회에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우리는 강령초안 제7조(지금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즉 제7조, **국가의 성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민족에 대하여 문화적발전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여주는 시설**로 시정할것을 제의한다.》(회의록 390페지)

이와 같이 당시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은 본질에 있어서 악명높은 《민족문화자치》의 별명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닌것을 자결 **대신**으로 제의할만큼 민족문제에 관하여 애매한 견해를 가지고나섰던것이다!

이것은 거의 믿을수 없는것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이다. 바로 그 대회에서는 비록 (꼬스뜨로브의 발언권을 계산치 않고) 5표를 가진 5명의 분드파와 6표를 가진 3명의 깝까즈인이 거기에 있었지만 자결에 관한 조항의 **삭제**에 찬성한것은 **한표도** 없었다. 이 조항에 《민족문화자치》를 보충하는데 대하여 찬성을 표시한것은 3표였으며(《모든 민족에 대하여 문화적발전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여주는 시설의 창설》이란 골드블라트의 조항에 찬성하여) 또 리베르의 조항(《제 민족의 문화적발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찬성한것은 4표였다.

로씨야의 자유주의자당, 즉 립헌민주당이 나타난 오늘날 우리는 립헌민주당의 강령가운데서는 제 민족의 정치적자결이 《문화적자결》로 바뀌여져있는것을 안다. 따라서 로자 룩셈부르그의 뿔스까친우들은 뿔스까사회당의 민족주의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투쟁하였던지》 맑스주의적강령을 자유주의적강령으로 바꿀것을 제의하였던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여기서 우리의 강령을 기회주의적강령이라고 비난하였던것이다.—이 비난이 제2차대회의 강령위원회에서 단지 웃음거리로 된것이 이상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민족자결》을 반대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던 제2차대회의 대표자들은 《자결》이란것을 어떤 의미로 리해하였던가?

이에 관하여는 회의록으로부터 발취한 다음의 세구절이 증명하여준다.

《마르띄노브는 〈자결〉이란 말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이 말은 오직 개개의 정치적단일체에로의 분립에 대한 제 민족의 권리만을 의미할뿐이며 결코 지방적자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171페지). 마르띄노브는 로자 룩셈부르그의 친우들의 론거가 반박과 조소를 받은 그 강령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이였다. 그 견해에 있어서 마르띄노브는 당시 경제주의자였으며 《이스크라》85의 맹렬한 반대자였다. 그리고 만일 그가 강령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은 의견을 발표하였더라면 물론 그는 반박을 당하였을것이다.

분드파인 골드블라트는 위원회의 사업이 끝난후 대회에서 강령 제8조(지금의 제9조)가 토의되였을 때 제일 먼저 발언하였다.

골드블라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결권〉에 대하여는 아무것

도 반대할수 없다. 만일 어떤 민족이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경우에 이것을 반대하여서는 안된다. 쁠레하노브가 말한바와 같이 만일 뽈스까가 로씨야와 정식으로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뽈스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나는 이 범위내에서 그러한 의견에 찬성한다.》(175~176페지)

쁠레하노브는 대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이 조항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았다. 골드블라트는 《자결권》이 분리에 대한 권리라는 의미로 상세하고 통속적으로 설명되였던 강령위원회에서 쁠레하노브가 한 말을 인용하고있다. 골드블라트다음에 발언한 리베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물론 어떤 민족이 로씨야의 경계내에서 살수 없다면 당은 그 민족을 방해하지 않을것이다.》(176페지)

독자가 보는바와 같이 강령을 채택한 제2차당대회에서는 자결이 《다만》 분리에 대한 권리만을 의미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두가지 의견이 없었다. 심지어 분드파까지도 당시 이 진리를 알고있었다. 그런데 반혁명이 계속되고 온갖 《변절》이 횡행하는 이 참담한 시기에 있어서만 강령을 《불명확》하다고 선언한, 무식한 점에서 대담한 인간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참한 《명색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하여 시간을 허비하기전에 강령에 대한 뽈스까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기로 하자.

그들은 통일이 필요하며 긴급하다는 성명을 가지고 제2차(1903년)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강령위원회에서 《실패》한후 대회에서 퇴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말은 서면으로 된 성명이였는데 그것은 대회회의록에 기록되였다. 그것은 자결을 민족문화자치로 바꾸자는 상술한 제의를 내용으로 한것이였다.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은 1906년에 당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당에 들어오면서도 또 가입한후에도 한번도(1907년의 대회에서도, 1907년과 1908년의 대표자회의들에서도, 1910년의 중앙전원회의에서도) 로씨야의 당강령 제9조를 수정하자는 단 하나의 제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언사와 확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하여주는것은 로자 룩셈부르그의 친우들이 제2차대회의 강령위원회에서 론쟁된 문제와 이 대회의 결정을 충분한것으로 인정하였다는것, 그리고 그들이 1903년에 대회로부터 퇴장한후 강령 제9조의 수정문제를 당적방법으로 제기하려고 한번도 시도하지 않고서 1906년에 당에 가입하였을 때에 침묵으로 자기의 오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였다는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의 론문은 그의 서명으로써 1908년에 발표되였는데—물론 한사람도 강령비판에 대한 당문필가들의 권리를 부인하려고 생각한적이 한번도 없다.—이 론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역시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의 어느 정식적기관도 제9조수정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뜨로쯔끼가 《투쟁》잡지176 편집부의 명의로 제2호(1914년 3월)에 다음과 같이 쓴것은 로자 룩셈부르그의 몇몇 숭배자들에 대한 참으로 부질없는 곰의 봉사220였다. 즉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은 〈민족자결권〉을 완전히 정치적내용이 없고 당강령에서 마땅히 삭제해야 할것으로 인정하고있다.》(25페지)

남에게 봉사하기를 즐기는 뜨로쯔끼는 적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는 《뽈스까맑스주의자》일반을 로자 룩셈부르그의 매개 론문의 지지자로 치부하기 위한 론거를 《개인적담화》(즉

간단히 말하면 뜨로쯔끼가 언제나 시간을 보내는 그 잡담)이외에는 어디로부터도 빌려올수 없었다. 뜨로쯔끼는 《뿔스까맑스주의자》들을 절개도, 량심도 없고 심지어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 당의 강령마저도 존중할줄 모르는 인간으로 묘사하였다. 남에게 봉사하기를 즐기는 뜨로쯔끼다!

1903년에 뿔스까맑스주의자의 대표들이 자결권때문에 제2차대회에서 퇴장하였던 그때에는 뜨로쯔끼는 그들이 이 자결권을 내용이 없고 강령에서 마땅히 삭제해야 할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말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후 뿔스까맑스주의자들은 그런 강령을 가진 당에 다시 가입하였으며 또 한번도 당강령을 수정하자는 제의를 내놓지 않았다.①

어째서 뜨로쯔끼는 자기 잡지의 독자들앞에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오직 취소파를 반대하는 뿔스까인 및 로씨야인사이의 의견차이가 격화되고있는 틈을 타서 강령문제에 대하여 로씨야로동자들을 기만하는것이 그에게 유리하였기때문이다.

뜨로쯔끼는 맑스주의의 어느 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항상 어떠한 의견차이의 《틈서리속으로 기여들어가며》 또 한편으로부터 다른 편으로 달아나면서 단 한번도 확고한 견해를 가져본 일이 없다. 지금은 그는 분드파 및 취소파측에 끼여있

---

①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1913년 여름회의에 뿔스까맑스주의자들은 다만 발언권만 가지고 참가하였고 자결권(분리권)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투표하지 않았으며 발언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반대하였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있었고 또 여전히 뿔스까에서 뿔스까의 분리를 반대하여 선동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뜨로쯔끼가 말하는것과 꼭 같은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제9조를 《당강령에서 삭제할것》을 뿔스까맑스주의자들은 요구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다. 그런데 이 신사들은 당에 대하여 사정을 두지 않는다.

분드파인 리브만의 말을 들어보라.

이 신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이 15년전에 자기 당강령에서 각 민족의 〈자결권〉에 관한 조항을 내세웠을 때에 모든 사람은 〔!!〕 이 류행적〔!!〕언사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자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하였다.〔!!〕 이 같은 애매한채로 그냥 남아있었다.〔!!〕 사실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 애매한 점을 해명하기는 곤난하였다. 이 조항을 구체화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은 이 조항을 애매한채로 그냥 내버려두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말하였다. 실생활자체가 어떠한 내용을 이 조항속에 넣을것인가를 보여줄것이다.》

당강령을 조롱하는 이 《막된 소년》221이 참 훌륭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어째서 조롱하는가?

그것은 그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심지어 당력사도 읽어보지 못했고 당과 당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벌거숭이로 되여가지고도 《례사》로 부끄럼을 타지 않는 취소파속에 아주 떨어진 판무식쟁이기때문이다.

뽀말롭스끼의 소설에서는 한 신학교학생이 《배추가 들어있는 통속에 침을 뱉았다.》는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있다. 그런데 분드파제씨들은 이보다도 더 나갔다. 그들은 리브만일파를 내놓아서 이 신사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자신의 통속에 침을 뱉도록 하고있다. 국제대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채택하였다는것 또 자기 당의 대회에서 분드파자신의 두 대표(얼마나 《가혹한》 《이스크라파》의 비판자들이였으며 철저한 반대자였던가!)가 《자결》에 대한 의미를 리해할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표시하였으며 심지어 《자결》에 동의까지 하였다는것 등의 이 모든 사실이 리브만일파의 제씨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리고 만일 《당의 정론가》들(롱담마시오!)이 당의 력사와 당의 강령을 신학교학생식으로 취급한다면 당을 취소하는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또 둘째번의 《막된 소년》이 있다. 그것은 즉 《종소리》잡지222의 유르께위치씨이다. 유르께위치씨는 제2차대회의 회의록을 아마 자기 수중에 가지고있은것 같다. 왜냐 하면 그가 쁠레하노브의 말, 즉 골드블라트가 되풀이한 말을 인용하고있으며 또 자결이 분리권만을 의미할수 있을뿐이라는것을 알고있다는것을 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이 로씨야의 《국가의 완정성》(1913년 제7~8호합간, 83페지 및 기타)을 지지하고있다는 로씨야맑스주의자들에 대한 비방을 우크라이나소자산계급사이에 전파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유르께위치일파의 제씨는 우크라이나민주주의파와 대로씨야민주주의파를 리간시키기 위해서 이 비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물론 생각해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리간책은 우크라이나의 로동자들을 **독자적인** 민족적단체로 **분리시키는**것을 설교하는 《종소리》잡지의 문필가집단의 전반 정책의 로선과 일치하고있는것이다!①

무산계급을 분리시키고있는—바로 이러한것이 《종소리》잡지의 객관적역할이다.—민족주의적시정배집단에 있어서는 민족문제에 대하여 한심한 혼란을 전파시키는것쯤은 물론 아주 합당하였던것이다. 유르께위치일파와 리브만일파의 제씨—그들을 《당주변에 있는자들》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몹시》 노한다.—가 **그들은** 강령에서 어떻게 분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한마디도, 문자그대로 한마디도 말하지

---

① 특히 데윈스끼씨의 저서 《갈리찌야에서의 우크라이나로동운동발전의 략사》(《Нарис розвитку украiнського робiтничого руху в Галичинi》)에 대한 유르께위치의 1914년 끼예브판 서문을 보라.

않았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또 세번째의 주요한 《막된 소년》인 쎔꼽스끼씨가 있는데 그는 취소파신문을 통하여 대로씨야인대중앞에서 강령 제9조를 《욕설》한 동시에 《그 어떤 약간의 리유로 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성명하고 있다!!

믿기 어려운 일이나 그것은 사실이다.

1912년 8월에 취소파의 대표자회의173는 민족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1년 반동안에 제9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쎔꼽스끼씨의 론문이외에는 단 하나의 론문도 없었다. 그리고 이 론문에서 필자는 당강령을 수정하자는 제의를 《그 어떤 약간의 〔말못할 병에라도 걸렸는가?〕 리유로 하여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강령을 반박하고있다!! 이와 같은 기회주의의 실례, 아니 기회주의보다 더 나쁜, 당에 대한 부인과 당에 대한 취소의 실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리라고 단언할수 있다.

쎔꼽스끼씨의 론거가 어떠한것인가는 다음의 한가지 실례를 들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만일 뽈스까무산계급이 한 나라의 범위내에서 전체 로씨야무산계급과 함께 투쟁하기를 원하며 그와 반대로 뽈스까사회의 반동계급들은 뽈스까를 로씨야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고 국민투표(국민의 공정한 결정)에서 분리에 찬성하는 다수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즉 우리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은 중앙의회에서 우리의 뽈스까동지들과 함께 분리에 반대투표하여야 할것인가 혹은 〈자결권〉을 유린하지 않기 위하여 분리에 찬성투표하여야 할것인가?》(《신로동자》166, 제71호)

이로부터 명백한바와 같이 쎔꼽스끼씨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것조차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분리권은 바로 중앙의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분리하려고 하는 지방의 의회(의회나 국민투표 등등)에 의하여서만 해결된다는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뿌리슈께위치도배도, ㅍㅍ슈낀도배도 분리에 대한 사상조차 범죄적인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 만일 민주주의제도하에서 다수가 반동파에게 찬성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하는 유치한 의혹으로써 현실적인, 진정한, 생기있는 정책의 문제가 엄폐되고있다! 아마도 전 로씨야의 무산계급들은 오늘날 뿌리슈께위치도배 및 ㅍㅍ슈낀도배와 투쟁할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쳐놓고 뾸스까의 반동계급들과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이렇듯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의론을 취소파기관지에다 쓰고들 있는데 이 기관지의 사상적지도자의 한사람은 엘.마르또브씨이다. 이 엘.마르또브야말로 강령초안을 작성하였고 1903년에 그것을 애써 통과시킨 사람이며 또 그후에 분리의 자유를 옹호하여 글을 쓴 사람이다. 엘.마르또브는 지금 보건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론의하고있는 모양이다.

> 거기에는 현자가 필요없소,
> 당신들은 레아드를 보내시오,
> 그러면 나는 보겠소.223

그는 레아드-쎔꼽스끼를 보내여 일간신문을 통하여 우리의 당강령을 모르는 새 독자층앞에서 당강령을 외곡하며 끝없는 혼란을 조성하는것을 허용하고있는것이다!

사실 그렇다, 취소파는 너무도 멀리 달아났다.—아주 많은 유명한 이전사회민주당원들까지도 당성이라고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였다.

물론 로자 룩셈부르그를 리브만도배, 유르께위치도배, 쎔

팜스끼도배와 동일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로자 룩셈부르그의 오유에 매여달렸다는 사실은 그가 어떠한 기회주의에 빠지고말았는가를 특히 명백하게 증명하여준다.

10. 결　론

총결을 하기로 하자.

맑스주의적리론일반의 관점에서는 자결권문제에는 곤난한 점이 없다. 1896년의 련던대회결정에 관한 론쟁에 대해서도, 자결권이란 분리권만을 의미한다는데 대해서도, 독립적민족국가의 형성이 모든 자산계급민주주의적변혁의 지향이라는데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로 될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곤난을 조성하고있는것은 로씨야에서 피압박민족들의 무산계급과 압박민족의 무산계급이 어깨겯고 싸우고있으며 또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통일을 고수하며 모든 자산계급적 및 흑백단적 민족주의의 영향에 반격을 가하는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피압박민족들속에서 무산계급이 따로 독립적당을 가지는것은 때때로 그 민족의 민족주의와의 매우 치렬한 투쟁을 초래하는바 이로 말미암아 방향이 전이되고 압박민족의 민족주의가 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전이는 일시적일따름이다. 각 민족 무산자의 공동투쟁의 경험은 우리가 정치문제를 《크라꼬브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 로씨야적 관점에서 제기하여야 한다는것을 너무도 명백히 가르쳐준다. 그런데 전 로씨야적 정치에 있어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것은 뿌리슈께위치도배와 끄끄슈낀도배이다. 그들의 사상이 지배적지위에 있으며 《분립

주의》와 분리에 관한 사상을 가진 이민족에 대한 그들의 박해는 국회, 학교, 교회, 병영 및 수백수천의 신문지상에서 설교되고있으며 또 실행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대로씨야적인 민족주의의 독소는 전 로씨야의 정치적분위기를 중독시키고있다. 타민족을 노예화함으로써 전 로씨야에서 반동세력을 강화하고있는 민족은 불행하다. 1849년 및 1863년에 대한 회상은 생생한 정치적전통을 이루고있다. 이 전통은 만일 큰 폭풍이 일지 않는다면 아직 수십년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온갖 민주주의운동과 특히 사회민주주의운동을 곤난케 할 위험이 있다.

피압박민족(이들의 《불행》은 종종 《자기》 민족의 해방의 사상으로 인민대중을 현혹케 하는데 있다.)의 약간의 맑스주의자의 견해가 때때로 당연한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로씨야에서의 계급적력량들의 객관적인 호상관계로 보아 자결권의 옹호에 대한 거부가 극악한 기회주의와 동일하며 무산계급에게 끄끄슈낀도배의 사상을 감염시키는것과 동일하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끄끄슈낀도배의 사상이란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뿌리슈께위치도배의 사상이며 정책이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로자 룩셈부르그의 관점이 처음에는 뽈스까나 《크라끄브》에 특유한 협애성①으로서 용서될수 있었다면 민족주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로씨야적민족주의가 도처에서 성행되고있으며 또 이 민족주의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협애성은 벌써

① 전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에 의한 그리고 무엇보다도먼저 대로씨야인 맑스주의자들에 의한 제 민족의 분리권의 인정이 어떤 피압박민족의 맑스주의자들이 분리를 반대하여 선동하는것을 조금도 제외하지 않는다는것은 리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것이 어느 경우에 리혼을 반대하여 선동하는것을 제외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서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쎔꼽스끼와 뜨로쯔끼가 지금 《선동》은 하고있으나 현존하지 않는 《모순》에 대하여 조소하게 될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의 수가 불가피적으로 증가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용서될수 없는것으로 된다. 사실 이 협애한 관점에 매달리고 있는것은 《폭풍》과 《비약》의 사상을 부인하며 자산계급민주주의적혁명을 이미 끝난것으로 인정하며 표교슈낀도배의 자유주의에 기울어지고있는 모든 민족들의 기회주의자들이다.

대로씨야민족주의는 일체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산계급국가에서 이런 또는 저런 계급이 지배함에 따라서 각이한 계단을 경과하고있다. 1905년까지는 우리는 거의 민족주의적 반동파들만을 알고있었다. 혁명후에는 민족주의적자유주의파가 생겨났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는 10월당원들도 립헌민주당원들(표교슈낀)도 즉 현대자산계급전체가 이 립장에 서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로씨야인의 민족주의적민주주의파가 나올것은 불가피적인것이다. 《인민사회》당[224]의 창건자의 한사람인 베쉐호노브씨는 잡지 《로씨야의 부》[89] 1906년 8월호에서 농민의 민족주의적편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벌써 이 관점을 표명하였다. 농민을 《리상화》한다고 우리 볼쉐위크들을 아무리 비방하더라도 우리는 농민적리성과 농민적편견을, 또 뿌리슈께위치를 반대하는 농민적민주주의와 승려 및 지주와 타협하려는 농민적경향을 항상 엄격히 구별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엄격히 구별할것이다.

무산계급민주주의자는 대로씨야인농민의 민족주의를 (양보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투쟁의 의미에서) 지금도 고려하여야 할뿐아니라 아마도 상당히 오래동안 고려하여야 할것이다.①

---

① 례컨대 뽈스까에서의 민족주의가 귀족적민족주의로부터 자산계급적민족주의에로 또 그후에는 농민적민족주의에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것은 흥미있는 일일것이다. 루드위히 베른하르드는 자기의 저서 《프로씨아에서의 뽈스까인들》(《Das polnische Gemeinwesen im preußischen Staat》, 로문역본이 있음)에서 자신이 독일 표교슈낀의 관점에 립각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아주 특징적인 현상을 서술하고

1905년후 그렇게도 강하게 나타난 피압박민족들속에서의 민족주의의 각성은(례하면 제1차국회에서의 《자치주의적련방주의자》들의 단체, 우크라이나운동의 장성, 회교도운동의 장성 등등만이라도 상기해보라.) 불가피적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대로씨야인의 소자산계급민족주의를 강화하게 될것이다. 로씨야민주주의적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면 될수록 각 민족의 자산계급적 민족압박과 분쟁은 더 심하고 란폭하고 잔혹하게 될것이다. 이에 있어서 로씨야의 뿌리슈께위치도배의 특별한 반동성은 린접국가들에서 종종 훨씬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있는 어떤 피압박민족들속에서 《분립주의적》경향을 산생(그리고 강화)시킬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로씨야무산계급에게 다음과 같은 2중적인 또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2면적인 과업을 제기한다. 즉 온갖 민족주의와 그리고 제일 먼저 대로씨야인민족주의와 투쟁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들의 완전한 평등권뿐만아니라 국가건립에 대한 평등권, 다시말하면 민족자결권, 민족분리권도 인정하는것이며 이와 아울러 또 모든 민족의 일체 민족주의와 성공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민족적분립에 대한 자산계급적경향을 반대하여 무산계급의 투쟁과 무산계급조직들을 통일시키고 이 조직들을 국제적통일체로 가장 긴밀히 결합시킬것을 고수

있다. 독일에서는 민족과 종교와 《뾜스까》토지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뾜스까농민들의 각종 협동조합과 기타 단체들이 긴밀히 결합하는 형태로서 뾜스까인들의 일종의 《농민공화국》이 수립되였다는것이다. 독일인의 압박은 뾜스까인들을 결합시켰으며 그들을 단독적단체로 되게 하였고 처음에는 뾜스까귀족들의 민족주의를, 다음에는 뾜스까자산자들의 민족주의를, 마지막에는 뾜스까농민대중의 민족주의(특히 1873년에 독일인들이 학교에서 뾜스까어를 교수하는것을 반대하기 시작한후에)를 발생시켰다. 로씨야에서도 사태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것은 뾜스까 하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하는것이다.

제 민족의 완전한 평등권, 제 민족의 자결권, 모든 민족의 로동자들의 결합—맑스주의와 전 세계의 경험 및 로씨야의 경험은 이러한 민족강령을 로동자들에게 가르쳐준다.

본 론문의 식자가 이미 끝난후 나는 모든 민족에 대한 자결권의 인정에 관하여 울.꼬쏩스끼씨가 다음과 같이 쓴 《우리의 로동자신문》166 제3호를 받았다.

《제1차당대회(1898년)의 결정서에서 기계적으로 옮기여진—제1차당대회는 또 국제사회주의자대회들의 결정에서 차용하였지만—이 조항은 당시의 론쟁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1903년의 대회에서는 사회주의국제당이 부여한것과 같은 의미에서 즉 정치적자결, 다시말하면 정치적독립의 방향에서의 민족자결의 의미로 리해되였다. 이와 같이 민족자결에 대한 정의는 령토적분리권을 의미하는만큼 현존국가로부터 떨어져나갈수 없거나 혹은 떨어져나갈것을 원치 않는 민족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구내부에서 민족적관계를 어떻게 조정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론하고있지 않다.》

이로부터 명백한것은 울.꼬쏩스끼씨가 1903년의 제2차대회의 회의록을 자기 수중에 가지고있었고 자결이란 이 개념의 진실한(그리고 유일한) 함의를 명백히 알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을 분드파신문 《시보》225의 편집부가 리브만씨를 시켜 강령을 조롱케 하고 이 강령을 불명확한것으로 선언케 한 사실과 대비해보라!! 분드파제씨들의 《당적》풍습은 얼마나 기괴한것인가… 어째서 꼬쏩스끼가 대회에서 채택된 자결에 관한 조항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은것이라고 선언하는가 하는것은 《알라의 신만이 알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어째서, 무슨 목적으로 반대하는가 하는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반박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다.

1914년 2~5월에 집필

1914년 4~6월에 잡지 《계몽》 제4, 5, 6호에 수록

서명: 웨.일리인

잡지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0권, 395~457페지

전쟁과 로씨야사회민주당[226]

각국의 정부와 자산계급정당들이 수십년동안 준비해온 구라파전쟁은 폭발하였다. 선진국가들의 자본주의발전의 최신의 단계 즉 제국주의단계에서의 군비의 증대, 시장쟁탈전의 극도의 첨예화, 가장 락후한 동구라파 군주국들의 왕조적리해, 이러한것들은 불가피적으로 이 전쟁을 초래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 실지로 초래하였다. 타국령토를 강점하고 타민족을 정복하며 경쟁국을 몰락시키며 그 재부를 략탈하며 로씨야, 도이, 영국 등 나라의 국내의 정치적위기로부터 근로대중의 주의력을 딴데로 쏠리게 하며 로동자를 분열시키며 그들을 민족주의로써 우롱하며 무산계급의 혁명운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로동자들의 선봉대를 박멸하는것—이러한것이 오늘날의 전쟁의 유일한 실제적인 내용이며 의의이며 의미이다.

사회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이 진정한 의의를 천명하며 지배계급인 지주와 자산계급이 전쟁을 변호하기 위하여 전파하고있는 거짓말, 궤변, 《애국주의적》언사를 용서없이 포로할 의무가 있다.

교전국의 일방의 선두에는 독일자산계급이 서있다. 그들은 조국과 자유와 문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또 짜리제도의 압박하에 있는 민족들의 해방을 위하여, 반동적짜리제도의 타도를 위하여 전쟁을 하고있다고 설교하면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속이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자산계급이야말로 윌헬름 2세를 선두로 하는 프로씨아의 융케르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

고있는자들이며 항상 짜리제도의 가장 충실한 동맹자였으며 로씨야의 로동자와 농민의 혁명운동의 적이였다. 실지에 있어서는 이 자산계급은 전쟁의 결말이야 어떠하든지간에 융케르와 함께 로씨야의 혁명에 대항하여 짜리군주제도를 지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실지에 있어서는 독일자산계급은 쎄르비아를 정복하며 남슬라브인의 민족혁명을 압살하려고 쎄르비아에 대한 략탈적인 정복을 획책하였다. 동시에 그 군사력의 대부분을 보다 자유로운 나라인 벨지끄와 프랑스에 파견하여 보다 부유한 경쟁자를 략탈하려 하였다. 독일자산계급은 이 전쟁은 자기측으로 볼 때에는 방위전쟁이라는 거짓말을 전파하고있는데 실지에 있어서는 자국의 군사기술상의 최신성과를 리용하여 또 로씨야와 프랑스가 이미 계획하였고 예정한 새로운 군비가 채 되기전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 순간을 택한것이다.

교전국의 다른 일방의 선두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산계급이 서있는데 그들은 조국과 자유와 문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독일의 군국주의와 전제제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있다고 설교하면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속이고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자산계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억이란 돈으로 구라파에서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야만적인 군주제도인 로씨야짜리제도의 군대를 고용하여 독일에 대한 진공을 준비해온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영국과 프랑스자산계급의 전쟁목적은 독일의 식민지를 탈취하며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이 경쟁국을 멸락시키는데 있다. 그리고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선진적인》 《민주주의》국가는 야만적인 짜리제도가 뽈스까, 우크라이나 등등을 일층 더 압박하고 로씨야혁명을 일층 더 탄압하는것을 도와주고있는것이다.

교전국 쌍방은 략탈행위에서나 전쟁의 야수성에서나 또한 끝없는 잔인성에서는 조금도 서로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각국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을 속이며 유일하게 진정한 해방전쟁 즉 《자》국과 《타》국의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에서 무산계급의 주의력을 딴데로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애국주의라는 거짓말로 《자》국의 민족전쟁의 의의를 선양하며 자기들의 적을 이기려고 노력하고있는것은 땅을 빼앗거나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 민족이외의 다른 모든 나라 민족을 《해방》하기 위하여서라고 설복하려고 애쓰고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자산계급이 로동자들을 분렬시키며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기에 열중할수록 또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계엄령과 전시출판물검열의 체제(전시인 지금에 있어서조차 외적보다도 도리여 《내적》을 훨씬 더 가혹하게 박해하는)가 가혹해질수록 각국의 《애국주의적》자산계급도당의 배외주의적절규에 대항하여 자기들의 계급적단결, 자기들의 국제주의, 자기들의 사회주의적 신념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자각한 무산계급의 의무는 더욱 긴박한것으로 된다. 자각한 로동자가 이 과업을 포기한다는것은 사회주의적지향은 말할것도 없고 자기들의 해방적지향과 민주주의적지향을 모두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구라파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의 사회주의당들이 자기의 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또 이 당들의—특히 독일당의—지도자들의 행동이 사회주의의 위업에 대한 직접적인 배반에 가깝다는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순간에 현재의 제2사회주의국제당(1889～1914년)의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를 민족주의와 바꾸어놓으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들의 이러한 행

위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의 로동자당은 정부의 범죄적행위를 반대하지 않고 도리여 로동계급에게 그들의 립장을 제국주의 정부의 립장과 융합시키라고 호소하였다. 국제당의 지도자들은 군사비용에 찬성투표하며 《자》국자산계급의 배외주의적(《애국주의적》)구호를 되풀이하며 전쟁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며 교전국들의 자산계급내각에 들어가는 등등으로써 사회주의를 배반하였다. 오늘날 구라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회주의적지도자들과 가장 위신있는 사회주의적기관지들의 관점은 결코 사회주의적관점이 아니고 자산계급배외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관점인것이다. 사회주의를 이렇게 모독한 책임은 우선 제2국제당의 가장 강대하고 가장 위신있는 당이였던 독일사회민주당이 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조국을 팔아먹었으며 꼼뮨을 진압하기 위하여 비스마르크와 결탁한 바로 그 자산계급의 정부의 대신자리 몇을 차지하고있는 프랑스사회주의자들도 옳다고 할수는 없다.

독일과 오지리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전쟁을 지지하는것으로써 로씨야짜리제도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는척하면서 자기들의 전쟁지지를 정당화하려 하고있다. 우리들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는 이러한 변명을 궤변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본다는것을 성명하는바이다.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혁명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근년에 또다시 거대한 규모에 달하게 되였다. 이 운동의 선두에는 언제나 로씨야로동계급이 서서 나아갔다. 최근 몇해동안에 일어난 수백만명의 정치파업은 짜리제도의 전복과 민주공화제의 요구라는 구호밑에서 진행되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뿌앵까레는 니꼴라이2세를 방문하였을 때 뻬쩨르부르그의 가두에서 로씨야로동자들의 손으로 구축된 방새를 친히 볼수 있었다. 로씨야무산계급은 짜리군주제도의 모욕으로부터 전 인류를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어

며한 희생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일정한 조건하에서 짜리제도의 멸망을 연장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또 만일 로씨야의 전체 민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짜리를 원조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및 로씨야 등 나라의 자산계급의 돈주머니를 짜리제도의 반동적목적에 쓰도록 내던져준 오늘날의 전쟁이라는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또 만일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로씨야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곤난케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로씨야의 배외주의적출판물들이 계속 우리에게 모범으로 내세우고있는 독일과 오지리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의 행동인것이다.

독일사회민주당의 력량이 아주 적어서 부득불 사소한 혁명활동도 단념할수밖에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외주의의 진영에 가담하지는 말아야 할것이였으며 독일사회민주당지도자들은 무산계급국제당의 기치를 더럽히고있다고 이딸리아사회주의자들이 정당하게 성명한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는 말아야 할것이였다.

우리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은 이미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희생을 입었으며 또 앞으로도 입을것이다. 우리들의 합법적로동자출판물은 전부 페간당하였다. 대다수의 직업동맹이 페쇄당하였으며 많은 동지가 체포되고 추방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국회대표단—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국회의원단—은 군사비용에 찬성투표하지 않은것, 더욱 강경한 항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국회회의장에서 퇴장하는것, 구라파 각국 정부의 정책을 제국주의정책이라고 통책하는것을 자기의 드팀없는 사회주의의 의무라고 생각한것이다. 그리고 짜리정부의 탄압이 수십배나 심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의 사회민주주의적로동자들은 최초의 반전비밀격문을 발행하여 민주주의와 국제당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있다.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의 소수파와 중립국들의 우수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같은 혁명적사회민주당대표자들이 제2국제당의 이 파산에 대하여 더없는 수치감을 느끼고있다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민주당의 다수파의 배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있다 하더라도, 또 례컨대 독일 《사회주의월간》227(《Sozialistische Monatshefte》)을 대표로 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족자유주의적립장에 서있는 기회주의자들이 구라파사회주의에 대한 자기들의 승리를 경축할 리유를 완전히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무산계급에게 더 큰 해독을 끼치고있는자는 바로 기회주의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사이를 동요하면서 제2국제당의 파산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거나 외교적인사로 그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있는자들(독일사회민주당의 《중앙파》 같은)이다.

모든 나라의 로동자들속에서 새롭고 보다더 견고한 사회주의적단결을 이루자면 그와는 반대로 이 파산을 공공연히 인정하며 파산의 원인을 구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회주의자들은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배외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며 자산계급과 각국 정부가 일으킨 온갖 전쟁에 대처하여 국내전쟁과 사회혁명의 강력한 선전으로써 응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 슈투트가르트대회228, 코뻰하븐대회229 및 바젤대회230의 결정들을 유린하고 말았다. 제2국제당의 파산은 지나간(소위 《평화스러운》) 력사적시기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성장하여 최근 수년간 국제당내에서 사실상의 지배권을 획득한 기회주의의 파산이다. 기회주의자들은 제2국제당의 파산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왔다. 그들은 사회주의혁명을 부인하고 그것을 자산계급개량주의와 바꾸어놓았으며 계급투쟁과 그것이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필연적

으로 국내전쟁으로 전화한다는것을 부인하며 계급합작을 설교하였다. 그들은 또 애국주의와 조국보위라는 간판밑에 자산계급배외주의를 설교하며 로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하는 이미 《공산당선언》에 서술되여있는 사회주의의 기본진리를 무시 또는 부인하였다. 그들은 모든 나라 자산계급에 대한 모든 나라 무산계급의 혁명전쟁의 필요성을 인정할 대신에 반군국주의투쟁에서 감상적소시민적견지에 머물러있었다. 그들은 자산계급의회제도와 자산계급적합법성을 리용할 필요성을 들고나와 이 합법성을 우상화하면서 위기의 시기에는 비합법적형태의 조직과 선동이 필수적임을 망각하고말았다. 기회주의의 천연적인 《부가물》인 무정부주의적로동조합주의의 조류—마찬가지로 자산계급적이며 무산계급적 견지 즉 맑스주의적견지에 적의를 품고있는—의 특징은 오늘날의 위기의 시기에 배외주의라는 구호를 기회주의자에 못지않게 수치스럽게도 혼자 좋아하면서 반복하고있는 점이다.

기회주의와 단호하게 인연을 끊고 대중에게 기회주의의 실패의 불가피성을 해설하지 않고서는 현재 사회주의의 과업들을 완수할수 없으며 로동자들의 참다운 국제주의적단결을 실현할수 없다.

각국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우선 그 나라의 배외주의와 투쟁하는것이여야 한다. 로씨야에서는 이 배외주의가 자산계급자유주의자(《립헌민주주의자6》)를 몽땅 움켜쥐였으며 사회혁명당146과 사회민주주의자의 《우파》에 이르기까지의 인민파의 일부를 움켜쥐였다.(특히 례컨대 에.스미르노브, 삐.마슬로브 및 게.플레하노브의 배외주의적발언을 반드시 규탄하여야 한다. 이들의 발언은 자산계급《애국주의적》출판물들에서 찬양하고 광범히 리용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사태하에서는 국제무산계급의 견지로 보아 교전국

쌍방의 어느 편이 패배하는것이 사회주의에 해가 가장 적겠는가를 결정할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구라파와 아세아의 가장 많은 민족과 가장 광범한 주민대중을 압박하고있는 가장 반동적이며 야만적인 짜리전제정부의 패배가 로씨야의 모든 민족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견지에서 볼 때 해가 가장 적으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구라파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내세워야 할 당면의 정치구호는 구라파공화국련방의 건립이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무산계급을 배외주의라는 공통의 조류에 끌어들일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약속》하는 자산계급과는 달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독일, 오지리 및 로씨야의 군주제도를 혁명적으로 전복하지 않는다면 이 구호는 전혀 기만이며 무의미한것이라는것을 해설할것이다.

로씨야는 극히 락후하며 아직 자산계급혁명도 완수하지 못했기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과업은 여전히 철저한 민주개혁의 세가지 기본조건 즉 민주공화국(모든 민족이 완전한 평등과 자결권을 가지는)의 창건, 지주의 토지몰수 및 8시간 로동제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가에서는 전쟁이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일정에 올려놓고있다. 이 구호는 전쟁의 중하가 무산계급의 어깨를 무겁게 내리누르면 누를수록 또 대자본주의의 거대한 기술적성과가 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대《애국주의적》만행의 공포가 사라진후 구라파재건에서 무산계급이 놀 역할이 당연히 적극적인것으로 되면 될수록 더욱더 긴절한것으로 될것이다. 무산계급의 입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자산계급이 전시법령을 리용하고있기때문에 무산계급은 비밀적 선동형태와 조직형태를 창조하는 무조건적인 과업

에 직면하고있다. 기회주의자들은 자기의 신념을 팔아 그 대가로 합법조직을 《보전》할테면 하라.—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은 위기의 시기에 적합한, 사회주의를 위한 비밀투쟁형식을 창조하기 위하여 그리고 로동자들을 자국의 배외주의적자산계급과 단결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각국의 로동자들과 단결시키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조직적능력과 조직상련결을 리용할것이다. 무산계급국제당은 멸망하지 않았으며 또한 멸망하지 않을것이다. 로동자대중은 온갖 장애물을 뚫고 새로운 국제당을 창건할것이다. 기회주의의 현재의 승리는 영구한것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크면 클수록 로동자대중은 로동자들의 사업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배신을 더욱 명백히 알게 될것이며 총부리를 각국의 정부와 자산계급에게 돌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명백히 알게 될것이다.

현재의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키라는것은 빠리콤뮨의 경험이 제시하였고 바젤결정(1912년)이 그 륜곽을 규정하였으며 고도로 발달한 자산계급국가들사이의 제국주의전쟁의 모든 조건에서 산생된 유일하게 옳은 무산계급적구호이다. 그런 전화가 어떤 시기에는 아무리 큰 곤난에 부딪쳐도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이 일단 사실로 된 이상에는 이 방향에서 계통적으로 견결히, 꾸준히 준비사업을 하는것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것이다.

오직 이 길로 가야만 무산계급은 배외주의적자산계급에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날수 있으며 이런 또는 저런 형식으로, 진정한 발걸음으로 각 민족의 진정한 자유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보다 급속히 나아갈수 있을것이다.

자산계급의 배외주의와 애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전 세계 로동자들의 국제적친선 만세!

기회주의에서 해방된 무산계급국제당 만세!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

1914년 9월 28일(10월 11일) 이전에 집필

1914년 11월 1일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제33호에 게재

신문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원고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10~17페지

칼 맑스[231] (발취)

(략전과 맑스주의의 해설)

서 문

지금 단행본으로 발행하는 론문 《칼 맑스》는 내가 그라나트백과사전을 위하여 1913년(나의 기억에 의하면)에 집필한것이다. 이 론문끝에는 맑스에 관한 주로 외국문헌의 상당히 자세한 목록이 첨부되여있었다. 그 목록은 이 판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사전편찬부는 출판물검열기관의 검열을 고려하여 맑스의 혁명적전술이 서술되여있는 이 론문의 끝부분을 삭제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초고를 크라꼬브나 스위스에 있는 나의 문서속에 두고왔기때문에 여기서 그 끝부분을 넣을수가 없다. 다만 이 론문 끝부분에서 내가 특히 1856년 4월 16일부로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가운데서 맑스가 다음과 같이 쓴 부분을 인용한것을 기억하고있을따름이다. 《독일에서는 모든 일이, 그 어떤 농민전쟁의 재발이 무산계급혁명을 지원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될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사태는 훌륭하게 될것이다.》[232] 우리 나라 멘쉐위크들은 바로 이것을 1905년이래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지금은 사회주의를 완전히 배반하고 자산계급편에 넘어가기까지 하였다.

엔. 레닌

1918년 5월 14일, 모스크바

1918년 모스크바 《파도》출판사에서 발행한 소책자 엔. 레닌의 《칼 맑스》에 게재

원고에 의하여 인쇄

칼 맑스는 1818년 신력 5월 5일 트리르시(프로씨아 라인 강연안)에서 탄생하였다. 그의 부친은 변호사로서 1824년에 신교로 개종한 유태인이였다. 가정은 부유하고 교양이 있었으나 혁명적은 아니였다. 트리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후 맑스는 처음에는 본대학, 다음에 베를린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연구하였으나 무엇보다도 많이 력사와 철학을 연구하였다. 1841년에 대학과정을 마치고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관하여 학위론문을 제출하였다. 당시 맑스는 그 견해에 있어서 아직 헤겔파의 관념론자였다. 베를린에서 맑스는 헤겔철학에서 무신론적, 혁명적 결론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있던 《헤겔좌파》(브루노 바우에르 기타)의 소조에 가입하고있었다.

대학을 마친후 맑스는 교수가 되려고 생각하고 본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832년에는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의 대학교수직무를 빼앗았고 1836년에는 그를 대학에 복귀시키는것을 또다시 거부하였으며 1841년에는 젊은 교수 브루노 바우에르에게서 본에서 강의하는 권리를 빼앗고있은 형편이였기때문에 이 정부의 반동정책을 보고 맑스는 학자로 나서는것을 단념하였다. 이때 독일에서는 헤겔좌파의 견해가 대단히 급속히 발전하여가고있었다. 특히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는 1836년이때 신학을 비판하고 유물론으로 전향하기 시작하였는데 1841년에는 그의 견해가운데서 이 유물론이 완전히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다(《기독교의 본질》). 1843년에는 그의 《장래철학의 근본명제》가 출판되였다. 후에 엥겔스는 포이에르바흐의 이 저작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시는 이러한 책의

《해방적작용을 반드시 체험하여야 하였었다》. 《우리들〔즉 맑스를 포함한 헤겔좌파〕은 대번에 포이에르바흐파가 되였다.》233 이때 헤겔좌파와 통하고있은 라인주의 급진적자산자가 쾰른에서 반정부적인 신문 《라인신문》234을 창간하였다(1842년 1월 1일부터 발간하기 시작함). 맑스와 브루노 바우에르는 그 주요한 기고자로서 초청을 받았는데 맑스는 1842년 10월에 이 신문의 주필이 되여 본으로부터 쾰른으로 이주하였다. 맑스가 편집하게 된후 이 신문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경향은 더욱 명확해갔다. 그리하여 정부는 처음에는 이 신문에 이중삼중의 검열을 가하였지만 그후 1843년 1월 1일에 그것을 아주 폐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맑스는 이에 앞서 주필을 그만두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는 사직하였지만 신문은 구원되지 못하고 1843년 3월에 폐간되고말았다. 《라인신문》에 실린 맑스의 가장 큰 론문중에서 엥겔스는 아래에 렬거한 론문들(문헌 참조)①외에 모젤강류역 포도주양조농민의 형편에 관한 론문도 지적하고 있다. 신문편집사업을 통하여 맑스는 자기가 정치경제학에 통달하지 못한것을 깨달았기때문에 그는 열심히 그 연구에 착수하였다.

1843년에 맑스는 어렸을 때의 동무였으며 일찌기 대학생시대에 약혼하였던 옌니 폰 웨스트팔렌과 크로이쯔나흐에서 결혼하였다. 그의 안해는 프로씨아의 반동귀족가정의 출신이였다. 그의 오빠는 가장 반동적인 시기의 하나인 1850～1858년에 프로씨아의 내무대신으로 있었다. 1843년 가을에 맑스는 외국에서 아르놀드 루게(1802～1880년, 헤겔좌파, 1825～1830년 옥중생활, 1848년이후 망명. 1866～1870년이후는 비스마르크주의자)와 함께 급진적인 잡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빠리로 갔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59～72페지를 보라. 본 선집에는 수록되지 않았음. —편집자

그러나 이 잡지 즉 《독일-프랑스년지》98는 다만 제1호가 나왔을뿐이다. 그것은 독일내에서의 비밀배포의 곤난때문에 또 맑스와 루게와의 의견차이때문에 페간되였다. 그 잡지에 발표한 론문들에서 맑스는 이미 혁명가로서 등장하고있는바 그는 《온갖 현존하는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 특히 《무기에 의한 비판》235을 선언하였으며 대중과 무산계급에게 호소하였다.

1844년 9월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며칠동안 빠리에 갔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맑스의 가장 친근한 벗으로 되였다. 그들은 같이 빠리의 당시의 혁명적단체들의 들끓는 생활(맑스가 1847년에 그의 《철학의 빈곤》가운데서 결정적으로 관계를 끊은 프루동의 학설이 여기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있었다.)에 가장 열심히 참가하였고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의 잡다한 학설과 날카롭게 싸우면서 혁명적무산계급적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맑스주의)의 리론과 전술을 만들어내였다(이 시기 즉 1844~1848년의 맑스의 저작은 뒤에 있는 문헌을 참조하라). 1845년에 맑스는 프로씨아정부의 강요에 의하여 위험한 혁명가라고 해서 빠리로부터 추방되였다. 그는 브류쎌로 옮겨갔다. 1847년 봄에 맑스와 엥겔스는 비밀선전단체인 《공산주의자동맹》236에 가입하였고 이 동맹의 제2차대회(1847년 11월 런던에서 있은)에 참가하여 뛰여난 역할을 하였으며 동맹의 위임에 의하여 1848년 2월에 발표된 유명한 《공산당선언》을 작성하였다. 이 로작에는 새로운 세계관, 사회생활의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철저한 유물론, 발전에 관한 가장 전면적이고 가장 심오한 학설로서의 변증법, 계급투쟁과 새로운 공산주의사회의 창조자인 무산계급의 세계사적혁명적역할에 관한 리론이 천재적인 명료성과 명확성으로써 서술되여있다.

1848년의 2월혁명이 폭발하자 맑스는 벨지끄에서 추방되였다. 그는 다시 빠리로 갔다가 3월혁명후에 거기서 또다시

독일의 쾰른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1848년 6월 1일부터 1849년 5월 19일까지 《신라인신문》237이 발간되였는데 맑스는 그 주필로 있었다. 새 리론의 정당성은 1848~1849년의 여러 혁명적사변의 과정에서 빛나게 확증되였다. 그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모든 무산계급운동과 민주주의적운동이 이 리론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승리한 반혁명은 맑스를 처음에는 법정에 내다세웠고(1849년 2월 9일 무죄판결) 다음에는 독일로부터 추방하였다(1849년 5월 16일). 맑스는 처음에는 빠리로 갔다가 1849년 6월 13일의 시위운동238후 거기에서도 또 추방당하여 런던으로 건너가 서거할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망명생활의 제 조건은 맑스와 엥겔스와의 왕복서한집(1913년에 출판됨.)이 특히 명백하게 보여주는바와 같이 극히 곤난하였다. 빈곤은 맑스와 그의 가족을 그야말로 질식시켰다. 만일 엥겔스의 끊임없는 헌신적인 경제적원조가 없었더라면 맑스는 《자본론》을 완성할수 없었을뿐더러 빈곤에 짓눌리여 틀림없이 쓰러지고말았을것이다. 게다가 당시 우세를 차지하고있던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 일반적으로 비무산계급적인 사회주의의 학설과 조류들은 맑스로 하여금 무자비한 투쟁을 부단히 전개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때로는 가장 광포하고 렴치없는 인신공격을 반격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포그트씨》239). 망명자소조에서 떨어져서 맑스는 력사에 관한 일련의 로작(문헌 참조)가운데서 그의 유물론적리론을 완성하면서 정력을 주로 정치경제학연구에 바쳤다. 맑스는 그의 저작 《정치경제학비판》(1859년에 출판됨)과 《자본론》(제1권, 1867년에 출판됨)가운데서 이 과학을 혁명화하였다.(다음의 맑스의 **학설**을 참조하라.)

50년대말에서 60년대에 걸친 민주주의운동의 부활기는 맑스로 하여금 다시 실천활동에 나서게 하였다. 1864년(9월 28

일) 런던에서 유명한 제1국제당 즉 《국제로동자협회》가 창립되였다. 맑스는 이 조직의 중심인물이였으며 그의 첫 《선언》을 비롯하여 수많은 결의, 성명, 선언의 작성자였다. 맑스는 여러 나라의 로동운동을 통합하고 각종의 비무산계급적사회주의 즉 맑스주의이전의 사회주의(마찌니, 쁘루동, 바꾸닌, 영국의 자유주의적로동조합주의, 독일 라쌀파의 우익적편향 등등)를 공동활동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이들 온갖 분파 및 학파의 리론과 투쟁하면서 여러 나라 로동계급의 무산계급적투쟁의 통일적인 전술을 만들어내였다. 맑스가 그렇게도 심각하고 적절하고 빛나게 또 효과적이고도 혁명적으로 평가하였던(1871년에 출판된 《프랑스국내전쟁》) 빠리꼼뮨이 실패하고(1871년) 제1국제당이 바꾸닌주의자들때문에 분렬된후에는 구라파에서의 국제당의 존재는 불가능하게 되였다. 제1국제당의 헤그대회(1872년)후 맑스는 그 총무위원회를 뉴욕으로 옮기였다. 제1국제당은 자기의 력사적역할을 끝마치였고 그에 뒤이어 전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로동운동의 비할바없이 거대한 성장의 시대 즉 로동운동이 폭이 넓어지고 개개의 민족국가내에서 대중적사회주의적로동당이 창건되는 시대가 닥쳐왔다.

제1국제당내에서의 긴장한 사업과 그이상 긴장한 리론적연구는 맑스의 건강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는 수많은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며 여러 외국어(례컨대 로씨야어)를 연구하면서 정치경제학의 개작과 《자본론》을 완성하는 사업을 계속하고있었으나 병은 그로 하여금 《자본론》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였다.

1881년 12월 2일 그의 부인이 별세하였다. 1883년 3월 14일에 맑스는 안락의자에 앉은채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의 안해와 함께 런던의 하이게이트묘지에 안치되였다. 맑스

의 자녀들중 몇 아이는 런던에서 일가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던 시기에 어려서 죽었다. 세 딸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출가하였는데 엘리너 에이블링, 라우라 라파르그 및 옌니 롱게가 곧 그들이다. 옌니 롱게의 아들은 프랑스의 사회당240원이다.

맑스의 학설

맑스주의란 맑스의 견해와 학설의 체계이다. 맑스는 인류의 가장 선진적인 세 나라에 속하는 19세기의 세가지의 주요한 사상적조류 즉 독일고전철학, 영국고전정치경제학 및 프랑스의 혁명적학설일반과 결부되여있는 프랑스사회주의의 계승자이며 천재적인 완성자였다. 맑스의 견해는 그의 적들조차 공인하는바와 같이 아주 철저하고 전일적인것으로서 그 총체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문명국의 로동운동의 리론과 강령인 현대유물론과 현대의 과학적사회주의로 되고있기때문에 우리는 맑스주의의 주요내용인 맑스의 경제학설을 서술함에 앞서 우선 그의 세계관일반을 간단히 개괄하여야 하겠다.

철학적유물론

맑스의 견해가 형성된 1844~1845년부터 그는 유물론자였으며 특히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의 지지자였는바 그는 후에 이르러서도 포이에르바흐의 약점은 단지 그의 유물론에 철저성과 전면성이 부족한것뿐이였다고 보았다. 맑스는 포이에르바흐의 세계사적인 《획기적》의의는 바로 그가 헤겔의 관념론과 결정적으로 결별하고 유물론을 선언한데 있다고 보았다. 유물론은 벌써 《18세기에 특히 프랑스에서는 비단 현존정치제도에 대한 그리고 그와 함께 종교와 신학에 대한 투쟁일뿐만

아니라…일체의 형이상학〔《건전한 철학》과 구별되는 《취한 사변》이라는 의미의〕…에 대한 투쟁이였다》(《유고집》중의 《신성가족》)[241].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헤겔에게 있어서는 그가 리념이라는 명칭하에 독립적인 주체로까지 만들어버리고있는 사유과정은 현실적인것의 데미우르고스〔조물주, 창조자〕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관념적인것은 인간의 두뇌에 이식되여 거기서 변형된 물질적인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자본론》, 제1권, 제2판 발문).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맑스의 이 유물론철학과 완전히 일치하게 또 그것을 해설하여 《반듀링론》(참조)에 다음과 같이 썼다.—맑스는 이 저작을 초고때 읽었다.—《…세계의 통일성은 그 존재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물질성에 있는바 이 물질성은…철학과 자연과학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발전에 의하여 증명되는것이다.… 운동이란 물질의 존재형식인것이다. 어느때 어느곳에서도 운동없는 물질, 물질없는 운동은 없었으며 또 있을수가 없다.… 만일 사유와 인식이란 대체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서 생기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인간두뇌의 산물이며 그리고 인간자신은 일정한 자연환경속에서 그 환경과 함께 발전하여온 자연의 산물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두뇌의 산물도 결국은 역시 자연의 산물이며 기타의 관련과 모순되지 않고 그와 부합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헤겔은 관념론자였다. 즉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두뇌의 사유는 현실적 사물 및 과정의 어느 정도 추상적인 반영〔Abbilder, 모상, 엥겔스는 때로 《인상》이라는 말을 썼다.〕인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물과 그 발전은 헤겔에게 있어서는 세계발생이전부터 어디엔가 존재하고있던 리념이라는것의 반영이였다.》[242]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포이에르바호의 철학에 대한 그와 맑스와의 견해를 서술한 그의 저서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호》—이것은 엥겔스가 헤

겔, 포이에르바흐 및 유물사관문제에 관하여 1844～1845년에 그와 맑스가 썼던 낡은 원고를 미리 다시 읽고 인쇄에 넘긴것이다.—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철학의, 특히 근대철학의 커다란 근본문제는 존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 자연에 대한 정신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며…어느것이 앞선것인가 즉 정신이 자연에 앞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 정신에 앞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철학자들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2대진영으로 나뉘여졌다. 정신이 자연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주장한, 따라서 이렇게나저렇게나 우주창조를 인정한 사람들은…관념론의 진영을 형성하였다. 자연을 본원적인것으로 본 사람들은 유물론의 각종 학파에 속하였다.》 (철학적)관념론 및 유물론의 개념을 이것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것은 모두 혼란을 일으킬뿐이다. 맑스는 이렇게나저렇게나 항상 종교와 결부되여있는 관념론뿐만아니라 특히 오늘날 전파되여있는 흄과 칸트의 견지, 각종 형태의 불가지론, 비판주의, 실증주의 등도 단연코 배격하고 이러한 종류의 철학은 관념론에 대한 《반동적》양보이며 기껏해야 《유물론을 사람들앞에서는 거절해놓고 뒤문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맞아들이는것》243이라고 간주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엥겔스와 맑스의 우의 저서들외에 맑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1868년 12월 12일부 서한을 참조할수 있다. 이 서한에서 맑스는 유명한 자연과학자 티. 헉슬리가 평상시보다 《일층 더 유물론적인》 발언을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찰하며 사유하는》 한 《우리는 결코 유물론의 립장을 떠날수 없다.》고 그가 승인한 사실을 지적함과 함께 그가 불가지론, 흄주의쪽으로의 《도피로》를 열어놓은것을 비난하였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것은 자유와 필연과의 관계에 대한 맑스의 견해이다. 《필연은 그것이 인식되지 않은 동안은 맹목적이다. 자유란 필연의

인식이다》(엥겔스 《반듀링론》).244 이것은 곧 자연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승인하며 필연의 자유에로의 변증법적전화(아직은 인식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인식할수 있는 《사물- 그자체》가 《우리를 위한 사물》로 전화하며 《사물의 본질》이 《현상》으로 전화하는것과 마찬가지로)를 승인하는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포이에르바호의 유물론(뷔히네르, 포그트, 몰레쇼트의 《속류》유물론은 물론이고)도 포함한 《낡은》 유물론의 근본적결함은 다음과 같은 점이라고 보았다. (1) 이 유물론은 《주로 기계론적》이며 화학 및 생물학(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밖에 전기적물질론이 첨가되여야 할것이다.)의 최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것, (2) 낡은 유물론은 비력사적, 비변증법적(반변증법적이라는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이였으며 발전의 견지를 철저히 또 전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였다는것, (3) 그들은 《인간의 본질》을 추상적으로 리해하고 그것을 (구체적, 력사적으로 규정된)《모든 사회관계》의 《총체》로서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변혁》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해석》하는데 그쳤다는것, 즉 《혁명적실천적활동》의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였다는것이다.245

변 증 법

가장 전면적인, 가장 내용이 풍부한 또 가장 심오한 발전의 학설로서의 헤겔의 변증법을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고전철학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발전, 진화의 원리에 관한 기타의 정식화는 모두 일면적이고 내용이 빈약하고 자연과 사회의 실제발전과정(가끔 비약, 격변, 혁명을 수반하는)을 불구화하고 기형화하는것으로 보았다. 《맑스와 나는 의식적인 변증법을[헤겔학설을 포함한 관념론의 파괴로부터] 구출하여 그것을 유물론적자연관에 옮겨놓은 아마 거의 유일한

사람일것이다.》《자연은 변증법의 확증이다. 바로 최근의 자연과학은 이 확증이 비상히 풍부한것임을 보여주며〔이것은 라디움, 전자, 원소변환 등의 발견이전에 쓴것이다!〕 나날이 대량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자연에 있어서는 사태가 결국은 변증법적이고 형이상학적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고있다.》246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기본사상 즉 세계는 기성의 완결된 사물로 구성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제 과정의 복합체인것이며 이 복합체에 있어서는 외견상 변화하지 않는 사물들 및 우리 두뇌에 생겨나는 그것의 사상적모사인 개념들이 혹은 발생하고 혹은 소멸하는 끊임없는 변화가운데 있다는 이 위대한 기본사상은 헤겔시대이래 일반의 의식에 깊이 침투되여있으므로 일반적형태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것을 론박하는 사람이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써 인정하는것과 그것을 매개의 개별적경우에 또 매개의 소여의 연구분야에 적용한다는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변증법적철학에 있어서는 영원히 확정된것, 무조건적인것, 신성한것은 하나도 없다. 이 철학은 모든것에서 불가피적인 몰락의 락인을 보는바 이 철학앞에서는 발생과 소멸, 낮은것으로부터 높은것에로의 무한한 상승의 끊임없는 과정이외에는 아무것도 견디여내지 못한다. 이 철학자체도 이 과정이 사유하는 두뇌에 단순히 반영된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변증법은 맑스에 의하면 《외계 및 인간사유의 일반적운동법칙에 관한 과학이다》.247

맑스는 헤겔철학의 이러한 혁명적인 면을 섭취하여 발전시켰다. 변증법적유물론은 《다른 과학들우에 서는 어떠한 철학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래의 철학에서 남게 되는것은 《사유와 그 법칙에 관한 학문인 형식론리학과 변증법》248이다. 그런데 맑스가 리해하는바에 의하면 또 헤겔의 견해에 의하여도 변증법은 현재 소위 인식론이라고 부르는것을 포함하

고있는바 이 인식론은 그 대상을 역시 력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인식의 발생과 발전, 미지에서 인식에로의 이행을 연구하고 일반화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발전, 진화의 사상은 거의 완전히 사회의식에 침투되여있다. 그러나 그것은 헤겔철학을 거쳐서가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침투되여있는것이다. 그렇지만 맑스와 엥겔스가 헤겔에 의거하여 정식화한 이 사상은 류행하고있는 진화사상에 비하여 훨씬 전면적이고 훨씬 내용이 풍부하다. 이미 경과한 단계를 반복하는것처럼 보이면서 전과는 다르게 일층 높은 토대우에서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발전(《부정의 부정》),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이를테면 라선적으로 진행되는 발전—비약적, 격변적, 혁명적 발전—《점차성의 중단》—량의 질로의 전화—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또는 어떤 현상의 한계내에서 또는 어떤 사회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각종의 력량과 경향의 모순, 충돌에 의하여 일어나는 발전으로의 내부적충동, —매개 현상의 모든 측면들의 호상의존성과 가장 긴밀하고 불가분적인 련관성(그리고 력사는 부단히 새로운 측면들을 열어준다.), 통일적이고 합법적인 세계적운동과정을 이루고있는 련관—이러한것들이 발전에 관한(보통의 학설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한 학설로서의 변증법의 몇가지 특징이다.(슈타인의 《기계적인 3단법》을 조소하면서 이것을 유물변증법과 혼동함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맑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1868년 1월 8일부 서한을 참조하라.)

유물사관

낡은 유물론의 불철저성, 불완전성, 일면성을 인식한 맑스는 드디여 《사회과학을 유물론적기초와 일치하게 하며 이 기초에 부합되게 그것을 재건》[74]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 만일 유물론일반이 의식을 존재로부터 설명하는 것이고 그 반대가 아니라면 인간의 사회적생활에 적용된 유물론은 **사회적**의식을 **사회적존**재로부터 설명할것을 요구한다. 맑스는 《자본론》 제1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공학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능동적관계를 밝혀주며 인간생활의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사회적생활조건 및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정신적 제 관념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을 밝혀준다.》249 맑스는 그의 저작 《정치경제학비판》의 서문가운데서 인간사회와 그 력사에 확대적용된 유물론의 기본적명제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천일적으로 정식화하였다.

《인간은 그들의 생활의 사회적생산에 있어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와는 독립한 관계 즉 그들의 물질적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선다.

이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즉 그우에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서며 일정한 사회적의식형태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현실적토대를 이룬다. 물질적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과정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물질적생산력은 그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그 생산력이 그 내부에서 지금까지 발전하여오던 현존하는 생산관계 또는 그것의 법률적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와 모순되게 된다. 즉 이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형식으로부터 그 질곡으로 전화한다. 그때에 사회혁명의 시대가 닥쳐온다. 경제적기초의 변화에 따라 거대한 전체 상부구조가 혹은 급속히 혹은 서서히 변혁된다. 그러한 변혁들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생산 제 조건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는 변혁과 인간이 이 충돌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투쟁하는 법률

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또는 철학적, 요컨대 의식형태적 제 형태와를 항상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개인에 대하여 그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판단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혁시대를 그 시대의 의식에 따라 판단할수는 없다. 도리여 이 의식을 물질적생활의 모순에서, 사회적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현존하는 충돌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체로 말해서 아세아적, 고대적, 봉건적 및 현대의 자산계급적 생산방식을 사회경제구성태의 전진적시대로 들수 있다.»250(맑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1866년 7월 7일부 서한에 있는 그의 간단한 정식화 《생산수단에 의하여 로동조직이 규정된다는 우리들의 리론》을 참조하라.)

유물사관의 발견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현상의 령역에의 유물론의 철저한 연장, 적용은 종래의 력사리론의 두가지 주요결점을 제거하였다. 첫째로, 종래의 력사리론은 기껏해야 인간의 력사적활동의 사상적동기를 고찰하였을뿐이고 이 동기가 무엇에 의하여 야기되였는가를 탐구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제 관계의 체계적발전에 있어서의 객관적합법칙성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들 관계의 근원이 물질적생산의 발전정도속에 있다는것을 보지 못하였다. 둘째로, 종래의 력사리론은 바로 인민대중의 활동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력사적유물론은 비로소 처음으로 대중의 사회적생활 제 조건과 이들 조건의 변화를 자연사적정확성으로써 연구할 가능성을 주었다. 맑스이전의 《사회학》과 력사학은 최선의 경우라야 단편적으로 수집된 사실의 집적과 력사적과정의 개개의 측면의 서술을 제공하였을뿐이였다. 맑스주의는 모든 대립적경향의 총체를 고찰하고 이들 대립적경향을 사회의 여러 계급의 정확히 규정할수 있는 생활조건 및 생산조건에 귀착시키며 개

개의《주도적》사상의 선택 또는 설명에 있어서의 주관주의와 자의를 제거하고 예외없이 모든 사상과 각종 경향의 근원이 물질적생산력의 상태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회경제구성태의 발생, 발전 및 몰락의 과정을 전면적으로 주밀하게 연구하는 길을 가르치였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력사를 창조한다. 그러나 인간의 동기, 특히 인민대중의 동기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서로 모순되는 사상들과 지향들의 충돌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인간사회의 이 모든 충돌의 총체는 어떠한것인가, 인간의 모든 력사적활동의 토대로 되는 물질적생활의 객관적생산조건은 어떠한가, 이 조건의 발전법칙은 어떠한것인가—맑스는 이 모든 문제에 주의를 돌려 극히 복잡하고 모순에 차있는 가운데서도 통일적이며 합법칙적인 과정으로서의 력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길을 가르치였다.

계 급 투 쟁

한 사회의 성원들중 어떤 사람들의 지향과 다른 사람들의 지향이 서로 배치된다는것, 사회생활이 모순으로 충만되여있다는것,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민족과 민족, 사회와 사회사이에는, 또 그 민족과 사회의 내부에서도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뿐만아니라 그밖에도 또한 혁명과 반동, 평화와 전쟁, 정체와 급속한 진보 또는 몰락의 시기가 련이어 바뀌고있다는것—이러한 사실들은 주지하는바이다. 맑스주의는 이 일견 미궁과 혼돈 같은것가운데서 합법칙성을 발견하게 하는 지침의 실머리를 제공하였는바 계급투쟁의 리론이 곧 그것이다. 한 사회 또는 몇개 사회의 전체 성원의 지향의 총체에 관한 연구만이 이들 지향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규정할수 있게 하여준다. 그런데 서로 모순되는 지향들의 근원은 계급들의 처지 및 생활조건의 차이에 있는바 매개 사회는 그와 같은 계급들로

분렬되여있다.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력사는〔원시공동체의 력사를 제외하고는—하고 엥겔스는 후에 부언하고있다.〕 계급투쟁의 력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령주와 농노, 동업조합의 장주와 장공, 한마디로 하면 압박자와 피압박자는 항상 서로 대립되는 지위에 처하고있어서 때로는 은연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그리고 이 투쟁은 언제나 사회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거나 또는 싸우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것으로 끝났다. … 멸망한 봉건사회의 내부에서 생겨난 현대자산계급사회는 계급적대립을 소멸하지 못하였다. 이 사회는 다만 새로운 계급, 새로운 압박조건, 새로운 투쟁형태로써 낡은것을 대체한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시대 즉 자산계급시대는 계급적대립을 단순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전 사회는 적대적인 2대진영으로, 서로 직접 대립하는 2대계급으로 즉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더욱더 분렬되고있다.》 프랑스대혁명이래 구라파의 력사는 일련의 나라에서 제 사변의 이 진정한 리면 즉 계급투쟁을 특히 명백하게 폭로하였다. 그리고 이미 프랑스왕정복고시대의 일련의 력사가(띠에리, 기조, 미녜, 띠에르)는 제 사변을 총괄하고 계급투쟁을 프랑스의 전 력사를 리해하는 열쇠라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최근의 시대 즉 자산계급의 완전한 승리의 시대, 대의제도와 광범한 선거권(지어는 일반선거권)과 대중이 읽을수 있는 값싼 일간신문 등등의 시대, 점점 더 광범해가는 강력한 로동조합과 기업가련합 등등의 시대는 계급투쟁이 제 사변의 원동력이라는것을 더욱 분명하게(때때로 아주 일면적, 《평화적》, 《립헌적》인 형태에서이기는 하지만) 보여주었다. 맑스의 《공산당선언》에서 인용한 다음의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바와 같이 맑스는 현대사회의 매 계급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분

석하려면 그것을 매 계급의 발전조건과 관련시켜 분석하여야 한다는것을 사회과학에 엄격히 요구하였다. 《오늘날 자산계급에 대립하고있는 모든 계급들중에서 오직 무산계급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모든 계급들은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몰락하고 멸망하나 무산계급은 대공업자체의 산물인것이다. 중간층들 즉 소공업가,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들이 자산계급과 투쟁하는것은 중간층으로서의 자기들의 생존을 수호하고 멸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 아니고 보수적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지어 반동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들이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애쓰기때문이다. 만일 그들을 혁명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멀지 않아 무산계급의 대렬로 넘어오게 되는것을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그들의 현재의 리익이 아니라 장래의 리익을 옹호하는 한에 있어서, 그들이 무산계급의 립장에 서기 위하여 그들자신의 립장을 포기하는 한에 있어서 그러한것이다.》251 력사에 관한 일련의 저작들(문헌 참조)에서 맑스는 왜 또 어떻게 하여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156인가를 명백히 보여주면서 유물론적력사학과 매개 계급의 또 때로는 계급내부의 각종 집단 또는 계층의 지위에 관한 분석의 빛나고도 심오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우에서 인용한 구절은 력사발전의 전체 합성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맑스가 사회적 제 관계와 한 계급으로부터 다른 계급으로의, 과거로부터 미래에의 과도적단계의 얼마나 착잡한 그물을 분석하였는가를 보여주는것이다.

맑스의 리론의 가장 심오하고 전면적이고 상세한 확증 및 적용으로 되는것은 그의 경제학설이다.

맑스의 경제학설

맑스는 《자본론》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나의

이 저작의 궁극적목적은 현대사회〔즉 자본주의사회, 자산계급사회〕의 경제적운동법칙을 발견하는데 있다.»252 력사적으로 ㅠ정된 이 사회의 생산관계를 그 발생, 발전 및 몰락 속에서 연구하는것—이것이 맑스의 경제학설의 내용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품**생산이 지배하고있다. 그러므로 맑스의 분석은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가 치

상품이란 첫째로 인간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건이며 둘째로 다른 물건과 교환될수 있는 물건이다. 물건의 유용성은 그 물건을 **사용가치**로 되게 한다. 교환가치(또는 략칭해서 가치)는 우선 일정한 량의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가 일정한 량의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관계이며 비례이다. 매일매일의 경험은 수백만번 수십억번의 이러한 교환이 다종다양한 서로 비교할수 없는 온갖 사용가치를 부단히 서로 동등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회적 제 관계의 일정한 체계내에서 부단히 서로 동등화되는 이들 서로 다른 물건들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적인것이 존재하는가? 이 물건들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것은 그 물건들이 **로동생산물**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다종다양한 종류의 로동을 동등화한다. 상품생산이란 개별적생산자들이 서로 다른 생산물을 만들고(사회적분업) 이 모든 생산물이 교환시에 서로 등치되는 그러한 사회관계의 체계이다. 따라서 모든 상품속에 있는 공통적인것은 일정한 생산부문의 구체적로동 즉 어떤 한 종류의 로동이 아니고 **추상적인** 인간로동 즉 인간로동일반이다. 모든 상품의 가치의 총량에 표현된 한 사회의 전체로동력은 동일한 인간로동력이다. 수십억번의 교환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있다. 따라서 개개의 상품은 오직 **사회적필요로**

동시간의 일정한 분량을 대표할뿐이다. 가치의 크기는 사회적 필요로동량 즉 그 상품, 그 사용가치를 생산하는데 지출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람들은 교환시에 그들의 각이한 종류의 생산물을 가치로서 서로 등치함으로써 그들의 각이한 로동을 인간로동으로서 서로 등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하고있지는 못하나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고있는것이다.》 가치는 두사람사이의 관계라고 옛적에 한 경제학자가 말하였는데 그는 물적외피로 가리워진 관계라고 한마디 더 첨가했어야 하였을것이다. 한 일정한 력사적 사회구성태의 사회적생산관계의 체계, 더군다나 수십억회나 반복되는 대량적인 교환현상속에 나타나는 관계의 체계의 견지에서 볼 때 비로소 가치가 무엇인가를 리해할수 있다. 《가치로서는 상품은 다만 일정한 량의 응결된 로동시간에 불과하다.》 상품에 체현되여있는 로동의 2중성을 상세히 분석한 후 맑스는 **가치형태** 및 **화페**의 분석으로 넘어가고있다. 여기에서의 맑스의 주요과업은 가치의 화페형태의 **기원**에 관한 연구 즉 개별적우연적교환행위(《단순한 고립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 즉 한 상품의 일정한 량이 다른 상품의 일정한 량과 교환되는 경우)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각이한 상품이 하나의 동일한 일정한 상품과 교환되는 일반적가치형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금이 이 일정한 상품 즉 일반적등가물로 되는 가치의 화페형태에 이르기까지의 교환발전의 **력사적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교환 및 상품생산 발전의 최고산물인 화페는 사적로동의 사회적성질을, 시장에 의하여 결합된 개별적생산자간의 사회적관계를 애매하게 하며 엄페한다. 맑스는 화페의 각종 기능을 극히 상세하게 분석하고있는데 여기에서도(일반적으로 《자본론》 첫 몇장에서 그러하다싶이) 추상적이며 때로는 순전히 연역적인것처럼 보이는 서술형식이 실지에 있어서

는 교환 및 상품생산의 발전력사에 관한 방대한 사실적자료를 재현하고있다는 점에 주의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화폐는 상품교환의 일정한 수준을 전제로 한다. 화폐의 각종 형태—단순한 상품등가물 또는 류통수단 또는 지불수단, 퇴장화폐 및 세계화폐—는 그 이러저러한 기능의 적용범위의 차이와 또 어느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가에 따라 사회적생산과정의 극히 각이한 단계를 표시한다.》(《자본론》, 제1권)253

잉 여 가 치

상품생산의 발전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한다. 상품류통의 공식은 T(상품)—Д(화폐)—T(상품) 즉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것이였다. 자본의 일반적공식은 이와 반대로 Д(화폐)—T(상품)—Д(화폐) 즉 판매(리윤을 붙여)하기 위하여 구매하는것이다. 류통에 투입되는 화폐의 최초의 가치에 대한 이 증가분을 맑스는 잉여가치라고 부르고있다. 자본주의적류통에 있어서 화폐가 이와 같이 《증가》하는 사실은 주지하는바이다. 이 《증가》야말로 화폐를 특수한, 력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생산관계로서의 자본으로 전화시키는것이다. 잉여가치는 상품류통으로부터는 발생할수 없는바 왜냐 하면 상품류통에 있어서는 다만 등가물의 교환만이 진행되는 까닭이며 또 그것은 가격보다 더 받는데서도 발생할수 없는바 왜냐 하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쌍방의 손실과 리득은 상쇄될것이며 또 문제는 바로 대량적, 평균적, 사회적 현상에 있는것이지 개개의 현상에 있는것이 아닌 까닭이다.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화폐소유자는 시장에서 그 사용가치자체가 가치의 원천인 그러한 고유한 성질을 가진 상품》 즉 그 소비과정이 동시에 가치창조의 과정으로 되는 그러한 상품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254 그런데 그와 같은 상품은 존

재한다. 그것은 인간의 로동력이다. 로동력의 소비는 곧 로동이며 로동은 가치를 창조한다. 화폐소유자는 로동력을 그 가치대로 구매하는바 그 가치는 다른 온갖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필요로동시간에 의하여(즉 로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화폐소유자가 로동력을 구매하면 그는 그것을 사용할 권리 즉 그것을 종일 례컨대 12시간 일시킬 권리를 얻는다. 그런데 로동자는 6시간(《필요》로동시간)동안에 그의 생활비를 보상할만큼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나머지 6시간(《잉여》로동시간)동안에는 자본가가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잉여》생산물 즉 잉여가치를 창조한다. 따라서 생산과정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자본을 두 부분으로 즉 생산수단(기계, 로동도구, 원자재 등)에 지출되는 불변자본—그 가치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완성된 생산물로(단번에 혹은 부분적으로) 넘어간다.—과 로동력에 지출되는 가변자본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가변자본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채로 있는것이 아니라 잉여가치를 창조하면서 로동과정에서 증대한다. 그러므로 자본에 의한 로동력의 착취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를 자본전체와 비교할것이 아니라 다만 가변자본과만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맑스가 이 비률을 가리켜 말한바의 잉여가치률은 례컨대 우에서 든 례에 있어서는 6분의 6 즉 100%가 될것이다.

자본발생의 력사적전제는 첫째로 상품생산일반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조건하에서의 개별적인간의 수중에의 일정한 화폐액의 축적이며, 둘째로는 2중적의미에서 《자유로운》 로동자의 존재 즉 로동력의 판매에 있어서 온갖 구속 또는 제한을 모르며 토지 및 생산수단으로부터 리탈된 재산없는 로동자, 로동력을 판매하는 이외에는 살길이 없는 로동자—《무산자》의 존재이다.

잉여가치는 두개의 기본방법에 의하여 증대될수 있다. 즉 로동일을 연장하는 방법(《절대적잉여가치》)과 필요로동일을 단축하는 방법(《상대적잉여가치》)이다. 첫째 방법의 분석에 있어서 맑스는 로동일의 단축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과 로동일의 연장(14~17세기) 및 그것의 단축(19세기의 공장립법)을 위한 국가권력의 간섭에 관한 상세한 정경을 보여주고있다. 《자본론》이 나온 이후 전 세계의 문명국들의 로동운동사는 이 정경을 례증하는 수많은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였다.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을 분석하면서 맑스는 자본주의에 의한 로동생산능률제고의 세개의 주요한 력사적단계를 연구하고있다. 즉 (1) 단순협업, (2) 분업과 공장제수공업, (3) 기계와 대공업이다. 맑스가 여기서 자본주의발전의 근본적인 전형적특징들을 얼마나 심오하게 천명하였는가 하는것은 특히 로씨야의 소위 《수공업》에 관한 연구가 이 세 단계중의 첫 두 단계를 례증하는 극히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있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그리고 맑스가 1867년에 서술한 대기계공업의 혁명적작용은 그후 오늘까지의 반세기동안에 여러 《새로운》 국가(로씨야, 일본 기타)에서 명백히 볼수 있다.

다음 맑스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고도 새로운것은 자본축적 즉 잉여가치의 일부분의 자본으로의 전화, 자본가의 개인적필요 또는 방탕을 위한 잉여가치의 사용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을 위한 잉여가치의 사용에 관한 분석이다. 맑스는 자본으로 전화되는 잉여가치전체가 가변자본으로 된다고 생각한 종래의 온갖 고전경치경제학(애담 스미스를 위시하여)의 오유를 지적하였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것은 생산수단과 가변자본으로 분할되는것이다. 불변자본의 몫(자본총액중의)이 가변자본의 몫에 비하여 더 빨리 증대되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발전 및 그것의 사회주의에로의 전환의 과정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

를 갖는다.

자본의 축적은 기계에 의한 로동자의 구축을 촉진하며 한쪽 극에는 재부를, 다른쪽 극에는 빈궁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이른바 《로동예비군》, 로동자의 《상대적과잉》 즉 극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극히 급속한 생산확대의 가능성을 자본에 주는 《자본주의적과잉인구》를 산생한다. 이 가능성은 신용제도와 생산수단에서의 자본의 축적과 함께 특히 생산과잉공황을 리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황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평균 10년마다 발생하였고 그후에는 더 길게 그리고 더 불확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다. 자본주의의 토대우에서의 자본축적과 이른바 시초축적 즉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로력자의 강제적분리, 토지로부터의 농민의 축출, 공동체소유지의 략탈, 식민제도, 국채제도, 보호관세제도 등등에 의한 축적과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초축적》은 한쪽 극에는 《자유로운》 무산자를, 다른쪽 극에는 화폐소유자인 자본가를 만들어낸다.

맑스는 《자본주의적축적의 력사적경향》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로써 특징짓고있다. 《직접적생산자의 수탈은 가장 무자비한 만행으로써 그리고 가장 비렬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야비하고 가장 발광적인 정열의 충동하에서 수행된다. 소유자〔농민과 수공업자〕의 로력에 의하여 얻어진, 말하자면 개개의 독립적로력자와 그의 로동도구 및 로동수단과의 유착에 립각한 사적소유는 다른 사람의,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로동력의 착취에 립각한 자본주의적사적소유에 의하여 구축된다. … 이제는 수탈을 당할자는 벌써 자립적경영을 하는 로력자가 아니라 다수 로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이다.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생산자체의 내재적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즉 자본의 집중에 의하여 수행된다. 한 자본가가 많은 자본가를 때

러놓힌다. 이러한 집중 즉 소수 자본가에 의한 다수 자본가의 수탈과 병행하여 로동과정의 협업적형태가 더욱더 큰 규모로 발전하며 과학의 의식적인 기술적적용, 토지의 계획적리용, 집단적으로만 사용할수 있는 그러한 로동수단으로 로동수단의 전화, 모든 생산수단을 결합된 사회적로동의 생산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로동수단의 절약, 각국 인민들의 세계시장망에의 인입, 따라서 또 자본주의제도의 국제적성격이 발전한다. 이 전화과정의 모든 리익을 가로채고 독점하는 자본거두들의 수가 부단히 줄어가는 동시에 빈궁, 억압, 예속, 타락, 착취의 정도도 증대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자체의 기구에 의하여 훈련되며 련합되며 조직되는 계급인 로동계급의 반항도 또한 증대한다. 자본의 독점은 이 독점과 더불어 또 이 독점밑에서 자라나온 그 생산방식의 질곡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로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외피와 량립할수 없는 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적외피는 파멸된다. 자본주의적사적소유의 조종이 울린다. 수탈자는 수탈된다.»(«자본론», 제1권)[255]

다음으로 극히 중요하고 새로운것은 맑스가 《자본론》 제2권에서 가한 사회적총자본의 재생산의 분석이다. 여기에서도 맑스는 개별적현상이 아니라 대량적현상을, 사회경제의 쪼갠 단편이 아니라 이 경제의 총체를 들고있다. 고전경제학파의 우에서 말한 오유를 시정하면서 맑스는 전 사회적 생산을 2대부문 즉 (1) 생산수단의 생산과 (2) 소비품의 생산으로 나누고 수자적실례를 들어 전체 사회적 총자본의 류통을 재생산이 종래의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의 량자에 걸쳐서 세밀히 검토하고있다. 《자본론》 제3권에서는 가치법칙에 기초한 **평균리윤률**의 형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고있다. 맑스가 이룩한 경제학에서의 거대한 전진은 속류

정치경제학이나 현대의 《한계효용설》이 왕왕 거기에 머물러있듯이 개개의 우연한 현상이나 경쟁의 외면적현상의 견지에서 분석을 하지 않고 대량적경제현상, 사회경제의 총체의 견지에서 분석을 하고있는 점이다. 맑스는 먼저 잉여가치의 기원을 분석하고 그다음에야 잉여가치의 리윤, 리자 및 지대로의 세 분문제로 넘어갔다. 리윤이란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률이다. 《고도의 유기적구성》을 갖는 자본(즉 불변자본이 가변자본보다 사회적평균이상으로 우세한 자본)은 평균이하의 리윤률을 준다. 《낮은 유기적구성》을 갖는 자본은 평균이상의 리윤률을 준다. 자본가들의 경쟁, 한 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으로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우에서 말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리윤률을 평균화시킨다. 사회의 모든 상품의 가치의 총량은 상품의 가격의 총액과 합치하지만 개별적 기업소 또는 개별적생산부문에 있어서는 상품은 경쟁의 영향밑에 그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고 지출된 자본 더하기 평균리윤과 동일한 **생산의 가격**(또는 생산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리하여 가격의 가치로부터의 리탈 및 리윤의 균등이라는 주지의 론쟁할 여지 없는 사실을 맑스는 가치법칙에 근거하여 완전히 설명하였다. 왜냐 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총량은 가격총액과 합치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가치(사회적)의 가격(개별적)으로의 전화는 결코 단순한 직접적인 경로를 거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시장을 통하여서만 련결되여있는 분산된 상품생산자의 사회에서는 합법칙성이 이쪽 혹은 저쪽으로 기울어진 개개의 편차를 상쇄한 평균적, 사회적, 대량적 합법칙성으로서밖에는 나타날수 없다는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로동생산능률의 제고는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하여 더 급속히 증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잉여가치는 다만 가

변자본만의 기능이므로 리윤률(잉여가치의 총자본에 대한 비률이지 가변부분만에 대한 비률이 아닌)이 저하하는 경향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명백하다. 맑스는 이 경향 및 이 경향을 엄폐하거나 또는 이 경향에 저항하는 일련의 사정을 상세히 분석하고있다. 고리대자본, 상업자본 및 화폐자본의 연구에 바쳐진 제3권중의 극히 흥미있는 편들의 해설을 생략하고 극히 주요한 편 즉 지대론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농산물의 생산가격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토지가 모두 개개의 소유자에게 점령되여있고 토지면적에 한도가 있기때문에 보통의 토지에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나쁜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비에 의하여, 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조건이 보통인 경우가 아니라 가장 나쁜 경우의 생산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가격과 더 좋은 토지에서의(또는 더 좋은 조건밑에서의) 생산가격과의 차액이 등차지대 또 차액지대를 낳는다. 맑스는 차액지대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것이 개별적지면의 비옥도의 차이로부터, 토지에 투하된 자본액수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것을 증명한후 차액지대는 다만 보다 좋은 토지에서 차차 보다 나쁜 토지로 이행하는데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한 리카도의 오유를 완전히 밝히였다(《잉여가치학설사》도 함께 참조하라. 거기에서는 롯베르투스에 대한 비판이 특히 주목할만하다). 그와 반대로 거꾸로의 이행도 있는것이며 어떤 등급의 토지가 다른 등급의 토지로 전화하는(농업기술의 진보, 도시의 발전 등등으로 인하여) 일도 있으므로 악명높은 《토지수확체감법칙》은 커다란 오유이며 자본주의의 결함, 제한성 및 모순을 자연에 전가하는것이다. 다음으로 공업과 국민경제일반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리윤의 균등화는 경쟁의 완전한 자유, 한 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토지의 사적소유는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을 장애하는 도

점을 만든다. 자본의 보다 낮은 구성과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보다 높은 리윤률을 특징으로 하는 농산물은 이 독점때문에 리윤률평균화의 완전히 자유로운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토지소유자는 독점자로서 가격을 평균이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얻는바 이 독점가격은 절대지대를 낳는다. 차액지대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소멸될수 없지만 절대지대는 례컨대 토지국유화에 의하여 그것이 국가소유로 넘어가면 소멸될수 있다. 이러한 이행은 사적소유자의 독점의 전복을 의미할것이며 농업에서의 자유경쟁의 더욱 철저하고 더욱 완전한 실시를 의미할것이다. 그러므로 맑스가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급진자산계급은 력사상 여러 번 토지의 국유화라는 진보적자산계급적 요구를 들고나섰던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자산계급의 대다수를 위협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현대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고 《민감한》 또 하나의 독점 즉 생산수단일반의 독점을 너무나 가까이 《건드리기》때문이다(맑스자신은 엥겔스에게 보낸 1862년 8월 2일부 서한가운데서 자본의 평균리윤과 절대지대에 관한 자기의 리론을 아주 통속적으로 간명하게 설명하였다. 《왕복서한집》, 제3권, 77～81페지 참조. 또한 1862년 8월 9일부 서한도 참조. 같은 책 86～87페지). 지대의 력사에 대해서는 로동지대(농민이 자기의 로동으로 지주의 토지에서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부터 생산물지대 또는 현물지대(농민이 자기 토지에서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며 그것을 《경제외적강제》에 의하여 지주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의 전화, 그다음에는 화폐지대(역시 현물지대로서 상품생산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현물지대가 화폐로 전화된것, 옛날 로씨야의 《소작료》)로의 전화 그리고 끝으로 임금로동을 사용하여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기업가가 농민 대신에 나타나는 경우의 자본주의적지대에로의 전화를 밝혀주는 맑스의 분석을 지적하는것

이 역시 중요하다. 《자본주의적지대의 발생》에 관한 이 분석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것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의 진화에 관한 맑스의 심오한(그리고 로씨야와 같은 후진국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일련의 사상이다. 《현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화는 돈을 받고 고용되는 무산자인 날품팔이로동자계급의 형성을 반드시 동반할뿐만아니라 이 후자의 형성이 전자에 앞서기까지 한다. 이 계급이 아직 띄염띄염 나타나고있을뿐인 그 발생기에 있어서 로동지대납부의무가 있는 농민중에서 비교적 부유한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농촌임금로동자를 착취하는 습관이 필연적으로 발전한다. 그것은 마치 봉건시대에 부유한 농노들자신이 또 농노를 두었던것과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그러한 농민들에게서는 일정한 재산을 모아서 자기자신을 미래의 자본가로 전화시킬 가능성이 점차로 증대한다. 따라서 자립적으로 경영하는 이전의 토지소유자들사이에서 자본주의적차지농업가의 온상이 발생하는바 그 발전은 농업이외의 자본주의적생산의 일반적발전에 의하여 제약된다.…》(《자본론》, 제3권, 제2분책, 332페지)256. 《농촌인구의 일부분의 수탈과 농촌으로부터의 추방은 공업자본을 위하여 로동자들과 그들의 생활수단, 그들의 로동도구를 〈해방〉할뿐만아니라 또 국내시장을 조성한다》(《자본론》, 제1권, 제2분책, 778페지)257. 농촌인구의 빈궁화와 파산도 역시 자본을 위하여 로동예비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자본주의나라에서 《농촌인구의 일부분은 항상 도시적 또는 공장제수공업적(즉 비농업적) 인구로 전화하는 상태에 있다. 상대적과잉인구의 이 원천은 부단히 흐르고있다.… 농업로동자는 임금의 최저수준에까지 내리눌려 항상 한쪽 다리를 가난의 진창에 빠뜨리고있다》(《자본론》, 제1권, 제2분책, 668페지)258. 농민이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를 사유하는것은 소생산의 기초이며 소생산의

번영의 조건이며 그것이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소생산은 협소하고 원시적인 생산과 사회의 범위안에서만 성립될수 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농민들이 당하는 착취가 산업무산계급이 당하는 착취와는 단지 형식상으로만 다르다. 착취자는 한가지인데 그것은 자본이다. 개개의 자본가들은 저당과 고리대금을 통하여 개개의 농민들을 착취하고 자본가계급은 국가세금을 통하여 농민계급을 착취한다》(《프랑스계급투쟁》)259. 《농민의 분할지(령세토지)는 자본가로 하여금 경지에서 리윤, 리자 및 지대를 짜낼수 있게 하며 토지소유자자신이 자기의 임금을 제마음대로 벌수 있게 하는 구실로 될따름이다》(《안개달 18일》)260. 농민은 나아가서는 자기의 임금의 일부마저 보통 자본주의사회에 즉 자본가계급에게 바치며 그리하여 《아일랜드소작인의 수준에까지》 전락하는바 《그것도 사적소유자라는 명색하에 그렇게 된다》(《프랑스계급투쟁》)261. 《소농적토지소유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곡물가격이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이 지배적인 나라보다 눅은 원인의 하나는》(《자본론》, 제3권, 제2분책, 340페지) 무엇인가? 그것은 농민이 사회에(즉 자본가계급에게)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거저 떼여주는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눅은 가격(곡물 기타 농산물의)은 생산자의 빈궁의 결과이지 결코 그들의 로동생산능률이 높은 결과는 아니다》(《자본론》, 제3권, 제2분책, 340페지). 소생산의 정상적인 형태인 령세토지소유는 자본주의하에서는 퇴화하며 구축되며 멸망한다. 《소토지소유는 그 본질상 로동의 사회적생산력의 발전, 로동의 사회적형태, 자본의 사회적집적, 대규모의 목축, 과학의 가일층의 리용을 배제한다. 고리대업과 조세제도는 도처에서 이 령세토지소유자를 빈궁화시키지 않을수 없다. 토지구매에 자본을 사용하면 그만한 자본을 토지경작에 쓰지 못하게 된다. 생산수단은 무한히

분산되고 생산자자신은 분산된다.〔협동조합 즉 소농민의 조합은 비상히 진보적인 자산계급적역할을 놀면서도 이 경향을 약화시킬따름이지 그것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또 잊어서는 안될것은 이 협동조합은 부유한 농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빈궁한 대중에게는 약간한 도움밖에 되지 못하거나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 조합자체가 임금로동의 착취자로 되여버린다는 점이다.〕 인력의 막대한 랑비가 일어난다. 생산조건의 부단한 악화와 생산수단의 가격등귀는 소토지(소농적)소유의 한 법칙이다.»262 자본주의는 공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생산자의 수난사》를 대가로 하여서만 생산과정을 개조한다. 《농촌로동자의 넓은 지역에로의 분산은 그들의 반항력을 파괴하는데 도시로동자의 집중은 그들의 반항력을 증대시킨다. 현대공업에서와 같이 현대자본주의적농업에서도 로동생산력의 제고와 로동량의 증대는 로동력자체의 파괴와 고갈에 의하여 얻어진다. 또 자본주의적농업의 진보는 그 어느것이나 로동자를 략탈하는 기술상 진보일뿐만아니라 또한 토지를 략탈하는 기술상의 진보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생산은 모든 재부의 원천인 토지와 로동자를 동시에 파멸시킴으로써만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생산과정의 결합을 발전시킨다.»(《자본론》, 제1권, 제13장의 끝)

사 회 주 의

이상의 서술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맑스는 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사회로 필연적으로 전화한다는 결론을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현대사회의 경제운동법칙으로부터 끌어낸것이다. 로동의 사회화는 아주 여러가지 형태로 더욱더 급속히 전진하고있으며 맑스서거후 반세기동안에 대생산의 장성, 자

본가들의 카르텔, 신지케이트 및 트레스트의 장성에서 또 그 융자본의 규모와 위력의 거대한 증가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가 불가피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주요한 물질적기초이다. 이 전화의 정신적도덕적추진력으로 되며 육체적집행자로 되는것은 바로 자본주의자체에 의하여 육성되는 무산계급이다. 그 내용이 점점 더 풍부하여가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과의 투쟁은 불가피적으로 무산계급에 의한 정권쟁취(《무산계급독재》)를 목표로 하는 정치투쟁으로 화한다. 생산의 사회화는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로의 이행, 《수탈자의 수탈》을 초래하지 않을수 없다. 로동생산능률의 거대한 제고, 로동일의 단축, 집단적인 개선된 로동에 의한 소규모적, 원시적, 분산적 소생산의 잔재와 유물의 교체—이것이 그러한 이행의 직접적결과이다. 자본주의는 농업과 공업간의 련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 고도의 발전에 의하여 이 련계의 새로운 요소 즉 과학의 의식적리용, 집단적로동의 련합 및 인구의 새로운 분포(농촌의 락후성, 외계로부터의 고립, 미개성 등의 청산과 아울러 대도시에의 방대한 대중의 반상적인 밀집의 청산)에 립각한 공업과 농업의 결합을 준비한다. 가족의 새로운 형태, 녀성의 지위와 젊은 세대의 교육에서의 새로운 조건들이 현대자본주의의 최고형태에 의하여 준비되고있다. 즉 녀성로동과 소년로동, 자본주의에 의한 부가장적가족의 해체는 현대사회에서는 불가피적으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고 또 가증스러운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대공업은 가족의 범위밖에서 즉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정에서 부인, 미성년, 아동들에게 결정적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량성관계의 보다 높은 형태를 위한 경제적토대를 축성한다. 기독교-게르만적가족형태를 절대적인것으로 보는것은 고대로마적 또는

고대희랍적 또는 동양적 가족형태—그런데 이 형태들은 호상련관되여 통일적인 력사적발전계렬을 형성한다.—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남녀로소의 각이한 개인들로써 이루어진 결합된 로동인원의 구성은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조잡한 자본주의적형태(여기서는 생산과정이 로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로동자가 생산과정을 위하여 존재한다.)를 취할 경우에는 파멸과 예속의 화근으로 되지만 그러나 적당한 조건하에서는 이와 반대로 인도적발전의 원천으로 변하지 않을수 없으리라는것도 명백하다》(《자본론》, 제1권, 제13장의 끝). 공장제도는 《장래의 교육의 맹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있는데 《그때에는 다만 사회적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뿐만아니라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도 일정한 년령이상의 모든 아동을 위하여 생산적로동이 학과 및 체육과 결합하게 될것이다》(우와 같은 곳). 맑스의 사회주의는 민족과 국가의 문제도 이와 동일한 력사적립장, 다만 과거를 설명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담하게 미래를 예견하고 이 미래의 실현을 목표로 과감히 실천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의 력사적립장에 기초하여 제기하고있다. 민족은 사회발전의 자산계급시대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그 필연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로동계급은 《민족의 범위내에서 구성되지》 않고서는, 《민족적》(《자산계급이 리해하고있는 의미에서가 결코 아니지만》)이 되지 않고서는 공고하여질수 없고 성장할수 없고 형성될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갈수록 민족적장벽을 분쇄하고 민족적고립을 없애며 민족적대립을 계급적대립과 바꾸어놓는다. 그러므로 발전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로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것 또는 적어도 문명국로동자들의 《공동적행동》은 《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한 첫째가는 조건의 하나》(《공산당선

언》)263라는것은 완전히 진리이다. 조직된 폭력인 국가는 사회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즉 사회가 불상용적계급으로 분렬되였을 때 외견상 사회우에 서있으며 어느 정도(사회로부터 분리된 《권력》이 없이는 사회가 존속할수 없게 되였을 때 불가피적으로 발생하였다. 계급적모순들의 내부에서 발생한 국가는 《가장 유력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로 되였으며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으로 되며 그리하여 피압박계급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이리하여 고대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예소유자들이 노예를 압박하기 위한 국가였으며 봉건국가는 농노를 압박하기 위한 귀족들의 기관이였으며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국가는 자본이 임금로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엥겔스가 자기와 맑스의 견해를 서술한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에서)264. 자산계급국가의 가장 자유롭고 진보적인 형태인 민주공화국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제거하지 않으며 다만 그 형식을 변경할따름이다(정부와 취인소와의 련계, 관리와 출판물의—직접, 간접의—매수 등등). 사회주의는 계급의 페절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또한 국가의 페절을 향하여 나아간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국가가 참으로 전 사회의 대표자로서 등장하는 최초의 행위—전 사회에 리롭게 생산수단을 수탈하는것—는 동시에 국가가 국가로서 취하는 최후의 독자적행위이다. 그때에는 사회적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이 한부문씩 련달아 불필요하게 되여 저절로 중지되고만다. 사람에 대한 관리 대신에 물건에 대한 관리와 생산과정의 조절이 나타난다. 국가는 〈페지〉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락한다.》265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련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직하는 사회는 국가기구를, 그때에 그것이 응당 가야 할 곳으로 보낼것이다. 즈

물레나 청동도끼와 함께 고대박물관으로.》(엥겔스의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에서)266

마지막으로 수탈자의 수탈의 시대에도 남아있게 될 소농민에 대한 맑스의 사회주의의 태도에 관하여서는 맑스의 사상을 표현하고있는 엥겔스의 다음과 같은 언명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였을 때에는 우리는 대토지소유자를 그렇게 해야 하는것과 같이 소농민을 강제적으로 수탈(배상의 유무를 막론하고)하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것이다. 소농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과업은 무엇보다도먼저 그들의 사적생산과 사적소유를 협동조합적인것으로—그러나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모범과 그것을 위한 사회원조의 제공에 의하여—넘기는데 있다. 그리고 그때에 가면 우리는 농민에게 그들이 벌써 지금 리해하고있어야 할 이와 같은 이행의 온갖 우월성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수단을 물론 충분히 가지게 될것이다.》(엥겔스의 《서구라파의 토지문제에 대하여》, 알렉쎄예와판, 17페지, 로문역본에는 오역이 있다. 원문은 《신시대》24에 게재되였다.)267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전술

종래의 유물론의 근본적결함의 하나는 그것이 혁명적실천활동의 조건을 리해하지 못하였고 또 그 의의를 평가하지 못한점에 있음을 이미 1844~1845년에 밝힌 맑스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리론적저작에 종사함과 아울러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전술문제에 꾸준한 주의를 돌렸다. 이에 대해서는 맑스의 모든 저작과 특히 1913년에 출판된 4권으로 된 그와 엥겔스와의 왕복서한집이 대량의 자료를 제공해준다. 이 자료는 아직 충분히 수집, 정돈, 연구, 정리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가 정당하게도 이 측면이 없는 유물론은 중도반단적인, 일면적인, 죽은 유물론이라고 간주하였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서는 다만 극히 일반적이며 간단한 설명에 그치지 않을수 없다. 맑스는 무산계급의 전술의 기본과업을 그의 유물변증법적세계관의 모든 전제와 엄밀히 부합되게 규정하였다. 오직 한 사회의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계급의 호상관계의 총체를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따라서 그 사회의 객관적발전단계를 고려하고 또 그 사회와 다른 사회들간의 호상관계를 고려함으로써만 선진계급의 옳바른 전술을 수립할 근거로 될수 있다. 이때 모든 계급과 모든 나라는 정태에서가 아니라 동태에서 즉 부동상태에서가 아니라 운동(이 운동법칙은 각 계급의 경제적생존조건으로부터 나온다.)속에서 고찰된다. 이 운동도 과거의 관점에서뿐만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도 고찰되며 그것도 완만한 변화밖에 보지 못하는 《진화론자》의 속된 리해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고찰된다. 《위대한 력사적발전시기에는 20년이 하루와 대등합니다. 하긴 후에 가서 20년이 하루로 압축되게 되는 시기가 올수도 있겠지만》 —하고 맑스는 엥겔스에게 썼다(《왕복서한집》, 제3권, 127페지)[268]. 무산계급의 전술은 매개 발전단계에 있어서, 매개 시기에 있어서 인류력사의 이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변증법을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선진계급의 의식, 력량 및 전투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침체의 시기 또는 거부기의 걸음과 같은 이른바 《평화적》발전의 시기를 리용하는 동시에 다른편으로는 이렇게 리용하는 일체 사업을 이 계급의 운동의 《최종목표》의 방향으로, 이 계급속에서 《20년이 하루로 압축되는》 위대한 시기에 위대한 과업을 실천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맑스의 두가지 론술이 특히 중요한바 하나는 《철학의 빈곤》중의 무산계급의

경제투쟁과 경제조직에 관한 론술이고 또 하나는 《공산당선언》중의 무산계급의 정치적과업에 관한 론술이다. 전자는 다음과 같다. 《대공업은 서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집결시킨다. 경쟁은 그들의 리해관계를 분렬시킨다. 그러나 임금의 유지, 고용주와 대항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이 공통적리해관계는 대항, 동맹이라는 하나의 공통적사상으로써 그들을 련합시킨다.… 처음에는 고립되여있던 동맹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또 부단히 련합되는 자본에 대항하여 자기들의 동맹을 유지하는것이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임금을 유지하는것보다 더 필요한것으로 된다.… 이 투쟁(진정한 국내전쟁)에서 앞으로 닥쳐올 전투를 위한 모든 요소들이 집결되고 발전된다. 이러한 점에까지 도달하면 동맹은 정치적성격을 띠게 된다.》269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전투를 위하여》 무산계급의 력량을 준비하는 장구한 전 시기에 필요한 수십년에 걸친 경제투쟁과 로동조합운동의 강령과 전술을 보게 된다. 이것과 영국로동운동의 실례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다음과 같은 수많은 지적을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즉 공업의 《번영》은 《로동자를 매수》하며(《맑스엥겔스왕복서한집》, 제1권, 136페지)270 그들을 투쟁으로부터 리탈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는것, 이 번영이 일반적으로 《로동자를 타락》시킨다는것(제2권, 218페지), 영국의 무산계급은 날로 《자산계급화》하고있다는것—《모든 민족들중에서 가장 자산계급적인 이 민족〔영국민족〕은 나중에는 자산계급과 아울러 자산계급적귀족과 자산계급적무산계급이 생기게 하여보려고 하는듯하다.》는것(제2권, 290페지)271, 영국무산계급의 《혁명적정력》이 사라져가고있다는것(제3권, 124페지), 《자산계급적타락에 물젖은것으로 생각되는 영국로동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까지에는 비교적 오래동안 기다려야 하리라는것(제3권, 127페지), 영국로동운동

에는 《헌장과272의 정열》이 부족하다는것(1866년, 제3권, 305페지)[273], 영국로동자의 지도자들은 그 형으로 보아 《급진적자산자와 로동자간》의 중간물로 되고있다는것(홀리오크에 관하여, 제4권, 209페지), 영국의 독점적지위로 말미암아 또 이 독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영국로동자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것(제4권, 433페지)[274] 등이다. 여기서는 경제투쟁의 전술이 로동운동의 일반적행정(및 결과)과의 련관속에서 놀랄만큼 광범하고 전면적이고 변증법적이고 참으로 혁명적인 견지에서 고찰되고있다.

《공산당선언》은 정치투쟁의 전술에 관하여 맑스주의의 기본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당면한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나 이와 동시에 현재의 운동에서 그 운동의 미래성도 대표한다.》[275] 그렇기때문에 맑스는 1848년에 뽈스까의 《토지혁명》당 즉 《1846년의 크라꼬브폭동을 일으킨 당》을 지지하였던것이다. 맑스는 1848~1849년에 독일의 극단적인 혁명적민주주의파를 지지하였는데 그후에도 그는 그가 전술에 관하여 당시에 말한바를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 맑스는 독일자산계급을 《애당초부터 인민을 배반하고〔농민과의 동맹만이 자산계급으로 하여금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였을것이다.〕 왕관을 쓴 낡은 사회의 대표자와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는》 요소라고 보았다. 아래에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시기의 독일자산계급의 계급적처지에 대하여 맑스가 가한 총괄적인 분석을 소개하는데 이 분석은 사회를 운동속에서 고찰하되 운동의 과거로부터만 고찰하지 않는 유물론의 전형이다. 《…자신도 믿지 않고 인민도 믿지 않으며 우에 대해서는 불만을 말하고 아래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세계적태풍을 두려워하며 어디에 가나 무기력하고 어디에서나 표절하며…창발성이 없으며…젊고 건전한 인민의 청춘의

첫 충동을 늙어빠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지도하여야 할 운명을 지닌 저주할 늙다리…》(《신라인신문》, 1848년, 《유고집》, 제3권, 212페지 참조)[276]. 약 20년후에 맑스는 엥겔스에게 보내는 서한(제3권, 224페지)가운데서 1848년혁명이 실패한 원인은 자산계급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 예상되자 노예제와의 타협을 택한데 있었다고 말하였다. 1848~1849년혁명의 시기가 끝났을 때 맑스는 온갖 혁명유희를 반대하고(샤페르, 윌리히 및 그들과의 투쟁) 말하자면 《평화적》으로 새로운 혁명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기에 맞게 일할줄 알것을 요구하였다. 맑스가 어떠한 정신에서 이 사업을 할것을 요구하였는가 하는것은 1856년의 극히 암담한 반동기의 독일정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평가를 보면 알수 있다. 《독일에서는 모든 일이 그 어떤 농민전쟁의 재판으로 무산계급혁명을 지원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것입니다》(《맑스엥겔스왕복서한집》, 제2권, 108페지)[232]. 독일에서 민주주의혁명(자산계급혁명)이 완성되지 않는 동안은 맑스는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의 전술에서 모든 주의를 농민의 민주주의적정력을 발전시키는데 돌리고있었다. 그는 라쌀이 《프로씨아의 리익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로동운동을 배반》(제3권, 210페지)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특히 바로 라쌀이 지주 및 프로씨아민족주의와 타협하였기때문이다. 엥겔스는 1865년에 출판물에 발표할 예정이였던 공동성명에 대하여 맑스와 의견을 교환한 서한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썼다. 《농업국에서 공업로동자의 이름으로 오직 자산자만을 공격하고 봉건귀족에 의한 농촌로동자의 부가장적〈몽둥이질에 의한 착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것은 비렬합니다》(제3권, 217페지)[277]. 독일에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완성기가 끝나가던 시기, 프로씨아와 오지리의 착취계급들이 이우로부터의 혁명을 어떤 방법으로 완성할것인가를 에워싸고 투

쟁한 시기가 끝나가던 1864～1870년의 시기에 맑스는 비스마르크에게 추파를 보낸 라쌀을 규탄하였을뿐만아니라 동시에 《친오지리주의》와 분립주의의 옹호에 빠진 립크네히트의 과오도 시정하여주었다. 맑스는 비스마르크와도 친오지리파와도 마찬가지로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혁명적전술 즉 《승리자》인 프로씨아융케르와 박자를 맞출것이 아니라 프로씨아의 군사적승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반우에서도 그들을 반대하는 혁명적투쟁을 즉시 복구하는 그러한 혁명적전술을 요구하였다 (《맑스엥겔스왕복서한집》, 제3권, 134, 136, 147, 179, 204, 210, 215, 418, 437, 440～441페지)[278]. 1870년 9월 9일의 국제당의 유명한 호소문가운데서 맑스는 프랑스무산계급에게 시기상조한 봉기를 일으키지 말도록 경고한바 있었지만 그러나 이 봉기가 일어났을 때(1871년)에는 맑스는 《하늘을 찌를듯한》 대중의 혁명적창발력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 맑스의 변증법적유물론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정세하에서는 다른 여러 정세하에서도 그렇지만 혁명적진출의 패배가 이미 점령한 진지를 포기하거나 싸우지 않고 항복하는것보다는 무산계급투쟁의 일반적행정 및 결과에 해가 적었는데 왜냐 하면 이와 같은 항복은 무산계급의 사기를 떨어뜨릴것이며 그 투쟁력을 말살할것이기때문이다. 정치적침체와 자산계급적합법성이 지배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합법적투쟁수단의 리용을 충분히 평가한 맑스는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279]이 공포된후인 1877～1878년에 모스트[120]의 《혁명적공담》을 신랄히 규탄하는 동시에 당시 공식사회민주당이 취체법에 대하여 곧 견인성, 강인성, 혁명성, 비합법적투쟁에 넘어가려는 결의를 표시하지 못하고 일시 기회주의에 빠져있는데 대해서도 그만 못지않게 신랄히 공격하였다.(《맑스엥겔스왕복서한집》, 제4권, 397, 404, 418, 422, 424페지[280],

조르게에게 보낸 서한도 참조하라.)

1914년 7~11월에 집필

1915년 《그라나트백과사전》, 제7판, 제28권에 처음으로 발표

서명: 웨. 일리인

초고에 의하여 인쇄, 1918년판 소책자원문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2권, 27~58페지

변증법의 제 요소

(《헤겔의 저서 〈론리학〉의 요지》에서)

변증법의 제 요소

(1) 고찰의 **객관성**(실례나 지엽적문제가 아니라 사물 그자체).

(2) 이 사물의 다른 사물에 대한 다종다양한 **관계**의 총체.

(3) 이 사물(또는 현상)의 **발전**, 이 사물자체의 운동, 이 사물자체의 생명.

(4) 이 사물에서의 내적으로 모순되는 **경향들**(**과** 측면들).

#

(5) **대립물**의 총계 **및 통일**로서의 사물(현상 등등).

(6) 이런 대립물, 모순되는 지향 등등의 **투쟁** 또는 전개.

(7) 분석과 종합의 결합—개개의 부분들의 분해와 이 부분들의 총체, 합계.

(8) 매개 사물(현상 등등)의 관계는 다종

다양할 ×뿐만아니라 일반적이며 보편적이다. 매개의 사물(현상, 과정 등등)은 다른 매개의 사물과 련관되고 있다.

(9) 대립물의 통일뿐만아니라 매개의 규정, 질, 특징, 측면, 속성이 각자의 다른것에로 자기의 대립물에로? 이행하는것.

(10) 새로운 측면, 관계 등등을 드러내는 무한한 과정.

(11) 사물, 현상, 과정 등등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현상으로부터 본질에로, 덜 깊은 본질로부터 더 깊은 본질에로 심화하는 무한한 과정.

(12) 병존으로부터 인과성에로, 련관과 호상의존의 한 형식으로부터 다른 더 깊고 더 일반적인 형식에로.

(13) 보다 낮은 단계의 일정한 특징, 속성 등등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의 반복, 그리고

(14) 외견상 낡은것에로의 복귀(부정의 부정).

(15) 내용의 형식과의 투쟁 및 형식의 내용과의 투쟁. 형식의 포기, 내용의 개조.

(16) 량의 질에로의 이행과 질의 량에로의 이행.((15와 16은 9의 실례이다.))

변증법은 간단히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학설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이로써 변증법의 핵심이 파악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설명과 전개가 필요하다.

1914년 9~12월에 집필

1929년 《레닌론문집》 제9권에 처음으로 게재

원고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38권, 238~240페지

대로씨야인의 민족적자랑에 관하여

오늘날 민족이니 조국이니 하는것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들 말하며 론하며 부르짖고있는가! 영국의 자유주의적 및 급진주의적 대신들, 프랑스의 허다한 《선진적》정론가들(반동적 정론가들과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고있는), 로씨야의 무수한 관료적, 립헌민주당6적, 진보당167적 서푼짜리 문사(약간의 인민주의적 및 《맑스주의적》 문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자기나름으로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적독립의 원칙의 위대성을 구가하고있다. 그러니 그들가운데서 누가 교형리 니꼴라이 로마노브의 어용찬미자이며 흑인과 인도주민의 학대자의 어용찬미자인지, 누가 우둔하거나 무정견한탓으로 《시세》에 따라 움직이고있는 속된 시정배인지를 분간할수가 없다. 하기는 이것을 분간하는것은 별로 큰 의의도 없는것이다. 우리앞에 있는것은 매우 넓고 매우 깊은 사상적조류인데 그 뿌리는 대국민족의 지주와 자본가 나으리들의 리해관계와 극히 밀접하게 련결되여있다. 이 계급에게 유리한 사상을 선전하는데 1년에 수천만, 수억의 돈이 지출되고있다. 그것은 사방에서—완고한 배외주의자 멘쉬꼬브를 위시하여 기회주의 또는 무정견으로 말미암아 배외주의자로 된 쁠레하노브와 마슬로브, 루바노위치와 스미르노브, 크로뽀트낀과 부르쩨브 등과 같은자에 이르기까지—물을 끌어오는 커다란 수차와도 같다.

우리들 대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도 이 사상적조류에 대

하여 자기의 태도를 밝혀보자. 구라파의 극동부와 아세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대국민족의 대표자인 우리들이 민족문제의 거대한 의의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마땅치 않을 것이다. 특히 정당하게도 《여러 민족 인민들의 감옥》이라고 불리우고있는 이 나라에서는—또 자본주의가 바로 이 구라파의 극동부와 아세아에서 허다한 《새로운》 대소민족을 생활에로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각성시키고있는 이때에는—또 짜리군주제가 허다한 민족문제를 련합귀족평의회192와 구치꼬브, 크레스또브니꼬브, 돌고루꼬브, 꾸뜰레르, 로지체브 등 도배의 리익에 알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수백만의 대로씨야인과 《이민족》을 무장시킨 이 시기에는 더구나 그러하다.

민족적긍지감은 우리들 대로씨야의 자각한 무산자에게는 무관계한것이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조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국의** 근로대중(즉 **조국의** 인구의 10분의 9)을 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자각적인 생활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짜리의 교형리와 귀족과 자본가들이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지르밟고 지지누르고 모욕하는것을 보고 우리는 끝없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폭행이 우리 인민들가운데서 즉 대로씨야인들가운데서 반항을 일으켰다는것, **이** 대렬에서 라지쉐브, 12월당원142, 70년대의 평민지식인출신의 혁명가들이 배출하였다는것, 대로씨야인로동계급이 1905년에 혁명적인 강대한 대중적당을 창건하였다는것, 그와 동시에 대로씨야인농민이 민주주의자로 되기 시작하여 승려와 지주를 타도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자기 생애를 혁명사업에 바친 대로씨야인민주주의자 체르늬쉡스끼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에 《가련한 민족, 노예의 민족, 우에서 아래까지 모두 노예이다.》281라고 말한것을 우리

는 기억하고있다. 공공연한 또는 은연한 노예(짜리군주제도의 노예)인 대로씨야인은 이 말을 회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은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 대로씨야인주민대중속에 혁명정신이 없음을 슬퍼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말이였다. 그때에는 이런 혁명정신이 없었다. 지금은 적기는 하나 이미 있다. 우리는 민족적긍지감에 가득차있다. 왜냐 하면 대로씨야민족도 혁명적계급을 만들어냈기때문이며 대규모적유린, 수많은 교수대와 고문실, 대기근과 그리고 승려, 짜리, 지주, 자본가들에게 아부하는 노예적굴종뿐만 아니라 자유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위대한 모범도 인류에게 보여줄 능력이 있음을 실증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적긍지감에 가득차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노예적인 과거(당시 지주귀족들은 웽그리아, 뽈스까, 페르샤, 중국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늘 농민을 전쟁에 내몰았던것이다.)와 자기의 노예적인 현재를 특히 증오한다. 지금도 이러한 지주들은 자본가들의 재촉을 받아 뽈스까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하여, 페르샤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우리 대로씨야인의 민족적품위를 더럽히고있는 로마노브, 보브린스끼, 뿌리슈께위치도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를 전쟁에 내몰고있는것이다. 노예로 태여난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을 피할뿐만아니라 자기의 노예적처지를 정당화하며 분식하는 노예(례컨대 뽈스까와 우크라이나 등등을 억압하는것을 대로씨야인의 《조국보위》라고 하는것과 같은), 이러한 노예는 증오와 경멸과 혐오를 받아 마땅한 비굴한 종복인것이다.

19세기의 철저한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들이였으며 혁명적무산계급의 스승이였던 맑스와 엥겔스는 《다른 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수 없다.》282고 말하였다. 그러므

로 민족적긍지감에 가득차있는 우리들 대로씨야인로동자들은 대로씨야가 이웃나라를 위대한 민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농노제적인 특권의 원칙으로 대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평등의 원칙으로 대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공화주의적인 자랑스러운 나라로 될것을 바라고있다. 바로 그러한 대로씨야를 원하기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즉 20세기의 구라파에서는(비록 그것이 구라파의 극동부라고 할지라도) 온갖 혁명적수단을 다하여 자기 조국의 군주제도, 지주 및 자본가들 즉 우리 조국의 가장 가증스러운 적과 싸우지 않고서는 《조국을 보위》할수 없다. 또 대로씨야인으로서는 대로씨야의 주민의 10분의 9에 대해서 해가 가장 적은, 온갖 전쟁에서의 짜리제도의 패배를 원하지 않고서는 《조국을 보위》할수 없다. 왜냐 하면 짜리제도는 이 10분의 9의 주민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하고있을뿐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민족을 억압하며 자기의 치욕을 위선적인, 가짜애국주의적인 문구로써 감추는 버릇을 길러줌으로써 그들을 타락시키며 비루하게 만들며 욕보이고있기때문이다.

짜리제도이외에 또 그 비호하에 다른 력사적세력 즉 경제를 집중시키고 광대한 지역을 긴밀히 련계시킴으로써 진보적역할을 놀고있는 대로씨야자본주의가 이미 발생, 강화되였다고 우리를 반박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은 짜리-뿌리슈께위치적사회주의자라고 칭하여야 할(맑스가 라쌀파를 프로씨아왕국적사회주의자라고 칭한것처럼) 우리 나라의 사회배외주의자들을 수호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유력하게 비난하는것이다. 력사가 이 문제를 허다한 약소민족에 불리하고 대로씨야대국의 자본주의에 유리하게 해결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자본의 전력사는 압박과 략탈, 류혈과 추행의 력사이기때문이다. 우리

는 약소민족들이 반드시 분리되여야 한다고는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무조건하고 중앙집권제를 주장하며 련방제라고 하는 소시민적리상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조차 첫째로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억압하고있는 로마노브-보브린스끼-뿌리슈께위치를 원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민주주의자(사회주의자는 더 말할것도 없다.)들이 할 일도 아니다. 비스마르크는 자기 식으로 즉 융케로식으로 진보적인 력사적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리유로 비스마르크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원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맑스주의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맑스주의자일것이다! 그뿐만아니라 비스마르크는 다른 민족의 압박을 받으며 분렬되여있던 독일인들을 통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대로씨야의 경제번영과 급속한 발전은 우리 국내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대로씨야인의 억압을 제거할것을 요구한다.—그런데 진짜로씨야인의 가짜비스마르크의 숭배자들은 이 차이를 망각하고있다.

둘째로 만일 력사가 이 문제를 대로씨야인대국의 자본주의에 유리하게 해결한다면 이로부터는 자본주의가 낳는 공산주의혁명의 주요동력으로서의 대로씨야인무산계급의 사회주의적역할은 점점 더 커지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무산계급혁명을 위하여서는 가장 완전한 민족적 평등과 우애의 정신으로 로동자들을 장기간 교양하는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름아닌 대로씨야인무산계급의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대로씨야인에게 압박을 받고있는 모든 민족의 완전한 평등권과 자결권을 가장 단호하고 철저하고 대담하게 혁명적으로 견지하도록 대중을 장기간 교양하는것이 필요하다. 대로씨야인의 민족적자랑(노예적의미에서가 아닌)의 리익은 대로씨야인(및 기타 모든 민족)의 무산자의 사회주의적리익과 일치한다. 수십

년동안을 영국에 거주하여 절반영국인으로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로동자들의 사회주의운동의 리익을 위하여 여전히 아일랜드의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요구한 맑스는 항상 우리의 모범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 로씨야에서 나서 자란 비속한 사회배외주의자들인 쁠레하노브 및 기타 등등은 우리가 고찰한 이 둘째 가정의 경우에는 비단 자기 조국 즉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대로씨야에 대한 반역자로 될뿐만아니라 로씨야의 모든 민족의 무산계급적형제적단결의 배반자 즉 사회주의위업의 배반자로도 될것이다.

1914년 12월 12일,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제35호에 게재

신 《사회민주주의자》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83～87페지

제2국제당의 파산

제2국제당의 파산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때때로 단순히 문제의 형식적면을 의미하는것으로 즉 교전국사회당들간의 국제적련계가 끊어지고 국제대표회의도 국제사회당집행국283회의도 소집할수 없게 된것 등등을 의미하는것으로 리해한다. 중립 소국들의 일부 사회주의자들, 대체로 이 나라들의 대다수 공식적당들까지도 그리고 기회주의자들과 그 옹호자들도 이 견지에 서있다. 로씨야출판물에서는 웨.꼬쏩스끼씨가 분드172의 《통보》284 제8호에서 심심한 감사를 드릴만한 정도로 솔직하게 이 립장을 옹호하였는데 《통보》 편집부는 그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군비지출에 찬성투표한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을 변호까지 한 꼬쏩스끼씨가 민족주의를 옹호하고있는것은 많은 로동자들이 분드의 자산계급민족주의적성격을 철저하게 인식함에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할수 있다.

자각한 로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는 소시민적-타협주의적지향이나 민족주의적-반정부적지향의 편리한 엄폐물인것이 아니라 장엄한 신념이다. 자각한 로동자들은 제2국제당의 파산을 공식사회민주당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신념, 슈투트가르트228와 바젤230국제대회에서의 연설과 그 대회들의 결의문 등등에서 한 자기들의 가장 엄숙한 선언을 완전히 배반한 것으로 리해하고있다. 이 배반을 보려 하지 않는 사람, 그것

을 보는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배반을 보지 못할수 있다. 문제를 과학적으로 즉 현대사회의 각 계급간의 관계의 견지에서 정식화한다면 우리는 대다수 사회민주당 우선 제2국제당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있는 당인 독일사회민주당이 무산계급을 반대하여 자국의 총참모부, 자국정부, 자국의 자산계급의 편에 섰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중대한 사건이므로 될수록 전면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래전부터 인정되여 온바와 같이 전쟁은 극심한 공포와 재화를 초래하지만 또 인간의 제반 제도가운데 있는 많은 부패한것, 로후한것, 생기를 잃은것 등을 무자비하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파괴하는 상당한 정도의 큰 리익을 가져온다. 1914~1915년의 구라파전쟁도 역시 인류에게 의심할바없는 리익을 가져다주기 시작하였는바 그것은 문명국의 선진계급에게 그 당들내에 진저리나는 고약한 종기가 곪겨서 어디라없이 참기 어려운 송장냄새가 풍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

구라파의 주요한 사회당들이 자기들의 신념과 임무를 모두 배반하였다는것은 사실인가? 물론 배반자자신들도 또 배반자들과 친근하게,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또는 어렴풋이 짐작하고있는—자들도 이것을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국제당의 각종 《권위자들》에게나 또는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가운데 있는 그들의 분파적 벗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정시하고있는 그대로 말하며 로동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전에 또 이 전쟁을 예상하였을 때 사

회당들에서는 자기의 과업과 전술을 어떻게 보고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실제자료가 있는가? 론쟁할 여지도 없이 있다. 그것은 1912년 바젤국제사회주의자대회의 결의문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망각된 말들》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것을 같은 해에 열린 독일사회민주당 켐니쯔대회의 결의문285과 함께 전재한다. 이 결의문은 모든 나라의 많은 반전선전선동문헌들을 총괄하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전술에 관한 사회주의자들의 견해를 가장 정확하고 충분하며 가장 엄숙하게 정식으로 서술한것이다. 그런데 어제날의 국제당과 오늘날의 사회배외주의의 권위자들가운데서 하인드만도 게드도 카우쯔키도 쁠레하노브도 누구 하나 자기의 독자들에게 이 결의문을 회상시킬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에 관하여 완전히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일체 본질적인 개소는 회피하고 부차적인 개소를 인용하고있는(카우쯔키처럼) 이 사실자체가 벌써 배반이라고 할수밖에 없다. 가장 《좌익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결의문을 채택하고는 그것을 아주 파렴치하게 망각하거나 포기하는것은 국제당의 파산의 가장 명백한 표현의 하나이며 동시에 또 오늘날 결의문만 가지고 사회주의를 《시정》하며 《그 로선을 바로잡을》수 있다고 믿는자는 말할나위도 없이 유치하거나 이전의 위선을 영속시키려는 교활한 희망을 가진자들뿐이라는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의 하나이다.

전쟁전에 하인드만이 제국주의를 옹호하는데로 전향하였을 때 《착실한》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그를 정신이상이 생긴 사람으로 보고 그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멸시의 어조로밖에 말하지 않던것이 어제와도 같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나라의 가장 저명한 사회민주당지도자들이 몽땅 하인드만의 립장에로 전락하고말았다. —그들 호상간의 차이란 색채와 기질뿐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례컨대 《우리의 언론》286의 문필가들과

같이 하인드만《씨》에 관해서는 멸시의 어조로 쓰고 카우쯔키 《동지》에 관해서는 존경하는(혹은 굴종하는?) 태도로 말하는 —혹은 잠자코있는—사람들의 공민적용기를 얼마쯤이라도 우아한 말씨로써 평가하거나 특징지을수는 결코 없는것이다. 그래 이러한 태도를 사회주의에 대한 존중 및 일반적으로 자기 신념에 대한 존중과 조화시킬수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하인드만의 배외주의가 거짓이며 유해하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면 이와 같은 견해의 **보다 유력하고** 보다 위험한 옹호자인 카우쯔키에 대하여 비판과 공격을 가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게드의 견해는 최근에 게드파 샤를 뒤마가 그의 소책자 《우리는 어떠한 평화를 희망하는가?》에서 아마 가장 상세하게 표현한듯하다. 이 《쥘 게드의 관방장》—이 소책자의 속표지에 이렇게 서명하고있다.—은 물론 사회주의자들의 지금까지의 여러 성명을 애국적정신에서 《인용》하고있으나(독일사회배외주의자 다위드도 조국보위에 관한 그의 최근의 소책자에서 이와 동일한 성명들을 인용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바젤선언서는 인용하지 않고있다! 이 선언서에 관해서는 쁠레하노브도 침묵을 지키면서 아주 자만자족의 태도로 배외주의의 비속한 견해를 내놓고있다. 카우쯔키의 태도도 쁠레하노브와 비슷하다. 즉 그는 바젤선언서를 인용함에 있어서 그가운데의 혁명적인 개소는 모두(즉 그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빼놓고있다**.—아마 출판물검열기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붙일것이다.… 경찰과 군사당국은 출판물검열을 통하여 계급투쟁과 혁명을 론하는것을 금지하여 《마침》 사회주의배반자들을 구원해준것이다!

그러나 혹시 바젤선언서는 내용없는 격문 같은것으로서 거기에는 현재의 구체적인 전쟁에 꼭 관계되는 력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정확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정반대이다. 바젤결의문은 다른 결의문보다 속이 텅 빈 미사려구가 적고 구체적내용이 많다. 바젤결의문은 실지로 일어난 바로 그 전쟁, 1914～1915년에 발발한 바로 그 제국주의 적충돌에 관해서 말한것이다. 발칸을 둘러싼 오지리와 쎄르비아의 분쟁, 알바니아 등지를 둘러싼 오지리와 이딸리아의 분쟁, 일반적으로 시장과 식민지를 둘러싼 영국과 독일의 분쟁, 아르메니야와 콘스탄티노플을 둘러싼 로씨야와 토이기의 분쟁—이것이 바로 바젤결의문이 현재의 전쟁을 예견하면서 말한 사실이다. 바젤결의문이 이 전쟁은 《어느 국민의 리익의 여하한 구실로도 정당화할수 없다!》고 말한것은 바로 《구라파렬강》간의 오늘날의 전쟁을 가리킨것이다.

그리고 지금 쁠레하노브와 카우쯔키—가장 전형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권위있는 이 두 사회주의자를 들어보자. 한사람은 로어로 쓰고 한사람은 쥐소파132가 로어로 번역해주고있다.—가 전쟁을 변호하는 각종의 《국민적〔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산계급의 저열한 신문에서 따온 서민적〕리유》를 찾고있으며(악셀로드의 방조로) 또 박학한체하면서 허다한 맑스의 거짓인용문을 가지고 1813년과 1870년의 전쟁(쁠레하노브) 혹은 1854～1871년, 1876～1877년, 1897년의 전쟁(카우쯔키)의 《실례》를 인증하고있는데 이와 같은 론거를 《진정으로》 받아들일수 있고 또 그들의 행동을 전대미문의 교활, 위선, 사회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지 않는자는 사실 추호의 사회주의적신념도, 사회주의적량심도 없는 인간들뿐이다! 독일당의 집행위원회더러 메링과 로자 룩셈부르그의 새 잡지(《국제당》287)가 카우쯔키를 옳게 평가하였다고 해서 그 잡지를 저주하게 하라. 완데르웰드, 쁠레하노브, 하인드만 일파더러 《세협약국》288경찰의 방조하에서 역시 자기의 반대자들을 중상하게 하라.—우리는 그 대답으로서 배반이라고밖에는 더 달리 말

할수 없는 지도자들의 전향을 폭로하는 바젤선언을 재록하는데 그치려 한다.

바젤결의문이 말하고있는것은 구라파에서 여러 번 발생하였었고 1789~1871년시기에는 지어 전형적이기도 하였던 민족전쟁 즉 인민전쟁인것이 아니며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부인한 일이 결코 없는 혁명전쟁인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와 《왕조의 리해》를 기초로 하고 또 교전렬강 두 집단인 오지리-독일과 영국-프랑스-로씨야의 《침략정책》을 기초로 한 현재의 전쟁인것이다. 쁠레하노브, 카우쯔키 일파는 실로 로동자들을 기만하여 이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략탈적 전쟁을 인민적, 방위적(어느측에 대해서든지) 전쟁으로 묘사하려고 전력을 다하고있는 모든 나라 자산계급의 리기적인 거짓말을 반복하고있으며 력사상의 비제국주의적전쟁의 실례가운데서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리유를 찾고있다.

이 전쟁의 제국주의적 략탈적 반무산계급적 성격문제는 순 리론적문제의 범위를 벗어난지 이미 오래다. 제국주의는 그 모든 주요특징으로 보아 죽어가고 로쇠하고 부패한 자산계급의 세계분할과 《약소》민족의 예속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이미 리론적으로만 평가된것이 아니다. 이 결론은 모든 나라 사회주의자들의 무수한 신문에서 수천번 반복되였을뿐만아니라 또 례컨대 우리 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는 국민의 대표자인 프랑스사람 델레지가 《닥쳐오는 전쟁》(1911년에 출판!)이란 소책자에서 프랑스자산계급측으로 보아도 현재의 전쟁은 략탈적이라는것을 통속적으로 설명하였을뿐만이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모든 나라 무산계급의 당의 대표들이 바젤에서 틀림없는 제국주의적성격의 전쟁이 닥쳐오고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일치하게 정식으로 표명하였으며 이로부터 전술상의 결론을 내왔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특히 민족적전술과 국제적전

술의 차이가 불충분하게 토의되였다고 하는(《우리의 언론》, 87, 90호에 실린 악셀로드의 최근의 담화를 참조하라.) 등등의 구실은 모두 궤변으로서 일축하여야 할것이다. 그것은 궤변이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것—이러한 연구는 갓 시작되였을뿐인데 그 본질로 보아 과학일반과 마찬가지로 역시 끝이 없는것이다.—과 수백만부의 사회민주주의적신문과 국제당의 결의문에 서술되여있는 자본주의적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전술의 기초는 별개의것이기때문이다. 사회당은 변론의 구락부가 아니라 투쟁하는 무산계급의 조직이다. 따라서 많은 대대가 적진에 넘어갔을 때에는 이들을 배반자라고 부르고 배반자라고 꾸짖어야 하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제국주의를 리해한다고는 말할수 없다느니, 배외주의자 카우쯔키와 배외주의자 쿠노브도 이 제국주의에 관해서 책을 쓰려면 몇권이든 쓸수 있다느니, 이 문제는 《불충분하게 토의되였다.》느니 하는 등등의 위선적인 말을 《경솔히 믿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는 그 략탈성의 온갖 표현과 그 력사적발전이나 민족적특성의 온갖 세부에 걸쳐 남김없이 연구할수는 도저히 없을것이다. 세부분에 관한 학자들(특히 현학자들)의 론쟁은 끝이 없을것이다. 《이것을 리유로 하여》 자본주의와의 사회주의의 투쟁을 단념하고 이 투쟁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반박을 단념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일것이다.—그런데 카우쯔키, 쿠노브, 악셀로드 등등이 우리에게 제안하고있는것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쟁이 개시된후인 오늘날 바젤결의문을 검토하고 그 틀린 점을 지적해보려고 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2

그러나 혹시 성실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이 혁명적정세를

조성하리라고 예견하고 바젤결의에 찬성하였는데 제 사건은 그들의 예견을 뒤집어엎고 혁명은 불가능하게 되지나 않았는가?

쿠노브는 자기가 자산계급편에 넘어간것을 바로 이와 같은 궤변으로써 변명하려 하고있다(소책자 《당의 파산인가?》와 일련의 론문들에서). 그런데 이와 같은《론거》에 대한 암시는 카우쯔키를 위수로 한 거의 모든 사회배외주의자들에게서 엿볼수 있다. 쿠노브는 혁명에 대한 희망이 환상으로 되였는데 환상을 고수하는것은 맑스주의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론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이 스뜨루웨주의자171는 바젤선언서에 서명한 모든 사람들의《환상》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뛰여나게 고귀한 사람인척하면서 판네쿠크나 라데크와 같은 극좌파에게 허물을 넘겨씌우려고 애쓰고있다!

바젤선언서작성자들은 혁명의 도래를 진심으로 예상하였는데 제 사건이 그들의 예상을 뒤집어엎었다고 하는 론거를 본질적으로 고찰해보자. 바젤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1) 전쟁은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를 조성할것이다. (2)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참가하는것을 범죄로 간주할것이며《자본가의 리윤, 왕조의 야심, 비밀외교조약의 리행을 위하여 서로 사격하는》범죄로 간주할것이다. 전쟁은 로동자들사이에《분노와 격분》을 자아낼것이다. (3) 사회주의자들은《인민을 고무하고 자본주의의 붕괴를 촉진하기》위하여 상술한 위기와 상술한 로동자들의 정신상태를 리용할 의무가 있다. (4)《각국정부》는—조금도 례외가 없이—《자기자신에게 위협을 초래하지 않고는》전쟁을 시작할수 없다. (5) 각국 정부는《무산계급혁명을 우려하고있다》. (6) 각국 정부는 빠리꼼뮨(즉 국내전쟁), 로씨야의 1905년혁명 등등을《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모두 아주 명확한 사상이다. 여기에는 혁명

이 필연적으로 도래할것이라는 담보는 없다. 여기에서는 사실과 경향을 정확하게 특징짓는것이 강조되여있다. 이와 같은 사상과 론의에 언급하면서 예기하였던 혁명의 도래가 환상으로 되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혁명에 대하여 맑스주의적태도를 취하지 않고 스뜨루웨적, 경찰적-변절자적태도를 취하고있음을 발로하고있는것이다.

혁명은 혁명적정세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온갖 혁명적정세가 다 혁명을 초래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혁명적정세의 징조는 어떠한것인가? 다음과 같은 3개 주요징조를 지적하면 아마 틀림없을것이다. (1) 지배계급이 자기의 지배를 그대로 유지할수 없게 되는것, 《상층》의 이러저러한 위기 즉 지배계급의 정치적위기가 파렬구를 내여 거기로부터 피압박계급들의 불만과 분노가 터져나오는것, 혁명이 도래하자면 보통 《하층》이 종전대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밖에 또 《상층》이 종전대로는 살《수 없는》것이 필요하다. (2) 피압박계급의 빈궁과 재난이 비상히 우심해지는것. (3) 상술한 원인으로 대중의 적극성이 현저히 높아지는것. 대중은 《평화적》시기에는 잠자코 략탈당하고있지만 폭풍시기에는 위기의 전 환경에 의해서도 또 《상층》자신에 의해서도 자주적인 력사적행동에 끌려들어간다.

개별적집단이나 당의 의지뿐만아니라 개별적계급의 의지와도 관계없는 이러한 객관적변화가 없이는 혁명은—통례로—불가능하다. 이러한 객관적변화를 통털어 혁명적정세라고 한다. 이러한 정세가 로씨야에서는 1905년에, 서구라파에서는 모든 혁명시기에 다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세는 독일에서는 지난 세기 60년대에도 있었고 로씨야에서는 1859~1861년과 1879~1880년에도 있었다. 물론 그때 혁명이 일어난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어떤 혁명적정세에서나 모두 혁명이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상술한 객관적변화에 주관적변화가 첨가된 즉 낡은 정부를 분쇄하기에(또는 뒤흔들기에) 족할만큼 강력한 대중적혁명행동을 할수 있는 혁명계급의 능력이 첨가된 정세하에서만 이 혁명이 일어나기때문이다. 낡은 정부는 그것을 《넘어뜨리지》 않는 한 아무리 위기의 시기라 하여도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혁명에 관한 맑스주의자들의 견해는 이와 같다. 이 견해는 모든 맑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여러 번 전개되였고 론쟁할 여지가 없는것으로 인정되여온것으로서 우리 로씨야인들에게 있어서는 1905년의 경험에 의하여 특히 명백하게 확증된것이다. 묻노니, 1912년의 바젤선언서는 이 면에서 무엇을 예상하였으며 그리고 1914~1915년에는 무엇이 닥쳐왔는가?

예상한것은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라는 표현으로써 간단히 서술된 혁명적정세이다. 그러한 혁명적정세가 닥쳐왔는가? 의심할바없이 닥쳐왔다. 사회배외주의자 렌쉬(그는 위선자 쿠노브, 카우쯔키, 쁠레하노브 일파보다 더 솔직하고 공공연하고 정직하게 배외주의를 옹호하고있다.)는 지어 《우리는 특수한 혁명을 겪고있다.》(그의 소책자 《독일사회민주당과 전쟁》, 6페지, 1915년 베를린판)고까지 말하였다. 정치적위기는 현존하고있다. 즉 어느 정부도 래일의 일을 확신하지 못하며 어느 정부도 재정적파산, 령토의 상실, 자국으로부터의 추방(벨지끄정부가 벨지끄에서 추방당한것처럼) 등 위협을 면하지 못하고있다. 모든 정부가 다 화산우에서 살고있으며 모두가 스스로 대중의 자주활동과 영웅성에 호소하고있다. 구라파의 정치제도전체가 흔들리고있으며 따라서 아마 그 누구도 우리가 가장 큰 정치적동란기에 들어섰다는것(그리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있다는것—나는 이딸리아가 선전포고한 날에 이것

을 쓰고있다.)을 부인하려 하지 않을것이다. 카우쯔키는 선전포고를 한 뒤 2개월후에(1914년 10월 2일 《신시대》24에서) 《전쟁초기처럼 정부가 강하고 당이 약한 때는 없다.》고 썼는데 이것은 카우쯔키가 쥐데쿰과 기타 기회주의자의 마음에 들게 력사학을 위조한 한개 견본인것이다. 정부가 전쟁시기처럼 지배계급의 모든 당들이 동일보조를 취하며 또 이 지배에 피압박계급이 《온순하게》 복종할것을 필요로 하는 때는 없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로 가령 《전쟁초기에는》 특히 급속한 승리를 기대하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능한듯이 보인다 하더라도 누구도 언제나 세계 어디서도 혁명적정세의 기대를 단지 전쟁《초》기와만 결부한자는 없었으며 더우기 《가상적인것》을 현실적인것과 동일시한자는 없었다.

구라파전쟁이 비할바없이 참혹할것이라는것은 모두가 알고있고 보고있고 인정하고있는바이다. 전쟁의 경험은 이것을 더욱더 확증하고있다. 전쟁은 확대되고있다. 구라파의 정치적토대는 갈수록 더 흔들리고있다. 대중의 빈궁은 놀랄 지경이며 이 빈궁을 묵살하려고 하는 정부, 자산계급 및 기회주의자들의 노력은 더욱 자주 실패당하고있다. 어떤 자본가집단은 전쟁에서 종래로 있어본적 없는 엄청난 거액의 리윤을 얻었다. 모순은 극도로 첨예하다. 대중의 은근한 분노, 아름다운 (《민주주의적》) 평화를 바라는 천대받는 몽매한 층의 막연한 기대, 《하층》에서 시작되고있는 불평—이러한것이 모두 현존하고있다. 그런데 전쟁이 지연되고 격화될수록 정부들자체가 대중에게 초정상적인 긴장과 자기희생을 호소하여 그들의 적극성을 더 불러일으킬것이며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전쟁의 시련은 력사상의 온갖 위기, 인간생활의 온갖 재난과 온갖 변혁의 시련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소침하게 만들것이지만 그대신에 또 다른 사람들을

교왕하고 단련시킨다. 그런데 대체로 전 세계 력사를 보면 이러저러한 국가가 몰락되고 멸망한 개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자의 량과 힘이 전자보다 더 크다.

강화의 체결은 이 모든 재난과 모든 모순의 이런 첨예화를 《단번에》 끝마치지 못할뿐만아니라 그와 반대로 많은 점에서 이 재난을 가장 락후한 주민대중에게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며 특히 눈에 뜨이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라파의 대다수 선진국가들과 렬강들에는 혁명적정세가 현존한다. 이 점에서 바젤선언서의 예언은 완전히 적중하였다. 쿠노브, 쁠레하노브, 카우쯔키 일파처럼 이 진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인하거나 묵살하는것은 최대의 거짓말을 하며 로동계급을 기만하며 자산계급에게 봉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자》289(제34, 40, 41호)에서 우리는 혁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소시민적인 기독교목사, 총참모부, 백만장자들의 신문이 구라파의 혁명적정세의 징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인증하였다.①

이 정세는 오래 유지되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첨예화되겠는가? 그것은 혁명을 일으키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모르며 또 그 누구도 알수 없다. 다만 선진계급인 무산계급의 혁명적기분의 발전과 혁명적활동에로의 이행의 경험만이 이것을 보여줄것이다. 이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슨 《환상》도, 또 그 환상에 대한 타파도 운운할것이 없다. 왜냐 하면 어느 사회주의자나 막론하고 어느때 어디서도 바로 지금의(다음이 아니라) 전쟁, 바로 오늘의(래일이 아니라) 혁명정세가 혁명을 산생시킬것이라고 담보한 일은 없기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로 되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73～74페지, 158～159페지, 170～171페지를 보라.—편집자

고있는것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아주 론쟁할 여지도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 즉 대중에게 혁명정세가 현존하고있음을 밝히며 그 정세의 넓이와 깊이를 설명하며 무산계급의 혁명적의식과 혁명적결의를 불러일으키며 무산계급을 도와 혁명적활동으로 이행하며 이 방향에서 사업하기 위하여 혁명정세에 적응되는 조직을 만들어내는것이다.

유력하고 책임적인 사회주의자로서 이와 같은것이 바로 사회주의당들의 의무라는것을 감히 의심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으며 바젤선언은 어떤 《환상》도 전파하거나 품음이 없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즉 인민을 고무하고 《흔들어깨우며》(쁠레하노브, 악셀로드, 카우쯔키처럼 배외주의로 잠재우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붕괴를 《촉진》하는데 위기를 《리용하며》 빠리꼼뮨과 1905년 10~12월의 전례를 지침으로 삼으라는것이다. 현재의 제 당들이 자기의 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것은 그 당의 배반이며 정치적멸망이며 자기 역할의 포기이며 자산계급편으로 넘어가는것이다.

3

그런데 어찌하여 제2국제당의 가장 저명한 대표자들과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를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을수 있었는가? 이 문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론하기로 하고 이 배반을 《리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기도에 대해서 우선 고찰해보자. 우리는 사회배외주의의 주요리론을 특징지어보자. 쁠레하노브(그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배외주의자 하인드만과 그의 새로운 지지자들의 론거를 반복하고있다.)와 카우쯔키(그는 비할바없이 리론적으로 튼튼해보이는 훨씬 《정교한》 론거를 내놓고있

다.)를 이 리론의 대표자로 볼수 있다.

아마 가장 유치한 리론은《장본인》론일것이다. 우리는 공격당하였다, 우리는 방위하고있다, 무산계급의 리익은 구라파 평화의 파괴자들에게 반격을 가할것을 요구한다라고. 이것은 모든 나라 정부의 성명과 전 세계 온갖 자산계급출판물과 황색출판물의 케케묵은 론조의 복제인것이다. 저술가인 쁠레하노브는 이렇게 진부한 속된 리론까지《변증법》을 교활하게 인증하는 수법으로 분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즉 구체적정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본인을 찾아 그를 제재해야 하며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정세가 달라질 때까지 미루어두었다가 해결해야 한다는것이다(1914년 빠리에서 발행된 쁠레하노브의 소책자《전쟁론》과 악쎌로드가《목소리》290 제86, 87호에서 이 소책자의 론의를 되풀이한것을 보라). 변증법을 궤변과 바꾸어놓는 고상한 사업에서 쁠레하노브는 새 기록을 돌파하였다. 궤변론자는 많은《론거》중에서 그 하나에 매달리는 법인데 일찌기 헤겔이 정당하게 말한바와 같이 세상의 어떠한것에 대해서도《론거》는 어디까지나 찾아낼수 있는것이다. 변증법은 소여의 사회현상을 그 발전에서 전면적으로 연구하며 외적인것, 외견적인것을 근본적동력 즉 생산력발전과 계급투쟁에 귀착시킬것을 요구한다. 쁠레하노브는 독일사회민주당출판물로부터 하나의 인용문을 내놓고있는데 그것은 독일사람들자신이 전쟁이 일어나기전에 오지리와 독일이《장본인》임을 인정하였다는것이다.—이만하면 됐다. 로씨야사회주의자들이 갈리찌야, 아르메니야 등등에 대한 짜리의 침략계획을 여러 번 폭로한데 대해서는 쁠레하노브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그에게는 최근 30년간의 경제사와 외교사나마 언급해보려는 시도마저 추호도 없다. 그런데 이 력사는 식민지의 강점, 타국령토의 략탈, 자기보다 나은 경쟁자의 구축과 파멸이야말로 현재 교

전중에 있는 두 렬강집단의 정책의 기본이라는것을 반박할 여지 없이 증명하고있다.①

플레하노브가 자산계급의 환심을 사려고 이처럼 몰렴치하게 외곡한 변증법의 기본명제를 전쟁에 적용하면 《전쟁은 다른(즉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에 불과하다.》는것으로 된다. 이것이 전쟁사문제에 관한 대저술가의 한사람인 클

---

① 사회주의자인체하는것조차 꺼리지 않는 영국의 평화주의자 브레일스퍼드의 저서 《강철과 황금의 전쟁》(런던, 1914년, 이 책은 1914년 3월에 발행한것으로 되여있다!)은 극히 교훈적인것이다. 저자는 민족문제는 대체로 과거의 일로서 이미 해결되였다는것(35페지),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는것, 《현대외교의 전형적문제》(36페지)는 바그다드철도, 이 철도의 레루공급, 마로끄의 광산 등이라는것을 아주 명백하게 인식하고있다. 저자는 《구라파의 최근의 외교사상에서의 가장 교훈적인 사변》의 하나는 식민지세력권의 분할과 빠리교역소에서의 독일증권의 통용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하여 독일과 화해하려는 까요의 기도(1911년과 1913년)를 반대한 프랑스애국주의자들과 영국제국주의자들의 투쟁이라고 정당하게 생각하고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자산계급은 이와 같은 협정을 파탄시켰다(38~40페지). 제국주의의 목적은 약소국가에 자본을 수출하는것이다(74페지). 영국이 이와 같은 자본에 의거하여 얻은 리윤은 1899년에는 9,000만~1억파운드(지펜)였고 1909년에는 1억 4천만파운드(페이쉬)였다. 우리는 로이드-죠지는 최근의 연설에서 이 리윤을 2억파운드 즉 근 20억루블로 계산하였다는것을 부언해둔다. 비루한 수법과 토이기 귀족의 매수, 인도와 애급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얻어줄 벼슬자리—여기에 사태의 본질이 있다(85~87페지). 한줌도 못되는 소수인이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에서 리득을 보고있다. 그런데 이들을 지지하고있는것은 사회와 금융업자이지만 평화옹호자를 따르고있는것은 분산된 주민이다(93페지). 오늘 평화와 군비축소를 론하고있는 평화주의자도 래일에는 군수품공급자에게 완전히 예속된 당의 당원으로 된다(161페지). 협약국측의 세 나라가 강해지면 마로끄를 탈취하고 페르샤를 분할할것이다. —3국동맹은 트리뽈리를 탈취하며 보스니아에서의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며 토이기를 정복할것이다(167페지). 런던과 빠리는 1906년 3월에 로씨야에 수십억이란 거액의 돈을 주어 짜리정부가 해방운동을 진압하는것을 도와주었다(225~228페지). 영국은 지금 로씨야가 페르샤를 압살하는것을 도와주고있다(229페지). 로씨야는 발칸전쟁의 불을 질렀다(230페지).—이것은 모두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모두다 알고있는, 전 세계 사회민주주의신문지상에서 천백번 곱씹은것이 아닌가? 영국자산자는 전쟁전야에 이것을 아주 명백히 알고있었다. 그런데

라우제위쯔의 정의②인데 그의 사상은 헤겔에 의하여 풍부하게 되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맑스와 엥겔스가 견지한 견해인데 그들은 **매개** 전쟁을 그 시기의 각 해당 국가와 그 내부의 **각 계급**의 정치의 **연장**으로 보았던것이다.

쁠레하노브의 졸렬한 배외주의는 카우쯔키의 보다 정교하고 타협적이고 달콤한 배외주의와 꼭같은 리론적립장에 서있다. 카우쯔키는 각국 사회주의자들이 《자국》자본가의 편에 넘어간것을 다음과 같은 론의로써 신성화하고있다.

누구나 다 자기 조국을 보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진정한 국제주의란 우리 나라와 싸우고있는 나라의 사회주의자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있다.… (《신시대》, 1914년, 10월 2일호와 이 저자의 기타 저작들을 참조하라.)

이 류례없는 론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한없는 야비한 모욕이므로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한편에는 윌헬름2세와 니꼴라이2세의 초상을, 다른편에는 쁠레하노브와 카우쯔키의 초상을 새긴 메달을 주문해주는것일것이다. 진정한 국제주의란 《조국보위》를 위하여 프랑스로동자들은 독일로동자들에게 총질하고 독일로동자들은 프랑스로동자들에게 총질하는것을 정

이런 간단한, 세계가 주지하고있는 사실앞에서 독일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쁠레하노브와 뽀뜨레쏘브의 리론이나 또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도 군비축소와 항구한 평화의 《전망》이 있다고 하는 카우쯔키의 리론은 얼마나 꼴사나운 망녕이며 얼마나 참기 어려운 위선이며 얼마나 달콤한 거짓말인가!

② 칼 폰 클라우제위쯔 《전쟁에 관하여》 (K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전집, 제1권, 28페지, 제3권, 139～140페지를 참조하라. 《전쟁은 오직 정부들간, 민족들간의 정치적관계에 의해서만이 일어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 시작되면 이 관계는 중단되고 자체의 독특한 법칙에만 지배되는전혀 딴 상태가 나타나는것처럼 생각한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전쟁은 딴 수단의 개입에 의한 정치적관계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당화하는데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카우쯔키의 론의의 리론적전제를 자세히 연구해보면 약 80년전에 클라우제위쯔가 조소한 바로 그 견해 즉 전쟁이 개시되자 민족들간, 계급들간의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정치관계는 중단되고 전혀 딴 상태, 《단순히》 공격하는자와 방어하는자, 《조국의 적》에 대한 《단순한》 반격이 나타난다는 견해를 보게 된다! 세계인구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허다한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대렬강의 억압, 획득물의 분배를 에워싼 이 나라들의 자산계급간의 경쟁, 로동계급의 운동을 분렬시키고 진압하려는 자본가의 의향—이 모든것이 단번에 쁠레하노브와 카우쯔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들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정치》를 전쟁전 수십년간 묘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회배외주의자의 두목은 맑스와 엥겔스의 언론을 외곡하여 인용하는것을 《으뜸가는》 론거로 삼고있다. 즉 쁠레하노브는 1813년의 프로쎄아의 민족전쟁과 1870년의 독일의 민족전쟁을 상기하고있으며 카우쯔키는 학자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맑스는 1854~1855년, 1859년, 1870~1871년의 전쟁에서 어느 편(즉 어느 자산계급)이 승리하는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맑스주의자들도 역시 1876~1877년과 1897년의 전쟁에 관해서 같은것을 연구하였다는것을 증명하려 하고있다. 모든 궤변가들이 항상 사용하고있는 수법은 당면의 실제정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다는것이 명백한 그러한 실례를 드는것이다. 그들이 지적하고있는 과거의 전쟁들은 자산계급의 다년간의 민족운동 즉 타민족의 압박과 전제제도(토이기와 로씨야의)를 반대하는 운동의 《정치의 연장》이였다. 당시에는 어느 자산계급이 승리하는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하는 문제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문제도 있을수 없었다. 이런 류형의 전쟁이라면 맑스주의자들은 맑스가 1848년과 그후에

각국 인민을 로씨야와의 전쟁에로 호소하였고 엥겔스가 1859년에 독일인의 압박자 나뽈레옹3세와 로씨야짜리제도에 대한 도일인의 민족적증오심을 격발시킨것처럼 그것을 미리 인민에게 호소하여 민족적증오심을 격발시킬수 있었다.①

봉건제도와 전제제도에 대한 투쟁의 《정치의 연장》 즉 해방을 구하는 자산계급의 《정치의 연장》을 로쇠한 자산계급 즉 제국주의적자산계급 즉 전 세계를 략탈한 반동적인 그리고 봉건령주들과 련합하여 무산계급을 압살하고있는 자산계급의 《정치의 연장》과 비교한다는것은 자(尺)를 말(斗)과 비교하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로베스삐에르, 가리발디, 젤랴보브와 같은 《자산계급대표자》를 밀레랑, 쌀란드라, 구치꼬브와 같은 《자산계급대표자》와 비교하는것과 같다. 위대한 자산계급혁명가들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품지 않고서는 맑스주의자가 될수 없다. 그것은 이러한 혁명가들은 봉건제도와의 투쟁에서 새 민족의 수백만 대중을 문명생활에로 올려놓은 자산계급《조국》의 명의로 말할 전 세계사적권리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또 쁠레하노브와 카우쯔키의 궤변에 대해서 경멸감을 품지 않고서는 맑스주의자가 될수 없다. 그것은 이 두사람은 독일제국주의자들이 벨지끄를 압살하고 영국, 프랑스, 로씨야, 이딸

① 겸해서 말하지만 가르제닌씨는 《생활》291에서 맑스가 1848년에 사실상 이미 반혁명으로 된 구라파의 제 민족, 즉 《슬라브인 특히 로씨야인》을 반대하는 혁명전쟁을 지지한것은 《혁명적배외주의》이기는 하나 역시 배외주의는 배외주의라고 말하고있다. 맑스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은 이 《좌익》사회혁명당원146의 기회주의(혹은—더 정확히 말하면 와—완전한 경솔)를 또 한번 증명해줄뿐이다. 우리 맑스주의자들은 언제나 반혁명적인 민족에 대한 혁명전쟁을 지지하였으며 또 지지하고있다. 례컨대 만일 사회주의가 1920년에 아메리카나 구라파에서 승리하고 그때에 가령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자기들의 비스마르크를—처음에는 비록 외교적으로나마— 출진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공격적인 혁명전쟁을 지지할것이다. 가르제닌씨, 당신에게는 이것이 이상한가? 당신이야말로 룝쉰292류의 혁명가이다!

리아 등 제국주의자들이 오지리와 토이기의 략탈을 흥정하고 있는것을 뻔히 보고서도 《조국보위》를 운운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배외주의의 또 하나의 《맑스주의적》리론은 다음과 같다. 즉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기초로 한다. 우리 나라의 승리는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할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도래를 촉진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패배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발전을 지체시킬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도래를 지체시킬것이다. 이와 같은 스뜨루웨적리론을 우리 나라에서는 쁠레하노브가 전개하고 독일인들가운데서는 렌쉬 등이 전개하고있다. 카우쯔키는 이 졸렬한 리론을 반대하여, 이 리론을 로골적으로 옹호하는 렌쉬를 반대하여, 이 리론을 은근히 고집하는 쿠노브를 반대하여 론쟁하고있으나 이것은 다만 보다 정교하고 보다 위선적인 배외주의적리론을 기초로 하여 각국 사회배외주의자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졸렬한 리론을 오래 검토할 필요는 없다. 스뜨루웨의 《비판적의견》은 1894년에 나왔다. 그후 20년간에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성이 거세된 《맑스주의》의 탈을 쓰고 자기의 견해와 념원을 실현하려는 교양있는 로씨야자산자들의 이 《수법》을 날날이 보아왔다. 스뜨루웨주의는 로씨야적지향일뿐만아니라 최근 사변이 특히 명백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맑스주의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말살하며 포옹하는 방법으로 맑스주의의 《선동적인》, 《미혹적인》, 《블랑끼식 공상적인》 측면을 제외한 《모든》 《진정으로 과학적인》 측면과 요소들을 인정하는체하는 방법으로 압살하려고 하는 자산계급리론가들의 국제적지향이기도 하다. 바꾸어말하면 개량을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계급투쟁(무산계급독재가 없는)에 이르기까

지, 《사회주의적리상》의 《일반적》인정과 《새 제도》에 의한 자본주의의 교체에 이르기까지의 자유주의자산계급이 용납할수 있는것은 몽땅 맑스주의로부터 취하면서 맑스주의의 산 령혼《만》은, 맑스주의의 혁명성《만》은 포기하는것이다.

맑스주의는 무산계급의 해방운동의 리론이다. 그렇기때문에 자각한 로동자들이 스뜨루웨주의에 의한 맑스주의의 교체과정에 대하여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당연한것이다。이 과정을 추진하는 힘은 수없이 많고 또 다양하다. 우리는 주요한 세가지만 지적하자. (1) 과학의 발전은 맑스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있다. 그래서 맑스주의와 투쟁함에 있어서 위선적으로, 그 원리를 공공연하게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시인하는체하면서 궤변으로써 그 내용을 거세하고 맑스주의를 자산계급에게 해롭지 않은 신성한 《우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써 투쟁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2) 사회민주당내에서의 기회주의의 발전은 맑스주의의 이러한 《개조》를 지지하고 기회주의에 대한 온갖 양보를 정당화하기에 알맞게끔 맑스주의를 깎아맞추고있다. (3) 제국주의시기는 다른 모든 민족을 압박하는 특권적인 《대》민족들간의 세계분할의 시기이다.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얻은 획득물의 찌꺼기는 물론 소자산계급의 일부 층과 로동계급의 귀족 및 그 관료에게 차례지는것이다. 이 계층은 무산계급과 근로대중 가운데서 극소수로서 《스뜨루웨주의》에 매혹된다. 왜냐 하면 스뜨루웨주의는 그들이 모든 민족들의 피압박대중을 반대하여 《자》국의 자산계급과 련합하는것을 변호해주고있기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당의 파산의 원인문제와 관련해서 아래에서 다시한번 론하게 될것이다.

4

아주 정밀하고 교묘하게 과학성과 국제성으로 분식한 사회배외주의의 리론은 카우쯔키가 내놓은 《초제국주의》의 리론이다. 저자자신에 의한 이 리론의 가장 명료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새로운 서술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의 보호관세운동의 약화, 미국에서의 관세의 인하, 군비축소의 요구, 전쟁전 몇해동안에 있어서의 프랑스와 독일의 자본수출의 급격한 감소, 끝으로 각종 금융자본가도당의 국제적결합의 강화—이 모든것은 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하였다. 즉 현재의 제국주의정책이 새로운 초제국주의정책에 의하여 구축되고 이 후자가 각국의 금융자본 호상간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련합한 금융자본의 세계에 대한 공동적착취와 바꾸어놓지나 않겠는가? 어쨌든 자본주의의 이와 같은 새 단계는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이 실현될수 있는가 없는가에 해답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전제가 없다.》(《신시대》, 제5호, 144페지, 1915년 4월 30일)

…《현재의 전쟁의 과정과 결말은 이 점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질는지도 모른다. 이 전쟁은 금융자본가들사이의 민족적증오를 극도로 격발시키고 군비확장과 이 면에서 우세를 차지하려는 념원을 강화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불가피하게 하여 초제국주의의 미약한 맹아를 아주 짓밟아버릴수도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저서 〈정권으로의 길〉에서 한 예견이 놀랄만한 정도로 실현되여 계급적모순의 첨예화가 우심해지고 그와 동시에 또 자본주의의 도덕적사멸〔문자그대로 하면 《몰락, Abwirtschaftung》, 파산〕이 촉진될것이다. …〔지적해야 할것은 카우쯔키는 이 허식적인 문구를 단지 《무산계급과 금융자본사이의 중간층》 즉 《지식인, 소자산자 나아가서는 소자본가들》까지도 자본주의에 대하여 《적의》를 품는다는 의미에서 쓰고있는것이다.〕…그러나 전쟁은 달리 종말될수도 있을것이다. 전쟁은 초제국주의의 미약한 맹아를 성장시킬수도 있을것이다. 전쟁의 교훈은〔이에 주의하라!〕 평화시기에는 오래동안 기

다려야 할 발전을 촉진할수도 있다. 만일 사태가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즉 각국간의 협정, 군비축소, 항구한 평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때에는 전쟁전에는 자본주의도덕을 점점 더 사멸되게 하던 원인들중의 가장 나쁜것이 없어질수도 있을것이다.》 새 단계는 물론 무산계급에게는 《새 재난》을, 《아마 보다 큰 재난》을 가져다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초제국주의》는 《일시적으로는》 《자본주의한계내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대의 세기를 창조할수도 있을것이다》. (145페지)

이러한 《리론》으로부터 어떻게 사회배외주의를 정당화하는 결론이 나오는가?

그것은—《리론가》로서는—아주 괴이한 방법 즉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나온다.

독일사회민주당좌파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제국주의와 그것이 낳은 전쟁은 우연한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지배를 가져오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산물이다. 그렇기때문에 대중적혁명투쟁에로 넘어가야 한다. 왜냐 하면 비교적 평화적인 발전의 시기는 이미 끝났기때문이다. 사회민주당《우파》는 제국주의가 《필연적인것》이라면 우리도 응당 제국주의자로 되어야 한다고 란폭하게 말하고있다. 카우쯔키는 《중앙파》의 역할을 놀면서 조정하고있다.

그는 그의 소책자 《민족국가, 제국주의국가 및 국가련맹》(뉴른베르그, 1915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극좌파》는 불가피한 제국주의에 사회주의를 《대립》시키려 하고있다. 즉 《우리가 반세기동안이나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적지배에 대립시켜온 사회주의를 선전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즉시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은 극히 급진적인듯이 보이지만 사회주의의 즉시적실지적실현을 믿지 않는 사람을 모두 제국주의진영에 밀어넣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17페지, 밑점은 나의것)

카우쯔키는 사회주의의 즉시적실현을 운운하면서 독일에서는 특히 전시출판물검열로 말미암아 혁명활동을 론할수 없

음을 리용하여 가짜를 《실현》하고있다. 좌파가 당에 요구하고 있는것은 혁명적활동의 즉시적 선전과 준비이지 결코 《사회주의의 즉시적실지적실현》이 아니라는것은 카우쯔키도 잘 알고 있는것이다.

좌파는 제국주의의 필연성에서 혁명적활동의 필연성을 도출하고있다. 《초제국주의론》은 카우쯔키가 기회주의자들을 정당화하는데 리용되고있으며 기회주의자들이 결코 자산계급편에 넘어간것이 아니라 다만 사회주의의 즉시적실현을 《믿지 않을》뿐이며 군비축소와 항구한 평화의 새《시대》가 우리앞에 나타날《수도 있다》는것을 기대하고있는듯이 사태를 묘사하는데 리용되고있다. 이 리론은 카우쯔키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평화적시대에 대한 기대로써 기회주의자들과 공식적사회민주당이 자산계급에 가담하여 바젤결의문의 엄숙한 성명을 저버리고 현재의 폭풍시대에 혁명적(즉 무산계급적)전술을 포기함을 정당화하고있다는데 귀결될수 있을뿐만아니라 오직 여기에 귀결될수밖에 없다!

주목해야 할것은 카우쯔키가 여기서 새 국면이 이러저러한 사정과 조건하에서 생겨나며 또 발생할것이라는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새 국면이 《실현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문제마저 나는 아직 해결할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고있는 점이다. 그리고 실지로 카우쯔키가 지적한 새시대로의 《추향》을 주의해보라. 저자가 《군비축소의 요구》를 경제적사실의 부류에 포함시키고있는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것은 그가 모순의 완화라는 리론과는 전혀 상용될수 없는 확정적 사실들을 피하여 소박한 시정배적말공부와 환상 뒤에 숨으려는것을 의미한다. 카우쯔키의 《초제국주의》는—겸해 말하지만 이 말은 저자가 말하려는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있다.—자본

주의모순이 크게 완화되였음을 의미한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보호관세제도의 약화》를 우리에게 말하고있다. 대체 여기에 새시대로의 추향이 조금이라도 있단 말인가? 극도에 달한 미국의 보호관세제도는 약화되였으나 영국에 유리한 영국식민지의 특권 즉 최혜관세가 존속되고있는것처럼 보호관세제도는 의연히 존속되고있다. 지난날의 자본주의의 《평화적》시기가 현대의 제국주의시기로 바뀐것은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가를 상기해보자. 그것은 자유경쟁이 독점적자본가단체에 그 자리를 내준것과 전체 지구가 다 분할된데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이 두 사실(과 요인)이 확실히 세계적의의를 가지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자본이 거침없이 식민지를 확장하고 아프리카등지의 점령되지 않은 토지를 략탈할수 있은 동안은 자유무역과 평화적경쟁이 가능했으며 또 필연적이였다. 그 당시에는 자본의 집중이 아직 미약했고 독점기업 즉 어느 산업분야전반을 지배할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 아직 없었다. 이와 같은 독점기업의 발생과 발전(이 과정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아마 정지되지 않은것 같다? 카우쯔키도 아마 전쟁이 이 과정을 촉진시키고 첨예화시켰다는것은 감히 부인하지 못할것이다.)은 종전과 같은 자유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지반을 무너뜨리고있으며 또 지구의 분할은 평화적확장으로부터 식민지와 세력권의 재분할을 위한 무력투쟁으로 넘어가는것을 피면할수 없게 하고있다. 두 나라에서의 보호관세제도의 약화가 여기서 무엇을 변경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다음은 몇해동안에 두 나라의 자본수출이 감소되였다는것, 이 두 나라 즉 프랑스와 독일은 례컨대 1912년의 하름스의 통계에 의하면 각각 국외에 약 350억마르크(약 170억루블)의 자본을 가지고있었는데 영국은 한 나라만으로서도 그 2배

이상을 가지고있었다.① 자본수출의 증대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이때까지 균등한 일이 없었으며 또 균등할수도 없었다. 자본의 축적이 감소된것이나 또는 국내시장의 용량이 례컨대 대중의 생활형편의 커다란 개선으로 말미암아 개변된데 대해서는 카우쯔키는 말할 엄두조차 못내고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몇해동안 두 나라의 자본수출이 감소되였다는 사실에서는 결코 새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결론을 얻을수 없다.

《금융자본가도당의 국제적결합의 강화》 이것은 몇해동안뿐만이 아니라,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체 자본주의의 진정으로 전반적이고 의심할바없는 유일한 추향이다. 그러나 어째서 이로부터 이제까지와 같은 군비확장의 요구가 아니라 군비축소의 요구가 나올것이라고 하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포》(그리고 대체로 군수품을 생산하는)회사가운데서 어느 하나 례컨대 암스트롱회사를 들어보자. 얼마전에 영국의 《경제학자》잡지293(1915년 5월 1일부)는 이 회사의 리윤이 1905~1906년도의 60만 6000파운드(약 600만루블)로부터 1913년에는 85만 6000파운드로, 1914년에는 94만파운드(900만루블)로 증대되였다는것을 보도하였다. 금융자본의 결합은 여기서는 매우 밀접하며 날로 증강되고있다. 독일자본가들은 영국회사의 업무에 《참여》하고있으며 영국회사는 오지리를 위하여 잠수함을 만들고있다. 국제적으로 결합된 자본은 군비확장과 전쟁 면에서 멋들어진 장사를 하고있다. 여러 나라 자본

① 베른하르드 하름스의 《세계경제문제》(*Bernhard Harms*, 《Probleme der Weltwirtschaft》), 1912년 예나판을 보라. 죠지 페이쉬의 《식민지에서의 대브리텐의 투자》(*George Paish*, 《Great Britains Capital Investments in Colonies etc.》)는 《왕실통계협회잡지》(《Journal of the Royal Statist. Soc.》)에 게재. 1910~1911년, 제74권 167페지. 로이드-죠지는 1915년초의 연설에서 영국의 재외자본을 40억파운드 즉 800억마르크로 간주하였다.

이 단일한 국제적인 한덩어리로 결합되고 뒤엉킨다는 사실로부터 군비축소의 경제적추향이라는 결론을 얻는다는것은 계급적모순의 현실적첨예화를 그 완화를 바라는 선량한 소시민적 념원과 바꾸어놓는것을 의미한다.

5

카우쯔키는 전쟁의 《교훈》이라는것을 전혀 속물적인 정신에서 말하고있으며 이 교훈을 전쟁의 재화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인 공포처럼 간주하고있다. 례컨대 그의 소책자 《민족국가》에는 다음과 같이 론의되여있다.

《세계평화와 군비축소를 진심으로 관심하는 계층이 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으며 증명할 필요도 없다. 소자산자와 소농민 나아가서는 많은 자본가와 지식인들까지도 전쟁과 군비확장에서 입는 그들의 손해보다 큰 리익을 제국주의에 가지고있지는 않다.》(21페지)

이것은 1915년 2월에 쓴것이다! 제 사실은 소자산자와 《지식인》까지 포함한 모든 유산계급이 전부 제국주의에 가담하고있다는것을 말하고있는데 카우쯔키는 갑속에 든 사람294처럼 아주 흡족해하면서 달콤한 말로써 이러한 사실들을 말살하고있다. 그는 소자산계급의 리익을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소자산자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고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도처에서 그들의 행동에 의해 반박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자산계급일반의 《리익》을 자산계급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산계급목사의 박애에 찬 설교 즉 현재의 제도는 기독교의 리상으로 충만되여있다고 신명에 맹세하여말하는 목사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는것과 꼭같은것이다. 카우쯔키는 맑스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온갖 내용은 없애버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유심론적인 의미에서의 《리익》이라는 말만 남겨놓

고있다. 그것은 그가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현실적인 경제인것이 아니라 보편적복리라는 천진한 념원이기때문이다.

맑스주의는 《리익》이라는것을 일상생활중의 수천수만의 사실들에서 나타나는 계급모순들과 계급투쟁에 의해서 판단한다. 소자산계급은 제 모순의 완화를 공상하고 떠벌리면서 제 모순의 첨예화는 《유해한 후과》를 초래한다는 《론거》를 내놓는다. 제국주의는 금융자본에 대한 유산계급의 모든 계층의 굴종이며 5~6개의 《강》국들사이에 있어서의 세계분할인데 그 대다수가 지금 전쟁에 참가하고있다. 렬강에 의한 세계분할이란 이 나라들의 유산계층전부가 식민지와 세력권의 점유에, 타민족에 대한 압박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강》국이나 압박하는 민족에 속해있는것과 련관이 있는 비교적 수입이 많은 지위와 특권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①

지금은 종전처럼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진화하며 새로운 나라들에로 점차 확대하여가는 비교적 평온하고 문화적이며 평화적인 환경속에서 살수 없게 되였다. 왜냐하면 다른 시대가 닥쳐왔기때문이다. 금융자본은 어떤 나라를 대렬강의 대렬

---

① 에.슐체가 보도한데 의하면 1915년에는 전 세계의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저당증권, 공상업회사주권 등을 망라하여)의 총액은 7,320억프랑이였다. 이 총액중에서 영국이 1,300억프랑, 미국이 1,150억프랑, 프랑스가 1,000억프랑, 독일이 750억프랑을 차지하였다.—따라서 이 네 강국이 모두 4,200억프랑 즉 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로부터 기타 모든 나라를 능가하고 다른 나라를 억압략탈하고있는 선진적강국의 리득과 특권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판단할수 있다(에른스트 슐체박사 《로씨야에서의 프랑스자본》(*Dr. Ernst Schultze*, 《Das französische Kapital in Russland》), 1915년 베를린에서 출판된 《금융문고》(《Finanz-Archiv》), 제32년권, 127페지에서). 《조국을 보위》하며 강대한 민족의 조국을 보위하는것은 타민족을 략탈하여 장물을 획득하는 권리를 보위하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로씨야에서는 자본주의적제국주의는 비교적 약하지만 그대신에 군사적봉건적제국주의는 비교적 강하다.

에서 구축하고있으며 또 구축해버릴것이다. 그리고 그 식민지와 세력권을 탈취할것이며(영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그렇게 하려고 위협하고있는것처럼) 소자산계급에게서 그 《강국적인》 특권과 부대적수입을 탈취할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증명하고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 공인하고있는, 또 카우쯔키까지도 그의 소책자 《정권으로의 길》에서 인정한 그런 모순의 첨예화의 결과인것이다.

그런데 강국적특권을 위한 무장투쟁이 사실로 된 이때에 카우쯔키는 자본가와 소자산계급에게 전쟁은 무서운것이며 군비축소는 좋은것이라고 설복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목사가 강단에서 자본가에게 박애는 신의 계몽이요, 령혼의 동경이요, 문명의 도덕적법칙이요라고 설복하는것과 꼭같으며 또 그 결과도 꼭같다. 카우쯔키가 《초제국주의》로의 경제적추향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은 사실상 금융자본가들에게 나쁜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소자산계급적설교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수출은? 그러나 자본은 식민지에보다 례컨대 미국과 같은 독립국가에 더 많이 수출되고있다. 식민지략탈은? 그러나 식민지는 이미 다 략탈되였고 거의 모두가 해방을 지향하고있다. 즉 《인도는 앞으로 영국의 령지로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도는 전일한 제국으로서 결코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지는 않을것이다.》 (우에서 인증한 소책자 49페지), 《어떤 공업자본주의국가를 막론하고 원료획득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만한 식민지제국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기필코 다른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을 그 나라를 반대하는데로 련합시킬것이며 그 나라를 장기간의 소모전에로 인입시킴으로써 그 목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것이다. 이 정책은 궁정적으로 국가의 전체 경제생활을 파국에로 끌고가게 될것이다》. (72～

73페지)

이것은 금융자본가들에게 제국주의를 포기하라고 하는 속물적인 설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파산으로 자본가들을 위협하는것은 주권장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탕진》했으니 취인소에 가서 투기매매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그와 경쟁하는 자본가와 그와 경쟁하는 민족의 파산에서 리득을 보며 더욱더 집적된다. 그렇기때문에 경제경쟁 즉 경제상에서 경쟁자를 파산에로 밀어넣는 일이 격화되고 《긴박》해질수록 자본가는 군사적으로도 경쟁자를 파산에로 밀어넣으려고 한다. 자본의 수출에 유리한 식민지나 토이기 같은 예속국이(이와 같은 나라에 자본을 수출하면 금융자본가는 미국처럼 자유롭고 자주적이고 문명한 나라에 자본을 수출하는것에 비해서 3배의 리윤을 획득하기때문에) 감소될수록 토이기, 중국 등등을 정복하고 분할하는 투쟁은 더욱더 맹렬해진다. 금융자본과 제국주의시대에 관한 경제리론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있다. 제 사실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있다. 그런데 카우쯔키는 이 모든것을 저속한 시정배적《도덕》으로 만들고있다. 즉 구태여 열을 낼 필요는 없다. 더우기 토이기의 분할이나 인도의 략탈을 위해서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오래 가지는 못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니 평화적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것이 나을것이다…라고. 물론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정신으로 금융자본가들을 권유하는것은 목사의 설교에 아주 적합한 제목이다.… 선량한 카우쯔키는 독일금융자본가들을 거의 완전히 설복하고 설득시켰다. 식민지때문에 영국과 전쟁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이 식민지들은 아무래도 멀지 않아 해방될것이기때문에라

고!…

1872년부터 1912년까지의 애급에 대한 영국의 수출입은 영국의 총수출입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맑스주의자》 카우쯔키의 도덕은 이렇다. 즉 《우리에게는 애급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지 않고 경제적요인의 작용에만 의하였더라면 애급과의 무역이 더 느리게 증대했으리라고 생각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72페지), 《자본확장의 념원은》 《제국주의의 폭력적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민주주의에 의해서** 실현되는것이 **가장 좋다**》.(70페지)

이것은 얼마나 엄숙하고 과학적이고 《맑스주의적인》 분석인가! 카우쯔키는 이 불합리한 력사를 훌륭하게 《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것을 《증명》하였다. 즉 영국사람들은 프랑스사람들에게서 애급을 탈취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독일금융자본가들은 애급에서 영국사람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고 토이기원정을 조직하며 또 기타 방책을 취할 필요가 절대 없었다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영국사람은 애급에 대한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적민주주의》에로 이행하는것(**카우쯔키식의** 자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 《가장 좋다》는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것이다.…

《만일 자산계급자유무역론자들이 자유무역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산생되는 경제적모순들을 완전히 제거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물론 이것은 그들의 환상이였다. 자유무역도 민주주의도 이 모순들을 제거할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근로대중에게 가장 적은 고통과 희생을 가져다주는 투쟁형태로써 이 모순들을 근절할것을 희망한다.》(73페지)…

신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신이여, 용서하시옵소서! 라쌀은 일찌기 속물이란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리고는 한 시인의 명언으로써 대답하였다. 《속물이란 공포와 신이 가엾게

여길것이라는 기대로 가득찬 속빈 창자이다.》295

카우쯔키는 맑스주의를 놀라울 지경으로 유린하였으며 자기는 에누리없는 목사로 전락하였다. 이 목사는 자본가들에게 평화적민주주의에로 이행할것을 권유하고있으며 또 이것을 변증법이라고 말하고있다. 즉 처음에 자유무역이 있었고 다음에 독점자본과 제국주의가 있었다면 무엇때문에 《초제국주의》가 있을수 없고 또다시 자유무역이 있을수 없는가? 이 목사는 이 《초제국주의》가 가져다주는 행복을 아주 멋들어지게 묘사하면서 피압박대중을 위안하고있으나 그와 같은것이 《실현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감히 말도 못하고있다! 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사람을 위안한다고 말한다. 포이에르바흐는 그 위안의 반동성을 아주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즉 노예를 노예제도를 반대하는데로 궐기시키지 않고 위안하는 사람은 노예주의 졸개라고 말하였다.

온갖 압박계급은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가지 사회적기능 즉 형리의 기능과 목사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형리는 피압박자들의 반항과 폭동을 진압한다. 목사는 피압박자들을 위안하며 그들에게 계급적지배를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고통과 희생을 감소시키는 전망을 펼쳐주며(이러한 전망이 《실현될수 있다》고 담보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것은 특히 용이하다.…) 이로써 그들을 이런 지배에 견디여내게 하며 혁명적활동을 포기하게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정을 해소시키며 그들의 혁명적결의를 좌절시킨다. 카우쯔키는 맑스주의를 가장 악렬하고 가장 졸렬한 반혁명적리론으로 전락시켰으며 가장 추잡한 승려주의로 전락시켰다.

1909년에 카우쯔키는 그의 소책자 《정권으로의 길》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의 첨예화, 전쟁과 혁명의 시기, 즉 새로운 《혁명의 시기》의 박두—누구도 반박하지 못하였고 또 반박할

수도 없는—를 승인하고있다. 그는 《시기상조》한 혁명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또 투쟁을 앞두고 있을수 있는 패배를 부인해서도 안되지만 폭동의 승리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것은 《우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배반》이라고 언명하였다.

전쟁이 닥쳐왔다. 모순은 더욱더 첨예화되였다. 대중의 고난은 막심해졌다. 전쟁은 지연되고있으며 싸움터는 점점 확대되고있다. 카우쯔키는 련속 소책자를 쓰고있는데 출판물검열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령토략탈과 전쟁의 참화, 군수품상인들의 엄청난 리윤, 물가의 등귀, 동원되여 입대한 로동자들에 대한 《군사적노예제도》 등에 관한 자료는 인용하지 않고 그대신에 무산계급을 계속 위안하고있다.—자산계급이 혁명적이였고 진보적이였던 때 즉 《맑스자신》이 이런 또는 저런 자산계급의 승리를 기대하였던 때의 전쟁을 실례로 하여 그들을 위안하고있다. 또 식민지와 략탈, 전쟁과 군비확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평화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자를 가득 렬거하여 무산계급을 위안하고있다. 카우쯔키는 대중의 고난의 격화, 사실상 목전에 보이는 혁명적정세(이것은 말할수 없다! 출판물검렬기관이 허가하지 않으니까…)의 도래를 감히 부인하지 못하면서 자산계급과 기회주의자들에게 아첨하고있으며 《희생과 고통이 보다 적게》 될 새 단계에서의 투쟁형식의 《전망》(이것이 《실현되겠는가》 하는것을 그는 담보하지 못하고있다.)을 묘사하고있다.…그러므로 프란쯔 메링과 로자 룩셈부르그가 카우쯔키를 매춘부(Mädchen für alle)라고 말한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

1905년 8월에 로씨야에는 혁명정세가 출현하였다. 짜리는 흥분에 싸인 대중을 《위안》하기 위하여 불리긴국회122를 소집할것을 약속하였다. 만일 금융자본가들이 군비확장을 포기하

고 서로 《항구한 평화》협정을 맺는것을 《초제국주의》라고 말할수 있다면 불리긴렵법자문제도는 《초전제제도》라고 말할수 있다. 수백개의 거대한 기업소에 《서로 엉켜있는》 수백명의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자본가들이 래일 각국 인민들에게 전쟁후에 군비축소를 지지할것을 약속한다고 잠시 가정하자(우리는 카우쯔키의 졸렬한 리론에서 나오는 정치적결론을 구명하기 위하여 잠시 이렇게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무산계급에게 혁명적활동을 단념하라고 권고하는것은 무산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배반으로 될것이다. 그것은 혁명활동이 없이는 모든 약속, 모든 아름다운 전망도 공중루각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전쟁은 자본가계급에게 거대한 리윤과 새로운 략탈(토이기, 중국 등등에 대한), 수십억의 새로운 주문, 리자가 더 많은 새로운 공채 등의 화려한 전망만을 가져온것이 아니다. 그뿐이 아니다. 전쟁은 무산계급을 분렬타락시킴으로써 자본가계급에게 더욱 많은 정치적리익을 가져왔다. 카우쯔키는 이 타락을 촉진하고있으며 《자》국의 기회주의자들, 쥐데쿰파와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무산계급의 이와 같은 국제적분렬을 신성화하고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정당들의 통일이란 구호는 한 나라의 무산계급이 그 나라의 자산계급과 《통일》하고 각 민족 무산계급과는 분렬한다는것을 의미함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6

이상의 글은 《사회민주당의 파산》(쿠노브에 대한 카우쯔키의 반박, 제7절)에 대한 카우쯔키의 결론이 게재된 《신시대》 5월 28일호(제9호)가 발간된 때에는 이미 집필되여있었다. 카우쯔키는 사회배외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낡은 궤변과

하나의 새로운 궤변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전쟁은 순전히 제국주의적이라느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국주의를 선택하든가 사회주의를 선택하든가 해야 한다느니, 독일과 프랑스(많은 점에서 영국도 이러하다.)의 사회주의당과 무산계급대중은 아무 생각 없이 극소수의 국회의원의 호소 하나만 듣고 제국주의의 품에 뛰여들어 사회주의를 배반하고 그리하여 력사에 류례없는 파산을 초래하였다느니 하는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궤변이며 로동자들을 새로 기만하는것이다. 이 전쟁은《순전히》 제국주의적전쟁이 아니라는것이다.

지금의 전쟁의 성격과 의의 문제에 있어서 카우쯔키는 놀랄만큼 동요하고있다. 이 경우에 이 당수는 바젤 및 켐니쯔 대회의 정확한 공식성명을 도적이 도적장소를 피하듯이 언제나 조심스럽게 피하고있다. 1915년 2월에 집필된《민족국가…》라는 소책자에서 카우쯔키는 전쟁은《결국은 역시 제국주의적전쟁이다.》(64페지)라고 단언하였다. 이제 와서는 순전히 제국주의적전쟁은 아니라는 부언이 첨가되고있다.—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전쟁이란 말인가?

전쟁은 그밖에 또 민족적이기도 하다는것이다! 카우쯔키는《쁠레하노브식의》 그런 소위 변증법을 리용하여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말까지 하였다.

《지금의 전쟁은 제국주의의 산물일뿐만아니라 또한 로씨야혁명의 산물이기도 하다.》 카우쯔키는 일찌기 1904년에 로씨야혁명은 새 형태로 범슬라브주의를 소생시킬것이며《민주주의적로씨야는 불가피적으로 민족적독립을 위한 오지리 및 토이기 슬라브인들의 열망을 세차게 불타오르게 할것…》이라고 예견하고있었다.《그때에는 뽈스까문제도 첨예화될것이다. … 그때에는 오지리는 멸망할것이다. 그것은 현재 서로 분리되려고 하는 요소들을 한데 묶어세우고있던 쇠사슬이 짜리제도의 붕괴와 함께 끊어지고말것이기때문이다.》(마지막말은 지금 카우쯔키자신이

1904년의 그의 론문에서 인용한것이다.)…《로씨야혁명은…동방의 민족적지향에 새로운 강력한 충격을 주었으며 구라파문제에 아세아문제를 첨가하였다. 이 문제들은 모두 지금의 전쟁시기에 절박하게 제기되여 무산계급대중도 포함한 인민대중의 기분에 대하여 특히 결정적의의를 띠고있는데 한편 지배계급사이에서는 제국주의적경향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273페지, 밑점은 나의것)

이것은 맑스주의를 모독하는 또 하나의 표본이다! 《민주주의적로씨야》는 동구라파의 여러 민족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불타오르게 할것(이것은 론쟁할 여지 없다.)이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지금의 전쟁은 그것이 어느 한 민족도 해방하지 못하며 결국에 있어서는 언제나 많은 민족을 예속화하게 되지만 《순》 제국주의적인 전쟁은 아니다. 《짜리제도의 붕괴》는 오지리의 민족구성의 비민주주의성에 기인하는 오지리의 와해를 의미할것이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일시 강화되였던 반혁명적짜리제도는 오지리를 략탈하고 오지리 제 민족들에게 더욱더 참혹한 억압을 가함으로써 《지금의 전쟁》에 순 제국주의적성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민족적성격을 부여하였다. 《지배계급》이 제국주의전쟁의 민족적목적에 대한 신화로써 우둔한 소시민과 압제를 받고있는 농민들을 기만하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과학자, 《맑스주의》의 권위자, 제2국제당의 대표자는 지배계급에게는 제국주의적경향이 있고 《인민》과 무산계급대중에게는 《민족적》지향이 있다는 《공식》에 의해서 대중에게 상술한바와 같은 기만을 용납시킬 권리가 있는것이다.

변증법이 가장 비루하고 가장 저속한 궤변술로 전화하고 있다!

지금의 전쟁에서 민족적요소를 나타내고있는것은 오직 오지리에 대한 쎄르비아의 전쟁뿐이다(이것은 우리 당 베른회

의의 결정서에서 지적되였다①). 오직 쎄르비아에서와 쎄르비아인들가운데서만 우리는 수백만 《인민대중》을 망라한 다년간의 민족해방운동을 보고있는데 오지리에 대한 쎄르비아의 전쟁이 이 운동의 《계속》이다. 만일 이 전쟁이 고립되여있다면 즉 전 구라파적 전쟁 및 영국, 로씨야 등의 탐욕적략탈적목적들과 련결되여있지 않다면 모든 사회주의자는 쎄르비아자산계급의 승리를 기대할 의무가 있을것이다.—이것은 지금의 전쟁의 민족적계기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정확하고 절대로 필요한 결론인것이다. 그러나 지금 오지리의 자산자, 교권파, 장군들에게 복무하고있는 궤변가 카우쯔키는 바로 이와 같은 결론을 짓지 않는것이다!

다음으로 과학적-진화적방법의 최신성과인 맑스의 변증법은 바로 사물을 고립적으로, 즉 일면적으로 외곡하여 관찰하는것을 금하고있다. 쎄르비아-오지리전쟁의 민족적계기는 전 구라파적전쟁에 있어서는 아무런 큰 의의도 가지지 못하며 또 가질수도 없다. 만일 독일이 승리한다면 독일은 벨지끄와 뽈스까의 일부 나아가서는 아마 프랑스의 일부와 기타도 압살할것이다. 만일 로씨야가 승리한다면 로씨야는 갈리찌야와 뽈스까의 일부, 아르메니야 등등을 압살할것이다. 만일 《승패가 없게》 된다면 종전의 민족적억압이 계속 존재할것이다. 쎄르비아에 대하여 말한다면 즉 현 전쟁참가자의 약 100분의 1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전쟁은 자산계급해방운동의 《정치의 연장》이다. 100분의 99의 참가자에 대하여 말하면 전쟁은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의 즉 민족을 타락시킬수는 있으나 해방할 능력은 없는 로쇠한 자산계급의 정치의 연장인것이다. 만일 세 협약국이 쎄르비아를 《해방》한다면 그들은 오지리에 대한 략탈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137페지를 보라.—편집자

을 도와준 대가로 이딸리아제국주의에 쎄르비아의 자유를 팔아먹을것이다.

이 모든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카우쯔키는 기회주의자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몰렴치하게 외곡하고있다. 《순수한》 현상이란 자연에도 사회에도 없으며 또 있을수 없다.—맑스의 변증법은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있으며 순수라는 개념자체가 사물의 복잡성을 남김없이 철저히 파악할수 없는 인간인식의 어떤 협소성, 일면성이라는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있다. 세상에는 《순수한》 자본주의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으며 그것은 언제나 혹은 봉건제도 혹은 소시민적근성 혹은 그밖에 어떤것과의 혼합물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민족적》언사로써 로골적략탈의 목적을 엄폐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대중》을 꺼리낌없이 기만하고있을 때 전쟁이 《순》 제국주의적전쟁이 아니라고 하는자는 미욱하기 짝이 없는 현학자가 아니면 교활한 협잡군임을 의미하는것이다. 카우쯔키는, 《무산계급대중도 포함한 인민대중에 대해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민족문제인데 지배계급에 대해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제국주의적경향》(273페지)이라고 말하고 《무한히 다양한 현실》(274페지)을 사이비변증법적으로 인증하여 이것을 《안받침》하고있다. 이리하여 그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을 기만하는것을 지지하고있는데 문제의 모든 본질은 여기에 있는것이다. 의심할바없이 현실은 무한히 다양하다. 이것은 신성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무한한 다양성속에 두가지 주요하고 근본적인 흐름이 있는것도 역시 의심할바없다. 즉 전쟁의 객관적내용은 제국주의의 《정치의 연장》 즉 《강국들》의 로쇠한 자산계급(및 그들의 정부)이 타민족을 략탈하는 《정치의 연장》이며 《주관적》인 지배적사상체계는 대중을 우롱하기 위하여 전파하는 《민족적》언사인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국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둘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것이 나선듯이 《좌익》이 사태를 묘사하였다고 카우쯔키가 거듭 반복하는 낡은 궤변은 우리가 이미 분석하였다. 이것은 파렴치한 기만이다. 왜냐 하면 카우쯔키는 좌익이 그와는 다른 선택 즉 당이 제국주의적 략탈과 기만에 가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혁명적활동을 선전하며 준비하느냐 하는것을 제기하였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카우쯔키는 또 자기가 쉬데쿰파에 봉사하기 위하여 전파한 기만적망설이 독일에서 《좌익》에 의하여 폭로되지 않은것은 오직 출판물검열기관의 덕분이라는것도 알고있기때문이다.

《무산계급대중》과 《극소수의 국회의원》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기서 카우쯔키는 아주 진부한 반박의견을 내놓고있다.

《자기 변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일인은 젖혀놓자. 그러나 와양과 게드, 하인드만과 쁠레하노브 같은 사람들이 하루사이에 제국주의자로 되여 사회주의를 배반했다고야 누가 정식으로 주장할수 있겠는가? 국회의원들과 〈지도기관〉은 젖혀놓자.〔카우쯔키는 분명히 로자 룩셈부르그와 프란쯔 메링의 잡지 《국제당》을 암시하고있는데 이 잡지에서는 지도기관 즉 독일사회민주당의 공식적상층부, 그의 중앙위원회(즉 집행위원회), 그의 국회의원단 등의 정책에 대하여 마땅한 경멸을 퍼붓고있다.〕—그러나 극소수 국회의원이 한번 명령하기만 하면 400만의 의식적인 독일무산자가 24시간내에 우로 돌아서서 자기가 이전에 추구하던 목적을 직접 반대하게 할수 있다고 누가 감히 주장할수 있겠는가? 만일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물론 우리 당의 비참한 파산일뿐만아니라 대중의 파산〔고시크체는 카우쯔키의것〕도 증명할것이다. 만일 대중이 이와 같이 무정견한 양의 무리라면 우리는 자기자신을 매장하여도 좋을것이다.》(274페지)

정치상으로나 과학상으로나 최고권위자인 칼 카우쯔키는

이미 자신의 행동과 가련한 둔사로써 자신을 매장하고있다.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느끼지 못하는자는 사회주의라는 점에서는 가망없는자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잡지《국제당》에서 메링, 로자 룩셈부르그 및 그들의 전우들이 카우쯔키일파를 가장 비렬한자로 질책한것은 유일하게 옳은것이다.

좀 생각해보라. 전쟁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즉 당장에 체포투옥되거나 총살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고) 말할수 있은것은 오직《극소수의 국회의원》(그들은 권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투표했으며 완전히 반대투표를 할수도 있었다.—이것때문에는 로씨야에서조차 구타도 타격도 또 체포조차도 당하지 않았던것이다.), 극소수의 관료, 기자 등 등뿐이였다. 이제 와서 카우쯔키는 이 사회층의 배반과 무정견을 점잖게 대중에게 전가하고있는데 기회주의의 전술과 사상체계의 이 층과의 련계에 대해서 바로 카우쯔키자신이 다년간 수십번에 걸쳐 쓰지 않았던가! 일반적으로는 과학적연구의, 특히는 맑스의 변증법의 가장 주요하고 기본적인 법칙은 문필가들에게 사회주의내의 두 류파—배반에 대해서 말하고 웨치며 경종을 울리는 조류와 배반을 보지 못하는 조류—간의 오늘날의 투쟁과 지난 수십년간에 진행된 투쟁과의 련관을 고찰할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는 카우쯔키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류파와 조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조차 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제까지는 제 조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지금은 비굴한자들이 항상 자랑하는《권위자들의》높은 명성만이 있을뿐이다. 이에 있어서 특히 편리한것은 호상 인증하며 동병상련의 원칙에 따라《허물》을 사이좋게 서로 덮어주는 것이다. 엘.마르또브는 베른에서의 강연에서 게드, 쁠레하노브, 카우쯔키는…인데 어떻게 기회주의란 말인가! 하고 놀랍게 부르짖었다(《사회민주주의자》, 제36호 참조). 악쎌로드는 게

드와 같은 사람의 기회주의를 비난함에 있어서는 일층 신중해야 할것이다라고 썼다(《목소리》, 제86, 87호). 나는 자기 변호는 안하련다, 그러나 와양과 게드, 하인드만과 쁠레하노브가 어떻게…! 하고 카우쯔키도 베를린에서 맞장구를 치고있다. 수탉이 뻐꾸기를 추어주니 뻐꾸기도 수탉을 추어주는 격이다.[296]

하인의 충성을 다하려던 나머지 카우쯔키는 하인드만의 손에 입맞출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가 제국주의편에 넘어간것은 어제인듯이 묘사하고있다. 그런데 같은 《신시대》와 전 세계의 수십종의 사회민주당신문들에서는 이미 다년간 하인드만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론해왔던것이다! 만일 카우쯔키가 그가 렬거한 사람들의 정치적리력에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것을 상기해야 할것이다. 즉 그 리력에는 《하루》가 아니라 수십년동안 제국주의에로의 전환을 준비한 특징과 사실이 없는가? 와양은 죠레스파[8]에게, 쁠레하노브는 멘쉐위크와 취소파에게 포로로 되였던 일은 없는가? 어느 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립적립장을 취할 능력이 없고 아주 무미건조하고 무능한 게드파[8] 잡지 《사회주의》[297]에서 게드의 류파는 만사람의 눈앞에서 사멸하지나 않았던가? 밀레랑주의[7] 문제에서 베른슈타인주의[298] 등과의 투쟁의 초기에 카우쯔키(아주 정당하게도 그도 하인드만이나 쁠레하노브와 동렬에 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첨가한다.)는 무정견을 나타내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 수령들의 리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흥취는 추호도 찾아볼수 없다. 이 수령들이 자기자신의 론거로써 자기를 변호하고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회주의자들과 자산자들의 론거를 되풀이하는것으로써 자기를 변호하고있는것인지를 검토해보려는 기도조차 없다. 이 수령들의 행위가 중

대한 정치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그들이 특별한 위신을 가지고 있기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군사기관의 지지를 받는 딴 진정으로 《위신있는》 조류 즉 자산계급적조류에 합류한 결과인가? 카우쯔키는 이 문제를 구명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대중을 기만하며 권위자들의 명성으로 대중을 멍하게 만들어 그들이 론쟁문제를 명확히 제기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는것을 방해하려는것이다.①

…《400만 대중이 극소수의 국회의원의 명령에 의하여 ㅜ로 돌아섰다.》…

여기서는 마디마디가 다 옳지 않다. 독일인의 당조직에는 400만이 아니라 100만이 있었다. 게다가 이 대중조직(온갖 조직과 마찬가지로)의 통일적의사를 표현한것은 오직 그 유일한 정치적중심 즉 사회주의를 배반한 《극소수인》뿐이였다. 이 극소수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투표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투표할수 있었고 론문을 쓸수 있었으며 기타를 할수 있었다. 대중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들은 투표는커녕 분산되여 쫓겨갔는데 그것은 결코 극소수의 국회의원의 《명령에 의해서》가

---

① 카우쯔키가 와양과 게드, 하인드만과 쁠레하노브의 말을 인증하는것은 또 한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렌쉬와 헤니쉬(기회주의자들은 더 말할것도 없다.)류의 공공연한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정책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름아닌 하인드만과 쁠레하노브의 말을 인증하고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들을 인증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실지로 꼭같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카우쯔키는 렌쉬와 헤니쉬 즉 제국주의로 돌아선 이 급진주의자들에 대해서 경멸에 찬 어조로 말하고있다. 카우쯔키는 그가 이런 사기한들299과 같은 류가 아니며 이자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혁명가로 남아있는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있다.—농담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카우쯔키의 립장은 그들과 동일한것이다. 감언리설을 즐기는 위선적인 배외주의자 카우쯔키는 고지식한 배외주의자들인 다위드와 하이네, 렌쉬와 헤니쉬보다 훨씬 가증스럽다.

아니라 군사당국의 명령에 의해서였던것이다. 군사기관은 현존하였고 거기서는 수령들의 배반은 없었다. 그 군사기관은 《대중》을 한사람씩 불러놓고 입대냐(너의 수령의 권고대로) 총살이냐 하는 최후통첩을 내놓았다. 대중은 조직적으로 행동할수가 없었다. 이전에 형성된 그들의 조직 즉 레긴, 카우쯔키, 샤이데만 등의 《극소수인》을 대표로 한 조직은 대중을 팔아먹었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낡고 부패하고 로쇠한 조직을 포기할 각오가 필요했기때문이다.

카우쯔키는 자기의 적인 좌익을 치려고 애쓰면서 좌익이 다음과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그들에게 들씌웠다고 한다. 즉 《대중》은 전쟁에 대한 《대답으로》 《24시간내에》 혁명을 만들어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사회주의》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은 《무정견과 배반》을 나타내게 되리라는듯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날조이며 이제까지 자산계급과 경찰의 무식한 소책자의 저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혁명가들을 《타도》해온것인데 이제는 카우쯔키가 이것을 가지고 우쭐대고있다. 카우쯔키의 적인 좌익은 혁명은 《만들어낼》수 없다는것, 혁명은 객관적으로(당이나 계급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숙된 위기와 력사적전변에서 자라나온다는것, 대중은 조직없이는 통일적의지를 상실한다는것, 중앙집권적국가의 강력한 테로적인 군사기관과의 투쟁은 간고하고 장기적인 일이라는것을 명확히 알고있다. 대중은 준엄한 순간에 그들의 수령이 배반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이 수령들은 군비지출에 반대투표하며 《국내평화》와 전쟁의 정당화를 반대해나서며 자기 나라 정부의 패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전호내의 친목의 선전을 위한 국제기구를 정돈하며 혁명적활동으로의 이행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비

합법적서적을 발간①하는 등의 일을 충분히 할수 있었으며 또 해야 할것이였다.

카우쯔키는 독일의 《좌익》이 바로 이와 같은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와 류사한 활동을 념두에 두고있다는것, 전시출판물검열이 실시되고있는 조건하에서는 그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말할수는 없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다. 여하튼 기회주의자들을 백방으로 변호하려고 하는 나머지 카우쯔키는 전시출판물검열관의 뒤에 숨어서 출판물검열관들이 자기가 폭로되지 않도록 보호해줄것을 믿고 좌익에게 로골적인 날조를 뒤집어씌우는 극히 비루한 행위를 저지를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7

카우쯔키가 의식적으로 온갖 간계로써 회피하며 그럼으로써 기회주의자들에게 만족을 주고있는 중대한 과학적정치적문제는 제2국제당의 가장 저명한 대표자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주의를 배반할수 있었겠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이러저러한 권위자들의 개인전기를 서술하는 각도에서 제기해서는 안된다. 장차에 가서 그들

---

① 결해 말하지만 비합법적간행물을 발간함에 있어서 계급적증오와 계급투쟁에 관해서 쓰는것을 금지당한 대답으로서 모든 사회민주주의적신문을 페간할 필요는 결코 없었다. 《전진》182처럼 그러한것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하는것은 비열하고 비겁한것이다. 《전진》은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멸망하였다는 엘.마르또브의 언명은 정당했다. 그러나 합법적신문들이 비당적이며 비사회민주주의적인것이며 단지 일부 로동자들의 기술적수요에 봉사하는 즉 비정치적인 신문이라고 성명함으로써 그것을 보존할수도 있을것이다. 전쟁을 평론하는 비합법적사회민주주의적간행물들과 이와 같은 평론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지만 진실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그러한 합법적로동자신문이—어째서 불가능하단 말인가?

의 전기를 서술할 사람들은 문제를 이 측면에서도 연구해야 할것이나 사회주의운동이 지금 요구하고있는것은 결코 이 점이 아니고 사회배외주의적조류의 력사적 근원, 조건, 의의 및 력량을 연구하는것이다. (1) 사회배외주의는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 (2) 무엇이 이것에 힘을 주었는가? (3) 그것과 어떻게 싸울것인가?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는것만이 진지한것이며 목표를 《개인》에게 돌리는것은 실제상 궤변가의 간계와 수완에 불과한것이다.

첫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회배외주의의 정치적사상적내용이 사회주의내의 이전의 어느 조류와 련결되여있지 않는가, 둘째로 실제적정치적구분으로부터 볼 때 사회배외주의의 적대자와 옹호자로 구분되는 사회주의자의 현재의 구분은 력사적으로 선행하고있던 이전의 구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고찰해야 할것이다.

우리가 리해하고있는 사회배외주의란 지금의 제국주의전쟁에서 조국보위의 사상을 승인하여 이 전쟁에서 사회주의자가 《자기》 나라의 자산계급 및 정부와 련합함을 정당화하며 《자기》 나라의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혁명활동을 선전, 지지하는것을 거부하는것 등이다. 사회배외주의의 기본적인 정치적사상적내용이 기회주의의 기초와 완전히 일치하다는것은 아주 뚜렷하다. 이것들은 동일한 조류이다. 1914~1915년의 전쟁환경에서는 기회주의는 다름아닌 사회배외주의를 낳고있는것이다. 기회주의에서 주되는것은 계급협조의 사상이다. 전쟁은 이 사상을 극단에 이르게 하며 이 사상의 일반적 요인과 자극에 일련의 특별한 요인과 자극을 첨가하며 평범하고 분산되여있는 대중에게 특별한 위협과 폭력으로써 자산계급과의 협조를 강요한다. 이 사정은 자연히 기회주의의 옹호자들의 수를 증가시키며 어제날의 다수 급진주의자가 이 진영에

넘어가는 리유를 충분히 해명해준다.

기회주의란 극소수 로동자의 일시적리익을 위하여 대중의 근본적리익을 희생하는것 또는 달리 말하면 무산계급대중을 반대하여 일부 로동자가 자산계급과 련합하는것이다. 전쟁은 이와 같은 련합을 특히 명백하고 강제적인것으로 만든다. 기회주의란 특권로동자층의 비교적 평화스럽고 문명한 생활이 그들을 《자산계급화》하며 그들을 자기 나라 민족자본에서 리윤의 찌끼기를 얻어먹게 하며 령락되고 빈궁한 대중의 재화, 고통 및 혁명적기분에서 그들을 분리시킨 그러한 자본주의발전시기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십년동안에 걸쳐 발생한것이다. 제국주의전쟁은 이와 같은 사태의 직접적인 계속이며 완성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강국들사이에 특권을 쟁탈하며 식민지를 재분할하며 타민족에 대한 지배권을 쟁탈하는 전쟁이기때문이다. 소시민의 《상층》 또는 로동계급의 귀족(및 관료)으로서의 자기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것—이것이 소자산계급의 기회주의적기대와 전시에 있어서 그것에 상응한 전술의 필연적계속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제국주의의 경제적기초이다.① 그리고 물론 습관의 힘, 비교적 《평화적인》 발

① 로동자들을 분렬시키며 그들을 유혹하여 사회주의에서 리탈시킴에 있어서 《강국적》, 민족적 특권이 가지는 의의를 제국주의자들과 자산자들이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를 몇개의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영국의 제국주의자 루카스는 저서 《대로마와 대브리텐》(1912년, 옥스포드판)에서 지금 브리텐제국에서의 홍색인이 완전한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96~97페지) 《우리 제국에서는 백인로동자들이 홍색인로동자들과 같이 일할 때에는 그들은 동료로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백인로동자들이 홍색인로동자의 감독으로 되고있다.》(98페지)고 지적하고있다. —반사회민주주의자 제국동맹의 전임서기 에르윈 벨게르는 소책자 《전쟁이 시작된후의 사회민주당》(1915년판)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행동을 찬양하고 이들은 《순 로동자당》(43페지)으로, 《민족적인》, 《독일로동자당》(45페지)으로 되여야 하며 《국제주의적, 공상적》, 《혁명적》 사상(44페지)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떠들었다. —독일의 제국주의자 자르토리우스 폰 왈테

전에 의한 보수사상, 민족적편견,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모든것이 첨가되여 기회주의를 강화하였으며 또 다만 일시적인듯한, 다만 특수한 원인과 리유에 기인한듯한 기회주의와의 위선적이며 비겁한 타협을 강화하였다. 전쟁은 수십년간에 형성된 기회주의를 변모시켰으며 그것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그 색채의 농도와 종류를 증가하였으며 그 지지자를 증가시켰으며 수다한 새 궤변으로 그 지지자들의 론거를 풍부하게 하였으며 말하자면 기회주의의 주류에 수다한 새로운 실개천과 지류를 합류시켰다. 그러나 주류가 자취를 감춘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이다.

사회배외주의란 성숙한 기회주의로서 이 자산계급적종기가 이전처럼은 사회주의당들내에 존속할수 없을 정도에 달한 것이다.

사회배외주의와 기회주의와의 극히 밀접하고 불가분적인

트스하우젠은 국외자본투자에 관한 저작(1907년판)에서 《민족의 복리》(438페지)—식민지략탈에서 이루어진—를 무시했다고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을 비난하고 영국로동자들의 《현실주의》 례컨대 이민수입반대투쟁을 찬양하고있다.—독일외교관 뤼도르페르는 세계정치의 기초에 관한 저서에서 자본의 국제화는 권세, 《주권의 다수》(161페지)를 쟁취하기 위한 각국 자본의 첨예한 투쟁을 조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주지의 사실을 강조하고 이 치렬한 투쟁에 로동자가 끌려들어가고있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175페지). 이 책은 1913년 10월 발행으로 되여있는데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자본의 리익》(157페지)이 현대전쟁의 원인이며 《민족적경향》문제가 날로 사회주의의 《관건》으로 되고있으며(176페지) 각국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시위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177페지)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민족적색채가 사실상 더욱더 농후해지고있기때문이다(103, 110, 176페지)고 말하고있다. 만일 국제사회주의가 로동자들을 민족의 영향에서 떼여낸다면 그것은 승리할것이다. 왜냐하면 폭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민족감정이 우세하게 되면 국제사회주의는 패배를 당할것이다.(173~174페지)

변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개개의 경우와 《이외의 사건》을 들어 어느 기회주의자는 국제주의자로 되였고 어느 급진주의자는 배외주의자로 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 조류의 발전문제에서는 기실 중요한 론거로는 되지 못한다. 첫째로 로동운동에서의 배외주의와 기회주의의 경제적기초는 완전히 동일한것이다. 즉 그것은 《자기 나라》 자본의 특권의 찌끼를 얻는 소수 상층무산계급과 소시민이 무산자대중,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피압박대중을 반대하여 맺는 동맹이다. 둘째로 두 조류의 정치적사상적내용도 완전히 동일한것이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제2국제당시기(1889~1914년)에 기회주의적조류와 혁명적조류로 나누어진 낡은 구분은 지금 배외주의자와 국제주의자로 나누어진 새로운 구분에 대응하고있다.

이 마지막 명제의 정확성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에서는(과학일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대량적인 현상이 대상으로 되는것이지 개개의 사건이 대상으로 되는것은 아니라는 준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구라파의 10개국 즉 독일, 영국, 로씨야, 이딸리아, 화란, 스웨리예, 벌가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지끄를 례로 들어보라. 처음 8개국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새로운 구분(국제주의에 대한 옹호여부에 의한)은 낡은 구분(기회주의에 대한 옹호여부에 의한)에 대응하고있다. 독일에서는 기회주의의 요새인 잡지 《사회주의월간》227은 배외주의의 요새로 되였다. 국제주의사상은 극좌익의 지지를 받고있다. 영국에서는 영국사회당300의 약 7분의 3이 국제주의자인데(최근의 계산에 의하면 국제주의적결정에 대한 찬성은 66표, 반대는 84표) 기회주의자들의 동맹은(로동당301 + 페이비안파302 +

독립로동당9) 7분의 1이하가 국제주의자이다.① 로씨야에서는 기회주의자들의 기본핵심인 취소파의 잡지 《우리의 서광》131이 배외주의자들의 기본핵심으로 되였다. 쁠레하노브와 알렉센스끼는 더욱더 소동을 일으키고있으나 우리는 다만 1910~1914년의 5년간의 경험에 의해서도 그들이 로씨야의 대중속에서 계통적인 선전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알고있다. 로씨야에서의 국제주의자들의 기본핵심은 1912년 1월에 당을 재건한 선진로동자들의 대표인 《쁘라우다파》157와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국회의원단이다.

이딸리아에서는 비쏠라띠일파의 순 기회주의적당이 배외주의적당으로 되였다. 국제주의는 로동자당에 의하여 대표되여있다. 로동자대중은 이 당을 지지하며 기회주의자들, 국회의원들, 소자산자는 배외주의를 지지하고있다. 이딸리아에서는 수개월동안 자유로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그 선택은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무산계급대중과 소자산계급층의 계급적처지의 차이에 부합되게 진행되였다.

화란에서는 트룰스트라의 기회주의적당이 배외주의일반과 융화하고있다(화란에서는 소자산자도 대자산자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자기들을 《병탄》할수 있는 독일을 특히 증오한다고 하는 기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고르테르와 판네쿠크를 선두로 하는 맑스주의당은 철저하고 충성하며 열렬하고 자각적인 국제주의자들을 배양하였다. 스웨리예에서는 기회주의적수령 브란팅은 독일사회주의자들을 변절자로 비난하고있음으로하여 분개하고있으나 좌익의 수령 회글런드는 자기 지지자들

① 보통 《독립로동당》만을 《영국사회당》과 비교를 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조직형식만 보고 문제의 본질을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일간신문들을 들어보라. 그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사회당의 《매일신문》303이며 또 하나는 기회주의동맹의 《시민일보》304인것이다. 이 두가지 일간신문은 선전, 선동, 조직 등의 실제활동을 표현하고있다.

가운데는 바로 그와 같이 보고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있다(《사회민주주의자》, 제36호 참조). 벌가리아에서는 기회주의의 적대자인 《쩨쓰냐크파》가 자기 기관지(《신시대》305)에서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은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하고있다. 스위스에서는 기회주의자 그로일리히의 지지자들은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을 변호하는데 기울어지고있으며(그들의 기관지인 쮜리히의 《인민의 권리》306 참조) 훨씬 더 급진주의적인 에르.그림의 지지자들은 베른신문(《베른의 초병》307)을 독일좌익의 기관지로 만들었다. 예외는 10개 나라중에서 두 나라 즉 프랑스와 벨지고뿐인데 여기서도 실은 국제주의자들이 없지는 않으나 그들은 너무나(부분적으로는 완전히 리해할만한 원인에 의해서) 미약하고 위축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와양자신이 《인도》지308에서 그는 자기 독자들로부터 국제주의사상을 가지고있는 많은 서신을 받기는 했으나 그것을 하나도 전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한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대체로 제 조류와 류파를 들어보기만 해도 바로 구라파사회주의의 기회주의적일익이 사회주의를 배반하고 배외주의로 넘어갔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공식적당내의 기회주의적일익의 힘과 외견상의 전능은 어디서 왔는가? 카우쯔키는 특히 고대로마라든가 실생활과는 그다지 가깝지 않은 그러한 문제에 언급할 때는 력사적문제를 극히 훌륭하게 제기할줄 알지만 현재 문제가 그자신에게 관계되자 이것이 어떤 영문인지를 리해하지 못하는체하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극히 명백하다. 기회주의자들과 배외주의자들에게 거대한 힘을 준것은 자산계급, 정부, 총참모부와의 그들의 동맹이다. 우리 로씨야에서는 흔히 이것을 망각하고 모든 속물적문헌들에 씌여있는바와 같이 기회주의는 사회주의당의 일부분이라느니 이 당들에는 언제나 두 극단의 파벌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것

이라느니 모든 문제는 《극단》을 피하는것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문제를 고찰하고있다.

실제에 있어서 기회주의자들이 형식상으로 로동자당에 소속된 정황은 객관적으로는 그들이 자산계급의 정치적부대이며 자산계급영향의 전파자이며 로동운동내의 자산계급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말살하지 않는다. 헤로스트라토스309식으로 유명한 기회주의자 쥐데쿰이 이 사회적, 계급적 진리를 명백하게 보였을 때 많은 착한 사람들은 개탄하였다. 프랑스사회주의자240들과 쁠레하노브는 쥐데쿰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완데르웰드, 쌍바, 쁠레하노브 등이 거울을 들여다보았다면 민족적면모가 조금 다를뿐 쥐데쿰과 꼭같은자를 보았을것이다. 카우쯔키를 찬양하고 또 카우쯔키의 찬양을 받는 독일 중앙위원회(《집행위원회》)는 자기들이 쥐데쿰의 로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것을 황급히,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정중히 언명하였다.(쥐데쿰의 이름은 들지 않고)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왜냐 하면 사실에 있어서 독일사회민주당의 실제정책에서는 결정적인 경우에는 1명의 쥐데쿰이 100명의 하제나 카우쯔키보다 강력하기때문이다.(하나의 《우리의 서광》잡지가 이것과의 분렬을 겁낸 브류쎌동맹310의 모든 류파보다 강력한것처럼)

왜? 그것은 바로 쥐데쿰의 배후에는 강국의 자산계급, 정부 및 총참모부가 서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쥐데쿰의 정책은 갖은 방법으로 지지하나 그 적대자들의 정책은 투옥과 총살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으로 제지시킨다. 쥐데쿰의 목소리는 수백만부의 자산계급신문지상을 통하여 사방에 퍼지고있는데(완데르웰드, 쌍바, 쁠레하노브의 목소리와 같이) 그 적대자들의 목소리는 합법적출판물에서는 들을수 없다. 그것은 전시출판

물검열이 존재하기때문이다!

기회주의가 우연한것이거나 개별적인물의 죄이거나 실책이거나 변절인것이 아니라 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적산물이라는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진리의 의의를 깊이 생각하는것은 아니다. 기회주의는 합법주의에 의해서 육성되였다. 1889~1914년시기의 로동자당들은 자산계급의 합법성을 리용해야 하였다. 그러나 위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비합법적활동으로 이행해야 할것이였다(이와 같은 이행은 수다한 군사적계략과 결부된 최대의 의력과 결단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쥐데쿰 하나로 충분하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전체 《낡은 세계》가 그를 지지하기때문이며 실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하면 쥐데쿰은 자산계급의 계급적적의 모든 작전계획을 자산계급에게 언제나 루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루설할것이기때문이다.

전체 독일사회민주당(프랑스와 다른 나라의 사회민주당도 마찬가지다.)이 쥐데쿰의 마음에 드는 일 혹은 쥐데쿰에게 용납될수 있는 일만을 한다는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밖에는 아무 일도 합법적으로는 할수 없었다. 독일사회민주당내에서 수행되고있는 성실한,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인 활동은 모두 그 중앙기관들을 거역해서, 그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를 피해서, 조직규률을 위반해서 수행되며 례컨대 금년 5월 31일부 《베른의 초병》에 게재된 독일《좌익》의 닉명의 호소문311처럼 새 당의 닉명의 새로운 중앙기관들의 명의로 파벌활동으로 수행되고있다. 레긴, 쥐데쿰, 카우쯔키, 하제, 샤이데만 일파의 낡고 부패한 민족적자유주의적당이 아니라 새로운 당, 진정으로 로동자적이고 진정으로 혁명적사회민주주의적인 당이 사

실상 장성, 강화, 조직되고있는것이다①.

그렇기때문에 기회주의자 모니토르가 만일 현재의 사회민주당이 우의화하면 로동자들이 탈당할것이기때문에 기회주의자들(자산계급이라고 읽으라.)에게는 해로울것이라고 보수적인 《프로씨아년보》312에서 성명한것은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력사적진리를 루설한것이다. 기회주의자들(및 자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은 좌익과 우익을 련합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카우쯔키를 대표로 하는 다름아닌 현재의 당인바 카우쯔키는 아마 류창하고 《순 맑스주의적인》 언사로써 우주의 만물을 조화시킬수 있을것이다. 말로써는 인민, 대중, 로동자 앞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성을 운운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쥐데쿰주의를 취한다. 즉 온갖 중대한 위기의 관두에는 자산계급에게 가담한다. 우리는 온갖 위기라고 말한다. 왜냐 하면 전쟁의 경우뿐만아니라 온갖 중대한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봉건적》독일이나 《자유로운 의회제적》 영국 또는 프랑스 할것없이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곧 계엄령을 선포할것이기때문이다. 명석한 두뇌와 건전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의심할수 없을것이다.

---

① 8월 4일에 력사적의의가 있는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에 발생한 사건은 가장 전형적인것이다. 공식적당은 다수에 의하여 결의를 지었으며 모두 한사람같이 찬성투표하였다는 관료적위선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해버렸다. 그러나 슈트뢰벨은 잡지 《국제당》에서 이 위선을 폭로하고 진실을 말하였다. 사회민주당국회의원단에는 두 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준비된 최후통첩, 즉 파벌적인, 다시말하면 분렬적인 결정을 가지고있었다. 한 파는 약 30명의 기회주의자로서 여하튼지 찬성투표하기로 결정하고있었으며 또 하나는 약 15명의 좌익으로서—그다지 견결하지는 못하나—반대투표하기로 결정하고있었다. 립장이 극히 견정하지 못한 《중앙파》 또는 《진펄파》가 기회주의자들과 더불어 투표하였을 때 좌익은 철저히 실패하여…굴복하고말았다! 독일사회민주당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상으로서 실제상 기회주의자들의 최후통첩에의 불가피한 굴복을 엄페하고있다.

이로부터 우에서 제기한 문제 즉 사회배외주의와 어떻게 투쟁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 사회배외주의란 비교적 《평화적》인 자본주의의 장구한 시대에 몹시 성숙하고 공고화되고 철면피해졌으며 사상적, 정치적으로 매우 확고해졌으며 자산계급 및 정부들과 매우 밀접히 접근하고있으므로 사회민주주의적로동자당들 내부에 이와 같은 조류의 존재를 더는 허용할수 없게 된 그러한 기회주의이다. 지방 소도시의 평탄한 유보도를 걸을 때는 엷고 부드러운 신바닥으로도 견디여낼수 있지만 산에 오를 때에는 징을 박은 두터운 신바닥 없이는 걸을수 없다. 구라파의 사회주의는 비교적 평화적이며 협소한 민족적범위에 국한하여있던 단계를 벗어났다. 그것은 1914～1915년의 전쟁과 함께 혁명적활동의 단계에 들어갔으며 그리하여 기회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며 로동자당에서 기회주의를 구축할 시기가 무조건적으로 성숙되였다.

물론 사회주의의 세계적발전의 새시기가 사회주의앞에 제기하고있는 과업을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개별적나라들에서 소자산계급의 기회주의적당들로부터의 로동자들의 혁명적사회민주주의적당들의 분리과정이 바로 어떠한 정도로, 바로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될것인가 하는것이 직접 설명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명확히 알아야 할것은 이와 같은 분리가 불가피하며 바로 이 각도에서 로동자당들의 전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것이다. 1914～1915년의 전쟁은 아주 위대한 력사적전환이니만큼 기회주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태도를 취할수는 없게 되였다. 기존사실을 부인할수는 없다. 기회주의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로동자당들내에서 자산계급편에 넘어간 분자들의 핵심이 되였다는 사실은 로동자들의 의식에서도, 자산계급의 경험에서도, 일반적으로 현시대의 정치성과에서도 말살할수 없다. 기회주의는—전 구라파적 범위에서 말한다면—

전쟁전에는 말하자면 소년시대에 처해있었다. 전쟁과 함께 그것은 완전히 성인으로 되였으며 따라서 그것을 다시 《천진란만한것》으로나 소년으로 만들수는 없다. 국회의원, 신문기자, 로동운동의 관료배, 특권을 가진 사무원과 일부 무산계급분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완전한 사회층이 성숙하였고 이 층은 자기 나라의 자산계급과 결합하였는데 이 자산계급은 이 층을 충분히 평가하고 《사용》할줄 알았던것이다. 력사의 수레바퀴는 역전시킬수도 정지시킬수도 없는것이다.—예비적인, 합법적인, 기회주의의 포로로 된 로동계급의 조직으로부터 혁명적인, 능히 합법성에 그치지 않고 기회주의적배반의 위험을 방지할수 있는, 그리하여 《정권을 위한 투쟁》, 자산계급을 뒤엎기 위한 투쟁을 하는 무산계급의 조직을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할수 있으며 또 전진해야 한다.

제2국제당의 가장 저명한 권위자들 즉 게드, 쁠레하노브, 카우쯔키 등을 어떻게 취급할것인가 하는 문제로 자신의 의식과 로동자들의 의식을 모호하게 하는자들이 사물을 얼마나 부정확하게 고찰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이로부터 명백해진다. 사실에 있어서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새 임무를 리해하지 못한다면 버림을 받거나 지금처럼 기회주의자들에게 포로되거나 하게 될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된다면 그들이 혁명가진영에 돌아오는데는 거의 정치적장애를 받지 않을것이다. 여하튼 제 조류의 투쟁문제와 로동운동의 시대교체문제를 개별적인물의 역할문제와 바꾸어놓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8

로동계급의 합법적대중조직은 제2국제당시대의 사회당들

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당내에서는 그것들이 가장 강력하였다. 따라서 거기서는 1914～1915년의 전쟁이 가장 첨예한 전변을 일으켰고 가장 첨예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혁명적활동으로의 이행은 경찰에 의한 합법적조직들의 해산을 의미하였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레긴으로부터 카우쯔키까지를 포함해서 낡은 당은 현재의 합법적조직들의 보존을 위하여 무산계급의 혁명적목적을 희생시켰다. 아무리 이것을 부인하여도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현행치안법에 허가되여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팥죽 한그릇[313]을 대가로 혁명을 진행할 무산계급의 권리를 팔아먹었던것이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적로동조합의 지도자인 칼 레긴의 소책자 《어째서 로동조합의 관원들은 당내생활에 더 많이 참가해야 하는가?》(베를린 1915년판)를 들어보자. 이것은 1915년 1월 27일에 로동조합운동관원들의 회의에서 저자가 한 보고이다. 레긴은 극히 흥미있는 한 문건을 자기 보고에서 피력하고 그것을 소책자에 전재하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시출판물검열기관에서 결코 허가하지 않았을것이다. 이 문건—소위 《니데르바르님지구(베를린근교) 보고자들을 위한 자료》—은 독일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를 서술한것이며 당에 대한 그들의 항의이다. 이 문건에는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한가지 요소를 예견하지 못했으며 또 예견할수 없었다고 서술되여있다.

《독일 사회민주당과 로동조합의 조직된 력량전체가 전쟁을 진행하고있는 정부편에 섰으며 이 전체 력량이 대중의 혁명적의력을 진압하는 목적에 사용되였다.》(레긴의 소책자 34페지)

이것은 절대적인 진실이다. 이 문건의 다음과 같은 주장도 진실이다.

《8월 4일의 사회민주당국회의원단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딴 견해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었다고 해도 그 견해는 시련을 겪은 당의 지도하에서가 아니라 당기관의 의지를 거역하며 당과 로동조합의 저항을 극복하는 조건하에서만 자기의 길을 개척할수 있었을것이다.》(우와 같은 책)

이것은 의심할바없는 진실이다.

《만일 사회민주당국회의원단이 8월 4일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였더라면 그때에는 아마 조직의 외형은 붕괴되였을것이지만 그러나 정신은 즉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279이 실시되던 기간에 당을 고무하였고 당으로 하여금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한 그 정신은 보존되였을것이다.》(우와 같은 책)

레긴은 자기의 소책자에서 그가 자기 보고를 청취시키려고 소집한 《지도자들》 즉 소위 로동조합의 지도자, 관리들은 이것을 듣고 앙천대소하였다고 쓰고있다. 위기의 순간에는 비합법적인(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이 실시되던 조건하에서처럼) 혁명적조직을 조직할수 있으며 조직해야 한다는 사상이 그들에게는 우스웠던것이다. 그런데 자산계급의 충실한 번견인 레긴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웨쳤다.

《이것은 조직을 파괴하고 대중더러 문제를 해결케 하는 명백한 무정부주의적사상이다. 나는 이것이 무정부주의적사상이라는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옳소!》 하고 로동계급의 사회민주주의적조직의 수령들로 자처하는 자산계급의 노복들은 이구동성으로 웨쳤다.(우와 같은 책, 37페지)

이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들은 자산계급합법성에 의하여 타락마비되여 혁명투쟁의 지도에 필요한 딴 비합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리해조차 못하게 되였다. 이들은

경찰의 허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합법적조직이 뛰여넘을수 없는 한계인듯이, 대체로 위기의 순간에 이와 같은 조직을 지도적기관으로서 보존하는것이 완전히 가능한듯이 생각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보라, 이것이 바로 기회주의의 산 변증법이다. 즉 합법적조직의 단순한 장성, 장부처리에 그치고있는 ㅜ둔해진 그러나 성실한 속물들의 일반습관, 이러한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이 선량한 시정배로 하여금 반역자로, 변절자로, 대중의 혁명적의력의 말살자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혁명적조직으로 이행하는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변화된 력사적국면이 요구하는바이며 무산계급의 혁명적행동의 시대가 요구하는바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행은 오직 낡은 수령들, 즉 혁명적의력의 말살자들을 뛰여넘으며 낡은 당을 뛰여넘고 그것을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나 반혁명적시정배는 물론 기회주의자 에.다위드가 칼 립크네히트를 힐책하면서 《무정부주의》라고 웨친것처럼 《무정부주의다!》라고 웨칠것이다. 보건대 독일에서는 기회주의자들에게서 무정부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지도자들만이 성실한 사회주의자로 남아있는것 같다.…

현대의 군대를 들어보자. 군대야말로 조직의 훌륭한 표본의 하나이다. 이 조직이 훌륭한것은 오직 그것이 민활하며 동시에 수백만 사람들을 통일된 의지에 복종시킬수 있기때문이다. 이 수백만명이 오늘은 국내 각처의 자기 집에 있지만 래일이라도 동원령이 내리면 그들은 지정된 지점에 집합한다. 오늘은 그들이 전호에 쭈크리고있으며 어떤 때는 수개월씩 쭈크리고있지만 래일이면 그들은 다른 태세로 돌격을 한다. 오늘은 그들은 총탄과 류산탄을 피하면서 기적을 나타내지만 래일은 그들은 육박전에서 기적을 나타낸다. 오늘은 그들의 선봉부대가 땅에 지뢰를 묻지만 래일은 비행사의 지시에 따라 대

지우를 수십리씩 진군한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의지로 고무된 수백만 사람이 개변된 정세와 투쟁의 요구에 부합되게 저들의 련락형식과 행동형식을 변경하며 저들의 활동 장소와 방식을 변경하며 기재와 무기를 바꾸는것, 이것을 진정한 조직이라고 한다.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도 이와 마찬가지다. 오늘은 혁명적정세가 조성되여있지 않으며 대중을 분발시키며 대중의 적극성을 제고할 조건이 없다. 오늘은 그대들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다면 그것을 받으라. 그리고 그것으로써 감옥이 두려워 안락의자에서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는자들을 의회내 벼슬자리에 올려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적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조직할줄 알라. 래일은 투표용지를 그대들에게서 빼앗아가며 총과 기계기술의 최신성과로 장비된 훌륭한 속사포를 안겨준다면 전쟁을 겁내는 감상주의자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말고 이 살륙과 파괴의 무기를 손에 들라. 세상에는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총칼로 소멸하여야 할 그러한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만일 대중속에서 증오와 절망이 커간다면, 혁명적정세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내며 자국정부와 자국자산계급을 반대해서 그처럼 유효한 살륙과 파괴의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쉽지 않다는것은 말할것 없다. 이것은 곤난한 준비사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커다란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새 조직형태와 투쟁형태인바 그것은 역시 배워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오유와 실패 없이는 배워낼수 없다. 계급투쟁의 이러한 형태와 선거참가와의 관계는 돌격과 연습, 행군 또는 참호내에서의 대기와의 관계와 같다. 이런 투쟁형태는 력사상에서 그렇게 흔히는 일정에 오르지 않는다.—그대신 그것의 의의와 영향은 수십년 지속된다. 이와 같은 투쟁방법을

투쟁의 일정에 올릴수 있으며 또 올려야 할 때의 수일은 다른 력사적시대의 20년과도 같다.

…카.카우쯔키를 카.레긴과 대비해보라. 카.카우쯔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당이 아직 청소한 시기에 있었을 동안은 전쟁을 반대하는 여하한 항의도 용감한 행동으로서 선전상 효과를 냈다. …최근에 로씨야와 쎄르비아 동지들의 행동은 보편적인 찬양을 받았다. 당이 강력해질수록 당 결정의 동기가운데는 선전적고려와 실제효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더 서로 엉키게 되며 이 두가지 동기에 동등하게 마땅한 평가를 주기가 더욱더 곤난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것이든 무시할수는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강력해질수록 온갖 새로운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들 사이에 더욱더 용이하게 의견차이가 생기게 된다.》(《국제주의와 전쟁》 30페지)

카우쯔키의 이 론의가 레긴의 론의와 차이가 나는 점은 다만 위선과 비겁성뿐이다. 카우쯔키는 본질상 레긴류가 혁명활동을 비렬하게 포기한것을 지지, 변호하고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넌지시,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함이 없이 암시로 넘기면서 레긴에 대해서도, 로씨야인들의 혁명적행동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데 그치고있는것이다. 혁명가들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항상 자유주의자들에게서만 보아왔다. 자유주의자들은 언제나 혁명가들의 《용감성》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들의 극단적인 기회주의적전술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자존심 있는 혁명가들은 카우쯔키의 《경의》를 접수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의 설정을 분연히 배격할것이다. 만일 혁명적정세가 없다면, 만일 혁명적활동을 고취할 필요가 없다면 로씨야사람들과 쎄르비아사람들의 행동은 옳지 않으며 그들의 전술은 옳지 못할것이다. 레긴과 카우쯔키 같은 기사들이 자기

의견을 표시할 용감성이나마 가지게 하라,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수 있게 하라.

만일 로씨야와 쎄르비아의 사회주의자들의 전술이 《찬양》을 받을만하다면 독일, 프랑스 등 나라의 《강대한》 당들의 이와 상반되는 전술을 정당화하는것은 용서못할 일이며 범죄적인 일일것이다. 카우쯔키는 고의적으로 《실제효과》라는 불명료한 표현으로써 강대한 당들이 정부에서 그들의 조직을 해산시키며 당의 경비를 압수하며 그들의 수령들을 체포하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은폐하였다. 이것은 카우쯔키가 혁명적전술의 불리한 《실제효과》를 리유로 하여 사회주의의 배반을 정당화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과연 이것이 맑스주의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체포되였을것이다.—8월 4일에 군비지출에 찬성투표한 한 사회민주당국회 의원은 베를린로동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로동자들은 이에 대답하여 《그래 그것이 나쁠것이 무엇인가?》고 웨쳤다.

만일 독일과 프랑스의 로동자대중에게 혁명적기분과 혁명적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상을 전파할 다른 신호가 없었다면 대담한 연설로 인한 국회의원의 체포는 각국 무산계급을 혁명활동에서 단결하는 호소로서 유익한 역할을 놀았을것이다. 이와 같은 단결은 용이하지 않다. 그럴수록 우에 서서 모든 정책을 똑똑히 보고있는 국회의원이야말로 더욱더 솔선수범해야 할것이였다.

전시뿐만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정치정세가 첨예화하는 모든 정황하에서도(대중이 이러저러한 혁명적활동을 할 때에는 말할것도 없고) 가장 자유로운 자산계급국가의 정부는 언제나 합법적조직의 해산, 경비의 압수, 수령들의 체포 등 이와 류사한 《실제효과》들로써 위협할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

가? 카우쯔키처럼 이것을 구실로 기회주의자들을 변호할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사회민주당이 민족적자유주의적로동자당으로 전락하는것을 찬성하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자로서는 결론은 하나밖에 있을수 없다. 《구라파》당들의 순 합법주의 즉 합법주의만능은 때가 지났으며 전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서 그것은 자산계급적로동자정책의 기초로 되고말았다. 비합법적지반, 비합법적조직, 비합법적사회민주당의 활동 등을 만들어내여 합법주의를 보충해야 하며 그러되 합법적진지를 하나도 내놓지는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수 있는가—이 길에 들어서려는 의욕만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경험이 그것을 가르쳐줄것이다. 1912~1914년에 로씨야의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과업이 해결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법정에서 누구보다도 견결했으며 짜리정부에 의하여 씨비리로 추방된 로동자국회 의원 무라노브는 입각주의[7]의 의회활동(헨더슨, 쌍바, 완데르웰드로부터 쥐데쿰과 샤이데만에 이르기까지 이들도 완전히 《입각주의자》였지만 겨우 현관에밖에 들어가지 못하였다!)외에 비합법적이며 혁명적인 의회활동도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꼬쏩스끼나 뽀뜨레쏘브 일파는 주구들의 《구라파식》의회활동을 찬양하거나 또는 용인하라고 하라.—우리는 이와 같은 합법주의, 레긴, 카우쯔키, 샤이데만류의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는 오직 치욕을 받아야 할것이라고 로동자들에게 꾸준히 게으름없이 설명해줄것이다.

9

결론을 짓자.

제2국제당의 파산은 구라파의 대다수 공식적사회민주당이

자기의 신념과 슈투트가르트 및 바젤 대회에서 채택된 그 엄숙한 결정을 혹독하게 배반한데서 가장 돌출하게 표현되였다. 그러나 기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사회민주당들의 민족자유주의적로동자당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이 파산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제2국제당의 전 력사적 시대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 시대—서구라파에서의 자산계급혁명과 민족혁명의 완성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시초에 이행하는 과도기—의 객관적 제 조건이 기회주의를 산생하고 배양하였던것이다. 이 기간에 구라파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기회주의의 선을 따라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분렬이 나타났고(영국, 이딸리아, 화란, 벌가리아, 로씨야) 다른 나라들에서는 역시 기회주의의 선을 따라 제 조류간의 장구하고 완강한 투쟁이 나타났다(독일, 프랑스, 벨지끄, 스웨리예, 스위스). 대전쟁이 야기한 위기는 가면을 벗겼으며 인습을 일소하고 이미 오래전에 곪은 종처를 터쳤으며 자산계급의 동맹자로서의 기회주의의 진정한 역할을 명시했다. 때문에 이 기회주의분자들을 로동자당으로부터 철저히, 조직적으로 분리하는것이 필요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시대는 혁명적무산계급의 선진분자들과 《자기》 민족의 《대국적》 지위의 특권으로부터 찌꺼기를 얻어먹는 로동계급의 반소시민적귀족이 한 당내에 공존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회주의를 《극단》을 피하는 한 당내의 《합법적류파》로 인정하는 낡은 리론은 현재에 와서는 로동자들에 대한 최대의 기만으로, 로동운동에 대한 최대의 장애로 되였다. 로동자대중을 단번에 잃게 될 공공연한 기회주의는 맑스주의적어구들로써 기회주의적 실천을 변호하며 일련의 궤변으로써 혁명적행동이 시기상조라는것 등등을 증명하려는 이 중용리론처럼은 두렵거나 해롭지 않다. 이 리론의 저명한 대표자인 동시에 제2국제당의 저명한 권위자인 카우쯔키는 최고급의 위선자로서 맑스주의를 모독하

는 명수로 나타났다. 100만 당원을 가진 독일당내에는 어느 정도 성실하고 의식적이며 혁명적인 사회민주주의자 치고 쥐데쿰류와 샤이데만류가 그처럼 열렬히 옹호하는 이 《권위자》에게 격분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무산계급대중은 낡은 지도층의 약 10분의 9가 그들을 저버리고 자산계급편으로 넘어간 까닭에 배외주의의 횡행과 계엄령과 전시출판물검열의 압박밑에서 흩어져서 고립무원하게 되였다. 그러나 전쟁에 의하여 조성되고 점점 확대심화되고있는 객관적혁명정세는 불가피적으로 혁명적기분을 산생하며 가장 우수하고 의식적인 모든 무산자들을 단련교육하고있다. 대중의 기분에는 1905년초 로씨야에서 《가뽄의 흉책[126]》과 관련하여 일어났던것과 같은 급격한 전변이 가능할뿐만아니라 점점 긍정적인것으로 되여가고있다. 즉 당시에는 몇달 아니 때로는 몇주일사이에 락후한 무산계급층가운데서 무산계급의 혁명적선봉대의 뒤를 따라가는 100만 대군이 자라났다. 이 전쟁직후에 혹은 전쟁기간에 혹은 기타 시기에 강력한 혁명운동이 폭발될것인가 하는것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 방향에서의 사업만이 사회주의적사업이라고 할수 있다. 이 사업을 개괄하고 지도하는 구호, 자기 나라 정부와 자기 나라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혁명적투쟁을 방조하려 하는 사람들의 통일과 단결을 촉진하는 구호는 국내전쟁이라는 구호이다.

로씨야에서는 혁명적사회민주주의적무산계급분자들의 소자산계급기회주의분자들과의 완전한 분리는 로동운동의 전 력사에 의해서 준비되였다. 이 력사를 무시하며 그리고 《분파활동》을 반대한다고는 성명은 하면서도 각종 기회주의와의 다년간의 투쟁에서 형성된 로씨야무산계급당의 진정한 형성과정을 리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로동운동에 극히 좋지 못한 영

향을 주고있는것이다. 현전쟁에 참가하고있는 모든 《대》국중에서 로씨야만이 최근에 혁명을 겪었다. 이 혁명이 자산계급적내용의 혁명이면서도 무산계급의 결정적역할에 의해서 수행된 사정은 로동운동내의 자산계급적조류와 무산계급적조류간의 분렬을 조성하지 않을수 없었다. 대중적로동운동과 련결된 조직(1883~1894년의 사상적조류의 형태로서뿐만아니라)으로서 로씨야사회민주당이 존속해온 약 20년간(1894~1914년) 무산계급적혁명적조류와 소자산계급적기회주의적조류간의 투쟁이 진행되여왔다. 1894~1902년시기의 《경제주의》는 의심할바없이 후자의 조류였다. 그 사상체계의 수다한 론거와 특징—맑스주의의 《스뜨루웨적》외곡, 기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중》을 인증하는것 등—은 카우쯔키, 쿠노브, 쁠레하노브 등의 오늘날의 비속화된 맑스주의와 놀랄만큼 상사하다. 사회민주주의자의 지금세대에게 현재의 카우쯔키와 대비하여 이전의 《로동자사상》[314]지와 《로동자사업》[315]잡지를 상기시키는것은 매우 유익한 일일것이다.

다음시기(1903~1908년)의 《멘쉐위크주의》는 사상상으로뿐만아니라 조직상으로도 《경제주의》의 직접적계승자였다. 로씨야혁명시기에 멘쉐위크주의는 객관적으로는 자유주의적자산계급에의 무산계급의 예속을 의미하며 소자산계급적기회주의의 경향을 표현하는 전술을 실시하였다. 그다음시기(1908~1914년)에 멘쉐위크주의조류의 주류가 취소파를 낳았을 때 이 조류의 계급적의의가 얼마나 명백하였던지 멘쉐위크주의의 우수한 대표자들까지도 《우리의 서광》파의 정책을 끊임없이 반대했던것이다. 그런데 이 분파는 최근 5~6년간에 대중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맑스주의적당을 반대하여 계통적인 사업을 진행한 유일한 그루빠로서 1914~1915년전쟁에서는 사회배외주의의 그루빠로 되였다! 더군다나 이것은 전제제도가 존속하

고있으며 자산계급혁명이 완수되기에는 아직 멀고 주민의 43%가 대다수《이》민족을 억압하고있는 나라에서 나타난것이다. 소자산계급의 어떤 층 특히 지식인과 극소부분의 로동귀족이《자기》민족의《대국적》지위의 특권을《향유》할수 있는《구라파》형의 발견은 로씨야에서도 나타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로씨야의 로동계급과 사회민주주의적로동자당은 자기의 전력사를 통하여《국제주의적인》즉 진정으로 혁명적이며 철저하게 혁명적인 전술을 취할 온갖 조건을 준비하였다.

추기. 이 론문은 카우쯔키, 하제와 베른슈타인의 공동《선언》이 신문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조판되여있었다. 그들은 대중이 좌익화하고있음을 보고 이제는 좌익과《화해》할 준비를 하고있다.—물론 이것은 쥐데쿰파와의《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서이다. 그야말로 매춘부다!

1915년 5월 하반~6월 상반 에 집필

잡지《공산주의자》, 1915년 제1~2호에 게재

서명: 엔·레닌

잡지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183~236페지

사회주의와 전쟁

(전쟁에 대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태도)

제1판(국외판)에 대한 서문

전쟁은 이미 1년이나 계속되고있다. 우리 당은 이 전쟁에 대한 자기 태도를 전쟁초기에 중앙위원회의 선언가운데서 규정하여놓았다. 이 선언은 1914년 9월에 작성되였고 1914년 11월 1일에(중앙위원회 위원들과 로씨야국내에 있는 우리 당의 책임있는 대표자들에게 보내여 그들의 동의를 얻었음.) 우리 당의 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289 제33호에 게재되였다.① 그후 우리의 원칙과 전술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서술하고있는 베른대표자회의의 제 결의②가 같은 신문 제40호(1915년 3월 29일)에 게재되였다.

현재 로씨야에서는 대중들속에서 혁명적기분이 명백하게 앙양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공식적사회민주당들의 대다수가 자국정부와 자국자산계급의 편에 서서 무산계급의 혁명적요구를 압살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적기분이 앙양된 징조를 도처에서 볼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쟁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전술을 일괄한 소책자의 출판을 특히 긴급하게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상술한 당의 제 문헌을 전부 재판하여

---

① 이 책 719~728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136~142페지를 보라.—편집자

거기에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고 문헌들과 당회의들에서 제기된 자산계급적전술과 무산계급적전술의 주요한 론거를 전부 검토하도록 노력할것이다.

제2판에 대한 서문

이 소책자는 1915년 여름에 찜메르왈드대표자회의[316]에 앞서 씌여졌다. 그것은 독일문과 프랑스문으로도 출판되였고 또 노르웨이사회민주주의청년단기관지에 노르웨이문으로 전문이 전재되였다. 이 소책자의 독일문판은 비합법적으로 독일의 베를린, 라이프찌히, 브레멘 및 기타 도시들에 반입되여 그 도시들에서 찜메르왈드좌파의 지지자들과 칼 립크네히트파에 의하여 비합법적으로 산포되였다. 프랑스문판은 빠리에서 비합법적으로 인쇄되여 거기에서 프랑스의 찜메르왈드파에 의하여 산포되였다. 로씨야문판은 극히 제한된 부수만이 로씨야국내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는 로동자들이 이것을 필사하였었다.

우리는 지금 이 소책자전문을 문헌으로서 재판한다. 독자는 이 소책자가 1915년 8월에 씌여졌다는것을 항상 념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특히 로씨야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시 로씨야는 아직 짜리로씨야, 로마노브왕조의 로씨야였던것이다.…

1918년판의 소책자에 게재 소책자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제 1 장

사회주의 제원칙과 1914～1915년의 전쟁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

사회주의자들은 제 민족간의 전쟁을 야만적이고 잔인한것이라고 항상 비난하여왔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자산계급평화주의자들(평화의 옹호자들과 설교자들)이나 무정부주의자들의 태도와는 원칙적으로 다른것이다. 우리가 자산계급평화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전쟁이 국내에서의 계급투쟁과 불가피적인 련관을 가지고있으며 계급들을 소멸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창건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없앨수 없다는것을 우리가 리해하고있는데 있으며 또한 국내전쟁, 즉 압박계급을 반대하는 피압박계급의 전쟁, 노예주를 반대하는 노예의 전쟁, 지주를 반대하는 농노의 전쟁,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임금로동자의 전쟁의 정당성, 진보성 및 필연성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는데 있다. 우리들 맑스주의자들이 평화주의자들과도 무정부주의자들과도 다른 점은 매개의 전쟁을 력사적으로 (맑스의 변증법적유물론의 견지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이다.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온갖 참화, 만행, 재액, 고통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이였던 전쟁, 즉 유해하고 반동적인 제도(례컨대 전제제도 또는 농노제도)와 구라파에서 가장 야만적인 전제정치(토이기와 로

씨야의 전제정치)를 파괴하는것을 도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전쟁이 력사상에는 빈번히 있었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바로 현 전쟁의 력사적특성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근대전쟁의 력사적 제 류형

프랑스대혁명은 인류력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그때로부터 빠리꼼뮨까지, 즉 1789년부터 1871년까지에는 전쟁의 한 형으로서 자산계급의 진보적, 민족해방적 전쟁이 있었다. 바꾸어말하면 이들 전쟁의 주요내용과 력사적의의는 전제제도와 봉건제도를 전복하고 그것들을 파괴하며 타민족의 압박을 제거하는것이였다. 때문에 그것들은 진보적인 전쟁이였는바 모든 성실한 혁명적인 민주주의자들과 또한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쟁의 경우에 봉건제도, 전제제도, 타민족압박의 가장 유해한 기초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는것을 협조한 나라(즉 자산계급)의 승리에 항상 공감을 표시하여왔던것이다. 례컨대 프랑스의 혁명전쟁들에서 프랑스인들이 타국의 령토를 략탈하고 강점한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낡은, 농노제적인 구라파전체의 봉건제도와 전제제도를 파괴하고 진감시킨 이 전쟁들의 근본적인 력사적의의는 이로 말미암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프로씨아－프랑스전쟁에서 독일은 프랑스를 략탈하였지만 그렇다고 봉건적인 할거상태로부터, 로씨야의 짜리 및 나뽈레옹3세의 이 두 폭군의 압박으로부터 수천만의 독일인민을 해방시킨 이 전쟁의 근본적인 력사적의의는 달라지지 않는다.

공격전쟁과 방위전쟁간의 구별

1789～1871년의 시기는 심각한 흔적과 혁명적추억을 남겨

놓았다. 봉건제도, 전제제도 및 타민족의 압박이 제거되기전에는 사회주의를 위한 무산계급의 투쟁의 발전이라는것은 근본상 론의될수 없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시기의 전쟁에 대하여 《방위》전쟁의 정당성을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중세기적 제도와 농노제도를 반대하는 혁명에 귀착되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념두에 두었던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방위》전쟁이라는것을 이런 의미에서의 《정의의》 전쟁으로 리해하였다 (웨.립크네히트가 일찌기 이렇게 표현하였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사회주의자들은 《조국보위》 또는 《방위》 전쟁의 정당성, 진보성, 정의성을 인정하여왔으며 또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것이다. 례컨대 만일 래일이라도 마로끄가 프랑스에 대하여, 인도가 영국에 대하여, 페르샤나 중국이 로씨야에 대하여 등등 이렇게 각각 선전포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쪽이 먼저 공격을 가하였는가에는 관계없이 《정의의》 전쟁, 《방위의》 전쟁일것이며 사회주의자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압박자이며 노예주이며 략탈자인 《대》국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압박받고 예속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 국가들의 승리에 공감을 느낄것이다.

그러나 100명의 노예를 가진 노예주가 보다 《공정한》 재분할을 위하여 200명의 노예를 가진 노예주와 전쟁을 한다고 가정해보라. 이러한 경우에 《방위》전쟁이라든가 《조국보위》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력사적인 외곡일것이며 실지는 교활한 노예주가 평민, 소시민,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기만하는데 지나지 않을것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의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은 노예제도를 공고화하며 강화하기 위한 노예주들간의 현대전쟁에서 《민족적》관념과 조국보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민을 기만하고있다.

현 전쟁은 제국주의전쟁이다

거의 모두가 현재의 전쟁을 제국주의전쟁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이 개념을 외곡하거나 또는 그것을 교전국의 어느 일방에만 적용하거나 또는 이 전쟁이 자산계급의 진보적, 민족해방적 의의를 가지는것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슬그머니 생각하고있다. 제국주의란 20세기에 비로소 도달한 자본주의발전의 최고단계이다. 자본주의는 민족국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봉건제도를 전복할수 없었으나 이제 와서는 이 낡은 민족국가가 자본주의발전의 장애물로 되였다. 자본주의는 집중을 심히 발전시켜서 많은 공업부문이 신지케이트, 트레스트와 같은 이 억만장자의 자본가동맹들에 장악되게 하였으며 지구의 거의 전체가 《자본의 왕들》에 의하여 혹은 식민지라는 형태로, 혹은 금융적착취의 무수한 바줄로 다른 나라들을 얽어매는 방법으로 분할되게 하였다. 독점에 대한 지향, 투자지역, 원료획득지역 등을 략탈하려는 지향이 자유무역과 경쟁을 대체하였다. 자본주의는 봉건제도와의 투쟁에서는 제 민족의 해방자이였으나 제국주의시대에 와서는 제 민족의 최대의 억압자로 되였다. 자본주의는 진보적인것으로부터 반동적인것으로 되였다. 그것은 생산력을 극히 발전시켜서 이제 인류는 사회주의로 넘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민지, 독점, 특권 및 온갖 종류의 민족적억압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인위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한 《대》렬강들의 무력투쟁을 수년간, 심지어 수십년간이라도 겪든가, 둘중의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노예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최대의 노예주들간의 전쟁

제국주의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소위 《대》렬강들(즉

대규모적인 략탈에 성공하고있는 나라들)에 의한 세계분할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인용하자.

노예소유자적《대》렬강들에 의한 세계의 분할 정황

《대》렬강	식민지 1876년 평방키로메터	인구	식민지 1914년 평방키로메터	인구	종주국 1914년 평방키로메터	인구	합계 평방키로메터	인구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영 국………	22.5	251.9	33.5	393.5	0.3	46.5	33.8	440.0
로씨야………	17.0	15.9	17.4	33.2	5.4	136.2	22.8	169.4
프랑스………	0.9	6.0	10.6	55.5	0.5	39.6	11.1	95.1
독 일………	—	—	2.9	12.3	0.5	64.9	3.4	77.2
일 본………	—	—	0.3	19.2	0.4	53.0	0.7	72.2
미 국………	—	—	0.3	9.7	9.4	97.0	9.7	106.7
6《대》렬강 …	40.4	273.8	65.0	523.4	16.5	437.2	81.5	960.6
대렬강이 아닌 나라들(벨지끄, 화란, 기타)에 속하는 식민지……			9.9	45.3			9.9	45.3
세개 《반식민지》국가(토이기, 중국, 페르샤)							14.5	361.2
총계……							105.9	1,367.1
기타 각국………							28.0	289.9
전 세계(극지대를 제외)………							133.9	1,657.0

이 표로부터 명백히 볼수 있는바와 같이 1789~1871년에는 대개 자유를 위하여 다른 민족들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던 민족들이 1876년이후의 지금에는 고도로 발전된, 《지나치게 성숙한》 자본주의로 해서 전 세계의 대다수의 주민과 민족의 억압자, 압제자로 되였다. 1876년부터 1914년까지에 6개의 《대》렬강이 2,500만평방키로메터의 토지, 즉 구라파전체보다 2배 반이나 되는 면적을 강탈하였다! 이 6개 렬강은 5억이상(5억 2,300만)의 식민지주민을 예속시키고있다. 《대》렬강들의 주민 매 4명에 대하여 《그들의》 식민지의 주민 5명이 해당되는셈이다. 그리고 주지하는바와 같이 이 식민지들은 포화와

총검에 의하여 강점되였으며 식민지들에서 그 주민들은 학대를 받고있으며 여러가지의 방법(자본수출, 리권, 상품판매시의 기만, 《지배》민족당국에의 예속 등등)에 의하여 착취당하고있다. 영국-프랑스자산계급은 자기들이 여러 민족과 벨지끄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있다고 인민을 기만하고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엄청나게 략탈해낸 식민지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있는것이다.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이 그 식민지를 《공평하고 합리하게》 독일제국주의자들에게 나누어주기만 하면 독일제국주의자들은 벨지끄와 기타 나라들에서 즉시 물러날것이다. 현정세의 특이한 점은 이 전쟁에서 식민지들의 운명이 대륙에서의 전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 있다. 자산계급적인 정의와 민족의 자유(즉 민족의 생존권)라는 견지에서 볼 때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반대하는것은 의심할바없이 옳은것이다. 왜냐 하면 독일에는 식민지가 《적게 차례졌고》 그의 적들은 그와 비할바없이 더 많은 민족을 억압하고있으며 그의 동맹국 오지리에서는 압박받고있는 슬라브인들이 참으로 《제 민족 인민의 감옥》인 짜리로씨야에서보다 의심할바없이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자신도 다른 민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다. 더 젊고 힘센 강도(독일)가 더 나이들고 배부른 강도를 략탈하는것을 돕는것은 사회주의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들 강도전부를 타도하기 위하여 그들간의 싸움을 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인민에게 진실을 말하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 전쟁이 3중의 의미에서 노예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예주들의 전쟁이라는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전쟁은 첫째로 식민지의 분할을 더 《공평하게》 하며 앞으로 더 《사이좋게》 식민지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식민지의 노예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쟁이며, 둘째로 《대》렬강들이 타민족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전쟁이다. 왜냐 하면 오지리도 로씨야도(로씨야는 오지리보다 훨씬 더 대규모적으로, 훨씬 더 가혹한 방법으로) 전쟁에 의하여 국내의 타민족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면서 전적으로 이 억압에 의하여 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 셋째로 이 전쟁은 임금노예제를 강화하고 연장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은 분렬되고 억눌리여있는데 자본가들은 전쟁에서 돈을 벌고 민족적편견을 도발하고 반동세력(반동세력은 지금에는 가장 자유로운 공화국들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서 머리를 쳐들고있다.)을 강화함으로써 리득을 보고있기때문이다.

《전쟁은 다른》(즉 폭력적)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317

이 유명한 격언은 가장 심오한 군사평론가의 한사람인 클라우제위쯔가 한 말이다. 맑스주의자들이 항상 이 원리를 매개의 전쟁의 의의를 고찰하는 리론적기초로 간주하여온것은 정당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항상 바로 이런 견지에서 각종 전쟁을 고찰하였던것이다.

이 견해를 현재의 전쟁에 적용해보라. 그러면 당신들은 수십년동안, 거의 반세기동안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이딸리아도 오지리도 로씨야도 그 정부와 지배계급이 식민지를 략탈하며 타민족을 억압하며 로동운동을 탄압하는 정치를 실시하여왔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 오직 이러한 정치만이 현 전쟁에서 계속되고있다. 오지리에서나 로씨야에서는 평시나 전시나 그 정치는 민족들의 해방이 아니라 그 민족들에 대한 예속화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 페르샤, 인도 및 기타 예속국들에서는 최근 수십년동안에 수천만, 수억의 인민

들을 민족적생존에로 각성시키며 인민들을 반동적인 《대》렬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정치가 실시되여왔음을 보게 된다. 이런 력사적조건하에서 진행되는 전쟁은 오늘날에도 자산계급의 진보적, 민족해방적 전쟁으로밖에 될수 없다.

《대》렬강과 그 국내의 기본계급들의 정치가 현 전쟁에서 계속되고있다는 견지로부터 이 전쟁을 고찰하기만 한다면 이 전쟁에서 《조국보위》라는 사상을 변호할수 있다고 여기는것은 전적으로 반력사적이고 위선적이며 기만적이라는것을 곧 간파할수 있다.

벨지끄의 실례

3개(지금은 4개) 협약국288의 사회배외주의자들(로씨야에서는 볼쉐하노브일파)은 벨지끄의 실례를 인증하기를 아주 즐겨한다. 그러나 이 실례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의것을 말하고있다. 독일제국주의자들은 파렴치하게도 벨지끄의 중립을 파괴하였는바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교전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조약과 의무를 유린한것과 동일한것이다. 국제조약을 준수하려는 념원을 가진 모든 국가가 벨지끄의 해방과 벨지끄에의 배상을 요구하여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에 사회주의자들은 물론 독일의 적측에 대하여 동정할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런 전쟁은 《3개(4개)협약국》이 벨지끄때문에 진행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며 오직 위선자들만이 이를 은폐하고있다. 영국은 독일의 식민지와 토이기를, 로씨야는 갈리찌아와 토이기를 략탈하려고 하며 프랑스는 알자스-로렌과 심지어 라인강좌안까지 탈취하려고 애쓰고있다. 이딸리아와는 전리품(알바니아, 소아세아)분할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으며 불가리아와 로므니아와도 역시 전리품분할을 위한 흥정이 진

행되고있다. 각국의 현 정부들이 진행하고있는 현 전쟁의 조건하에서는 오지리나 토이기 등을 교살하는것을 돕지 않고서는 벨지끄를 도울수가 없다! 이것이 《조국보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전쟁의 특점이며 이것이 바로 사멸하여가는 반동적자산계급정부들이 타민족을 억압하기 위하여 진행하고있는 전쟁의 특점이다. 이 전쟁에의 참가를 변호하는자는 제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압박을 영구화하려는자이다. 정부들의 현재의 곤난들을 사회혁명을 위한 투쟁에 리용할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비로소 실현될수 있는, 참으로 모든 민족의 진정한 자유를 고수하는 사람이다.

로씨야는 무엇때문에 싸우고있는가?

로씨야에서는 페르샤, 만주, 몽골에 대한 짜리정부의 정책에서 최신형의 자본주의적제국주의가 완전히 나타났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로씨야에서는 군사적 및 봉건적 제국주의가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로씨야에서처럼 국내의 주민의 대다수가 압박받고있는 나라는 세계의 어느곳에도 없다. 대로씨야인은 다만 인구의 43%, 즉 절반도 못되며 기타는 모두가 타민족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다. 로씨야의 1억 7,000만 주민중에서 약 1억이 압박받고있으며 무권리하다. 짜리정부는 갈리찌아를 탈취하며 우크라이나인의 자유를 영영 말살하기 위하여, 아르메니야, 콘스탄티노플 등등을 탈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있다. 짜리정부는 이 전쟁을 국내에서의 불만의 증대로부터 주의력을 딴데로 돌리며 날로 앙양하는 혁명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보고있다. 현재 로씨야에는 매 2명의 대로씨야인에 대하여 2～3명의 무권리한 《타민족》이 있는셈이나 짜리정부는 전쟁에 의하여 로씨야의 압박을 받는 민족들의

수효를 증대시키고 그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며 그럼으로써 대로씨야인자체의 자유를 위한 투쟁까지도 파탄시키려고 애쓰고있다. 다른 민족을 압박하고 략탈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은 경제적침체를 강화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생산력발전이 소득의 원천으로 될 대신에 《타민족》에 대한 반봉건적착취가 소득의 원천으로 되는 일이 빈번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로씨야가 하고있는 전쟁은 극히 반동적이며 반자유적인것이다.

사회배외주의란 무엇인가?

사회배외주의란 현 전쟁에서 《조국보위》의 사상을 변호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이 사상으로부터는 전시에 계급투쟁을 포기하며 군비지출에 찬성투표한다는 등등이 흘러나온다. 사실상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반무산계급적자산계급적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왜냐 하면 실제에 있어서 그들이 주장하고있는것은 타민족의 압박을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조국보위》인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략탈하며 타민족을 억압할 이런 또는 저런 《대》렬강의 《권리》이기때문이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은 이 전쟁이 제 민족의 자유와 생존을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된다는듯이 말하는 자산계급의 인민에 대한 기만을 되풀이하고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산계급을 반대하여 자산계급의 편으로 넘어가고있다. 사회배외주의자들가운데는 교전국의 어느 한 집단의 정부와 자산계급을 변호하고 미화하는자들도 있으며 카우쯔키처럼 모든 교전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조국보위》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인정하는자들도 있다. 사회배외주의는 실제에 있어서는 《자국의》(또는 통털어 모든 나라의)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의 특권, 우월성, 략탈 및 폭행을 옹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모든 사회주의적신념과 바젤의 국제사회주의자대회230의 결정을 완전히 배반하는것이다.

바 젤 선 언

1912년에 바젤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전쟁에 관한 선언은 1914년에 영국과 독일 및 그들 쌍방의 현재의 동맹국들간에 일어난 바로 이 전쟁을 념두에 두고있다. 선언은 대렬강의 제국주의적, 략탈적 정책에 기초하여 《자본가의 리윤과 각국 왕조의 리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전쟁은 여하한 인민적리익으로써도 변호될수 없다고 단적으로 언명하고있다. 선언은 또한 전쟁은 《각국 정부에》(예외없이) 위협한것이라고 단적으로 언명하고있으며 각국 정부가 《무산계급혁명》을 두려워하고있음을 지적하고있으며 1871년의 꼼뮨과 1905년 10～12월의 실례, 즉 혁명과 국내전쟁의 실례를 극히 명확하게 제시하고있다. 그리하여 바젤선언은 바로 이 전쟁에서 각국의 로동자들이 자국정부를 반대하여 국제적규모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할 전술, 무산계급혁명의 전술을 제정하고있다. 바젤선언은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를 《자본주의의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리용하여야 한다는 즉 전쟁으로 인하여 조성된 각국 정부의 곤난과 군중의 분격을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리용하여야 한다는 슈투트가르트결정[228]의 주장을 반복하고있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의 정책, 그들이 자산계급적해방이라는 견지에서 이 전쟁을 변호하고있는것, 《조국보위》를 주장하고 있는것, 군비지출에 찬성투표한것, 내각에 들어간것 등등은 사회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배반인바 이 배반은 아래에서 보게 되는바와 같이 구라파의 다수의 정당들내부에서 기회주의와 민족주의적자유주의적로동자정책이 압도적우세를 차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서만 설명될수 있는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로부터의 외곡적인 인증

로씨야의 사회배외주의자들(쁠레하노브를 선두로 하는)은 1870년의 전쟁시의 맑스의 전술을 인증하고있으며 독일의 사회배외주의자들(렌쉬, 다위드 일파의)은 로씨야와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로 하여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독일사회주의자들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는 1891년의 엥겔스의 언명을 인증하고있으며 끝으로 국제배외주의를 화해시키며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카우쯔키형의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맑스와 엥겔스가 전쟁을 비난하면서도 그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1854~1855년부터 1870~1871년 및 1876~1877년까지에는 항상 교전국의 어느 한 일방에 서있었다는것을 인증하고있다.

이 모든 인증은 자산계급과 기회주의자들의 비위에 맞게 맑스와 엥겔스의 제 견해를 부당하게 외곡한것으로서 이것은 기욤일파의 무정부주의자가 무정부주의를 변호하기 위하여 맑스와 엥겔스의 견해를 외곡한것과 완전히 동일한것이다. 1870~1871년전쟁은 나뽈레옹3세가 패배당할 때까지는 독일측에서 보면 력사적으로 진보적인 전쟁이였다. 왜냐 하면 나뽈레옹3세는 짜리와 함께 독일의 봉건적할거를 지지함으로써 오래동안 독일을 억압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프랑스를 략탈하는(알자스와 로렌의 합병)데로 넘어가자 맑스와 엥겔스는 단호히 독일인들을 비난하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전쟁의 시초에 맑스와 엥겔스는 베벨과 립크네히트가 군비지출에 대한 찬성투표를 거절한것을 지지하였으며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자산계급과 합류하지 말고 무산계급의 독자적인 계급적리익을 고수하라고 충고하였다. 자산계급의 진보적, 민족해방적인 이 전쟁에 대한 평가를 현대의 제국주의전쟁에 적용하는것은 진리에 대한 조롱인것이다. 1854~1855년의 전쟁과 19세기

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 하면 그때에는 근대적제국주의도 없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숙된 객관적 제 조건도 없었으며 모든 교전국들에 대중적인 사회주의정당들도, 즉 바젤선언이 렬강간의 전쟁과 관련하여 《무산계급혁명》의 전술을 도출하게 된 바로 그런 조건이 없었기때문이다.

자산계급이 진보적이였던 시대의 전쟁에 대한 맑스의 태도를 오늘날 인증하면서 《로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맑스의 말—바로 자산계급이 반동화하고 사멸하여가는 시대, 사회주의혁명의 시대에 들어맞는 말—을 망각하는자는 맑스를 파렴치하게 외곡하며 사회주의의 견지를 자산계급의 견지로 바꾸어놓고있는것이다.

제2국제당의 파산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은 1912년에 바젤에서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우리는 닥쳐오는 구라파전쟁을 모든 정부의 《범죄적》이고 극히 반동적인 행위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을 불러일으켜 그 붕괴를 촉진시킬것이다라고.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쳐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민주당들은 자국정부와 자국자산계급의 편에 서서 혁명적전술 대신에 반동적전술을 취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변절은 제2국제당(1889~1914년)의 파산을 의미하는것으로 우리들은 반드시 이 파산이 무엇에 의하여 초래되였으며 무엇이 사회배외주의를 산생시켰고 또 무엇이 그에 힘을 주었는가를 명백하게 리해하여야 한다.

사회배외주의는 완성된 기회주의이다

제2국제당의 전 기간을 통하여 각국의 사회민주당들 내부

에서는 혁명파와 기회주의파와의 사이에서 투쟁이 진행되였다.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이 투쟁에 따라 분렬이 일어났다(영국, 이딸리아, 화란, 벌가리아). 기회주의는 로동운동내에서의 자산계급적정책을 대표하며 소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또한 무산자대중의 리익, 피압박대중의 리익을 반대하는 극소부분의 자산계급화한 로동자와 《자국》자산계급과의 동맹의 리익을 대표하는것임을 의심한 맑스주의자는 한사람도 없었다.

19세기말엽의 객관적 제 조건은 기회주의를 각별히 조장하여 자산계급적합법성의 리용을 그 합법성에 대한 맹목적숭배로 전화시켰으며 로동계급가운데의 관료와 귀족의 조그마한 층을 조성하였으며 사회민주당들의 대렬에 많은 소자산계급적 《동반자》들을 인입하였다.

전쟁은 기회주의를 사회배외주의로 전화시키고 기회주의자와 자산계급과의 비밀적동맹을 공개적동맹으로 전화시킴으로써 그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에 있어서 군사당국은 도처에서 계엄령을 실시하고 로동자대중을 압제하였는데 로동자대중의 종전의 지도자들은 거의 전부가 자산계급편으로 넘어갔다.

기회주의와 사회배외주의의 경제적기초는 동일하다. 즉 극소수의 특권적로동자계층과 소자산계급의 리익이 그것인바 그들은 자기들의 특권적지위를 고수하며 《본》민족의 자산계급이 혹은 타민족을 략탈함으로써, 혹은 그 대국이라는 유리한 지위 등등을 리용함으로써 얻은 리윤의 찌끼를 받아먹을 자기들의 《권리》를 고수하고있는것이다.

기회주의와 사회배외주의의 사상정치적내용은 동일한것이다. 즉 계급투쟁 대신에 계급합작이며 혁명적투쟁수단의 포기이며 《자국》정부의 곤난을 혁명을 위하여 리용할 대신에 곤난한 형편에 처한 《자국》정부를 방조하는 그것이다. 만일 개별

적인물들(가장 권위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에 대하여 주목을 돌리지 않고 모든 구라파나라들을 총괄적으로 고찰한다면 바로 기회주의적조류가 사회배외주의의 주요한 지주로 되였다는것, 혁명가들의 진영에서는 거의 도처에서 각이한 정도로 일관하게 이 조류에 대하여 항의를 제출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1907년의 슈투트가르트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서의 제 류파의 분류를 례로 든다면 국제맑스주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있었는데 국제기회주의는 당시에 벌써 제국주의를 지지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기회주의자들과의 통일은 로동자가 《본》민족의 자산계급과 동맹을 맺는것이며 혁명적인 국제로동계급을 분렬시키는것이다

지나간 전쟁전 시기에는 기회주의는 왕왕 《편향》, 《극단》이라고 일러왔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회민주당의 합법적구성부분으로 간주되였던것이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생각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전쟁은 보여주었다. 기회주의는 《성숙되여》 로동운동내의 자산계급의 특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왔다. 기회주의자들과의 통일은 순전히 위선으로 되였는바 독일사회민주당이 바로 그 실례이다. 기회주의자들은 중요한 경우에는 항상(례하면 8월 4일 투표시에) 최후통첩을 들고나와 자산계급과 맺고있는 그 수다한 련계나 로동조합리사회내에서 차지하고있는 다수 등등을 리용하여 그 최후통첩을 실현하고있다. 오늘날 기회주의자들과의 통일이라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로동계급을 《본》민족의 자산계급에게 종속시키는것, 타민족을 압박하고 대국의 특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위하여 자산계급과 동맹을 맺는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의 혁명적무산계급을 분렬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수다한 조직내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이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아무리 곤난하다 할지라도, 또한 로동자당들에서 기회주의자들을 숙청하는 과정이 개개의 나라들에서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불가피한것이며 또한 유익한것이다. 개량주의적사회주의는 사멸하여가고있다. 부활하여가는 사회주의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240인 폴 골레의 정당한 표현에 의하면 《혁명적이며 비타협적이며 봉기적인것으로 될것이다》.

《카우쯔키주의》

제2국제당의 최대의 권위자인 카우쯔키는, 말로만 맑스주의를 승인하는것이 실은 맑스주의를 《스뜨루웨주의》171나 또는 《브렌타노주의》318로 전화시키는것으로 된다는 사실의 가장 전형적이며 명백한 실례이다. 우리들은 쁠레하노브의 실례에서도 이와 동일한것을 본다. 그들은 명백한 궤변으로써 맑스주의로부터 산 혁명적령혼을 거세하며 맑스주의가운데서 혁명적인 투쟁수단, 그 선전과 준비,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의 대중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든것을 다** 인정하고있다. 카우쯔키는 사회배외주의의 기본사상, 즉 이 전쟁에서의 조국보위의 시인을, 군비지출에 대해 투표할 때 기권하거나 자기의 반정부적립장을 말로써 시인하거나 하는 등등의 형태의 좌파에 대한 외교적인, 표면적인 양보와 무원칙적으로 《화해》시키고있다. 1909년에는 혁명시대가 박두해오는데 대하여 또 전쟁과 혁명과의 련관에 대하여 웅근 한권의 책을 쓴 카우쯔키, 1912년에는 닥쳐올 전쟁을 혁명적으로 리용할것이라는 바젤선언에 서명한 카우쯔키, 그 카우쯔키가 지금에 와서는 백방으로 사회배외주의를 변호하고 미화하고있으며 또 쁠레하노브처럼 자산계급과 야합하며 혁명에 관한 일체의 의도와 직접적혁명투쟁을 위한

일체의 조치를 조소하고있다.

로동계급은 이러한 변절, 무정견, 기회주의에 대한 아첨, 맑스주의에 대한 전례없는 리론적비속화 등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세계혁명의 임무를 실현할수 없다. 카우쯔키주의는 우연한것이 아니라 제2국제당의 모순으로부터 즉 말로써의 맑스주의에 대한 충성과 행동상에서의 기회주의에 대한 굴종의 결합으로부터 생긴 사회적산물이다.

《카우쯔키주의》의 이 기본적인 기만성은 매개 나라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있다. 화란에서는 롤란드-홀스트가 조국보위의 사상을 거부는 하면서도 기회주의적인 정당과의 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로씨야에서는 뜨로쯔끼가 역시 이 사상을 거부하면서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적 및 배외주의적인 《우리의 서광》131파와의 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로므니아에서는 라꼽스끼가 제2국제당의 파산의 장본인인 기회주의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조국보위사상의 정당성을 인정할 용의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모두 화란의 맑스주의자들(고르테르, 판네쿠크)이 《소극적급진주의》라고 칭한 악, 즉 리론상으로는 혁명적맑스주의를 절충주의로 대체하며 실천상으로는 기회주의에 굴종하거나 또는 그에 대하여 무력하거나 하는 악의 표현인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의 구호는 혁명적사회민주당의 구호이다

전쟁이 극히 첨예한 위기를 가져왔고 대중의 재난을 믿을수 없을 정도로 격화시킨것은 의심할바없다. 이 전쟁의 반동적성격, 자기의 략탈적목적을 《민족적》관념으로 은페하고있는 모든 나라의 자산계급의 파렴치한 허위, 이 모든것은 객관적-혁명적정세하에서 불가피적으로 대중속에 혁명적기분을 조성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책임은 이 기분을 의식하고 심화하며 또 그것이 공고화되도록 돕는것이다. 이 임무를 옳바로 반영하고있는것은 오직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키라는 구호뿐이다. 그리고 전시에 있어서의 온갖 철저한 계급투쟁, 신중히 집행되는 온갖 《대중행동》의 전술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것이다. 렬강간의 제1차 또는 제2차 제국주의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중이나 또는 전쟁후에 강력한 혁명운동이 불타오를는지 어떨는지 알수 없지만 하여튼 바로 이 방향에서 계통적으로 또 꾸준히 사업하는것이 우리들의 무조건적인 책임이다.

바젤선언은 빠리꼼뮨의 실례를, 즉 각국 정부들간의 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킨 실례를 직접 인증하고있다. 반세기전에는 무산계급이 너무나 약하였고 사회주의를 실현할 객관적 제 조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었다. 모든 교전국들에서 혁명운동이 호상 호응하고 호상 촉진하는 일은 있을수 없었다. 빠리로동자의 일부가 《민족적관념》(1792년의 전통)에 열중한것은 당시 맑스가 지적한바와 같이 빠리로동자들의 소자산계급적약점이였고 꼼뮨이 실패한 원인의 하나였다. 꼼뮨이 실패한지도 반세기가 흘렀으며 당시의 혁명을 약화시킨 제 조건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오늘날 바로 빠리꼼뮨성원들의 정신으로 활동할것을 쉬이 거부하는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전호속에서 련환한 실례

모든 교전국의 자산계급신문들은 교전국병사들이 전호속에서까지도 련환한 실례들을 렬거하였다. 그런데 군사당국(독일과 영국)이 이런 련환을 금지하는 준엄한 법령을 내린것은 각국 정부와 자산계급들이 이 련환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있음을 증명하였다. 서구라파 각국의 사회민주당들의 상층에서 기회주의가 완전히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사회민주당의 모든 신문과 제2국제당의 모든 권위자들이 사회배외주의를 지지하고있는 조건하에서도 이런 련환의 실례가 있게 되였다는것은 모든 교전국의 좌익사회주의자들만이라도 이 방침에 근거하여 부단히 사업을 한다면 현재의 범죄적반동적 노예주적전쟁을 제지시키며 국제혁명운동을 조직하는것이 얼마나 가능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있다.

비합법적조직의 의의

이 전쟁에서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무정부주의자들도 기회주의자들에 못지않게 사회배외주의를 선전함으로써(쁠레하노브나 카우쯔키처럼) 망신을 하였다. 이 전쟁의 유익한 결과의 하나는 의심할바없이 이 전쟁이 기회주의도 무정부주의도 타도해버린다는 그것일것이다.

사회민주당은 대중을 조직하며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합법적가능성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시기와 환경을 막론하고 그것을 리용할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합법성에 맹목적으로 굴종하지 말아야 한다. 엥겔스는 바로 국내전쟁을 암시하면서 또 자산계급이 합법성을 유린한後에는 우리도 합법성을 유린할 필요성이 있다는것을 암시하면서 《자산자제씨들이여, 먼저 사격하시오.》319라고 썼다. 이 위기는, 자산계급이 모든 나라에서 심지어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에서까지도 이 합법성을 유린하고있다는것, 그렇기때문에 혁명적인 투쟁수단들을 선전하고 심의하고 평가하고 준비하기 위한 비합법적조직을 내오지 않고서는 대중을 혁명에로 이끌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례컨대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성실한 사업은 모두 비렬한 기회주의와 위선적

인 《카우쯔키주의》를 반대하여 진행되고있으며 또 그야말로 비합법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영국에서는 참군하지 말라는 삐라를 뿌리기만 하여도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

사회민주주의자로서 비합법적선전방법을 부인할수도 있으며 합법적출판물에서 그것을 조소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를 배반하는것이다.

제국주의전쟁에서의 《자국》정부의 패배에 대하여

현재의 전쟁에서 자국정부의 승리를 옹호하는자들도,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다.》라는 구호를 옹호하는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사회배외주의립장에 서있는자들이다. 혁명적계급은 반동적전쟁에서 자국정부의 패배를 원하지 않을수 없으며 자국정부의 군사적패배가 이 정부를 더 쉽게 전복되게 한다는것을 보지 않을수 없다. 각국 정부들에 의하여 시작된 전쟁은 반드시 각국 정부들간의 전쟁으로 끝나리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될것을 원하는 자산자만이, 모든 교전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자국》정부의 패배를 주장한다는 사상을 《우스운것》으로 또는 《어리석은것》으로 생각할것이다. 그와 반대로 이러한 주장만이 모든 각성한 로동자들이 내심에 품고있는 생각에 부합될것이며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행동로선에 부합될것이다.

영국, 독일, 로씨야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진지한 반전선전이 각각 그 나라 정부의 《군사력을 약화시킨》것은 의심할바없는데 그러한 선전은 사회주의자들의 공적이였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에게 혁명에 의하여 《자국》정부를 전복하는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것, 현 전쟁에서 이들 정부의 곤난을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평화주의와 강화의 구호에 대하여

평화를 희망하는 대중의 기분은 흔히 반동적전쟁에 대한 항의, 분격 및 전쟁의 반동성에 대한 자각의 시초를 표현한다. 이 기분을 리용하는것은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이것을 토대로 하는 모든 운동과 모든 시위행진에 가장 열렬히 참가할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병합이 없는, 민족압박이 없는, 략탈이 없는, 현재의 정부간 및 지배계급간의 새 전쟁의 맹아가 없는 강화가 혁명운동이 없이도 실현될수 있다고 인민을 기만하지는 않을것이다. 인민을 이렇게 기만하는것은 교전국정부들의 비밀외교와 그들의 반혁명계획에 유리할따름이다. 항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정부와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지지하여야 할것이다.

민족자결권에 대하여

현 전쟁에서 자산계급이 인민을 기만하는 가장 상투적인 수단은 전쟁의 략탈적목적을 《민족해방》이라는 관념으로써 은폐하는 그것이다. 영국인들이 벨지끄에 자유를 준다고 대답하고 독일인들이 뽈스까에 자유를 준다고 대답하는 등이 그것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아온바와 같이 이 전쟁은 세계의 대다수의 민족을 압박하고있는자들이 이러한 압박을 강화하며 확장하기 위하여 감행하는 전쟁인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일체의 민족압박을 반대하여 싸우지 않고서는 자기의 위대한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압박**국(특히 소위 《대》국)의 사회민주당들이 **피압박**민족의 자결권, 그것도 바로 정치적의미에서의 자결권, 즉 정치적분리의 권리를 인정하며 수호할것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대강국민족 또는 식민지를 소유하고있는 민족의 사회주의자로서 이 권리를 수호하지 않는자는 배외주의자인것이다.

이 권리의 수호는 소국가의 형성을 장려하는것이 아닐뿐만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대중에게 더 유리한 또 경제적발전에 더 적합한 거대한 국가와 국가동맹이 보다더 자유롭고 대담하게, 따라서 더 광범하고 보편적으로 형성되도록 하는것이다.

피압박민족의 사회주의자들은 반드시 피압박민족과 압박민족의 로동자들의 완전한 통일(조직상의 통일도 포함하여)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한 민족의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법적분리를 주장하는 사상(바우에르와 렌네르의 소위 《민족문화자치》189)은 반동적사상이다.

제국주의란 소수의 《대》국이 세계의 각 민족을 점점 더 압박하는 시대를 말한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은 민족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타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없다》(맑스, 엥겔스).282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하여 사소한 폭력이라도 행사하는것을 시인하는 무산계급은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일수 없다.

제 2 장

로씨야에서의 제 계급과 정당

자산계급과 전쟁

로씨야정부는 한가지 점에서 자기의 구라파동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즉 로씨야정부는 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적으로 《자국》인민을 기만할줄 알고있었다. 로씨야에서도 대중에게 배외주의를 감염시키기 위하여 또 짜리정부가 마치 《정의의》 전쟁을 진행하며 《형제적인 슬라브인》들을 사심없이 옹호하고있는듯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거짓말과 간계의 방대하고 기괴한 기관이 발동되였다.

지주계급과 공상업자산계급의 상층분자들은 짜리정부의 호전적인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그들이 토이기와 오지리의 유산분할로부터 자기들에게 거대한 물질적리득과 특권이 차례질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일련의 회의를 가진 그들은 짜리군대가 승리하는 경우에 그들의 주머니로 련속부단히 들어오게 될 리윤을 타산하고있었다. 그뿐아니라 반동파들은 로마노브군주제의 붕괴를 지연시키고 로씨야에서의 새 혁명을 저지시킬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대외전쟁이 짜리의 승리로 끝나는 그것뿐이라는것을 아주 잘 알고있다.

도시의 《중등》자산계급, 자산계급지식인, 자유직업자 및 기타의 광범한 계층들도—적어도 전쟁초기에는—역시 배외주의에 감염되여있었다. 로씨야의 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정당인 립헌민주당6은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짜리정부를 지지하였다. 대외정책분야에 있어서 립헌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정당으로 되였다. 짜리의 외교가 이미 루차 자기의 커다란 정치적사기수단으로 사용한 범슬라브주의는 립헌민주당의 공식적사상체계로 되였다. 로씨야의 자유주의는 민족적자유주의로 타락하였다. 그는 《애국주의》의 점에서는 흑백단과 경쟁하며 군국주의, 해상군국주의 등에 항상 즐거이 찬성투표하고있다. 로씨야의 자유주의의 진영에서는 70년대 독일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자유주의가 해체되여 민족적자유주의정

당이 배출되던 때와 흡사한 현상이 보여지고있다. 로씨야의 자유주의적자산계급은 종국적으로 반혁명의 길에 들어섰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견해는 완전히 확증되였다. 로씨야의 자유주의가 아직도 로씨야혁명의 동력이라는 우리 나라 기회주의자들의 견해는 실제생활에 의하여 분쇄되였다.

통치집단은 자산계급출판물, 승려층 등등의 도움에 의해 농민들사이에서도 배외주의적기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병사들이 전선에서 귀환함에 따라 농촌의 이런 기분이 짜리군주제에 불리하게 변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농민들과 접촉하고있는 자산계급민주주의당들은 배외주의의 파도에 견디여내지 못했다. 근로파112는 국회에서 군비지출에 찬성투표할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지도자 께렌스끼의 입을 통하여 군주제에 특히 유리한 《애국》선언을 선포하였다. 《인민파》의 일체 합법적출판물은 죄다 자유주의파들의 뒤를 따랐다. 심지어 자산계급민주주의파의 좌익—국제사회당 집행국283에 가담한 소위 사회혁명당146—까지도 이와 같은 조류와 합류하였던것이다. 국제사회당 집행국에 주재하는 이 당의 대표 루바노위치씨는 로골적인 사회배외주의자로 되고있다. 《협약국》사회주의자들의 런던대표자회의320에서 이 당 대표들의 반수는 배외주의적결의에 찬성투표하였다(그 나머지 반수는 기권하였다). 사회혁명당의 비합법적출판물(《신문》321 등등)에서는 배외주의자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자산계급층출신의》 혁명가들, 즉 로동계급과 련계를 맺지 않은 자산계급혁명가들은 이 전쟁에서 참혹한 파산을 당하였다. 크로뽀트낀, 부르쩨브, 루바노위치의 비참한 운명은 극히 의미심장한것이다.

로동계급과 전쟁

로씨야에서 배외주의에 감염되지 않은 유일한 계급은 무산계급이다. 전쟁초의 개별적폭행들은 오직 가장 락후한 로동자층들에만 관련된 일이였다. 모스크바의 독일인들에 대한 포행사건에 로동자들이 참가한 사실은 지나치게 과장되여있다. 대체로 말하여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배외주의에 대하여서는 면역력을 가지고있었다.

이것은 국내의 혁명적정세와 로씨야무산계급의 일반적생활조건에 의하여 설명된다.

1912～1914년은 로씨야에서의 새로운 거대한 혁명적앙양의 발단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또다시 세계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대파업운동을 목격하였다. 대중적인 혁명적파업은 1913년에는 최소한으로 계산하여도 150만명의 참가자들을 망라하였으며 1914년에는 200만명을 초과하여 1905년의 수준에 접근하였다. 전쟁전야에 뻬쩨르부르그에서는 사태가 벌써 최초의 바리케트전투들을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비합법적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은 국제당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국제주의의 기치는 당의 수중에 튼튼히 쥐여져있었다.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기회주의집단 및 기회주의분자들과 조직적으로 결렬하였다. 기회주의와 《절대적합법주의》는 우리 당의 장애물로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사정은 우리 당이 혁명적의무를 수행하는것을 도와주었다. —이것은 비쏠라띠의 기회주의적당과의 분렬이 이딸리아동지들을 도와준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의 일반정세는 로동자대중속에서의 《사회주의적》기회주의의 성행을 용허하지 않는다. 우리는 로씨야의 지식인, 소자산계급 및 기타의 사이에서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와

개량주의를 볼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로동자들사이에서는 보잘것없는 소수를 이루고있다. 특권적인 로동자 및 사무원 층은 우리 나라에서는 극히 미약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합법성에 대한 맹목적숭배가 있을수 없다. 취소파132(악쎌로드, 뽀뜨레쏘브, 체레와닌, 마슬로브 등등이 령도하는 기회주의정당)는 전쟁전에 로동자대중속에서 아무런 뚜렷한 지지도 받지 못하였다. 제4차국회에 입선된 6명의 로동자의원전부가 취소주의를 반대하였다. 뻬뜨로그라드와 모스크바의 합법적로동자신문의 발행부수와 의연금은 각성한 로동자의 5분의 4가 기회주의와 취소주의를 반대하고있다는것을 론박할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짜리정부는 수천수만명의 선진적로동자들과 우리의 비합법적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당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였다. 이 사정은 국내에서의 계엄령의 실시, 우리의 신문의 폐간 등등과 아울러 운동을 저지시켰다. 그러나 우리 당의 비합법적혁명사업은 그래도 역시 계속되고있다. 우리 당 뻬뜨로그라드위원회는 비합법적신문 《무산자의 목소리》322를 발간하고있다.

국외에서 발간되는 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론문들은 뻬뜨로그라드에서 재인쇄되여 각 성에 발송되고있다. 비합법적선전삐라들이 발간되여 병영내에까지도 살포되고있다. 도시교외의 한적한 여러 장소에서는 로동자들의 비합법적집회가 진행되고있다. 최근 뻬뜨로그라드에서 금속로동자들의 대파업이 일어났다. 이 파업들과 관련하여 우리 당 뻬뜨로그라드위원회는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몇개의 격문을 발표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당 국회로동자 의원단과 전쟁

1913년에 사회민주당국회의원단사이에서 분렬이 생겼다.

한 편은 치헤이제의 지도하의 7명의 기회주의의 지지자들이였다. 그들은 7개의 비무산계급적인 성에서 선출되였는데 거기에는 로동자들의 수가 21만 4,000명이였다. 다른 편은 모두 로동자선민단으로부터 선출된 6명의 의원들이였는데 이들은 100만 8,000명의 로동자가 있는 로씨야 최대의 공업중심지들에서 선출되였다.

주요한 의견상이점은 혁명적맑스주의의 전술을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회주의적개량주의의 전술을 실시하느냐 하는것이였다. 실제상 의견상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것은 국회외의 대중사업에서였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혁명적립장에 서려고 한다면 로씨야에서는 이 사업을 비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치헤이제의 의원단[183]은 시종 비합법적사업을 포기한 취소파의 가장 충실한 동맹자였으며 또 로동자들과의 모든 담화에서와 모든 회의에서 취소파를 변호하였다. 이로 인하여 분렬이 생겼다. 6명의 의원은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의원단을 조직하였다. 1년간의 사업은 로씨야로동자들의 절대다수가 바로 이 의원단을 지지하고있다는것을 론박할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전쟁초에 의견상이가 뚜렷이 나타났었다. 치헤이제의 의원단은 국회활동에만 국한되여있었다. 치헤이제의 의원단은 군비지출에 찬성투표는 하지 않았다. 찬성투표하면 로동자들의 격렬한 분노를 초래할것이기때문이였다(우리는 로씨야에서 심지어 소자산계급적인 근로파까지도 군비지출에 찬성투표하지 않았음을 알고있다). 그러나 이 의원단은 사회배외주의를 반대하지도 않았다.

우리 당의 정치로선을 반영한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의원단은 이와는 다르게 행동하였다. 이 의원단은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로씨야의 광범한

무산자대중에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선전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의원단은 로동자들속에서 굉장한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정부를 놀라게 하였으며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법률을 공공연히 파괴하고 우리의 국회의원동지들을 체포하여 종신 씨비리류형에 처하게 하였다. 우리 동지들의 체포에 대한 첫 공식적발표에서 짜리정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단체들의 일부 성원들은 아주 다른 립장을 취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선전과 비합법적삐라와 구두선전에 의하여 로씨야의 군사력을 동요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시》 중지하라는 완데르웰드의 유명한 호소문—지금에는 벨지끄주재 짜리대사 꾸다쉐브공작의 증언에 의하여 완데르웰드가 혼자서가 아니라 상기한 짜리대사와 함께 이 호소문을 작성하였다는것이 알려졌다.—에 대하여서는 오직 우리 당만이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거절하는 회답을 보냈던것이다. 취소파의 령도핵심은 완데르웰드에 동의하여 《전쟁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신문에 공식적으로 성명하였다.

짜리정부가 우리의 국회의원동지들을 고발한 첫째 리유는 그들이 완데르웰드에게 보낸 이 부정적회답을 로동자들사이에서 선전하였다는것이였다.

짜리의 검찰관 네나로꼬모브씨는 심판할 때 우리의 동지들에게 독일 및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을 모범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군비지출에 찬성투표함으로써 정부의 벗으로 되였다.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렇게 하였는데 로씨야사회민주당의 가련한 기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벨지끄와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자기와 다른 계급들과의 분쟁을 잊어버리고 당파적분

규를 잊어버리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한 기치하에 섰다.》 그런데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의원단의 성원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복종하여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는것이다.

이 심판은 우리 당이 무산계급대중속에서 광범한 전쟁반대선전을 비합법적으로 진행한 감명깊은 화폭을 펼쳐보여주었다. 물론 짜리법정이 이 분야에서의 우리 동지들의 활동의 전부를 《조사해낼》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러나 조사해낸 활동 그것만도 수개월이라는 단기간내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였는가를 보여주었다.

법정에서는 우리의 소조들과 위원회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주의적전술을 지지하여 살포한 비합법적삐라들이 랑독되였다. 전 로씨야의 각성한 로동자들은 누구나 다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의원단성원들과 련계를 가지고있었으며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의원단도 이 로동자들이 맑스주의의 견지에서 전쟁을 평가하도록 힘껏 방조하였다.

하리꼬브성의 로동자의원 무라노브동지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민에 의하여 내가 국회에 파견된것은 국회의 안락의자에 앉아있기 위하여서가 아니라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다. 그리하여 나는 로동계급의 기분을 알기 위하여 여러 지방을 다니였다.》 그는 또한 우리 당의 합법적선동자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우랄의 웨르흐네이쎄트공장 및 기타 지방에서 로동자위원회를 조직한 사실을 법정에서 승인하였다. 이 심판은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의원단 성원들이 전쟁이 일어난후에 선전을 하기 위하여 거의 전 로씨야를 순회하였다는것, 무라노브, 뻬뜨롭스끼, 바다예브 및 기타 사람들이 수다한 로동자회의를 조직하였으며 그 석상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결의문 등이 채택되였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짜리정부는 피고들을 사형으로 위협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바로 이 법정에서 그들의 전부가 무라노브동지처럼 그렇게 용감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짜리검찰관들이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기 곤난하게 하려고 애썼던것이다. 지금 로씨야의 사회배외주의자들은 어면 의회활동이 로동계급에게 필요한가 하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비루하게도 이것을 리용하고 있다.

쥐데쿰과 하이네, 쌍바와 와양, 비쏠라띠와 무쏠리니, 치헤이제와 플레하노브는 의회활동을 인정한다. 그리고 의회활동은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자의원단의 우리의 동지들도 인정하며 배외주의자들과 결렬한 벌가리아, 이딸리아의 동지들도 그것을 인정한다. 의회활동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부에 아첨하기 위하여서 또는 기껏해야 치헤이제의 의원단처럼 청백한자로 자처하기 위하여서 의회의 무대를 리용한다.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한 혁명가로 되기 위하여, 가장 곤난한 환경에서라도 사회주의자로서의 또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활동을 리용한다. 전자의 의회활동은 그들을 대신의 안락의자에 앉게 하며 후자의 의회활동은 그들을 감옥으로, 류형으로, 징역살이로 보낸다. 전자는 자산계급에게, 후자는 무산계급에게 복무한다. 전자는 사회제국주의자들이며 후자는 혁명적맑스주의자들이다.

제 3 장

국제당의 재건

국제당을 어떻게 재건할것인가? 그러나 우선 국제당을 어떻게 재건하여서는 안되는가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겠다.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중앙파》의 방법

오, 모든 나라의 사회배외주의자들은 위대한 《국제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전쟁당초부터 국제당에 대한 근심걱정으로 여념이 없다. 한편으로 그들은 단언한다. 국제당의 파산을 운운하는것은 《과장이다》, 실상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긴것은 아니다라고. 카우쯔키의 말을 들어보라. 바로 말해서 국제당은 《평화시기의 도구》이니, 전시에 이 도구가 다소 요구에 응하지 못한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다른편으로 각국의 사회배외주의자들은 현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극히 단순한—그리고 주요한것은 국제적인—수단을 발견하였다. 이 수단이란 그리 복잡한것이 아니다. 즉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자국》정부를 지지하여야 할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서로 《대사》를 실시하여 모두다 옳았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평화시기에는 우리가 형제처럼 살지만 전시에는 우리가—이러이러한 결의를 엄수하여—독일로동자들에 대하여서는 프랑스의 형제들을 살륙하도록 또 프랑스로동자들에 대하여서는 독일의 형제들을 살륙하도록 호소하는것을 시인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점에서는 카우쯔키나 쁠레하노브나 윅토르 아들레르나 하이네나 다 마찬가지이다. 윅토르 아들레르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을 때에 우리의 첫 의무는 서로 까다롭게 굴지 않는것이다.》고 썼다. 카우쯔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방면에서도》 국제당의 운명에 대하여 《근심하게 하는 진지한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울려오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고있다. 쁠레하노브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선혈이 랑자한 손(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의)을 잡는것은 불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있

다. 그러나 그는 즉시 《대사》를 제의한다. 《여기서는 감정을 리성에 복종시키는것이 완전히 적당할것이다. 자기의 위업을 위하여 국제당은 때늦은 후회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라고 그는 쓰고있다. 하이네는 《사회주의월간》227에서 완데르웰드의 행동을 《용감하고 의젓한것》이라고 하면서 독일의 좌파는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전쟁이 끝나면 카우쯔키와 쁠레하노브, 완데르웰드와 아들레르를 성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임명하자, 그러면 순식간에 상호대사의 정신에 립각한 《전원일치》의 결의문이 작성될것이다. 론쟁은 무사히 사라지게 될것이다. 그들은 발생한 사건을 리해하도록 로동자들을 도울 대신에 허식적인 지상공문의 《통일》로써 로동자들을 기만할것이다. 각국의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위선자들의 련합이 국제당의 재건이라고 불리여질것이다.

이러한 《재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데 대하여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모든 나라의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할것을 념원하고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나라의 로동자대중자신이 사회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민족주의냐 하는 문제를 리해하는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죄행을 서로 은폐할것을 념원하고있다. 그들은 모두 《국제적》위선의 명수인 카우쯔키가 제의하는 방법이외의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제의할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위험성을 거의 리해하지 못하고있다. 전쟁이 일어난 한해동안에 우리는 국제적련계를 회복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를 보아왔다. 우리는 일부의 배외주의자들이 자기 《조국》의 총참모부와 자산계급을 방조하기 위하여 모였던 런던대표자회의와 윈대표자회의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것은 루가노대표자회의, 꼬뻰하븐대표자

회의, 국제녀성대표자회의, 국제청년대표자회의323이다. 이 회의들은 선량한 념원을 가지였었다. 그러나 그 회의들은 상술한 위험성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였다. 이 회의들은 국제주의자들의 전투적로선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이 회의들은 사회배외주의자들의 국제당《재건》방법이 무산계급에게 끼치는 위험성을 그들에게 지적하여주지 않았다. 이 회의들은 사회배외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위업은 가망없는 일이라는것을 로동자들에게 지적하여주지 않고 기껏해야 낡은 결의들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이 회의들은 기껏해야 제자리에서의 답보였다.

반대파의 정세

독일사회민주당내의 반대파의 정세가 모든 국제주의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고있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제2국제당에서 가장 유력하고 령도적지위에 있었던 공식적독일사회민주당은 로동자들의 국제조직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독일사회민주당내에는 가장 유력한 반대파가 나타났다. 구라파의 큰 당들중에서는 독일사회민주당내에서 맨처음으로 사회주의의 기치에 어디까지나 충실한 동지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던것이다. 우리는 《광선》324 및 《국제당》287 같은 잡지들을 반갑게 읽어보았다. 우리는 례컨대 《주요한 적은 자국내에 있다》는 삐라와 같은 비합법적인 혁명적삐라들이 독일국내에 살포되고있는 사실을 알고 한층더 반가왔다. 이것은 독일로동자들사이에 사회주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것, 독일에 혁명적맑스주의를 고수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것을 말하여주었다.

독일사회민주당내부에서는 현대사회주의운동에서의 분렬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되였다. 여기서는 아주 뚜렷하게 3개의

류파가 있다는것을 볼수 있다. 즉 그 어디에서도 독일에서처럼은 그렇게 심한 타락과 변절을 한적이 없는 배외주의적기회주의자들, 독일에서 기회주의자들의 종복의 역할이외에는 어떤 역할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카우쯔키의 《중앙파》, 그리고 독일에서 유일한 사회민주주의파인 좌파가 그것이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돌리는것은 물론 독일좌파내부의 정세인것이다. 우리는 이 좌파를 우리의 동지들로 보며 모든 국제주의자들의 희망으로 보고있다.

이 정세는 도대체 어떠한것인가?

잡지 《국제당》이 독일좌파내에서는 모든것이 아직 온양과정에 처하여있으며 커다란 분화는 금후에 있을것이며 그 내부에는 더 견결한 분자들과 덜 견결한 분자들이 있다고 말한것은 아주 정당하였다.

우리들 로씨야국제주의자들은 물론 우리의 독일좌파동지들의 내부문제에 간섭하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자신만이 시간과 장소의 제 조건을 고려하여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자기의 투쟁방법을 규정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있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다만 우리는 정세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것을 자기의 권리이며 또 의무라고 생각하는바이다.

잡지 《국제당》의 사설의 필자가 카우쯔키의 《중앙파》는 공개적인 사회배외주의보다 더 큰 해독을 맑스주의의 위업에 끼치고있다고 단언하는것은 극히 정당하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지금 의견상이를 말살하고있는 사람들, 카우쯔키파가 선전하는것을 맑스주의라는 명목으로 로동자들에게 선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로동자들을 마취시키고있는것이며 직접 문제를 제출하여 로동자들자신이 시비를 가르도록 하는 쥐데쿰과 하이네 일파보다도 더 유해하다.

최근에 카우쯔키와 하제가 감히 《지도기관》에 대항하고있는데 이것은 아무도 미혹시키지 못할것이다. 그들과 샤이데만일파간의 의견상이는 원칙적인 의견상이가 아니다. 한 편은 힌덴부르그와 마켄젠이 이미 승리하였으므로 이제는 령토병합을 대대적으로 반대하여 항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다른 편은 힌덴부르그와 마켄젠이 아직 승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카우쯔키파는 《지도기관》에 대하여 오직 허식적인 투쟁을 하고있을뿐이다. 그것은 바로 전쟁후에 로동자들에게 원칙적인 론쟁이 알려지지 않게 하며 제2국제당의 외교가들이 능수답게 취하는 그 애매한 《좌익》식의 쓸데없이 길다란 천 한번째의 결의문으로써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한것이다.

《지도기관》을 반대하는 그 어려운 투쟁에 있어서 독일반대파는 카우쯔키파의 이 비원칙적인 대항까지도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국제주의자들의 시금석으로 되는것은 금후에도 신카우쯔키주의에 대하여 반드시 부정적태도를 취하는것이다. 카우쯔키주의를 반대하는 사람, 《중앙파》의 지도자들이 표면상으로 전환을 한후에도 《중앙파》는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배외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동맹자이라는것을 리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국제주의자인것이다.

국제당내의 소유의 동요하는 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이런 분자들—주로 평화주의적색채를 띤 사회주의자들—은 중립국들내에도 존재하며 일부 교전국들내에도 존재한다(영국에서는 례컨대 독립로동당9). 이 분자들은 우리의 동반자로 될수 있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과 접근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것은 그들이 다만 동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국제당을 재건하는 주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 분자들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여 카우쯔키, 샤이데만, 완데르웰드, 쌍바를 지지할것이라는것이다. 국제회의들에서는 우리들의 강령을 이 분자들에게 접수될수 있는 범위에 국한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 자신이 동요하는 평화주의자들의 포로로 되고말것이다. 례를 들면 베른에서 진행된 국제녀성대표자회의에서 그렇게 되였던 것이다. 클라라 쩨트킨동지의 견해를 가진 독일대표단은 사실상 이 회의에서 《중앙파》의 역할을 놀았던것이다. 이 녀성대표자회의는 트룰스트라의 기회주의적인 화란당의 대표들과 《협약국》배외주의자들의 런던대표자회의에서 완데르웰드의 결의안에 찬성투표한—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독립로동당(I.L.P.)의 대표들에게 접수될수 있었던것만을 말하였다. 우리는 독립로동당이 전시에 영국정부를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한데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이 맑스주의의 립장에 서지 않았으며 또 현재도 서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우리는 현재 사회민주당내의 반대파의 주요임무는 혁명적맑스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며 또 우리가 제국주의전쟁을 어떻게 보는가를 로동자들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하여주며 대중의 혁명적행동의 구호, 즉 제국주의전쟁의 시기를 국내전쟁의 시기의 발단으로 전화시키라는 구호를 제출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많은 나라들에 존재한다. 그들은 독일에도, 로씨야에도, 스칸디나비아에도(회글런드동지를 대표자로 하는 유력한 일파), 발칸에도(벌가리아의 《제쓰냐크파》305), 이딸리아에도, 영국에도(영국사회당306의 일부), 프랑스에도(와양자신이 《인도》308지상에서 그가 국제주의자들로부터 많은 항의의 서한들을 받았다는것을 시인하였으

나 그는 그중 하나도 전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화란에도(연단파325) 그리고 기타 나라들에도 존재한다. 이 맑스주의적분자들을(최초에는 그 수효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단결시키는것, 그들의 명의로 오늘날 망각된 진정한 사회주의의 말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것, 각국 로동자들에게 배외주의자들과 결별하고 원래의 맑스주의의 기치밑에 나서라고 호소하는것—바로 이것이 당면임무이다.

소위 《행동》강령을 가진 각종 회의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좀더 완전하다든지 또는 불완전하다든지 하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단순한 평화주의의 강령을 선언하는데 불과하였다. 맑스주의는 평화주의가 아니다. 전쟁을 곧 중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강화》의 요구는 혁명적투쟁을 호소하는 경우라야만 무산계급적의미를 가지는것으로 된다. 일련의 혁명이 없이는 소위 민주주의적강화는 소시민적공상인것이다.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대중에게 완전하고 명확한 대답을 주며 제국주의란 무엇이며 또 그것과 어떻게 투쟁하여야 할것인가를 해석하여주며 제2국제당을 파산시킨것이 기회주의라는것을 공공연하게 언명하며 기회주의자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반대하여 맑스주의적국제당을 창설할것을 공공연하게 호소하는 맑스주의적강령만이 진실한 행동강령으로 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강령은 우리가 자신을 믿으며 맑스주의를 믿으며 기회주의와의 판가리싸움을 선언하는것을 보여줄것인바 그런 강령만이 우리들에게 조만간 진정한 무산계급대중의 공감을 보장해줄것이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과 제3국제당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은 벌써 오래전에 자국의 기회주의자

들과 결렬하였다. 로씨야의 기회주의자들은 지금에는 또한 배외주의자들로도 되였다. 이것은 그들과의 결렬이 사회주의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줄따름이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현재의 의견상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자들과 결렬되였을 때에 량자간에 있은 의견상이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기회주의자 모니토르가 《프로씨아년보》312에서 옳게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통일은 기회주의자들과 자산계급에게 유리한것이다. 그것은 이 통일이 좌파를 배외주의자들에게 복종케하며 또 로동자들이 론쟁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들의 참으로 로동자적인, 참으로 사회주의적인 정당을 창설하는것을 방해하기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오늘의 정세하에서는 기회주의자들 및 배외주의자들과의 결렬이 혁명가의 첫째가는 의무이다.—그것은 황색분자, 반유태주의자, 자유주의적로동자단체 등등과의 결렬이 바로 락후한 로동자들을 급속히 교육하며 그들을 사회민주당대렬에 인입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것과 마찬가지였다.

제3국제당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토대우에서 창건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 당에 있어서는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결렬이 적당한가 안한가 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는 오직 이 결렬을 가까운 장래에 국제적범위에서 실현하는 문제만이 존재한다.

국제적맑스주의조직을 창건하자면 여러 나라에 독자적인 맑스주의정당을 창건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아주 명백하다. 독일은 로동운동이 가장 오래고 강력한 나라로서 결정

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새로운 맑스주의적국제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미 성숙되였는가 어떤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알게 될것이다. 만일 성숙되였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기회주의와 배외주의를 청소해낸 그런 제3국제당에 기꺼이 가입할것이다. 만일 그 조건이 성숙되여있지 않다면 이것은 이러한 청소를 위하여서는 아직도 다소간 장시일에 걸친 진화가 요구된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당은 각국에서 혁명적맑스주의에 립각한 국제로동자협회를 위한 토대가 이루어질때까지 종전의 국제당내부에서 극단적인 반대파로 될것이다.

앞으로 수년간에 국제무대에서의 발전이 어떠하겠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알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있는것, 우리가 단단히 믿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우리** 나라에서, **우리의** 무산계급사이에서 창출한 방침에 의하여 꾸준히 사업하며 자기의 모든 일상적활동에 의하여 **맑스주의적**국제당의 로씨야지부를 창건하리라는 그것이다.

우리 로씨야에도 역시 로골적인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중앙파》집단이 적지 않게 있다. 이 사람들은 맑스주의적국제당의 창건을 반대할것이다. 우리는 쁠레하노브가 쥐데쿰과 동일한 원칙적립장에 서있으며 이제는 벌써 그에게 손을 내밀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우리는 악셀로드가 지도하는 소위 《조직위원회》326가 로씨야에서 카우쯔키주의를 선전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로동계급의 통일이라는 구실밑에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과의 통일, 그들을 통하여 자산계급과의 통일을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로씨야의 로동운동에 대하여 알고있는 모든것은 로씨야의 각성한 무산계급이 여전히 **우리 당을 옹호**하고있다는것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확신시키고 있다.

제 4 장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분렬의 력사와 그 현상태

전쟁에 대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상술한 전술은 로씨야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30년간의 발전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우리 당의 력사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전술과 우리 나라 사회민주당의 현상태를 옳게 리해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반드시 이 력사중의 몇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야 할것이다.

사상적조류로서의 사회민주주의파는 《로동해방단》[327]이 국외에서 처음으로 사회민주주의적관점을 로씨야의 정세에 비추어 계통적으로 서술한 1883년에 산생하였다. 90년대초까지는 사회민주주의파는 로씨야국내의 대중적로동운동과 련계를 가지지 못한 사상적조류였다. 90년대초에 와서 사회운동의 앙양과 로동자들사이에서의 격동 및 파업운동은 사회민주당으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투쟁(경제적 및 정치적)과 밀접한 련계를 가진 적극적인 정치적력량으로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바로 이때로부터 사회민주당이 《경제주의자》와 《이스크라파》[85]로 분렬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주의자》와 구《이스크라》
(1894~1903년)

《경제주의》는 로씨야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적조류였다. 그 정치적본질은 《로동자들은 경제적투쟁을 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투쟁을 하라》는 강령에 귀착되였다. 그의 주요한

리론적기초는 소위 《합법적맑스주의》 또는 《스뜨루웨주의》였는바 그것은 일체의 혁명성을 완전히 씻어버린 또 자유주의적 자산계급의 요구에 적응한 《맑스주의》를 《승인하고있었다》. 《경제주의자》는 로씨야로동자대중이 락후하다는것을 구실로 《대중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기는 하면서도 로동운동의 임무와 범위를 경제적투쟁과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지지에 국한시키고 독자적인 정치적임무나 아무런 혁명적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

구《이스크라》(1900∼1903년)는 혁명적사회민주당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 《경제주의》와 승리적으로 투쟁하였다. 각성한 무산계급의 우수분자들은 모두 《이스크라》편에 섰다. 혁명이 있기 수년전에 사회민주당은 가장 철저하고 비타협적인 강령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905년혁명기간의 계급투쟁, 대중발동은 이 강령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경제주의자》는 대중의 락후성에 순응하고있었다. 《이스크라》는 대중을 앞으로 인도할수 있는 로동자선봉대를 배양하였다. 오늘날의 사회배외주의자들의 론거(대중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한, 제국주의의 진보성에 대한, 혁명가들의 《환상》 등등에 대한)는 모두 경제주의자에 의하여 이미 제기되였던것이다. 맑스주의를 기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스뜨루웨주의》로 만드는 현상은 로씨야의 사회민주주의가 20년전부터 알고있는 일이다.

멘쉐위크주의와 볼쉐위크주의
(1903∼1908년)

자산계급민주혁명시기는 사회민주당내부의 제 조류의 새로운 투쟁을 발생시켰는바 그것은 이전의 투쟁의 직접적인 계속이였다. 《경제주의》는 《멘쉐위크주의》로 되였다. 구《이스크라》의 혁명적전술의 고수는 《볼쉐위크주의》를 낳았다.

1905~1907년의 폭풍의 시기에 멘쉐위크주의는 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지지를 받으며 로동운동내에 자유주의적자산계급사상을 퍼뜨린 기회주의적조류로 되였다. 멘쉐위크주의의 본질은 로동계급의 투쟁을 자유주의에 순응시키는것이였다. 이와는 반대로 볼쉐위크주의가 사회민주주의적로동자의 임무로 제기한것은 자유주의파의 동요와 변절을 박차고 민주주의적농민을 혁명투쟁에로 궐기시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로동자대중은 멘쉐위크들자신이 거듭 승인한바와 같이 혁명시기의 모든 거대한 진출에 있어서 볼쉐위크들과 함께 나아갔다.

1905년의 혁명은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비타협적혁명적전술을 검열하고 강화하고 심화하고 단련시켰다. 각 계급과 각 당파의 공개적인 언행은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멘쉐위크주의》)와 자유주의와의 련계를 루차 폭로하였다.

맑스주의와 취소주의
(1908~1914년)

반혁명의 시기는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적전술과 혁명적전술의 문제를 전연 새로운 형태로 또다시 일정에 올려놓았다. 멘쉐위크주의의 주류는 그 많은 우수한 대표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취소주의조류—즉 로씨야에서의 새 혁명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며, 비합법적조직 및 비합법적사업을 포기하며 《지하활동》 및 공화국의 구호를 경멸, 조소하는 등등—를 산생시켰다. 구사회민주당으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핵심이 잡지 《우리의 서광》의 합법적문필가들(뽀뜨레쏘브, 체레와닌 및 기타 제씨)로 결합되였다. 이 핵심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을 포기케 하려고 한 로씨야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온갖 지지와 더없는 찬양과 총애를 받았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1912년 1월대표자회의178는 이 기

회주의자들의 집단을 당에서 제명하고 국외의 허다한 대소집단들의 맹렬한 반항을 무릅쓰고 당을 재건하였다. 2년이상(1912년초부터 1914년중기까지)에 걸쳐 두 사회민주당사이에, 즉 1912년 1월에 선거된 중앙위원회와 1월대표자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서광》파와의 통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당을 재건하려고 한 《조직위원회》와의 사이에 완강한 투쟁이 진행되였다. 두개의 로동자일간신문(《쁘라우다》157와 《광선》158 그리고 그 후계자들)사이에서와 제4차국회의 두 사회민주당의원단(쁘라우다파, 즉 맑스주의자의 《로씨야사회민주당로동자의원단》과 치헤이제를 위수로 한 취소파의 《사회민주당의원단》)사이에서도 완강한 투쟁이 진행되였다.

《쁘라우다파》는 어디까지나 당의 혁명적교시에 충실하며 개시된 로동운동의 앙양(특히 1912년 봄이후의)을 지지하고 합법적조직과 비합법적조직, 출판물과 선동을 결합시키면서 각성한 로동계급의 절대다수를 자기 주위에 단결시켰다. 한편 취소파는—오로지 《우리의 서광》파만을 대표로 하는 정치력량으로서 행동하면서—자유주의적자산계급분자의 전면적지지에 의거하고있었다.

량당의 신문들에 대한 로동자단체의 공개적인 의연금은 이 시기에 있어서는 로씨야의 제 조건에 적합한(그리고 공개적으로 실시되고 또 누구나 자유로이 검사할수 있는 유일한) 사회민주당원의 **당비납부**의 형태였는바 이 의연금은 《쁘라우다파》(맑스주의자)의 력량과 위신의 원천은 무산계급이고 취소파(와 그들의 《조직위원회》)의 력량과 위신의 원천은 자산계급자유주의파라는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 의연금에 대한 간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 상세한것은 《맑스주의와 취소주의》328란 책에 게재되였는데 1914년 7월 21일부 독일사회민주당 신문 《라이프찌히인민신문》329에 요약한것이 게재되

여있다.

페쩨르부르그에서 발행되는 맑스주의파(쁘라우다파) 및 취소파의 일간신문들에 대한 1914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의연금의 건수와 금액은 아래와 같다.

	쁘라우다파		취 소 파	
	의연금건수	금액 (루블)	의연금건수	금액 (루블)
로동자단체에서 의연한것…	2,873	18,934	671	5,296
비로동자단체에서 의연한것…	713	2,650	453	6,760

이와 같이 우리 당은 1914년까지에 로씨야의 각성한 로동자의 5분의 4를 혁명적사회민주당의 전술의 주위에 단결시켰다. 1913년 1년간에 로동자단체로부터의 의연금건수는 쁘라우다파는 2,181이였고 취소파는 661밖에 안되였다. 1913년 1월 1일부터 1914년 5월 13일까지 로동자단체로부터 《쁘라우다파》(즉 우리 당)에 들어온 의연금건수는 5,054, 취소파에 들어온 의연금건수는 1,332, 즉 겨우 20.8%이다.

맑스주의와 사회배외주의 (1914~1915년)

1914~1915년의 구라파대전은 구라파나라들의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로씨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세계적범위의 위기를 통하여 자기의 전술을 검열할 가능성을 주었다. 이 전쟁의 반동적, 략탈적, 노예적 성격은 다른 나라 정부들보다도 짜리정부에서 비교할수 없으리만큼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파의 주요한 집단(자유주의파와 련계를 가진 덕때으로 우리 당을 제외하면 로씨야에서 거대한 영향력

을 가진 유일한 집단)은 여전히 사회배외주의에로 전향하였다! 매우 오래동안 합법적지위를 독점하여온 이 《우리의 서광》파는 대중속에서 《전쟁을 반대하지 말라》느니, 3개(지금은 4개) 협약국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느니, 독일제국주의의 《극악한 죄》를 비난한다느니 하는 취지의 설교를 하였다. 1903년이래 극도의 정치적무정견과 기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전형을 루차 보여준 쁠레하노브는 지금 더 견결하게 이러한 립장을 취하여 로씨야의 전체 자산계급출판물의 찬양을 받았다. 쁠레하노브는 짜리정부가 진행하는 전쟁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언명하고 이딸리아의 어용신문들에 이딸리아의 참전을 권고하는 담화를 발표하는데까지 타락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취소주의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정당하였고 우리 당에서 취소파의 주요집단을 제명한것이 정당하였다는것이 완전히 확증되였다. 취소파의 실제강령과 그들 방침의 실질적의의는 이제는 일반적으로 기회주의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대로씨야의 지주 및 자산계급의 대국적특권과 우월한 지위를 옹호하고있는 점에도 있다. 이것은 **민족자유주의적** 로동자정책의 방침이다. 이것은 급진적소자산자의 일부와 특권적로동자의 극소부분이 무산계급대중을 반대하여 《본》민족의 자산계급과 맺은 동맹인것이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의 현상태

이미 말한바와 같이 취소파도, 허다한 국외집단들(쁠레하노브집단, 알렉센스끼집단, 뜨로쯔끼집단 등)도, 소위 《민족적》(즉 대로씨야인이외의)사회민주주의자들도 우리 당의 1912년 1월대표자회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퍼부은 무수한 욕설들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복된것은 《찬탈행위》와 《분렬주의》라는 비난이였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 당만이

로씨야의 각성한 로동자의 5분의 4를 단결시켰다는것을 증명하는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될수 있는 수자들을 인증하는데 있었다. 반혁명시기의 비합법적사업의 극히 곤난한 조건하에서는 이 수자는 적지 않은것이다.

만일 로씨야에서 《우리의 서광》파를 배제하지 않고도 사회민주당의 전술에 기초한 《통일》이 가능하였다면 허다한 우리의 반대자들이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것은 무슨때문인가? 1912년 1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 3년 반이 지났는데 이 전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반대자들은 우리들에 대항하여 사회민주당을 창설하려고 갈망하였으나 조처럼 그것을 실현할수 없었다. 이 사실은 우리 당을 가장 잘 변호하는것이다.

우리 당과 투쟁하는 사회민주주의파들의 전 력사는 붕괴와 해체의 력사이다. 1912년 3월에는 우리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데 있어서 례외없이 모두가 《련합되였다》. 그러나 1912년 8월, 우리들에 대항하여 소위 《8월련맹》173이 조직되던 때에는 벌써 그들사이에서 해체가 시작되였다. 일부의 집단이 그들에게서 떨어져나갔다. 그들은 당과 중앙위원회를 창설할수 없었다. 그들은 《통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창설하였을뿐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직위원회는 로씨야국내의 취소파집단의 무력한 은폐물에 지나지 않았다. 1912～1914년의 로씨야에서의 로동운동과 대중적파업의 거대한 앙양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전 8월련맹중 대중속에서 사업한 유일한 집단은 역시 《우리의 서광》파뿐이였는데 이 집단이 힘을 갖게 된것은 자유주의파와 련계를 가진데 있다. 그리고 1914년초에는 《8월련맹》으로부터 라트위야사회민주주의자들(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련맹에 들어있지 않았다.)이 정식으로 탈퇴하였고 이 련맹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뜨로쯔끼는 비공식적으로 탈퇴

하여 또다시 특수한 집단을 조직하였다. 1914년 7월에는 브류쎌대표자회의에서 국제사회당 집행국 집행위원회와 카우쯔키 및 완데르웰드의 참가하에 우리들에 대항하여 소위 《브류쎌련맹》310이 결성되였는데 이 련맹에는 라트위야인들은 가입하지 않았고 또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반대파)은 곧 이 련맹에서 탈퇴하였다. 전쟁이 일어난후 이 련맹은 해체되였다. 《우리의 서광》, 쁠레하노브, 알렉쎈스끼, 깝까즈사회민주당 지도자 안—이들은 공개적인 사회배외주의자로 되여 독일이 패배하였으면 아주 좋겠다고 떠벌리고있다. 조직위원회와 분드172는 사회배외주의자와 사회배외주의의 원칙을 옹호하고있다. 치헤이제의 국회의원단은 비록 군비지출에 반대투표하였지만(로씨야에서는 자산계급민주주의파들, 근로파들까지도 군비지출에 반대투표하였다.) 여전히 《우리의 서광》의 충실한 동맹자이다. 우리 나라의 극단적사회배외주의자들인 쁠레하노브와 알렉쎈스끼 일파는 치헤이제의 국회의원단에 대하여 아주 만족해한다. 국제주의를 빈말로 수호하려고도 하고 《우리의 서광》, 조직위원회 또는 치헤이제의 국회의원단과 무조건적으로 통일하려고도 하는 마르또브와 뜨로쯔끼를 주요한 참가자로 하여 신문 《우리의 언론》286(이전의 《목소리》290)이 빠리에서 창간되였다. 이 신문도 제250호를 발간한후 자기의 해체를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즉 이 신문 편집부의 일부는 우리 당으로 기울어지고있으며 마르또브는 《우리의 언론》을 《무정부주의》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고있는 조직위원회(독일의 기회주의자들인 다위드일파, 《국제통신》330, 레긴일파가 립크네히트동지를 무정부주의자라고 비난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에 대하여 여전히 충성을 표시하고있다. 뜨로쯔끼는 조직위원회와 결렬하였다고 언명은 하였지만 치헤이제의 국회의원단과 함께 나아가려 하고있다. 다음에 인용한것은 치헤이제의 국회의원단의 지도자

의 한사람이 천명한 동 의원단의 강령과 전술이다. 쁠레하노브와 알렉센스끼의 방침을 집행하는 잡지인 《현대세계》331 1915년 제5호에서 치헤젤리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독일사회민주당이 자국의 군사행동을 제지할 힘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것은 독일사회민주당이 그자체뿐만아니라 자기 조국까지도 바리케트곁에서 마지막숨을 거둘것을 은근히 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곁에 있는 물건을 무정부주의적 망원경을 통하여 보거나 하는것을 의미할것이다.》①

이 몇줄 되지 않는 글에서 사회배외주의의 본질이 전부 표현되여있다. 즉 현 전쟁에서의 《조국보위》라는 사상을 원칙적으로 변호하는것도 있으며 혁명적행동의 선전과 준비를 조소하는—전시의 출판물검열관의 허가하에—것도 있다. 문제는 독일사회민주당이 전쟁을 제지할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데에, 또한 일반적으로 혁명가들이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데에 있는것은 전혀 아니다. 문제는 사회주의자로서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의 품에 안기여 정말 《숨을 거두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의 임무

로씨야사회민주당은 우리 나라 자산계급민주혁명(1905년)이 일어나기전에 산생하여 혁명과 반혁명의 시기에 공고해졌다. 우리 나라에 형형색색의 소자산계급적기회주의의 제 조류들이 비상히 많이 있는것은 로씨야의 락후성에 기인한것이다. 그리고 구라파에서 맑스주의가 영향력을 가졌고 전쟁전에는

① 잡지 《현대세계》, 1915년, 제5호, 148페지. 뜨로쯔끼는 최근 국제당에서 치헤이제의 국회의원단의 위신을 높이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한다고 언명하였다. 치헤젤리쪽에서도 동일하게 정력적으로 국제당에서의 뜨로쯔끼의 위신을 높이려하는것은 의심할바없다.…

합법적인 사회민주당들이 공고했던 사실은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합리적》, 《구라파적》(비혁명적), 《합법적》《맑스주의》의 리론과 사회민주주의운동을 거의 다 숭배하게 하였다.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과 30여년간의 견결한 투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정당을 창건할수 없었을것이다. 구라파기회주의에 치욕적인 파산을 가져왔고 우리의 민족적자유주의자들과 사회배외주의적취소파와의 련맹을 공고케 한 세계전쟁의 경험은 우리 당이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혁명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것을 우리에게 더 확신시켜준다.

1915년 7~8월에 집필

1915년 가을 재네바 《사회민주주의자》 편집부에서 단행본으로 인쇄

소책자원문대로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275~317페지

구라파련방의 구호에 대하여[332]

우리 당의 재외지부대표자회의가 《구라파련방》이라는 구호의 문제를 이 문제의 경제적측면이 출판물에서 토론될 때까지 연기하여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자》289 제40호에 보도하였었다.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표자회의에서의 론쟁은 정치적면에 치우쳤다. 이렇게 된것은 아마 부분적으로는 중앙위원회의 선언서에서 이 구호를 직접 정치적구호(《당면한 정치적구호…》라고 선언서에는 서술되여있다.)라고 불렀으며 게다가 선언서에는 공화제적구라파련방이라는것이 제기되여있을뿐만아니라 《독일, 오지리 및 로씨야의 군주제도를 혁명적으로 뒤엎지 않고서는》 이 구호는 황당하며 허위적이라는것이 특별히 강조되여있었기때문일것이다.②

이 구호에 대한 정치적평가의 범위내에서 문제를 이와 같이 제기한데 대하여 례컨대 이 구호가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가리운다느니 또는 약화시킨다느니 무엇이니 하는 견지에서 반대하는것은 전혀 옳지 않다. 진실로 민주주의적인 정치적개혁은, 더우기 정치적혁명은 어떠한 시기, 어떠한 경우,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가리울수도 없으며 약화시킬수도 없다. 오히려 정치적혁명은 항상 사회주의혁명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136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726페지를 보라. —편집자

을 추진시키며 그 지반을 확대시키며 소자산계급 및 반무산계급 대중의 새로운 층을 사회주의투쟁에 인입시키는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 정치적혁명은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는 불가피한것이다. 그 사회주의혁명을 한번의 행동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되며 거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진동, 가장 첨예한 계급투쟁, 국내전쟁, 혁명과 반혁명의 한 시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화제적구라파련방의 구호가 로씨야군주제를 선두로 한 구라파의 3개의 가장 반동적인 군주제의 혁명적타도와 결부되여 제기되는 경우에 그것이 정치적구호로서는 전혀 비난할 여지가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이 구호의 경제적 내용과 의의라고 하는 극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는것이다. 제국주의의 경제적조건, 즉 《선진적인》, 《문명한》 식민강국에 의한 자본의 수출과 세계의 분할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구라파련방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거나 혹은 반동적인것이다.

자본은 국제적인것으로 되였으며 독점적인것으로 되였다. 세계는 소수의 강국들사이에서, 즉 다른 민족에 대한 대규모적 략탈과 압박에 의하여 강성해진 국가들사이에서 이미 다 분할되였다. 구라파의 4대강국 즉 2억 5,000만 내지 3억의 인구와 약 700만평방키로메터의 면적을 가진 영국, 프랑스, 로씨야 및 독일은 거의 5억(4억 9,450만)의 인구와 6,460만평방키로메터의 면적, 즉 전 지구(량극을 제외하면 지구의 면적은 1억 3,300만평방키로메터이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민지를 소유하고있다. 이밖에 또 지금 소위 《해방》전쟁을 진행하고있는 강도들 즉 일본, 로씨야, 영국 및 프랑스에 의하여 쪼각쪼각 분렬되고있는 아세아의 3개국 즉 중국, 토이기 및 페르샤가 있는데 반식민지라고 말할수 있는(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10분의 9는 이미 식민지로 되였다.) 아세아의 이 3개 국

가는 3억 6,000만의 인구와 1,450만평방키로메터(즉 구라파 전체 면적의 1배 반)의 면적을 가지고있다.

그다음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은 700억루블이상의 자본을 외국에 투자하였다. 이 상당한 금액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당한》 수입—매년 30억루블이상의 수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륙해군을 가지고있고 《억만장자》의 자식들과 형제들을 총독, 령사, 대사, 각종 관리, 목사 및 기타의 흡혈귀로서 식민지와 반식민지에 《배치하고있는》 정부라고 불리우는 백만장자들의 전국위원회가 복무하고있다.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한 시대에 있어서 소수의 강국에 의한 약 10억의 지구인구의 략탈은 바로 이와 같이 조직되여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이 이외의 조직은 불가능하다. 식민지, 《세력범위》, 자본수출을 단념할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것은 그자신이 일요일마다 기독교의 관대성을 부자들에게 설교하여…비록 수십억루블까지는 못되더라도 매년 몇백루블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기를 권고하는 목사의 수준에까지 떨어지는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구라파련방을 성립하는것은 식민지의 분할협정을 체결하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실력이외에는 분할의 기초, 분할의 원칙이 따로 있을수 없다. 억만장자들은 자본주의국가의 《국민소득》을 어느 누구와 나누든지 비례에 의거하는 이외에는, 즉 《자본에 따라서》 분배하는 이외에는(게다가 또한 대자본이 응당 받아야 할것이상으로 더 받을수 있도록 추가률을 붙여서) 다른 분배방법이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며 생산의 무정부상태이다. 이와 같은 기초우에서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할것을 설교하는것은 프루동주의[1]이며 소시민과 속물의 우둔한 생각이다. 오직 《실력에 따라서》 분할할수 있을뿐이

다. 그런데 실력은 경제발전의 행정과 아울러 변화하는것이다. 1871년이후 독일의 실력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3~4배로 더 급속히 강해졌다. 일본은 로씨야보다 10배로 더 급속히 강해졌다. 자본주의국가의 진정한 실력을 검열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전쟁은 사적소유의 기초와 모순되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초의 직접적인, 불가피적인 발전이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개개의 경제부문과 개개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할수는 없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때때로 파괴되는 균형을 회복할수 있는 수단은 산업에 있어서의 공황과 정치에 있어서의 전쟁이외에는 있을수 없다.

물론 자본가들사이에서와 강국들사이에서 **일시적**인 협의가 있을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구라파**자본가들간의 협의로서의 구라파련방도 또한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협의인가? 어떻게 공동으로 구라파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며 어떻게 공동으로 이미 긁어모은 식민지를 일본과 미국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수호할것인가에 대한 협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과 미국은 오늘날의 식민지분할상태하에서는 극히 불리한 형편에 처하여있으며 또한 이 나라들의 세력은 락후하고 군주제적이고 늙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구라파보다도 이 반세기동안에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강해졌다. 미국에 비교한다면 구라파는 전체적으로 보아 경제상 침체상태에 있다고 할수 있다. 현대의 경제적기초우에서는, 즉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구라파련방을 건립한다는것이 미국의 일층 급속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반동세력을 조직하는것과 같을것이다. 민주주의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이 오직 구라파와만 련결되여있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과거로 되였다.

세계련방(구라파련방이 아니라)은—공산주의의 완전한 승

리가 민주주의국가도 포함한 온갖 국가를 종국적으로 소멸할 때까지는—우리들이 보건대 사회주의와 련계되여있는, 각 민족의 련합과 자유의 국가형태인것이다. 그러나 세계련방이라는 구호를 독립적구호로 삼는것은 아마 옳지 않을것이다. 첫째로 그것은 사회주의와 뒤섞여지기때문이며 둘째로 그것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옳지 않은 견해와 그러한 나라와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한 옳지 않은 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 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나라의 승리한 무산계급은 자본가를 수탈하고 자국에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한후에는 다른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여 일어나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계급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며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착취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행동할것이다.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전복하여 승리를 획득하는 경우의 사회의 정치형태는 민주적공화제일것인바 이 민주적공화제는 아직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못한 국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소여의 민족 또는 각 민족의 무산계급의 력량을 더욱더 집중시킬것이다. 피압박계급인 무산계급의 독재가 없이는 계급을 소멸할수 없다. 여러 사회주의공화국이 락후한 국가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각 민족의 자유로운 련합은 불가능하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재외지부대표자회의에서와 이 회의후에 수차에 걸쳐 이 문제를 토론한 결과 중앙기관지 편집부는 바로 상술한바와 같은 리유에 근거하여 구라파련방이라는

구호는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915년 8월 23일 《사회민주주의자》지, 제44호에 게재

《사회민주주의자》지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318～322폐지

변증법문제에 관하여

통일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며 그 모순되는 부분들을 인식하는것(라쌀의 저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 제3편(《인식론》) 서두에 인용된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필로의 말을 참조①)은 변증법의 정수이다(그것은 변증법의 《본질》의 하나이며 유일하게 기본적인 특성이나 특징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특성이나 특징중의 하나이다). 헤겔도 역시 문제를 바로 이와 같이 설정하고있다.(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저서 《형이상학》에서 항상 이 테두리를 뱅뱅 돌고있으며 헤라클레이토스, 즉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과 투쟁하고있다.)

변증법의 내용의 이 측면의 정확성은 과학사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보통(례컨대 쁠레하노브에게 있어서) 변증법의 이 측면에 주의가 불충분하게 돌려지고있다. 즉 대립물의 동일성이 인식의 법칙(및 객관세계의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실례의 총화로서 간주되고있다. 《례컨대 종자》, 《례컨대 원시공산주의》. 엥겔스에게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는 《통속화를 위하여》 그렇게 한것이다.…

수학에서는 +와 −, 미분과 적분.

력학에서는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에서는 양전기와 음전기.

화학에서는 원자의 결합과 분리.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8권, 396페지를 보라. —편집자

사회과학에서는 계급투쟁.

대립물의 동일성(대립물의 《통일》이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는지? 하긴 동일성과 통일이라는 술어의 차이는 여기서는 별로 중요치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두 술어가 다 옳다.)이란 자연(정신도 사회도 포함한)의 모든 현상과 과정들에는 호상 모순되는, 호상 배척하는, 호상 대립되는 경향들이 내포되여있다는것을 인정(발견)하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모든 과정들을 그의 《자기운동》에서, 그의 자동적발전에서, 그의 산 생활에서 인식하자면 그 과정들을 대립물의 통일로서 인식해야 한다. 발전이란 대립물의 《투쟁》이다. 두가지 기본적인(또는 두가지 가능한? 또는 력사상에서 두가지 늘 볼수 있는?) 발전(진화)관은 감소와 증대로서의, 반복으로서의 발전 그리고 대립물의 통일(통일체가 호상 배척하는 두 대립물로 나누어지는것과 그리고 그러한 대립물간의 호상관계)로서의 발전이다.

첫째 운동관에서는 자기운동, 그 원동력, 그 원천, 그 동인이 은폐된다(또는 그 원천이 외부—신, 주체 등등—로 이전된다). 둘째 운동관에서는 주되는 주의력이 바로 《자기》운동의 원천을 인식하는데로 돌려진다.

첫째 운동관은 생기없고 빈약하고 고갈한것이다. 둘째 운동관은 생기있는것이다. 오직 둘째 운동관만이 현존하는 모든 사물의 《자기운동》을 리해할 열쇠를 준다. 그것만이 《비약》, 《점차성의 중단》, 《대립물에로의 전화》, 낡은것의 사멸과 새것의 발생을 리해할 열쇠를 준다.

대립물의 통일(합치, 동일성, 균등)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이며 과도적이며 상대적이다. 호상 배척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 운동이 절대적인것처럼 절대적이다.

주의: 주관주의(회의론, 궤변 등등)와 변증법과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객관적)변증법에서는 상대적인것과 절대적인것과의 차이도 상대적이라는데 있다. 객관적변증법에 있어서는 상대적인것가운데 절대적인것이 있다. 주관주의와 궤변에 있어서는 상대적인것은 그저 상대적일뿐이고 절대적인것을 배척한다.

맑스의 《자본론》에서는 처음에 자산계급(상품)사회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량적이고 수십억번이라도 볼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관계, 즉 상품교환이 분석되고있다. 이 분석은 이 가장 단순한 현상가운데서(자산계급사회의 이 《세포》가운데서) 현대사회의 일체 모순(또는 일체 모순의 맹아)을 폭로하였다. 그 이하의 서술은 이 모순과 이 사회의 발전(성장도 운동도)을 그 각개부분의 총화에서 그 시초로부터 종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변증법일반의 서술(또는 연구)방법도 바로 이러하여야 한다(왜냐 하면 맑스에게 있어서 자산계급사회의 변증법은 변증법의 하나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기때문이다). 가장 단순한것, 가장 평범한것, 가장 대량적인것 등등으로부터 임의의 명제, 즉 나무잎은 푸르다, 이완은 사람이다, 쥬치까는 개다 등과 같은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여기에 벌써(헤겔이 천재적으로 지적한바와 같이) 변증법이 있다. 즉 개별적인것은 일반적인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슈웨글레르 역, 제2권, 40페지, 제3편, 제4장, 8~9절을 참조하라. 거기에는 《왜냐 하면 개별적인 집들을 떠나 그 어떤 집일반이 존재한다

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①라고 씌여있다). 다시 말하면 대립물(개별적인것은 일반적인것과 대립된다.)은 동일하다. 즉 개별적인것은 일반적인것과의 련관속에서만 존재한다. 일반적인것은 오직 개별적인것속에서만, 개별적인것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온갖 개별적인것은(이렇게나저렇게나) 일반적인것이다. 온갖 일반적인것은 개별적인것(일부분 또는 한 측면 또는 본질)이다. 온갖 일반적인것은 모든 개별적인 사물을 단지 근사적으로만 포괄한다. 온갖 개별적인것은 완전히는 일반적인것에 내포되지 않는다, 등등. 온갖 개별적인것은 수천차의 전화를 거쳐 다른 종류의 개별적인것(사물, 현상, 과정들)과 련관되여있다, 등등. 여기에 벌써 자연의 필연성, 객관적련관 등등의 인소, 맹아, 개념이 있다. 여기에 벌써 우연적인것과 필연적인것, 현상과 본질이 있다. 왜냐하면 이완은 사람이다, 쥬치까는 개다, 이것은 나무잎이다, 등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일련의 표징을 우연적인것으로서 포기하고 본질적인것을 현상과 분리시키며 일방을 타방에 대립시키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위》(《세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의의 명제에서 변증법의 모든 요소의 맹아를 발견함으로써 변증법이 인간의 일체 인식에 고유하다는것을 증시할수 있다(또 증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객관적자연의 이와 동일한 성질, 즉 개별적인것의 일반적인것에로의 전화, 우연적인것의 필연적인것에로의 전화, 대립물의 이행, 전이, 호상련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있다(그리고 이것도 역시 임의의 가

---

① 슈웨글레르의 역문: 《denn natürlich kann man nicht der Meinung sein, daß es ein Haus gebe außer den sichtbaren Häusern》. 원문: *οὐ γὰρ ἂν θείημεν εἶναί τινα οἰκίαν παρὰ τὰς τινὰς οἰκίας*.—편집자

장 단순한 실례에 의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변증법은 곧 (헤겔과) 맑스주의의 인식론이다. 다른 맑스주의자들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쁠레하노브도 문제의 바로 이 《측면》(이것은 문제의 《한 측면》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다.)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

헤겔도(《론리학》을 보라), 자연과학의 현대 《인식론자》이며 절충주의자이며 헤겔주의의 적(그는 헤겔주의를 리해하지 못하였다!)인 파울 폴크만(그의 Erkenntnistheoretische Grundzüge①,S.를 참조)도 인식을 원의 계렬로 간주하고있다.

철학에 있어서의 《원》: 인물의 년대별 순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치 않다!
고대: 데모크리토스로부터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의 변증법까지.
문예부흥시기: 데까르트 대 가쎙디(스피노자?)
근대: 홀바흐—헤겔(버클리, 흄, 칸트를 경유하여). 헤겔—포이에르바흐—맑스.

현실에 대한 온갖 관찰과 접근의 무수한 성분(매개 성분으로부터 전일체로 성장하는 철학체계)을 가진 생기있고 다면적인(무한히 증대하는 측면을 가진) 인식으로서의 변증법—여기에 《형이상학적》유물론에 비하여 헤아릴수없이 풍부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 형이상학적유물론의 근본결함은 반영론

① 폴크만 《자연과학의 인식론적원리》(Erkenntnistheoretische Grundzüge der Naturwissenschaften), 1910년, 라이프찌히-베를린판, 35페지. 1911년, 쉴크트 베제므부르그판, 40페지를 보라. —편집자

에, 인식의 과정 및 발전에다 변증법을 적용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있다.

철학적관념론은 조잡하고 단순한 형이상학적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공담에 불과한것이다. 반대로 변증법적유물론의 관점에서 보면 철학적관념론은 인식의 어느 한 특성, 측면, 부분을 물질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신적인 절대에로 일면적으로 과도하게 überschwengliches(디프겐)[333] 발전(팽창, 확대)시킨것이다. 관념론은 승려주의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적관념론은(《보다 정확히는》 그리고 《그뿐만아니라》) 인간의 무한히 복잡한 인식(변증법적)의 성분의 하나를 경유하여 승려주의에 이르는 길이다.

인간의 인식은 직선이 아니라(또는 직선을 그려나가는것이 아니라) 원의 계렬, 즉 라선에 무한히 근사한 곡선이다. 이 곡선의 임의의 단편, 쪼각, 소편은 독립적인 완전한 직선으로 전화(일면적으로 전화)될수 있다. 그때 이 직선은 사람들을(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면) 감탕에, 승려주의에 끌어간다(여기에서는 지배계급의 계급적리해가 그것을 공고화한다). 직선적이고 일면적인것, 교조적이고 굳어버린것, 주관주의와 주관적맹목성—이것이 관념론의 인식론적근원이다. 그리고 승려주의(=철학적관념론)도 물론 인식론적근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근거한것은 아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열매없는 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생하며 열매를 맺으며 진실하며 강력하며 전능하며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인식의 산 나무에 피는 열매없는 꽃이다.

1915년에 집필	원고에 의하여 인쇄
1925년에 잡지 《볼쉐위크》 제 5~6호에 처음으로 발표	《레닌전집》, 한문판, 제38권, 403~412페지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테 제

1. 제국주의, 사회주의 및 피압박민족의 해방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발전의 최고단계이다. 선진국가들에서의 자본은 장성하여 민족국가의 범위를 넘었으며 경쟁을 독점으로 바꾸어놓았으며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객관적전제를 조성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서구라파와 미국에서는 지금 자본주의정부를 전복하고 자산계급을 수탈하기 위한 무산계급의 혁명적투쟁이 일정에 오르고있다. 제국주의는 계급적모순을 거대한 규모로 첨예화시키며 경제적면에서도—트레스트, 물가등귀,— 정치적면에서도—군국주의의 장성, 전쟁의 빈번한 발생, 반동세력의 강화, 민족적압박과 식민지략탈의 강화 및 확대—대중의 형편을 악화시킴으로써 대중을 그러한 투쟁에로 추동하고있다. 승리한 사회주의는 반드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족의 완전한 평등권을 실시할뿐만아니라 피압박민족의 자결권 즉 자유로운 정치적분리의 권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예속민족들을 해방하고 자유로운 동맹—그런데 이 자유로운 동맹이란 분리의 자유 없이는 허위적인 문구이다.—에 기초하여 그 민족들과 관계를 전립하는것을 자체의 모든 활동으로써 현재에 있어서나 혁명시기에 있어

서나 혁명승리후에 있어서나 중시하지 않는 사회주의정당들은 사회주의를 배반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도 역시 국가형태로서 국가가 소멸될 때에는 소멸되지만 그러나 이 소멸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공고화된 사회주의로부터 완전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것이다.

2. 사회주의혁명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은 단 한번의 행동, 한 전선에서의 단 한번의 전투가 아니라 수많은 가렬한 계급적충돌의 웅근 한 시대이며 모든 전선 즉 경제 및 정치의 모든 문제에 관한 전투, 자산계급에 대한 수탈로써만 완료될수 있는 전투의 긴 련속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무산계급을 사회주의혁명으로부터 리탈하게 하거나 또는 사회주의혁명을 가리워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등등은 근본적인 오유일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고는 사회주의가 승리할수 없는것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혁명적투쟁을 전개하지 않고는 무산계급은 자산계급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수 없다.

민주주의적강령의 한 조항, 례컨대 민족자결에 관한 조항은 제국주의하에서는 《실현될수 없다》든가 《환상적》이라든가 하는 리유로 그 조항을 삭제하는것도 그보다 못지않은 오유일것이다. 민족자결권은 자본주의범위내에서는 실현될수 없다는 주장은 절대적인, 경제적인 의미에서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인, 정치적인 의미에서 해석될수 있다.

첫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장은 리론상 근본적인 오유이

다. 첫째로, 그런 의미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 실현될수 없는 것은 례컨대 로동화폐라든가 공황의 근절 등등이다. 그러나 민족자결도 마찬가지로 실현할수 없다고 여기는것은 전혀 옳지 않다. 둘째로, 그러한 의미에서 《실현될수 없다》는 주장을 론박하기 위해서는 1905년에 노르웨이가 스웨리예로부터 분리된 실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셋째로, 례컨대 독일과 영국이 오늘이나 래일에 정치적 및 전략적 호상관계를 변경한다면 뽈스까, 인도 등등의 새로운 국가의 형성이 완전히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부인하는것은 가소로운 일일것이다. 넷째로, 금융자본은 그 팽창하려는 지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및 공화제적 정부나 임의의 나라에서, 심지어는 《독립》국에서 선출된 관리들을 《자유》로 매수하고 롱락한다. 금융자본의 지배는 자본일반의 지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민주주의의 분야에서의 어떠한 개혁에 의해서도 배제할수 없다. 그런데 자결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이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이 금융자본의 지배는 계급적압박과 계급투쟁의 일층 자유롭고 광범하고 뚜렷한 형태로서의 정치적민주주의의 작용을 조금도 없애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하에서 정치적민주주의에 관한 요구가 경제적의미에 있어서 《실현될수 없다》고 하는 론의는 모두 결국에 가서는 자본주의와 정치적민주주의 일반과의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관계들을 리론상 그릇되게 규정하는것으로 된다.

둘째 경우에서는 이 주장은 불완전하며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한갖 민족자결권뿐만아니라 정치적민주주의의 모든 근본적요구가 다 제국주의하에서는 불완전하게 기형적으로만, 그리고 희귀한 례외(례컨대 1905년의 스웨리예로부터의 노르웨이의 분리)로서만 《실현될수 있기》때문이다. 모든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가 제기하는 식민지의 즉시해방에 대한 요구도 또

한 자본주의하에서는 일련의 혁명이 없이는 《실현될수 없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이러한 모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지체없는 가장 단호한 투쟁을 사회민주당이 거부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이것을 거부하는것은 자산계급과 반동세력에게 유리할뿐일것이다.—이와는 반대로 이 모든 요구를 개량주의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정식화하고 실시할 필요성, 즉 자산계급적합법성의 테두리에 국한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파하며, 의회연설이나 구두상의 항의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대중을 적극적인 행동에 끌어넣으며 온갖 근본적인 민주주의적요구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고 불타오르게 하여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직접적인 습격에로 즉 자산계급을 수탈하는 사회주의혁명에로 인도할 필요성이 나온다. 사회주의혁명은 대규모의 파업이나 가두시위나 기근소동이나 군사적봉기나 식민지의 폭동으로 인해서 폭발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드레퓌스사건이나 짜베른사건334과 같은 어떤 정치적위기로 인하여서도 또는 피압박민족의 분리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등등과 관련해서도 폭발할수 있는것이다.

제국주의하에서의 민족적압박의 격화는 사회민주당이 민족분리의 자유를 위한 《공상적》—자산계급의 말대로 하면—투쟁을 거부하는 조건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토대우에서도 발생하는 충돌을 대중적행동과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혁명적진출의 도화선으로 더 힘있게 리용하는 조건으로 된다.

3. 자결권의 의의 및 자결권과 련방제와의 관계

민족자결권이란 정치적의미에서의 독립의 권리, 압박민족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정치적분리의 권리를 의미할뿐이다. 구

체적으로는, 정치적민주주의의 이 요구는 분리를 위한 선동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며 분리하려고 하는 민족의 국민투표에 의한 분리문제의 결정을 위한 선동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요구는 분리, 세분, 소국가성립의 요구와 결코 동일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온갖 민족적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의 철저한 표현을 의미할따름이다. 국가의 민주주의적제도가 분리의 완전한 자유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분리에 대한 지향은 사실상 더욱더 희박해지며 약해질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발전의 관점에서나 대중의 리해관계의 관점에서나 대국가가 유리하다는것은 의심할바없기때문이다. 그런데 그 유리점은 자본주의의 장성과 함께 더욱 장성한다. 자결의 인정은 련방제를 원칙으로서 인정하는것과 동일한것은 아니다. 이 원칙의 단호한 반대자이며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의 지지자이면서도 완전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에로의 유일한 길로서 민족적불평등보다 련방제를 택하는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맑스는 중앙집권제를 주장하면서도 영국인에 의한 아일랜드의 강제적종속보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련방제를 택하였던것이다.[335]

사회주의의 목적은 소국가에로의 인류의 세분화와 민족의 온갖 격리를 일소하고 각 민족의 접근을 도모할뿐만아니라 각 민족을 융합시키는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일방으로는 대중에게 렌네르와 오.바우에르의 소위 《민족문화자치》[189]라는 사상의 반동성을 해설하여야 하며 타방으로는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일반적인 애매한 문구로나 무내용한 장담으로나 사회주의에까지 문제를 《연기》하는 형태로써가 아니라 압박민족의 사회주의자들의 위선과 비겁성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식화된 정치적강령으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인류가 피압박계급독재의 과

도기를 거쳐야만 계급의 소멸에 이를수 있는것과 같이 인류는 모든 피압박민족의 완전한 해방 즉 분리의 자유의 과도기를 거쳐야만 각 민족의 필연적인 융합에로 도달할수 있다.

4. 민족자결문제의 무산계급적-혁명적설정

민족자결에 대한 요구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적최저강령의 전체 조항이 일찍 17세기와 18세기에 소자산계급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그런데 소자산계급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모든것을 공상적으로 설정하고 민주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그 격화를 보지 못하며 《평화적인》 자본주의를 믿고 있다. 바로 이러한것이 카우쯔키주의자들에 의하여 옹호되는, 제국주의하에서의 평등한 민족들의 평화로운 동맹이라는 인민기만의 공상이다. 이러한 소시민적기회주의적공상과는 반대로 사회민주당의 강령은 압박민족과 피압박민족에로의 민족의 분렬이 제국주의하에서는 기본적인것, 가장 본질적인것, 불가피적인것이라는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압박민족의 무산계급은 모든 평화주의적자산자들도 되풀이하고있는 롱통하고 천편일률적인 공담으로써 합병을 반대하고 민족평등권일반을 찬성할수 없다. 무산계급은 민족적압박에 립각하고있는 국가의 국경이라는 제국주의적자산계급에게 특히 《불쾌한》 문제를 묵과할수는 없다. 무산계급은 그 나라의 경계내에 피압박민족을 강제적으로 억류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자결권을 위하여 투쟁함을 의미한다. 무산계급은 《자기들의》 민족에 의하여 압박당하는 식민지 및 제 민족의 정치적분리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산계급의 국제주의는

텅 빈 말공부로 남게 될것이며 피압박민족의 로동자들과 압박민족의 로동자들간의 호상신뢰나 계급적련대성은 불가능한것이며 《그들자신의》 민족에 의하여 압박당하며 《그들자신의》 국가안에 강제적으로 억류당하고있는 민족들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는 개량주의적 및 카우쯔키주의적 민족자결옹호자들의 위선은 폭로되지 않은채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압박민족의 사회주의자들은 피압박민족의 로동자들과 압박민족의 로동자들과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조직적인 통일도 포함하여—을 특히 고수하며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없이는 자산계급의 온갖 간계, 배신 및 기만으로부터 무산계급의 독자적인 정책 및 다른 나라 무산계급과의 그들의 계급적련대성을 고수할수 없다. 왜냐하면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은 민족해방의 구호를 항상 로동자들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만들기때문이다. 즉 국내정책에서는 자산계급은 이 구호를 지배민족의 자산계급과의 반동적인 타협을 위하여 리용하고있으며(례를 들면 오지리와 로씨야에 있는 뽈스까인들은 유태인과 우크라이나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반동세력과 결탁하고있다.) 대외정책에서는 자기의 략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호상 경쟁하는 제국주의렬강중의 하나와 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한다.(발칸의 약소국가들의 정책 등등)

한 제국주의강국을 반대하는 민족적자유를 위한 투쟁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다른 《대》강국에 의하여 동일한 제국주의적목적에 리용될수 있다는 사정은, 자산계급이 례컨대 라틴어계 각국에서 공화주의적구호를 정치적기만과 금융적략탈의 목적에 루차 리용한것이 사회민주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화주의를 거부케 하지 못하는것과 같이 사회민주당으로 하여

그 민족자결권의 인정을 거부케 할수는 없는것이다.①

5. 민족문제에서의 맑스주의와 쁘루동주의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과는 반대로 맑스는 례외없이 모든 민주주의적요구를 절대적인것으로 보지 않고 자산계급이 령도하는 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의 력사적인 표현으로 보았다. 이 요구중에서, 일정한 정세하에서 자산계급이 로동자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될수 없는것 또 되지 않은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점에서 정치적민주주의의 요구중의 하나, 즉 민족자결을 따로 떼서 그것을 나머지의것에 대치한다는것은 리론상 근본적으로 옳지 못하다. 실제에 있어서 무산계급은 자산계급을 전복하기 위한 자기의 혁명적투쟁에다 공화제도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적요구를 위한 자기의 투쟁을 복종시킴으로써만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혁명을 위하여》 민족문제를 《부인》한 쁘루동주의자와는 반대로 맑스는 무엇보다도 선진적인 나라들에서의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리익을 고려하면서 타민족

① 자결권으로부터는 일견 《조국보위》가 나온다는 리유로써 민족자결권을 거부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아주 가소로운 일일것이다. 사회배외주의자들은 1914～1916년에 같은 리유를 가지고—즉 그만큼 진지하지 못하게—민주주의의 임의의 요구(례컨대 그 공화주의)나 민족적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의 임의의 정식화를 《조국보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있다. 맑스주의가 구라파의 일부 전쟁, 례컨대 프랑스대혁명이나 가리발디전쟁에서 조국보위를 인정하며 또 1914～1916년의 제국주의전쟁에서 조국보위를 부인하는것은 결코 어떤 《일반적원칙》으로부터나 강령의 어떤 개별적조항으로부터 나온 결론이 아니라 매개 전쟁의 구체적-력사적특점의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론인것이다.

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수 없다282는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맑스는 다름아닌 독일로동자들의 혁명운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1848년에 독일의 승리한 민주주의자들이 독일인에게 압박당하고있는 민족들의 자유를 선포하며 실현할것을 요구하였다.336 맑스는 다름아닌 영국로동자들의 혁명투쟁의 견지에서 1869년에 영국으로부터의 아일랜드의 분리를 요구하였는데 그때 《비록 분리후에 련방제로 된다 할지라도》211라고 부언하였다. 오직 이러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만 맑스는 영국로동자들을 국제주의정신으로 실지로 교육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기회주의자들과 또한 반세기를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일랜드의 《개혁》을 실현하지 않은 자산계급개량주의에다 이 력사적임무의 혁명적해결을 대립시킬수 있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맑스는 약소민족의 분리의 자유가 공상적이며 실현될수 없는것이라고 떠들며 경제적집중의 진보성에 대해서뿐만아니라 정치적집중의 진보성에 대해서까지도 떠들고있는 자본의 변호자들과는 반대로 이 집중이 비제국주의적으로 수행될 때에야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며 폭력에 기초하는것이 아니라 각국의 무산자들의 자유로운 동맹에 기초한 제 민족의 접근을 주장할수 있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맑스는 민족문제의 해결령역에 있어서도 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말로만 인정하는, 그리고 빈번히 위선적으로 인정하는것에 대하여 대중의 혁명적행동을 대립시킬수 있었다. 1914~1916년의 제국주의전쟁과 이로 인하여 폭로된 기회주의자들과 카우쯔키분자들의 위선의 아우기아스의 외양간337은 맑스의 이 정책의 정당성을 명백히 확증하였는바 맑스의 정책은 선진적인 나라들의 모범으로 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나 다 현재 타민족을 압박하고있

기때문이다.①

6. 민족자결에 대한 태도에서 본 세가지 나라 류형

이 점에 있어서는 세가지의 주요한 나라 류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서구라파의 선진적인 자본주의나라들과 미국이다. 여기에서는 진보적인 자산계급민족운동은 오래전에 끝났다. 이들의 《대》민족은 모두 식민지와 자국에서 타민족을 압박하고있다. 지배민족의 무산계급의 과업은 여기서는 바로 19세기에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무산계급의 과업과 같다.②

---

① 사람들은 가끔—례를 들면 최근 독일배외주의자 렌쉬가 잡지 《종소리》[338] 제8호 및 제9호에서—어떤 민족의 민족운동, 례컨대 1848년의 체스코인의 민족운동에 대한 맑스의 부정적태도는 맑스주의의 견해에서 민족자결을 인정할 필요성을 론박하는것으로 된다고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 하면 1848년에는 《반동적》민족과 혁명적-민주주의적민족과를 구별할 력사적 및 정치적 근거가 있었다. 맑스가 전자를 비난하고 후자를 지지한것은 정당하였다.[339] 자결권은 응당 민주주의적리익전반에 복종되여야 할 민주주의적요구중의 하나이다. 1848년과 그후에 있어서 이 전반적리익은 무엇보다도 짜리제도와의 투쟁에 있었다.

② 1914～1916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몇몇 작은 나라 례컨대 화란, 스위스에서는 자산계급이 제국주의전쟁에 참가하는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민족자결》의 구호를 열심히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의 사회민주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결을 거부하게 한 동기의 하나이다. 옳바른 무산계급적정책 즉 제국주의전쟁에서의 《조국보위》의 거부가 옳지 못한 론거에 의하여 옹호되고있는것이다. 이 결과 리론상에서는 맑스주의에 대한 외곡이 나오며 실천상에서는 일종의 소민족적협애성, 《대국》민족에게 예속된 민족의 수억만 주민에 대한 망각이 나온다. 고르테르동지는 그의 훌륭한 소책자 《제국주의, 전쟁 및 사회민주당》에서 옳지 않게도 민족자결의 원칙을 거부하고있으나 그러나 그가 화란령 인도의 지체없는 《정치적 및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할것을 거부하고있는 화란의 기회주의자들을 폭로할 때에는 그 원칙을 옳게 적용하고있다.

둘째로는 동구라파나라들 즉 오지리, 발칸 나라들 그리고 특히 로씨야이다. 여기에서는 바로 20세기에 자산계급민주주의적민족운동이 특히 발전하였고 민족적투쟁이 격화되였다. 이 나라들의 무산계급이 민족자결권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산계급민주주의적개혁을 완성하는 면에서나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혁명을 원조하는 면에서나 자기들의 과업을 완수할수 없다. 여기에서는 압박민족의 로동자들과 피압박민족의 로동자들의 계급투쟁을 합류시키는 과업이 특히 곤난하며 또 특히 중요하다.

셋째로는 중국, 페르샤, 토이기와 같은 반식민지나라들과 전체 식민지인데 그 인구는 도합 10억에 달한다. 여기에서는 자산계급민주주의운동이 일부는 겨우 시작되고 일부는 끝나기까지에는 거리가 멀다.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이며 보상없는 그리고 지체없는 식민지의 해방을 단지 요구만 해서는 안된다. 이 요구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자결권의 인정이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가장 단호하게 이 나라들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민족해방운동의 가장 혁명적인 요소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압박하는 제국주의렬강을 반대하는 그들의 봉기를—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혁명전쟁도—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7. 사회배외주의와 민족자결

제국주의시대와 1914～1916년의 전쟁은 선진적인 나라들에서 특히 배외주의와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민족자결에 관한 문제에서는 사회배외주의자들 즉 반동적제국주의전쟁에다 《조국보위》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그 전쟁을 미화하는 기회주의자들과 카우쯔키자들사이에 주

되는 두가지 부류가 있다.

한편으로 제국주의와 정치적집중이 진보적이라고 하여 합병을 옹호하며 자결권을 공상적이니 환상적이니 소자산계급적이니 뭐니 하면서 부인하는 상당히 로골적인 자산계급의 종복들을 우리는 본다. 이에 속하는것은 독일의 쿠노브, 빠르부스 및 극단적기회주의자들, 영국의 일부 페이비안파302와 로동조합지도자들의 일부분, 로씨야의 기회주의자들인 쎔꼽스끼, 리브만, 유르께위치 등등이다.

다른 한편으로 카우쯔키주의자들을 보는바 완데르웰드, 러노델 및 영국, 프랑스 등등의 많은 평화주의자들도 역시 이에 속한다. 그들은 앞에서 서술한자들과의 통일을 주장하고있으며 또 순전히 말로만 그리고 위선적으로 자결권을 옹호하면서 실천상에서는 완전히 그자들과 일치하고있다. 즉 그들은 정치적분리의 자유에 대한 요구를 《과도한 요구》(《zu viel verlangt》, 카우쯔키 1915년 5월 21일부 《신시대》24)로 인정하고있으며, 그들은 다름아닌 압박민족의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적전술의 필요성을 고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혁명적의무를 모호하게 하며 그들의 기회주의를 정당화하며 그들이 인민을 기만하는것을 용이하게 하며 완전한 권리가 없는 민족들을 자기 지역내에 강제적으로 억류하고있는 나라의 **경계**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는 등등의짓을 하고있다.

전자나 후자나 다 같은 기회주의자들로서 그들은 맑스가 아일랜드의 례에서 해명한 그의 전술의 리론적의의와 실천적긴요성을 리해할 온갖 능력을 상실하고 맑스주의를 모독하고있다.

특히 합병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 문제는 전쟁과 관련해서 특히 긴급한 문제로 되였다. 그런데 합병이란 무엇인가? 합병을 반대하는 항의가 민족자결의 인정에 귀착되든가 그렇지 않

으면 현상태를 옹호하며 온갖 폭력, 심지어는 혁명적인 폭력까지도 적대시하는 평화주의적공담에 기초하든가 한다는것은 용이하게 납득할수 있다. 이와 같은 공담은 근본적으로 허위적이며 맑스주의와는 상용할수 없다.

8.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구체적 제 과업

사회주의혁명은 아주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는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산계급앞에는 정권의 탈취, 은행의 수탈 및 기타 독재적대책의 실시라는 긴급한 과업이 나설것이다. 자산계급—그리고 특히 페이비안파와 카우쯔키파형의 지식인—은 이러한 순간에 혁명에다 제한된 민주주의적목표를 강요함으로써 혁명을 파괴하고 저지하려고 애쓸것이다. 자산계급의 정권의 기초를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습격이 이미 개시된 조건하에서 순전히 민주주의적인 모든 요구가 일정한 의미에서 혁명을 방해하는 역할을 놀수 있다면 모든 피압박민족의 자유(즉 그들의 자결권)를 선포하고 실시할 필요성은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례컨대 1848년의 독일에서나 1905년의 로씨야에서 절박하였던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혁명에서도 절박할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시작되기까지는 5년, 10년 또는 그이상이 걸릴수도 있다. 사회배외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로동자당에 기여들지 못하게 하며 1914~1916년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그들이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일이 일정에 오를것이다. 식민지의 분리와 아일랜드의 분리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의 사회주의자들, 식민지의 분리, 알자스인, 단마르크인, 뽈스까인의 분

리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민족적압박을 반대하는 투쟁령역에서도 직접 혁명적선전과 혁명적대중행동을 확대하지 않으며 짜베른사건과 같은 사건을 압박민족의 무산계급사이에서 가장 광범한 비합법적선전을 위하여, 가두시위와 대중의 혁명적진출을 위하여 리용하지 않는 독일사회주의자들, 핀란드, 뽈스까, 우크라이나 및 기타의 분리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 로씨야사회주의자들 등등,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은 배외주의자로서 피와 오물 투성이가 된 제국주의적군주제와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의 졸개로서 행동하고있다는것을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에게 설명하여야 할것이다.

9. 자결에 대한 로씨야 및 뽈스까 사회민주당과 제2국제당의 태도

로씨야의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과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간의 자결문제에 있어서의 의견상이는 일찍 1903년의 당대회187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 대회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강령을 채택하고 뽈스까사회민주당대표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족자결권을 인정하는 제9조를 그 강령에 포함시켰다. 그때부터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9조를 우리 당 강령에서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떤 다른 말로 바꾸라는 제의를 자기들의 당의 명의로 한번도 반복하지 않았다.

로씨야에서는 적어도 인구의 57%, 즉 1억이상이 피압박민족에 속하며 이 민족들은 태반이 변강에 거주하며 그중의 일부는 대로씨야인들보다도 문화적이다. 로씨야에 있어서 정치제도는 특히 야만적인 중세기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이러한 로씨야에 있어서 짜리제도에 의하여 압박당하는 민족들의 로씨야로부터의

자유로운 분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과업을 위한 무조건적의무이다. 1912년 1월에 재건된 우리 당은 1913년에 결의문201을 채택하였는바 이 결의문은 자결권을 확인하고 바로 상술한바와 같은 구체적의미에서 그것을 해명하고있다. 1914~1916년에 자산계급사이에서나 기회주의적사회주의자들(루바노위치, 플레하노브, 잡지《우리의 사업》340 등등)사이에서 대로씨야적배외주의가 횡행한 사실은 한층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요구를 고수케 하며 이것을 거부하는자는 실지에 있어서는 대로씨야적배외주의와 짜리제도를 지지하는데 복무한다는것을 인정하게 한다. 우리 당은 자결권을 반대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온갖 책임을 가장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성명한다.

뽈스까사회민주당의 민족문제에 관한 립장의 최근의 정식화(찜메르왈드대표자회의316에서의 뽈스까사회민주당의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포함되여있다.

이 선언은 《뽈스까지방》을 앞으로 있을 배상노름에서의 담보로 간주하며 《뽈스까인민에게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독일 및 기타 국가 정부들을 통책하였다. 《뽈스까사회민주당은 전일적인 나라를 몇개의 부분으로 재분할하여 갈라놓는데 대하여 단호하게 또 엄숙히 항의한다.》… 선언은 《피압박민족의 해방사업을》…호엔쫄레른왕조에게 위임한 사회주의자들을 규탄한다. 선언은 오직 혁명적인 국제무산계급의 이 박두한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참가하는것만이 《민족적압박의 질곡을 짓부시고 온갖 형태의 타국의 통치를 페절하며 뽈스까인민에게 각 민족의 동맹의 평등한 성원으로서의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보장할것이다.》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이 선언은 《뽈스까인들을

위한》 전쟁을 《2중의 형제살륙》으로 인정한다.(국제사회당위원회 통보341, 1915년 9월 27일부 제2호 15페지, 로어역본은 론문집 《국제당과 전쟁》 97페지를 보라.)

이 명제들은 본질상 민족자결권의 인정과 조금도 다를것이 없으나 단지 제2국제당의 대다수의 강령과 결의문보다 정치적정식화가 더 몽롱하고 애매하다는 결점이 있을뿐이다. 이 사상을 정확히 정치적정식화로써 표현하며 또 그것이 자본주의제도에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직 사회주의제도에만 적용되느냐를 확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의 민족자결의 부인이 오유라는것을 더욱더 명백히 표명할것이다.

민족자결권을 인정하는 1896년의 런던국제사회주의자대회의 결정은 상술한 론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들로써 보충되여야 한다. 즉 (1) 제국주의하에서는 이 요구가 특히 긴요하다는것, (2) 이 요구도 포함하는 정치적민주주의의 모든 요구의 정치적제약성과 계급적내용, (3) 압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피압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구체적과업을 구별할 필요성, (4) 자결에 대한 기회주의자들 및 카우쯔키분자들의 인정은 불철저하고 순전히 말로만의 인정이며 따라서 그 정치적의의로 보아 위선적이라는것, (5) 《자기 나라》 민족에 의하여 압박당하는 식민지와 민족들의 분리의 자유를 고수하지 않는 사회민주주의자들, 특히 대국민족(대로씨야인, 영국인, 미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이딸리아인, 일본인 등등)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실상 배외주의자들과 일치하고있다는것, (6) 이 요구를 위한 투쟁이나 정치적민주주의의 모든 근본적요구를 위한 투쟁을 자산계급정부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혁명적대중투쟁에 종속시킬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어떤 약소민족의 견지, 특히 민족주의적구호로써 인민을 기만하는 뽈스까자산계급과의 투쟁이 자결의 부당한 부인에까지 이른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의 관점을 국제당에 끌어들이는것은 리론상 오유일것이며 맑스주의를 쁘루동주의로 바꾸는 것일것이며 실천상으로는 대국민족의 가장 위험한 배외주의와 기회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인 지지를 의미할것이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 편집부

부기: 방금 발간된 1916년 3월 3일부 《신시대》지상에서 카우쯔키는 가장 더러운 독일배외주의의 대표자 아우스테를리쯔에게 기독교적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합스부르그왕조의 오지리에 대해서는 피압박민족의 분리의 자유를 거부하지만 힌덴부르그와 윌헬름2세에게 종복의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로씨야령 뽈스까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있다. 카우쯔키주의의 이보다 더 훌륭한 자체폭로는 바라기도 어려울것이다!

1916년 1~2월에 집필

1916년 4월에 잡지 《선구자》 제2호에 게재
로문으로는 《사회민주주의자 론문집》 1916년 10월 제1호에 게재

《론문집》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2권, 137~150페지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342]

통속적론술

서 문

지금 독자들앞에 내놓는 이 소책자는 내가 1916년 봄에 쮜리히에서 쓴것이다. 내가 일한 그곳 형편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연히 프랑스문과 영국문 참고서적의 부족과 더우기 로씨야문참고서적의 부족에 직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기는 하나 나는 제국주의에 관한 주요한 영국문저작인 제이.에이.홉슨의 저서를 주의깊게 리용하였다. 이 저작은 내가 확신하는 바에 의하면 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이다.

이 소책자는 짜리정부의 출판물검열을 고려하면서 쓴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순 리론적인—특히 경제적인—분석에만 엄격히 국한하지 않을수 없었을뿐만아니라 필요한 몇가지 정치적견해를 서술할 때에도 극히 신중하게 암시적인 말로써, 짜리정부밑에서 모든 혁명자들이 《합법적》인 저작을 쓰려고 붓을 들 때에 반드시 쓰지 않을수 없었던 그런 이소프의 우화적인—저주할 이소프의 우화적인—말로써 서술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지금 자유로운 날에, 짜리정부의 출판물검열을 고려하였기때문에 외곡되였고 마치 철압기에 압축되고 압착된듯이 된

이 소책자의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는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의 전야라는것, 사회배외주의(말로는 사회주의이지만 실제에는 배외주의인)는 사회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반이며 자산계급의 편으로의 완전한 전향이라는것, 로동운동의 이와 같은 분렬은 제국주의의 객관적조건들과 련결되여있다는것 등등에 대하여 나는 《노예적》인 말로써 쓰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리는 독자들에게 멀지 않아 재판될 1914~1917년간에 내가 국외에서 쓴 론문들을 소개하는바이다. 여기에서 특히 119~120페지①의 한단락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자본가들과 또 그들의 편으로 넘어간 사회배외주의자들이(카우쯔키는 이들과 아주 불철저하게 투쟁하고있다.) 어떻게 몰렴치하게 령토합병문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 몰렴치하게 자국의 자본가들의 령토합병정책을 은폐하는가를 출판물검열에 통과될수 있는 형태로써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나는 례로서…일본을 들지 않을수 없었다! 주의깊은 독자는 일본 대신에 로씨야를, 조선 대신에 핀란드, 뽈스까, 쿠를란드, 우크라이나, 히와, 부하라, 에스톨란지야, 기타 대로씨야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바꾸어놓을수 있을것이다.

나는 나의 이 소책자가, 현대전쟁과 현대정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리해할수 없는 그러한 기본적인 경제문제, 즉 제국주의의 경제적실질에 관한 문제를 리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는바이다.

저 자

1917년 4월 26일 뻬뜨로그라드

---

① 이 책 1057~1059페지를 보라.—편집자

프랑스문판과 독일문판에 대한 서문[343]

(1)

이 책은 로씨야문판에 대한 서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1916년에 짜리정부의 출판물검열을 고려하여 쓴것이다. 나는 지금 이 전문을 고쳐쓸 가능성을 가지고있지도 못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것은 아마 적당하지도 않을것이다. 왜냐 하면 이 책의 주요한 임무는 각국의 론쟁할 여지 없는 자산계급통계의 총괄적자료와 자산계급학자들의 고백에 의하여 20세기초, 즉 제1차세계제국주의전쟁전야에 있어서의 전 세계 자본주의경제의 **총괄적정경**을 그 국제적호상관계에서 설명하자는것이였으며 지금도 역시 그렇기때문이다.

또한 선진적자본주의국가의 많은 공산주의자들로 말하면 **짜리정부출판물검열기관의 견지에서 합법적인** 이 책을 보고 다음과 같은것을 확신하는데 어느 정도 유익하기까지 할것이다. 즉 이 실례에 의하여 례컨대 얼마전에 거의 전부의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된후에도 지금의 미국이나 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약간의 합법적인 기회까지라도 리용하여 사회평화주의적관점과 《세계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허위임을 설명하는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것을 확신하게 하는것이다. 나는 출판물검열을 고려하면서 쓴 이 책에 대한 가장 필요한 보충을 이 서문에서 쓰려고 한다.

(2)

이 책에서 증명되여있다싶이 1914~1918년의 전쟁은 쌍방

에 있어서 다 제국주의적(즉 침략적, 략탈적, 강도적)인 전쟁이였으며 세계의 분할을 위한 전쟁, 식민지, 금융자본의《세력범위》등등의 분할 및 재분할을 위한 전쟁이였다.

도대체 전쟁의 진정한 사회적성격, 보다 정확히 말해서 진정한 계급적성격이 어떠한것인가 하는것은 두말할것도없이 전쟁의 외교사가운데서 증명될것이 아니라 모든 교전국의 지배계급들의 객관적립장의 분석가운데서 증명될것이다. 이 객관적립장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약간의 실례와 개별적자료를 인용할것이 아니라(사회생활의 현상은 극히 복잡하기때문에 언제나 실례나 개별적자료를 얼마든지 얻어내서 어떠한 론점이라도 증명할수 있다.) 반드시 모든 교전국 및 전 세계의 경제생활의 기초에 관한 자료의 총체를 인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876년 및 1914년에 있어서의 세계의 분할정형(제6장)과 1890년 및 1913년에 있어서의 전 세계 철도의 분할정형(제7장)을 설명할 때 내가 인용한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총체적자료였다. 철도는 자본주의산업의 가장 주요한 부문인 석탄공업과 강철공업의 총화이며 세계무역 및 자산계급민주주의문명발전의 총화인 동시에 그의 가장 명백한 표식이다. 철도가 어떻게 대규모생산과 련결되고 독점체들과 련결되고 신지케이트, 카르텔, 트레스트, 은행과 련결되고 금융과두와 련결되여있는가 하는것은 이 책의 처음 몇장에 설명되여있다. 철도망의 분포, 그 분포의 불균형, 그 발전의 불균형—이것은 세계적규모에 있어서의 현대자본주의, 즉 독점자본주의의 총화이다. 그리고 이 총화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경제적기초우에서는 제국주의전쟁이 절대로 불가피하다는것을 명시하고있다.

철도의 부설은 단순한,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적인, 문화

적인, 문명을 보급하는 기업인것같이 보인다. 그것은 자본주의적노예제를 미화하는 일로 보수를 받고있는 자산계급교수들이나 또 소자산계급적속물들의 눈에는 그렇게 되여보인다. 사실에 있어서는 이 기업을 수천갈래로 생산수단일반에 대한 사적소유와 련결시키고있는 자본주의적인 거미줄은 이 부설사업을 10억의 인민들(식민지 및 반식민지의)에 대한, 즉 부속국가들에 거주하는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의 인민과 《문명》국가들에 거주하는 자본의 임금노예들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전화시켰다.

소경영주의 로동에 기초하는 사적소유, 자유경쟁, 민주주의—이 모든것들은 자본가와 그 출판물이 로동자와 농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호로서 이미 먼 과거의것으로 되였다. 자본주의는 극소수 《선진》국가들이 세계의 대다수 주민을 식민지적으로 억압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는 세계적체계로 되였다. 그리고 이 《획득물》은 세계적으로 강대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2~3개의 강도들(미국, 영국, 일본)사이에 분배되는바 이 강도들은 **자기네의** 획득물을 분배하기 위한 **자기네의** 전쟁에 전 세계를 끌어넣는것이다.

(3)

군주제적독일에 의하여 강요된 브레스트-리똡스크강화조약과 그다음에 《민주주의적》공화국인 미국 및 프랑스와 또 《자유로운》 영국에 의하여 강요된 훨씬 더 잔인하고 비렬한 베르싸이유강화조약은 제국주의의 고용문필가들과 평화주의자라느니, 사회주의자라느니 하고 자칭하면서도 《윌슨주의》를 찬양하고 제국주의조건하에서 평화와 개량이 가능하다고 억설하는 반동적시정배들을 완전히 폭로함으로써 인류에게 대단히 유익한 일을 하였다.

전쟁, 금융적강도집단인 영국집단과 독일집단의 어느쪽이 보다 많은 획득물을 얻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전쟁이 남겨놓은 수천만의 사망자 및 불구자와 그리고 그후의 이 두 《강화조약》은 자산계급에게 억압당하고 유린당하고 기만당하고 우롱당하던 수백수천만의 민중을 미증유의 속도로 각성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전쟁때문에 조성된 전 세계적인 경제적파괴의 기초우에서 세계적인 혁명적위기가 성숙되고있다. 이 위기는 그것이 아무리 길고 곤난한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고 할지라도 무산계급혁명의 폭발과 그의 승리로써 끝날수밖에 없는것이다.

제2국제당의 바젤선언[230]은 1912년에 전쟁일반에 대해서가 아니라(전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혁명적전쟁도 있다.) 1914년에 폭발한 바로 그 전쟁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이 선언은 제2국제당영웅들의 수치스러운 완전한 파산과 모든 변절행위를 폭로하는 기념비로서 남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선언을 본판의 부록으로서 전재하여 이 선언에서 바야흐로 박두하고있던 전쟁과 무산계급혁명의 관계를 정확히, 명백히, 솔직히 말한 많은 구절들을 제2국제당영웅들이 애써 피하고있다는것—마치 도적놈이 도적질한 장소를 피하는것처럼 애써 피하고있다는것에 대해서 재삼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바이다.

(4)

이 책에서 특별한 주의가 돌려지고있는것은 《카우쯔키주의》에 대한 비판, 즉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리론가》들인 제2국제당의 지도자들(오지리의 오토 바우에르일파, 영국의 램지 맥도날드 등, 프랑스의 알베르 또마 등 및 기타 등등)과 수다한 사회민주주의자, 개량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산계급민주주의자, 승려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제적사조에 대한 비판이다.

이 사조는 한편으로는 제2국제당의 해체, 부패의 산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든 생활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산계급적 및 민주주의적 편견에 포로되여있는 소자산자의 의식형태의 필연적인 산물인것이다.

카우쯔키와 그 일당들의 이러한 견해는 이 문필가가 수십년간 특히 사회주의적기회주의자(베른슈타인, 밀레랑, 하인드만, 곰퍼즈 등등)와의 투쟁에서 수호하여온 맑스주의의 혁명적원리를 완전히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카우쯔키주의자들》이 지금 정치적, 실천적으로 극단적기회주의자들(제2국제당, 즉 황색국제당을 통하여)과 결합되였고 자산계급정부들(사회주의자들이 참가한 자산계급련합정부들을 통하여)과 결합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날로 발전하고있는 무산계급혁명운동일반, 특히 공산주의운동은 《카우쯔키주의》의 리론적오유를 분석폭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특히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일반, —이것들은 조금도 맑스주의라고 가장하지는 않으나 카우쯔키일파와 꼭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제 모순의 심각성과 제국주의가 낳은 혁명적위기의 불가피성을 감추고있다.—이와 같은 사조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극히 강력히 만연되여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의 정당은 이와 같은 사조들과 투쟁하여 자산계급에게 우롱되여온 소경영주들과 많으나 적으나 소자산계급적생활조건하에 놓여있는 수백만 근로자들을 자산계급으로부터 쟁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제8장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에 대하여 몇마디 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 책의 본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전에는 《맑스주의자》였으나 지금은 카우쯔키의 전우이며 《독일독립사회민주당》344내의 자산계급적, 개량주의적 정책의 주요한 대표자의 한사람인 힐페르딩은 이 문제에서 공공연한 평화주의자이며 개량주의자인 영국인 홉슨에 비하여 한걸음 후퇴하고 있다. 전체 로동운동의 국제적분렬은 이제는 완전히 명백하여졌다(제2국제당과 제3국제당). 이 두 조류간의 무장투쟁과 국내전쟁의 사실도 마찬가지로 명백하여졌다. 즉 로씨야에서는 멘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들》146이 볼쉐위크들을 반대하여 꼴차크와 제니낀을 지지하였고 독일에서는 샤이데만 및 노스케의 일파가 자산계급과 함께 스파르타쿠스파345를 반대하였고 핀란드, 뽈스까, 웽그리아 등 나라들에서도 이러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진 현상의 경제적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최고의 력사적단계, 즉 제국주의에 특유한 자본주의적 기생성과 부패에 있다. 이 책에서 증명되고있는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지금 극소수의 특히 부강한 국가들(세계인구의 10분의 1이하, 가장 《너그럽게》 과장하여 계산할지라도 5분의 1이하)을 분리시켰는데 이 나라들은 단순한 《리표끊기》에 의하여 전 세계를 략탈하고있다. 자본의 수출은 전쟁전의 가격과 전쟁전의 자산계급통계에 의하면 매년 80억~100억프랑의 수익을 가져오고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것이다.

이와 같은 거액의 초과리윤(초과리윤이라고 하는것은 이 리윤이 자본가들이 《자기》 나라 로동자들에게서 짜내는 리윤을 초과하여 취득하는것이기때문이다.)의 일부로써 로동자들의 지도자와 로동귀족이라는 이 상층을 매수할수 있음은 명백하다. 실로 《선진》국가의 자본가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

공연한 또는 은폐적인 수천가지의 방법으로써 그들을 매수하고있는것이다.

이 자산계급화한 로동계층, 즉 《로동귀족》계층은 그 생활방식에 있어서, 그 임금액에 있어서, 그의 전체 세계관에 있어서 완전히 소시민적인바 그들은 제2국제당의 주요한 지주이며 또 오늘에 있어서는 **자산계급의** 주요한 **사회적지주**(군사적지주가 아닌)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로동**운동**내부에 있어서의 자산계급의** 진정한 **대리인**이며 로동자들속에서의 자본가계급의 사환군(labor lieutenants of the capitalist class)이며 개량주의와 배외주의의 진정한 전파자이기때문이다.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과의 국내전쟁에서 그들의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자산계급의 편에 서게 되며 《빠리꼼뮨활동가들》을 반대하여 《베르싸이유파》의 편에 서게 된다.

만일 이 현상의 경제적근원을 알지 못한다면, 만일 이 현상의 정치적 및 사회적 의의를 평가하지 못한다면 공산주의운동과 닥쳐올 사회혁명의 실천적임무를 해결하는 면에서 일보도 전진할수가 없는것이다.

제국주의는 무산계급의 사회혁명의 전야이다. 이것은 1917년이래 전 세계적 범위에서 확증되였다.

엔. 레닌

1920년 7월 6일

최근 15~20년간에, 특히 미국-에스빠냐전쟁(1898년)과 영국-보어전쟁(1899~1902년)이후에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출판된 경제문헌과 정치문헌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를 특징짓기 위하여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갈수록 많이 쓰고있다. 1902년에 런던과 뉴욕에서 영국경제학자 제이.에이.홉슨의 저서 《제국주의》가 출판되였었다. 이 저자는 자산계급적사회개량주의 및 평화주의의 견지—이전의 맑스주의자 카.카우쯔키의 현재의 립장과 실질상 동일한—에 서있으면서도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특점들을 매우 훌륭하고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1910년에는 윈에서 오지리의 맑스주의자인 루돌프 힐페르딩의 저서 《금융자본론》이 출판되였다(로문번역본으로서는 1912년 모스크바판이 있다). 이 저서는 저자가 화페리론의 문제에서 오유를 범하고있고 또 맑스주의를 기회주의와 융화시키려는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발전의 최신단계》(힐페르딩의 저서의 부제는 이렇게 씌여있다.)에 대하여 극히 가치있는 리론적분석을 한 책이다. 최근 수년간에 제국주의문제에 관한 론술—특히 이 문제에 관한 신문 및 잡지의 많은 론문에서와 각종 결의에서 례컨대 1912년 가을에 열렸던 켐니쯔285 및 바젤 대회의 결의에서 론술된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상술한 두 저자에 의하여 서술된, 보다 정확히 말해서 개괄된 사상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것이였다.…

아래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적특점들의 련관과 호상관계를 간단히, 될수록 통속하게 서술하려고 한다.

이 문제의 비경제적측면은 아무리 그것이 론술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론술하지 않기로 한다. 참고서목록과 기타 주해는 모든 독자가 다 흥미를 느끼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이 책의 맨뒤에 배렬하기로 한다.

1. 생산의 집적과 독점체

공업의 거대한 발전과 갈수록 더욱 큰 기업에로의 생산의 집적의 아주 급속한 과정은 자본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점의 하나이다. 이 과정에 대하여 현대의 공업조사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있다.

례컨대 독일에서는 공업기업 매 1,000개중 50명이상의 고용로동자를 가지고있는 대기업이 1882년에는 3개였고 1895년에는 6개였고 1907년에는 9개였다. 로동자 매 100명중 이들 기업에 속하는 수는 각각 22명, 30명, 37명이였다. 그러나 생산의 집적정도는 로동자의 집중정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것은 대기업에서의 로동생산률은 훨씬 더 높기때문이다. 이 점은 증기기관과 전동기에 관한 자료가 설명하여준다. 독일에서 넓은 의미로 불리여지는 공업(상업과 교통운수업 등을 포함한)을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보게 된다. 즉 기업소 326만 5,623개중에서 대기업이 3만 588개로서 겨우 0.9%를 차지한다. 로동자 1,440만명중에서 이들 대기업에 속한 로동자가 570만명으로서 39.4%를 차지하고있으며 증기력 880만마력중에서 이들 대기업이 리용하고있는것이 660만마력으로서 75.3%를 차지하고있으며 전력 150만키로와트중에서 이들 대기업이 리용하고있는것이 120만키로와트로서 77.2%를 차지하고있다.

기업총수의 100분의 1도 못되는 부분이 증기력 및 전력 총량의 4분의 3이상을 차지하고있다! 기업소총수의 91%를 차지하는 297만개의 소기업소(5명이하의 고용로동자를 사용하는)들은 증기력 및 전력의 겨우 7%를 차지하고있을뿐이다! 수만개의 대기업들은 무엇이나 다 있고 수백만개의 소기업들은 아무것도 없다.

1,000명이상의 로동자를 고용하고있는 기업이 1907년에 독일에는 586개가 있었다. 이 기업들은 로동자총수의 거의 10분의 1(138만명)을 고용하였고 증기력과 전력 총량의 거의 3분의 1(32%)을 리용하였다.①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바와 같이 화폐자본과 은행들은 극소수 대기업의 이같은 우세를 더욱 강대한, 문자그대로의 압도적인 우세로 만드는바 수백만의 중소《기업주》들뿐만아니라 일부의 대《기업주》들까지도 실제에 있어서는 수백의 백만장자인 금융업자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여 있는것이다.

현대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선진국가인 북아메리카합중국에서는 생산의 집적의 성장은 더욱 맹렬하다. 이 나라의 통계는 좁은 의미에서의 공업을 갈라내고 또 그 기업들을 년생산물의 가치량에 의하여 분류하고있다. 1904년에는 년생산액 100만딸라이상의 최대기업이 1,900개(기업총수 21만 6,180개중에서 0.9%를 차지함.)였으며 이 기업들에 속하는 로동자는 140만명(로동자총수 550만명중에서 25.6%를 차지함.)이였으며 이 기업들의 년생산액은 56억딸라(총생산액 148억딸라중에서 38%를 차지함.)에 달하였다. 5년후인 1909년에는 이에 대응하는 수자는 다음과 같다. 즉 기업소수는 3,060개(기업총수 26

---

① 수자는 《독일제국년감》(《Annalen des deutschen Reichs》), 1911년 판본에 근거하여 종합한것이다.

만 8,491개중에서 1.1%를 차지함.), 로동자수는 200만명(로동자총수 660만명중에서 30.5%를 차지함.), 년생산액은 90억딸라(총생산액 207억딸라중에서 43.8%를 차지함.)이다.①

이 나라 모든 기업의 총생산액의 거의 절반이 기업총수의 **100분의** 1밖에 안되는 기업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그리고 이들 3,000개의 대형기업은 258개의 공업부문을 포괄하고있다. 이로부터 집적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저절로 독점에 접근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왜냐 하면 수십개의 대형기업들은 서로 협정에 도달하기 용이하며 또 타방으로는 바로 기업의 규모가 큼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곤난하여지고 독점으로의 추세가 나타나기때문이다. 경쟁으로부터 독점에로의 이같은 전화는 최신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하나―설사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이기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더 상세히 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한가지 있을수 있는 오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통계에는 250개의 공업부문에 3,000개의 대형기업이 있다고 씌여져있는데 그렇다면 매개 부문에는 최대규모의 기업이 12개씩밖에는 없는것처럼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공업부문에 다 대기업들이 있는것은 아니다. 타방으로는 최고의 발전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의 극히 중요한 특점은 소위 **련합제**, 즉 각이한 공업부문들이 한개 기업으로 련합되는것이다. 이 공업부문들은 원료가공의 순차적단계(례컨대 광석을 선철로 제련하며 선철을 강철로 제련하고 다음에는 또 강철에서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

① 《미국 1912년 통계년감》(《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12》), 202페지

할수 있다.)를 이루거나 혹은 어떤 부문이 다른 부문에 대해서 보조적역할(례컨대 폐물 또는 부산물의 가공, 포장재료의 생산 등등)을 놀기도 한다.

힐페르딩은 이렇게 쓰고있다. 《첫째로 련합제는 경기의 차이를 평균화하고 따라서 련합된 기업을 위하여 리윤률의 보다 큰 안정을 보장한다. 둘째로 련합제는 무역이 배제를 초래한다. 셋째로 련합제는 기술적개진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단순〉기업(즉 련합되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은 리윤을 얻을수 있게 한다. 넷째로 련합제는 〈단순〉기업에 비하여 련합기업의 지위를 튼튼히 하는바 즉 원료가격의 저락이 제품가격의 저락보다 뒤떨어지는 혹심한 불경기(영업의 침체, 공황)시기의 경쟁에서 련합기업을 강유력하게 만드는것이다.》①

독일강철공업에 있어서의 《혼합》(즉 련합)기업을 서술하기 위하여 전문적저서를 쓴 독일의 자산계급경제학자 하이만은 말하기를 《단순기업은 높은 원료가격과 낮은 제품가격사이에 눌리여 멸망한다.》라고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경이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석탄신지케이트에 튼튼히 조직되여 수백만톤의 석탄을 채굴하는 몇개 대석탄회사만 남아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는 대제강공장들이 그 강철신지케이트들과 함께 남아있다. 이러한 대형기업들은 매년 40만톤(1톤=60뿌드)의 강철을 생산하며 대량의 광석과 석탄을 채굴하며 강철제품을 생산하며 공장지구숙사에 거주하는 1만명 로동자들을 고용하며 때로는 자기의 철도와 항구까지도 가지고있다. 이러한 대형기업은 독일강철공업의 전형적대표이다. 그리고 집적은 부단히 발전하고있다. 개별적기업은 갈수록 더 커지고있으며 동일한 공업부문이거나 각이한

① 《금융자본》, 로문번역본, 286~287페지

공업부문의 기업들이 갈수록 더 많이 대형기업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그것들에게 있어서 베를린의 대여섯개 대은행이 지지자 및 지휘자로 되고있다. 독일광산업은 집적에 관한 칼 맑스의 학설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물론 이것은 보호관세와 운임으로써 공업을 보호하는 나라에 있어서 그러하다. 독일의 광산업은 수탈해도 좋을 정도로 성숙하였다.»①

례외적으로 성실한 이 자산계급경제학자는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독일공업이 높은 보호관세로써 보호된다고 해서 그가 독일을 마치 특수한 것같이 취급하고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집적과 기업가들의 독점적동맹, 즉 카르텔, 신지케이트 등등의 형성을 촉진할수 있을따름이다. 특히 중요한것은 자유무역국인 영국에서도 집적은 다소 뒤떨어지고 또 다른 형식으로써이기는 하지만 역시 독점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헤르만 레위교수는 대브리텐의 경제적발전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독점, 카르텔 및 트레스트》를 전문적으로 론술한 자기의 저서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대브리텐에서는 기업들이 규모가 거대하고 또 그들의 기술적수준이 높다는 바로 이 사실이 독점으로의 추세를 보여주고있다. 한편으로는 집적의 결과로 기업에는 거액의 자본을 투하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새 기업들은 갈수록 더 많은 자본액을 필요로 하게 되며 또 이로 말미암아 새 기업들이 나오기 어렵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우리는 이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집적에 의하여 조성된 대형기업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매개 새 기업은 아주 많은 과잉생산물을

---

① 한스 기데온 하이만의 저서 《독일대강철공업에 있어서의 혼합기업》 (Hans Gideon Heymann, 《Die gemischten Werke im deutscheu Großeisengewerbe》), 1904년, 슈투트가르트판, 256, 278페지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생산물들은 수요가 비상히 증가될 경우에만 유리하게 판매될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과잉생산물들은 새 공장에도, 독점적동맹에도 리익이 없는 정도에까지 그 가격이 저락될것이다.》 영국에서는 기업가들의 독점적동맹, 즉 카르텔, 트레스트 등은 대개는—보호관세가 카르텔화를 용이하게 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경쟁하는 주요기업의 수가 《2타스쯤》으로 감소될 경우에 있어서만 발생한다. 《대공업에서의 독점체의 산생에 대한 집적의 영향은 여기서는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있다.》①

반세기전에 맑스가 《자본론》을 썼을 때에는 절대다수의 경제학자는 자유경쟁을 《자연법칙》으로 생각하고있었다. 맑스는 자본주의를 론리적으로 또 력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유경쟁은 생산의 집적을 낳으며, 이 집적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 독점을 초래한다는것을 증명하였는바 어용학자들은 맑스의 이 저서를 묵살이라는 음모수단으로써 매장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제는 독점은 사실로 되였다. 경제학자들은 저서를 산더미처럼 써서 독점의 개별적표현들을 서술하면서 의연히 이구동성으로 《맑스주의는 론파되였다.》고 언명하고있다. 그러나 영국의 속담과 같이 《사실은 움직일수 없는것》으로서 좋든싫든 그것을 중시하지 않을수가 없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개별적자본주의국가들사이의—례컨대 보호관세정책을 실시하는가, 자유무역을 실시하는가 하는 점에서의—차이는 독점체의 형태 또는 그것들의 산생시기에 있어서의 본질적이 아닌 차이를 제약할뿐이며 생산의 집적에 의한 독점의 산생은 자본주의의 현 발전단계의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법

---

① 헤르만 레위의 저서 《독점, 카르텔 및 트레스트》(Hermann Levy, 《Monopole, Kartelle und Trusts》), 1909년, 예나판, 286, 290, 298페지

칙인것이다.

구라파에 대하여는 신자본주의가 구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교체한 시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규정할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세기초이다. 《독점체의 형성》력사에 관한 최신의 종합적인한 저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자본주의적독점체들의 개별적인 실례는 1860년이전의 시대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런 실례중에서 오늘 그렇게도 보편화되여있는 그런 형태의 맹아를 발견할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물론 카르텔의 산생이전의 시기이다. 현대적독점체의 참다운 시작은 아무리 이르다고 할지라도 19세기 60년대의 일이다. 독점체들의 최초의 대발전기는 19세기 70년대의 국제적공업불경기와 함께 시작하여 19세기 90년대초에까지 이르는 것이였다.》 《만일 구라파적범위에서 본다면 자유경쟁의 발전은 60년대와 70년대에 절정에 달하였다. 이때 영국은 구식의 자본주의적조직의 건설을 완성하였다. 독일에서는 이런 조직은 수공업 및 가내공업과 견결한 투쟁을 진행하고 그자신의 존재형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대전변은 1873년의 붕괴시기에, 보다 정확히 말해서 이 붕괴에 뒤이어 일어난 불경기와 함께 개시되였다. 이 불경기는 80년대초의 거의 알아볼수 없는 정도의 중단과 1889년경의 비상히 강렬한 그러나 단기적인 앙양이 있기는 하였지만 여하튼 22년간의 구라파경제사를 충만시키고있다.》 《1889~1890년의 짧은 앙양기에는 경기를 리용하기 위하여 카르텔이 강력히 조직되였다. 경솔한 정책때문에 물가가 카르텔이 없던 때보다도 더 속히, 더 맹렬히 등귀하였으며 그리하여 이들 카르텔의 거의 전부는 불명예스럽게도 〈파산의 묘지〉에 매장되여버렸다. 이때로부터 사업부진과 가격저락의 5년간이 또다시 경과하였지만 공업계를 뒤덮은것은 벌써 종래의 기분이 아니였다.

사람들은 불경기를 벌써 그 어떤 당연한 일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만 호경기전의 휴식기간에 불과한것으로 여기였다.》

《이리하여 카르텔운동은 두번째 시기로 들어갔다. 카르텔은 벌써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체 경제생활의 기초의 하나로 되였다. 그것은 공업부문을 순차로 점령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원료가공부문을 점령한다. 일찍 19세기 90년대초에 카르텔은 콕스신지케이트(그후에 석탄신지케이트는 이것을 모방하여 건립되였다.)를 조직할 때에 본질상 그이상의것이 없을 정도로 카르텔의 조직기술을 창조하였다. 19세기말의 강렬한 앙양과 1900~1903년의 공황은 적어도 광산업과 제철업에 있어서 처음으로 완전히 카르텔의 간판밑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그 어떤 새로운 현상으로 보이였다고 한다면 경제생활의 중대한 측면이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자명한 일로 널리 인정되고있다.》①

이리하여 독점의 발전사를 기본적으로 총화하면 다음과 같은 몇개 시기로 나눌수 있다. (1) 19세기의 60년대와 70년대는 자유경쟁이 절정에까지 발전한 최고단계였다. 독점체는 겨우 알아볼수 있는 맹아상태에 있었을뿐이다. (2) 1873년의 공황이후에는 카르텔은 광범히 발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례외적이였다. 그것들은 아직 견고하지 못하였고 일시적현상이였다.

---

① 테.포겔슈타인의 론문 《자본주의적공업의 금융조직과 독점의 형성》(Th. Vogelstein, 《Die finanzielle Organisation der kapitalistischen Industrie und die Monopolbildungen》)—《사회경제개론》(《Grundriß der Sozialökonomik》), 1914년 뛰빙겐판 제6편을 보라. 동 저자의 저서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강철공업과 방직공업의 조직형태》(《Organisationsformen der Eisenindustrie und Textilindustrie in England und Amerika》), 1910년 라이프찌히판 제1권을 참조하라.

(3) 19세기말의 호경기와 1900~1903년의 공황—이때에는 카르텔은 전체 경제생활의 기초의 하나로 되였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전화하였다.

카르텔은 판매조건과 지불기한 등을 호상간에 협정한다. 그것들은 판로범위를 호상간에 획분한다, 그것들은 생산품의 수량을 규정한다, 그것들은 가격을 결정한다, 그것들은 리윤을 개개의 기업들사이에 분배한다, 등등.

독일에 있어서의 카르텔의 수는 1896년에는 약 250개였고 1905년에는 약 385개였으며 이것들에는 약 1만 2,000개의 기업이 가입하고있었다.① 그러나 일반이 공인하는바와 같이 이것은 축소된 수자이다. 우에서 인용한 1907년의 독일산업통계의 자료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1만 2,000개의 대기업들만으로도 거의 증기력과 전력 총량의 절반이상을 집중시키고있다. 북아메리카합중국에서는 트레스트의 수가 1900년에는 185개였고 1907년에는 250개였다. 미국통계는 모든 공업기업소들을 세가지 종류로, 즉 개인에 소속하는것, 상회에 소속하는것, 회사에 소속하는것으로 나누고있다. 회사에 소속하는것이 1904년에는 기업소총수의 23.6%, 1909년에는 25.9%, 즉 4분의 1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 기업에 소속된 로동자수는 1904년에는 로동자총수의 70.6%, 1909년에는 총수의 75.6%, 즉 총수의 4분의 3을 차지하였다. 생산액은 각각 109억딸라와 163억딸라, 즉 총생산액의 73.7%와 79%를 차지하였다.

---

① 리쎄르박사의 저서 《독일의 대은행, 독일의 전반 경제발전과 관련한 그 집적》(Dr.Riesser, 《Die deutschen Großbanken und ihre Konzentration im Zusammenhange mit der Entwicklung der Gesamtwirtschaft in Deutschland》), 1912년, 제4판, 149페지, 에르.리프만의 저서 《카르텔, 트레스트 및 국민경제조직의 금후발전》(R.Liefmann: 《Kartelle und Trusts und die Weiterbild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Organisation》), 1910년, 제2판, 25페지

카르텔과 트레스트의 수중에는 해당 공업부문의 총생산량의 10분의 7 내지 8이 집중되여있는 일이 드물지 않다. 라인-웨스트팔리아석탄신지케이트는 1893년 창립당시에 그 지방의 총채탄량의 86.7%를 집적하고있었으며 1910년에는 벌써 95.4%를 집적하고있었다.① 이와 같이 하여 이루어진 독점은 거대한 수익을 보장하며 규모가 대단히 큰 기술적생산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트레스트(스탠더드석유회사)는 1900년에 창립되였다. 《그의 자본은 1억 5,000만딸라였다. 1억딸라의 보통주권과 1억 600만딸라의 우선주권이 발행되였다. 우선주권에 대한 리익배당은 1900년부터 1907년까지에 48%, 48%, 45%, 44%, 36%, 40%, 40%, 40%, 즉 총액 3억 6,700만딸라였다. 1882년부터 1907년까지에 8억 8,900만딸라의 순리익이 얻어졌는바 그중에서 6억 600만딸라는 리익배당으로 지불되고 그 나머지는 후비자본으로 산입되였다.》② 《1907년에 강철트레스트(미국강철회사)에 소속하는 모든 기업의 로동자, 사무원 수는 21만 180명이상이였다. 독일광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인 〈겔젠키르헨광산회사〉(Gelsenkirchener Bergwerksgesellschaft)의 로동자와 사무원 수는 1908년에 4만 6,048명이였다.》③ 1902년에 벌써 이 강철트레스트는 900만톤의 강철을 생산하였다.④ 그 강철생산량은 1901년에는 미

---

① 프리쯔 케스트네르박사의 저서 《조직에로의 강제적가입. 카르텔과 아우트싸이더의 투쟁에 관한 연구》(Dr. Fritz Kestner, 《Der Organisationszwang. Eine Untersuchung über die Kämpfe zwischen Kartellen und Aussenseitern》), 1912년 베를린판, 11페지

② 에르. 리프만의 저서 《참여회사와 융통회사. 현대자본주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연구》(R. Liefmann, 《Beteiligungs-und Finanzierungsgesellschaften. Eine Studie über den modernen Kapitalismus und das Effektenwesen》), 1909년, 예나 제1판, 212페지

③ 우와 같은 책, 218페지

④ 에스. 취르쉬키박사의 저서 《카르텔과 트레스트》(Dr. S. Tschierschky, 《Kartell und Trust》), 1903년 괴팅겐판, 13페지

국의 강철총생산량의 66.3%, 1908년에는 56.1%였다.① 그 광석채굴량은 1901년에는 43.9%, 1908년에는 46.3%였다.

트레스트에 관한 미국정부위원회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경쟁자들에 대한 트레스트의 우월성은 그 기업들이 규모가 크고 또 기술적설비가 우수한데 있다. 연초트레스트는 창립이래 어디서든지 손로동 대신에 기계로동을 광범히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이 트레스트는 이 목적을 위하여 연초가공과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발명특허권을 모두다 매수하였으며 또 이때문에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허다한 발명은 처음에는 그대로 쓸수 없는것이였으므로 이 트레스트에 복무하는 기사들이 그것들을 개진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1906년말에는 전문적으로 발명특허권만을 매수하는 두개의 분회사가 설립되였다.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트레스트는 자기의 주조공장, 기계공장, 수리공장을 설치하였다. 브루클린에 있는 이 종류의 매개 공장은 평균 300명의 로동자를 사용하고있으며 여기서는 권연, 려송연, 코담배, 포장용납지, 권연곽 등등의 제조에 관한 여러가지 발명의 실험이 진행되며 또 여기서야말로 이런 발명이 완성된다.》② 《기타의 트레스트들도 소위 developping engineers(기술을 개진하기 위하여 일하는 기사)들을 사용하고있는바 이들의 임무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발명하고 기술적개량을 시험하는데 있다. 강철트레스트는 기술을 제고시킬수 있거나 또는 생산비를 저하시킬수 있는

---

① 테. 포겔슈타인의 저서 《조직형태》(Th. Vogelstein, 《Organisationsformen》), 275페지

② 연초공업련합위원회 위원의 보고(Report of the Commissioner of Corporations on the Tobacco Industry), 1909년 워싱톤판, 266페지—파울 타펠박사의 저서 《북아메리카의 트레스트들과 기술의 진보에 관한 그들의 영향》(Dr. Paul Tafel, 《Die nordamerikanischen Trusts und ihre Wirkungen auf den Fortschritt der Technik》), 1913년 슈투트가르트판, 48페지에서 인용.

발명을 한 기사나 로동자들에게 거액의 상금을 지불한다.»①

독일의 대공업 례컨대 최근 수십년간에 거대하게 발전한 화학공업에서도 기술적개량사업은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되였다. 이 공업에서는 벌써 1908년에 이르러 생산의 집적과정에서 두개의 주요《집단》이 조성되였는바 이들 두 집단은 자기식으로 독점에 접근하고있었다. 처음에는 이들 두 집단은 각각 2,000만 내지 2,100만마르크의 자본을 가진 두쌍의 대공장들의 《2사련합》이였다. 즉 일방은 마인강반의 회히스트에 있는 이전의 마이스떼르공장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카쎌라회사의 2사련합이며 타방은 루드위히항에 있는 아닐린 및 소다공장과 엘베르펠드에 있는 이전의 바이에르회사와의 2사련합이였다. 그후 한개 집단은 1905년에, 다른 한개 집단은 1908년에 각각 또 하나의 큰 공장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4,000만 내지 5,000만마르크의 자본을 가진 두개의 《3사련합》이 나타났으며 또 이들 《련합》사이에는 이미 《접근》 및 가격에 관한 《조약》체결 등등이 개시되였다.②

경쟁은 독점으로 전화한다. 그 결과 생산의 사회화는 거대하게 전진한다. 특히 기술상의 발명과 개량의 과정도 또한 사회화된다.

이는 벌써 분산되여 서로 아무런 련락도 없이 미지의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생산하는 기업주들의 이전의 자유경쟁과는 전연 다른것이다. 집적은 상당히 진행되여 자국의 원료래원뿐만아니라 우리가 아래에서 보게 되는바와 같이 허다한 국가, 지어 전 세계의 모든 원료원천(례컨대 철광매장량)

---

① 우와 같은 책, 49페지

② 리쎄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제3판, 547페지 및 이하 각 페지. 신문 (1916년 6월)은 얼마전에 독일의 전반 화학공업을 련합하는 새로운 대토레스트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을 대략 계산할수 있는 정도로까지 되였다. 지금은 이와 같은 계산이 진행되고있을뿐만아니라 이런 원천이 거대한 독점적련합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고있다. 이 련합들은 시장의 용량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계산을 하며 또한 협정에 의하여 이 시장들을 《분할》한다. 숙련한 로동력은 독점되며 우수한 기사들은 고용되며 교통로와 교통기관—미국에서의 철도와 구라파 및 미국의 기선회사—은 점령된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 생산을 가장 전면적인 사회화에 접근시킨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본가들을 그들의 의지와 의식과는 반대로 완전한 자유경쟁으로부터 완전한 사회화에로의 과도를 표시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질서에로 끌어들인다.

생산은 사회화되지만 점유는 의연히 사적이다. 사회화된 생산수단은 의연히 소수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형식적으로 시인되는 자유경쟁의 일반적틀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소수 독점가의 나머지 주민에 대한 압박은 백배나 더 심중하고 더 괴롭고 더 견디기 어려운것으로 된다.

독일의 경제학자 케스트네르는 《카르텔과 아우트싸이더와의 투쟁》에 관하여 특별한 저서를 썼는데 《아우트싸이더》란 카르텔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가란 말이다. 그는 이 저서를 《조직에로의 강제적가입》이라고 명명하였지만 기실 자본주의를 미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응당 독점적련합에로의 강제적예속이라고 하여야 할것이였다. 이 《조직》을 위하여 독점적련합이 사용하는 현대적이고 가장 새롭고 또 문명적인 투쟁수단을 보는것만으로도 교훈적일것이다. 그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원료의 박탈(…《카르텔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 (2) 《동맹》방법(즉 로동조합은 카르텔화된 기업들에서만 일을 맡는다는것과 같은 자본가들과 로동조합들과의 합동체결)에 의한 로동력의 박탈, (3) 운수수단의 박탈, (4)

판로의 박탈, (5) 카르텔과만 매매관계를 맺을것에 관한 구매자와의 협동체결, (6) 계획적인 가격인하(《아우트싸이더》들, 즉 독점가들에 복종하지 않는 기업들을 파산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원가이하로 판매하는데에 수백만의 거액이 지출된다. 례컨대 휘발유공업에서는 가격이 40마르크에서 22마르크로, 즉 거의 절반으로 인하되였다!), (7) 신용대부의 박탈, (8) 보이코트의 선포.

지금은 소기업들과 대기업들간에, 기술적으로 락후한 기업들과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기업들간에 경쟁하는것이 아니다. 지금은 독점가들이 독점에, 그의 압박에, 그의 전횡에 복종하지 않는 기업들을 교살하고있다. 자산계급경제학자의 의식에는 이 과정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고있다.

케스트네르는 이렇게 쓰고있다. 《순 경제적인 활동의 령역에서까지도 종래의 의미에서의 상업적활동으로부터 조직자적-투기자적활동으로의 일정한 전화가 발생하고있다. 가장 성과를 거두는자는 자기의 기술적 및 상업적 경험에 의하여 구매자들의 수요를 가장 잘 판단하며 잠재적수요를 찾아낼줄 알고 〈발견〉할줄 아는 상인이 아니라 조직상의 발전, 개별적 기업들과 은행들사이의 일정한 련계의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또는 예감이라도 할수 있는 투기적천재(?!)이다.…》

보통사람의 말로 옮기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 즉 상품생산이 의연히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또 전체경제의 기초로서 간주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이미 파탄되였으며 리윤의 대부분은 금융적술책의 《천재들》의 수중으로 들어갈 정도로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 금융술책과 사기행위의 기초는 생산의 사회화에 있지만 이 사회화를 달성한 인류의 거대한 진보는 도리여…투기업자들의 리익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아래에서 어떻게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 대한 소시민적반동적비판들이 《이에 근거하여》《자유로운》, 《평화스러운》, 《정직한》 경쟁으로, 즉 **뒤로 돌아갈** 것을 몽상하고있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케스트네르는 이렇게 말하였다. 《카르텔형성의 결과로서의 가격의 계속적등귀현상은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부문, 특히 석탄, 철, 칼리움 등 부문에서만 나타났고 완제품에서는 종래로 나타난 일이 없었다. 그에 따르는 수익의 증가도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공업부문에만 국한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더 첨부해야 할것은 원료(반제품이 아닌)가공공업은 카르텔의 형성에 의하여 반제품가공공업을 더 손실받게 함으로써 높은 리윤의 형태로 리익을 얻고있을뿐만 아니라 이 가공공업에 대하여 자유경쟁시대에는 없었던 일정한 지배관계를 획득하였다는 점이다.》①

우리가 밑점을 찍은 이 말은 문제의 실질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이 실질을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은 승인하기를 극히 싫어하거나 또한 극히 드물게만 승인하며 그리고 카.카우쯔키를 위수로 하는 기회주의의 지금의 변호자들도 열심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려고 애쓴다. 지배관계 및 이와 련계된 폭력—이는 《자본주의발전에 있어서의 최신단계》의 전형적현상이며 이는 전능한 경제적독점체의 형성으로부터 불가피적으로 발생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며 또 실지로 발생한것이다.

카르텔이 일체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 모든 원료원천 혹은 그 주요부분을 자기 수중에 점유할수 있는 곳에서는 카르텔의 산생과 독점체의 형성이 특히 용이하다. 그러나 원료원천을 점유하기 불가능한 기타 공업부문에서는 독점체가 산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일것

① 케스트네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254페지

이다. 세멘트공업의 원료는 도처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 공업마저도 고도로 카르텔화되여있다. 그 공장들은 구역별로 신지케이트들에, 례컨대 남독일신지케이트, 라인-웨스트팔리아신지케이트 등에 련합되여있다. 규정된 가격은 독점가격이다. 즉 세멘트 한화차의 원가는 180마르크인데 판매가격은 230~280마르크이다! 이 기업들은 12~16%의 리익배당을 하고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것은 현대적투기업의 《천재》들은 이 리익배당을 분배받는 이외에도 거액의 리윤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을수 있다는 그것이다. 독점가들은 이처럼 리윤 많은 공업부문에서 경쟁을 없애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쓴다. 례컨대 공업의 정형이 나쁘다는 요언을 돌리며 《자본가들이여! 세멘트공업에 투자하는것을 경계하라!》는 닉명광고를 신문에 내며 결국은 《아우트싸이더》(즉 신지케이트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가)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6만~8만~15만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한다.① 독점체는 《약소》한 배상금지불을 비롯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폭발약을 미국식으로 《사용》하는데까지 이르는 갖은 수단으로써 자체의 길을 개척한다.

카르텔에 의하여 공황을 제거한다는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본주의를 미화하려고 하는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의 터무니없는 말이다. 반대로 몇개의 공업부문에서 형성되는 독점은 전반 자본주의적생산에 고유한 혼란상태를 더욱 심화하며 격화한다. 자본주의일반의 특징인 농업발전과 공업발전간의 불균형현상이 더욱 커간다. 카르텔화한 정도가 가장 높은 소위 중공업 특히 석탄공업과 제철공업의 특권적지위가 다른 공업부문에 있어서 《더욱 격심한 무계획성》을 초래하고있다는것은 《독일 대은행과 공업과의 관계》란 이 훌륭한 저서의 저자인

---

① 엘. 에쉬웨게의 《세멘트》(《Zement》 Von L. Eschwege)—잡지 《은행》348, 1909년, 제1호, 115페지 및 이하 각 페지를 보라.

야이델스가 인정하는바와 같다.①

자본주의의 무치한 옹호자인 리프만은 이렇게 썼다. 《국민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모험적인 기업 혹은 국외기업에, 발전에 장기간을 요하는 기업 혹은 또 지방적의의만을 가진 그러한 기업에 더욱더 착안하게 된다.》② 모험성의 증대는 결국 말하자면 넘쳐흘러서 국외로 류출되는 자본의 거대한 증가와 련결된것이다. 그와 동시에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국민경제의 여러 부문간의 불균형의 요소, 혼란 및 공황의 요소를 더욱더 증가한다. 이 리프만은 부득이 다음과 같이 시인하였다.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는 국민경제의 조직에까지 영향을 주는 기술적령역에서의 큰 변혁에 직면할것이다.》… 전기, 항공…《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적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혹심한 투기사업이 발전하는것이 통례이다.…》③.

공황—여러가지 종류의 공황, 무엇보다도 *경제적공황이* 가장 많지만 다만 경제적공황뿐만 아니다.—은 또 집적과 독점의 추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우리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1900년의 공황은 현대독점체의 력사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번 공황의 의의에 관하여 야이델스가 비상히 교훈적인 론단을 하였는데 그 론단은 다음과 같다.

《1900년의 공황을 당한것은 주요한 공업부문의 대형기업들외에도 오늘에 보아 낡은 기구를 가진 기업들, 즉 공업앙양기의 파도에 떠올라온 이른바 〈단순〉기업들〔즉 련합되지 않은〕이 많았던것이다. 가격의 저락과 수요의 감퇴는 이 〈단순〉

---

① 야이델스의 저서 《독일 대은행과 공업과의 관계, 특히 야금공업과의 관계》(Jeidels, 《Das Verhältnis der deutschen Großbanken zur Industri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isenindustrie》), 1905년 라이프찌히판, 271페지

② 리프만의 저서 《참여회사와 융통회사》, 434페지

③ 우와 같은 책, 465～466페지

기업들을 비참한 궁경에 빠지게 하였다. 이런 궁경을 련합된 대기업들은 혹은 전혀 당하지 않았거나 혹은 극히 단기간동안 당하였다. 그 결과 1900년의 공황은 1873년의 공황과는 비할 수 없으리만큼 공업의 집적을 초래하였다. 1873년의 공황때에도 우량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태되였으나 그러나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말미암아 이 도태는 공황으로부터 승리적으로 벗어난 기업들이 독점적지위에는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독점적지위를 오늘의 강철공업과 전기공업의 대형기업들은 그것들의 복잡한 기술, 조직의 광범한 분포 그러고 자본의 힘으로 말미암아 높은 정도로 소유하고있다. 또한 이보다는 낮은 정도에서이지만 기계제조업, 야금공업의 어떤 부문과 교통 등 방면의 기업들도 그러한 독점을 가지고있다.»①

독점은 《자본주의발전에 있어서의 최신단계》의 가장 새로운 성취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은행의 역할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현대적독점의 실제적 힘과 의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극히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며 빈약한것으로 될것이다.

2. 은행과 그의 새 역할

은행의 본래의 주요한 업무는 지불의 중개이다. 이리하여 은행은 유휴화폐자본을 활동적, 즉 리윤을 낳는 자본으로 전화하며 온갖 화폐수입을 수집하여 자본가계급의 지배에 맡긴다.

은행업이 발전하고 그것이 소수의 은행에 집적되는데 따라 은행은 보통의 중개자로부터 모든 자본가 및 소기업주의 화폐자본의 거의 전부와 자국 혹은 허다한 국가의 생산수단

① 앞에서 인용한 야이델스의 책, 108페지

및 원료원천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전능한 독점가로 전화한다. 다수의 보통중개자들이 극소수의 독점가로 전화하는 이것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제국주의로 발전하는 기본적행정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행업의 집적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겠다.

1907～1908년에 100만마르크이상의 자본을 가진 독일의 모든 주식은행의 예금은 70억마르크였으며 1912～1913년에는 벌써 98억마르크였다. 5년동안에 40%가 증가되였다. 그런데 그 새로운 증가액 28억마르크중에서 27억 5,000만마르크는 1,000만마르크이상의 자본을 가진 57개 은행이 차지하고있다. 대은행들과 소은행들사이의 예금의 분배정형은 다음과 같다.①

예금총액의 백분비

	베를린의 9 대은행	1,000만마르크이상의 자본을 가진 기타의 48개 은행	100만～1,000만마르크의 자본을 가진 115개 은행	100만마르크이하의 자본을 가진 소은행
1907～1908년……	47%	32.5%	16.5%	4%
1912～1913년……	49%	36%	12%	3%

소은행은 대은행에 의하여 구축되였고 대은행들중에서 단지 9개 은행에 예금총액의 거의 절반이 집적되여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직 극히 많은 중요한 점, 례컨대 다수의 소은행들이 사실상 대은행들의 지행으로 전화된것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론급하려 한다.

슐쩨-게페르니쯔는 1913년말에 예금총액 약 100억마르크

① 알프레드 란스부르그의 《독일은행업무의 5년》(Alfred Lansburgh: 《Fünf Jahre d. Bankwesen》)—잡지 《은행》, 1913년, 제8호, 728페지를 보라.

중 베를린의 9대은행의 예금액이 51억마르크에 달한다고 계산하였다. 이 저자는 예금뿐만아니라 은행자본전체까지 고려에 넣어 다음과 같이 썼다. 《1909년말에 베를린의 9대은행은 그에 종속된 은행들을 합해서 113억마르크, 즉 독일의 은행자본총액의 약 83%를 지배하였다. 〈독일은행〉(《Deutsche Bank》)은 그에 종속된 은행들을 합쳐서 약 30억마르크를 지배하고있는데 이것은 프로씨아의 국립철도관리국과 함께 구대륙에서 가장 크고 또한 고도로 분권화된 자본의 집합체인것이다.》①

우리는 《종속된》 은행들이라는데 밑점을 찍었다. 왜냐 하면 이 사실은 최근의 자본주의적집적의 가장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기때문이다. 대기업들 특히 대은행들은 소기업을 직접 병탄할뿐만아니라 소기업의 자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써, 주권의 매수 혹은 교환, 채무관계의 체계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써 소기업들을 자체에 《병합》하며 그것들을 정복하며 그것들을 《자기》의 집단, 즉 자기의 《콘체른》—전문용어를 쓴다면—에 가입시킨다. 리프만교수는 현대의 《참여회사와 융통회사》②를 론술함에 있어서 500페지에 달하는 대《저작》을 썼는데 그는 유감스럽게도 흔히 가공하지 않은 원시자료에 매우 졸렬한 《리론적》고찰을 첨가하였다. 이 《참여》제도가 집적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조성하는가 하는것은 독일의 대은행들에 관한 은행《활동가》 리쎄르의 저서가 가장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자료를 인용하기전에 먼저 《참여》제도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실례를 들어보자.

《독일은행》《집단》은 가장 큰 집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슐제-게페르니쯔의 《독일신용은행》(Schulze-Gaevernitz, 《Die deutsche Kreditbank》)—《사회경제개론》, 1915년 뛰빙겐판, 12페지와 137페지를 보라.

② 에르. 리프만의 저서 《참여회사와 융통회사. 현대자본주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연구》, 1909년 예나 제1판, 212페지

모든 대은행집단가운데서 가장 큰 집단의 하나이다. 이 집단의 모든 은행들을 함께 련계하여놓는 중요한 실머리를 밝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제1차, 제2차, 제3차의 《참여》 혹은 제1차, 제2차, 제3차의 예속(《독일은행》에의 보다 작은 은행들의 예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①

		제1차예속	제2차예속	제3차예속
《독일은행》	영속적참여	17개 은행에	그중에 9개는 34개 은행에	그중에 4개는 7개 은행에
	비정기적참여	5개 은행에		
	때때로 하는 참여	8개 은행에	그중에 5개는 14개 은행에	그중에 2개는 2개 은행에
합 계		30개 은행에	그중에 14개는 48개 은행에	그중에 6개는 9개 은행에

《때때로》 《독일은행》에 예속되고있는 《제1차예속》의 8개 은행중에는 3개의 외국은행이 들어있다. 하나는 오지리의 은행(윈 《은행동맹》—《Bankverein》)이고 둘은 로씨야의 은행(씨비리상업은행과 로씨야대외무역은행)이다. 《독일은행》집단에 87개 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가입되여있다. 그 집단이 지배하는 자본총액은 자기의것과 남의것을 합하여 20억～30억마르크에 달한다.

이러한 집단을 령도하고있는 은행으로서 자기보다 좀 못한 다른 반타스의 은행과 공채와 같은 특히 크고 또한 유리한 금융업무를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있는 은행이 이미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서 극소수 독점가의 동맹으로 전화한것은 명백한 일이다.

독일에 있어서의 은행업의 집적이 바로 19세기말과 20세

① 알프레드 란스부르그의 《독일은행업에 있어서의 참여제도》(Alfred Lansburgh, 《Das Beteiligungssystem im deutschen Bankwesen》)—잡지 《은행》, 1910년, 제1호, 500페지를 보라.

기초에 어떠한 속도로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요약하여 인용하는 다음과 같은 리쎄르의 통계자료에서 볼수 있다.

베를린의 6대은행이 소유한 기구

년 도	독일국내의 지점	예금소 및 수형교환소	독일주식은행들에의 영속적참여	영업소 총 수
1895………	16	14	1	42
1900………	21	40	8	80
1911………	104	276	63	450

우리는 여기에서 전국에 분포되여 모든 자본과 화폐수입을 집중하며 수천수만의 분산된 경제를 통일된 전국적자본주의경제로, 그리고 다음에는 전 세계적 자본주의경제로 전화시키는 조밀한 은행망이 얼마나 급속히 발전하고있는가를 볼수 있다. 상술한 인용문에서 슐쩨-게베르니쯔가 현대의 자산계급 정치경제학의 이름으로서 말한바의 그 《지방분권화》라는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전에 비교적 《자립적》이였거나 혹은 더 적절하게 말하여 지방적으로 고립된 경제적단위들을 통일된 중심에 더욱더 많이 종속시키는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집권이며 독점적거두의 역할, 의의 및 실력의 강화인것이다.

보다 오랜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이런 《은행망》은 더 조밀하다.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영국에서는 1910년에 모든 은행의 지점수가 7,151개였다. 그중 대은행 4개는 각각 400개이상(447개로부터 689개까지)의 지점을 가졌고 또 다른 4개의 대은행은 200개이상의 지점을, 그리고 11개의 은행은 100개이상의 지점을 각각 가졌다.

프랑스에서는 3개의 제일 큰 은행, 즉 리옹신용대부은행(Crédit Lyonnais), 국민할인은행(Comptoir National) 및 총회사(Société Générale)는 자기의 업무와 지점망을 다음과 같

이 발전시키였다.①

	지점과 예금소의 수			자 본 액 (단위 100만프랑)	
	지 방	빠 리	합 계	자기 자본	타인의 자본
1870년……	47	17	64	200	427
1890년……	192	66	258	265	1,245
1909년……	1,033	196	1,229	887	4,363

현대적대은행의 《련계》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리쎄르는 독일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의 하나인 《할인회사》(《Disconto-Gesellschaft》)(그의 자본은 1914년에 3억마르크에 달하였다.)의 수형의 발행과 인수 수에 대한 자료를 들었다.

	수 형 수	
	인 수	발 행
1852년……………………………………	6,135	6,292
1870년……………………………………	85,800	87,513
1900년……………………………………	533,102	626,043

빠리의 대은행인 《리옹신용대부은행》에서는 구좌수가 1875년에는 2만 8,535개이던것이 1912년에는 63만 3,539개에까지 증가되였다②.

이 단순한 수자는 아마 장황한 론의보다도 더 똑똑하게 자본의 집적과 은행의 거래액의 증가에 따라 은행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줄것이다. 분산된 자본가

① 오이겐 카우프만의 저서 《프랑스의 은행업》(Eugen Kaufmann, 《Das französische Bankwesen》), 1911년, 튀빙겐판, 356페지와 362페지

② 장 레스퀴르의 저서 《프랑스에서의 저금》(Jean Lescure, «L'épargne en France»), 1914년, 빠리판, 52페지

들이 하나의 집단적자본가로 합쳐진다. 은행이 몇몇 자본가들을 위하여 시좌구좌를 취급할 때는 마치도 순수한 기술적인, 순수한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있는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업무범위가 거대한 규모로 확장되는 때에는 극소수의 독점가들은 은행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시좌구좌와 기타 금융업무를 통하여 먼저 각 자본가의 업무상태를 정확히 알아내고 그다음에는 그것들을 감독하여 신용대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며 또는 용이하게 하거나 곤난케 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에 영향을 주며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며 그것들의 수입을 결정하며 그것들의 자본을 빼앗거나 혹은 그것들이 자본을 급속히 그리고 대량적으로 증대할수 있게 하는 등의 가능성을 얻어 자본주의사회전체의 상공업업무를 통제한다.

우리는 방금 베를린《할인회사》의 자본이 3억마르크라는것을 말하였다. 이 《할인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경과는 베를린의 최대의 두 은행 즉 《독일은행》과 《할인회사》간의 패권쟁탈을 위한 투쟁의 한 에피소드였다. 1870년에 《독일은행》은 아직 신은행으로서 겨우 1,500만마르크의 자본을 가졌는데 《할인회사》는 3,000만마르크의 자본을 가졌었다. 1908년에는 전자는 2억마르크의 자본을 가졌는데 후자는 1억 7,000만마르크의 자본을 가졌었다. 1914년에 와서는 전자는 그 자본을 2억 5,000만마르크까지 증대시켰는데 후자는 다른 1류의 대은행 《샤프하우젠련합은행》과 합병함으로써 그 자본을 3억마르크에까지 증대시켰다. 그런데 물론 이 패권쟁탈을 위한 투쟁과 병행하여 두 은행사이의 《협정》은 더욱더 빈번히 체결되였고 또 더욱더 공고히 되여갔던것이다. 이러한 발전행정은 가장 온화하고 가장 온건한 자산계급개량주의적관점의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 견지에서 경제문제를 관찰하는 은행업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는수없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까지 이르게 한다.

독일의 잡지 《은행》은 《할인회사》가 자본을 3억마르크로 증가시킨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다른 은행들도 이와 같은 길을 밟을것이다. 그리고 지금 독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있는 300명은 시일이 감에 따라 50명, 25명 지어는 이보다 더 적은 수로 될것이다. 최근의 집적운동이 한갖 은행업에만 국한될것이라고는 여길수 없는것이다. 각 은행사이의 긴밀한 련계는 자연히 이런 은행들이 보호하는 산업가의 신지케이트들을 접근시키게 된다.… 어느날 우리가 잠을 깨여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눈앞에는 트레스트들뿐일것이며 우리들은 개인적독점을 국가적독점으로 대체시킬 필요에 당면하게 될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상 우리자신이 사태가 자유로이 발전—주권제도에 의하여 좀 촉진된—하도록 말겨두었다는것외에는 자신을 비난할 점이 아무것도 없다.》①

이것은 자산계급평론이 무능하다는 표본이다. 자산계급과학이 이 평론과 구별되는 점은 전자가 더 정직하지 못하며 사물의 본질을 은페하며 나무를 보고 수풀을 못 보게 하려고 노력한다는것뿐이다. 독일의 《카르텔문제》전문가인 취르쉬키가 독일카르텔은 《트레스트처럼 기술적 또는 경제적 진보를 과도히 촉진시키지는 않을것이다.》②라는 리유로써 미국트레스트를 두려워하고 독일의 카르텔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것과 같이 집적의 결과에 《놀라는것》, 자본주의적독일의 정부 혹은 자본주의《사회》(《우리들》)를 《비난》하는것, 주권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하여 집적이 《가속화》됨을 두려워하는것—이것이 그래 무능한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

① 아.란스부르그의 《3억의 자본을 가진 은행》(A. Lansburgh, 《Die Bank mit den 300 Millionen》)—잡지 《은행》, 1914년 제1호 426페지를 보라.

② 에스.취르쉬키의 앞에서 인용한 책, 128페지

그러나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인것이다. 독일에는 트레스트가 없고 《다만》 카르텔만이 있다. 그러나 독일을 지배하고있은것은 겨우 300명에 불과한 자본의 거두들이다. 그리고 그 거두의 수는 부단히 감소되여간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어떠한 여러가지 은행법이 있어도 은행은 어쨌든 자본의 집적과 독점체형성의 과정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키며 촉진시킨다.

반세기전에 맑스는 《자본론》에서 《은행은 일반적부기와 생산수단의 일반적분배의 형식을—그러나 다만 그 형식만을—사회적규모에서 만들어놓는다.》(로문번역본, 제3권, 제2부, 144폐지[347]를 보라.)라고 썼다. 은행자본의 증대, 대은행들의 출장소와 지행의 증가, 그들의 구좌수의 증가 및 기타에 관하여 우리가 인용한 자료들은 전체 자본가계급의 《일반적부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자본가계급의 일반적부기뿐만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은행은 소기업주들, 사무원, 소수의 로동자상층의 모든 화폐수입까지도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수집하여들이기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일반적분배》는 형식적면에서 보면 현대적은행, 즉 수십억의 금액을 지배하고있는 프랑스의 3~6개의 대은행, 독일의 6~8개의 대은행으로부터 자라나는것이다. 그러나 이 생산수단의 분배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연 《공적인것》이 아니고 사적인것, 즉 민중이 굶주리고 전반 농업의 발전이 공업발전보다 절망적으로 뒤떨어지며 그리고 공업에 있어서 《중공업》이 다른 모든 공업부문으로부터 공물을 징수하는 그러한 조건밑에 활동하는 대자본(우선 최대의 독점자본)의 리익에 적합한 것이다.

보라 《지방분권화된》, 다시말하면 보다 많은 지역과 벽지와 매우 광범한 주민층을 자기의 세력범위내에 포괄하는 저축

은행과 우편국은 자본주의경제의 사회화에 있어서 은행과 경쟁을 시작한다. 은행예금과 저축은행예금이 어떻게 증가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미국의 한 위원회의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①.

예금액(단위 10억마르크)

	영국		프랑스		독일		
	은행예금	저축은행예금	은행예금	저축은행예금	은행예금	신용대부예금	저축은행예금
1880년	8.4	1.6	?	0.9	0.5	0.4	2.6
1888년	12.4	2.0	1.5	2.1	1.1	0.4	4.5
1908년	23.2	4.2	3.7	4.2	7.1	2.2	13.9

저축은행은 예금에 대하여 4% 혹은 4.25%의 리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자본의 《유리한》 투자의 길을 찾으며 수형업무, 저당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수 없다. 은행과 저축은행과의 한계는 《갈수록 소멸되여간다》. 례컨대 보홈과 에르푸르트의 상업회의소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수형할인과 같은 《순수한》 은행업무의 취급을 《금지》하기를 요구하며 우편국의 《은행》업무취급을 제한하기를 요구하고있다②. 은행거두들은 국가적독점이 예기하지 않았던 방향으로부터 자기들을 침습하지 않는가 하여 두려워하는듯하다. 물론 이러한 불안은 한 사무소내의 두 과장사이에 있는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일방으로는 저축은행의 몇십억의 자본은 사실에 있어서 결국 여전히 은행자본의 그 거두들이 지배하는것이며 타방으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적독점은 파산에 림박한 어떤 산업부문의 백만장자들의 그 수익을 증대시키며 확보하게 하

① 미국전국금융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의 자료—잡지 《은행》, 1910년, 제1호, 1200페지를 보라.

② 잡지 《은행》, 1913년, 811페지와 1022페지, 1914년, 713페지

는 수단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자유경쟁이 지배하던 구자본주의로부터 독점이 지배하는 신자본주의에로의 대체는 또한 주식취인소의 역할이 감퇴된데서 표현된다. 잡지 《은행》은 이렇게 쓰고있다. 《발행한 유가증권의 대부분을 은행들이 자기의 고객들에게 팔수 없었던 지난날에는 주식취인소가 필요불가결한 류통의 중개자였었으나 지금의 주식취인소는 벌써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그만두었다.》①

《〈어느 은행이나 다 주식취인소이다.〉—이것은 현대의 명언이다. 은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은행업에 있어서 집적이 진전되면 될수록 이 명언이 포함하는 진리도 더욱더 많아진다.》② 《일찌 70년대에 젊은 방탕자성격을 가졌던〔이것은 1873년의 취인소의 파산, 투기회사창립소동348 등에 대한 《미묘한》 암시이다.〕 취인소가 독일공업화의 시대를 열었다면 오늘에 있어서는 은행과 공업은 〈독자적으로 처리하여〉갈수 있게 되였다. 취인소에 대한 우리 나라 대은행들의 지배는…독일은 완전히 조직된 공업국이라는것을 표명하여준다. 이와 같이 만일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의 범위가 줄어들고 은행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범위가 비상히 확대된다면 소수의 지도자들이 국민경제방면에서 담당하는 책임도 비상히 가중해진다.》③ 이렇게 독일제국주의의 변호자이며 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받드는 권위자인 독일의 슐쩨-게페르니쯔교수는 썼다. 그는 《사소한 일》, 즉 은행을 통하여 수행되는 이 《의식적조절》이야말로 《완전히 조직된》 극소수의 독점가들이 대

① 잡지 《은행》, 1914년, 제1호, 316페지
② 오스카르 슈틸리히박사의 저서 《화폐제도와 은행제도》(Dr. Oscar Stillich, 《Geld- und Bankwesen》), 1907년 베를린판, 169페지
③ 슐쩨-게페르니쯔의 론문 《독일신용은행》—《사회경제개론》, 1915년 뛰빙겐판, 101페지를 보라.

중을 략탈하는것임을 말살하려고 시도한다. 자산계급교수의 임무는 전부의 내막을 밝히거나 또는 은행독점가들의 모든 술책을 폭로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화하는데 있다.

더욱 권위있는 경제학자이며 은행《활동가》인 리쎄르도 역시 부정할수 없는 사실을 무의미한 빈말로써 슬쩍 넘겨버리고있는데 그는《취인소는 그에 집중되는 경제적운동의 가장 정확한 측정기일뿐만아니라 거의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조절기로서의 속성, 즉 전체 경제와 유가증권의 류통에 필요불가결한 속성을 더욱더 잃어버리고있다.》①고 하였다.

달리말하면 구자본주의, 즉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조절자인 취인소를 가진 자유경쟁의 자본주의는 과거의것으로 물러간다. 구자본주의는 어떤 과도적현상의 선명한 특징을, 즉 자유경쟁과 독점의 어떤 혼합체의 선명한 특징을 가진 신자본주의로 대체되였다. 이 최신자본주의가 어디에로《과도하는가》하는 문제가 자연히 나온다. 그러나 자산계급학자들은 이 문제를 감히 제기하지 못한다.

《30년전에는 자유로이 경쟁하는 기업가들이 〈로동자들의〉 육체로동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영적로동의 10분의 9를 리행하였다. 지금에 있어서는 사무원들이 그 경영적정신로동의 10분의 9를 리행한다. 은행업무는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지도적지위에 처하여있는것이다.》② 슐쩨-게페르니쯔의 이 고백은 최신자본주의, 즉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가 어디에로 과도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금 제기한다.…

집적과정의 결과로서 전체 자본주의경제의 선두에 서게 된 소수의 은행들사이에는 자연히 독점적협정을 체결하며 은

---

① 리쎄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제4판, 629페지

② 슐쩨-게페르니쯔의《독일신용은행》—《사회경제개론》, 1915년 튀빙겐판, 151페지를 보라.

행트레스트를 조직하려는 경향이 더욱더 현저하여지며 또한 강렬하여진다. 미국에서는 9개의 은행이 아니라 2개의 가장 큰 은행, 즉 억만장자인 로케펠러와 모간의 은행이 110억마르크의 자본을 통제한다①. 독일에서는 우리가 이상에서 지적한 《샤프하우젠련합은행》이 《할인회사》에 병탄된 사실을 취인소의 리익을 대표하는 《프랑크푸르트》신문349은 다음과 같이 평론하였다.

《은행이 날로 집적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신용대부를 할수 있는 기관들의 수효가 줄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대공업은 소수의 은행집단에 더욱더 의뢰하게 된다. 공업과 금융계간의 련계가 긴밀하여지는데서 은행자본을 요구하는 여러 공업회사의 활동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대공업은 은행이 더욱더 트레스트화(은행의 련합 혹은 트레스트에로의 전화)하는것을 착잡한 감정으로 바라본다. 사실상 각 대은행콘체른간의 일정한 협정, 경쟁의 제한을 목적하는 협정이 성립되는 단서를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관찰할수 있었다.》②

은행업발전의 최후의 결론은 여전히 독점이다.

은행과 공업간의 밀접한 련계에 관해서 말하면 실로 이 령역에서 은행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 명백하게 나타난다. 은행이 어느 기업주의 수형을 할인하며 그를 위하여 시좌구좌를 개설하여주는것 등등을 개별적으로 들어본다면 이 업무들은 그 기업주의 독립성을 조금도 감소시키는것이 아니고 은행도 또한 그의 보통중개자의 역할을 노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업무들이 더욱 빈번하게 되고 강화된다면, 만일 은행이 거액의 자본을 자기의 수중에

① 잡지 《은행》, 1912년, 제1호, 435페지
② 슐체-게페르니츠의 앞에서 인용한 책에서 인용—《사회경제학개론》, 155페지를 보라.

《수집》한다면, 만일 어느 기업의 시좌구좌를 취급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그 고객의 경제상태를 더욱 상세히 더욱 완전히 알게 한다면(사실 또 그렇게 되는것이다.) 그 결과 산업자본가는 은행에 더욱더 완전히 의뢰하게 되는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과 대공상업기업소사이에 말하자면 인적련합도 발전된다. 즉 주권을 점유하거나 은행의 경리와 공상업기업소의 경리가 서로 대방의 감사(혹은 리사)가 되는 등 방법을 통하여 량자는 날로 융합된다. 독일경제학자 야이델스는 자본과 기업의 이러한 형태의 집적에 대한 극히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베를린의 6대은행은 그의 경리를 통하여 344개의 공업회사에, 그리고 또 그 리사들을 통하여 407개의 회사에, 도합 751개의 회사에 그 대표를 두었다. 그리고 그중 289개의 회사에는 각기 두개의 감사 혹은 감사장의 자리를 두었다. 이 공상업회사들가운데는 보험업, 교통운수업, 식당업, 극장업, 공예미술업 및 기타 가지각색의 공상업부문들이 포함되여있다. 그리고 다른편으로는 그 6개 은행의 감사회에는(1910년) 51명의 대공업가들이 들어갔는바 그중에는 크루프회사라든가, 대기선회사《Hapag》(Hamburg—Amerika)① 등의 경리들이 있었다. 이 6개 은행은 각각 1895~1910년까지 수백개의 공업회사(281개 내지 419개)의 주권 및 채권 발행에 참여하였다②.

은행과 공업간의 《인적련합》은 이런 은행, 이 두 회사와 정부간의 《인적련합》으로써 보충된다. 야이델스는 이렇게 쓰고있다. 《감사의 자리는 당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적지 않은 편의[11]를 줄수 있는 명성있는 인물들과 정부기관의 이전관리들에게 자진하여 제공된다. …》 《대은행의 감사회에는 언제

---

① 《함부르그-아메리카소포배달주식회사》.—편집자

② 야이델스의 앞에서 인용한 책과 리쎄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나 국회의원이나 베를린시의회의 의원이 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대자본주의적독점체의 발전과 완성은 모든《자연적》및《초자연적》길을 따라 아주 급속히 진행된다. 현대자본주의사회의 수백명의 금융대왕들간에는 일정한 분업이 질차있게 형성되여간다.

《개별적대공업가들의 활동범위가 날로 확대됨과 함께》(은행리사회에 들어가는 등등), 그리고《일정한 공업지역을 지방은행경리들의 관리하에 맡김과 함께 대은행들의 지도자들간의 전문화도 일정한 정도로 강화된다. 이러한 전문화는 전체 은행기업의 규모가 커진 때에, 특히 은행과 산업과의 련계가 광범해진 때에라야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이 분업은 두 방면으로 진행된다. 즉 한편으로는 전체 산업계와 련계하는 일을 한 경리에게 그의 전문적직무로 맡기는것이고 다른편으로는 매개 경리들이 몇개의 기업소나 업종상, 리해관계상 서로 가까운 기업소의 단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것이다.…〔자본주의는 이미 개별적기업소들을 조직적으로 감독할수 있는데까지 발전하였다.〕…한 경리에게는 독일의 공업, 심지어 서부독일의 공업〔서부독일은 독일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만을 취급하는것이 그의 전문적인 일로 되고 다른 경리들에게는 외국과 외국공업에 대한 련계, 공업가 및 기타 사람들의 정황에 대한 료해, 취인소업무 등을 취급하는것이 그들의 전문적인 일로 된다. 그밖에도 은행의 각 경리는 흔히 어느 지역 혹은 어느 공업부문의 관리를 담당한다. 어떤 경리는 주로 전기회사의 감사회에서 사업하고 어떤 경리는 화학공장, 맥주공장 혹은 제당공장에서 사업하며 또 어떤 경리는 고립된 기업에서 사업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감사회에 참가한다.…한마디로 말하면 대은행들에서는 그 업무의 범위와 종류가 증대됨에 따라서 그 지도자들사이에 분업이 더욱더 세밀히 되는

것은 의심할것이 없다. 그런데 이 분업은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순 은행업무외의 지식을 좀더 알도록 하며 그들로 하여금 공업의 일반문제와 각 공업부문의 특수문제를 더욱 잘 판단하고 더욱 잘 파악하게 하며 그들에게 은행의 공업세력범위내에서 활동하는 능력을 길러주려는 목적(또한 그러한 결과)을 가진것이다. 이러한 방책과 함께 은행은 또 공업을 잘 아는 인물, 기업가, 이전의 관리, 특히는 철도와 채광부문에서 일하던 이전의 관리들을 자체의 감사회에 선입하여들이려고 애쓴다.»①

프랑스은행업에 있어서도 형태는 좀 다르지만 역시 이와 같은 기구들을 볼수 있다. 례컨대 프랑스 3대은행중의 하나인 《리옹신용대부은행》은 자체내에 특별한 《금융정보수집부》(service des études financières)를 설치하였다. 그 수집부에서는 50명이상의 기사, 통계학가, 경제학자, 법률학자 및 기타가 항상 일하고있다. 그 수집부의 경비는 매년 60만~70만프랑에 달한다. 이 수집부는 8개의 과로 조직되여있다. 한 과는 전문적으로 공업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과는 일반통계를 연구하며 셋째 과는 철도회사와 기선회사를 연구하고 넷째 과는 유가증권을 연구하고 다섯째 과는 재정보고서를 연구하는 등등이다.②

그 결과 한편으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 혹은 엔.이.부하린의 적절한 표현에 의하면 그의 유착이며 다른편으로는 참으로 《전능의 성격》을 띤 기구에로의 은행의 성장전화이다. 우리는 이 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연구한 저술가 야이델스의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인용하는것이 필요

① 야이델스의 앞에서 인용한 책, 157페지

② 프랑스은행에 대한 오이겐 카우프만의 론문에서 인용—잡지 《은행》, 1909년, 제2호, 851페지 및 이하 각 페지를 보라.

하다고 생각한다.

《공업과의 련계를 그 총체에서 관찰한 결과에 우리는 공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금융기구들이 전능의 성질을 띠고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형태의 은행과는 반대로 또 은행은 자체의 지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느 방면의 업무 혹은 어느 공업부문에 전문화되여야 한다고 저작에 가끔 제기되는 그러한 요구와는 반대로 대은행들은 언제나 공업기업과의 련계를 가급적으로 부동한 지역에서와 부동한 생산부문에서 가지려고 노력하며 또 개별적기업의 력사적정황이 같지 않은데서 생기는 각 지방사이의, 혹은 각 공업부문사이의 자본분배에 있어서의 그 불균형현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하나의 경향은 은행과 산업과의 련계를 일반적현상으로 되게 하려는것이고 다른 하나의 경향은 그 련계를 더욱더 공고화시키고 강화시키려는것이다. 이 두가지 경향은 6대은행에서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벌써 적지 않은 규모로 또는 동일한 정도로 실현되여있다.》

공상업계로부터 은행의 《테로주의》에 대한 원한을 자주 듣게 된다. 다음의 실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은행이 《명령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원한을 듣게 되는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1901년 11월 19일에 소위 베를린 D은행(4대은행의 명칭이 모두 D자로부터 시작된다.)의 하나는 《북부-서부-중부독일세멘트신지케이트》의 리사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였다. 《본월 18일 당신들이 모 신문에 발표한 공고에 의하여 알수 있다싶이 본월 30일에 개최될 귀 신지케이트의 전체대회에서 우리로서는 접수할수 없는 귀 기업에서의 개혁을 가져오게 되는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신지케이트에 대여하여오던 신용대부를 정지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바이다.… 만일 이번 대회에서 우리로서는 접수할수 없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며 또 앞으로도 이런 결의를 채택하지 않을 타당한 보증을 준다면 우리는 귀 신지케이트에 새 신용대부를 대여할데 대하여 담판할 용의를 가지고있다.》①

사실 이것 역시 대자본의 압박에 대한 소자본의 원망이기는 하지만 다만 이 경우에는 《소》자본의 부류에 하나의 온전한 신지케이트가 들어갔을뿐이다! 소자본과 대자본간의 낡은 투쟁은 새로운, 비할바없이 더 높은 발전단계에서 회복되였다. 수십억의 자본을 가진 대은행기업들이 이전과는 전혀 비할수 없는 수단으로써 기술적진보를 촉진시킬수 있다는것은 물론이다. 례컨대 은행은 전문적기술연구협회들을 설립하는바이 연구의 성과는 물론 오직 그의 《친선적》산업기업소들만이 리용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기관들로서는 《전기철도문제연구협회》, 《중앙과학기술연구국》 등이 있다.

대은행의 지도자들자신도 국민경제에 어떤 새로운 조건들이 형성되는것을 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조건들앞에서 무능력하다.

야이델스는 이렇게 쓰고있다. 《근년에 대은행들의 경리와 감사들이 변경된 정형을 관찰하여온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공업의 전반적발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것을 대은행들의 필요한 그리고 더욱 긴급한 임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중에로 권력이 점차 넘어간다는것,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은행의 구경리들간에는 업무면에서, 흔히는 개인적관계에 있어서까지도 의견상이가 생긴다는것이다. 사실상 문제로 되는것은 신용대부기관으로서의 은행이 공업의 생산과정에 간섭함으로써 그자체가 손실을 받지 않는가, 또는 신용

① 오스카르 슈틸리히박사의 저서 《화폐제도와 은행제도》, 1907년 베를린판, 148페지

대부의 중개작용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공업경기의 맹목적지배를 받게 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은행자체의 견실한 원칙과 확실한 리윤이 희생되지 않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은행의 오랜 지도자들중의 다수는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새 지도자들중의 다수는 공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을 현대적대공업의 출현에 따라 대은행과 최신의 공업은행업무가 산생되지 않을수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인것이라고 간주한다. 그 쌍방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는것은 오직 대은행들의 새로운 업무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도, 구체적목표도 아직 없다는 그 점뿐이다.»①

구자본주의는 이미 때가 지난것으로 되였다. 신자본주의는 그 어떤 무엇에로의 이행이다. 독점을 자유경쟁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확고한 원칙과 구체적목표》를 발견하려는것은 물론 희망없는 일이다. 실천가들의 고백은 자본주의의 변호자인 슐쩨-게페르니쯔, 리프만 및 그와 류사한 《리론가》들의 《조직된》 자본주의의 매력에 대한 관방어조의 구가와는 아주 다르다.

대은행들의 《새로운 업무》는 어느때에 완전히 확립되였는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야이델스에게서 매우 정확한 대답을 얻을수 있다.

《새로운 내용, 새로운 형태, 새로운 기관들을 가진, 즉 집권적인 동시에 분권적인 원칙에 의하여 조직된 대은행들을 가진 산업기업간의 련계가 국민경제의 대표적현상으로 된것은 19세기 90년대이전의 일인것은 아니다.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 출발점은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융합〉되여 은행이 산업정책을 써야 한다는 고려에서 처음으로 분권적조직이라는 새

① 야이델스의 앞에서 인용한 책, 183~184페지

로운 형태를 채용한 1897년의 일이라고 말할수 있다. 혹은 이 출발점을 좀더 후일의 일이라고도 할수 있다. 왜냐 하면 오직 1900년의 공황이 산업과 은행업의 집적과정을 대대적으로 촉진시켰으며 그 과정을 공고화시켰으며 처음으로 은행과 산업과의 련계를 대은행들의 진정한 독점으로 전화시켰으며 그 련계를 보다 현저히 밀접하게 하고 강력하게 한때문이다.»①

그러므로 20세기는 구자본주의로부터 신자본주의에로의, 자본일반의 지배로부터 금융자본의 지배에로의 전환점이다.

3.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정치

힐페르딩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산업자본의 더욱더 많은 부분은 이 자본을 사용하는 산업가들에게는 속하지 않게 된다. 산업가들은 오직 은행을 통하여서만 자본을 지배할수 있으며 산업가들에 대하여 말하면 이 자본의 소유자는 은행이다. 다른편으로는 은행도 자기 자본의 더욱더 많은 부분을 산업에 고정시키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은행은 더욱더 산업자본가로 된다. 이런 방식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화된 은행자본, 즉 화폐형태의 자본을 나는 금융자본이라고 명명한다.» «금융자본이란 은행이 지배하고 산업가에 의하여 사용되는 자본이다.»②

이 정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 즉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독점에 달하게 되며 또 달하게 된 그러한 아주 높은 정도로 발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않은것만큼 완전치 못하다. 그러나 힐페르딩의 전체 론술에는 특히 이 정의를 취급한 본장이전의 두장에는 **자본가적독점체**의 역할이 강조되여있다.

---

① 야이델스의 앞에서 인용한 책, 181페지

② 에르. 힐페르딩의 저서 《금융자본》, 1912년 모스크바판, 338~339페지

생산의 집적, 그 집적으로부터 장성하는 독점, 은행과 산업과의 융합 혹은 유착—이것이 바로 금융자본이 산생한 력사이며 또한 금융자본의 개념의 내용이다.

이제는 자본주의적독점체의 《지배》가 상품생산과 사적소유의 일반적환경속에서 어떻게 불가피적으로 금융과두정치의 지배로 되는가 하는것을 론술하는데로 넘어가야 하겠다. 지적하여야 할것은 독일(그러나 독일 하나뿐만아니다.)의 자산계급적과학계의 대표자들인 리쎄르, 슐쩨-게페르니쯔, 리프만 등이 례외없이 제국주의와 금융자본의 변호자라는것이다. 그들은 과두정치가 형성되는 《내막》, 과두정치가 취하는 수단, 과두정치가 획득하는 《정당한 그리고 부당한》 수입액, 과두정치와 국회와의 련계 등을 폭로하지 않고 도리여 그것을 은폐하며 미화한다. 그들은 그럴듯하고도 애매한 문구로써, 은행경리들의 《책임감》에 호소함으로써, 프로씨아관리들의 《의무감》에 대한 칭찬으로써, 《감독》이나 《조례》에 관한 전혀 중대치 않은 사소한 법안을 열심히 분석함으로써 또한 례컨대 리프만교수가 쓰게 된 다음과 같은 《과학적》정의따위의 쓸데없는 리론적유희로써 《어려운 문제》를 회피한다.…《상업이란 재부를 수집하며 재부를 보관하며 재부를 사람들이 지배하도록 하는 영업적활동이다.》①(밑점과 고시크체는 교수의 저서에 있는 그대로이다.)… 그러면 상업은 아직 교환을 알지 못한 원시인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도 있다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금융과두정치의 놀랄만한, 지배에 대한 놀랄만한 사실들은 너무도 확연한것이기때문에 모든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자산계급적관점

---

① 에.프. 리프만의 앞에서 인용한 책, 476페지

에서 쓴것이지만 그래도 금융과두정치의 진상을 대략 그려내며 비판—물론 시정배적비판—하는 서적들이 나왔다.

더욱 중요한것으로 제기해야 할것은 이미 앞에서 몇마디 말한 그 《참여제》인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마 누구보다도 먼저 주의를 돌린 독일경제학자 하이만은 문제의 실질을 어떻게 서술하였는가를 보자.

《지도자는 총회사(문자그대로는 《어머니회사》)를 통제하고, 총회사는 또 그에게 의존하고있는 회사(《딸회사》)들을 지배하고 그 딸회사들은 〈손녀회사〉들을 지배하는 등이다. 이러므로 그리 많지 않은 자본을 가지고서도 거대한 생산부문을 지배할수 있다. 사실에 있어서 만일 자본의 50%를 점유하고도 주식회사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것이 항상 있는 일이라면 〈손녀회사〉들의 800만의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다만 100만의 자본을 가지면 될것이다. 만일 이러한 〈교착〉이 더 연장된다면 100만의 자본으로써 1,600만, 3,200만 나아가서는 더 많은 자본을 통제할수 있는것이다.》①

경험이 보여주는바에 의하면 사실에 있어서 주권의 40%만 가지면 그 주식회사의 업무를 좌우할수 있다.② 왜냐 하면 분산되여있는 일부분의 소주주들은 사실상 그 주주총회 등에 전혀 참가할수 없기때문이다. 자산계급적궤변가들과 기회주의적인 《사이비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른바 주권소유의 《민주화》로부터 《자본의 민주화》와 소생산의 역할 및 의의의 강화 등등을 기대(혹은 기대한다고 단언하고있다.)하고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 주권소유의 《민주화》는 금융과두정치의 실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선

---

① 한스 기데온 하이만의 저서 《독일대강철공업에 있어서의 혼합기업》, 1904년, 슈투트가르트판, 268~269폐지

② 리프만의 앞에서 인용한 책, 제1판, 258폐지

진적인 또는 보다 오래고 《경험있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법률이 보다 소액의 주권발행을 허가하는것이다. 독일에서는 1,000마르크이하의 주권발행을 법률상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일의 금융거두들은 법률이 1파운드(20마르크, 약 10루블)의 주권발행을 허가하는 영국을 부러워한다. 독일의 가장 큰 산업가이며 《금융대왕》의 한사람인 지멘스는 1900년 6월 7일의 독일국회회의에서 《1파운드의 주권은 브리텐제국주의의 기초이다.》①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에서 맑스주의의 창시자로 인정되고있는 명예스럽지 못한 모 저술가350가 제국주의는 어떤 민족의 나쁜 근성이라고… 생각한것에 비하면 이 상인이 제국주의가 무엇인가를 보다 심각히, 보다 《맑스주의적으로》 리해하고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참여제》는 독점가들의 세력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킬뿐만아니라 더럽고 비루한짓을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하며 대중을 착취할수 있게 한다. 왜냐 하면 《어머니회사》의 지도자들은 《딸회사》에 대하여 형식상, 즉 법률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딸회사》는 《독립적인것으로》 인정되지만 그들은 《딸회사》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수 있기》때문이다. 이제 독일의 잡지 《은행》의 1914년 5월호에서 취한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카쎌에 있는 〈용수철강재제조주식회사〉는 몇해전까지는 독일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기업의 하나로 인정되였었다. 그런데 관리방법이 졸렬하였기때문에 리익배당이 15%에서 0%에까지 떨어지게 되였다. 그후에 알고보니 그 리사회는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상의 자본이 수십만마르크에 불과한 그의 〈딸회사〉의 하나인 〈하쎄야〉에 600만마르크를 대부하여주었다.

---

① 슐쩨-게페르니쯔의 앞에서 인용한 책—《사회경제개론》, 제5권, 제2호, 110페지를 보라.

〈어머니회사〉주식자본의 거의 3배이상이나 되는 이 대부가 〈어머니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도무지 기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장부의 은폐는 법률상으로 합법적이였으므로 만 2년이나 계속될수 있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상법(商法)의 어떠한 조항에도 위반되지 않기때문이다. 책임자의 자격으로 허위대차대조표에 서명한 감사장은 카쎌상업회의소의 회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 주주들이 〈하씨야〉회사에 대부한것을 알게 된것은 오직 그 대부가 실책〔저자는 실책이라는 두자를 인용부안에 넣어야 할것이였다.〕이였다는것이 판명된후, 즉 〈용수철강재제조주식회사〉의 주권이 이 내막을 잘 아는자의 손으로부터 투매되여 주권시세가 거의 100%나 폭락된 오랜후의 일이였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례사로 하는 일인 대차대조표놀음의 이 전형적실례는** 주식회사의 리사회가 왜 개인기업가보다 아주 경솔하게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준다. 대차대조표작성의 최신방법은 리사들로 하여금 그 모험적행동을 보통주주들에게 은폐할수 있게만 하는것이 아니라 또한 주되는 관계자들로 하여금 모험이 실패되는 경우에는 주권을 제때에 투매하는 방법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수도 있게 한다. 그러나 개인기업가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자신이 책임을 진다.…

많은 주식회사들의 대차대조표는 중세기시대로부터 알려져있는 팔림프쎄스트—그우에 쓴 문자를 지워던지지 않고서는 그 문자의 뒤에 씌여져있는 진정한 기호를 해득할수 없다.—와 같다.》(팔림프쎄스트는 본래 써놓은 문자를 지워버리고 그 우에다가 다른 글을 쓴 양피지이다.)

《대차대조표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간

단한, 그렇기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있는것은 〈딸회사〉들을 설립하거나 병합함으로써 통일된 기업을 몇 부분에 분할하는것이다. 여러가지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목적의 견지로 보아서 이 방법이 유리한것은 이 방법을 채용하지 않는 대회사는 현시에 있어서는 례외로 되여있다는 사실로써도 극히 명백하다.》①

이 방법을 가장 광범히 리용하고있는 가장 큰 독점회사의 례로서 저자는 유명한 《전기총회사》(즉 A.E.G.—이 회사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할것이다.)를 들었다. 1912년의 계산에 의하면 이 회사는 175～200개의 회사에 참여하여 그것을 물론 지배하였고 그리고 총자본 약 15억마르크를 장악하였었다②.

각종 감독조례의 제정, 대차대조표의 공포, 일정한 대차대조표양식의 작성, 감독기관의 설립 등등에 관한 모든 규정은 여기서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선량한 의도를 가진—자본주의를 옹호하며 미화하려는 선량한 의도를 가진—교수들과 관리들이 공중의 주의를 돌리게 하는데 리용된다. 왜냐 하면 사적소유는 신성한것이여서 누구나 주권을 사며 팔며 교환하며 저당잡히는것 등등을 금지할수 없기때문이다.

《참여제》가 로씨야대은행들에서 어떠한 정도에까지 발전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15년동안 《로씨야-중국은행》에서 근무

① 엘. 에쉬웨게의 《딸회사》(L. Eschwege: 《Tochtergesellschaften》)—잡지 《은행》, 1914년, 제1호, 545페지를 보라.

② 쿠르트 하이니히의 《전기트레스트의 길》(Kurt Heinig, 《Der Weg des Elektrotrusts》)—잡지 《신시대》24, 1912년, 제30년권, 제2분권, 484페지를 보라.

하였고 1914년 5월에 《대은행과 세계시장》①이라는 그리 적절하지 못한 표제로 저서를 출판한 에.아가드가 제공한 자료에서 판단할수 있다. 저자는 로씨야의 대은행들을 두개의 큰 류형으로 즉 (ㄱ) 《참여제》하의 은행과 (ㄴ) 《독립적》인 은행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독립》이라는것을 외국은행들에 의뢰하지 않는것이라고 임의로 리해하였다. 저자는 또 첫 류형을 세개의 작은 류형으로 즉 (1) 독일의 참여, (2) 영국의 참여, (3) 프랑스의 참여로 구분하였다. 그는 여기서 각 해당국들의 국외대은행들의 《참여》와 지배를 념두에 두었다. 저자는 은행의 자본을 《생산적》투자(공상업에)와 《투기적》투자(취인소업무와 금융업무에)로 구분하였다. 그는 자기의 본색인 소자산계급적-개량주의적견지로부터 자본주의를 보존하면서도 마치 전자의 투자를 후자의 투자로부터 분리시킬수 있고 그리고 후자의 투자를 제거할수 있는듯이 생각하였다.

저자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은행의 자산(1913년 10~11월 결산에 의함)

(단위 100만루블)

로씨야은행종류	투하자본		
	생산적	투기적	합 계
(ㄱ1) 4개 은행: 씨비리상업은행, 로씨야은행, 국제은행, 할인은행………	413.7	859.1	1,272.8
(ㄱ2) 2개 은행: 공상은행, 로씨야-			

① 에. 아가드의 저서 《대은행과 세계시장. 로씨야국민경제와 독일-로씨야관계에 대한 대은행의 영향의 견지에서 본 세계시장에서의 대은행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의의》(E. Agahd: 《Groβbanken und Weltmarkt. Die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Bedeutung der Groβbanken im Weltmarkt unter Berücksichtigung ihres Einflusses auf Ruβlands Volkswirtschaft und die deutsch-russichen Beziehungen》), 1914년 베를린판.

영국은행	239.3	169.1	408.4
(ㄱ3) 5개 은행: 로씨야-아세아은행, 싼크트 뻬쩨르부르그사립은행, 아조브-돈은행, 모스크바련합은행, 로씨야-프랑스상업은행	711.8	661.2	1,373.0
(11개 은행)합계 (ㄱ)=	1,364.8	1,689.4	3,054.2
(ㄴ) 8개 은행: 모스크바상인은행, 볼가-까마은행, 융케르주식은행, 싼크트 뻬쩨르부르그상업은행(이전의 바웰베르그은행), 모스크바은행(이전의 랴부쉰스끼은행), 모스크바할인은행, 모스크바상업은행, 모스크바사립은행	504.2	391.1	895.3
(19개 은행) 총계	1,869.0	2,080.5	3,949.5

이 자료에 의하면 대은행들의 《활동》자본을 구성하는 거의 40억루블중에서 그 4분의 3이상, 즉 30억루블이상은 실제상 외국은행들, 주로는 빠리의 여러 은행(유명한 3대은행, 즉 빠리련합은행, 빠리-화란은행, 총회사)과 베를린의 여러 은행(특히 독일은행과 할인회사)의 《딸회사》인 은행들이 차지하고있다. 로씨야의 2개 대은행, 즉 《로씨야은행》(《로씨야대외무역은행》)과 《국제은행》(《싼크트 뻬쩨르부르그국제상업은행》)들은 《4분의 3은 독일자본에 의하여 활동하면서》 1906년부터 1912년까지에 그 자본을 4,400만루블로부터 9,800만루블까지, 그 적립금을 1,500만루블로부터 3,900만루블까지 각각 증가시켰다. 전자는 베를린 《독일은행》의 《콘체른》에 속하고 후자는 베를린 《할인회사》의 《콘체른》에 속하였다. 선량한 아가드는 베를린은행들이 주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그로 하여 로씨야의 주주들을 무력해지게 한것을 몹시 분개해하였다.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언제나 제일 기름진것을 거둬먹는것은 물론이다. 례컨대 베를린의 《독일은행》은 씨비리상업은행의 주권을 베를린에서 발행하여 자기의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1년후에 193%의 시세, 즉 거의 2배나 되는 시세로 팔아서 근 600만루블의 리윤—힐페르딩이 명칭한바의 《창립리윤》—을 《벌었다》.

이 저자는 뻬쩨르부르그대은행들의 전체 《실력》을 82억 3,500만루블로, 거의 82억 5,000만루블로 계산하였고 동시에 그는 또 외국은행들의 《참여》를,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의 지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프랑스은행이 55%, 영국은행이 10%, 독일은행이 35%이다. 저자의 계산에 의하면 이 기능자본액 82억 3,500만중에서 36억 8,700만, 즉 40% 이상이 신지케이트들, 즉 석탄신지케이트, 제철업신지케이트, 석유업신지케이트, 야금업신지케이트, 세멘트업신지케이트에 속한다. 그런즉 자본주의적독점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은행자본과 산업자본과의 결합은 로씨야에서도 거족적진전을 가져왔다.

소수인의 수중에 집적되여 사실상 독점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자본은 기업창립, 유가증권발행, 공채취급 등등에 의하여 거대한 그리고 더욱더 많아지는 리윤을 획득함으로써 금융과두정치의 지배를 튼튼히 하고 독점자들을 위한 공물을 전체 사회에 부과한다. 다음에 보여주는것은 힐페르딩이 지적한 미국트레스트들의 《경영》에 관한 무수한 실례중의 하나이다. 1887년에 해브메이어는 15개의 소회사를 합병시켜 자본총액 650만딸라를 가진 사탕트레스트를 창립하였다. 그 트레스트의 자본은 미국인의 말대로 하면 소위 《물을 타서》 5,000만딸라로 증가되였다. 이러한 《과대자본화》는 장래의 독점리윤을 타산한것으로 그것은 마치 같은 미국에서 강철트레스트가 더욱더

많은 철광산을 매수하면서 장래의 독점리윤을 타산하는것과 같은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사탕트레스트는 독점가격을 규정하고 또한 7배로 《물을 탄》 자본에 대하여 10%의 리익배당, 즉 트레스트창립당시에 실제로 투하한 자본에 대한 약 70%의 리익배당을 할만한 그러한 거액의 수입을 얻었다! 1909년에 이 트레스트의 자본은 9,000만딸라였다. 22년동안에 그 자본은 10몇배로 증가되였다.

프랑스에 있어서 《금융과두정치》의 지배(《프랑스의 금융과두정치를 반대하여》—이것은 리지스의 유명한 저서의 표제인데 1908년에 제5판이 출판되였다.)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졌을뿐이다. 4개의 최대은행은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대적독점권이 아니라 《절대적독점》권을 가지고있다. 사실상 이것은 《대은행들의 트레스트》이다. 독점은 증권발행에 의한 독점리윤을 보장한다. 차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관국은 보통 그 총액의 90%이상은 받지 못하고 10%는 은행과 기타 중개자들에게로 들어간다. 은행들은 4억프랑의 중국-로씨야공채로부터는 8%, 8억프랑의 로씨야공채(1904년)로부터는 10%, 6,250만프랑의 마로끄공채(1904년)로부터는 18.75%의 리윤을 얻었다. 소규모의 고리대자본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자본주의는 대규모의 고리대자본으로써 그 발전을 끝마치는것이다. 《프랑스인들은 구라파의 고리대금업자들이다.》라고 리지스는 말하였다. 경제생활의 모든 조건들은 자본주의의 이 변질로 인하여 심각한 변화를 일으켰다. 인구, 공상업 및 해운업이 정체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라》는 고리대업에 의하여 부유하여질수 있다. 《800만프랑의 자본을 대표하는 50명의 사람은 4개 은행의 20억프랑을 지배할수 있다.》 우리가 이미 말한 《참여》제도 역시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최대은행의 하나인 《총회사》(Sociéte Générale)는 《딸회사》인 《애

급사탕공장》의 채권 6만 4,000장을 발행하였다. 발행시세는 150%, 즉 은행은 매루블에 대하여 50꼬뻬이까의 리득을 보았다. 이 《딸회사》의 리익배당은 후에 헛것이라는것이 발견되였고 그리하여 《공중》은 9,000만프랑 내지 1억프랑의 손실을 보았다. 《〈총회사〉의 한 경리는 〈사탕공장〉의 리사》였었다. 이 저자가 《프랑스공화국은 금융군주국이다.》, 《금융과두정치가 일체를 지배하고있으며 그것은 신문잡지도 정부도 지배한다.》① 라고 결론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가증권의 발행은 금융자본의 주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이 업무에 의한 특별히 높은 리윤률은 금융과두정치의 발전과 공고화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독일잡지 《은행》은 《국내에는 외채발행의 중개와 견줄만한 높은 리윤을 얻을수 있는 영리사업이라고는 하나도 없다.》②라고 하였다.

《유가증권발행업과 같은 그러한 높은 리윤을 얻을수 있는 은행업무는 하나도 없다.》 잡지 《독일경제학자》의 자료에 의하면 공업기업의 유가증권발행에 대한 년평균리윤은 아래와 같다.

1895년——38.6%	1898년——67.7%
1896년——36.1%	1899년——66.9%
1897년——66.7%	1900년——55.2%

《1891~1900년의 10년동안에 독일의 공업유가증권발행으로 10억이상을 〈벌어〉내였다.》③

---

① 리지스의 저서 《프랑스의 금융과두정치를 반대하여(Lysis: 《Contre l'oligarchie financière en France》), 1908년, 빠리 제5판, 11, 12, 26, 39, 40, 48페지 및 기타.

② 잡지 《은행》, 1913년, 제7호, 630페지

③ 슈틸리히의 앞에서 인용한 책, 143페지 및 웨. 좀바르트의 저서 《19세기에 있어서의 독일국민경제》 (W. Sombart: 《Die deutsche Volkswirtschaft im 19. Jahrhundert》), 1909년, 제2판, 526페지, 부록 8.

공업의 호경기시기에는 금융자본의 리윤이 무한히 증대되며 불경기시기에는 소규모적인 기업과 튼튼치 못한 기업들은 몰락되고 대은행들은 그 기업들을 렴가로 수매하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정리》 또는 《재조직》에 《참여》한다. 결손을 보는 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자본은 감가된다. 다시말하면 수입은 보다 소액의 자본에 대하여 분배되고 앞으로도 보다 소액의 자본에 대하여 수입을 계산한다. 만일 수입이 령에까지 떨어졌을 때에는 새 자본을 인입하는것이다. 이 새 자본은 수입이 비교적 적은 낡은 자본과 결합되여 이제는 벌써 충분한 수입을 내게 되는것이다》. 힐페르딩은 이에 다음과 같이 보충하고있다. 《모든 이 정리와 재조직은 은행에 대하여 두가지 의의를 가진다. 즉 첫째로는 유리한 업무이고, 둘째로는 그러한 곤궁에 빠진 회사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①

례를 들면 도르트문드의 《련합》광업주식회사는 1872년에 창립되였다. 거의 4,000만마르크의 주식자본을 발행하였는바 그 첫해에 12%의 리익배당이 있었을 때 그 주권시세는 170%에까지 올라갔다. 금융자본은 제일 기름진것을 거둬먹는데서 2,800만마르크의 푼돈을 벌었다. 이 회사를 창립할 때에 주요한 역할을 논것은 독일의 가장 큰 은행인 《할인회사》로서 그 회사는 순조롭게 자본을 3억마르크에까지 증대시켰다. 그후에 《련합》회사의 리익배당은 령으로 떨어졌다. 주주들은 자본을 《감소할것》을, 다시말하면 자본의 전부를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일부분을 손실보는데 찬성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여러차례 《정리》한 결과 30년동안에 《련합》회사의 장부로부터 7,300만마르크이상이 없어졌다. 《지금에 와서는 이 회사의 최

① 《금융자본》, 172페지

초의 주주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그 주권의 액면가치의 겨우 5%를 가지고있다.»① 그런데 은행들은 《정리》가 있을 때마다 《돈을 벌었다》.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대도시부근의 토지에 대한 투기도 또한 금융자본의 특히 유리한 업무이다. 이 경우에 은행의 독점은 지대의 독점 및 교통운수업의 독점과 결합된다. 왜냐 하면 지가(地价)의 등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할수 있는 가능성 등은 무엇보다도 도시중심과의 교통의 편리성여하에 달리며 그리고 그 교통운수업은 참여제와 경리직무의 배치에 의하여 그 은행들과 련결되여있는 대회사들의 수중에 있는 까닭이다. 토지의 매매, 토지의 저당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잡지 《은행》의 기고자인 독일저술가 엘.에쉬웨게가 말한 《진구렁》이라는것이 생긴다. 즉 도시부근의 토지에 대한 열광적투기, 건축회사들의 파산(베를린의 《보스와우-크나우에르회사》의 파산과 같은것이다. 이 회사는 《가장 견실하고 가장 대규모적인》 《독일은행》(Deutsche Bank)의 방조에 의하여 1억마르크에 달하는 돈을 모아쥐였던것이다. 이 은행은 물론 《참여》제에 의하여, 다시말하면 은밀히 배후에서 활동하다가 《겨우》 1,200만마르크의 손실을 당하고 모면해나왔던것이다.) 그리고 사기적인 건축회사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소기업주와 로동자들의 령락, 토지증명서와 시의회의 건축허가증 및 기타 등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성실한》 베를린의 경찰국 및 행정기관과 결탁하는 등이 생기는것이다②.

---

① 슈틸리히의 앞에서 인용한 책, 138페지와 리프만의 앞에서 인용한 책, 51페지

② 엘. 에쉬웨게의 《진구렁》(L. Eschwege: 《Der Sumpf》)—잡지 《은행》, 1913년, 952페지, 동 잡지, 1912년, 제1호, 223페지 및 이하 각 페지를 보라.

구라파의 교수들과 선량한 자산자들이 그처럼 위선적으로 증오하는 《미국식풍습》은 금융자본시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모든 나라의 대도시의 풍습으로 되였다.

1914년초에 베를린에서는 《운수업트레스트》가, 즉 베를린의 3개 운수기업(시 전기철도회사, 전차회사 및 공공마차회사)사이에 《리익협동체》가 형성된다는 말이 있었다. 잡지 《은행》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는것을 우리는 공공마차회사의 대부분 주권이 다른 두 운수회사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때부터 알고있었다.… 이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운수업의 통일적조절에 의하여 비용의 절약—그 일부분은 결국 공중의 리익으로 될수 있는—을 기대하고있다는것을 전적으로 믿을수 있다. 그러나 형성되는 운수업트레스트의 배후에는 은행들이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문제는 복잡하여진다. 그 은행들은 임의로 자기들이 독점한 교통운수업을 자기들의 토지매매의 리익에 복종시킬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것인가를 확신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시전기철도회사의 창립시에 이 회사의 창립을 추동한 대은행의 리익이 침투되여있다는 그것만 상기하여도 충분하다. 실로 이 운수기업의 리익은 토지매매의 리익과 교착되여있었다. 왜냐 하면 그 철도의 동부선은 그 부설이 확정되면 은행이 자체와 몇몇 참가자들을 위하여 막대한 리익을 보고 판매할수 있는 그 토지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여있었던것이기때문이다.…》①

독점이 일단 형성되여 수십억의 자본을 좌우하게 되면 그 독점은 정치제도나 또는 다른 어떠한 《특수성들》에도 전혀 관계없이 절대불가피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침투해간

① 《운수업트레스트》(《Verkehrstrust》)—잡지 《은행》, 1914년, 제1호, 89페지를 보라.

다. 독일의 경제학저작은 프랑스의 빠나마사건351이나 미국의 정치적부패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프로씨아관리들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비굴한 자찬을 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실은 독일은행업무를 론한 자산계급출판물까지도 단순한 은행업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례컨대 관리들이 은행에로 전업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경우를 보고서 《은행에로의 지향》에 관하여, 즉 《관리들이 베렌거리〔《독일은행》이 있는 베를린의 거리〕의 따뜻한 자리를 마음속으로 동경하고서야 그들의 성실성은 과연 어떠한것일가?》①라고 항상 쓰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잡지 《은행》의 출판자인 알프레드 란스부르그는 1909년에 《비잔틴주의의 경제적의의》라는 론문을 썼다. 이 론문에는 윌헬름2세가 팔레스티나에 려행간것과 《이 려행의 직접적결과인 바그다드철도부설, 즉 우리가 범한 모든 정치적오유보다도 〈포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있는 이 불행한 〈독일의 기업적정신의 대사건〉》이 지적되여있다(《포위》라는것은 독일을 고립시키고 제국주의적반독일동맹권으로 독일을 포위하려고 노력하던 에드워드7세의 정책을 가리키는것이다)②. 우리가 이미 우에서 말한 그 잡지의 기고자 에쉬웨게는 1911년에 《재벌과 관리》라는 론문을 썼는데 거기서 독일관리 될케르의 사건을 폭로하였다. 이 될케르는 카르텔문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의 특출한 활동력으로써 얼마후에는 가장 큰 카르텔인 강철신지케이트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 결코 우연한것이 아닌 이러한 사건들은 그 자산계급저술가로 하여금 《독일헌법으로써 보장된 경제적자유는 경제적생활의 많은 령역에서 내용이 없는 빈말로 되였다.》는것과 그리고 재벌의 지

---

① 《은행에로의 지향》(《Der Zug zur Bank》)—잡지 《은행》, 1909년, 제1호, 79페지를 보라.

② 잡지 《은행》, 301페지

배가 확립된 곳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적자유조차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인민으로 되지 않도록 보증할수 없을것이다.》① 라는것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로씨야에 관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실례만을 들려고 한다. 몇해전에 모든 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의하면 신용대부국장 다뷔도브가 정부의 직무를 사직하고 어느 대은행에 취직하였는데 계약에 의하면 그 봉급은 몇해동안에 100만루블을 초과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신용대부국은 《전국의 모든 신용기관의 업무를 통일》하고 그리고 수도에 있는 은행들에 8억～10억루블의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다②.…

자본의 점유와 자본의 생산에로의 투하와의 분리, 화폐자본과 산업자본 혹은 생산자본과의 분리, 화폐자본의 수입으로만 생활하는 금리생활자와 기업가들 및 자본운용에 직접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분리, 이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특성이다. 제국주의 혹은 금융자본의 지배라는것은 이 분리가 대단한 정도에 달한 그러한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이다. 자본의 모든 다른 형태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세는 금리생활자와 금융과두정치의 지배적지위를 의미하는것이며 금융의 《실력》을 가진 소수의 나라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돌출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 과정이 얼마만한 정도로 진행되고있는가는 각종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통계자료로써 판단할수 있다.

아.네이마르크는 《국제통계연구소공보》③에 전 세계의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극히 상세하고 완전한 그리고 대조비교할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자료는 그후에 여러 번 경제학

① 잡지 《은행》, 1911년, 제2호, 825페지 및 1913년, 제2호, 962페지

② 에. 아가드의 앞에서 인용한 책, 202페지

③ 《국제통계연구소공보》(《Bulletin de l'institut international de statistique》), 1912년 헤그판, 제19권, 제2책. 제2단의 소국가들에 관한 자료는 1902년 기준에 의하여 취하였는데 20%를 가산하였다.

저작에 발취되여 인용되였었다. 40년간의 총계는 다음과 같다.

매 10년간의 유가증권발행액(단위 10억프랑)

1871～1880년	76.1
1881～1890년	64.5
1891～1900년	100.4
1901～1910년	197.8

19세기 70년대에 전 세계 유가증권발행총액은 프로씨아-프랑스전쟁과 또 그후에 있은 독일의 기업범람기와 관련된 공채발행에 의하여 특히 증가되였다. 대체로 보아 19세기의 마지막 30년간의 증가는 비교적 그다지 급속하지 못하였고 20세기의 첫 10년동안에 비로소 대대적으로 증가되였는바 10년간에 거의 2배로 증가되였다. 이와 같이 20세기초는 우리가 이미 론술한바와 같은 다만 독점체(카르텔, 신지케이트, 트레스트)의 장성이라는 점에서뿐만아니라 금융자본의 장성이라는 점에서도 또한 전환기였던것이다.

네이마르크는 1910년의 세계유가증권총액을 약 8,150억프랑으로 계산하였다. 그는 대략 중복된것을 공제하고 그 총액을 5,750억～6,000억프랑에까지 감소시켰다. 국가별 분포는(총액을 6,000억으로 하여) 다음과 같다.

1910년의 유가증권총액(단위 10억프랑)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영국	142	479 (영국·미국·프랑스·독일)	화란	12.5
미국	132		벨지끄	7.5
프랑스	110		에스빠냐	7.5
독일	95		스위스	6.25
로씨야	31		단마르크	3.75
오지리-웽그리아제국	24		스웨리예, 노르웨이, 로므니아 및 기타	2.5
이딸리아	14			
일본	12		합계	600.0

이 수자를 보면 약 1,000억~1,500억프랑의 유가증권을 가진 4개의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국가가 얼마나 돌출한가가 대번에 눈에 뜨인다. 그중에서 두 나라, 즉 영국과 프랑스는 가장 오랜 자본주의국가이며 우리가 후에 보게 되는바와 같이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가진 자본주의국가이며 다른 두 나라, 즉 미국과 독일은 발전의 속도와 생산에서의 자본주의적독점의 보급정도로 보아서 선진적인 자본주의국가이다. 이 4개 국가는 합계 4,790억프랑, 즉 전 세계 금융자본의 약 80%를 가지고있다. 나머지 세계의 거의 전부는 이 4개 국가—국제적은행가들, 세계금융자본들의 이 4개 《기둥》—에 대하여 이렇게나 저렇게나 채무자와 공납자의 역할을 놀고있다.

금융자본에로의 예속과 련계의 국제적망을 조성함에 있어서 자본의 수출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특히 론할 필요가 있다.

4. 자본의 수출

자유경쟁이 완전히 지배하던 구자본주의의 특징은 상품의 수출이였다. 독점이 지배하는 최신자본주의의 특징은 자본의 수출이다.

자본주의란 로동력도 상품으로 되는 상품생산의 최고발전단계이다. 국내적교환 특히는 국제적교환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개별적기업, 개별적공업부문, 개별적국가의 발전에 있어서의 불균형성과 비약성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불가피적인것이다. 처음에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자본주의국가로 되였고 19세기중엽에 와서는 자유무역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의 공장》으로 되여 다른 모든 나라에 완제품을 공급하고 그대신 이 나라들은 영국에 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그러나 영국의 이 독점은 벌써 19세기의 마지막 25년간에 파괴되였다. 왜냐 하면 다른 여러 나라들이 《보호》관세로써 자위하여 자립적자본주의국가로 발전된 까닭이다. 우리는 20세기벽두에 다른 종류의 독점이 형성된것을 본다. 그것은 첫째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모든 국가에서의 자본가들의 독점적동맹이 형성된것이며, 둘째로는 많은 자본을 축적한 소수의 부유국가들의 독점적지위가 형성된것이다. 선진국가들에는 방대한 《과잉자본》이 생기였다.

만일 자본주의가 오늘 어디에서나 공업에 비하여 몹시 락후한 농업을 발전시킨다면 또한 눈부신 기술적진보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반기아적걸식상태에 처하여있는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자본의 과잉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론거》는 소자산계급적관점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 내세우고있는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닐것이다. 왜냐 하면 발전의 불균형성과 민중생활의 반기아적상태는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근본적인, 필연적인 조건이며 전제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아직도 자본주의인 이상 과잉자본은 그 나라의 민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지 못할것이고(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것은 자본가들의 리윤을 감소시키는것이기때문이다.) 외국에로, 락후한 국가에로 그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리윤을 높이는데 사용될것이다. 이 락후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자본이 적고 토지가격이 비교적 싸고 임금이 낮고 원료도 싸기때문에 리윤이 높은것이 보통이다. 자본수출의 가능성은 많은 락후한 국가들이 벌써 세계자본주의의 류통범위에 인입되였다는것, 철도의 주요간선들이 이미 부설되였거나 부설중에 있다는것, 공업발전의 초보적조건들이 보장되여있다는것 등등으로써 생긴다. 자본수출의 필요성은 소수의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지나치

계 성숙》되여서 자본의 《유리한》 투하처가 부족(농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대중이 빈궁한 조건하에서)하다는데서 생긴다.

3개의 주요국가의 국외투자액에 대한 근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①.

국외에 투하된 자본(단위 10억프랑)

년 도	영 국	프랑스	독 일
1862 ················	3.6	—	—
1872 ················	15	10(1869년)	—
1882 ················	22	15(1880년)	?
1893 ················	42	20(1890년)	?
1902 ················	62	27—37	12.5
1914 ················	75—100	60	44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수출이 20세기초에 와서야 거대한 발전을 보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전쟁전에 3개의 주요국가의 국외투자액은 1,750~2,000억프랑에 달하였다. 이 자본으로부

---

① 홉슨의 저서 《제국주의》(Hobson: 《Imperialism》), 1902년 런던판, 58페지, 리세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395페지와 404페지; 페.아른트(P.Arndt)의 론문—《세계경제문고》(《Weltwirtschaftliches Archiv》), 1916년, 제7권, 35페지; 네이마르크(Neymarck)의 론문—공보(Bulletin); 힐퍼르딩의 저서 《금융자본》, 492페지; 1915년 5월 4일 영국하원에서 한 로이드-조지(Lloyd-George)의 연설—1915년 5월 5일부 《데일리 텔레그라프》(《Daily Telegraph》); 베. 하름스의 저서 《세계경제 제 문제》(B. Harms: 《Probleme der Weltwirtschaft》), 1912년 예나판, 235페지와 기타 페지; 지그문드 쉴데르박사의 저서 《세계경제의 발전동향》(Dr. Sigmund Schilder: 《Entwicklungstendenzen der Weltwirtschaft》), 1912년 베를린판, 제1권, 150페지; 조지 페이쉬의 《대브리텐…의 투자》(George Paish: 《Great Britain's Capital Investments etc.》)—《왕립통계협회잡지》(《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제74권, 1910~1911년, 167페지와 이하 각 페지; 죠르쥬 디우리취의 저서 《독일경제의 발전과 관련한 독일은행의 국외진출》(Georges Diouritch: 《L'Expansion des banques allemandes à l'étranger, ses rapports avec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llemagne》), 1909년 빠리판, 84페지를 보라.

터 얻는 리익은 적게 계산해서 5%라고 하더라도 매년 80억~100억프랑에 달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세계 대다수의 민족과 국가를 제국주의적으로 압박하며 착취하기 위한 또 극소수의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주의적기생생활을 할수 있는 견실한 기초이다!

국외에 투하된 이 자본은 각국간에 어떻게 분배되여있는가? 어디에 투하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인 답변만을 줄수 있다. 그러나 이 대체적인 답변만으로도 현대제국주의의 약간의 일반적 호상관계와 련계를 설명할수 있다.

국외에 투하된 자본의 대륙별 분포개황(1910년경)

(단위 10억마르크)

	영국	프랑스	독일	합계
구라파	4	23	18	45
아메리카	37	4	10	51
아세아, 아프리카, 대양주	29	8	7	44
총 계	70	35	35	140

영국에 있어서는 그의 식민지령토가 제1위에 나선다. 그 령토는 아세아 및 기타에 관하여는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아메리카에 있어서도 비상히 크다(례컨대 카나다). 영국에 있어서 거대한 자본수출은 광대한 식민지와 더욱 밀접하게 련계되여있는바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의 의의에 관하여는 후에 다시 설명하려고 한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정형이 다르다. 프랑스의 국외자본은 주로 구라파에, 그중에도 먼저 로씨야(100억프랑이상)에 투하되였다. 그런데 그것은 공업기업에 투하되는 자본이 아니고 대부자본 즉 공채가 대부분이다. 영국의 식민지적제국주의와는 달리 프랑스제국주의는 고리대적제국주의라고 부를수 있다. 독일은 또 다른 일종이다. 그의 식민지는 많

지 않으며 그의 국외투하자본은 구라파와 아메리카에 가장 고르게 분포되여있다.

자본의 수출은 그 수입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주어 그 발전을 비상히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만일 자본의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는 수출국의 발전을 좀 지체시킬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본의 수출은 전 세계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일층 확대심화하게 되는것이다.

자본을 수출하는 국가는 거의 항상 일정한 《리익》을 얻을수 있게 되는데 그 리익의 성질은 또한 금융자본시대와 독점시대의 특성을 설명하여준다. 례컨대 베를린의 잡지 《은행》은 1913년 10월에 다음과 같이 썼다.

《얼마전부터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필재에 알맞는 희극이 출연되고있다. 에스빠냐로부터 발칸에 이르기까지, 로씨야로부터 아르헨띠나, 브라질, 중국에 이르기까지의 국외의 많은 나라들은 공공연히 혹은 은연히—그중에 어떤것은 비상히 긴급하게—차관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대금융시장에 진출한다. 금융시장은 지금 그다지 좋은 상태에 있지 못하며 그리고 정치적전망도 락관적인것이 못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중의 어느 하나도 그 이웃이 자기보다 먼저 차관을 승낙함으로써 어떤 보수를 얻지 않을가 하여 차관을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국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채권자는 거의 항상 어떤 리익을, 즉 무역조약에 있어서의 양보, 석탄저장소설립, 항구건설, 극히 유리한 리권, 대포의 주문 등의 그 어떤 리익을 획득하는것이다.》①

금융자본은 독점의 시대를 조성하였다. 독점은 도처에서 독점원칙을 실시한다. 즉 개방된 시장에서의 경쟁 대신에 유

① 잡지 《은행》, 1913년, 제2호, 1024페지

리한 거래를 위하여 《련계를》 리용한다. 가장 통례적인 현상은 차관의 일부를 채권국의 생산물 특히 군수품, 선박 및 기타의 구매에 소비하는것을 차관의 조건으로 규정하는것이다. 프랑스는 최근 20년(1890~1910년)간에 자주 이 수단을 썼다. 그리하여 자본의 수출은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특히 큰 기업사이의 계약체결은—쉴데르가 《부드럽게》 표현한바와 같이①—흔히 《매수의 지경》에 이르고있다. 독일의 크루프, 프랑스의 쉬네데르, 영국의 암스트롱은 대은행 및 정부와 밀접하게 련결되여있어 차관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렇게 쉽게 《빼놓을수》 없는 그러한 회사의 표본이다.

프랑스는 로씨야에 차관을 주면서 1905년 9월 16일에 체결한 무역조약에서 1917년까지 일정한 양보를 하도록 로씨야를 《압박》하였으며 1911년 8월 19일에 일본과 무역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또한 그러하였다. 1906년부터 1911년까지—그동안에 7개월동안만 정전되고 그대로 계속된—오지리와 쎄르비아간의 관세전쟁은 부분적으로는 쎄르비아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면에서의 오지리와 프랑스간의 경쟁에 의하여 야기되였었다. 뽈 데샤넬은 1912년 1월 의회에서 프랑스의 회사들은 1908~1911년동안에 쎄르비아에 4,500만프랑에 해당하는 군수품을 공급하였다고 말하였다.

싸오빠울로(브라질)에 주재하는 오지리-웽그리아제국의 령사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브라질철도의 부설은 대부분 프랑스, 벨지끄, 영국 및 독일의 자본에 의하여 수행되고있다. 그 나라들은 철도부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면서 자기가 철도건설재료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

① 쉴데르의 우에서 인용한 책, 346, 350, 371페지

이와 같이 금융자본의 그물은 문자그대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펴지고있다. 이 면에서 거대한 작용을 일으키는것은 식민지에 설립하는 은행들과 그의 지점들이다. 독일제국주의자들은 이 점에서 특히 《순리롭게》 하고있는 《구》식민지소유국들을 부러워하고있다. 1904년에 영국은 2,279개소에 지점을 두고있는 50개의 식민지은행(1910년에는 5,449개소에 지점을 두고있는 72개의 은행)을 가졌으며 프랑스는 136개소에 지점을 두고있는 20개의 식민지은행을 가졌고 화란은 68개소에 지점을 두고있는 16개의 식민지은행을 가졌었는데 독일은 《모두해서 겨우》 70개소에 지점을 두고있는 13개의 식민지은행을 가졌었다①. 미국의 자본가들도 영국과 독일의 자본가를 부러워한다. 그들은 1915년에 탄식하여 말하기를 《남아메리카에서는 독일의 5개 은행이 40개소에 지점을 두었고 영국의 5개 은행이 70개소에 지점을 두고있다.…영국과 독일은 최근 25년간에 아르헨띠나, 브라질 및 우루과이에 약 40억딸라의 자본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 량국은 이 3개국의 전체 상업의 46%를 지배하고있다.》②라고 하였다.

자본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세계를 비유적의미로서 자기들사이에서 분할하였다. 그러나 금융자본은 세계의 직접적인 분할을 야기하였다.

---

① 리세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제4판, 375페지 및 디우리취의 앞에서 인용한 책, 283페지를 보라.

② 《미국 정치 및 사회과학학원년보》(《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15년 5월, 제59권, 301페지. 이 권 331페지에 쓴것에 의하면 유명한 통계학자 페이쉬(Paish)는 최근에 발행한 금융잡지 《통계학자》(《Statist》)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벨지끄, 화란의 자본수출총액은 400억딸라 즉 2,000억프랑이라고 계산하였다.

5. 자본가동맹들간의 세계분할

자본가들의 독점동맹—카르텔, 신지케이트, 트레스트들은 각이한 정도에서 자국의 생산을 완전히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무엇보다도먼저 국내시장을 자기들끼리 분할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국내시장은 필연적으로 국외시장과 련계되여있는것이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벌써 세계시장을 만들어놓았다. 그리하여 자본수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 최대의 독점적동맹들이 대외적련계 및 식민지에 대한 련계와 그 《세력범위》를 극력 확대함에 따라서 사태는 《자연히》 그 독점적동맹들간에 전 세계적협정을 즉 국제적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자본과 생산의 전 세계적집적의 새 단계이며 과거의것보다는 비교할수 없으리만큼 더 높은 단계이다. 우리는 이제 이 초독점이 어떻게 장성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전기공업은 기술의 최신의 성과에 있어서와 19세기말 및 20세기초의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대표성을 띤 공업부문이다. 이 전기공업은 2개의 가장 선진적신흥자본주의국가인 미국과 독일에서 가장 발달하였다. 독일에서는 1900년의 공황이 이 부문의 집적을 특히 유력하게 촉진하였다. 당시에 이 공업과 매우 긴밀히 유착되여있던 은행들은 그 공황시기에 비교적 작은 기업들의 몰락과 대기업에 의한 소기업의 병탄과정을 그도로 촉진시켰으며 심화시켰다. 야이델스는 《은행들은 가장 많이 원조를 요구하는 바로 그 기업들에 대하여 원조를 정지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은행들과 그다지 밀접하게 련계되여있지 않았던 회사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경기

를 야기시키고 그다음에는 절망적파산을 가져다주었다.»①라고 썼다.

이 결과 집적은 1900년이후에 대대적으로 전진하였다. 1900년까지에는 전기공업에 7~8개의 《집단》이 있었는데 매개 집단은 각각 몇개의 회사들(전부 28개의 회사가 있었다.)로 구성되였고 매개 집단의 배후에는 2~11개의 은행들이 있었다. 1908~1912년경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집단은 2개 혹은 1개의 집단으로 합병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업에서의 집단

1900년 이전,	펠텐 운트 기욤,	라마이에르,	련합전기총회사,	지멘스 운트 할스케,	슈케르트회사,	베르그만,	쿰메르,
	펠텐 운르 라마이에르,		전기총회사, (A.E.G.)	지멘스 운트 할스케-슈케르트,		베르그만,	1900년에 파산,
1912년 현재,	전기총회사 (A.E.G.)			지멘스 운트 할스케-슈케르트			

(1908년부터 밀접히 《합작》)

이와 같이 성장된 유명한 A.E.G.(전기총회사)는 175~200개의 회사를 지배하며(《참여》제에 의하여) 도합 약 15억마르크의 자본을 지배하였다. 이 회사는 10여개 국가에 설치한 직접적국외대표기관만 하여도 34개이며 그중의 12개는 주식회사이다. 이미 1904년에 독일전기공업이 국외에 투하한 자본은 2억 3,300만마르크에 달하였는데 그중 6,200만마르크는 로씨야에 투하된것이였다. 말할것도 없이 이 《전기총회사》는 거대한 《련합》기업으로서 케블과 애자로부터 자동차와 비행기에 이르기까지의 가지각색의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만 하더라도 16개나 있다.

그러나 구라파에서의 집적은 미국에서의 집적과정의 한

① 야이델스의 앞에서 인용한 책, 232페지

구성부분이기도 하였다. 그 집적과정은 아래와 같다.

《통용전기회사》(General Electric C°)

미국	톰슨-휴스톤회사가 구라파에 1개 회사를 설립하였다.	에디슨회사가 구라파에 《프랑스에 디슨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는 특허권을 독일회사에 넘겨주었다.
독일	《련합전기회사》	《전기총회사》(A.E.G.)

《전기총회사》(A.E.G.)

이와 같이 2개의 전기《강국》이 형성되였다. 하이니히는 《전기트레스트의 길》이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기회사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썼다. 다음의 수자는 이 두 《트레스트》기업의 거래액과 규모에 대하여 대략적인—퍽 불완전하나마—개념을 준다.

	상품거래액 (단위 100만마르크)	종업원수	순리익 (단위 100만마르크)
미국의 《통용전기회사》 (G.E.C.)………	1907년: 252	28,000	35.4
	1910년: 298	32,000	45.6
독일의 《전기총회사》 (A.E.G.)………	1907년: 216	30,700	14.5
	1911년: 362	60,800	21.7

그런데 1907년에는 미국의 트레스트와 독일의 트레스트간에 세계분할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경쟁은 제거되였다. 《통용전기회사》(G.E.C.)는 미국과 카나다를 《손에 넣었고》, 《전기총회사》(A.E.G.)는 독일, 오지리, 로씨야, 화란, 단마르크, 스위스, 토이기 및 발칸을 《손에 넣었다》. 새 공업부문과 아직 정식으로 분할되지 않은 《새》 나라들에 침투하고있는 《딸회사》들에 관하여는 특별한(물론 비밀인) 조약이 체결

되였다. 그밖에 또 발명과 경험을 호상 교환하기로 규정되였다.①

수십억의 자본을 지배하며 세계 각처에 자기의 《지점》, 대표기관, 대리점, 여러가지 련락기관 등을 가지고있는, 사실상 통일된 이 세계적트레스트와 경쟁하는것은 물론 매우 곤난한 일이다. 그러나 이 두개의 강대한 트레스트간의 세계분할도 실력대비가 발전의 불균형성, 전쟁, 파산 및 기타의 결과로서 변동된다면 재분할하는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재분할의 시도와 이 재분할을 위한 투쟁의 교훈적인 실례는 석유공업이 보여준다.

야이델스는 1905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세계의 석유시장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로케펠러(석유트레스트)(《Standard Oil C-y》)와 로씨야의 바꾸유전의 주인들인 로트쉴드 및 노벨의 두개 대금융집단사이에 분할되여있다. 이 두 집단은 서로 밀접히 련계되여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독점적지위는 벌써 몇해동안 5개의 적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있다.》② 즉 (1) 미국의 석유자원의 고갈, (2) 바꾸의 경쟁적만따쉐브회사, (3) 오지리의 석유자원, (4) 로므니아의 석유자원, (5) 해외에 있는 석유자원 특히 화란식민지의 석유자원(영국자본과 련계를 가진 극히 부유한 쌔뮤엘회사와 쉘회사)이 그것이다. 이 마지막 3개 지역의 기업들은 최대의 《독일은행》이 령도하는 독일의 대은행들과 련계되여있다. 이 은행들은 《자기의》 거점을 가지기 위하여 례를 들면 로므니아의 석유공업을 독자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켰다. 1907년에 로므니아석유공업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이 1억 8,500만프랑으로 계산되였는데 그중 독일자본

① 리쎄트의 앞에서 인용한 책, 디우리취의 앞에서 인용한 책, 239페지, 쿠르트 하이니히의 앞에서 인용한 책.

② 야이델스의 앞에서 인용한 책, 193페지

은 7,400만프랑이였었다.①

경제학문헌에서 《세계의 분할》을 위한 투쟁이라고 불리우는 투쟁이 시작되였다. 한편으로는 로케펠러의 《석유트레스트》는 전부를 탈취하려는 기도로써 화란본토에 《딸회사》를 설립하였고 화란령 인도의 석유자원을 매수하여 자기의 주요한 적인 화란-영국트레스트 《쉘》에 타격을 주려고 하였다. 다른 편으로는 《독일은행》과 기타 베를린의 은행들은 로므니아를 《자기》 손에 《확보》하여 이를 로씨야와 련합시켜 로케펠러에 대항하려고 노력하였다. 로케펠러는 비상히 많은 자본을 가졌고 소비자들에의 석유의 공급과 그 운반을 위한 우수한 조직을 가졌다. 투쟁은 《독일은행》의 완전한 패배로써 끝나지 않을수 없었으며 1907년에 와서 과연 그렇게 되였다. 이때에 《독일은행》앞에는 수백만의 손실을 보면서 자기의 《석유리익》을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굴종하든지 하는 두갈래의 출로밖에 없었다. 결국 《독일은행》은 굴종하는 길을 택하여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조약을 《석유트레스트》와 체결하였다. 그 조약에 의하여 《독일은행》은 《미국의 리익에 불리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졌다. 그러나 일단 독일에서 석유의 국가전매법이 제정된다면 그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것이 규정되였다.

그리하여 《석유희극》이 시작되였다. 독일금융대왕의 한사람이며 《독일은행》의 경리인 폰 그윈네르는 자기의 개인비서 슈타우쓰를 통하여 석유전매를 위한 선전을 진행하였다. 베를린의 최대은행의 방대한 전체 기구와 일체 광범한 《련계자》들이 동원되였고 신문간행물들은 미국트레스트의 《압제》를 반대하는 《애국주의적》절규로써 들끓었다. 그리하여 1911년 3월

---

① 디우리취의 앞에서 인용한 책, 245페지

15일에 독일국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정부에 석유전매법률안작성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인기있는》 이 주장을 흔연히 접수하였다. 이러하여 미국의 협정당사자를 기만하고 국가전매에 의하여 자기 업무를 바로잡으려고 한 《독일은행》의 도박은 승리를 얻은것 같이 보이였다. 독일의 석유대왕들은 로씨야의 사탕공장주들에 못지않은 거대한 리윤을 꿈꾸고있었다.…그러나 첫째로, 독일의 대은행들사이에는 획득물의 분배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할인회사》는 《독일은행》의 자사자리적기도를 폭로하였다. 둘째로, 정부는 로케펠러와의 투쟁에 대하여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로케펠러를 통하지 않고 독일이 석유를 얻을수 있겠는가가 의문이였기때문이다(로므니아의 석유생산력은 크지 못함). 셋째로, 독일은 때마침 1913년에 전쟁준비를 위하여 10억의 예산을 지출하였던것이다. 전매법안은 연기되였다. 로케펠러의 《석유트레스트》는 당분간 그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베를린의 잡지 《은행》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즉 독일은 오직 전력의 전매와 값싼 수력전기를 일으키는것으로써만 《석유트레스트》와 투쟁을 할수 있는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이 잡지는 부언하여 말하기를 《전기의 전매는 그것이 생산자들에게 필요하게 되는 그때, 즉 전기공업에 있어서 다음의 대위기가 박두하는 그때 그리고 지금 도처에서 개인경영의 전기공업 〈콘체른〉들이 건설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큰 발전소들이—그 콘체른들은 지금 벌써 시정부나 국가 및 기타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독점권을 얻고있다.—유리하게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그때에 실현될것이다. 그때에는 수력을 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다. 그러나 값싼 수력전기는 국가비용으로써는 경영할수가 없고 그것을 또다시 〈국가의 감독하에 있는 개인독점체〉에 넘겨주어 경영하여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개인경

영의 공업은 벌써 많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거액의 보상금을 약정한때문이다.…칼리움의 전매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던것이며 석유의 전매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여있는것이며 전기의 전매에 있어서도 그렇게 될것이다. 아름다운 원칙에 미혹되여있는 우리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독일에 있어서의 전매는 소비자들의 리익을 도모하거나 기업리윤의 일부분이라도 국가에 제공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적은 결코 없었으며 오직 파산에 직면한 개인경영공업을 국가비용으로 진흥시키는데만 이바지하였다는것을 리해하여야할 때가 왔다.»①

독일자산계급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이 귀중한 고백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금융자본시대에 있어서 개인독점과 국가독점은 하나로 엉키여있다는것,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 이 두 독점은 세계의 분할을 위한 최대독점가들간의 제국주의적투쟁의 한 고리에 불과하다는것을 명백히 볼수 있다.

해운업에 있어서의 집적의 거대한 발전도 또한 세계의 분할을 야기시켰다. 독일에서는 각각 2억마르크의 자본(주권과 채권)과 1억 8,500만～1억 8,900만마르크에 해당하는 선박을 가진 두개의 대회사, 즉 《함부르그—아메리카손포배달주식회사》와 《북부독일 로이드선박회사》가 형성되였다. 그것들은 다른편으로, 미국에서는 1903년 1월 1일에 미영 두 나라의 9개 기선회사가 련합한, 그리고 1억 2,000만딸라의 자본(4억 8,000만마르크)을 가진 소위 모간트레스트, 즉 《국제해운회사》가 창립되였다. 1903년에 벌써 독일의 대회사와 미영트레스트간에는 리윤분배와 관련하여 세계분할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독일의 회사들은 운수업에서 더는 영미 량국과 경쟁하지

① 잡지 《은행》, 1912년, 제1호, 1036페지; 1912년, 제2호, 629페지; 1913년, 제1호, 388페지

않기로 하였다. 어느 항만이 누구에게 《소속》된다는것이 조약에 명백히 규정되였고 또 공동감찰위원회 등이 설립되였다. 이 조약은 유효기간이 20년으로 되였는데 전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건부로 체결되였다.①

국제레루카르텔의 성립사도 역시 극히 교훈적이다. 벌써 1884년 공업의 극심한 침체기에 처음으로 영국, 벨지끄, 독일의 레루제조공장들이 이러한 카르텔의 창립을 기도하였다. 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의 국내시장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을것과 국외시장은 영국에 66%, 독일에 27%, 벨지끄에 7%의 비률로써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도는 완전히 영국에 귀속되였었다. 이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영국의 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합력하여 진공하였는바 그 비용은 일정한 비률에 의하여 총판매고에서 지출되였다. 그런데 1886년에 영국의 두 회사가 동맹으로부터 탈퇴하자 그 동맹은 와해되였다.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그후에 닥쳐온 수차의 공업호경기에 있어서 시종 협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그것이다.

1904년초에 독일에 강철신지케이트가 창설되였다. 1904년 11월에는 국제레루카르텔이 53.5%(영국), 28.83%(독일), 17.67%(벨지끄)의 비률로써 부흥되였다. 그후에 프랑스는 제1년, 제2년, 제3년에 각각 총수의 100%를 초월한 총수 즉 104.8, 105.8, 106.4의 4.8%, 5.8%, 6.4%의 비률로써 가입하였다. 1905년에는 미국의 《강철트레스트》(《강철회사》)가 가입하였고 그뒤에 오지리와 에스빠냐도 가입하였다. 1910년에 포겔슈타인은 이렇게 썼다. 《지금 세계의 분할은 끝났다. 그리하여 대소비자들, 무엇보다도 국영철도는 세계가 이미 분할되고 그들의 리익이 고려되지 않게 되였으니 시인처럼 쥬피터

---

① 리세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125페지

의 천국에 가서 살수 있다.»①

그밖에 1909년에 창립된 국제아연신지케이트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하자. 이 신지케이트는 독일, 벨지끄, 프랑스, 에스빠냐, 영국 등 5개 국가의 공장집단들사이에 생산량을 명백히 분배하였다. 다음에 국제화약트레스트에 대하여서는 리프만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독일의 모든 폭발약제조공장들의 아주 밀접한 현대적동맹인데 그후 이 폭발약제조공장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조직된 프랑스와 미국의 폭발약제조공장들과 함께, 말하자면 세계를 호상간에 분할하였다»②.

리프만의 통계에 의하면 독일이 참가한 국제카르텔의 수는 1897년에는 도합 약 40개였으며 1910년에는 벌써 약 100개였다.

어떤 자산계급저술가들(카.카우쯔키도 지금은 그들과 합류하였다. 그는 1909년에 자기가 취하였던 맑스주의적립장을 완전히 배반하였다.)은 국제카르텔은 자본의 국제화의 가장 뚜렷한 표현의 하나로서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각 민족간에 평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준다고 인정하였다. 이 의견은 리론적으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실천적으로는 궤변이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최악의 기회주의를 변호하려는 수단이다. 국제카르텔은 자본가의 독점이 지금에 와서 어떠한 정도에까지 발전하였는가 또 자본가동맹이 무엇때문에 서로 투쟁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마지막사정이 가장 중요한것이며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있는 사건의 력사적, 경제적 의의를 설명하여준다. 왜냐 하면 투쟁의 형태는 비교적 국부적이며 잠시적인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변할수 있으며 또 항상 변하기도 하나 그러나 투쟁의 실질, 투쟁의 계급

① 포겔슈타인의 저서《조직형태》, 100페지

② 리프만의 저서《카르텔과 트레스트》, 제2판, 161페지

적내용은 계급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결코 변할수 없는까닭이다. 현대의 경제투쟁의 내용(세계의 분할)을 은폐하며 이 투쟁의 이런 혹은 저런 형태를 강조하는것은 례컨대 독일자산계급에게는 유익한것임은 분명하다.(카우쯔키는 그의 리론적견해에서 사실인즉 이미 독일자산계급의 편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다.) 카우쯔키도 이 오유를 범하고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물론 독일의 자산계급인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산계급인것이다. 자본가들이 세계를 분할하는것은 그들의 특별한 악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윤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미 도달한 집적단계때문에 이 길에 들어서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이 경우에 그들은 《자본에 의하여》, 《실력에 의하여》 세계를 분할하는것이며 상품생산과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다른 분할방법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실력은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따라 변동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리해하자면 실력의 변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변동이 《순》 경제적인것인가 혹은 비경제적(례컨대 군사적)인것인가 하는것은 제2차적인 문제이며 자본주의최신시대에 대한 기본적견해를 조금도 변경시킬수 없는것이다. 자본가동맹들간의 투쟁이나 협의의 내용문제를 투쟁이나 협의의 형태(오늘에는 평화적으로, 래일에는 비평화적으로, 후일에도 또다시 비평화적으로)문제로 바꾸려는것은 궤변가로 타락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최신자본주의시대는, 자본가동맹간에는 세계의 경제적분할을 기초로 한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며 이와 동시에 또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동맹간에, 각 국가간에는 세계의 령토적분할, 식민지쟁탈전, 《경제적지역의 쟁탈전》에 기초한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고있다는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있다.

6. 렬강간의 세계분할

지리학자 아.주판은 자기의 저서 《구라파식민지의 령토확장》①에서 19세기말에 있어서의 식민지의 령토확장정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총결을 하였다.

구라파의 식민지렬강(미국을 포함)에 속한 토지면적의 백분비

	1876년	1900년	증감
아프리카에	10.8%	90.4%	+79.6%
폴리네시아에	56.8%	98.9%	+42.1%
아세아에	51.5%	56.6%	+ 5.1%
대양주에	100.0%	100.0%	——
아메리카에	27.5%	27.2%	- 0.3%

주판은 결론하기를 《따라서 이 시기의 특점은 아프리카와 폴리네시아의 분할이다.》라고 하였다. 아세아와 아메리카에는 점령되지 않은 토지, 즉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토지가 없으므로 주판의 결론을 확장하며 이 시기의 특징은 세계의 종국적분할이라고 말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종국적이라고 하는것은 **재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그와 반대로 재분할은 가능한것이며 또 불가피적이다.—자본주의나라들의 식민정책이 지구상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토지의 략탈을 **끝마쳤다**는 의미에서 말하는것이다. 세계는 비로소 완전히 분할되였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다만** 재분할만이, 다시말하면 주인이 없던데로부터 《주인》에게로 넘어가는것이 아니라 한《주인》의 령토가 다른 《주인》에게로 넘어가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발전의 최신단계》, 즉 금융자

① 아.주판의 저서 《구라파식민지의 령토확장》(A. Supan: 《Die territoriale Entwicklung der europäischen Kolonien》), 1906년판, 254페지

본과 밀접하게 련결된 세계식민정책의 특수한 시대에 처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와 과거시대의 차이뿐아니라 현재의 사태도 될수 있는데까지 명확하게 천명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실제적자료를 상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우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실제적문제가 생긴다. 즉 식민정책이 강화되고 식민지쟁탈전이 첨예화되는 일이 과연 금융자본시대에만 나타날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이 점에 있어서 세계는 과연 어떻게 분할되였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의 저술가 모리스는 식민사에 관한 자기의 저서에서① 19세기의 각 시기에 있어서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식민지령토면적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였다. 그가 얻어낸 총수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령토의 면적

년 도	영 국		프랑스		독 일	
	면 적 (단위100만평방마일)	인 구 (단위100만)	면 적 (단위100만평방마일)	인 구 (단위100만)	면 적 (단위100만평방마일)	인 구 (단위100만)
1815~1830년	?	126.4	0.02	0.5	—	—
1860년	2.5	145.1	0.2	3.4	—	—
1880년	7.7	267.9	0.7	7.5	—	—
1899년	9.3	309.0	3.7	56.4	1.0	14.7

영국에 있어서 식민지점령이 극히 강화된 시기는 1860~1880년이였고 그리고 19세기 최후의 20년간에 있어서는 그 강

① 헨리 씨.모리스의 저서 《식민사》(Henry C. Morris: 《The History of Colonization》), 1900년 뉴욕판, 제2권, 88페지; 제1권, 419페지; 제2권, 304페지

화가 매우 현저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식민지점령도 이 20년간의 일이였다. 우리는 우에서 독점이전의 자본주의, 즉 자유경쟁이 지배하고있던 자본주의의 최고발전의 시기는 19세기 60년대와 70년대였던것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기 이후**에 식민지점령의 거대한 《앙양》이 시작되며 세계의 령토적분할을 위한 투쟁이 극도로 첨예화되는것을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로, 즉 금융자본에로 과도하는것이 세계분할을 위한 투쟁의 첨예화와 **련계되여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일이다.

홉슨은 제국주의에 관한 자기의 저서에서 1884~1900년의 시기를 구라파 주요국가들의 맹렬한 《확장》(령토확장)시기라고 특히 획분하였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이 시기에 영국은 5,700만의 인구를 가진 370만평방마일의 령토를, 프랑스는 3,650만의 인구를 가진 360만평방마일의 령토를, 독일은 1,470만의 인구를 가진 100만평방마일의 령토를, 벨지끄는 3,000만의 인구를 가진 90만평방마일의 령토를, 뽀르뚜갈은 900만의 인구를 가진 80만평방마일의 령토를 점령하였다. 19세기말엽 특히 19세기 80년대이래 모든 자본주의국가에 의한 식민지쟁탈은 외교사와 대외정책사에서 공인된 사실이였다.

영국에서 자유경쟁이 가장 흥성한 시기, 즉 1840~1860년대에 있어서는 영국의 집권적자산계급정치가들은 식민정책을 **반대**하였었고 식민지의 해방,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들의 완전한 분리를 불가피적이며 또 유익한 일로 인정하였다. 엠.베르는 1898년에 발표한 《현대영제국주의》①라는 자기의 론문

① 잡지 《신시대》, 1898년, 제16년권, 제1분권, 302페지

에서 지적하기를, 대체로 말하면 제국주의편에 기울어진 디즈레일리같은 영국정부 요인도 1852년에 《식민지는 우리의 목에 걸린 매돌》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와서는 영국에 있어서의 시대의 영웅은 공개적으로 제국주의를 고취하였고 또 가장 파렴치하게 제국주의적정책을 실시한 쎄씰 로즈와 죠제프 체임벌런이였던것이다!

영국자산계급의 이러한 집권적정치가들이 당시에 벌써 최신제국주의의 이른바 순 경제적근원과 사회-정치적근원간의 련관을 똑똑히 알고있었다는 사실은 흥미없는 일이 아니다. 체임벌런은 일찌 영국이 세계시장에서 독일, 미국, 벨지끄편으로부터 당하는 그 경쟁에 대하여 각별히 지적하면서 제국주의를 《진실한, 영명한,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설교하였다. 구제책은 독점에 있다고 하면서 자본가들은 카르텔, 신지케이트, 트레스트를 설립하였다. 자산계급의 정치적지도자들도 이 장단에 맞추어 구제책은 독점에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아직 분할되지 않은 지역을 점령하기에 급급히 서둘렀다. 쎄씰 로즈의 친우인 기자 스테드의 말에 의하면 1895년에 로즈는 자기의 제국주의사상을 스테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어제 런던시의 동쪽구역(로동자구역)에 가서 실업로동자집회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나는 〈빵을, 빵을!〉 하고 마구 웨쳐대는 란폭한 연설을 들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목격한 정형을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본 끝에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더한층 확신하게 되였다.… 나의 성스러운 주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다. 말하자면 련합왕국의 4,000만 주민을 참혹한 내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식민주의정치가들은 과잉인구의 수용, 공장 및 광산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새

판로의 획득을 위한 새 령토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늘 말해오다싶이 제국이라는것은 배불리 먹는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내전을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제국주의자로 되여야 할것이다.»①

이것이 바로 백만장자이며 금융대왕이며 영국-보어전쟁의 원흉인 쎄씰 로즈가 1895년에 한 말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변호는 좀 미련하고 몰렴치하달것뿐이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마슬로브, 쥐데쿰, 뽀뜨레쏘브, 다위드 제씨들이나 로씨야 맑스주의창시자따위들의 《리론》과 별반 다른것이 없다. 쎄씰 로즈는 좀 정직한 사회배외주의자였었다.…

세계령토의 분할정황과 최근 수십년간 이 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되도록 정확히 서술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계렬강의 식민지령토문제에 관한 주판의 상술한 저서에서 제공한 종합자료를 리용하기로 하자. 주판은 1876년과 1900년을 택하였지만 우리는 1876년(대체적으로 말하여 서구라파 독점이전단계의 자본주의가 이 시기에 와서는 그의 발전을 끝마쳤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해를 택하는것은 매우 타당한것이다.)을 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1914년을 들어 휘브네르의 《지리통계표》에 있는 보다 새로운 수자로써 주판의 수자를 바꾸어놓기로 한다. 주판은 식민지에 대해서만 취급했는데 우리는 세계분할의 전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비식민지국가와 반식민지국가에 관한 수자를 간단히 첨부하는것이 유익하다고 간주한다. 우리가 반식민지국가로 취급하는 페르샤, 중국 및 토이기를 보면 페르샤는 거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으며 중국과 토이기도 바로 그렇게 되여가고있다.

① 잡지 《신시대》, 1898년, 제16년권, 제1분권, 304페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렬강들의 식민지령토

(면적단위 100만평방키로메터, 인구단위 100만명)

	식민지				종주국		합계	
	1876년		1914년		1914년		1914년	
	면적	인구	면적	인구	면적	인구	면적	인구
영국	22.5	251.9	33.5	393.5	0.3	46.5	33.8	440.0
로씨야	17.0	15.9	17.4	33.2	5.4	136.2	22.8	169.4
프랑스	0.9	6.0	10.6	55.5	0.5	39.6	11.1	95.1
독일	—	—	2.9	12.3	0.5	64.9	3.4	77.2
미국	—	—	0.3	9.7	9.4	97.0	9.7	106.7
일본	—	—	0.3	19.2	0.4	53.0	0.7	72.2
6대강국의 합계	40.4	273.8	65.0	523.4	16.5	437.2	81.5	960.6

기타 강국(벨기, 화란, 기타)의 식민지	9.9	45.3
반식민지(페르샤, 중국, 토이기)	14.5	361.2
기타 각국	28.0	289.9
전세계	133.9	1,657.0

우리는 여기에서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세계분할이 《끝났다》는것을 일목료연하게 본다. 식민지령토는 1876년후에 그히 넓은 범위로 확장되였다. 즉 6대강국의 식민지령토는 1배반 이상으로, 즉 4,000만평방키로메터로부터 6,500만평방키로메터에까지 확대되여 2,500만평방키로메터가 증대되였다. 이는 각 종주국 면적(1,650만평방키로메터)의 1배 반 이상이나 된다. 그중 세 강국은 1876년에는 아무런 식민지도 가지지 못하였고 다른 한 강국 프랑스도 식민지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다. 1914년에 와서는 이 네 강국은 1,410만평방키로메터 즉 구라파면적의 1배 반 이상이나 되는 면적과 거의 1억의 인구를 가진

식민지를 점령하였다. 식민지령토는 극히 불균형적으로 확장되였다. 례로서 면적과 인구로 보아서 별로 큰 차이가 없는 프랑스, 독일, 일본 세 나라들을 비교해본다면 그중 프랑스는 독일과 일본이 점유한 식민지를 합한것의 3배(면적으로 보아서)나 되는 식민지를 점령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초기에 있어서 프랑스의 금융자본은 아마도 독일과 일본의 금융자본을 합한것의 몇배나 더 컸을것이다. 순 경제적조건외에 이 경제적조건의 기초우에서 지리적조건 및 기타의 조건도 식민지령토의 규모에 영향을 준다. 최근 수십년래 대공업, 교환 및 금융자본의 압력하에서 세계의 균등화, 각국 경제 및 생활조건의 평균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그 차이는 적지 않게 남아있다. 우리는 상술한 여섯개 나라중에서 일방으로는 젊고도 진보가 매우 빠른 자본주의국가들(미국, 독일, 일본)을 볼수 있고 타방으로는 이런 국가들에 비하여 최근에 와서 그 진보가 매우 더딘 낡은 자본주의국가들(프랑스, 영국)을 볼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최신자본주의적제국주의가 전자본주의적관계의 조밀한 그물에 얽혀있다고 말할수 있는, 경제적면에서 가장 락후한 나라(로씨야)도 볼수 있다.

우리는 대렬강들의 식민지령토와 아울러 작은 나라들의 작은 식민지들을 렬거하였는데 이런 식민지들은 있을수 있을뿐아니라 필연코 있기마련인 《재분할》의 시기에 가서는 분할의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될것이다. 이러한 작은 나라들이 자기의 식민지를 보존할수 있는것은 주로 큰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리익상에서의 대렵과 알륵 등등이 그들의 획득물분배를 위한 협정을 방해하고있기때문이다. 《반식민지》국가들로 말하면 그들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령역에서 늘 보는 그 과도적형태의 실례로 되고있다. 금융자본은 모든 경제적 및 국제적 관계

에 있어서 결정적역할을 일으키는 력량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국가들까지도 지배할수 있으며 또 실제상 이미 지배하고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실례를 들려 한다. 그런데 종속된 국가와 그 민족으로 하여금 정치적독립을 상실케 하는 그러한 지배라야 금융자본에 가장 《편의》하고 가장 리로울것은 물론이다. 이 면에서 반식민지국가들은 전형적인 《중간》형태이다. 세계 기타 지역에서의 분할이 이미 끝난 금융자본의 시대에 이러한 반독립국가들을 쟁탈하기 위한 투쟁이 불가피적으로 첨예화되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식민정책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최신단계이전에도, 지어는 자본주의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노예제에 기초한 로마는 식민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제국주의를 실현하였다. 그런데 사회-경제적형태의 근본적구별을 망각하거나 홀시하고 제국주의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운운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대로마와 대브리텐》①을 비교하는것과 같은 텅 빈 소리나 허풍으로 변하고말것이다. 지어는 자본주의의 지난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식민정책까지도 금융자본의 식민정책과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

최신자본주의의 기본특점은 대기업가들의 독점적동맹의 지배이다. 이런 독점체들은 모든 원료래원을 한손에 틀어쥐게 되는 때에 가서는 비할데없이 공고해진다. 우리는 자본가들의 국제동맹이 자기의 적수로부터 경쟁의 온갖 가능성을 빼앗기 위하여 례컨대 철광산 혹은 석유자원 등을 매수하기에 어떻게

---

① 씨.피.루카스의 저서 《대로마와 대브리텐》(C. P. Lucas: 《Greater Rome and Greater Britain》), 1912년 옥스포드판, 혹은 크로머백작의 저서 《고대제국주의와 현대제국주의》(Earl of Cromer: 《Ancient and Modern Imperialism》), 1910년 런던판.

힘을 다하고있는가를 알고있다. 오직 식민지를 점유함으로써만이 경쟁자들과 투쟁함에 있어서의 모든 의외의 사건—지어는 적수가 국가독점에 관한 법률로써 자위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외의 사건까지도 포함하여—에 있어서도 독점체의 승리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원료가 부족될수록, 경쟁과 전 세계에서 원료래원을 위한 추구가 첨예해질수록 그만큼 식민지획득을 위한 투쟁도 치렬하여진다.

쉴데르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무계하다고도 간주될수 있는 주장, 즉 도시인구와 공업인구의 증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식료품부족보다 공업원료부족의 장애를 훨씬 먼저 당하리라는 주장을 내세울수 있다.》 례컨대 목재(점점 더 등귀해가고있다.), 피혁, 방직 공업원료는 갈수록 더욱 부족된다. 《공업가동맹들은 전 세계 경제적범위에서 농업과 공업간의 평형을 잡으려 시도한다. 례로서 1904년에 몇몇 가장 중요한 공업국의 면방적공장주동맹들이 국제동맹을 성립한것을 들수 있다. 그후 1910년에 구라파아마방적업공장주동맹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맹을 성립하였다.》①

물론 자산계급개량주의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현재의 카우쯔키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의 의의를 약화하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즉 《비싸고 위험한》 식민정책을 쓰지 않아도 원료를 자유시장에서 구《할수 있다》느니, 농업일반의 조건에 대한 《단순한》 개선만으로써도 원료공급을 크게 증가《시킬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국주의를 변호하며 그것을 미화하는것으로 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지적은 최신자본주의의 주요한 특점인 독점을 망각한데 기초한때문이다. 자유시장은 더욱더 옛일로 되여버리고 독점적신지케이트와 트

---

① 쉴데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38~42페지

레스트는 날마다 자유시장을 압축한다. 그런데 농업조건의 《단순한》 개선이라는것은 결국 민중의 생활상태의 개선, 임금의 인상 및 리윤의 감소인것이다. 식민지를 쟁탈할 대신에 민중의 생활을 념려하여줄수 있는 트레스트란 달콤한 개량주의자들의 환상이외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금융자본에 대해 말하면 이미 발견된 원료래원뿐만아니라 발견될수 있는 원료래원도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현대의 기술은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그리하여 오늘에는 쓸모없는 토지도 새로운 방법(대은행은 이것을 위하여 기사, 농학자 등의 특별고찰대를 파견할수 있다.)이 발견되고 많은 자본을 투하한다면 래일에 가서는 쓸모있는 토지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광맥의 탐사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원료의 가공과 리용에 대한 새로운 방법 등등에 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때문에 금융자본은 필연적으로 경제적령토 심지어 령토일반을 극력 확장하려고 애쓰게 된다. 트레스트들이 장래에 《얻을수 있는》 (현재의것이 아니라) 리윤을 타산하며 독점의 장래결과를 타산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2배 혹은 3배로 평가하여 그것을 자본화하는것과 같이 금융자본도 얻을수 있는 원료래원을 타산하며 세계의 아직 분할되지 않은 마지막 몇쪼각의 땅덩어리를 쟁탈하기 위한, 혹은 이미 분할된 땅덩어리를 재분할하기 위한 열광적인 투쟁에서 뒤떨어질가 두려워하면서 어떠한 토지든지, 어디에 있는 토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되도록 더 많은 토지를 점령하려고 애를 쓴다.

영국의 자본가들은 자기의 식민지인 애급에서 면화생산을 발전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했으며 (1904년에는 애급의 230만헥타르의 경작지중에서 60만헥타르, 즉 4분의 1이상의 경작지에 면화를 심었다.) 로씨야의 자본가들도 자기의 식민지인 뚜르께스딴에서 그렇게 하였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

들은 국외의 경쟁자를 더 쉽게 격파할수 있고 원료래원을 더 쉽게 독점할수 있으며 《련합》생산을 진행하는, 면화재배 및 가공의 모든 과정을 한손에 집중하는 보다 경제적이며 리윤있는 방적트레스트를 더 쉽게 형성할수 있기때문이다.

자본수출의 리익도 마찬가지로 식민지략탈을 촉진한다. 왜냐 하면 식민지시장에서는 독점의 방법으로써 보다 용이하게(때로는 식민지시장에서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 경쟁자를 배제하며 자기의 공급을 확보하며 상당한 《련계》 및 기타를 강화할수 있기때문이다.

금융자본의 기초우에서 자라나는 비경제적상부구조 즉 금융자본의 정책과 의식형태는 식민지탈취에로의 추세를 강화한다. 《금융자본은 자유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지배를 요구한다.》라고 한 힐페르딩의 말은 지당한것이다. 프랑스의 어떤 자산계급저술가는 앞에서 제기한 쎄씰 로즈의 사상①을 보충 또는 발전시켜보기나 할것처럼 현대식민정책의 경제적원인이외에 또 사회적원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비단 로동자대중뿐만아니라 중등계급까지도 압박하는 생활의 복잡성과 곤난의 결과로 모든 낡은 문명국들에서는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초조, 분노, 증오가 쌓이고 또 쌓인다. 일정한 계급적궤도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힘이 사용될 장소를 얻어내야 할것이며 그것이 국내에서 폭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외로 나가 활동하게 해야 할것이다〉.》②

자본주의적제국주의시대의 식민정책에 대해 언급한 이상 금융자본과 이에 상응하는 국제정책, 즉 세계의 경제적 및 정

① 이 책 1007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왈의 《식민지에서의 프랑스》(Wahl: 《La France aux colonies》)—앙리 뤼씨에의 저서 《대양주의 분할》(Henri Russier: 《Le Partage de l'Océanie》), 1905년 빠리판, 165페지에서.

치적 분할을 위한 렬강들의 투쟁에 귀착되는 국제정책이 국가적종속의 여러가지 과도적형태를 조성한다는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하겠다. 이 시대에 있어서 국가들의 전형적형태로는 식민지점유국과 식민지, 이 두가지 큰 류형뿐만아니라 형식상에서는 정치적으로 독립했으나 실제상에서는 재정과 외교 면의 예속망에 걸려있는 예속국들의 각종 형태도 있다. 반식민지라는 이 한 형태에 대해서는 우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아르헨띠나는 또 다른 한 형태의 표본으로 된다.

슐제-게페르니쯔는 브리텐제국주의에 관한 자기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남아메리카, 특히 아르헨띠나는 거의 영국의 상업적식민지라 할수 있을만큼 재정상에서 런던에 예속되여있다.》① 쉴데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주재한 오지리-웽그리아제국령사의 1909년도 보고에 근거하여 아르헨띠나에 투하된 영국의 자본이 87억 5,000만프랑에 달한다고 산정하였다. 이 투자에 의하여 영국의 금융자본 및 그의 충실한 《벗》(외교)이 아르헨띠나의 자산계급 및 아르헨띠나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생활전체의 지도층과 얼마나 튼튼히 련계되여있는가 하는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포르뚜갈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있으면서도 재정 및 외교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좀 다른 한가지 형태의 실례로 된다. 포르뚜갈은 독립한 주권국가이다. 그러나 실제상에서는 에스빠냐왕위의 계승권을 위한 전쟁(1701~1714년)이 있은 이래

---

① 슐제-게페르니쯔의 저서 《20세기초에 있어서의 브리텐제국주의와 영국의 자유무역》(Schulze-Gaevernitz: 《Britischer Imperialismus und englischer Freihandel zu Beginn des 20-ten Jahrhunderts》), 1906년 라이프찌히판, 318페지와 자르토리우스 폰 왈테르스하우젠의 저서 《국외투자의 국민경제제도》(Sartorius v. Waltershausen: 《Das volkswirtschaftliche System der Kapitalanlage im Auslande》), 1907년 베를린판, 46페지

200여년간이나 줄곧 영국의 보호하에 있다. 영국은 자기의 적수인 에스빠냐와 프랑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진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뽀르뚜갈 및 그의 식민지령토를 보호하였다. 영국은 이로써 상업상에서의 리익과 뽀르뚜갈 및 그 식민지에로의 상품수출, 특히 자본수출에 대한 특혜조건을 얻었으며 뽀르뚜갈의 항만, 섬 및 해저케블 등을 리용할수 있는 권한①을 얻었다. 일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간의 이런 관계는 줄곧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제국주의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관계가 보편적인 제도로 되며 《세계분할》의 전반 관계에서의 한 부분으로 되며 전 세계 금융자본활동의 일부 고리로 되고있다.

세계분할문제에 대한 토론을 끝맺으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미국-에스빠냐전쟁이후의 미국의 문헌이나 영국-보어전쟁이후의 영국의 문헌만이 19세기말내지 20세기초에 이 문제를 아주 공공연하게, 명백하게 내세운것은 아니며 또 《질투심》을 품고 《브리텐제국주의》를 주시한 독일의 문헌들만이 이 사실을 체계적으로 평가한것도 아니다. 프랑스자산계급의 문헌들 역시 이 사실에 대하여 자산계급견지에서 상상할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하고 명백하게 또 광범하게 제기하였다. 우리는 력사가인 드리오가 자기의 저서 《19세기말의 정치문제와 사회문제》중의 《렬강과 세계분할》이라는 장에서 쓴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을 인용하자. 《근년에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점령되지 않고있던 땅들이 구라파와 북아메리카의 렬강들에 의하여 점령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미 일부의 충돌과 세력변동이 발생되였는데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더욱 무서운 폭발이 일어나리라는것을 예시한다. 왜냐

---

① 쉴데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제1권, 160~161페지

하면 아직까지 한몫도 얻지 못한 국가들은 영영 자기 몫을 얻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가, 또 다음세기(즉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될 세계적범위에서의 대규모적착취에 영영 참가하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가 하여 창황망조하게 되는 때문이다. 이리하여 근래에 전 구라파와 미국은 식민지확장열, 즉 19세기말의 가장 현저한 특점인 〈제국주의〉열에 걸리였다.» 저자는 또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세계분할의 이러한 정형하에서, 세계의 보물고와 대시장을 미친듯이 추구하는 이러한 결투가운데서 이 세기, 즉 19세기에 창건된 제국들간의 력량대비는 이러한 제국을 창건한 민족들이 구라파에서 차지하고있는 지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있다. 구라파에서 우세를 차지하고있는 렬강, 즉 구라파의 운명을 주재하는자가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세를 차지할수는 없다. 강대한 식민세력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원을 점령하려는 희망은 확실히 구라파렬강들의 력량대비에 반작용을 줄것이므로 구라파자체의 정치정세를 변경시킨 이 식민지문제(《제국주의》라 하여도 좋다.)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이 정세를 변경시킬것이다.»①

7.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우리는 이제 일정한 결론을 지어야 하며 제국주의에 관해서 이상에서 한 말들을 귀납하여야 할것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일반의 기본특성의 발전 및 직접적인 계속으로서 자라

① 드리오의 저서 《정치문제와 사회문제》(J. E. Driault: 《Problèmes politiques et sociaux》), 1907년 빠리판, 299페지

났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오직 그 발전의 일정한, 극히 높은 단계에서 즉 자본주의의 몇가지 기본특성이 그 대립물로 전화하게 되고,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형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특징이 전면적으로 뚜렷이 형성되고 발현된 그때에야 비로소 자본주의적제국주의로 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기본적인것은 자본주의적자유경쟁이 자본주의적독점으로 바뀌여진 사실이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 및 상품생산일반의 기본특성이며 독점은 자유경쟁의 직접적인 대립물이다. 그런데 이 자유경쟁은 대생산을 창조하고 소생산을 구축하며 대생산을 더욱 큰 대생산으로 교체하며 드디여는 그것으로부터 독점—카르텔, 신지케이트, 트레스트 등 독점체 및 이런 독점체들과 유착된 수십억을 지배하는 10개가량의 은행자본—이 장성하였으며 장성하는데까지 생산과 자본을 집적하면서 우리의 눈앞에서 독점으로 전화되였다. 이와 동시에 자유경쟁의 과정에서 자라난 독점은 자유경쟁을 제거할 대신 자유경쟁의 우에서 또는 그와 병행하여 존재하면서 일련의 특히 첨예화된 더 격심한 모순, 알륵 및 충돌을 일으킨다. 독점은 자본주의로부터 보다 높은 제도에로의 이행이다.

제국주의에 될수록 더 간단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독점적단계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괄하는것일것이다. 왜냐하면 일방으로는 금융자본은 독점적공업가동맹의 자본과 유착된 소수의 독점적인 대은행의 은행자본이며 타방으로는 세계분할은 어느 자본주의렬강에도 점령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아무 장애 없이 확장해오던 식민정책으로부터 이미 다 분할된 세계령토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려는 식민정책에로의 이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간단한 정의는 주요한 내용을 포괄하고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 정의로부터 규정하여야 할 그 현상의 극히 중요한 특점을 특히 끄집어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은 어쨌든 불충분한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의는 조건적, 상대적 의의를 가질수 있을뿐 충분히 발전하고있는 현상의 전면적련계는 도저히 포괄할수 없다는것을 잊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기본특징을 포함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것이다. 즉 (1) 생산과 자본의 집적, 이것이 높은 정도로 발전되여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역할을 노는 독점체를 조성하기까지 되였다는것, (2)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유착되였으며 이 《금융자본》에 기초하여 금융과두정치가 형성되였다는것, (3) 상품수출과는 다른 자본수출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 (4) 자본가국제독점동맹이 이미 형성되여 세계를 분할하고있는것, (5) 가장 큰 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서 세계령토에 대한 분할이 완료된것. 제국주의는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이미 확립되였고 자본의 수출이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고 국제트레스트들에 의한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가장 큰 자본주의나라들에 의한 세계의 전부 령토 분할이 완료된 그러한 발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이다.

후에 보게 되는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기본적인 순 경제적개념(상술한 정의는 이 개념에 국한되였다.)뿐만아니라 자본주의일반에 있어서 자본주의 현단계의 력사적지위 또는 제국주의와 로동운동내의 두가지 주요조류간의 관계를 고려에 넣는다면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달리 내릴수 있으며 또 달리 내려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우에서 지적한 의미로 해석하면 제국주의란 틀림없이 자본주의의 특수한 발전단계라는것이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될수 있는데까지 제국주의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개념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최신자본주의경제중에서 아주 확실한 사실을 승인하지 않

을수 없게 된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을 될수 있는대로 많이 인용하였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은행자본 등의 발전정도여하, 량의 질에로의 전화, 즉 발달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에로의 이행이 어떤데서 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세한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물론 자연이나 사회에서 모든 한계는 조건적인것이며 가동적인것이므로 만약 제국주의가 어느해에 혹은 몇십년대에 《종국적》으로 확립되였는가 하는것을 론쟁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소위 제2국제당시기 즉 1889년으로부터 1914년까지의 25년간의 주요한 맑스주의리론가인 카.카우쯔키와 론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카.카우쯔키는 제국주의에 관한 우리의 정의에 표현된 기본사상을 아주 단호히 반대하면서 1915년에, 아니 1914년 11월에 벌써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국주의를 일종의 경제적 《국면》이나 단계로 리해할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책, 즉 금융자본에 의하여 《선택되는》 일종의 정책으로 리해하여야 할것이며 제국주의를 《현대자본주의》와 《같은것으로》 볼수는 없다. 만약 제국주의를 《현대자본주의의 모든 현상》(카르텔, 보호관세정책, 금융자본가의 지배, 식민정책)으로 리해한다면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해 필연적이라는 이 문제는 《같은 뜻의 말을 아주 평범하게 되풀이하는것》으로 되고말것이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제국주의는 두말할것없이 자본주의의 절박한 수요》이기때문이다, 등등. 우리는 카우쯔키의 사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천명한 사상의 실질을 직접 반대하여 내린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정의(직접 반대하여 내렸다고 하는것은 다년간 이런 사상을 관철하여온 독일의 맑스주의자진영으로부터 제기된 반박이 바로 맑스주의의 한개 조류로부터 제기된 반박이라는것을 카우쯔키는 일찍

부터 알고있었기때문이다.)를 인용하자.

카우쯔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그곳에 어떤 민족이 살고있는가 하는 사실에는 관계없이 갈수록 더 많은 농업〔고시크체는 카우쯔키의것이다.〕지역을 병탄 또는 정복하려고 애쓰는 모든 산업자본주의적민족의 지향이다.》①

이 정의는 전혀 쓸모가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면적이기때문이다. 즉 되는대로 단지 민족문제(비록 그 문제는 그자체로 보아서나 그것의 제국주의에 대한 관계로 보아서나 다 특히 중요한것이지만) 하나만을 강조하며 되는대로 또는 그릇되게 그 문제를 단지 다른 민족을 병탄하는 국가들의 산업자본과만 련계시키며 동시에 되는대로 또는 그릇되게 농업구역에 대한 병탄을 내세우기때문이다.

제국주의는 병탄하려는 지향이다라는 여기에 카우쯔키가 내린 정의의 정치적부분이 귀착된다. 이것은 옳다. 그러나 극히 불충분하다. 왜냐 하면 정치적으로 제국주의라는것은 언제나 폭력과 반동에로 나가려는 지향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것은 카우쯔키자신이 그의 정의에 인입한 경제적측면이다. 카우쯔키가 내린 정의가 그릇되였다는것은 아주 명백하다. 제국주의를 특징짓는것은 실로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인것이다. 프랑스에서 금융자본의 특히 급격한 발전이(산업자본이 약화된 정형하에서) 전세기 80년대이래의 병탄정책(식민정책)을 극도에 이르게 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를 특징짓는것은 실로 농업지역뿐만아니라 지어는 극히 발달한 공업지역(벨지끄에 대한 독일의 탐욕,

---

① 잡지 《신시대》, 1914년(제32권), 제2호(1914년 9월 11일 출판), 909페지. 같은 잡지, 1915년, 제2호, 107페지 및 이하 각 페지를 참조하라.

로렌에 대한 프랑스의 탐욕)까지도 병탄하려는 지향이다. 왜냐 하면 첫째로 세계의 분할이 이미 끝났으므로 재분할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지역이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둘째로 직접 자기만을 위해서라기보다 주로는 적수를 약화시키며 그의 패권을 파괴하기 위하여 몇개 대국이 모두 패권을 쟁탈하려 하는것, 즉 령토를 쟁탈하려 하는것이 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기때문이다.(독일에 대해 말하면 영국을 반대하는 근거지로서 벨지끄가 중요한것이며 영국에 대해 말하면 독일을 반대하는 근거지로서 바그다드가 중요한것 등이다.)

카우쯔키는 특히—그리고 여러차례—영국사람들의 언론을 인용하면서 영국사람들이 확정한 제국주의라는 이 명사의 순정치적의의는 카우쯔키자신의 의사와 같다고 여겼다. 영국인 홉슨을 들어보자. 1902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제국주의》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신제국주의가 구제국주의와 다른 점은 첫째로 날로 커가는 어느 한 제국의 욕망 대신에 정치세력의 확대와 상업적리익에 대한 동일한 열망을 지침으로 삼는, 경쟁하는 몇개 제국의 리론과 실천을 내세우는것이며, 둘째로 금융리익과 투자리익이 상업리익을 지배하는데 있다.》①

우리는 카우쯔키가 영국인일반의 언론을 인용했다고 빙자하는것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다는것을 본다(그는 기껏해서 영국의 속류제국주의자나 혹은 직접적으로 제국주의를 변호하는자들의 언론을 인용할수 있을뿐일것이다). 우리는 카우쯔키가 맑스주의를 계속 수호한다고 자처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사회자유주의자 홉슨보다 일보 퇴각한것을 본다. 홉

---

① 홉슨의 저서 《제국주의》, 1902년, 런던판, 324페지

순은 현대제국주의의 두가지 《력사적—구체적》(카우쯔키는 자기의 정의로써 바로 이 력사적구체성을 우롱하고있다!)특점, 즉 첫째로 몇개 제국주의간의 경쟁, 둘째로 금융가들이 상인들을 통제하고있다는것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있다. 그런데 만일 주로 공업국이 농업국을 병탄하는것이 문제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인을 첫자리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카우쯔키의 정의는 옳지 못하고 비맑스주의적일뿐만아니라 맑스주의적리론과 맑스주의적실천을 전면적으로 배반하는 견해의 전반 체계의 기초로 되여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더 말하려 한다. 자본주의의 최신단계를 제국주의라고 할것인가, 금융자본의 단계라고 할것인가 하는것을 가지고 카우쯔키가 일으킨 용어에 관한 론쟁은 전혀 의의없는 론쟁이다. 마음대로 불러라. 어떻게 불러도 매한가지이다. 관건은 카우쯔키가 제국주의정책을 그의 경제와 분리시키고 병탄을 금융자본에 의하여 《선택되는》 정책으로 해석하면서 역시 금융자본의 기초우에서 가능한 다른 한가지의 자산계급정책을 병탄에 대립시키고있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경제에서의 독점이 정치에서의 비독점적, 비폭력적, 비략탈적 행동방식과 상용될수 있는것으로 되며 세계의 령토분할(이러한 분할이 바로 금융자본의 시대에 와서 끝났고 자본주의의 최대렬강들이 현재 호상경쟁하는 특수형태의 기초로 되고있다.)도 역시 비제국주의적정책과 상용될수 있는것으로 된다. 그 결과로는 자본주의최신단계의 가장 근본적모순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모순을 은폐하고 완화시키는것으로 되며 맑스주의 대신에 자산계급개량주의를 가져오는것으로 된다.

카우쯔키는 제국주의와 병탄정책의 변호자인 독일의 쿠노브와 론전하였다. 쿠노브는 제국주의는 현대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의 발전은 불가피적이며 또 진보적이다, 그러므로 제국

주의도 또한 진보적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앞에 굴종하여야 하며 그것을 찬미하여야 한다고 졸렬하고도 몰렴치하게 추론하였다. 이것은 1894~1895년에 인민파가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그려놓은 만화와도 같다. 인민파는 만일 맑스주의자들이 로씨야에서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이며 또 진보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들은 술집을 차려놓고 자본주의를 부식하여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카우쯔키는 쿠노브를 반박하여 말하기를 제국주의는 현대자본주의가 아니라 현대자본주의정책의 한 형태이므로 우리는 이 정책을 반대하여 또 제국주의와 병탄 등을 반대하여 싸울수 있으며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 반박은 아주 도리가 있는듯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와 융화하려고 하는 보다 더 교묘하고 보다 더 은폐적인 (그러므로 보다 위험한) 설교와 같은것이다. 왜냐 하면 트레스트와 은행의 경제적근저는 건드리지 않고서 이 트레스트와 은행의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는것은 결국 자산계급의 개량주의와 평화주의에 지나지 않는것이며 선량하고 천진한 념원에 불과한것이기때문이다. 모순의 근저를 철저히 폭로할 대신에 현존하는 모순을 회피하며 그 모순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을 망각하는것—이것이 바로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카우쯔키의 리론이다. 이러한 《리론》은 쿠노브파와의 통일의 사상을 변호해줄뿐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카우쯔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순 경제적견지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 말하자면 카르텔정책을 대외정책에 응용하는 초제국주의단계를 거칠수 없는것은 아니다.》① 이 초제국주의단계란 전 세계 제국주의들이 피차 투쟁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련합하는 단계이며 자본주의제도하

① 잡지 《신시대》, 1914년(제32권), 제2호(1914년 9월 11일 출판), 921페지. 같은 잡지, 1915년, 제2호, 107페지 및 이하 각 페지를 참조하라.

에서 전쟁을 정지시키는 단계이며 《국제적으로 련합된 금융자본에 의해 공동으로 세계를 착취》①하는 단계라는것이다.

이 《초제국주의론》이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또 만회할수 없이 맑스주의를 배반하였는가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기회에 더 말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이 저서의 총적계획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경제적자료를 보아야 한다. 《순경제적견지에서 본다면》 이 《초제국주의》라는것은 구경 실현될수 있는것인가 아니면 너무 시시한것인가?

만약 순 경제적견지라는것을 《순 추상적》개념으로 간주한다면 발전추세는 독점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하여 한개의 전 세계적독점체에로, 즉 한개의 전 세계적트레스트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명제에 귀착될것이다. 이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발전추세》가 실험실내의 식료품생산에로 나아간다는 말과 같은 전혀 아무런 내용도 없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초제국주의의 《리론》은 《초농업리론》과 같은 허튼소리이다.

만일 금융자본시대의 《순 경제적》조건이라고 하는것이 20세기초의 력사적-구체적시대를 두고 한 말이라면 《초제국주의》라는 이 죽은 추상적개념(이러한 개념에는 현존한 모순의 근저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반동적인 목적이 있을뿐이다.)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은 현대세계경제의 구체적-경제적현실을 그 죽은 추상적개념에 대립시키는것이다. 초제국주의에 관한 카우쯔키의 아무런 내용도 없는 론의는 금융자본의 지배가 기실은 세계경제내부의 불균형과 모순을 강화시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화시키는듯이 생각하는 그러한 극히 옳지 못하며 또 제국주의변호사들의 성세를 돋구

---

① 잡지 《신시대》, 1915년, 제2호(1915년 4월 30일 출판), 144페지

어주는 사상을 고무하여주는것이다.

에르. 칼웨르는 그의 《세계경제입문》①이라는 소책자에서 19세기로부터 20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의 세계경제내부의 호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 경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전 세계를 다음과 같이 다섯개의 《주요경제적지역》, 즉 (1) 중앙구라파(로씨야와 영국을 제외한 전 구라파), (2) 브리텐, (3) 로씨야, (4) 동부아세아, (5) 아메리카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식민지는 그것들이 소속되여있는 국가의 《지역》에 포괄시켰고 상술한 다섯개의 구역에 분속되지 아니한 약간의 국가들, 례컨대 아세아의 페르샤, 아프가니스탄 및 아라비아, 아프리카의 마로고, 아비씨니아 등은 《도외시하였다》.

그가 렬거한 이 지역들의 경제적자료를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 주요경제지역	면적	인구	교통운수업		무역	공업		
			철도	상선	수출 수입 합계	생산량		면방직업방적추수
	(단위 백만평방키로메터)	(단위 백만명)	(단위 천키로메터)	(단위 백만톤)	(단위 십억마르크)	(단위 백만톤)		(단위 백만)
						석탄	선철	
(1) 중앙구라파지역②	27.6 (23.6)	388 (146)	204	8	41	251	15	26
(2) 브리텐지역②	28.9 (28.6)	398 (355)	140	11	25	249	9	51

---

① 에르. 칼웨르의 저서 《세계경제입문》(R. Calwer: 《Einführung in die Weltwirtschaft》), 1906년, 베를린판.

② 괄호안의 수자는 식민지의 면적과 인구이다.

(3) 로씨야지역	22	131	63	1	3	16	3	7
(4) 동부아세아지역	12	389	8	1	2	8	0.02	2
(5) 아메리카지역	30	148	379	6	14	245	14	19

우리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교통운수업, 무역 및 공업이 심히 발전된) 3개 지역 즉 중앙구라파지역, 브리텐지역 및 아메리카지역을 본다. 그중의 3개국—독일, 영국,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있다. 그들사이의 제국주의적 경쟁 및 투쟁은 독일이 매우 작은 지역을 가졌고 식민지도 적게 가졌음으로 인하여 극히 첨예하게 된다. 《중앙구라파지역》의 형성은 아직 장래의 일이며 또한 그것은 필사적인 투쟁속에서 생겨나고있다. 아직까지는 전 구라파의 특징은 정치적분렬이다. 이와 반대로 브리텐지역과 아메리카지역들에서는 정치적집중이 아주 높다. 그러나 그들사이에는 또 거대한 차이가 있다. 즉 전자에게는 광대한 식민지가 있지만 후자에게는 식민지가 매우 적다. 그런데 식민지에서는 자본주의가 방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남아메리카를 쟁탈하려는 투쟁은 더욱더 첨예해지고있다.

자본주의발전이 미약한 두 지역은 로씨야지역과 동부아세아지역이다. 전자는 인구밀도가 극히 낮고 후자는 인구밀도가 극히 높다. 전자는 정치상에서 매우 집중되였고 후자는 정치상에서 집중되지 못하였다. 중국에 대한 분할은 방금 시작되였으며 그리하여 중국을 쟁탈하기 위한 일본, 미국 등 나라들간의 투쟁은 더욱더 첨예화되고있다.

이러한 실제정형—경제적 및 정치적 조건이 극히 다르며

각국의 발전속도 등이 극히 불일치하며 또 제국주의 각국간에 열광적인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정형—을 《평화적》초제국주의라는 카우쯔키의 어리석고도 가소로운 허튼소리와 대조하여보라. 이것이 과연 가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놀란 속물의 반동적인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카우쯔키에게 《초제국주의》의 맹아로 보이는 국제카르텔(실험실내에서의 알약생산을 초농업의 맹아라고 언명《할수 있는》것과 같이)은 세계에 대한 분할과 재분할의 실례, 평화적분할로부터 비평화적분할에로 넘어가는 실례, 다시 비평화적분할로부터 평화적분할에로 넘어가는 실례를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이전에는 도일과 같이(례하면 국제레루신지케이트 혹은 국제해운트레스트에서) 전반 세계를 평화적으로 분할했던 미국 및 기타 나라들의 금융자본이 오늘은 개변되고있는(전연 비평화적방법을 거쳐 개변되고있는) 새 실력의 대비에 기초하여 과연 세계를 재분할하고있지 않는가?

금융자본과 트레스트들은 세계경제의 여러 부분들간의 발전속도상에서의 차이를 감소시키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확대시킨다. 실력대비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실력으로 모순을 해결하는외에 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는 전반 세계경제중에서의 자본주의 및 금융자본의 발전속도상 차이에 관한 비상히 정확한 자료를 철도통계에서 보게된다①. 제국주의발전의 최근 수십년간에 철도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

① 1915년 《독일제국통계년감》(《Stat. Jahrbuch für das deutsche Reich》), 1892년 《철도업기록》(《Archiv für Eisenbahnwesen》), 1890년 각국 식민지간의 철도분포면의 일부 상세한 정형에 관해서는 대략적으로 짐작할수밖에 없다.

철도의 길이(단위 1,000키로메터)

	1890년		1913년		증가수	
구라파	224		346		+ 122	
미국	268		411		+ 143	
식민지전체	82	125	210	347	+ 128	+ 222
아세아 및 아메리카의 독립국과 반독립국	43		137		+ 94	
합 계	617		1,104			

그리하여 철도가 가장 급속히 발전된것은 아세아 및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와 독립국(및 반독립국)들에서이다. 일반이 알고있는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4~5개의 최대자본주의국가들의 금융자본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모든것을 통치한다. 아세아와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 및 기타 나라에 새로 부설된 20만키로메터의 철도—이것은 특히 유리한 조건하에서, 수입이 특히 보장되고 제강공장이 후한 리익을 얻을수 있는 주문 등등의 조건하에서 400여억마르크의 자본이 새로 투하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식민지와 해외의 나라들에서 가장 급속히 발전한다. 이 나라들가운데서는 새로운 제국주의강국(일본과 같은)들이 출현한다. 전 세계 제국주의들간의 투쟁은 첨예화하여간다. 금융자본이 특히 유리한 식민지기업과 해외기업들로부터 받는 공물은 날로 증대되여간다. 이러한 《획득물》을 분배할 때 극히 큰 한 부분은 생산력의 발전속도에서 늘쌍 제1위를 차지하는것은 아닌 그러한 나라들의 수중에 들어간다. 대렬강들—그들의 식민지를 합하여—의 철도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1,000키로메터)

	1890년	1913년	증 가 수
미국	268	413	+145
브리텐제국	107	208	+101
로씨야	32	78	+ 46
독일	43	68	+ 25
프랑스	41	63	+ 22
5대강국의 합계	491	830	+339

이와 같이 근 80%의 철도가 5대강국의 수중에 집중되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들에 대한 **소유권**의 집중정도, 즉 금융자본의 집적정도는 헤아릴수 없으리만큼 더 크다. 왜냐하면 철도에 대한 미국, 로씨야 및 기타 국가들의 대량적인 주권 및 채권이 영국 및 프랑스의 백만장자들에게 속하여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그의 식민지에 의거하여 《자기의》 철도망을 10만키로메터 즉 독일에 비하여 4배를 더 늘이였다. 그런데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시기 독일의 생산력발전, 특히 석탄 및 강철생산의 발전은 프랑스와 로씨야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영국보다도 비할수 없으리만큼 급격히 발전되였다. 1892년에는 영국의 680만톤에 대하여 독일은 490만톤의 선철을 생산하였을뿐이나 1912년에 와서는 벌써 영국의 900만톤에 대하여 독일은 1,760만톤을 생산하여 영국을 훨씬 앞섰던것이다①. 묻노니, **자본주의기초우에서**는 한편으로 생산력의 발전 및 자본의 축적과 한편으로 식민지 및 《세력범위》에 대한 금융자본의 분할과

① 에드거 크램몬드의 《브리텐제국과 독일제국의 경제관계》(Edgar Crammond: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 British and German Empires》)를 참조. 이 글은 《왕립통계협회잡지》, 1914년 7월, 777페지 및 이하 각 페지에 게재되여있다.

의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제거하는데는 전쟁이외에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8.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의 극히 중요한 한 측면에 대하여 론급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에 관한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 측면에 대하여는 태반이 불충분하게 평가하고있다. 맑스주의자 힐페르딩의 결점의 하나는 바로 이 점에서 그가 비맑스주의자인 홉손에 비하여 한걸음 퇴각하였다는데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에 특유한 기생성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우리가 이미 본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가장 뿌리깊은 경제적기초는 독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독점이다. 즉 자본주의에서 성장하여 자본주의, 상품생산 및 경쟁이라는 일반적환경속에 있으면서 또 항상 그 일반적환경과 해결할수 없는 모순에 처하여있는 독점이다. 그러나 이 독점은 온갖 다른 독점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침체와 부패에로의 경향을 낳는다. 일시적이나마 독점가격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진보와 따라서 다른 모든 진보를 즉 전진운동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소멸되며 또 나아가서 기술적진보를 인위적으로 지체시킬수 있는 경제적가능성이 생긴다. 례하면 미국에서 오엔즈라는 사람이 제병업에 혁명을 일으킬수 있는 제병기계를 발명하였다. 독일의 제병공장주들의 카르텔은 오엔즈의 특허권을 매수하여 책상속에 감추어두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리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물론 자본주의제도하에서 독점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전면적으로, 장기적으로 제거할수는 없다(이것이 초제국주의론이 엉터리없는것으로 되는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기술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저하시키고 리윤을 제고시킬수 있으며 이런 가능성은 각종 변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독점에 고유한 침체와 부패에로의 추세는 의연히 계속적으로 작용하며 그리하여 그것은 개별적산업부문, 개별적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광활하고 부유하거나 지리적위치가 좋은 식민지를 소유한 독점도 그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제국주의란 몇개의 나라에 화폐자본이 거대하게 집적되는것인데 그 액수는 우리가 본바와 같이 유가증권으로, 1,000억~1,500억프랑에 달한다. 이리하여 《리표끊기》로써 살아가며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일을 일삼는 금리생활자계급, 더 정확히 말하면 금리생활자계층이 대대적으로 장성한다.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기초의 하나인 자본수출은 금리생활자들을 생산으로부터 완전히 리탈하게 하며 해외에 있는 몇개 나라와 식민지의 로동을 착취하는데 의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에 기생성이라는 락인을 찍어놓는다.

홉슨은 《1893년에 국외에 투하된 브리텐의 자본은 련합왕국의 총재부의 약 15%가 된다.》①고 썼다. 우리는 이 자본이 1915년에 이르러 약 2배 반이 증가되였다는것을 지적해야겠다. 홉슨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납세자들에게는 그렇게도 비싼 값을 치르게 하며 공상업자들에게는 의의가 그렇게도 적은 침략적제국주의는…그러나 자본을 투하할 곳을 찾는 자본가들〔영어에서는 이 자본가라는 개념을 《investor》라는 한마디로써 표현하는데 그 뜻인즉 《자본투하자》, 금리생활자이다.〕에게는 큰 리윤의 원천이다.》《통계학자 기펜의 계산에 의하면 1899년에 대브리텐이 전체 대외무역 및 식민지무역(수입과 수출을 포함)에서 얻은 년수입총액은 무역총액 8억파운

① 홉슨의 앞에서 인용한 책, 59폐지와 60폐지

드의 2.5%로 보아 1,800만파운드(근 1억 7,000만루블)로 계산된다.》 이 액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연히 대브리텐제국의 침략적제국주의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의 침략적제국주의를 설명해줄수 있는것은 《투하》자본으로부터의 수입, 즉 금리생활자층의 수입을 이루는 9,000만 내지 1억파운드라는 금액이다.

금리생활자의 수입은 세계에서 《상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의 대외무역수입의 5배나 된다! 이것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기생성의 실질이다.

그러므로 《금리생활자국가》(Rentnerstaat) 혹은 고리대국가라는 이 개념은 제국주의에 관한 경제학저작에 널리 쓰여지게 된다. 세계는 극소수의 고리대국가와 막대한 수효의 채무자국가로 나뉘여졌다. 슐쩨-게페르니쯔는 다음과 같이 썼다. 《국외에 투하한 가운데서는 정치적으로 예속된 국가들이나 동맹을 맺은 국가들에 투하한것이 첫자리를 차지한다. 즉 영국은 애급, 일본, 중국 및 남아메리카에 차관을 주고있다. 필요할 때에 영국의 해군은 집달리의 역할을 한다. 영국의 정치위력은 채무국의 반란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있다.》① 자르토리우스 폰 왈테르스하우젠은 자기의 저서 《국외투자의 국민경제제도》에서 화란을 《금리생활자국가》의 표본으로 들었고 또 지금의 영국과 프랑스도 이런 나라로 되여간다고 지적하였다②. 쉴데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지고, 스위스 이 5개 공업국을 《명실이 부합되는 채권국》이라고 인정하였다. 그가 화란을 여기에 넣지 않은것은 화란이 《덜 공업화》③되였기때

① 슐쩨-게페르니쯔의 저서 《브리텐제국주의》, 320페지 및 기타.

② 자르토리우스 폰 왈테르스하우젠의 저서 《국외투자의 국민경제제도》. 1907년, 베를린판, 제4책.

③ 쉴데르의 앞에서 인용한 책, 393페지

문이라는데서일뿐이다. 미국은 아메리카에 대해서만 채권국이다.

슐쩨-게페르니쯔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영국은 공업국으로부터 점차 채권국으로 전화되고있다. 그 공업생산과 공업품수출이 절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반 국민경제에서 리자, 리익배당금 그리고 유가증권발행, 중개, 투기 등 면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의 상대적의의는 갈수록 증대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실이야말로 제국주의적륭성의 경제적기초가 되는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련계는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련계보다 더 튼튼하다.》① 베를린의 잡지 《은행》의 발행자 아. 란스부르그는 1911년에 《독일은 금리생활자의 국가》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독일의 정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인들은 프랑스가 보여주는것과 같은 그런 금리생활자에로 전화하는 경향을 비웃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산계급과 관계되는 한에서는 독일의 사정이 더욱더 프랑스의 사정과 비슷하여간다는것은 잊어버리고있다.》②

금리생활자국가는 기생적이며 부패하여가는 자본주의국가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들의 사회-정치적조건들에, 그리고 특수적으로는 로동운동내부의 두 기본조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을 가급적으로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신용》할수 있는 증인인 홉슨의 말을 들어보자. 왜냐 하면 그 누구도 홉슨을 《맑스주의적정통사상》의 광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을것이기때문이며 또 홉슨은 영국사람인만큼 식민지도 금융자본도 제국주의적경험도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

① 슐쩨-게페르니쯔의 저서 《브리텐제국주의》, 122페지

② 잡지 《은행》, 1911년, 제1호, 10～11페지

홉슨은 영국-보어전쟁에 대한 생생한 인상밑에서 제국주의와 《금융업자》의 리익과의 련계, 군수품 조달과 공급에서 얻는 《금융업자》의 리윤이 증대되는 정형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명백한 기생적정책의 지휘자는 자본가들이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동기는 로동자중의 특수계층에도 또한 영향을 주고있다. 많은 도시들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부문들은 모두 정부의 주문에 의존하는바 야금공업과 조선공업 중심지들의 제국주의는 적지 않게 이러한 정황에 의존한다.》 저자의 의견에 의하면 (1) 《경제적기생성》과 (2) 예속국인민으로써 군대를 편성하는 이 두가지 사정이 낡은 제국들의 힘을 약화시켰다고 한다. 《첫째 사정은 지배국이 자국의 지배계급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나라 하층계급이 온순하게 남아있도록 그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점령지, 식민지 및 예속국들을 리용하는 경제적기생습성이다.》 우리가 첨부할 것은 매수가 어떤 형식으로써 되든지간에 이러한 매수의 경제적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독점적리윤이 있어야만 한다는것이다.

둘째 사정에 관하여 홉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제국주의의 맹목성의 가장 기묘한 징조의 하나는 영국이나 프랑스 및 기타 제국주의국가들이 이 길로 나아가면서 표현하는 무관심한 태도이다. 이 면에서 가장 엄중한것은 영국이다. 우리는 인도제국을 정복하는 대부분의 전역을 토착민으로 편성된 군대로써 진행하였다. 인도에서, 또 최근에는 애급에서도 대량적인 상비군이 모두 영국인의 지휘를 받고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점령하던 모든 전쟁에서 남부아프리카에 대한 정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토착민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웠다.》

중국분할의 전망에 대하여 홉슨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평가를 하고있다. 《그때에는 서구라파의 대부분 지역은 그 나라

들의 일부 즉 영국남부, 리비에라, 유람객이 가장 많고 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이딸리아나 스위스의 여러 지방이 지금 가지고있는 그러한 광경과 특징을 가지게 될것이다. 즉 극동으로부터 리익배당금과 년금을 받는 극소수의 부유한 귀족들뿐아니라 보다 많은 수의 사무원 및 상인들과 보다 더 많은 수의 가정노예 그리고 운수업, 제품의 최종가공에 종사하는 로동자들까지 산생될것이다. 주요한 산업부문들은 소멸될것이며 대량적인 식료품과 반제품은 공물로서 아세아와 아프리카로부터 련속부절히 들어올것이다.》《이것이 곧 서방국가들의 보다 광범한 동맹 즉 구라파렬강들의 련맹이 우리앞에 열어주는 가능성이다. 이 련맹은 전 세계의 문명사업을 추진시키지 못할뿐만아니라 도리여 서방의 기생성을 조성하는 거대한 위협성을 가지고있음을 의미할수 있는것으로서 이것은 선진적공업국들, 즉 그 국가들의 상층계급들이 아세아와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으며 또 그 공물들을 가지고 길들인 많은 사무원과 종복들—농산물 및 공업품의 대량적생산에 종사하는것이 아니라 새 금융귀족의 감독하에서 몸시중을 하거나 부차적인 공업로동에 종사하는—을 길러내는 그런 선진적공업국가들을 낳을수 있는 위협성이다. 이러한 리론〔전망이라고 말해야 할것이다.〕을 무시하며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이러한 상태에 빠진 오늘의 영국남부 각 지방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을 생각하여보라고 하라. 일단 중국이 이러한 금융업자, 〈자본투하자〉 및 그들의 정치적 공상업적 사무원들의 경제적통제에 굴복하게 되여 세계에서 일찍 들어보지 못한 이 가장 거대한 부원에서 리윤을 뽑아내여 구라파에 소비하게 된다면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정도로 확장되겠는가 생각하여보라고 하라. 물론 사태가 너무나 복잡하고 세계 각종 력량의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만큼

단 한가지 전망에 대해서나 다른 어떤 전망에 대해서 사전에 긍정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오늘 서구라파제국주의를 지배하고있는 세력은 확실히 이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만일 그 세력이 다른 어떤 저애를 받지 않으며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면 그 세력은 바로 이 한 행정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될것이다.》①

저자는 완전히 옳게 말하였다. 만일 제국주의의 힘이 다른 저애를 받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될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제국주의적정세하에서 가지는 《구라파련방》의 의의가 정당하게 평가되였다. 그런데 한가지 첨부하여야 할것은 로동운동내부에서도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한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이 방향에서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고》있다는것이다. 제국주의란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착취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분할을 의미하며 극소수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높은 독점리윤을 점유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는 무산계급의 상층을 매수할 경제적가능성이 있으며 또 그리함으로써 기회주의를 양육형성하며 공고케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국주의를, 특수적으로는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력량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자유주의자인 홉슨으로서는 이런 력량을 보아낼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제국주의를 옹호했기때문에 일찌기 당에서 축출되였고 지금에 와서는 소위 독일《사회민주》당의 지도자로 될수 있을지도 모르는 독일기회주의자 게르하르드 힐데브란드는 아프리카흑인들을 반대하며 《대이슬람교운동》을 반대하며 《중일련맹》을 반대하며 《강력한 륙해군》을 편성하기 위한 등 《공동》행동

① 홉슨의 앞에서 인용한 책, 103, 205, 144, 335, 386페지 및 기타.

을 목적으로 하는 《서구라파련방》(로씨야를 제외한)을 조직할 것을 설교①함으로써 홉슨의 의견을 훌륭히 보충한다.

《브리텐제국주의》에 대한 슐쩨-게페르니쯔의 묘사도 동일한 기생성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1865년부터 1898년까지의 기간에 영국의 국민수입은 약 2배로 증가되였는데 이 기간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배로 증가되였다. 만일 《흑인을 로동하도록 교양》(강제수단이 없이는 안될것이다. …)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공적》이라면 제국주의의 《위험》은 《구라파가 육체로동—처음에는 농업로동과 광업로동, 연후에는 보다 더 힘든 공업로동—을 흑인에게 밀어맡기고 자기들은 편안히 금리생활자의 생활을 하며 아마도 홍색 및 흑색 인종의 경제적 해방, 다음으로는 정치적해방을 준비하여주는데》 있다.

영국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토지가 농업생산에 리용되지 않고 부호들의 운동경기장이나 오락장소로 되고있다. 가장 귀족적인 사냥터이며 운동장인 스코틀랜드는 《전적으로 그의 과산과 카네기씨〔미국의 억만장자〕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영국은 경마와 여우사냥에만 매년 1,400만파운드(약 1억 3,000만루블)를 소비한다. 영국에서 금리생활자수는 약 100만이 된다. 생산인구의 백분률은 감소되고있다.

	영국의 인구	주요산업부문의 로동자수	인구총수에 대한 로동자수의 백분률
	(단위 100만)		
1851년	17.9	4.1	23%
1901년	32.5	4.9	15%

① 게르하르드 힐데브란드의 저서 《공업의 지배적지위 및 공업사회주의의 동요》(Gerhard Hildebrand: 《Die Erschütterung der Industrieherrschaft und des Industriesozialismus》), 1910년판, 229페지 및 이하 각 페지

《20세기초의 브리텐제국주의》를 연구하는 자산계급학자들은 영국로동계급에 대해 말하면서 로동자의 《상층》과 《진정한 무산계급의 하층》을 갈라놓지 않을수 없었다. 그 상층에서는 다수 사람들이 협동조합, 로동조합, 체육단체 및 기타 무수한 각파의 종교단체에 참가한다. 선거법은 이 상층의 지위에 적응되여있다. 이러한 선거법이 영국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제한으로써 진정한 무산계급의 하층을 배제하고있다》!! 영국로동계급의 상태를 미화하기 위해서는 무산계급가운데서 소수를 차지하고있는 이 상층에 대해서만 말하는것이 보통이다. 례컨대 《실업문제는 주로 런던과 무산계급하층에 관한 문제인데 정치가들은 이 하층을 중요시하지 않는다.》①…라고 하였다. 정치가가 아니라 자산계급정객들과 《사회주의적》기회주의자들이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을것이다.

제국주의국가들로부터 국외로 이주하는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그대신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 후진국가들로부터 제국주의국가들에 들어오는 인구(들어오는 로동자와 이민)가 점차 많아지는 이것 역시 상술한 각가지 현상과 관련된 제국주의특점의 하나이다. 홉슨이 지적한바와 같이 영국으로부터 국외로 나간 이민은 1884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즉 1884년에는 24만 2,000명이였는데 1900년에는 16만 9,000명이였다. 독일로부터 국외로 나간 이민은 1881～1890년의 10년간에 최고수준, 즉 145만 3,0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다음의 두 10년간에는 각각 54만 4,000명 및 34만 1,000명에까지 감소되였다. 그대신 오지리, 이딸리아, 로씨야 등 나라에서 독일에 이주한 로동자수는 증가되였다. 1907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도일에는 134만 2,294명의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중 산업로동자가

① 슐제-게페르니쯔의 저서 《브리텐제국주의》, 301페지

44만 800명이였고 농업로동자가 25만 7,329명이였다①. 프랑스에서는 광산로동자의 《대부분》은 뽈스까인, 이딸리아인, 에스빠냐인 등의 외국인이다②. 미국에서는 동구라파 및 남구라파에서 온 이민들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하고있다. 그런데 미국로동자들은, 감독으로 등용되거나 임금이 가장 높은 일을 하는 로동자들중에서 최대의 백분률을 차지하고있다③. 제국주의는 로동자들중에서 특권을 가진 층을 만들어내여 그들을 광범한 무산계급대중으로부터 리탈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있다.

영국에서는 로동자들을 분렬시키며 그들속에서 기회주의를 강화하며 로동운동의 일시적부패를 발생시키는 제국주의의 경향이 19세기말과 20세기초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타났다는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의 중요한 두가지 특점 즉 거대한 식민지점유와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지위는 영국에서 19세기중엽에 벌써 있었던 일이기때문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운동내의 기회주의와 영국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특점과의 관계에 대해 수십년동안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례컨대 엥겔스는 1858년 10월 7일에 맑스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영국의 무산계급은 실제상 더욱더 자산계급화하여갑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중에서 가장 자산계급화한 이 민족는 아마도 결국에는 자산계급을 제외하고도 자산계급화한 귀족과 자산계급화한 무산계급을 가지게 되는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착취하고있는 그런 민

① 《독일제국통계》(《Statistik des Deutschen Reichs》), 제211권.

② 헹게르의 저서 《프랑스인의 투자》(Henger: 《Die Kapitalsanlage der Franzosen》), 1913년, 슈투트가르트판.

③ 후르위치의 저서 《이민과 로동》(Hourvich: 《Immigration and Labour》), 1913년, 뉴욕판.

촉으로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당연한 일입니다.》271 거의 25년이나 지나서 엥겔스는 또 1881년 8월 11일부 자기의 서한에서 《자산계급에게 매수되였거나 혹은 적어도 자산계급한테서 보수를 받는자들이 지도하는 가장 악질적인 영국의 로동조합》352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1882년 9월 12일에 카우쯔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엥겔스는 또 다음과 같이 썼다. 《영국로동자들이 식민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고 당신은 나에게 물었지요? 그들은 정책일반에 대해 생각하는것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곳에는 로동자당은 없고 오직 보수당과 자유주의적급진당만이 있을뿐이요, 로동자들은 그들과 함께 영국의 식민지독점과 세계시장에서의 영국의 독점으로 아주 편안히 살고있습니다.》353①(엥겔스는 1892년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이라는 저서의 제2판 서문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론술하였다.)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명백히 지적되여있다. 원인은 (1) 전 세계에 대한 이 나라의 착취, (2) 세계시장에서의 그의 독점적지위, (3) 그의 식민지독점적지위. 결과는 (1) 영국의 일부 무산계급의 자산계급화, (2) 영국의 일부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에게 매수되였거나 혹은 적어도 자산계급한테서 보수를 받는자들에게 자신을 지도하도록 맡기고있다는것이다. 20세기초에 제국주의는 극소수 나라들사이에서의 세계분할을 이미 끝내였다. 오늘 이 나라들은 모두 1858년에 영국이 착취하던것보다 좀 적은《전 세계》의 일부분을 착취(초과리윤을

---

① 《맑스엥겔스왕복서한집》(《Briefwechsel von Marx und Engels》), 제2권, 290페지; 제4권, 453페지. 카우쯔키의 저서 《사회주의와 식민정책》(K Kautsky: 《Sozialismus und Kolonialpolitik》), 1907년, 베를린판, 79페지. 이 소책자는 카우쯔키가 아직 맑스주의자였던 옛날에 쓴것이다.

취득하는 의미에서)하고있다. 각개 나라들은 트레스트, 카르텔, 금융자본 및 채권자 대 채무자의 관계 등등에 의하여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각국은 모두 상당한 정도의 식민지독점적지위를 가지고있다.(우리는 세계의 전체 식민지 7,500만평방키로메터중에서 6,500만평방키로메터 즉 86%가 6대강국의 수중에 집중되였고 6,100만평방키로메터 즉 81%가 3대강국의 수중에 집중된것을 보았다.)

현국세의 특점은 로동운동의 공통적이며 근본적인 리익과 기회주의자와의 불상용성을 심화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에 있다. 즉 제국주의는 맹아상태로부터 이미 지배적체계로 성장되였고 자본가의 독점체는 국민경제와 정치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고 세계분할은 이미 끝났다. 다른편으로 지금에 와서는 영국이 독점권을 독차지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국주의렬강들이 독점권을 쟁탈하고있는 이것이 전반 20세기초의 특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기회주의는 지금에 와서는 19세기 후반기에 영국에서 승리한것처럼 어느 한 나라의 로동운동에서 수십년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완전한 승리를 취득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기회주의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완전히 성숙하고 너무 성숙하고 부패하고말았으며 따라서 사회배외주의로서 자산계급의 정책과 완전히 융합되고말았다①.

9.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넓은 의미로 해석

---

① 뽀뜨레쏘브, 치헨껠리, 마슬로브씨 등등을 대표로 한 로씨야의 사회배외주의는 공개적인 형태에 있어서나 은폐적인 형태에 있어서나(례하면 치헤이제, 쓰꼬벨레브, 악셀로드, 마르또브 등) 다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의 로씨야적변종 즉 취소주의[132]로부터 발생하였다.

하여 사회의 모든 계급들이 자기의 일반적의식형태에 근거하여 제국주의정책에 대해 취하는 태도라고 리해한다.

한편으로는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되여 비상히 광범하고도 조밀한 관계 및 련계의 그물—중소자본가와 기업주뿐아니라 극히 령세한 자본가와 기업주까지도 대량적으로 예속하는 그물—을 만들고있는 거액의 금융자본, 다른편으로는 세계를 분할하고 다른 나라들 지배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금융업자집단과 다른 나라의 금융업자집단간에 진행하는 첨예한 투쟁—이 모든것은 전체 유산계급들로 하여금 례외없이 제국주의편으로 돌아서게 한다. 제국주의의 전망에 대한 《보편》적도취, 제국주의에 대한 열광적옹호,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미화— 이러한것이 우리 시대의 표징이다. 제국주의적의식형태는 로동계급속에도 침투한다. 로동계급과 다른 계급과의 사이에는 만리장성이 가로놓여있지는 않다. 오늘 독일의 소위 《사회민주》당의 우두머리들이 정당하게도 《사회제국주의자》라고 즉 말로는 사회주의자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자라고 불리우고있다고 한다면 홉슨은 일찍 1902년에 벌써 영국에 기회주의적인 《페이비안협회》302에 속하는 《페이비안제국주의자들》이 존재한다는것을 지적한바 있었다.

자산계급 학자들과 정론가들은 보통 약간 은폐된 형태로 제국주의를 변호하며 제국주의의 완전한 지배 및 제국주의의 깊은 뿌리를 가리우며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세세한것을 극력 주요한 자리에 올려세우며 트레스트나 은행에 대한 경찰의 감독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개량》안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를 전이시키려고 애쓰고있다. 제국주의의 기본특성을 개량한다는 사상이 어리석다는것을 인정할만한 용기를 가진 뻔뻔스럽고 로골적인 제국주의자들이 나서는것은 비교적 드물다.

한가지 례를 들어보자. 독일제국주의자들은 《세계경제문고》라는 출판물에서 식민지—물론 특히 독일식민지이외의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인도에서의 소요와 항의운동, 나탈(남아프리카), 화란령인도 등지에서의 운동을 지적하였다. 그중 한사람은 외국의 지배를 받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의 각 민족 대표들이 1910년 6월 28~30일에 진행한 예속민족및인종대표회의에 관한 영문보고의 주해에서 이 회의에서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제국주의와 투쟁하여야 한다, 지배국은 예속민족의 독립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국제법정은 렬강과 약소민족간에 체결된 조약들의 리행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말들하고있다. 대표회의는 이런 천진란만한 념원을 표시한외에 더는 나아가지 않았다. 제국주의는 목전형태의 자본주의와 불가분적으로 련계되여있다는것,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와의 직접적인 투쟁은 희망이 없는것이다.(개별적인 특히 혐오스러운 만행을 반대하는데 그칠수는 있겠지만)—이런 진리에 대한 리해는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다.》① 제국주의기초를 개량주의적방법으로 시정한다는것은 기만이며 《천진란만한 념원》이므로 또 피압박민족들의 자산계급대표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압박민족의 자산계급대표들은 《더》 뒤로 물러서서 제국주의에 굴종하며 《과학성》을 내세우면서 이 굴종을 가리운다. 이것 역시 《론리》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의 기초를 개량주의적방법으로 변경할수 있는가? 제국주의가 낳은 모순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 첨예화되며 심화될것인가, 아니면 이런 모순이 뒤로 물러서서 완화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서의 근본문제이다.

---

① 《세계경제문고》, 제2권, 193페지

제국주의의 정치적특점은 전면적인 반동이며 금융과두정치의 압박과 자유경쟁의 제거로 하여 야기된 민족적압박의 강화이므로 20세기초에 거의 모든 제국주의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소자산계급-민주주의적반항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카우쯔키 및 카우쯔키주의의 이 광범한 국제적사조에 의한 맑스주의와 인연을 끊은것은 카우쯔키가 그 경제적기초에서 아주 반동적인 소자산계급적개량주의적반대파에 대항할 생각도, 대항할수도 없었을뿐아니라 도리여 실천적으로 그것과 합류한데 있다.

미국에서는 1898년에 에스빠냐에 대한 제국주의적전쟁이 자산계급민주주의의 최후의 모히칸족354인 《반제국주의자》들의 반항을 야기시켰다. 그들은 이 전쟁을 《죄악적》인 전쟁이라고 했으며 남의 나라 땅을 병탄하는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필리핀토착민의 수령 아기날도에 대한 행위는 《배외주의자의 기만》(아기날도에게 필리핀의 자유를 약속하고서도 다음에 가서는 미국의 군대를 상륙시켜 필리핀을 병탄하였다.)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링컨의 다음과 같은 말 즉 《백인이 자기자신을 통치한다면 이것은 자치이다. 그러나 그가 자기자신을 통치함과 동시에 다른 민족을 통치한다면 이것은 벌써 자치가 아니라 전제정치이다.》①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비판이 제국주의와 트레스트와의 사이, 따라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기초와의 사이에는 불가분적인 련계가 있다는것을 감히 인정하지 못했고 대규모의 자본주의 및 그 발전에 의해 생장되는 힘에 대해 감히 찬동하지 못한 이상 이러한 비판은 의연히 《천진란만한 념원》이 아닐수 없다.

홉슨이 제국주의를 비판할 때 취한 기본립장 역시 이러하다. 홉슨은 카우쯔키보다 더 일찍 《제국주의의 불가피성》을

① 지. 빠뚜예의 저서 《미제국주의》(J. Patouillet: 《L'impérialisme américain》), 1904년, 디종판, 272페지

부인하면서 반드시 주민의 《소비능력》을 《제고》(자본주의제도하에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한 아가드, 아.란스부르그, 엘.에쉬웨게 그리고 1900년에 발행된 천박한 책자 《영국과 제국주의》의 저자인 프랑스의 저술가 워또르 베라르 등도 제국주의, 모든것에 대한 은행의 지배, 금융과두정치 등등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소자산계급적견해에 기초하고있었다. 조금도 맑스주의자로 꾸미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제국주의에 자유경쟁과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며 충돌과 전쟁에로 나아가게 하는 바그다드철도계획을 비난하며 평화를 수호할데 대한 《천진란만한 념원》 등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또 국제유가증권발행정황의 통계학자인 아.네이마르크를 들수 있는데 1912년에 그가 계산한 《국제》유가증권이 수천억프랑에 달했을 때 《그래, 평화가 파괴되리라 생각할수 있을가?… 이러한 거액의 가치를 가지고서도 또 모험적으로 전쟁을 도발할리 있을가?》①라고 절규하였다.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천진란만한데 대해서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뿐만아니라 그들이 이런 천진란만한 사람으로 가장하며 제국주의제도하에서의 평화를 《진지하게》 말하는것은 그들자신에 대해 말하면 오히려 유리한것이다. 그러나 카우츠키가 1914년, 1915년, 1916년에 역시 이러한 자산계급개량주의적견해로써 평화문제에서는 《모두다〔제국주의자들, 가짜사회주의자들, 사회평화주의자들이〕 의견이 일치하다.》고 역설하였으니 그에게서 맑스주의자로서의 흔적이나마 찾아볼수 있겠는가? 이는 제국주의모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폭로할 대신 개량주의적인 《천진란만한 념원》으로써 그러한 모순을 무시하고 회피한것이다.

---

① 《국제통계연구소공보》, 제19권, 제2분책, 225폐지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쯔키의 경제학적비판의 전형적실례는 다음과 같다. 그는 1872년도와 1912년도의 애급에 대한 영국의 수입수출에 관한 통계자료를 렬거하고 거기에서 애급에 대한 수입수출의 증가가 영국의 수입수출총액의 증가에 비해 더디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카우쯔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즉 《애급에 대한 군사적점령이 없이 단순한 경제적요소의 역할에만 의거한다면 영국과 애급간의 무역이 더디게 증가되리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다.》 《자본이 확장되려고 하는 지향》은 《제국주의의 폭력적방법으로써가 아니라 평화적민주주의로써 가장 훌륭하게 실현될수 있다》.①

카우쯔키의 이 론단은 로씨야사람으로서 그를 맹종하는자(로씨야사람으로서 사회배외주의자들을 엄호하는자) 스뻭따또르355씨에 의해 여러가지 곡조로 반복되였었다. 이 론단은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쯔키주의적비판의 기초이므로 우리는 보다 상세히 론하여야 하겠다. 힐페르딩에게서 인용한 언론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힐페르딩의 이 결론은 카우쯔키가 《모든 사회당리론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것》이라고 일찌 여러차례(1915년 4월에 인정한것도 포함하여) 인정하였다.

힐페르딩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미 뒤로 물러간, 자유무역시대의 정책 및 국가에 대한 적대적관계의 정책을 보다 진보한 자본주의정책에 대립시키는것은 무산계급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금융자본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국주의에 대한 무산계급의 대답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오직 사회주의일것이다. 오늘날 무산계급정책의 목표는 자유경쟁을 부활시키는것과 같

① 카우쯔키의 저서 《민족국가, 제국주의국가 및 국가련맹》(Kautsky: 《Nationalstaat, imperialistischer Staat und Staatenbund》), 1915년 뉘른베르그판, 72페지와 70페지

은 그러한 리상(그런 리상은 지금 이미 반동적리상으로 되였다.)이 아니라 오직 자본주의를 제거하는것으로써 경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것이다.»①

카우쯔키는 금융자본의 시대에 《반동적리상》, 《평화적민주주의》 및 《단순한 경제적요소의 역할》을 수호함으로써 맑스주의를 배반하였다. 그것은 이 리상이 객관적으로는 독점적자본주의로부터 비독점적자본주의에로 물러서게 하며 개량주의적기만으로 되기때문이다.

군사적점령이 없었다면, 제국주의가 없었다면, 금융자본이 없었다면 애급(혹은 다른 식민지들이나 반식민지들과의)과의 영국의 무역은 더 빨리 《증대되였을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것은 만일 자유경쟁이 독점일반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금융자본의 《련계》 또는 압박(이 역시 독점이다.)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식민지에 대한 개별적국가들의 독점적소유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자본주의는 더 빨리 발전할수 있었으리라는것이 아닌가?

카우쯔키의 론단은 이와 다른 의미를 가질수 없는것으로서, 이 《의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것이다. 자유경쟁이 어떠한 독점도 없었다면 자본주의와 상업을 더욱 급속하게 발전시켰을것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나 상업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독점을 산생하는 생산의 집중과 자본의 집적정도가 더욱 높아지지 않는가. 사실 또 이미 독점은 다름아닌 그 자유경쟁으로부터 산생되였다! 그러니만큼 비록 독점이 지금에 와서 발전을 지연시키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자유경쟁을 수호하는 리유로 삼을수는 없다. 왜냐 하면 자유경쟁은 독점이 산생된후에는 더는 존재할수 없게 되기때문

① 《금융자본》, 567페지

이다.

카우쯔키의 론단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거기에는 반동성과 자산계급개량주의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비록 이 론단을 수정하여 스펙따또르의 말과 같이 영국식민지의 영국과의 무역이 지금에 와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보다 더디게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이것 역시 카우쯔키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왜냐 하면 영국을 타격한것은 역시 독점이며 역시 제국주의—오직 다른 나라(미국, 독일)의 독점과 제국주의일따름—이기때문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카르텔은 새롭고도 특이한 보호관세를 낳았는데 그것이 보호하는것은(이것은 엥겔스가 이미 《자본론》 제3권에서 지적한것이다[356].) 다름아닌 수출에 알맞는 그런 제품들이다. 그리고 또 카르텔과 금융자본에 특유한 《투매가격에 의한 수출》제도, 영국인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덤핑》제도도 또한 주지하는바이다. 즉 카르텔은 국내에서는 그 제품을 높은 독점적가격으로 팔고 국외에서는 자기의 경쟁자를 타도하고 자체의 생산을 최대한도로 확장하기 위하여 몇배의 낮은 값으로 판매한다. 독일이 영국식민지와의 무역을 영국보다 더 급속히 발전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독일제국주의가 영국제국주의보다 더 생생하고 더 강대하며 더 조직적이고 더 고명하다는것을 증명할뿐이고 자유무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자유무역이 보호관세정책과 식민지적예속관계와 투쟁하는것이 아니라 한 제국주의가 다른 제국주의와, 한 독점이 다른 독점과, 한 금융자본이 다른 금융자본과 투쟁하고있기때문이다. 영국제국주의에 대한 독일제국주의의 우월성은 식민지경계선이나 보호관세의 성벽보다 더욱 강한것이다. 이로부터 자유무역과 《평화적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리유》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용속적인것이며 제국주의의 기본적특

점과 특성을 망각하는것이며 소시민적개량주의로써 맑스주의를 대체하는것이다.

카우쯔키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를 역시 소시민적으로 비판하는 자산계급경제학자인 아. 란스부르그가 오히려 무역통계자료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리한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는 되는대로 어떤 한 국가를 들거나 또 단지 어느 한 식민지만을 들어 나머지나라들과 비교한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국가의 두가지 수출을 들어 비교하였다. 즉 (1) 재정상에서 제국주의국가에 의뢰하며 제국주의국가로부터 돈을 꾸는 국가에로의 수출과 (2) 재정상에서 독립한 국가에로의 수출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수출(단위 100만마르크)

		1889년	1908년	증가률
재정상에서 독일에 의뢰하는 국가에로의 수출	로므니아	48.2	70.8	+ 47%
	뽀르뚜갈	19.0	32.8	+ 73%
	아르헨띠나	60.7	147.0	+143%
	브라질	48.7	84.5	+ 73%
	칠레	28.3	52.4	+ 85%
	토이기	29.9	64.0	+114%
	합계	234.8	451.5	+ 92%
재정상에서 독일에 의뢰하지 않은 국가에로의 수출	대브리텐	651.8	997.4	+ 53%
	프랑스	210.2	437.9	+108%
	벨지끄	137.2	322.8	+135%
	스위스	177.4	401.1	+127%
	오스트랄리아	21.2	64.5	+205%
	화란령 인도	8.8	40.7	+363%
	합계	1,206.6	2,264.4	+ 87%

란스부르그는 합계를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일 이 수

자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그자신의 말과 반대되는것이라는것을 이상하게도 살피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재정상에서 독립하지 못한 국가에로의 수출은 재정상에서 독립한 국가에로의 수출보다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더 급속히 증대하는 까닭이다. (《만일》에다 밑점을 찍은것은 란스부르그의 통계가 아직 매우 완전치 못하기때문이다.)

란스부르그는 수출과 차관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1890~1891년에 몇몇 독일은행의 중개에 의하여 로므니아에 대한 차관조약이 체결되였다. 그런데 이 은행들은 몇해전부터 벌써 이 차관을 대부하였다. 이 차관은 주로 독일로부터의 철도재료구입에 사용된것이다. 1891년에 로므니아에로의 독일의 수출은 5,500만마르크였었다. 그다음해의 수출은 3,940만마르크로 감소되였고 그후 몇번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1900년에는 2,540만마르크에까지 감소되였다가 최근년간에 이르러서야 두차례의 새로운 차관으로 말미암아 다시 1891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뽀르뚜갈에 대한 독일의 수출은 1888~1889년의 차관의 결과로 2,110만마르크(1890년)에까지 증가되였으나 그후의 2년간에는 다시 1,620만 및 740만마르크에까지 감소되였다가 1903년에야 겨우 이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독일과 아르헨띠나와의 무역에 대한 자료는 더욱 뚜렷하다. 1888년 및 1890년의 두차례 차관의 결과로 아르헨띠나에로의 독일의 수출은 1889년에 6,070만마르크에 달하였다. 그러나 2년후에 수출은 겨우 1,860만마르크로서 이전의 3분의 1도 못된다. 새로운 국가공채, 시정공채, 전기공장건설을 위한 대부 및 그외의 신용대부와 관련하여 1903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1889년의 수준에 달했고 또 초과하였다.

칠레에 대한 독일의 수출은 1889년의 차관의 결과로 4 520만마르크(1892년)에까지 증가되였으나 1년후에는 2,250만마르크로까지 감소되였다. 1906년에 독일의 몇몇 대은행들의 중개에 의하여 새로운 차관조약을 체결한후 수출은 또 8,470만마르크(1907년)로까지 증장되였으나 1908년에 이르러서는 5,240만마르크로까지 감소되였다.»①

란스부르그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차관과 련결된 수출이 얼마나 공고치 못하며 고르지 못한가, 국내산업을 《자연적》으로 또 《조화적》으로 발전시킬 대신에 자본을 국외로 수출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못한가, 대외차관에 있어서 크루프가 지불해야 할 수백만의 뢰물이 얼마나 《값비싼》것인가 하는 등의 우습강스러운 소시민적도덕을 꺼내고있다. 그러나 사실이 명백히 증명하다싶이 수출의 증대는 **바로** 금융자본의 기만적인 출책과 관련되여있는데 이 금융자본은 자산계급도덕 같은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거량득하는것이다. 즉 첫째로, 차관으로부터의 리윤과 둘째로, 차관이 크루프의 제품이나 강철신지케이트의 철도재료를 구매할 때에도 역시 그 **동일한** 차관으로부터 리윤을 얻는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란스부르그의 통계를 완전한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리유는 이 통계가 카우쯔키나 스삐따또르의 통계보다 과학적이기때문이며 란스부르그가 문제를 옳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수출 등 면에서의 금융자본의 역할을 론하자면 수출이 특히 그리고 오로지 금융가의 기만출책과 련결되여있다는것, 특히 그리고 오로지 카르텔의 제품판매 등과만 련결되여있다는것을 밝힐줄 알아야 한다. 일반식민지와 비

① 잡지 《은행》, 1909년, 제2호, 819페지 및 이하 각 페지

식민지, 한 제국주의와 다른 한 제국주의, 한 반식민지나 식민지(례컨대 애급)와 나머지의 모든 국가들을 단순히 비교하는것은 바로 문제의 실질을 회피하며 은폐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쯔키의 리론적비판은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오직 기회주의자 및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평화 및 통일을 설교하는데 소용될수 있을뿐이다. 왜냐하면 그 비판은 바로 제국주의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모순 즉 독점과 그와 병존하는 자유경쟁간의 모순, 금융자본의 방대한 《업무》(및 거액의 리윤)와 자유시장에서의 《정직한》 매매간의 모순, 카르텔 및 트레스트와 카르텔화되지 않은 공업간의 모순 등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까닭이다.

카우쯔키가 꾸며낸 악명높은 《초제국주의》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반동적성격을 가진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1915년의 카우쯔키의 론의를 1902년의 홉슨의 론의와 비교하여 보자.

카우쯔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의 제국주의적 정책은 각국의 금융자본들 호상간의 투쟁 대신에 국제적으로 련합된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의 공동착취를 설정하는 새로운 초제국주의적정책에 의하여 구축될수 없겠는가? 어쨌든 자본주의의 이러한 새로운 단계는 가능하다고 상상할수는 있는것이다. 이것이 실현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전제조건이 없다.》①

홉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명치 못한 여러 식민지와 예속국들을 가지고있는 소수의 대련방제국들에서 이미 튼튼히 확립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적경향의 가장 합

① 1915년 4월 30일부 잡지 《신시대》, 144페지

법적인 발전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이 경우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제국주의라는 견고한 기초우에서의 항구적평화를 달성할수 있는 그러한 발전으로 생각된다.》

카우쯔키가 초제국주의라고 명명한것은 그보다 13년전에 벌써 홉슨이 국제제국주의라고 명명한 그것이다. 라틴어의 한 접두사를 다른 한 접두사로 바꾸어① 참으로 심오한 새 단어를 만들어놓은 이외에는 카우쯔키의 《과학》적견해의 진보란 홉슨이 사실에 있어서 영국승려들의 위선으로 서술하여놓은 그것을 맑스주의로 가장하려고 한것뿐이다. 영국-보어전쟁이후 이 지극히 존경할만한 영국승려층이 영국금융자본가들에게 보다 높은 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남아프리카전선에서 적지 않은 수의 전사자를 내였고 또 높은 세금을 지불한 영국의 소시민들과 로동자들을 안위하기에 주되는 노력을 경주한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국주의는 그렇게 나쁜것이 아니며 또 그것은 매우 빨리 항구적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국제(혹은 초)제국주의로 될수 있다고 말하는것보다 더 나은 다른 어떤 안위가 있을수 있겠는가? 영국승려나 감상적인 카우쯔키가 어떤 선량한 의도를 품었든간에 그 《리론》의 객관적, 즉 진정한 사회적의의는 오직 하나뿐인것으로서 그것은 사람들의 주의력을 현대의 첨예한 모순과 첨예한 문제에 돌리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마치도 새롭게 보이는것 같은 미래의 《초제국주의》라는 허망한 전망에 돌리게 하는 방법을 취하여 자본주의제도하에서도 항구적평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으로써 대중을 극반동적으로 안위하는 그것이다. 카우쯔키의 《맑스주의》리론에는 대중을 기만하는 이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

① 원문의 《ультра-империализм》(《초제국주의》)과 《интер-империализм》(《국제제국주의》)이라는 이 두 단어는 라틴어의 접두사(ультра와 интер)가 다를뿐이다. —편집자

사실 일반이 다 알고있으며 또 론쟁할 여지 없는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보기만 한다면 카우쯔키가 독일로동자(또는 전세계 로동자들)더러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 전망이 얼마나 허위적인것인가를 명백히 알수 있다. 인도, 인도지나, 중국을 례로 들어보자. 주지하는바와 같이 6억~7억의 인구를 가진 이 세개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몇개 제국주의렬강의 금융자본에 의하여 착취당하고있다. 가령 이 제국주의국가들이 상술한 아세아국가들에서의 령유지, 리익 및 《세력범위》를 보전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 피차 적대적인 몇몇 동맹을 결성한다면 이것은 곧 《국제제국주의의》 혹은 《초제국주의의》 동맹으로 될것이다. 또 가령 모든 제국주의렬강들이 상술한 아세아의 국가들을 《평화적》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맹을 결성한다면 이것은 곧 《국제적으로 련합된 금융자본》으로 될것이다. 사실 이러한 동맹의 실례는 20세기의 력사에 있은것으로, 중국에 대한 렬강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례를 볼수 있다. 묻노니, 자본주의가 존속되는 조건하에서(카우쯔키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동맹이 일시적인 동맹이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동맹이 온갖 알륵, 충돌 및 투쟁을 제거하리라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문제를 명백히 제기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밖에는 달리 대답할수 없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세력범위, 리익, 식민지 등등을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자의 실력, 즉 일반 경제, 금융, 군사 등등의 실력을 제외하고서 다른 기타의것을 근거로 생각하기는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할자들의 실력변화는 또한 동일하지 않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각 기업간, 트레스트간, 산업부문간 및 국가간의 균형적발전이란 있을수 없기때문이

다. 만일 반세기전의 독일자본주의의 실력을 당시의 영국의 실력에 비교한다면 독일은 말할 여지 없이 미약하였으며 일본도 로씨야에 비하여 역시 그러하였다. 10~20년이 지난후에도 제국주의렬강들의 실력대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게 생각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현실에서의(영국승려들이나 독일《맑스주의자》 카우쯔키의 저속한 소시민적환상에서가 아니라) 《국제제국주의의》 혹은 《초제국주의의》 동맹은 그것이 한 제국주의동맹이 다른 제국주의동맹을 반대하는 형태로서거나 또는 모든 제국주의렬강이 하나의 총동맹을 결성하는 형태로서거나 어떠한 형태로 동맹이 형성되든지간에 모두 불가피적으로 다만 한 전쟁과 다른 전쟁간의 《잠시적휴전》으로밖에 될수 없는것이다. 평화적인 동맹은 전쟁을 준비하며 그것은 또한 전쟁가운데서 생긴다. 이 량자는 호상 제약하며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의 제국주의적련계와 호상관계라는 이 동일한 기초우에서 때로는 평화적투쟁형태를, 때로는 비평화적투쟁형태를 번갈아 낳게 된다. 그런데 명리하기 짝없는 카우쯔키는 로동자들을 안위하여 그들을 자산계급편으로 넘어간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융화시키기 위하여 단일한 련쇄의 한 고리를 다른 고리와 끊어놓으며 모든 렬강들이 중국을 《안위》하기 위하여(의화단봉기에 대한 진압을 회상하여보라.) 결성한 오늘의 평화적(또한 초제국주의적 심지어 초초제국주의적)동맹을 래일의 비평화적충돌과 갈라놓는다. 이러한 래일의 비평화적충돌은 례컨대 도이기 및 기타 등등의 분할을 위하여 모레 다시 평화적총동맹의 성립을 준비하게 될것이다. 제국주의적평화시기와 제국주의적전쟁시기와의 생생한 련계 대신에 카우쯔키는 로동자들을 그들의 생기없는 우두머리들과 융화시키기 위하여 로동자들에게 생기없는 추상적개념을 제공하였다.

미국사람 힐은 자기의 저서 《구라파의 국제적발전에서의 외교사》의 서문에서 현대외교사의 시기를 (1) 혁명의 시대, (2) 립헌운동의 시대, (3) 현대《상업제국주의》의 시대①로 구분하였다. 다른 한 저술가는 1870년이래 대브리텐의 《세계정책》의 력사를 네 시기, (1) 제1차아세아시대(인도를 목표로 하는 중앙아세아에로의 로씨야의 진출에 대한 투쟁), (2) 아프리카시대(약 1885～1902년), 아프리카분할을 위한 프랑스와의 투쟁(1898년의 《파쇼다》사건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와의 전쟁이 위기일발에 처했던 때), (3) 제2차아세아시대(로씨야를 반대함에 대한 일본과의 조약체결), (4) 주로 독일을 반대한 《구라파》시대로 구분하였다②. 일찌 1905년에 은행《활동가》 리쎄르는 프랑스의 금융자본이 이딸리아에서 활동하면서 어떻게 그 나라와 정치적동맹을 준비하였던가, 페르샤쟁탈을 위한 독일과 영국간의 투쟁, 중국에로의 차관을 위한 전 구라파 각국 자본간의 투쟁 등등이 어떻게 진행되였는가를 지적하면서 《정치적전초전은 금융적지반에서 벌어진다.》라고 썼다. 이것이 바로 보통제국주의적충돌과 불가피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초제국주의적》동맹의 생생한 현실인것이다.

카우쯔키가 제국주의의 가장 심각한 모순을 말살하는것은 불가피적으로 제국주의를 미화하게 되는것인데 이러한 정형은 제국주의의 정치적특성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도 드러나고있다. 제국주의는 도처에서 자유가 아니라 지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금융자본 및 독점의 시대이다. 이 지배하려는 경향의 결과는 모든 정치제도하에서 전면적인 반동이 나타나며 이

① 데이위드 제인 힐의 저서 《구라파의 국제적발전에서의 외교사》(David Jayne Hill: 《A History of the Diplomacy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Europe》), 제1권, 10페지
② 실례로의 앞에서 인용한 책, 178페지

면에서의 모순 역시 극단적으로 첨예화되는것이다. 또한 민족적압박과 병탄하려는 경향, 즉 민족적독립을 파괴하려는 경향(왜냐 하면 병탄은 민족적자결을 파괴하는것이기때문이다.)도 더욱 극심해진다. 힐페르딩은 제국주의와 민족적압박의 첨예화간의 련계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새로 개방된 나라들에서 그곳에 수입되는 자본은 각종 모순을 격화시켜 민족적의식이 각성하는 인민들의 외래침략자에 대한 더욱더 강렬해지는 반항을 련속 야기시킨다. 이러한 반항은 용이하게 외래자본을 반대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발전될수 있다. 낡은 사회적관계들에는 근본적인 혁명적변혁이 일어났고 〈력사밖에 서있던 민족〉들의 수천년래의 농촌적고립성이 날로 파괴되며 그들은 자본주의적소용돌이속에 끌려들어가고 있다. 자본주의 그자체가 피정복자에게 점차로 해방의 수단과 방법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라파민족들에게 있어서 일찍 최고목표로 간주되였던 목표, 즉 경제적 및 문화적 자유를 쟁취하는 수단으로서의 통일적민족국가의 건설을 제기한다. 이러한 독립운동은 구라파자본을 바로 그의 가장 보귀하고 가장 빛나는 전망을 약속하는 그러한 착취령역에서 위협한다. 그러므로 구라파자본은 자기의 군사력을 부단히 증가함으로써만 그 지배를 유지할수 있다.》①

여기에 보충하여야 할것은 제국주의는 새로 개방된 나라들에서뿐아니라 오랜 나라들에서도 병탄하며 민족적압박을 강화하므로 그러한 나라들의 반항을 격화시키는것이다. 카우쯔키는 제국주의가 정치적반동을 강화한다는것을 반대하면서 제국주의시대에 기회주의자와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아주 절박한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병탄을 반대하면서도 도리

① 《금융자본》, 487페지

여 기회주의자들의 감정을 될수록 상하게 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장 쉽게 용인할수 있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는 직접 독일의 청중에게 말하면서도 바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현실적의의가 있는 사실, 례컨대 독일이 알자스-로렌을 병탄한 사실은 은폐한다. 카우쯔키의 이러한 《사상경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가지 례를 들어보자. 가령 필리핀을 병탄한 미국인을 일본인이 비난한다고 하자. 묻노니, 일본인이 이렇게 하는것이 그 자신이 필리핀을 병탄하려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병탄을 반대하는데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수 있겠는가? 오직 일본인이 일며나 일본의 조선병탄을 반대하고 일본으로부터 떨어져나갈 자유를 조선에 줄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라야 병탄을 반대하는 이러한 《투쟁》은 진정한것이며 정치적으로 성실한것임을 승인하게 될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쯔키의 리론적분석 및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경제적, 정치적 비판에는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은폐하며 완화하려는, 맑스주의와는 절대로 상용될수 없는 정신으로, 구라파로동운동에서 바야흐로 와해되여가는 기회주의와의 통일을 되도록 유지하려는 열망으로 일관되여 있다.

10. 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

제국주의는 그의 경제적본질에 있어서 독점적자본주의라는것을 우리는 보았다. 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는 벌써 이것만으로도 규정된다. 왜냐 하면 자유경쟁의 토대에서 또 바로 이 자유경쟁으로부터 자라나는 독점은 자본주의결구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경제결구에로의 이행이기때문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이 시대를 설명할수 있는 네가지 주요한 독점형태 또는 독점

자본주의의 네가지 주요한 표현을 특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독점은 극히 높은 발전단계에 있는 생산의 집적으로부터 발생하였다. 그것은 바로 자본가들의 독점적동맹 즉 카르텔, 신지케이트, 트레스트들이다. 우리는 이 독점적동맹들이 현대경제생활에서 얼마나 거대한 역할을 놀고있는가를 보았다. 그것들은 20세기초에 벌써 선진국가들에서 완전한 ㅜ세를 차지하였다. 고액의 보호관세제를 실시한 국가들(독일과 미국)이 카르텔화의 길을 맨먼저 걸었다고 한다면 자유무역제를 실시하는 영국도 역시 조금 뒤떨어졌다뿐이지 동일한 기본적사실 즉 생산의 집적으로부터의 독점의 발생을 보여주고있다.

둘째로, 독점은 가장 중요한 원료래원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이며 가장 카르텔화된 산업 즉 석탄공업과 강철공업에 수요되는 원료래원에 대한 략탈에서 그러하였다. 가장 중요한 원료래원의 독점적점유는 대자본의 권력을 대대적으로 증대시켰으며 카르텔화된 산업과 카르텔화되지 않은 산업간의 모순을 격화시켰다.

셋째로, 독점은 은행으로부터 자라났다. 은행들은 보통 중개적기업으로부터 금융자본의 독점자로 변하였다. 가장 선진적인 어느 자본주의국가들에서든지 3~5개에 불과한 최대은행들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인적련합》을 실시하고 전국의 자본과 화폐수입의 대부분을 이루는 수십억의 자금을 좌우하고있다. 현대자산계급사회의 모든 경제기관과 정치기관을 모조리 의뢰관계의 조밀한 그물로 덮어놓는 금융과두정치—이것이 바로 이 독점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다.

넷째로, 독점은 식민정책으로부터 자라났다. 금융자본은 식민정책의 수많은 《종래의》 동기에다가 원료래원, 자본수출, 《세력범위》(즉 유리한 교역을 진행할수 있으며 리권, 독점리

을 등을 얻을수 있는 범위), 그리고 경제적령토일반 등등을 쟁탈하려는 동기를 첨가해놓았다. 례컨대 구라파의 렬강들이 아프리카의 10분의 1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점령하였던 그때(그것은 일찌기 1876년에 있었던 사실이다.)에는 식민정책이 비독점적방식으로, 말하자면 토지를 《자유로 점령》하는 방식으로 발전될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10분의 9가 이미 점령되였고(1900년경) 전 세계가 이미 다 분할된 때에는 불가피적으로 식민지의 독점적점유의 시대, 따라서 또 세계의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투쟁의 특히 날카로운 시대가 닥쳐오게 된것이다.

독점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을 얼마나 첨예화하였는가는 주지하는바이다. 물가등귀와 카르텔의 압박을 지적하는것만으로도 충분할것이다. 이 모순의 첨예화는 세계금융자본이 종국적승리를 얻은 그때로부터 시작된 력사적과도기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는것이다.

독점, 과두정치, 자유에로의 지향 대신에 지배에로의 지향, 극소수의 가장 부강한 국가들이 더욱더 많은 약소국가들을 착취하는것—이 모든것이 제국주의를 기생적자본주의 또는 썩어가는 자본주의라고 특징짓게 하는 제국주의의 특점들을 산출하였다. 《금리생활자국가》, 고리대국가의 형성은 제국주의추세의 하나로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바 이 나라들의 자산계급은 날이 갈수록 더 자본수출과 《리표끊기》에 의하여 생활하게 된다. 만일 썩어가는 이 추세가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배제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유일것이다. 그렇지 않다. 개별적산업부문, 개별적자산계급계층, 개별적나라들은 제국주의시대에 각이한 정도로 때로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때로는 또 저런 경향을 보여준다. 전체로서는 자본주의는 이전보다도 비상히 빨리 발전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발전은 일반적으로

더욱더 불균형적으로 될뿐만아니라 이 불균형은 특히 자본으로 해서 아주 강한 나라들(영국)이 썩어가는데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독일의 경제발전의 급속한 속도에 관하여 독일의 대은행들을 연구한 저자 리쎄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전시기(1848~1870년)의 너무 느리지 않았던 진보를 현시기(1870~1905년) 독일의 전체 경제, 특히 독일은행들의 발전속도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거의 먼 과거시대의 우편마차의 통행속도를 현대자동차의 속도와 비교하는것과 같다. 현대자동차는 너무나 빠르므로 무심히 걸어가는 통행인에게도 그리고 승객자신에게도 위험을 주는것이다.》 그런데 그렇듯 비상히 급속하게 발전한 그 금융자본이 이제는 바로 그렇듯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그것으로 하여 식민지를, 비교적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평화적수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도 탈취하여야 될 그 식민지를 좀 《평온하게》 소유하는데로 넘어가기를 꺼리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최근 수십년간의 경제적발전이 독일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최신자본주의의 기생적특징은 특히 명백하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공화제적미국의 자산계급과 군주제적 일본이나 독일의 자산계급을 비교하여보더라도 큰 정치적차이도 제국주의시대에는 미미해진다는것을 볼수 있다. 이는 그 정치적차이가 일반적으로 중요치 않기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자산계급들이 모두 명백한 기생적특징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많은 산업부문중에서 어느 한 부문의 자본가들이, 많은 나라들중에서 어느 한 나라의 자본가들이 높은 독점적리윤을 얻게 되는것은 그 자본가들에게 개별적로동자계층을 매수할, 그것도 한때 그중 얼마 안되는 수를 매수할 경제적가능성을 주는 동시에 그 로동자층을 나머지 전체 로동자와 대립시켜

해당 산업부문이나 해당국가의 자산계급편으로 끌어갈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의 분할을 위한 제국주의국가들의 격화된 대립에 의하여 더욱더 강화된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와 기회주의와의 련계가 맺어진다. 이런 련계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제일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영국에서 제국주의적발전의 몇몇 특점이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더 일찌기 나타났기때문이다. 례컨대 엘.마르또브 같은 몇몇 저술가들은 《관청식의 락관주의적》(카우쯔키와 유이스망스따위의) 론단으로써 제국주의와 로동운동내에서의 기회주의가 서로 련계되여있는 사실—지금 특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회피하기를 좋아하면서 실로 선진적자본주의가 기회주의를 강화하게 된다면, 또는 실로 로임을 많이 받는 로동자들이 기회주의에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업은 회망이 없게 되리라느니 뭐니 하고 말한다. 이러한 《락관주의》의 의의를 잘못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기회주의에 대한 락관주의이며 이것은 기회주의를 엄호하는데 복무하는 락관주의이다. 기실은 기회주의의 발전이 류달리 급속하고 류달리 추악하다 하여 기회주의의 승리가 확고한것이라고는 보증할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건강한 신체에서 악성종처가 급속히 커지는것은 오직 그 종처가 터지여 신체건강의 회복을 촉진시키는것과 같은것이다. 이 면에서 가장 위험한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만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긴밀히 련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만적인 공담이라는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인것이다.

이상에서 제국주의의 경제적본질에 대하여 말한 모든 론술에 근거하면 제국주의는 과도적자본주의,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라고 특징짓지 않으면 안된다. 이 면에서 특히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최신자본주의를 서술하는

자산계급경제학자들의 류행어, 즉 《교착》이니, 《고립성의 결여》니 무엇이니 하는것이라든가 은행은 《그의 임무와 그의 발전으로 말하면 단순한 사적경제성질을 띤 기업이 아니라 단순한 사적경제조절의 범위를 날로 더 벗어나는 기업》이라느니 하는것이다. 이런 말을 한 리쎄르자신은 아주 엄숙한 태도로 《사회화》에 관한 맑스주의자들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언명한다!

이 《교착》이란 문구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눈앞에서 발생하는 그 과정의 가장 뚜렷한 점만을 포착한것이다. 그것은 관찰자가 나무를 보면서도 숲은 보지 못했다는것을 표시하는것이다. 그것은 피상적인 현상, 우연적인 현상, 혼돈된 현상을 맹목적으로 복사하는것이다. 그것은 그 관찰자가 원시자료에 압도되여 그 내용과 의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것을 폭로한다. 주권의 소유나 사적소유자들간의 관계는 모두 《우연하게 한데 교착》된다. 그러나 이 교착현상의 리면에 숨어있는것, 이 교착현상의 기초를 구성하고있는것은 변화하는 사회적생산관계인것이다. 대기업이 매우 방대하게 되고 또 그것이 대량적자료의 정확한 계산에 근거하여 수천만 주민에게 필요한 모든 원료의 3분의 2 지어 4분의 3을 계획적으로 취득한다면, 또 생산에 가장 편리한 지점(때로는 수백리, 수천리의 먼거리로 서로 떨어져있는 지점)들에로의 이 원료의 수송을 절차있게 진행한다면, 또한 수다한 각종 완제품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원료가공의 온갖 공정을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지휘한다면, 이 생산품이 한개의 계획에 따라 수천만, 수억만의 소비자들에게 분배된다면(미국 《석유트레스트》에 의한 미국과 독일에서의 석유판매)—그때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명백하게 된다. 즉 우리 눈앞에 있는것은 생산의 사회화이지 결코 단순한 《교착》은 아니라는것, 그리고 사적경제관계

나 사적소유관계는 벌써 그 내용에 적응하지 않는 외피로 되였다는것, 만일 인위적으로 이 외피의 소멸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부패할수밖에 없고 혹시 그 부패상태가 오래동안 지속되는 수가 있다(불행히도 기회주의적종처의 치료가 지체된다면) 할지라도 어쨌든 반드시 소멸되여야 할것이라는것이다.

독일제국주의의 열광적인 숭배자 슐쩨-게페르니쯔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만일 독일은행에 대한 지도적책임이 결국 10여명 사람들에게 맡겨진다면 그들의 활동은 지금에는 인민의 복리에 있어서 대다수의 국무대신들의 활동보다도 더 중요하다.〔은행가, 대신, 공업가, 금리생활자의 《교착》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망각하는것이 더 유리할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에서 본 모든 경향의 발전정황을 철저히 생각하여본다면 한 나라의 화폐자본은 은행의 수중에 통일되고 은행자신은 카르텔과 서로 련결되고 투하대상을 찾는 한 나라의 자본은 유가증권으로 변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쎙-씨몽의 천재적인 예언이 실현될것이다. 즉 〈경제적관계가 통일적인 조절 없이 발전된다는 사실에 적응하는 오늘의 생산의 무정부상태는 조직적생산에 의하여 대체되여야 한다. 그때에는 생산의 지휘는 서로 떨어져있고 서로 의뢰하지 않고 인간의 경제적요구를 모르는 기업가들이 할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기관이 하게 될것이다. 비교적 높은 견지에서 사회경제의 광범한 령역을 관찰할수 있는 중앙관리위원회는 전체 사회에 유익하게 사회경제를 조절할것이며 또 적당한 인물들에게 생산수단을 양도할것이며 특히 생산과 소비의 정상적인 조화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될것이다. 경제활동의 일정한 조직을 자기의 임무로 하는 기관이 있다. 그것은 곧 은행이다〉. 쎙-씨몽의 이 예언이 실현

되기까지에는 아직 먼거리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이 예언을 실현하는 도상에 있는것으로 이것은 맑스자신이 생각한 맑스주의와는 다른 맑스주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형식상에서만 다를뿐이다.»①

확실히 이것은 맑스에 대한 훌륭한 《반박》이며 맑스의 정확한 과학적분석으로부터 천재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억측에 불과한 쌩-씨몽의 억측에로의 일보후퇴이다.

1916년 1～6월에 집필

1917년 4월에 처음으로 뻬뜨로그라드에서 단행본으로 인쇄

원고에 의하여 인쇄, 단행본 원문에 의하여 교열

《레닌전집》, 한문판, 제22권, 179～297페지

① 《사회경제개론》, 146페지

유니우스의 소책자에 관하여

드디여 독일에서는 전쟁문제를 취급한 사회민주주의적소책자가 비밀한 융케르의 출판물검열에 순응함이 없이 비합법적으로 발간되였다! 분명히 사회민주당《극좌익》에 속해있는 필자는 유니우스(이것은 라틴어로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서명하고 자기의 소책자에《사회민주당의 위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부록에는 또 이미 베른국제사회주의위원회(NCK)에 제출되여 그 위원회의 통보341 제3호에 게재되였던《국제사회민주당의 임무에 관한 테제》가 수록되여있다. 이 테제는《국제당》345그루빠에서 제기한것이다. 그들은 1915년 봄에 잡지《국제당》287의 한호(쩨트킨, 메링, 에르.룩셈부르그, 탈하이메르, 둥케르, 슈트뢰벨과 기타 사람의 론문이 실린)를 발행하였으며 1915~1916년 겨울에 독일 각지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회의357를 열어 이 테제를 채택하였던것이다.

소책자는 필자가 1916년 1월 2일부의 서론에서 말하고있는바에 의하면 1915년 4월에 집필되였으며 그것을《아무 수정도 없이》인쇄에 회부한것이다. 좀더 일찌기 출판되지 못한것은《외부사정》때문이였다. 이 소책자는《사회민주당의 위기》를 취급하고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전쟁에 대한 분석, 이번 전쟁이 민족적해방성격을 띠고있다는 기괴한 론설에 대한 론박, 이번 전쟁은 독일측에서도 기타 렬강들측에서도 제국주의전쟁이라는것에 대한 증명 그리고 공식적당의 행동에 대한 혁명적

인 비판에 바쳐지고있다. 극히 생동하게 씌여진 유니우스의 이 소책자는 자산계급과 융케르들측으로 넘어간 구독일사회민주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의심할바없이 큰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것이므로 우리는 필자에게 충심으로부터의 축하를 드리는바이다.

1914～1916년에 국외에서 로어로 발간된 사회민주당의 문헌을 익숙히 알고있는 로씨야의 독자에게는 유니우스의 소책자는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새로운것도 주지 않는다.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우리 당중앙위원회의 선언(1914년 9～11월)①, 베른결의문(1915년 3월)② 및 결의들에 대한 수다한 평론들에서술된 론점들을 독일의 혁명적맑스주의자의 론점들과 대비한다면 유니우스의 론점이 몹시 불충분하며 유니우스가 두가지 오유를 범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유니우스의 결점과 오유를 비판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 필요한 자기비판을 진행하며 제3국제당의 사상적토대로 되여야 할 견해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라는것을 극력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니우스의 소책자는 대체로는 훌륭한 맑스주의적로작으로서 그 결점들은 물론 어느 정도 우연적인 성격을 띠였을수도 있다.

유니우스의 소책자의 주요한 결함으로 되며 합법적(발간직후에 금지되기는 하였지만)잡지 《국제당》에 비해서 명백히 일보후퇴로 되는것은 사회배외주의(필자는 이 용어도, 보다 덜 정확한 사회애국주의란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있다.)와 기회주의와의 련관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있는 점이다. 필자는 극히 정확하게도 독일사회민주당의 《투항》과 붕괴에 대해서 말하고 독일사회민주당의 《공식적지도자들》의 《배반》에 대해

① 이 책 719～728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136～142페지를 보라.—편집자

서 말하고있으나 그이상 더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편 이미 잡지 《국제당》은 《중앙파》 즉 카우쯔키파에 비판을 가하여 극히 정당하게도 그들의 무정견, 그들에 의한 맑스주의의 모독,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종복적태도에 조소를 퍼부었었다. 또 그 잡지는 기회주의자들의 진면모를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례컨대 다음과 같은 극히 중요한 사실, 즉 1914년 8월 4일에 기회주의자들이 최후통첩 즉 어쨌든간에 군비지출에는 찬성투표하고보겠다는 이미 준비된 결정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었다. 유니우스의 소책자에서도 이 테제에서도 기회주의나 카우쯔키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은 리론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 하면 오랜 력사, 다시말하면 제2국제당의 전 시기에 걸치는 력사를 가지고있는 하나의 류파로서의 기회주의와 련관시키지 않고서는 《배반》은 설명할수 없기때문이다. 그것은 실천적-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 하면 공공연한 기회주의(레긴, 다위드 등등)와 은연한 기회주의(카우쯔키 및 그 일파)라는 두 류파의 의의와 역할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사회민주당의 위기》를 리해할수도 그것을 극복할수도 없기때문이다. 그것은 례컨대 《전진》지182 1916년 1월 12일호에 게재되였던 오토 륄레의 력사적론문에 비해서 일보후퇴이다.—이 론문에서 륄레는 독일사회민주당의 분렬의 불가피성을 단적으로, 공공연히 증명하였던것이다(《전진》지 편집국은 이미 두 당이 존재해있으며 이 두 당을 화해시킬수 없다는 사실을 반박할 단 하나의 본질적인 론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달콤하고 위선적인 카우쯔키주의적문구의 반복으로써 륄레에게 대답하였었다). 그것은 놀랄만큼 불철저하다. 왜냐 하면 《국제당》그루빠의 테제 제12조에서는 《주요한 나라들의 사회주의당의 공식대표기구》가 《배반》하여 《자산계급제국주의적정치의 립장에로 넘어간》데 비추어 《새》 국제당을 창건할 필요가 있

다고 단적으로 말하고있기때문이다. 이전 독일사회민주당 혹은 레긴이나 다위드 및 그 일파와 타협하고있는 당을 《새》 국제당에 참가시킬데 대하여 말하는것은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라는것은 명백하다.

《국제당》그루빠의 이 일보후퇴가 무슨 원인에서였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독일의 전체 혁명적맑스주의파의 가장 큰 결점은 계통적으로 자기의 로선을 실시하며 새로운 임무에 근거하여 대중을 교양하는 단합된 비밀조직이 결여되여있는 점이다. 그러한 조직은 기회주의에 대해서도 카우쯔키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립장을 취하고있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두 일간신문 즉 브레멘의 신문(《브레멘시민신문》358)과 브라운슈와이그의 신문(《인민의 벗》359)마저 빼앗기고 이 두 신문이 모두 카우쯔키파에게로 넘어간만큼 더욱 필요하다. 다만 《독일국제사회주의자들》(I.S.D.)360만이 자기 초소에 남아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고 명확하다.

《국제당》그루빠의 일부 성원들은 무원칙한 카우쯔키주의의 감탕속에 다시 굴러떨어진것 같다. 례컨대 슈트뢰벨은 《신시대》24에서 베른슈타인과 카우쯔키에게 아첨을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바로 며칠전인 1916년 7월 15일에는 그는 《평화주의와 사회민주당》이라는 론문을 신문들에 발표하여 그히 저속한 카우쯔키적평화주의를 변호하였다. 유니우스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는 《군비축소》니 《비밀외교의 폐지》니 무엇이니 하는따위의 카우쯔키의 엉뚱한 계획을 아주 단호하게 반대해나서고있다. 《국제당》그루빠에는 혁명적조류와 카우쯔키측으로 동요하는 조류의 두 조류가 있는것 같다.

유니우스의 그릇된 론점들중 그 첫째것은 《국제당》그루빠의 테제 제5조에 명백히 표명되여있다.…《이 란폭한 제국주의

시대(시기)에는 벌써 아무런 민족적전쟁도 있을수 없다. 민족적리익은 다만 근로인민대중을 그들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제국주의를 위해 봉사케 하기 위한 기만의 도구로 될뿐이다.…》 이 명제로써 끝나고있는 테제 제5조는 첫머리에서부터 현전쟁을 제국주의전쟁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민족적전쟁을 근본적으로 부인한것은 소홀한데서 온 잘못이 아니면 현전쟁은 제국주의전쟁이지 민족적전쟁은 아니라는 완전히 옳은 사상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우연히 범한 오유인것 같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니만큼 현전쟁을 민족적전쟁인듯이 잘못 생각하는데로부터 이러저러한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는 온갖 민족적전쟁을 다 부인해버리는 그릇된 일도 있느니만큼 이 오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유니우스가 현전쟁에서의 《제국주의적환경》의 결정적영향을 강조하고있는 점, 그가 쎄르비아의 배후에는 로씨야가 있고 《쎄르비아민족주의의 배후에는 로씨야제국주의가 있다.》고 말하고 전쟁에 례컨대 화란이 참가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제국주의적일것이니 그 리유는 화란이 첫째로 자기의 식민지를 방위할것이고 둘째로 제국주의적련맹들중 그 어느 하나의 동맹국으로 될것이기때문이라고 말하고있는 점은 완전히 옳다. 현전쟁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툴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유니우스가 이에 제하여 특히, 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 즉 《현재 사회민주당의 정책을 지배하고있는 민족적전쟁의 환영》(81페지)과의 투쟁을 강조하고있는것을 볼 때 우리는 그의 론의가 정확하고 극히 적절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의 오유는 다만 이 진리를 과장한데, 구체적이여야 한다는 맑스주의적요구로부터 물러선데, 현전쟁에 대한 평가를 제국주의시대에 가능한 모든 전쟁에다 적용한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운동들을 망각한데 있을따름이다. 《이미 민족적

전쟁은 있을수 없다.》고 하는 이 론점을 옹호하는 유일한 리유는 세계가 극소수의 제국주의《대》렬강들사이에 분할되여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온갖 전쟁은 비록 그것이 시초에는 민족적전쟁이라 하더라도 제국주의렬강 또는 련맹들중 그 어느 하나의 리익을 건드리게 되여 제국주의전쟁으로 전화한다는것이다. (유니우스의 소책자, 81페지)

이 론거가 틀렸다는것은 명백하다. 두말할것도없이 맑스주의적변증법의 기본명제는 자연이나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한계는 조건적이고 가동적이여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대립물로 전화할수 없는 현상이란 하나도 없다는데 있다. 민족적전쟁은 제국주의전쟁으로 전화할수 있으며 또 반대로 제국주의전쟁은 민족적전쟁으로 전화할수 있다. 례를 들어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전쟁들은 민족적전쟁들로서 시작되였으며 또 그러한 전쟁들이였다. 그 전쟁들은 반혁명군주국들의 련맹을 반대하여 위대한 혁명을 보위한 혁명적인 전쟁이였다. 그러나 나뽈레옹이 형성된지 오랜, 생활능력이 있는, 구라파의 허다한 민족국가들을 예속시키고 프랑스제국을 창건하였을 때에는 프랑스의 민족적전쟁들은 제국주의전쟁으로 되였으며 이 제국주의전쟁들은 이번에는 또 나뽈레옹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전쟁들을 낳았다.

다만 궤변가들만이 제국주의전쟁과 민족적전쟁이 호상 전화할수 있다는것을 리유로 하여 량자간의 차이를 말살할수 있을것이다. 변증법이 궤변에 이르는 다리로 사용된것은 한두번이 아니다.—희랍철학사에서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전화의 가능성을 통털어 부인함으로써가 아니라 주어진것을 그 환경과 그 발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궤변론과 싸울 때 변증론자로 남을것이다.

1914～1916년의 이 제국주의전쟁이 민족적전쟁으로 전화

한다는것은 극히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대표하는 계급이 무산계급인데 이 무산계급은 객관적으로 현 제국주의전쟁을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키려고 지향하고있기때문이며 더우기는 또 그것은 두 련맹의 세력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고 국제금융자본이 도처에서 반동적자산계급을 만들어냈기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가 불가능하다고는 선언할수 없다. 즉 만일 구라파의 무산계급이 앞으로도 계속 20년가량 무력하게 된다면, 만일 현 전쟁이 나뽈레옹따위의 승리로 끝나고 일련의 생활력있는 민족국가들의 예속화로 끝난다면, 만일 구라파외의 제국주의(무엇보다도 우선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가 역시 앞으로 20년가량 더 유지되여 례컨대 일미전쟁때문에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면 그때에는 구라파에서 위대한 민족적전쟁이 일어날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구라파발전의 수십년의 후퇴일것이다.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 하면 세계사가 때때로 되는 거대한 뒤로의 비약이 없이 순풍에 돛단식으로 앞으로만 나아간다고 상상하는것은 비변증법적이며 비과학적이며 리론적으로 옳지 않기때문이다.

다음, 제국주의시대에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에서의 민족적전쟁이 가능할뿐만아니라 불가피하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중국, 토이기, 페르샤)에는 약 10억 즉 지구 총인구의 반수이상이 살고있다. 민족해방운동이 여기에서는 이미 극히 강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성하며 성숙되여가고있다. 온갖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 식민지들의 민족해방정치의 연장은 불가피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의 민족적전쟁일것이다. 이러한 전쟁들은 오늘의 제국주의《대》렬강들간의 제국주의전쟁을 야기할수도 있고 또 야기하지 않을수

도 있다. 그것은 많은 사정에 달린것이다.

례컨대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에워싸고 7년전쟁을 하였다. 즉 7년간의 제국주의전쟁을 하였다(이 제국주의전쟁은 오늘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토대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예제의 토대우에서도, 원시적자본주의의 토대우에서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패배하고 그 식민지의 일부를 잃었다. 몇해를 지나 한갖 영국만을 반대하는 북아메리카합중국의 민족해방전쟁이 시작되였다. 오늘의 미국의 일부를 각각 계속 점유하고있던 프랑스와 에스빠냐는 영국에 대한 적의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의 제국주의적리해에서 영국을 반대하여 봉기한 합중국과 친선조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군대는 미국군대와 함께 영국인을 쳤다. 이것은 민족해방전쟁이니 이 민족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적경쟁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지 않는 부차적인 요소이다.—이것은 우리가 1914～1916년의 전쟁에서 보는것과는 반대이다(오지리-쎄르비아전쟁에서의 민족적요소는 일체를 결정하는 제국주의적경쟁에 비한다면 중대한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알수 있다싶이 제국주의란 개념을 형식주의적으로 적용하여 거기에서 민족적전쟁의 《불가능성》이라는 결론을 끌어낸다면 그것은 극히 황당할것이다. 례컨대 이런 또는 저런 제국주의강국을 반대하는 페르샤, 인도 및 중국의 동맹의 민족해방전쟁은 전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이며 또 있을상싶은 일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이 나라들의 민족해방운동에서 나오기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이 오늘의 제국주의렬강들간의 제국주의전쟁으로 전화할것인가 안할것인가는 극히 허다한 구체적인 사정에 달린것인데 그러한 사정들이 꼬 생기리라고 장담하는것은 우스운 일일것이다.

셋째로, 심지어 구라파에서도 민족적전쟁이 제국주의시대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할수는 없는것이다. 《제국주의시대》는

오늘의 전쟁을 제국주의전쟁으로 되게 하였다. 그것은 불가피적으로(사회주의가 닥쳐오기전까지는) 새로운 제국주의전쟁들을 낳는다. 그것은 오늘의 대렬강들의 정치를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적인것으로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민족적전쟁, 례컨대 제국주의렬강들을 반대하는 소국들(가령 합병된 또는 민족적으로 억압당하는 소국들)의 민족적전쟁을 조금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도 그 《시대》가 동구라파의 대규모의 민족운동을 배제하지 않는것과 같다. 례컨대 오지리에 대해서 유니우스는 매우 정당한 판단을 내리고 한갖 《경제적인것》뿐만아니라 독특하게 정치적인것도 고려하여 《오지리의 내부적생활력의 결여》를 지적하고 《합스부르그왕조는 자산계급국가의 정치조직인것이 아니라 다만 사회적기생충들의 몇개 집단이 미약하게 결합된 하나의 신지케이트에 불과하다.》는것, 또 《오지리-웽그리아제국의 멸망은 력사적으로는 토이기의 붕괴의 연장에 불과하며 동시에 또 력사적발전행정의 요구이기도 하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일부 발칸국가와 로씨야의 사정도 이보다 나은것이 없다. 현전쟁에서 《대》렬강들이 몹시 쇠약해지거나 로씨야에서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민족적전쟁이 완전히 일어날수 있으며 심지어는 승리까지도 할수 있을것이다. 일방으로 제국주의렬강들의 간섭은 모든 경우에 다 실지로 실현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또 타방으로 대국에 대한 소국의 전쟁은 가망없는 전쟁이라고 《경솔하게》 론의할 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가망없는 전쟁도 역시 전쟁이며 더우기는 《대국》들 내부의 일정한 현상들—례컨대 혁명의 개시—은 《가망없는》 전쟁을 매우 《가망있는》 전쟁으로 되게 할수도 있다.

《민족적전쟁은 벌써 있을수 없다.》는 명제가 옳지 않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론한것은 이 명제가 리론적으로 확

연히 그릇된것이기때문에만이 아니다. 물론 제3국제당의 창건이 오직 비융속화한 맑스주의의 토대우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때에 《좌익》들이 맑스주의리론에 무관심하기 시작하였다면 그것은 아주 슬픈 일일것이다. 그러나 실천적-정치적으로도 이 오유는 극히 해로운것이니, 즉 이 오유에서는 마치도 반동적전쟁이외에는 아무런 전쟁도 있을수 없는것 같이 되기때문에 《무장철폐》에 대한 엉터리없는 선전이 도출되며 또 민족운동에 대한 일층더 엉터리없는 그야말로 반동적인 무관심이 도출되는것이다. 그러한 무관심은 구라파《대》민족들의 성원, 즉 소민족이나 식민지민족의 대중을 억압하고있는 민족들의 성원이 학자연한 태도로 《민족적전쟁은 벌써 있을수 없다.》고 언명할 때에는 배외주의로 되는것이다! 제국주의렬강들을 반대하는 민족적전쟁은 비단 가능하고 개연성이 클뿐만아니라 불가피하며 진보적이며 혁명적이다. 하긴 그것이 성공하자면 압박받는 나라들의 방대한 주민들(우리가 든 인도와 중국의 례에서는 수억)의 노력이 결합된다든가, 국제정세의 제 조건이 특히 유리하게 결합된다든가(례컨대 제국주의렬강들의 간섭이 그들의 무력화, 그들의 전쟁, 그들의 적대 등등때문에 마비된다든가), 어느 대강국의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동시에 봉기한다든가—이 세가지중의 어느 하나가 요구되는것은 물론이다.(우리가 렬거한 세가지중에서 무산계급의 승리를 위해서 어느것이 제일 바랄만하고 유리한가 하는 견지에서 볼때에는 마지막경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지적해야 할것은 유니우스를 민족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비난하는것은 불공정하리라는것이다. 그는 적어도 까메룬의 한 토착민지도자가 《반역》(분명히 전쟁을 계기로 봉기하려고 한 시도일것이다.)죄로 처형당한 사건에 대하여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이 묵과한 사실을 동 국회의원단의 죄과

로서 지적하고 또 한곳에서는 특히(《사회민주주의자》로서 간주되고있는 베긴, 펜쉬 일파 제씨들 및 기타 악당들에 대해서) 식민지민족들도 역시 민족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그는 그히 명확하게 이렇게 언명하고있다. 《사회주의는 매개 민족에 대하여 독립과 자유에 대한 권리, 자기 운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 《국제사회주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평등한 민족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오직 국제사회주의만이 그러한 민족들을 만들어낼수 있으며 오직 국제사회주의만이 민족자결권을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이 구호도—하고 필자는 정당하게 지적하고있다.—다른 모든 구호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는것을 정당화하는데 소용되는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혁명적, 변혁적, 적극적 정치에의 도표로서, 고무로서 소용되는것이다》(77, 78페지). 따라서 독일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은 화란 및 뽈스까의 일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제도하에서까지도 민족의 자결을 부인함으로써 빠져버린 그 편협한 견해와 맑스주의의 외곡에 모두가다 빠져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일것이다. 그러나 이 오유의 특수한 화란-뽈스까적근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언급하기로 하자.

유니우스의 그릇된 또 하나의 론의는 조국보위의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전쟁시기에 있어서의 극히 중요한 정치문제이다. 그리고 유니우스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유일하게 옳은 설정을 하였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하였다. 즉 그것은 이 전쟁이 략탈적, 예속적, 반동적 성격을 띠고있으므로 또 이 전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국내전쟁으로 저지시키는것(또 이 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키도록 힘쓰는것)이 가능하며 필요하므로 이 제국주의전쟁에서 무산계급이 조국보위를 반대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유니우스는 한편으로는 민족적전쟁과 구별하여 현전쟁의 제국주의적성격을 훌륭히 폭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극히 괴상한 오유에 빠져 민족적전쟁이 아닌 현전쟁에다 민족강령을 억지로 갖다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도저히 있음직하지 않은 말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이다.

레긴적 그리고 또한 카우쯔키적 색채를 띤 어용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전쟁의 제국주의적성격을 덮어감추고 인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외국의 《침입》에 대해서 가장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던 자산계급앞에 굽실거리면서 이 《침입》에 관한 론거를 특히 열심히 되풀이하였었다. 카우쯔키는 지금 천진하고 남의 말을 경솔히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1914년말이래 반대파로 넘어갔다는것을 설복하면서(부대적으로 지적하거니와 로씨야의 조직위원회파326의 스뻭따또르355를 통하여) 계속이 《론거》에 의거하고있다! 유니우스는 이 론거를 반박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산계급적력사에서는 침략과 계급투쟁은 공식적인 전설이 말하는것처럼 서로 대립되는것은 아니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수단 및 표현으로 된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극히 교훈적인 력사적실례들을 들고있다. 그 실례들은 이러하다. 프랑스의 부르봉왕조는 쟈꼬벵파를 반대하기 위하여, 1871년 당시의 자산자들은 빠리꼼뮨을 반대하기 위하여 각각 외국의 침입을 초래하였다. 맑스는 《프랑스국내전쟁》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구사회가 아직 할수 있었던 최고의 영웅적위업은 민족전쟁이다. 그런데 이 민족전쟁조차도 지금은 정부의 순전한 협잡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이 협잡의 유일한 목적은 계급투쟁의 시기를 더욱 뒤로 미루는것인데 계급투쟁이 국내전쟁으로서 폭발되자 이 협잡은 포기되고만다.》361

유니우스는 1793년을 실례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

다. 《모든 시대의 전형적예는 프랑스대혁명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낸다. 《따라서 세기적인 경험은 외적을 반대하여 나라를 보호하고 보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엄상태인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존심과 영웅적기개와 도덕적인 힘을 불러일으키는 자기희생적인 계급투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유니우스의 실천적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력사적위기의 시기에 자기 나라를 보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의 중대한 죄과는 이 의원단이 1914년 8월 4일의 자기 선언에서 〈우리는 위기존망의 시기에 결코 조국이 무방위상태에 처해있게는 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엄숙하게 선포하고서도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것이다. 그들은 극히 위험한 시기에 조국을 무방위상태에 처하게 하였다. 왜냐 하면 그때에 조국앞에 진 그들의 첫째가는 의무는 다음과 같이 하는것이였기때문이다. 즉 그들은 현 제국주의전쟁의 진정한 배경을 조국앞에 폭로하고 조국에 대한 이 침범행위를 감싸고있던 애국주의적외교적허위의 그물을 찢어버려야 했을것이며,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도 패배도 다 마찬가지로 독일인민에게는 파멸적이라는것을 소리높이 그리고 명백하게 성명하고 계엄상태에 의한 조국의 교살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해야 했을것이며 인민을 즉시 무장시킬 필요성과 전쟁 및 평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인민에게 맡길 필요성을 선포해야 했을것이며 정부에 대한 인민대표기관의 또 인민대표기관에 대한 인민의 세심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련속(무휴회) 인민대표회의를 열도록 단호하게 요구하여야 했을것이며 오직 자유로운 인민만이 자기 나라를 성과있게 방위할수 있으니만큼 모든 정치적권리제한의 즉시적철폐를 요구해야 했을것이며

끝으로 제국주의적전쟁강령—오지리와 토이기를 유지하려는, 다시말하면 구라파와 독일의 반동세력을 유지하려는 강령—에다 1848년의 애국주의자 및 민주주의자들의 오랜 진정한 민족적강령 즉 맑스와 엥겔스와 라쌀의 강령을, 통일적대독일공화국의 구호를 대치시켜야 했을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라앞에 펴야 했을 기발이였으며 이 기발이야말로 참으로 민족적이며 참으로 해방적인 기발로서 그것은 독일과 무산계급의 계급적인 국제정책의 가장 우량한 전통에 알맞았을것이다.»…«따라서 조국의 리익과 무산계급의 국제적단결간의 중대한 선정, 우리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무거운 마음으로› 제국주의전쟁측에 서게 한 비극적인 충돌은 순전한 상상이며 자산계급민족주의적허구이다. 반대로 나라의 리익과 무산계급국제당의 계급적리익간에는 전쟁시기에도 평화시기에도 완전한 조화가 존재한다. 전쟁도 평화도 다 계급투쟁의 가장 강력한 전개와 사회민주당의 강령의 극히 견결한 옹호를 요구하는것이다.»

이렇게 유니우스는 론하고있다. 그의 론의가 그르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짜리제도의 충복들인 쁠레하노브씨와 치헨껠리씨가, 그리고 어쩌면 또 마르또브씨와 치헤이제씨까지도 리론적진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발뺌을 하고 자기 죄과의 흔적을 없애며 로동자들의 눈에 모래를 뿌리려고 생각하면서 지꿏게 유니우스의 말에 달라붙을것이니만큼 우리는 유니우스의 오유의 리론적근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제국주의전쟁에다 민족강령을 《대치》시킬것을 제기하고있다. 그는 선진계급에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얼굴을 돌릴것을 제기하고있는것이다! 1793년과 1848년에는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또한 전 구라파에서도 객관적으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일정에 올라있었다. 이 객관적인 력사적사태

에 대응하는것은 당시의 민주주의파의 《참으로 민족적인》 강령, 다시말하면 민족적-자산계급적강령이였다. 이 강령은 1793년에는 자산계급과 평민층의 가장 혁명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실현되였고 1848년에는 전체 선진적민주주의파의 이름으로 맑스에 의하여 선포되였었다. 당시 객관적으로 봉건적-왕조적전쟁들과 대치된것은 혁명적민주주의적전쟁들, 민족해방전쟁들이였다. 그 시대의 력사적과업들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지금은 구라파의 선진적대국들의 객관적상태가 다르다. 앞으로의 발전—만일 있을수 있는 일시적인 후퇴를 념두에 두지 않는다면—은 오직 사회주의사회, 사회주의혁명의 방향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전쟁인 제국주의적-자산계급적전쟁에 객관적으로 대립할수 있는것은 앞으로의 발전의 견지, 선진계급의 견지에서는 오직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전쟁, 즉 우선 정권쟁탈을 위한 무산계급의 자산계급과의 국내전쟁—이러한 전쟁이 없이는 본격적인 전진운동은 있을수 없다.—이며 다음으로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있을수 있는, 자산계급국가들로부터 사회주의국가를 방위하는 전쟁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전적방위의 견지, 즉 로씨야에서의 혁명의 승리와 공화제의 승리를 조건으로 하여 조국을 방위한다는 견지에 서려던 그러한 볼쉐위크들(다행히도 그런 볼쉐위크는 몇사람 안되여 우리는 그들을 곧 호소파362에 넘겨주었지만)은 볼쉐위크주의란 글자에는 충실하였지만 그 정신은 배반하였던것이다. 왜냐 하면 구라파의 선진적렬강들의 제국주의전쟁에 끌려들어간 로씨야는 공화제의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제국주의전쟁을 진행할것이기때문이다!

계급투쟁은 침입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함으로써 유니우스는 맑스의 변증법을 다만 절반만을 적용하여 한걸음 옳은 길로 내디디였다가 곧 거기에서 벗어나고말았다.

맑스의 변증법은 매개 특수한 력사적정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할것을 요구한다. 계급투쟁이 침입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것은 봉건주의를 타도하는 자산계급에 대해서도 자산계급을 타도하는 무산계급에 대해서도 옳은것이다. 바로 그것이 온갖 계급적억압에 대하여 옳기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일반적이며 따라서 오늘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불충분한것이다.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 역시 계급투쟁의 형태의 하나이다. 그리고 오직 이 형태의 계급투쟁만이 구라파를(한나라가 아니라 전 구라파를) 침입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할것이다. 설혹 《대독일공화국》이 1914～1916년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일한 제국주의전쟁을 진행하였을것이다.

유니우스는 이 문제에 대한 옳은 대답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이란 옳은 구호에 바싹 다가섰다가 마치도 진실을 끝까지 다 말하는것을 두려워나 하는듯이 1914, 1915, 1916년의 《민족적전쟁》이라는 하나의 환상에로 후퇴하였다. 문제를 리론적면에서가 아니라 순 실천적면에서 보더라도 유니우스의 오유는 역시 명백하게 될것이다. 독일의 전체 자산계급사회, 농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계급들이 전쟁을 지지하고있었다(아마 로씨야에서도 마찬가지였을것이다. 적어도 부농과 중농의 대부분과 빈농의 대단히 많은 부분은 분명히 자산계급제국주의에 매혹되여있었다). 자산계급은 발톱까지 무장하고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공화제, 상설의회제, 인민에 의한 장교선거제(《인민의 무장》) 및 기타의 강령을 《선포》한다는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혁명(옳지 않은 혁명적강령을 가진!)을 《선포》함을 의미할것이다.

유니우스는 바로 여기에서 전적으로 정당하게 혁명은 《만들》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1914～1916년에 혁명은 전쟁의 태내에 깃들어 전쟁속에서 자라나면서 일정에 오르고있었다. 혁

명적계급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전쟁시대에는 인민을 형언할수 없는 재난속에 휘몰아넣는 극반동의 범죄적인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 없이는 사회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그 계급의 강령을 두려움없이 철저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체계적인, 철저한, 실제적인 혁명적위기의 여하한 발전속도하에서도 반드시 실현될수 있는, 성숙해가는 혁명로선에 알맞는 대책들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대책들이 우리 당 결의문에는 명시되여있다. 즉 (1) 군비지출에 대한 반대투표, (2) 《국내평화》의 파기, (3) 비합법적조직의 창설, (4) 병사들의 화선친목, (5) 대중의 모든 혁명적진출에 대한 지지①, 이러한 모든 대책들을 순조롭게 실현한다면 불가피적으로 국내전쟁을 일으킨다.

위대한 력사적강령을 선포하는것은 의심할바없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그것은 1914～1916년에 있어서는 진부한것으로 되여버린 낡은 민족적-독일적강령인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적-국제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강령이여야 한다. 당신들 자산자는 략탈을 위해 전쟁을 한다, 우리 모든 교전국의 로동자들은 당신들에게 사회주의를 위한 전쟁을 포고한다.—이것이 레긴, 다위드, 카우쯔키, 쁠레하노브, 게드, 쌍바 등등과는 달리 무산계급을 배반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 1914년 8월 4일에 의회에서 했어야 했던 연설의 내용이다.

아마 두가지의 그릇된 생각이 유니우스의 오유를 빚어낸것 같다. 물론 유니우스는 제국주의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혁명적전술을 견결히 지지하고있다. 쁠레하노브일파제씨들이 유니우스의 《조국방위론》에 대하여 제아무리 잘코사니를 불러도 이 사실은 말살되지 않을것이다. 있을수 있고 또 있음직한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139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러한 종류의 중상들에 대해서는 즉시에 단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첫째로 유니우스는 분렬을 두려워하며 혁명적구호를 끝까지 다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지어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까지도 포함하여—의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리탈하지 못하고있다①. 그것은 그릇된 두려움으로서 독일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두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것이며 또 벗어날것이다.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그들의 투쟁행정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것이다. 하기는 그들은 자기 나라의 사회배외주의자들과 견결히, 확고히, 성실히 투쟁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들과 한손으로는(스꼬벨레브식으로) 《각국의 립크네히트들》을 환영하는 기발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치헨껠리와 뽀뜨레쏘브를 부드럽게 포옹하고있는 마르또브와 치헤이제일파제씨와 원칙상 근본적으로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둘째로 유니우스는 이미 거덜이 난 멘쉐위크적《단계론》비슷한것을 실현하고저 한것 같고 혁명적강령의 실시를 그 《가장 편리한》, 《통속적인》, 소자산계급도 받아들일수 있는 점으로부터 시작하고저 한것 같다. 그것은 《력사를 굶리고》

---

① 같은 오유는 《승리하는것이 좋은가, 패배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한 유니우스의 론의에도 있다. 그의 결론은 두가지가 다 마찬가지로 나쁘다는것이다.(령락, 군비증대 등등) 이것은 혁명적무산계급의 견지인것이 아니라 평화주의적소자산계급의 견지이다. 무산계급의 《혁명적간섭》에 대해서 말한다면—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일반적으로이긴 하나 유니우스도 《국제당》그루빠의 테제도 이에 대해서 말하고있다.—반드시 다음과 같은 딴 견지에서 문제를 설정해야 할것이였다. 즉 (1) 패배의 위험을 겪지 않고도 《혁명적간섭》을 할수 있는가? (2) 같은 위험을 겪지 않고도 자국의 자산계급과 정부를 규탄할수 있는가? (3) 패배는 혁명적계급의 위업을 촉진시킨다는것을 우리는 항상 말하지 않았던가, 또 반동적전쟁의 력사적경험도 그렇게 말하고있지 않는가?

속물들을 곯려주는 계책과 비슷한것이다. 즉 진정한 조국을 보위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수 없을것인데 진정한 조국이란 곧 대독일공화국이고 최선의 방법이란 곧 민병대의 창립, 상설의회의 설립 등등이라는것이다. 그러한 강령은 일단 채택되기만 하면 다른 단계에로 즉 사회주의혁명에로 저절로 나아가게 되리라는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론의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반의식적으로 유니우스의 전술을 규정하였을것이다. 그러한 론의들이 그릇된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유니우스의 소책자를 읽고 유니우스는 혁명적구호를 철저한 고려끝에 작성하여 그 정신으로 대중을 계통적으로 교양하기에 습관된 그러한 비합법적조직의 동지들이 없는 고독자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은 유니우스개인의 결함인것이 아니라 이 점을 망각하는것은 아주 옳지 않을것이다.—카우쯔키적 위선, 현학,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우정》 등의 추악한 그물로 사방에서 둘러싸여있는 모든 독일좌익들의 연약성의 결과이다. 유니우스의 지지자들은 그 고독에도 불구하고 비합법적소신문의 발간과 카우쯔키주의에 대한 투쟁에 착수할수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옳은 길로 전진할수 있을것이다.

1916년 7월에 집필

1916년 10월에 《사회민주주의자론문집》, 제1권에 게재

서명: 엔.레닌

《론문집》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2권, 298～313페지

자결에 관한 론쟁의 총화(발취)

7 맑스주의냐 쁘루동주의냐?

우리가 아일랜드의 분리에 대한 맑스의 태도를 인증한데 대하여 뽈스까의 동지들은 례외적으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응전하고있다. 그들의 반대의견은 대체 무엇인가? 1848～1871년의 맑스의 립장을 인증하는것은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추호의 가치도 없는것》이다. 그들이 이 비상히 분개한 그리고 단호한 성명을 발표한 리유는 맑스가 《체스꼬인, 남부슬라브인 등등》의 독립에 대한 지향을 《동시에》 반대하여 나섰다는데 있다[339].

이 근거설명은 바로 그것이 특히 무근거하기때문에 분개에 찬것이다. 뽈스까맑스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맑스는 정반대되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말한 혼란에 빠진 사람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으며 이것은 전혀 맑스주의가 아니다. 뽈스까의 동지들이 제기한 《구체적》분석의 요구—적용하지 않기 위해서이다.—는 각이한 구체적인 《민족》운동에 대한 맑스의 각이한 태도가 동일한 사회주의적세계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는가를 고찰할 의무를 우리에게 지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맑스는 짜리정부의 세력과 영향을 반대하는—말하자면 짜리정부의 무한한 권위와 압도적인 반동적영

향을 반대하는—투쟁에 있어서의 구라파민주주의의 리익의 견지에서 뽈스까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 견지의 정당성은 로씨야의 농노주적군대가 웽그리아의 민족—해방적이며 혁명적—민주주의적인 봉기를 진압한 1849년에 가장 명료하게 사실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그때로부터 맑스가 서거하기까지, 지어는 그후 1890년 짜리정부가 프랑스와 결탁하여 제국주의적이 아니라 민족독립적인 독일을 반대하는 반동적전쟁을 일으키려고 애쓰던 때까지 엥겔스는 무엇보다도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짜리정부와의 투쟁을 주장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또 오직 그렇기때문에 맑스와 엥겔스는 체스꼬인과 남부슬라브인의 민족운동을 반대하였던것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1848~1849년에 쓴것을 보기만 하면 맑스주의를 포기하기 위하여 맑스주의에 관심을 가지고있는자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맑스와 엥겔스가 당시 직접적으로 또 명확히 구라파에서 《로씨야의 전초》로 되고있는 《일련의 반동적민족》을 《혁명적민족》—독일인, 뽈스까인, 마쟈르인 등과 구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당시 이 사실은 의심할바없이 옳게 지적되였다. 왜냐 하면 1848년에는 혁명적민족들은 자유를 위하여 싸웠는데 자유의 주되는 적은 짜리정부였으며 체스꼬인 등등은 사실상 반동적인 민족이였으며 짜리정부의 전초였기때문이다.

맑스주의에 충실하고저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될 이 구체적인 실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다음과 같은것을 말하여줄뿐이다. (1) 구라파의 몇개의 대민족 및 최대민족의 해방의 리익은 소민족들의 해방운동의 리익보다 중요하다는것, (2) 민주주의의 요구는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전 구라파적규모에서—지금은 세계적규모에서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이상의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뽈스까인들이 항상 망각하고있으나 맑스가 언제나 준수하여온 그 초보적인 사회주의적원칙, 즉 《타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수 없다.》282는 원칙에 대한 부정이 조금도 없다. 국제정치에서 짜리제도의 영향이 지배적이였던 시대에 맑스가 직면하였던 구체적정세가 또다시 동일한 형태로 반복된다면, 즉 어떤 민족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시작하고(1848년에 구라파에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시작한것과 같이) 다른 민족들은 자산계급적반동세력의 주요지주로 되고있다면 우리도 역시 후자의 민족들과의 혁명적전쟁을 지지하며 그 민족들을 《진압》하며 그 민족들의 모든 전초—여기에서 어떠한 소민족적운동이 일어나고있든지를 불문하고—를 분쇄하는것을 지지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맑스의 전술의 모범을 포기할것이 아니라—이러한 모범을 포기하는것은 말로는 맑스주의를 신봉하나 실지로는 그것과 결렬하는것을 의미한다.—그에 대한 구체적분석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헤아릴수없이 귀중한 교훈을 끌어내야 할것이다. 자결도 포함한 민주주의운동의 개별적인 요구는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반민주주의(현재는 일반사회주의)운동의 일소부분인것이다. 개별적인 구체적경우에는 부분이 일반에 모순될수도 있다. 그때에는 이 부분을 거부하여야 한다. 어떤 한 나라에 있어서의 공화주의운동이 다른 나라의 교권주의적 또는 금융-군주주의적음모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수 있다.—그때에는 우리는 이 구체적인 운동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화국의 구호를 국제사회민주주의강령에서 삭제한다는것은 가소로운 일일것이다.

1848～1871년부터 1898～1916년까지의 시기(여기서 말하는것은 제국주의의 가장 중대한 단계, 즉 미국-에스빠냐제국

주의전쟁으로부터 구라파제국주의대전까지이다.)의 구체적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짜리제도는 첫째로는 국제금융자본, 특히는 프랑스의 금융자본의 지지를 받게 된 결과로, 둘째로는 1905년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명히 의심할바없이 반동세력의 주요지주가 아니다. 당시는 대민족국가—구라파 각 민주주의국가—의 체계는 짜리제도와 반대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세계에 가져왔었다①. 맑스와 엥겔스는 제국주의시대까지 살지 못하였다. 현재는 극소수(5~6개)의 제국주의적《대》국의 체계가 형성되였으며 이 나라들은 모두 타민족을 압박하고있다. 그리고 이 압박은 자본주의의 몰락을 인위적으로 지체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민족들의 기회주의와 사회배외주의를 인위적으로 지지하는 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당시는 최대민족들을 해방시키는 서구라파의 민주주의운동이 개별적인 소민족운동을 반동적목적에 리용하고있은 짜리제도를 반대하였다. 현재는 일련의 민족들을 공동으로 압박하는 토대우에서 결성된 짜리제국주의와 구라파의 선진적자본주의적제국주의와의 동맹이 사회주의적무산계급과 대립하고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은 배외주의적, 《사회제국주의적》 무산계급과 혁명적무산계급으로 분렬되여있다.

바로 이러한것이 정세의 구체적인 변화인데 뽈스까사회민

① 라자노브는 그륀베르그의 《사회주의사기록문집》(1916년, 제1권)에 뽈스까문제에 관한 엥겔스의 1866년의 극히 흥미있는 론문을 발표하였다. 엥겔스는 구라파의 각 대민족의 정치적독립과 《자결》(right to dispose of itself)을 인정하는것이 무산계급에게 필요하다는것을 강조하고 《민족의 원칙》(특히 보나빠르트가 비용한), 즉 임의의 소민족을 대민족과 동등시하는것이 황당함을 지적하고있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로씨야는 대량의 획득물(즉 많은 피압박민족)의 소유자인데 결산하는 날이 되면 로씨야는 그것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363 보나빠르트주의도 짜리제도도 소민족의 운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구라파민주주의운동을 반대하는데 리용하고있다.

주주의자들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보겠다면 약속과는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고있다! 이 변화로부터 동일한 사회주의적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생겨난다. 즈 당시는 주로 《짜리제도를 반대하며》(또 짜리제도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반대하는데 리용되는 약간의 소민족의 운동을 반대하며) 서구라파대민족의 혁명적인민을 지지하여야 하였다. 현재는 제국주의렬강, 제국주의적자산계급, 사회제국주의자들의 보조가 일치한 통일전선을 반대하여 모든 반제국주의적민족운동을 사회주의혁명의 목적을 위하여 리용하는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오늘날 전체 제국주의전선을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투쟁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타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수 없다.》는 국제주의적원칙은 분명히 더욱더 현실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쁘루동주의자들은 교조주의적으로 리해된 그런 사회혁명을 위하여 뽈스까의 국제적역할을 무시하고 민족운동을 포기하였다.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도 꼭같이 교조주의적으로 행동하고있다. 그들은 사회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국제적전선을 파괴하고있으며 합병문제에 관한 자기의 동요로써(객관적으로) 사회제국주의자를 원조하고있다. 왜냐 하면 바로 국제무산계급투쟁전선과 각 소민족의 구체적립장과의 관계가 개변되였기때문이다. 즉 당시(1848～1871년)에는 소민족은 혹은 《서구라파민주주의운동》과 혁명적민족의 동맹자로서 혹은 짜리제도의 동맹자로서 의의를 가질수 있었으나 현재(1898～1914년)에는 소민족은 그러한 의의를 상실하였다. 오늘날 그들의 의의는 《대강국민족》의 기생성의, 따라서 또 이 민족들의 사회제국주의의 배양원의 하나라는데 있다. 사회주의혁명전에 소민족의 50분의 1이 해방되느냐 100분의 1이 해방되느냐 하는것은 중요한것이 아니다. 중요한것은 무산계급이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객관적원인으로 말미암아 두 국제적진영으로 분렬되였다는것이다. 한 진영은 대강국의 자산계급의 식탁에서 떨어지는—특히 소민족에 대한 2중, 3중의 착취에서 생기는—찌꺼기에 의하여 타락하고있으며 다른 한 진영은 소민족을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대중을 반배외주의적 즉 반합병주의적 즉 《자결주의적》 정신으로 교양하지 않고는 자신을 해방할수 없다.

뽈스까의 동지들은 문제의 이 가장 주요한 면을 무시하고있는데 그들은 제국주의시대에 있어서의 중심적견지에서, 국제무산계급이 두 진영을 가지고있다는 견지에서 문제를 고찰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들의 프루동주의의 실례들이 또 있다. (1) 1916년의 아일랜드봉기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말하려 한다. (2)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는 《아무것에 의해서도 은폐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테제(제2장 제3절, 제3절의 끝)에서의 그들의 성명이다.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민족문제도 포함한 온갖 문제에 있어서의 철저한 혁명적인 립장과 결부시키면 사회주의혁명의 구호가 《은폐》될수 있는듯이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극단적인 반맑스주의적사상이다.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은 우리의 강령을 《민족개량주의적》강령으로 보고있다. 두 실천적제의, 즉 (1) 자치제를 지지하는것(뽈스까의 테제, 제3장 제4절)과 (2) 분리의 자유를 지지하는것을 대비하여보라. 우리의 강령과 그들의 강령과의 구별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오직 여기에만 있는것이다! 그리고 개량주의적인 강령은 후자가 아니라 바로 전자라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개량주의적인 개혁은 지배계급의 권력의 기초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배계급이 자기의 지배를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양보하도록 하는데 불과한 그러한 개혁이다. 혁명적개

혁은 권력의 기초를 파괴한다. 민족강령에 있어서의 개량주의적인 개혁은 지배민족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지 **않으며** 완전한 평등권을 조성하지 **않으며 온갖** 민족적압박을 제거하지 **않는다.** 《자치》민족은 《강국》민족과 평등하지 않다. 뾜스까의 동지들은 **정치적**개념과 **정치적**범주에 대한 분석을 완강히(우리나라의 낡은 《경제주의자》들과 같이)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할리가 없다. 자치적노르웨이는 스웨리예의 일부분으로서 1905년까지 극히 광범한 자치권을 향유하고있었으나 스웨리예와 평등하지는 않았다. 노르웨이의 자유로운 분리만이 그 평등권을 **실지로** 나타냈으며 또 그것을 증명하였다(뿐만아니라—겸하여 부언하거니와—바로 이 자유로운 분리가 평등원칙에 기초한 보다 긴밀하고 보다 민주주의적인 접근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노르웨이가 자치를 실시할따름이였던 동안은 스웨리예의 귀족들은 **하나의** 여분의 특권을 가지고있었다. 이 특권은 《약화》(개량주의의 본질은 악의 근절이 아니라 그 **약화**에 있다.)된것이 아니라 분리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되였다.**(이것이 강령에 있어서의 혁명적개혁의 기본적인 표징이다.)

겸하여 말해둘것은 개량으로서의 자치는 혁명적방법으로서의 분리의 자유와 원칙적으로 다르다는것이다. 이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개량은 흔히 실지에 있어서는 혁명에로 나가는 일보일따름이다. 바로 자치는 소여의 국가의 경계내에 강제적으로 억류되여있는 민족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민족으로서 형성되며 자기의 력량을 집결, 자각, 조직하며 《노르웨이적》방식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민족 또는 이러이러한 변강의 자치의회로서 전 로씨야적 황제가 더는 뾜스까의 국왕이 아니라는것 등등을 선언한다고…**성명**하기 위한 아주 적당한 시기를 선택할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

서는, 그러한 문제는 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항의》하는것이 보통이다. 옳다. 이것은 절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전쟁에 의하여 해결된다(대국가의 통치형태에 관한 문제가 절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전쟁과 혁명에 의해서만 해결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혁명적당의 정치적강령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항의》가 과연 론리적인가를 좀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이다. 우리는 과연 정의적이고 무산계급에게 유익한 사업을 위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쟁이나 혁명을 반대한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대민족간의 전쟁, 아마 1,000만 내지 2 000만의 인구로써 구성되여있는 소민족의 확실성없는 해방을 위하여 2,000만명의 사람이 몰살하는것을 지지할수 없는것이다!》 물론 그럴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강령으로부터 완전한 민족적평등권을 포기하기때문에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민주주의운동의 리익을 몇몇 나라 또는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운동의 리익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두 대군주국사이에 한 소군주국이 있고 그 왕이 두 린접대국의 군주들과 친척관계 및 기타의 관계로써 《련결》되여있다고 가정하자. 나아가서 이 소국에 있어서 공화제를 선포하고 그 군주를 구축한다면 실제에 있어서 소국의 어느 한 군주의 회복을 에워싼 두 린접대국간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자. 모든 국제사회민주당 및 이 소국의 사회민주당의 일부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이 이 경우에 있어서 공화제로 군주제를 대체하는것을 반대할것은 의심할바없다. 공화제로 군주제를 대체하는것은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운동의 전반적리익에 복종해야 할(물론 더구나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의 리익에 복종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적요구의 하나인것이다. 필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나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사이에서도 조금도 의견상

이를 일으키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유에 근거하여 어떤 사회민주주의자가 국제사회민주당강령으로부터 공화국의 구호를 삭제할것을 제의한다면 그는 필시 정신병자로 간주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여하튼 특수와 일반과의 초보적인 론리적구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할것이다.

이 실례는 우리들로 하여금 약간 다른 면으로부터 로동계급의 국제주의적교양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게 한다. 이 교양—그 필요성과 극히 긴절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찜메르왈드좌파316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을수 없다.—은 과연 큰 압박민족과 작은 압박민족에 있어서, 합병민족과 피합병민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동일할수 있겠는가?

없을것은 명백하다. 모든 민족이 완전한 평등권을 가지며 매우 긴밀히 접근하며 나아가서는 융합되게 하는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자면 확실히 각이한 구체적인 길로 나아가게 된다. 말하자면 한장의 종이복판에 있는 점에로 가는 길이 그 종이의 한쪽끝으로부터는 왼편을, 그 반대끝으로부터는 바른편을 통하는것과 같다. 만일 타민족을 압박하고 합병하는 대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민족의 융합만 고취하면서 《자국의》 니꼴라이2세, 《자국의》 윌헬름, 죠지, 뿌엥까레 등등도 역시 소민족과의 융합(합병에 의한)을 주장한다는것—니꼴라이2세는 갈리찌야와의 《융합》을, 윌헬름2세는 벨지끄와의 《융합》을, 기타 등등을 주장한다는것—을 잠시라도 망각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는 리론면에서는 가소로운 교조주의자로 되며 실천면에서는 제국주의의 방조자로 될것이다.

압박하는 나라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교양의 중점은 반드시 압박받는 나라의 분리의 자유를 선전하며 로동자들이 그것을 고수하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국제주의는 없다. 만일 압박민족의 그 어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러한 선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제국주의자로, 무용지물로 취급할 권리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설혹 분리의 기회가 사회주의실현이전에 있어서는 천분의 1밖에 가능하지 못하며 천분의 1밖에 《실현될》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조건적인 요구인것이다.

우리는 로동자들을 민족적차이에 대하여 《무관심》하도록 교양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합병주의자들의 무관심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압박민족의 성원은 소민족이 그들자신의 지향에 따라 압박민족의 국가에 속하든 또는 린접국가에 속하든 또는 자립하든 그것에는 《무관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무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자-국제주의자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리익, 모든 민족의 보편적자유와 평등권을 자기 민족우에다 놓지 않으면 안된다. 《리론》면에서는 모두가 이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실천면에서는 다름아닌 합병주의적무관심을 나타내는자가 있다. 여기에 악의 근원이 있다.

반대로 소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기의 선동의 중점을 우리의 일반적정식의 둘째 문구, 즉 제 민족의 《자원적련합》에다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위반함이 없이 자기 민족의 정치적독립도 찬성할수 있고 또 어느 린접국가에 자기 민족을 가입시키는것도 찬성할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는 전체적이며 전반적인 리익을 고려하며 전반적리익에다 부분적리익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소민족적 편협성, 폐쇄성, 고립성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압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분리의 자유》를 주장하며 피압박민족의 사회민주주

주의자는 《련합의 자유》를 주장하는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국제주의와 각 민족의 융합에로 가는 길, 현재의 상태로부터 이 목적에로 가는 다른 길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알게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화란과 뽈스까의 사회민주당의 특수한 형편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하자.

9. 카우쯔키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

당시 아직 맑스주의자였던 카우쯔키는 그의 소책자 《사회주의와 식민정책》(1907년 베를린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거대한 흥취를 일으키는, 자기에게 보낸 엥겔스의 1882년 9월 12일부 서한을 발표하였다. 이 서한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본래의 식민지, 즉 구라파인이 차지한 지방인 카나다, 희망봉, 오스트랄리아는 모두 독립국으로 될것이다. 반대로 토착민이 차지하고있는, 오직 예속만 되여있는 지방, 즉 인도, 알제리, 화란령유지, 뽀르뚜갈령유지, 에스빠냐령유지는 무산계급이 일시 맡았다가 가급적으로 빨리 독립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어떻게 전개될것인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인도는 아마 혁명을 일으킬것이다. 그것은 십분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해방을 쟁취하는 무산계급은 식민지전쟁을 할수 없기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할것이다. 이 경우에 물론 여러가지 파괴가 없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어떠한 혁명에서도 피면할수 없는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다른 지역, 례컨대 알제리 및 애급에서도 일어날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심할바없이 가장 좋은 일일것이다. 우리에게는 국내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것이다. 구라파와 북아메리카가 개조되기만 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힘과 훌륭한 모범으로 되여 반문명국들이 저절로 우리를 따라오게 될것이다. 경제적필요성만으로도 이 점을 가속화하게 될것이다.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적조직에 도달하기까지에 어떠한 사회적 및 정치적 단계를 거치게 되겠는가에 관해서는 우리는 오늘날 상당히 두리뭉실한 가설을 제기할수 있을따름일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한가지만은 의심할바없다. 즉 승리한 무산계급은 어떠한 행복이건 타민족에게 강요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자신의 승리를 파괴하게 된다는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각종 방위전쟁이 배제되는것은 결코 아니다.》353…

엥겔스는 《경제적인》 요인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모든 난관을 해결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적변혁은 모든 민족을 사회주의로 끌어갈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혁명(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하는)과 전쟁이 발생될수도 있다. 경제에의 정치의 적응이 불가피적으로 일어날것이다. 그러나 대번에 순조롭게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것이다. 엥겔스는 단 하나의 무조건적으로 국제주의적인 원칙만을 《의심할바없는것》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모든 《타민족》—즉 식민지민족에게뿐만아니라—에게 적용하고있는데 그 원칙은 즉 타민족에게 행복을 강요하는것은 무산계급의 승리를 파괴하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이다.

무산계급은 사회혁명을 수행한다는것만으로는 신성한것으로 될수는 없으며 오유를 범하지 않고 약점을 가지지 않도록 담보할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있을수 있는 오유(그리고 남의 동을 처 먹으려고 시도하는 리기주의)는 무산계급에게 불가피적으로 이 진리를 인식시킬것이다.

우리 점메르왈드좌파는 모두가 카우쯔키도 1914년에 맑스

주의로부터 배외주의의 옹호자로 전변되기전에 확신하고있던 것을 즉 사회주의혁명이 극히 가까운 장래에, 같은 카우쯔키 그자신이 언젠가 표현한바와 같이 《오늘래일사이》에 완전히 가능하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민족적반감은 그렇게 급속히는 없어지지 않을것이다. 압박민족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증오(역시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당분간 남아있을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승리한後에야, 각 민족간에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호상관계가 철저히 확립된後에야 비로소 없어질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에 충실하고저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대중에게 국제주의적교양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교양은 압박민족들속에서 피압박민족의 분리의 자유를 선전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1916년 7월에 집필

1916년 10월에 《사회민주주의 자료문집》 제1권에 수록

서명: 엔.레닌

《론문집》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2권, 334~342, 346~348페지

무산계급혁명의 군사강령[364]

화란, 스칸디나비아, 스위스에서 오늘의 제국주의전쟁에 있어서의 《조국보위》에 관한 사회배외주의자들의 허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중에는 《민병》 또는 《인민의 무장》이라는 사회민주당최저강령의 종래의 조항을 《무장철폐》라는 새 조항으로 바꾸라는 소리가 나오고있다. 《청년인터나쇼날》은 이 문제에 관하여 토론을 시작하고 무장철폐를 주장하는 편집부의 론설을 제3호에 게재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에르.그림의 최근의 테제[365]에서도 역시 우리는 《무장철폐》사상에 대한 양보를 발견하였다. 잡지 《신생활》과 《신구자》[366]에서 토론이 전개되였다.

무장철폐론자들의 립장을 자세히 검토하여보기로 하자.

1

무장철폐를 주장하는 기본적론거는 무장철폐의 요구가 온갖 군국주의와 온갖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의 가장 명백한, 가장 단호한, 가장 철저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본적론거에 무장철폐론자들의 기본적오유가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자임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온갖 전쟁을 다 반대할수는 없는것이다.

첫째로,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혁명전쟁을 반대한 일이 없었으며 또 결코 반대할수도 없을것이다. 《대》제국주의렬강의

자산계급은 철두철미 반동적으로 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산계급이 현재 진행하고있는 전쟁을 반동적, 노예소유자적, 범죄적 전쟁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이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례컨대 이 자산계급에게 압박당하고있으며 이 자산계급에게 예속되여있는 민족들 또는 식민지민족들의 자기 해방을 위한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당》그루빠345의 테제 제5항에는 《이 횡포한 제국주의시대에는 어떠한 민족전쟁도 있을수 없다.》고 씌여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옳지 않다.

이 《횡포한 제국주의》의 세기인 20세기의 력사는 식민지전쟁으로 충만되여있다. 그런데 세계의 대다수 민족을 압박하는 제국주의자인 우리들 구라파인이 우리에게 고유한 추악한 구라파배외주의적견지에서 《식민지전쟁》이라고 칭하는 그것은 흔히 이러한 피압박민족의 민족전쟁 혹은 민족적봉기인것이다. 제국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의 하나는 바로 가장 락후한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적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을 확대하며 첨예화하는데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제국주의는 종종 민족전쟁을 야기시키지 않을수 없다는 결론이 불가피적으로 나온다. 유니우스는 그의 소책자에서 상기 《테제》를 옹호하면서 말하기를, 제국주의시대에는 제국주의렬강중의 한 나라를 반대하는 어떠한 민족전쟁도 그 제국주의대국과 경쟁하고있는 역시 제국주의적인 다른 대국의 간섭을 초래하며 따라서 온갖 민족전쟁은 제국주의전쟁으로 전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론거도 역시 옳지 않다. 그러한 일은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1900～1914년간에 일어난 많은 식민지전쟁은 이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이 교전국들의 극도의 피페로써 끝나는 경우에는 그후에 《아무런》 민

족적, 진보적, 혁명적 전쟁이, 이를테면 중국이 인도, 페르샤, 샴 등등과 동맹하여 대강국들을 반대하는 전쟁이 일어날수 《없다》고 우리가 선언한다면 그야말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하에서의 민족전쟁의 온갖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은 리론적으로 옳지 않으며 력사적으로 분명히 오유이며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구라파적배외주의와 같은것이다. 즉 구라파, 아프리카, 아세아 등등에서 수억만 인민을 압박하고있는 민족에 속하는 우리들이 피압박민족들에게 《우리들의》 민족을 반대하는 그대들의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성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다!

둘째로, 국내전쟁도 역시 전쟁이다. 계급투쟁을 시인하는 사람은 국내전쟁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다. 국내전쟁은 온갖 계급사회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자연스러운, 일정한 정세하에서는 불가피적인 계속이며 발전이며 첨예화이다. 모든 대혁명이 이것을 확증하고있다. 국내전쟁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것을 망각하는것은 극단적인 기회주의로 떨어지며 사회주의혁명을 거부하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셋째로, 한 나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가 모든 전쟁을 일거에 전반적으로 제거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전쟁을 예상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각국에서 몹시 불균등적으로 진행된다. 상품생산의 조건하에서는 달리는 될수도 없다. 이로부터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동시에 승리할수는 없다는 확고부동한 결론이 나오는것이다. 사회주의는 처음에는 1국 내지 수개 국에서 승리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얼마동안 자산계급적인 혹은 전자산계급적인 나라로 남아있을것이다. 이것은 알륵을 일으킬뿐만아니라 또 사회주의국가의 승리한 무산계급을 분쇄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자산계급의 직접적인 노

력을 일으킬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측에서 하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며 정의의 전쟁일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전쟁이며 자산계급으로부터 다른 나라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일것이다. 엥겔스가 1882년 9월 12일에 카우쯔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의 《방위전쟁》의 가능성353을 단적으로 인정한것은 아주 정당하였다. 엥겔스가 념두에 둔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승리한 무산계급의 방위였던것이다.

우리가 한 나라에서뿐만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산계급을 전복하고 그들을 종국적으로 타승하고 수탈한후에야 비로소 전쟁은 불가능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자산계급의 반항을 진압한다는 다름아닌 가장 중요한 사업, 즉 사회주의로 이행함에 있어서 가장 곤난하며 가장 많이 투쟁을 요구하는 사업을 회피하거나 혹은 모호하게 한다면 그것은 과학적견지로 보아 전혀 옳지 않을것이며 완전히 비혁명적일것이다. 《사회적》신부들과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미래의 평화적사회주의를 몽상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이 훌륭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격렬한 계급투쟁과 계급전쟁을 생각하며 고려하고저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과 구별되는것이다.

우리는 말로써 우리를 기만하는것을 용허해서는 안된다. 례컨대 《조국보위》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있다. 왜냐 하면 로골적인 기회주의자들과 카우쯔키자들이 이번 강도전쟁에 있어서의 자산계급의 거짓말을 이 개념으로써 은폐하고있으며 모호하게 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구호의 의의를 깊이 생각하는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이번 전쟁에서 《조국보위》를 인정하는것은 곧 이 전쟁을 무산계급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

의》의 전쟁으로 인정하는것을 의미하며 결코 그것밖에 안된다. 왜냐 하면 어떠한 전쟁에 있어서도 침입은 있을수 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대국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있어서의 피압박민족의 《조국보위》나 혹은 자산계급국가의 어떠한 갈리페를 반대하는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한 무산계급측의 《조국보위》를 부인하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것이다.

온갖 전쟁은 다만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에 불과하다는것을 망각하는것은 리론적으로 전혀 옳지 않을것이다. 현재의 제국주의전쟁은 두 대강국집단의 제국주의적정치의 연장이며 또 이 정치는 제국주의시대의 제 관계의 총체에 의해서 발생되였으며 장성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같은 이 시대는 필연적으로 민족적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의 정치와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투쟁의 정치도 발생장성케 하며 따라서 또 첫째로, 혁명적인 민족적봉기와 민족전쟁의 가능성과 불가피성, 둘째로,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전쟁과 봉기의 가능성과 불가피성, 셋째로, 이 두 형태의 혁명적전쟁의 합류의 가능성과 불가피성 등등도 발생장성케 하지 않을수 없다.

2

여기에 또 다음과 같은 일반적고려가 첨가된다.

무기사용법을 습득하고 무기를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피압박계급은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 우리가 자산계급평화주의자나 기회주의자로 전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계급사회에 살고있다는것, 계급투쟁이외에는 이 사회로부터 빠져나올 다른 출로는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망각할수 없다. 어떠한 계급사회에 있어서나—그것이 노예제에 기초하고있든, 농노제에 기초하고있든 또는 현재

와 같이 임금로동에 기초하고있든—압박계급은 의례히 무장하고있다. 비단 오늘날의 상비군뿐만아니라 오늘날의 민병도 또한—가장 민주주의적인 자산계급공화국, 례컨대 스위스에 있어서조차—무산계급을 반대하는 자산계급의 무장인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간단한 진리이다.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파업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사용한다는것만 상기시켜도 충분하다.

자산계급이 무장으로써 무산계급을 탄압하는것은 현대자본주의사회의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 《무장철폐》의 《요구》를 제기하라고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제의하는자들이 있다! 이것은 계급투쟁의 견지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온갖 혁명의 사상을 포기하라는것과 꼭같은것이다. 우리의 구호로 되여야 할것은 자산계급을 타승하고 수탈하고 무장해제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을 무장시키라는것이다. 이것은 혁명적계급의 유일하게 가능한 전술이며 자본주의적군국주의의 객관적발전전체로부터 나오며 이 발전이 지시하는 전술이다. 무산계급은 자산계급을 무장해제한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세계사적과업을 배반하지 않고 온갖 무기를 파괴해버릴수 있다. 의심할바없이 무산계급은 그렇게 할것이다. 그러나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무장해제한 때에만 그렇게 할것이며 그전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다.

만일 오늘날의 전쟁이 반동적인 기독교사회주의자들이나 감상적인 소자산계급속에서 공포와 전률만을 일으킬뿐이며 온갖 무기사용과 류혈과 죽음 등등에 대한 혐오만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사회는 끝없는 공포였으며 또 언제나 그렇다고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모든 전쟁중에서 가장 반동적인 지금의 이 전쟁이 이 사회에 무서운 종말을 준비하고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에 빠질 아무런 리유도 없다. 그런데 누구나 다 보는바와 같이 유일하게 정당하며 혁명적인 전쟁, 즉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이 자산계급자신의 힘으로써 준비되고있는 이러한 시기에 무장철폐를 《요구》하는 것—더 정확히 말하면 몽상하는것—은 객관적으로는 다름아닌 절망의 표현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실지생활에서 유리된 리론이라고 말하는자에게는 우리는 두가지의 세계사적사실을 회상시키려고 한다. 즉 하나는 트레스트의 역할과 녀성의 공장로동의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1871년의 빠리꼼뮨과 로씨야에 있어서의 1905년 12월봉기이다.

자산계급의 사업은 트레스트를 발전시키며 아동과 녀성을 공장에 몰아넣고 거기에서 그들을 학대하며 타락시키며 극도의 빈궁에 빠뜨리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지지》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그러면 어떻게 투쟁하는가? 우리는 트레스트와 녀성의 공장로동이 진보적이라는것을 알고있다. 우리는 수공업으로, 독점전의 자본주의로, 녀성의 가내로동으로 후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트레스트 등등을 거쳐서 그것들을 넘어 사회주의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 론의는 적당한 변경을 가한다면 오늘날의 인민의 군사화에도 적용된다. 오늘날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은 전체 성인뿐만아니라 청년도 군사화하고있다. 래일은 그들은 아마 녀성의 군사화에 착수할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그럴수록 더욱 좋다! 더욱 빨리 전진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무장봉기가 더욱 더 빨리 일어날수 있다고. 만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빠리꼼뮨의 전례를 잊지 않고있다면 어떻게 청년 및 기타의 군사화에

겁을 먹을수 있겠는가? 이것은 《실지생활에서 유리된 리론》이나 공상인것이 아니라 사실인것이다. 만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모든 경제적 및 정치적 사실을 무시하고 제국주의시대와 제국주의전쟁이 불가피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반복시킨다는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주 좋지 못할것이다.

빠리꼼뮨을 목격한 한 자산자는 1871년 5월에 한 영국신문에 쓰기를 《만일 프랑스민족이 녀성들로써만 구성되여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겠는가!》라고 하였다. 꼼뮨시기에는 녀성들과 13세이상의 소년들도 남자와 함께 싸웠다. 자산계급을 전복하기 위한 장래의 전투에 있어서도 이와 달리는 될수 없다. 무산계급의 녀성들은 잘 무장한 자산계급이 빈약하게 무장하였거나 혹은 전혀 무장하지 못한 로동자들을 사살하는것을 소극적으로 방관하지는 않을것이다. 이 녀성들은 1871년에 있어서처럼 무기를 잡을것이며 또 지금 겁을 먹은 민족들가운데서—더 정확히 말하면 각국 정부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파괴당한 현재의 로동운동가운데서—확실히 조만간에 절대적으로 확실히 혁명적무산계급의 《무서운 민족들》의 국제적동맹이 장성할것이다.

오늘날 군사화는 사회의 모든 생활에 침투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세계의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대강국들의 치렬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는 불가피하게 중립국이나 약소국이나 할것없이 모든 나라에서 가일층의 군사화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다. 무산계급녀성들은 이를 반대하여 무엇을 할것인가?? 온갖 전쟁과 군사행동을 저주하는데 그치며 무장철폐를 요구하는데 그칠것인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피압박계급의 녀성들은 결코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것이다. 《너는 오래지 않아 어른이 되여 총을 받게 될것이다. 총을 받아가지고

군사학을 잘 배워라. 이것은 무산계급을 위해서 필요한 과학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전쟁에서 하고있는것처럼 또 사회주의의 배반자들이 네게 권고하고있는것처럼 네 형제들인 다른 나라의 로동자들을 사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해서, 선량한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산계급을 타승하고 그들을 무장해제함으로써 착취와 빈궁과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만일 현재의 전쟁과 관련하여 이러한 선전, 바로 이러한 선전을 하기를 거부한다면 혁명적국제사회민주주의운동에 관해서나 사회주의혁명에 관해서나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에 관해서 전혀 큰소리를 하지 않는것이 차라리 좋을것이다.

3

무장철폐론자들은 《인민의 무장》에 관한 강령조항을 반대하여나서는데 그 리유는 이 인민무장의 요구가 용이하게 기회주의에 대한 양보로 될것이라는 점에 있다. 우리는 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에 대한 무장철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제 우리는 무장철폐의 요구와 기회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여보기로 하자. 이 요구가 용인될수 없는 가장 중요한 리유의 하나는 이 요구와 이 요구에서 나오는 환상이 불가피하게 기회주의와의 우리의 투쟁을 약화시키며 무력하게 만든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

이 투쟁이 국제당의 주요한 당면문제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긴밀히 련결되지 않은 반제국주의투쟁이란 공담이거나 기만이다. 찜메르왈드316와 킨탈367의 주요한 결함의 하나, 즉 제3국제당의 이 맹아를 실패에 돌아가게 할수 있는 기본원인의 하나는 기회주의자와의

투쟁문제를, 기회주의자들과 결렬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 기회주의는 구라파로동운동내에서 일시 승리하였다. 모든 큰 나라에서 기회주의의 두가지 주요한 파벌이 형성되였다. 하나는 쁠레하노브, 샤이데만, 레긴, 알베르 또마, 쌍바, 완데르웰드, 하인드만, 헨더슨 등 일파들 제씨의 로골적인, 파렴치한, 따라서 또 덜 위험한 사회제국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은폐된 카우쯔키주의적사회제국주의인데 독일에 있어서의 카우쯔키-하제파와 《사회민주당근로파》368, 프랑스에 있어서의 롱게, 프레쓰만, 마예라 등, 영국에 있어서의 램지 맥도날드 등 《독립로동당》9의 수령들, 로씨야에 있어서의 마르또브, 치혜이제 등, 이딸리아에 있어서의 뜨레웨스 등의 소위 좌익개량주의자들이 그것이다.

로골적인 기회주의는, 내각에 참가하는것으로부터 전시공업위원회(로씨야에서)369에 참가하는것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동맹의 형태는 각이하다 할지라도 정부와 직접적인 동맹을 맺고 혁명과 시작되고있는 혁명운동 및 혁명적폭발을 공공연히 직접적으로 반대하고있다. 은폐된 기회주의자들인 카우쯔키파는 로동운동에 대해서 훨씬 더 해로우며 위험하다. 왜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로골적인 기회주의자들과의 동맹을 옹호하는것을 그럴듯하게 들리는 가짜《맑스주의적》언사와 평화주의적구호로써 은폐하고있기때문이다. 이 두 형태의 지배적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의회활동, 직업동맹, 동맹파업, 군사문제 등등 무산계급적정치의 모든 활동무대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이 두 형태의 지배적기회주의의 주요한 특징은 현재의 전쟁과 혁명과의 련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와 혁명의 기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며 은폐하며 혹은 경찰의 금지를 고려해서 이런 문제들을 취급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

것은 전쟁전에 앞으로 올 바로 이 전쟁과 무산계급혁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또 바젤선언230에서는 공식적으로 무수히 지적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다. 무장철폐요구의 주요한 결함은 그것이 혁명의 모든 구체적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 있다. 혹은 무장철폐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장없는 혁명을 주장하는것인가?

다음으로, 우리는 개량을 위한 투쟁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만일 대중적격동과 대중적불만의 무수한 폭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이번 전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류가 잘못하면 또다시 제2차제국주의전쟁을 겪게 되리라는 슬픈 가능성을 우리는 무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찬성하는 개량의 강령은 반드시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예봉을 돌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개량을 위한 투쟁을 기회주의자들에게만 맡기고 우리자신은 비참한 현실을 피하여 어떤 《무장철폐》라는 구름나라로 피신한다면 기회주의자들은 기뻐할뿐일것이다. 《무장철폐》는 추악한 현실로부터의 다름아닌 도피이며 이를 반대하는 투쟁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강령에서 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것이다. 《1914～1916년의 제국주의전쟁에서의 조국보위라는 구호와 조국보위의 시인은 자산계급적허위로써 로동운동을 타락시키는 것임에 불과하다.》 구체적문제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대답은 무장철폐의 요구나 《온갖》 조국보위의 거부보다도 리론적으로 더 옳은것이며 무산계급에게 훨씬 더 유익한것이며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더 참기 어려운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첨부할수 있을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지리, 로씨야, 이딸리아, 일본, 미국과 같은 모든 제국주의대강국의 자산계급은 아주 반동적이며 세계지배에 대한 갈망이 골수에

박혀있기때문에 이 나라들의 자산계급이 진행하는 온갖 전쟁은 반동적전쟁으로밖에 될수 없다. 무산계급은 이러한 온갖 전쟁을 반대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만일 전쟁을 제지하기 위한 봉기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전쟁에서 〈자국〉정부가 패배할것을 원하며 혁명적봉기를 위하여 그 패배를 리용하여야 한다.》

민병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자산계급민병을 찬성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무산계급민병만을 찬성한다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이나 또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등과 같은 나라들에서까지도 상비군에 대해서뿐만아니라 자산계급민병에 대해서도 《한푼의 돈도 한명의 사람도》 주어서는 안된다. 가장 자유로운 공화국들(례컨대 스위스)에서도 민병이 점점 더 프로씨아화하고있으며 특히 1907년 및 1911년에 파업자들을 탄압하는 군대동원에 그것이 리용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요구할수 있다. 즉 인민이 군관을 선거할것, 일체군사재판을 폐지할것, 외국인로동자와 자국로동자의 권리를 평등하게 할것(이것은 스위스와 같이 외국인로동자들을 점점 더 많이 또 점점 더 파렴치하게 착취하면서 그들을 무권리한채로 두어두는 제국주의국가들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조항이다.), 나아가서 군사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례컨대 그 나라 주민의 매 백명마다 자유로운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주며 교관을 자유로이 선거하며 교관의 보수를 국비로 지불할것 등등이다. 오직 이렇게 되여야만 무산계급은 노예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자기를 위해서 군사지식을 습득할수 있을것이며 또 이러한 습득은 무산계급의 리익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것이다. 로씨야혁명은 혁명운동의 온갖 성공이, 비록 그것이 부분적인 성공—례컨대 어떤 도시나 어떤 공장지구의 점령, 군대의 어떤 부대의 획득과 같은—이라 할지라도 승리한 무산계급

으로 하여금 불가피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강령을 실현시키게 되리라는것을 증시하였다.

끝으로 강령 하나만 가지고서는 물론 기회주의와 투쟁할수 없으며 강령의 실제적실현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파산된 제2국제당의 가장 크고 치명적인 오유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위선과 비량심적인 혁명적공담을 하기 좋아하는 습관이 배양되였다는데에 있었다(바젤선언에 대한 카우쯔키일파의 현재의 태도를 보라). 무장철폐라는 이러한 사회사상은 어떤 개인의 괴상한 생각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환경에 의하여 발생하며 일정한 사회층에 작용할수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서 그것은 분명히, 상당히 오래동안 전쟁의 피비린내나는 세계적길옆에 비켜서있었으며 또 비켜서있기를 바라는 개별적인 작은 국가들의 특수하고 례외적으로 《평온한》 생활조건에 의하여 발생한것이다. 이것을 실증하기 위하여서는 노르웨이무장철폐론자들의 론거를 생각해보면 충분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나라가 작고 군대가 적다. 우리는 대강국들을 반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또한 대강국들의 이런 또는 저런 집단들과의 제국주의적동맹에 강제로 끌어넣는데도 반대할 힘이 없다.〕…우리는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에서 평온하게 있으려 하며 벽촌정책을 계속 실시하려 하며 무장철폐, 구속력있는 중재법정, 영세(《영세》란 벨지끄의 그것과 같은?)중립 등등을 요구하려 한다.》

한쪽옆에 비켜서있으려는 작은 나라들의 작은 지향, 세계사적대전투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며 옛모양 그대로의 소극적생활에 머물러있기 위하여 자기의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를 리용하려는 소자산계급적희망—이것이 무장철폐의 사상이 약간의 작은 나라들에서 일정한 성공과 일정한 보급을 보장할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적환경이다. 이러한 지향은 물론 반동적인 것이며 전적으로 환상에 근거하고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는 어떻게 하나 작은 나라들을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기때문이다.

례컨대 스위스의 제국주의적환경은 객관적으로 로동운동의 두 로선을 스위스에 지시하고있다. 기회주의자들은 자산계급과 동맹하여 스위스를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의 유람객들로부터 리윤을 획득하기 위한 공화제적-민주주의적독점적련맹으로 만들며 이 《평온한》 독점적지위를 될수 있는대로 더 유리하게, 될수 있는대로 더 평온하게 리용하려고 애쓰고있다.

스위스의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구라파로동자당들의 혁명적분자들의 긴밀한 동맹의 승리를 방조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와 《국제적》지위를 리용하려고 노력하고있다. 스위스는 다행히도 《자기의 독자적》언어를 쓰지 않고 3개의 세계어를, 그것도 스위스와 접경하고있는 교전국들에서 쓰는 언어를 쓰고있다.

만일 스위스당의 2만명의 당원이 《전시특별의연금》으로서 매주 2쌍띰을 납부한다면 우리는 1년에 2만프랑을 얻을것이다. 이것은 일어나기 시작한 로동자들의 분노와 참호속에서의 그들의 형제적친선과 《자국》의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을 반대하여 무기를 혁명적으로 사용하게 되리라는 그들의 기대 등등에 관한 진실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문서를 참모본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세가지 언어로써 정기적으로 출판하여 교전국의 로동자 및 병사들 속에 보급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다.

이러한 모든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것을 《초병》370, 《인민의 권리》306, 《베른의 초병》307과 같은 훌륭한 신문들이 하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불충분하다. 오직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서만 아라우당대회371의 훌륭한 결정을 단순히 훌륭한 결정으로만 그치지 않게 할수 있다.

현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무장철폐의 요구가 스위스사회민주주의자들의 혁명적방향과 일치하는가 하는것이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 객관적으로 《무장철폐》는 작은 나라들의 극히 민족적인, 특수하게 민족적인 강령이고 결코 국제주의적인 혁명적사회민주주의의 국제주의적강령은 아니다.

1916년 9월에 집필

1917년 9월과 10월에 《청년인터나쇼날》 제9호와 제10호에 처음으로 게재

서명: 엔.레닌

로어번역문은 1929년에 처음으로 《레닌전집》, 제2, 3판, 제19권에 수록

독일문신문에 근거하여 로문으로 번역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73~84페지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렬

기회주의(즉 사회배외주의형태의)가 구라파의 로동운동에 대하여 거둔 극도로 혐오스러운 승리와 제국주의사이에는 련관이 있는가?

이것은 현대사회주의의 근본문제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당출판물에서 첫째로는 우리 시대와 이번 전쟁의 제국주의적성격, 둘째로는 사회배외주의와 기회주의와의 불가분적인 력사적련관 그리고 또 이 량자의 동일한 사상적-정치적내용을 충분히 확정하였으므로 이제는 이 근본문제를 분석할수 있으며 또 분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하여 될수록 더 정확하고 완전한 정의를 내리는것이 필요하다.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특수한 력사적단계이다. 이 특수성은 세가지가 있다. 즉 제국주의는 (1) 독점자본주의이며 (2) 기생적 또는 부패하여가는 자본주의이며 (3)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이다.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한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특징이며 그 본질이다. 독점주의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요한 형태로써 표현된다. (1) 카르텔, 신지케이트, 트레스트. 생산의 집적은 이러한 자본가들의 독점적련합들을 산생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2) 대은행의 독점적지위, 즉 3개 내지 5개의 거대한 은행이 미국, 프랑스, 독일의 전 경제생활을 좌우하고있다. (3) 트레스트와 금융과두(금융자본이란 은행자본과 융합된 독점적산업자본이다.)가 원료산지를 점령하였다. (4) 국제적카르텔이 세계를

(경제적으로) 분할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시장을 지배하고있으며 그것을 《사이좋게》 분할하고있는(전쟁이 그것을 재분할하기전까지) 이와 같은 국제적카르텔의 수는 벌써 100을 넘는다. 비독점적자본주의시기의 상품수출과는 다른, 특히 특징적인 현상으로서의 자본수출은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및 령토적 분할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5) 세계의 령토적(식민지)분할이 완료되였다.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는 1898~1914년경까지 처음에는 아메리카와 구라파에서, 다음에는 아세아에서 완전히 형성되였다. 미국-에스빠냐전쟁(1898년), 영국-보어전쟁(1899~1902년), 일로전쟁(1904~1905년) 및 1900년의 구라파의 경제공황—이것이 세계사의 새시대의 주요한 력사적리정표들이다.

제국주의가 기생적인 또는 부패하여가는 자본주의라는것은 첫째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하에서의 온갖 독점의 특징으로 되는 부패의 경향에서 나타난다. 공화주의적-민주주의적인 제국주의적자산계급과 군주주의적-반동적인 제국주의적자산계급과의 차이는 이 량자가 다 산채로 썩고있다(이것은 개별적인 산업부문, 개별적인 나라, 개별적인 시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놀랄만큼 급속한 발전을 조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리유로 소멸되고있다. 둘째로, 자본주의의 부패는 금리생활자, 즉 《리표끊기》로 생활하는 자본가들의 거대한 층이 형성되는데서 나타난다. 4개의 선진제국주의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유가증권으로 된 자본이 각각 1,000억~1,500억프랑에 달하는바 이것은 한 나라의 년소득이 적어도 50억~80억프랑에 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자본의 수출은 자승한 기생성의 표현이다. 넷째로, 《금융자본은 자유를 지향하는것이 아니라 지배를 지향한다》.

전면적인 정치적반동—이것이 제국주의의 특성이다. 수뢰와 매수가 한때 성행하며 빠나마사건[351]과 류사한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다섯째로, 령토병합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있는 피압박민족에 대한 착취, 특히 식민지에 대한 소수의 《대》강국의 착취는 더욱더 《문명》세계를 몇억의 비문명민족의 육체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전화시키고있다. 로마에서는 무산자가 사회에 의지하여 생활하였지만 현대의 사회는 무산자에 의지하여 생활한다. 이 씨스몽디의 심각한 평언을 맑스는 특히 강조하였다.[372] 오늘날 제국주의는 이 사태를 약간 변경시켰다. 제국주의국가의 무산계급의 특권계층은 부분적으로는 몇억의 비문명민족의 부담으로 생활하고있다.

제국주의는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있는 자본주의라는 리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성장하는 독점이 벌써 자본주의의 사멸이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로동의 대규모적사회화(변호자—자산계급경제학자들이 《교착》이라고 부르고있는것)도 역시 같은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의 이러한 정의를 내놓음으로써 우리는 칼 카우쯔키와 완전히 대립되게 된다. 카우쯔키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한단계》로 보는것을 거부하고 제국주의란 금융자본이 《즐겨 쓰는》 한 정책이며 《농업》국을 병합하려는 《공업》국의 지향이라고 정의하고있다.① 카우쯔키의 이 정의는 리론적으로 철두철미 허위이다. 제국주의의 특수성은 바로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지배에 있으며 바로 농업국만이 아니라 모

---

① 《제국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더욱더 많은 농업지역들을(어떤 민족이 그곳에 거주하는가에는 관계없이) 정복하며 병합하려는 온갖 산업자본주의적민족의 지향이다.》(카우쯔키 《신시대》지[24], 1914년 9월 11일)

든 나라를 병합하려는 지향에 있다. 카우쯔키는 《군비축소》이니 《초제국주의》이니 무엇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와 같은 그의 비속한 자산계급개량주의의 길을 닦기 위하여 제국주의의 정치를 그 경제로부터 분리시키며 정치에서의 독점주의를 경제에서의 독점주의로부터 분리시키고있다. 이 리론상의 허위의 의미와 목적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의 가장 심각한 모순을 모호하게 하며 또 그리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변호자, 즉 공공연한 사회배외주의자 및 기회주의자와의 《통일》의 리론을 합리화하는데 있다.

카우쯔키가 이와 같이 맑스주의와 결렬한데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사회민주주의자》289와 《공산주의자》373에서 상세히 론한바 있다. 우리 로씨야의 카우쯔키주의자들, 즉 악쎌로드와 스뻭따또르355를 위수로 하는 《조직위원회파》326—마르또브와 그리고 대체로 뜨로쯔끼까지도 포함한—는 류파로서의 카우쯔키주의의 문제를 침묵으로써 회피하는편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카우쯔키가 전쟁중에 쓴것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기를 두려워하여 카우쯔키를 단순히 찬양하거나(악쎌로드가 독일어로 쓴 자기의 소책자에서 그렇게 하였는데 조직위원회는 이 소책자의 로문판을 출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카우쯔키가, 자기는 반정부파의 립장에 서있다고 억설하면서 자기의 모든 배외주의적언명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려고 교활하게 시도한 그의 몇편의 사신을 인용함으로써(스뻭따또르) 어물어물하여버렸다.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쯔키의 《견해》—그것은 제국주의를 분식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는 힐페르딩의 《금융자본》에 비해서만 퇴보하고있는것이 아니라(아무리 힐페르딩자신이 지금도 열심히 카우쯔키를 옹호하고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통일》을 옹호하고있다 할지라도!) 사회자유주의자 제이.에이.흡슨에

비해서까지 퇴보하고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이 영국 경제학자는 맑스주의자로 불리우려는 욕망이 털끝만치도 없으면서도 그의 1902년의 저작①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훨씬 심오하게 내리고 제국주의의 모순을 심각히 폭로하였다. 이 저술가는(그의 저서에서는 카우쯔키의 평화주의적이며 《조정적》인 진부한 견해들을 거의 전부 발견할수 있다.) 제국주의의 기생성이라는 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홉슨은 오랜 제국들의 세력을 약화시킨것은 다음의 두가지 사정이라고 인정하였다. 즉 (1) 《경제적기생성》과 (2) 예속국인민들로써 군대를 편성한것이다. 《첫째 사정은 경제적기생성의 습관인바 이로 말미암아 지배국가는 자국의 지배계급을 치부케 하며 또 자국의 하층계급을 매수하여 그들이 가만히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점령지, 식민지 및 예속국들을 리용하고있다.》 둘째 사정에 대해서는 홉슨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제국주의의 맹목성〔제국주의자들의 《맹목성》이요 뭐요 하는 이 념불은 《맑스주의자》 카우쯔키에게 있어서보다 사회주의자 홉슨의 입에 더 어울린다.〕의 가장 기묘한 징후의 하나는 영국, 프랑스 기타 제국주의나라들이 이 길에 들어설 때 가지는 그 무관심성이다. 영국이 이 점에서 가장 극단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인도제국을 정복하던 전투의 대부분은 토착민으로 편성된 우리 군대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인도에서는, 그리고 최근에는 애굽에서도 대량의 상비군이 영국인들의 지휘하에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정복하던 그 매차례의 전쟁은, 남아프리카를 정복하던 전쟁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토착민

① 제이.에이.홉슨 《제국주의》(J. A. Hobson. 《Imperialism》), 런던판, 1902년.

이 우리를 위하여 수행하였다.》

중국분할의 전망은 홉슨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경제적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그때에는 서구라파의 대부분 지역은, 오늘날 이 나라들의 일부 지역, 즉 잉글랜드남부지방, 리비에라 및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며 부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딸리아와 스위스의 지방들이 가지고있는 외관과 성격을 띠게 될것이다. 다시말하면 극동으로부터 배당금과 년금을 받고있는 극소수의 부유한 귀족들이 산생되며 이와 함께 인수가 다소 더 많은 종업원과 상인 그리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은 노복과 운수업 및 제품의 최종적가공을 하는 공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이 산생될것이다. 그러나 주요한 산업부문들은 없어질것이며 식료품과 반제품은 공물로서 아세아와 아프리카로부터 대량적으로 흘러들어올것이다.》 《바로 이러한것이 서구라파제국의 보다 광범한 동맹, 구라파대강국들의 련방이 우리앞에 열어주는 가능성이다. 그런데 이 련방은 세계문명을 촉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서구라파의 기생성의 거대한 위험성을 가져다줄것이다. 즉 상층계급들이 아세아와 아프리카로부터 막대한 공물을 받으며 또 이 공물을 가지고 길들인 수많은 사용인과 노복—이미 다량의 농산물 및 공업품의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귀족의 감독하에 개인적봉사 또는 차요한 공업로동에 종사하고있는—을 부양하고있는 그러한 선진공업국을 산생시킬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리론〔전망이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을 연구할 가치가 없는것이라고 부인하려고 하는자는, 지금 벌써 그러한 상태에 빠진 오늘날의 남부잉글랜드의 여러 지방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숙고하여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또한 만일에 중국이 그러한 금융업자, 〈투자가〉(금리생활자), 그들의 정치적 및 공상업적 사용인—세계에 둘도없는 최대의 부원으로부터 구라파에서 소비할 목적

으로 리윤을 흡취하고있는—들의 경제적통제에 굴복한다면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광범하게 확대될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여 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사태가 너무도 복잡하며 세계의 제 세력의 동향을 예측하기가 너무도 곤난한 까닭에 이러한 전망 또는 임의의 다른 어떤 전망 하나만이 가능하다고 미리 긍정할수는 물론 없는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라파의 제국주의를 지배하고있는 세력들은 확실히 이 한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그리고 그것이 저항을 받지 않게 된다면 또 다른쪽으로 쏠리게 되지 않는다면 이 세력들은 이 과정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일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오직** 혁명적무산계급**만이** 할수가 있으며 또 **오직** 사회혁명의 형태로써**만** 할수가 있다는것을 사회자유주의자 흡슨은 깨닫지 못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사회자유주의자인것이다! 그러나 그는 1902년에 벌써 《구라파련방》의 의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카우쓰키주의자 뜨로쯔끼는 참고하라!), 그리고 각국의 **위선적인 카우쯔키주의자**들이 극력 모호하게 하고있는 모든 사실 즉 **기회주의자**(사회배외주의자)들이 **바로** 아세아와 아프리카를 착취하는데 의하여 제국주의적구라파를 만들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여 제국주의자산계급과 협력하고있는 사실, **기회주의자들**이 객관적으로는 제국주의적초과리윤에 **매수**되여 자본주의의 **번견**으로, 로동운동을 **타락시키는자**로 전화한 소자산계급의 일부분과 로동계급의 어떤 층의 일부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훌륭히 고찰하였다.

다름아닌 제국주의적자산계급과 현재 로동운동에서 승리한(장구할는지?) 기회주의와의 이 가장 심각한 경제적관계를 우리는 론문에서뿐만아니라 우리 당의 결의문들에서도 루차 지적하였다. 우리는 이로부터 사회배외주의자와의 결렬은 불

가피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그런데 우리의 카우쯔키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는편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례컨대 마르또브는 이미 그의 연설들에서 궤변을 토하고있었는바 그것은 《조직위원회 재외서기국 통보》374(1916년 4월 10일부 제4호.)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여있다.

—《…만일 지적발달이 가장 〈지식계〉에 접근하는 가장 숙련된 로동자들이 숙명적으로 혁명적사회민주주의를 떠나 기회주의로 넘어간다면 혁명적사회민주주의의 사태는 매우 좋지 못하게 될것이며 절망적이기까지 할것이다.…》

일정한 로동자층이 기회주의와 제국주의적자산계급에게로 떨어져나갔다는 사실을 《숙명적》이라는 엉터리없는 말과 어떤 《속임수》에 의하여 회피한것이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의 궤변가들에게 필요한것은 바로 이 사실을 회피하는것이다! 그들은 현재 카우쯔키주의자 힐페르딩이나 기타 수다한 사람들이 과시하고있는 그 《관변적락관주의》로써 어물어물하고있다. 즉 객관적조건이 무산계급의 통일과 혁명적조류의 승리를 보증한다! 우리는 무산계급에 관해서는 《락관론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모든 카우쯔키주의자들, 즉 힐페르딩, 조직위원회과, 마르또브일파는…기회주의에 관해서 락관론자들인것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무산계급은 자본주의의 산아이며 구라파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적자본주의뿐만아니라 세계자본주의의 산아이다. 물론 세계적범위에서 보면 50년 일찌기든 50년 늦게든—이것은 그러한 범위에서 볼 때에는 작은 문제이다.—《무산계급》은 조만간에 통일《될것》이며 그 범위내에서 혁명적사회민주주의가 《불가피적으로》 승리할것이다. 그런데 카우쯔키주의자제씨들,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재 당신들이 구라파제국주의국가의 기회주의자들앞에서 아첨하고있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이들 기회주의자들은 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과는 인연이 없으며 자산계급의 종복, 앞잡이, 그 영향의 전달자이다. 이 기회주의자들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로동운동은 의연히 자산계급적로동운동으로 남아있게 된다. 기회주의자들과의, 즉 레긴이나 다위드일파, 쁠레하노브일파 또는 치헤껠리나 뽀뜨레쏘브일파 등등과의 《통일》에 대한 당신들의 설교는 객관적으로는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이 로동운동내부에 있는 최량의 앞잡이들을 통하여 로동자들을 노예화하는것을 옹호하는것이다. 세계적범위에서의 혁명적사회민주주의의 승리는 절대로 불가피한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당신들을 반대해서만 도래될것이며 또 도래되고야말것이며 실현될것이며 또 실현되고야말것이다. 그것은 당신들에 대한 승리일것이다.

1914~1916년에 전 세계에서 그렇듯 명백히 갈라진, 현대로동운동내부의 두가지 경향, 아니 두개의 류파는 대략 1858년부터 1892년까지의 수십년에 걸쳐 엥겔스와 맑스에 의하여 영국에서 상세히 고찰되였던것이다.

맑스도 엥겔스도 세계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된 시대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 제국주의시대는 가장 일러서 1898~1900년이후부터 시작되였다. 그렇지만 영국의 특수성은 벌써 19세기중엽부터 적어도 제국주의의 두가지 최대의 특징이 존재하고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즉 (1) 광대한 식민지와 (2) 독점적리윤(세계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차지한 결과로서)이다. 이 두가지 점에서 영국은 당시 자본주의국가들중에서 례외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맑스와 엥겔스는 이 례외를 분석하면서 이 현상이 영국로동운동내에서의 기회주의의 승리(일시적인)와 련관되여있다는것을 극히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맑스에게 보낸 1858년 10월 7일부 서한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영국의 무산계급은 사실상 더욱더 자산계급

화하여갑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중에서 가장 자산계급화한 이 민족은 아마도 사태를 결국에는 자산계급과 아울러 자산계급화한 귀족과 자산계급화한 무산계급을 가지게 되는데까지 끌어가려는것 같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착취하고있는 그런 민족으로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한 일입니다.》271 조르게에게 보낸 1872년 9월 21일부 서한에서 엥겔스는 헤일즈(Hales)가 국제당련합평의회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맑스가 《영국의 로동자지도자들은 매수당하였다.》고 말한것을 리유로 맑스를 비난하는 표결을 하게 하였다는것을 전하였다. 맑스는 조르게에게 보내는 1874년 8월 4일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곳의〔영국의〕 도시로동자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지도자일당의 전원이 의회에 선출되지 않은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악당들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확실한 방도였을것입니다.》375 엥겔스는 맑스에게 보낸 1881년 8월 11일부 서한에서 《자산계급에게 매수된 또는 적어도 자산계급에게서 보수를 받고있는자들이 지도하는 최악의 영국로동조합》352에 대해서 말하고있다. 카우쯔키에게 보낸 1882년 9월 12일부 서한에서 엥겔스는 《영국로동자들이 식민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당신은 나에게 묻고있는데 그들은 정치일반에 대하여 생각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곳에는 로동자당은 없고 오직 보수당과 자유주의적급진당만이 있을뿐인데 로동자들은 그들과 함께 영국의 식민지독점과 세계시장에서의 영국의 독점으로부터 아주 편안히 리득을 얻고있습니다.》353라고 썼다.

1889년 12월 7일 엥겔스는 조르게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이곳에서〔영국에서〕 가장 구역질나는것은 로동자의 살과 피에 깊이 들어박힌 자산계급적〈체면〉(respectability)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든 사람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보고있

는 톰 맨까지도 런던시장각하와 아침을 같이하겠다는것을 즐겨말하는 형편입니다. 이와 프랑스인을 비교하여본다면 혁명이란 어떠한것인가를 깨닫게 될것입니다.»376 1890년 4월 19일부 서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운동〔영국로동계급운동〕은 암암리에 발전하고있으며 더욱더 광범한 층을, 그것도 주로는 이때까지 침체되였던 **최하층**〔고시크체는 엥겔스의것〕의 군중을 망라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자신을 깨닫게 되며** 다름아닌 그들자신이 이러한 움직이고있는 위대한 력량이라는것을 명백히 인식할 날이 인제는 멀지 않습니다.»377 1891년 3월 4일에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붕괴된 부두로동자조합은 실패하고 〈낡은〉 보수적로동조합들—부유한 또 바로 그때문에 비겁한—만이 전투마당에 남아있습니다.…》 1891년 9월 14일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뉴카슬의 로동조합대회에서 8시간로동제를 반대하는 낡은 로동조합주의자들이 패배하였다. 《그리하여 자산계급신문들까지도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의 패배를 인정하고있습니다〔고시크체는 모두 엥겔스의것〕.…»378

엥겔스가 수십년간 반복하여 말한 이러한 사상을 그가 공개적으로 출판물에 발표하였다는것은 1892년에 발행된 《영국로동계급의 형편》 제2판에 대한 그의 서문379이 증명하여준다. 거기에서는 《로동계급내의 귀족》에 대해서 론하고있으며 《특권을 가진 소수 로동자들》과 《광범한 로동자대중》이 대립하고있는 사실에 대해서 론하고있다. 1848～1868년에 있어서의 영국의 특권적지위로부터 《장기적인 리익》을 얻은것은 로동계급중의 《특권을 가진, 보호받는, 적은 소수자》뿐이고 《광범한 대중은 기껏해서 일시적인 개선을 얻었을뿐이다.…》 《영국의 산업독점의 파탄과 함께 영국로동계급은 그 특권적지위를 상실할것이다.…》 《새로운》 조합, 즉 미숙련로동자조합의 조합원들은 《하나의 무비의 장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그들의 심리

가 아직 처녀지로서 처지가 비교적 나은 〈낡은 조합주의자〉의 머리를 혼미케 하는, 전통적인 〈체면있는〉 자산계급적편견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은것이다.…》 영국에서 《소위 로동자대표라고 칭하는》 인간들은 《그자신이 로동계급에 속한다는 그 실질을 자기의 자유주의의 대양속에 집어던지려 하고있기때문에 그들이 로동계급에 속한다는것이 용인되고있는자들이다.…》.

우리가 맑스와 엥겔스의 단적인 언명중에서 일부러 퍽 상세하게 발취한것은 독자들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연구할수 있도록 하려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주의깊이 숙고할 가치가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시대의 객관적조건이 지시하는 로동운동의 전술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때문이다.

카우쯔키는 이 점에서도 벌써 《문제를 혼란시키며》 기회주의자들과의 달콤한 융화로써 맑스주의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였다. 독일측에서 하는 전쟁을 영국의 독점을 파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고있는 로골적이고 천진한 사회제국주의자들(렌쉬와 같은)과 론쟁하면서 카우쯔키는 이 명백한 허위를 역시 그만큼 명백한 다른 허위로써 《정정》하고있다. 그는 철면피한 허위를 달콤한 허위로 바꾸고있다! 영국의 산업독점은 오래전에 타파되였으며 오래전에 파괴되였으므로 그것은 더 파괴할것도 없으며 더 파괴할수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이 론거의 허위성은 어떠한 점에 있는가?

첫째로는, 영국의 식민지독점을 회피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엥겔스는 우리가 본바와 같이 지금부터 34년전인 1882년에 벌써 아주 명백하게 이 독점을 지적하였다! 영국의 산업독점은 파괴되였다 할지라도 식민지독점은 의연히 남아있을뿐만아니라 더욱더 심하여졌다. 왜냐 하면 전 세계가 이미 분할되였기때문이다! 카우쯔키는 그의 달콤한 거짓말로써 《전쟁에

의하여 쟁탈해야만 할 리유는 없다.»고 하는 자산계급평화주의적, 기회주의적-속물적사상을 끌어들이고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 자본가들에게는 전쟁으로써 쟁탈할 리유가 있을뿐만아니라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 하면 식민지를 폭력적으로 재분할하지 않고서는 신흥제국주의나라들은 보다 낡은(그리고 보다 약한) 제국주의강국들이 향유하고있는 그런 특권을 얻을수 없기때문이다.

둘째로는, 어째서 영국의 독점이 영국에서의 기회주의의 승리(일시적인)의 원인으로 되는가? 그것은 독점이 초과리윤, 즉 전 세계에서 통례로 되여있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적리윤이상의 여분의 리윤을 주기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자국의 로동자를 매수하며 일종의 동맹(웨브부부가 서술한 영국의 로동조합과 그 고용주들과의 유명한 《동맹》을 상기하라.), 소여의 나라의 로동자와 자본가가 이여의 나라들에 공동으로 대항하여 맺는 동맹을 결성하기 위하여 이 초과리윤의 일부분을(지어 적지 않은 일부분을!) 내놓을수 있다. 영국의 산업독점은 이미 19세기말에 파괴되였다. 이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 파괴는 어떻게 진행되였는가? 온갖 독점이 다 소멸되는 식으로 진행되였는가?

만일에 그것이 그렇게 되였다면 카우쯔키의 융화주의적(기회주의와의)《리론》은 어느 정도 근거있는것으로 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것이다. 제국주의란 곧 독점자본주의이다. 매개 카르텔, 트레스트, 신지케이트, 매개 대은행은 다 독점체이다. 초과리윤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 특권을 가진, 금융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기타의 모든 나라를 착취하는 현상은 남아있으며 강화되였다. 소수의 부유한 나라들(만일에 독립적

인 그리고 참으로 거대한 《현대적》재부를 문제로 한다면 그런 나라들의 수는 4개에 불과하다. 즉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이다.)은 독점을 비상한 규모로 발전시켰으며 수억이 아니면 수십억에 달하는 超과리윤을 획득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수억만 인민의 《등에 업혀가며》 특히 풍부하고 특히 살찌고 특히 안정한 획득물을 나누어먹기 위하여 서로 투쟁하고있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및 정치적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카우쯔키는 이 제국주의의 가장 심각한 모순을 폭로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고있다.

제국주의《대》강국의 자산계급은 1년에 1억~2억프랑을 내여 《자국》로동자의 상층을 매수할 경제적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왜냐 하면 그들의 超과리윤은 필시 약 10억프랑에 달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이 얼마 안되는 행하가 로동자대신, 《로동자의원》(엥겔스가 이 개념을 훌륭히 분석한것을 상기하라.), 전시공업위원회369에 참가한 로동자대표, 로동자관리, 협애한 동업조합적로동조합에 조직된 로동자, 사무원 등등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문제는 벌써 차요한 문제이다.

1848년부터 1868년까지에, 그리고 좀 이후의 한동안에 있어서도 독점권을 향유한것은 오직 영국뿐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영국에서는 수십년간 기회주의가 득세할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중에는 그렇게 풍부한 식민지를 가진 나라도, 산업독점권을 향유한 나라도 없었다.

19세기의 최후의 30몇년은 새로운 제국주의시대에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한 나라가 아니라 몇개의, 극소수의 대강국의 금융자본이 독점권을 향유하고있었다(일본과 로씨야에 있어서는 군사력의 독점권, 광대한 령토의 독점권, 또는 중국 등 이민족을 략탈하는 특별한 편의의 독점권이 현대의 최신금융자본의 독점권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며 대체하고

있다). 이런 부동한 정형때문에 영국의 독점권이 수십년간 쟁탈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그냥 존속할수 있었던것이다. 현대금융자본의 독점권은 맹렬한 쟁탈의 대상으로 되여있다. 제국주의전쟁시대가 시작되였다. 당시에는 한 나라의 로동계급을 수십년간 매수하며 타락시킬수 있었다. 현재는 그런 일이 매우 어렵게 되였으며 지어는 불가능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대신 《로동귀족》의 보다 적은(1848～1868년의 영국에 있어서보다) 층을 매수하는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며 또 매개 제국주의《대》강국들은 그렇게 매수하고있다. 당시에는—엥겔스의 비상히 심원한 표현을 빈다면—《자산계급적로동자당》은 오직 한 나라에서만 형성될수 있었다(왜냐 하면 오직 한 나라만이 독점권을 향유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신 장기간 존재할수 있었다. 현재는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은 모든 제국주의나라들에서 불가피한것이며 전형적인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획득물의 분배를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고있기때문에 그러한 당이 여러 나라에서 장기간 득세할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트레스트, 금융과두정치, 물가등귀 등등이 극소수의 상층분자들을 매수할수 있게 하면서도 무산계급과 반무산계급의 대중을 더욱 심하게 타격하며 압박하며 파멸시키며 유린하기때문이다.

일방으로는 자산계급과 기회주의자들이 극소수의 가장 부유하고 특권적인 민족을 나머지 인류의 육체에 기생하는《영원한》 기생충으로 만들며 훌륭한 살인무기로 장비된 최신의 군국주의의 힘을 빌어 흑인, 인도인 등등을 억누르고 착취하면서 《편안히 살》려고 애쓰고있으며 타방으로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압박받으며 제국주의전쟁의 모든 고통을 겪고있는 대중들이 질곡을 벗어버리며 자산계급을 타도하려고 애쓰고있다. 이제는 로동운동의 력사는 불가피하게 이 두 추세사이의

투쟁을 통하여 점차 전개될것이다. 왜냐 하면 첫째 추세는 우연한것이 아니라 경제적《근원》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자산계급은 이미 모든 나라에서 사회배외주의자들의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을 산생육성하였고 확보하였다. 례컨대 이딸리아의 비쏠라띠일파의 당과 같이 형태를 갖춘 완전히 사회제국주의적인 당과 뽀뜨레쏘브, 그워즈제브, 불낀, 치헤이제, 쓰꼬벨레브일파의 당과 같이 절반형태를 갖춘 소위 당과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중요한것은 로동귀족층에서 분리되여 자산계급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경제적으로 성숙되고 완료되였다는 사실인데 이 경제적사실이 제 계급간의 관계에서의 변동이 적당한 정치적형태를 취하는데는 별로 《곤난》이 없을것이다.

이러한 경제적기초우에서 현대자본주의의 정치적기관들, 이를테면 신문, 잡지, 의회, 각종 단체, 대회 등등은 공손하고 순량하고 개량주의적이며 애국주의적인 사무원과 로동자들을 위한 경제적특권과 행하에 상응하는 정치적특권과 행하를 만들어놓았다. 내각 또는 전시공업위원회, 의회 및 각종 위원회, 《견실한》 합법적신문의 편집부 또는 그보다 못하지 않게 견실하며 《자산계급이 하라는대로만 하는》 로동조합리사회내의 수입 많고 편안한 지위—이것이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이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의 대표자와 지지자들을 유혹하며 시상하는 미끼이다.

정치적민주주의의 기구도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현시대에 있어서는 선거 없이는 해나갈수가 없으며 대중 없이는 해나갈수가 없다. 그런데 인쇄술이 몹시 발달하고 의회제도가 성행하는 시대에는 아첨, 거짓말, 사기, 인기를 끄는 류행식언사로써 하는 감언리설, 사방으로 로동자들에게—그들이 자산계급의 타도를 위한 혁명적투쟁을 포기하

기만 한다면—어떤 개혁이나 복리도 주겠다고 선뜻 약속하는 등의 다방면에 걸치고 일관적으로 실시되며 면밀히 짜고든 그 수법을 쓰지 않고서는 대중을 유혹할수 없는것이다. 나는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이 있는 전형적국가에서 이러한 체계적수법을 가장 월등하고 가장 교활하게 취하고있는 대표자의 한사람인 영국대신 로이드-죠지의 이름을 따서 이러한 체계적수법을 로이드-죠지주의라고 부르고싶다. 일류의 자산계급적실무가이며 교활한 정객이며 로동자청중앞에서 어떤 연설이든지 지어는 초혁명적인 연설까지도 할수 있는 인기있는 웅변가이며 온순한 로동자들에게 사회개량의 형태로(보험 및 기타) 상당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줄 능력이 있는 이 로이드-죠지는 자산계급에게 훌륭히 봉사하고있으며① 게다가 다름아닌 로동자들사이에서 자산계급에게 봉사하고있으며 대중을 정신적으로 복종시키는데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곤난한 곳이 다름아닌 무산계급속에서 자산계급의 영향을 전파하고있다.

그러면 로이드-죠지와 샤이데만, 레긴, 헨더슨, 하인드만, 쁠레하노브, 러노델 일파와의 사이의 차이는 큰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반박할것이다. 즉 후자들중에서 일부 사람은 맑스의 혁명적사회주의로 돌아올것이라고. 그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를 정치적척도, 즉 대중적척도에서 본다면 그것은 극히 적은 정도의 차이이다. 오늘날의 사회배외주의적지도자들중에서 몇몇사람은 무산계급측으로 돌아올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배외주의적 또는(마찬가지이지만) 기회주의적조류는 소멸될수도 없고 혁명적무산계급

① 최근에 나는 어느 영문잡지에서 로이드-죠지의 정적인 한 토리당원[215]의 론문《토리당원의 견지에서 본 로이드-죠지》를 보았다. 전쟁은 이 정적으로 하여금 이 로이드-죠지가 자산계급의 얼마나 훌륭한 사환군인가를 알아볼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토리당원들은 그와 화해하였다!

측으로 《돌아올》수도 없다. 맑스주의가 로동자들의 환영을 받는 곳에서는 이 정치적조류, 이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은 맑스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며 단언도 할것이다. 상사회사가 어떠한 상표, 어떠한 간판, 어떠한 광고든지 사용하는것을 금지할수 없는것과 같이 그들이 이렇게 하는것을 금지할수는 없는것이다. 피압박계급사이에서 명망있는 혁명적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적들이 피압박계급을 기만하기 위하여 그 지도자의 이름을 자기의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사실은 력사상에 항상 있는 일이다.

정치적현상으로서의 《자산계급적로동자당》들이 이미 모든 자본주의적선진국가에 조직되여있다는것, 그리고 이러한 당(또는 집단, 조류 등등도 마찬가지이다.)과 단호하고 무자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도저히 말할수 없으며 맑스주의를 실시하며, 사회주의적로동운동을 전개한다고도 말할수 없다는것은 사실이다. 로씨야의 치헤이제파의원단183, 《우리의 사업》잡지340, 《로동의 목소리》380나 국외의 《조직위원회파》는 그러한 당들중의 하나의 변종에 불과한것이다. 이러한 당들이 사회혁명이전에 소멸될수 있다고 생각할 근거는 조금도 없다. 반대로 이 혁명이 더 가까와지면 가까와질수록, 이 혁명의 불길이 더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혁명의 과정에서 전변과 비약이 더 급격하면 할수록 기회주의적-소시민적조류를 반대하는 대중적-혁명적조류의 투쟁은 로동운동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카우쯔키주의는 어떠한 독립적조류도 아니다. 왜냐 하면 그는 대중속에도, 자산계급측으로 넘어간 특권층속에도 뿌리를 박고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카우쯔키주의의 위험성은 그것이 과거의 사상을 리용하여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을 화해시키며 이 량자의 통일을 주장하며 그리함으로써 《자산계급

적로동자당》의 위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대중은 벌써 로골적사회배외주의자들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로동자집회에서 로이드-죠지가 조소를 받았으며 하인드만은 탈당하였으며 러노델과 샤이데만, 뽀뜨레쏘브와 그워즈제브 같은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있다. 사회배외주의자를 은밀히 옹호하는 카우쯔키주의자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위험한것이다.

카우쯔키주의의 가장 류포된 궤변의 하나는 《대중》을 구실로 하는것이다. 우리는 대중과 대중적조직으로부터 리탈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면 엥겔스에 의한 이 문제의 설정을 잘 생각하여보라. 19세기에 영국의 로동조합의 《대중적조직》은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을 옹호하고있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리유로 그 당과 화해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1) 로동조합의 조직들이 직접으로는 **무산계급의 소수자**만을 포괄하고있다는것을 잊지 않고있었다. 당시의 영국에서도, 현재의 독일에서도 조직에 든것은 무산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자본주의하에서 무산자의 대다수를 조직에 가입시킬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할수는 없는것이다. (2) —그리고 이것이 주요한 점인데—문제는 조직의 성원수보다도 오히려 그 조직이 취하고있는 정책의 객관적이며 실제적인 의의에 있다. 즉 그 정책이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것인가, 대중에게, 다시말하면 자본주의로부터의 대중의 해방에 이바지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수자의 리익을, 그 소수자와 자본주의와의 화해를 대표하는것인가 하는데 있다. 바로 이 후자의 경우는 19세기의 영국에 해당한것이였으며 또 오늘날 독일 등등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엥겔스는 낡은 로동조합의 《자산계급적로동자당》이나 특권적소수자와 《**최하층의 대중**》 즉 진정한 다수자를 갈라놓고

있으며 《자산계급적체면》에 감염되지 않은 그 진정한 다수자에게 호소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맑스주의적전술의 본질이 있다!

무산계급속에서 대체 어느 부분이 사회배외주의자와 기회주의자의 뒤를 따라가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따라갈것인가 하는것을 우리는—그리고 또한 누구도—알아낼수 없다. 이것은 오직 투쟁만이 보여줄것이며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혁명만이 종국적으로 결정하여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전쟁에서의 《조국보위론자》들은 단지 소수자를 대표한다는것을 확실히 알고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자로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응당 더한층으로, 더 깊이 진정한 대중한테로 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기회주의와의 투쟁의 전체 의의가 있으며 이 투쟁의 전체 내용이 있다. 기회주의자와 사회배외주의자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대중의 리익을 배반하며 팔아먹는다는것, 그들이 소수 로동자의 일시적특권을 수호하고있다는것, 그들이 자산계급의 사상과 영향을 전파하고있다는것, 그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자산계급의 동맹자이며 앞잡이라는것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대중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치적리익을 식별하며 제국주의전쟁과 제국주의적휴전의 모든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동란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가르쳐주고있다.

기회주의와의 분렬이 불가피하며 필요하다는것을 대중에게 해설하여주며 기회주의와의 무자비한 투쟁에 의하여 대중을 혁명하도록 교양하며 전쟁의 경험에 의거하여 민족자유주의적 로동자정책의 추태를 은폐할것이 아니라 폭로하는것—이것이 세계로동운동에 있어서 유일한 맑스주의적로선이다.

다음론문에서는 우리는 카우쯔키주의와 대립되는 이 로선

의 주요한 특징들을 총괄하여보려고 한다.

1916년 10월에 집필

1916년 12월에 《사회민주주의 자론문집》 제2호에 수록

서명: 엔.레닌

《론문집》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103~119페지

자산계급적평화주의와 사회주의적평화주의[381]

제1편(또는 제1장) 세계정치의 전환

이와 같은 전환이 도래하였거나 혹은 도래하고있다는 징조가 있다. 즉 그것은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 제국주의적평화에로의 전환이다.

두 제국주의련맹이 의심할바없이 극도로 피폐한것, 이이상 더 전쟁을 계속하기가 곤난한것, 일반적으로 자본가들이, 특히 금융자본가들이 수치스러운 《전시》리윤의 형태로 인민들을 말끔히 강탈하였으므로 얼마간이라도 더 강탈하는것이 곤난하다는것, 전쟁에서 막대한 돈을 벌었으나 원료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이상 더 이 《유리한》 영업을 계속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된 미국, 화란, 스위스 등 중립국들의 금융자본가들이 포식상태에 있다는것, 독일이 자기의 주요한 제국주의적경쟁자인 영국으로부터 이런 또는 저런 동맹국을 떼여내려고 백방으로 시도하고있다는것, 독일정부와 그뒤를 이어 일련의 중립국정부들이 평화주의적언론을 발표한것—이상과 같은것이 그 징조들중의 가장 주요한것들이다.

전쟁을 급속히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매우 곤난하다. 우리의 의견에 의하면 두개의 가능성은 상당히 명백히 나타나

고있다.

첫째 가능성은 비록 서면상 정식조약이라는 통례의 형태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일과 로씨야간에 단독강화가 체결되는 경우이다. 둘째 가능성은 이와 같은 강화가 체결되지 않고 영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직 1년이고 2년이고 혹은 그이상 더 오래 지탱할수 있는 힘을 실지로 가지고있는 경우이다. 첫째 경우에는 전쟁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중지되나 전쟁행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할수는 없다. 둘째 경우에는 전쟁이 무기한으로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경우에 대해서 론해보자.

독일과 로씨야간에 단독강화에 관한 담판이 최근에 진행되였다는것, 니꼴라이2세자신 혹은 가장 유력한 궁정도당들이 이러한 강화에 찬성하고있다는것, 세계정치에는 독일을 반대하는 로씨야와 영국의 제국주의적동맹으로부터 영국을 반대하는 로씨야와 독일의 동일한 제국주의적인 동맹에로의 전환의 징조가 나타났다는것—이 모든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뜨레뽀브에 의한 슈뛰르메르의 교체,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로씨야의 《권리》가 각 동맹국들에 의하여 공인되였다는 짜리정부의 공공연한 성명, 독일에 의한 별개의 뽈스까국가의 창건—이러한 징조들은 단독강화에 관한 담판이 실패로 끝났다는것을 보여주는듯하다. 혹은 짜리정부가 영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니꼴라이폭군의 《권리》의 명확한 정식승인과 이 권리의 이런 또는 저런 《중대한》 담보를 영국으로부터 얻기 위하여서만 이 담판을 진행하지나 않았는가?

현재의 제국주의전쟁의 주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세계의 주요한 제국주의적경쟁자들, 세계의 강도, 즉 로씨야, 독일 및 영국간에 장물을 분배하는것이기때문에 이와 같은 추측은

결코 예상할수 없는것은 아니다.

타방으로는, 뽀스까를 탈환하며 콘스탄티노플을 탈취하며 독일의 견고한 방어선(독일은 로므니아에서의 최근의 승리에 의하여 자기의 방어선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단축하고 강화하였다.)을 격파하는것이 사실상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을 더욱더 느끼게 된 짜리정부는 독일과의 단독강화의 체결, 즉 독일을 반대하는 영국과의 제국주의적동맹으로부터 영국을 반대하는 독일과의 제국주의적동맹에로의 이행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고있다. 어째서 그렇지 않겠는가? 로씨야는 중앙아세아에서의 장물의 분배를 둘러싼 두 나라의 제국주의적경쟁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하마트면 전쟁을 할번하였던것이다! 영국과 독일간에는 1898년에 로씨야를 반대하는 동맹에 관한 담판이 진행되였는데 그때에 영국과 독일은 뽀르뚜갈이 자기의 재정상의 의무를 리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뽀르뚜갈의 식민지를 그들간에 분할한다는 밀약을 맺었었다!

영국을 반대하여 로씨야와 동맹하려는 독일제국주의의 지도층의 강력한 지향은 이미 수개월전에 명확하게 되였다. 동맹의 기초는, 분명히 갈리찌야(우크라이나인의 선동과 우크라이나인의 자유의 중심을 질식시키는것은 짜리정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아르메니야의, 아마 그리고 또 로므니아의 분할일것이다! 로므니아가 오지리, 벌가리아 및 로씨야에 의하여 분할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독일의 어떤 신문에 루설되였다! 독일은 영국을 반대하여 로씨야와의 동맹을, 또 혹시 일본과의 동맹도 실현하게만 된다면 짜리정부에 어떤 《적은 양보》를 더하는데도 동의할수 있을것이다.

단독강화는 니꼴라이2세와 윌헬름2세간에 비밀리에 체결되였을수도 있다. 외교사상에는 2~3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심지어 대신들도 모르는 비밀조약들이 체결된 실례들이 있다.

외교사상에는 주요한 경쟁자들간에 주요한것이 사전에 비밀리에 합의된후에 《대국들》이 《전 구라파》 회의에 참석한 실례들(례컨대 1878년의 베를린회의전에 토이기략탈과 관련하여 로씨야와 영국이 맺은 비밀협정)이 있다. 로씨야의 현상태하에서는 정식단독강화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밀류꼬브와 구치꼬브 혹은 밀류꼬브와 께렌스끼가 정권을 잡게 되리라는것을 고려하여 짜리정부가 두 정부간의 정식단독강화를 거부하고 그와 동시에 《숭고한 두 체약국》이 장래의 강화회의에서 공동으로 어떤 방침을 취하는것과 관련하여 독일과 비밀리의, 비공식의 그러나 정식조약에 못지않게 《항구한》 조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놀랄것이 없다!

이 추측이 정확한가 어떤가를 단정할수는 없다. 그러나 여하튼 이 추측은 현 정부들사이에, 일반적으로 자산계급정부들사이에 령토를 할양하지 않을것 등등을 기초로 하는 강화조약이 체결되리라고 하는 수선스러운 선량한 공담보다는 **진실을, 즉 실정에 대한** 평가를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있다. 이 공담은 천진란만한 생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상을 덮어감추는 기만과 거짓말이다. 현시기의 진상, 이번 전쟁의 진상, 강화조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는 이 기회의 진상은 **제국주의적장물의 분배에** 있다. 문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진상을 리해하는것, 이 진상을 밝히는것, 《실정을 밝히는것》—이런것이 자산계급정책과 구별되는 사회주의정책의 근본적인 과업인바 자산계급정책에서 주되는것은 이 진상을 은폐하고 말살하는것이다.

두 제국주의련맹은 일정한 량의 장물을 략취하였는데 이에 있어서 두개의 주요하고 가장 강한 강도들인 독일과 영국이 제일 많이 략취하였다. 영국은 자기의 땅과 자기의 식민지는 한치도 상실하지 않고 독일식민지와 토이기의 일부(메쏘포

타미아)를 《획득》하였다. 독일은 자기 식민지를 거의 전부 상실하였지만 벨지끄, 쎄르비아, 로므니아, 프랑스의 일부, 로씨야의 일부 및 기타를 점령하여 구라파에서 훨씬 더 가치있는 지역을 획득하였다. 이 장물을 분배하는것이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 각 강도단의 《두목》, 즉 영국과 독일도 자기 동맹국들에 다소간 보수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이 동맹국들은 벌가리아를 제외하고는 또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이딸리아를 제외하고는 특히 많은것을 상실하였기때문이다. 가장 약한 동맹국들이 가장 많이 상실하였다. 즉 영국측 련맹에서는 벨지끄, 쎄르비아, 몬테네그로, 로므니아가 유린되였고 독일측 련맹에서는 토이기가 아르메니야와 메쏘포타미아의 일부를 상실하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은 장물을 획득하였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승리하였고 전쟁전에 누가 예상한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독일로서는 될수 있는대로 속히 강화조약을 체결하는것이 유리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왜냐 하면 독일의 경쟁자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할수 있는 기회에(그다지 있음직하지는 않지만) 새로 모집한 예비군을 더 많이 동원하는 등을 할수 있을것이기때문이다.

객관적정세는 바로 이러하다. 제국주의적장물의 분배를 위하여 투쟁하는 현국면은 바로 이러하다. 이 국면이 먼저 독일측 련맹의 자산계급과 정부들사이에, 다음으로 중립국들의 자산계급과 정부들사이에 평화주의적인 지향, 성명 및 언론들을 산생시켰다는것은 매우 당연하다. 자산계급과 그 정부들이 공담으로써, 즉 민주주의적평화라든가, 약소민족들의 자유라든가, 군비축소라든가 하는 등등의 철두철미 기만적인 공담으로써 제국주의적평화의 추악한 면모, 즉 장물의 분배를 은폐

하면서 인민들을 우롱하려고 전력을 다하지 않을수 없게 된것도 또한 아주 당연하다.

그러나 인민들을 우롱하려고 애쓰는것이 자산계급에게 있어서 당연한것이라면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무를 어떻게 리행하는가?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편(또는 다음장)에서 말하기로 하자.

제2편(또는 제2장)
카우쯔키와 뚜라띠의 평화주의

카우쯔키는 제2국제당의 가장 권위있는 리론가이며 독일에서의 소위 《맑스주의적중앙파》의 가장 저명한 지도자이며 국회내에서 특별의원단인 《사회민주당근로파》368(하제, 레데부르 및 기타)를 형성한 반정부파의 대표이다. 독일사회민주당의 신문들에는 현재 강화조건에 관한 카우쯔키의 론문들이 게재되여있는바 이 론문들은 강화담판을 제의한 독일정부의 유명한 각서에 관한 《사회민주당근로파》의 공식성명을 다르게 바꾸어 말한것이다. 이 성명은 정부가 일정한 강화조건을 제안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문구를 포함하고있다.

《…이 각서[독일정부의]가 평화를 초래하기 위하여서는 타국령토를 병합하려는 사상, 어떠한 나라의 인민이든 타국정권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사상이 모든 나라에서 명백하게 배격되여야 한다.…》

이 명제의 표현을 바꾸고 구체화하면서 카우쯔키는 자기 론문들에서 콘스탄티노플은 로씨야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것과 토이기는 어떠한 나라의 속국으로도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상세히 《증명》하고있다.

카우쯔키와 그의 동지들의 이 정치적구호와 론거들을 더 자세히 고찰하여보자.

문제가 로씨야에 관련될 때에는, 즉 독일의 제국주의적경쟁자에 관련될 때에는 카우쯔키는 추상적이 아니며 《일반적》이 아니며 완전히 구체적이며 정확하며 명확한 요구를, 즉 꼰스딴티노플이 로씨야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내놓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로씨야의…**진정한** 제국주의적음모를 **폭로하고있다.** 문제가 독일과 관련될 때에는, 즉 카우쯔키를 자기 당원으로 간주하고있는(그리고 자기의 주요한, 지도적인 리론적기관지 《신시대》24의 편집자로 카우쯔키를 임명한) 당의 다수파가 제국주의전쟁을 진행하는 자산계급과 정부를 방조하고있는 바로 이 나라에 관련될 때에는 카우쯔키는 **자국정부의 구체적인** 제국주의적음모를 폭로하지 **않고** 토이기는 어떠한 나라의 속국으로도 되여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희망 또는 명제에 그치고있다!!

그 실제적내용으로 보아서 카우쯔키의 정책은 프랑스와 영국의 호전적인 사회배외주의자들(즉 말로는 사회주의자들, 행동으로는 배외주의자들)의 정책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후자들도 독일의 구체적인 제국주의적행동은 공공연히 폭로하면서도 영국과 로씨야에 강점당하고있는 나라들이나 민족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희망 또는 명제로써 얼버무리고있지 않는가? 또한 벨지끄와 쎄르비아가 강점당한데 대해서는 떠들고있지만 갈리찌야, 아르메니야, 아프리카식민지들이 강점당한데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있지 않는가?

실지에 있어서 카우쯔키의 정책과 쌍바-헨더슨의 정책은 경쟁자와 적국의 음모에 주되는 주의력을 돌리고 《**자국의**》 자산계급의 **그만큼** 제국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애매한, 일반적인 문구와 선량한 희망의 면사포를 씌움으로써 마찬가지로

자국의 제국주의정부를 방조하고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선량한 일반적문구들의 인자성의 진정한 정치적의의를 폭로하지 않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묵상하는데 그친다면 우리는 더는 맑스주의자로 될수 없을것이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로 될수 없을것이다. 모든 제국주의렬강의 외교가 선량한 《일반적》문구와 《민주주의적》성명을 표방하면서 그것으로써 약소민족들에 대한 략탈, 폭행, 압박을 은폐하고있는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있지 않는가?

《토이기는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도 되여서는 안된다.…》 만일 내가 이것만을 말한다면 외견상으로는 내가 토이기의 완전한 자유를 지지하는듯이 보일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나는 독일외교관들이 보통 사용하고있는 문구를 반복하고 있을따름이다. 이 외교관들은 독일이 현재 토이기를 재정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기의 속국으로 전변시켰다는 사실을 이 문구로써 은폐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위선을 부리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독일의 사회주의자라면 내가 말한 《일반적》인 문구들은 독일외교에 유리할따름이다. 왜냐 하면 이 문구들의 진정한 의의는 독일제국주의를 미화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병합하려고 하는 사상…어떠한 나라의 인민이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사상이 모든 나라에서 배격되여야 한다.…》는 말은 얼마나 선량한가! 제국주의자들은 약소민족을 병합하려 하며 재정적으로 압박하려 하는 《사상》을 몇천번이나 《배격》하였다. 그러나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어떠한 대은행도 약소민족들을 《예속상태에》 붙들어두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제 사실을 이것과 대비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약소민족들의 철도 및 기타 기업에 몇십억의 돈이 투자되여있는데 부유한 나라의 현재의 자산계급정부가 타민족에 대한 병합

과 경제적예속을 실지로 배격할수 있겠는가?

병합 등등과 진정으로 투쟁하는것은 누구인가? 그 객관적 의의로 보면 왕관을 쓴 자본주의적강도들의 머리에 끼얹는 기독교의 성수와 꼭같은 선량한 문구들을 마구 지껄여대는자들이겠는가, 아니면 제국주의적자산계급과 그들의 정부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병합과 재정적압박을 저지할수가 없다는것을 로동자들에게 해설하는 사람들이겠는가?

여기에 또 카우쯔키가 설교하고있는 평화주의의 이딸리아적례증이 있다.

1916년 12월 25일부의 이딸리아사회당 중앙기관지 《전진!》382(《Avanti!》)에 유명한 개량주의자 필리뽀 뚜라띠는 《잡소리》라는 표제의 론설을 게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1916년 11월 22일에 이딸리아사회당 국회의원단은 강화조약체결에 관한 제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에서 의원단은 《영국과 독일의 대표들이 선언한 제 원칙들은 일치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체결될수 있는 강화조약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미국과 기타 중립국들의 조정하에 강화담판을 시작할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사회당의 제안의 내용을 뚜라띠자신이 이렇게 서술하고있다.

1916년 12월 6일에 의회는 사회당의 제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함으로써 그것을 《매장해버렸다》. 12월 12일 독일수상은 자기의 명의로써 이딸리아사회주의자들이 희망하는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2월 22일에는 윌슨이 자기 각서를 발표하였는데 에프.뚜라띠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사회당의 제안의 사상과 동기를 말을 바꾸어 표현하며 반복하고있다》. 12월 23일에는 기타 중립국가들이 무대에 출연하여 윌슨의 각서를 말을 바꾸어 표현하고있다.

뚜라띠는 이렇게 부르짖고있다. 우리들이 독일에 매수되

였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윌슨도 중립국가들도 독일에 매수되지 않았는가고.

12월 17일에 뚜라띠는 의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의 한구절은 비상한—또 응당한—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전진!》의 보도에 의하면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독일이 우리들에게 제의하고있는것과 같은 그런 론의가 벨지끄, 프랑스로부터의 철퇴, 로므니아, 쎄르비아 그리고 당신들이 희망한다면 몬떼네그로의 부흥과 같은 문제들을 대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가정하자. 의심할바없이 이딸리아에 속하며 또 전략상 보장에 부합되는 곳에서 이딸리아국경을 수정할것을 나는 당신들에게 첨부하여 말씀드린다.…》 이 구절에서 뚜라띠의 연설은 《훌륭하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고있는것은 역시 이 모든것이였구나! 뚜라띠 만세! 뚜라띠 만세!》 하고 울려나오는 자산계급적이고 배외주의적인 의회의 고함소리에 의하여 중단되였다.…

뚜라띠는 분명히 자산계급의 이 환호속에서 어떤 좋지 못한것을 느끼고 《정정》 또는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 장소에 맞지 않는 롱담은 그만두라.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여온 민족적통일의 타당성과 그 권리를 용인하는것과 이 목적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전쟁을 변호하는것과는 별개문제이다.》

뚜라띠의 이 《해명》도, 그를 변호하는 《전진!》의 론설도, 12월 21일부의 뚜라띠의 편지도, 쮜리히에서의 《인민의 권리》306지상의 《bb》라는 사람의 론설도 사실을 조금도 《정정》하지 못하며 **뚜라띠의 죄증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제거하지 못한다! … 더 정확히 말한다면 죄증이 드러난것은 뚜라띠가 아니라 카우쯔키와 또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프랑스의 《카우

쯔키주의자들》이 대표하고있는 사회주의적평화주의전체이다. 이딸리아의 자산계급신문이 뚜라띠의 연설의 이 구절을 포착하고 이에 대하여 환호한것은 당연한것이였다.

상기 《bb》는, 뚜라띠는 다만 《민족자결권》에 대해서만 말한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를 변호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얼마나 졸렬한 변호인가! 주지하는바와 같이 맑스주의자들의 강령에서 피압박민족들의 보호에 관계되는—또 국제민주주의파의 강령에서도 언제나 그러하였던—《민족자결권》이 도대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제국주의전쟁, 즉 식민지를 분할하며 타국을 억압하기 위한 전쟁, 누가 타민족을 더 많이 억압할것인가를 다투는 략탈적억압적렬강간의 전쟁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민족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전쟁을 변호하기 위하여 민족자결권을 구실로 하는것은 알렉썬스끼, 에르웨, 하인드만의 언론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번 전쟁이 결코 공화주의와 군주제의 원칙파의 충돌때문에가 아니라 두 제국주의련맹간의 식민지분할 등등때문에 일어났다는것이 널리 알려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독일의 군주제에 대립하는 프랑스의 공화제를 구실로 삼고있는것이다.

뚜라띠는 자기가 전쟁을 《변호》하는것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하며 변명하였다.

개량주의자 뚜라띠, 카우쯔키의 지지자 뚜라띠의 의도는 전쟁을 변호하는것이 아니였다는것을 믿자. 그러나 정치에서 고려되는것은 의도가 아니라 행동이며 선량한 희망이 아니라 사실이며 상상적인것이 아니라 현실적인것이라는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뚜라띠는 전쟁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고 카우쯔키는 독일이 독일제국주의에 대한 토이기의 종속관계를 설정

하는것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선량한 두 평화주의자에게서 **나온 결과는 다름아닌 전쟁에 대한 변호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만약 카우쯔키가 아무도 읽지 않을 정도로 흥미가 없는 잡지에서가 아니라 의회연단으로부터 생생한, 감수성이 강한, 남국적인 기질을 가진 자산계급청중앞에서 《콘스탄티노플은 로씨야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토이기는 어느 나라의 속국으로도 되여서는 안된다.》는것과 같은 말을 한다면 령리한 자산자들이 《훌륭하다! 옳소! 카우쯔키 만세!》라고 고함쳐도 조금도 놀랄것이 없을것이다.

뚜라띠는 사실상—그가 그것을 희망하였든 희망하지 않았든, 또 의식하였든 의식하지 않았든, 이와는 관계없이—제국주의강도들간의 친선협정의 체결을 제의하는 자산계급거간군의 립장에 서있었다. 오지리에 속하여있는 이딸리아땅의 《해방》이라는것은 **실지에 있어서는** 거대한 제국주의련맹의 제국주의전쟁에 참가한 대가로 이딸리아자산계급에게 주는 보수를 은폐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들의 분할, 달마찌야와 알바니아에서의 세력권의 분할에 대한 부차적인 첨가물일것이다. 개량주의자 뚜라띠가 자산계급의 견지에 서는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카우쯔키는 뚜라띠와 사실상 조금도 다른것이 없다.

제국주의전쟁을 미화하지 않으려면, 자산계급이 이러한 전쟁을 민족전쟁이라고, 민족을 해방하는 전쟁이라고 기만하는것을 방조하지 않으려면, 자산계급개량주의의 립장에 서지 않으려면 카우쯔키와 뚜라띠가 말하는것처럼 말할것이 아니라 칼 립크네히트가 말한것처럼 말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자산계급은 민족해방을 운운함으로써 위선을 부리고있다는것, 무산계급이 자국정부들에 《총부리를 돌리지》 않는다면 이번 전

쟁에서 민주주의적강화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자국의 자산계급에게 언명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것이 또 이와 같은것만이 자산계급개량주의자의 립장이 아니라 진정한 맑스주의자의, 진정한 사회주의자의 립장으로 될수 있을것이다. 민주주의적강화를 위하여 진정으로 힘쓰고있는것은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런 의무도 지지않는 일반적인 선량한 평화주의의 희망을 반복하는자가 아니라 이번 전쟁의 제국주의적성격을, 그리고 이 전쟁에 의하여 준비되고 있는 제국주의적강화의 제국주의적성격을 폭로하는자이며 인민들에게 범죄적인 정부들을 반대하는 혁명을 호소하는자이다.

합법적으로는 정부를 반대하는 《암시》이상으로 더 나갈수는 없었는데 카우쯔키나 뚜라띠와 같은 평화주의자들의 언론속에는 이러한 《암시》가 있다는 리유로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카우쯔키와 뚜라띠를 변호하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야 한다. 즉 첫째로 합법적으로 진실을 말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리유로는 되지 않고 비합법적인 즉 경찰과 출판물검열기관의 구속을 받지 않는 조직과 출판물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될뿐이다. 둘째로 사회주의자가 온갖 합법성과 결별할것이 요구되는 력사적시기가 종종 있다. 셋째로 농노제의 로씨야에 있어서까지도 도브롤류보브와 체르늬쉡스끼는 때로는 1861년 2월 19일의 조서199를 묵살함으로써, 때로는 카우쯔키나 뚜라띠와 꼭같은 말들을 한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을 조소하고 망신시킴으로써 진실을 말할수 있었다.

다음론문에서는 우리는 방금전에 열렸던 프랑스의 로동자단체들과 사회주의단체들의 두 대회의 결의문들속에 반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평화주의에 대하여 언급하자.

제3편(또는 제3장)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급진 로동조합주의자들의 평화주의

프랑스의 C. G. T.(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로동조합총동맹)383의 대회와 프랑스사회당240의 대회가 방금 폐막되였다. 현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평화주의의 진정한 의의와 진정한 역할이 여기서 특히 명백하게 나타났다.

다음에 인용하는것은 악명높은 쥬오(Jouhaux)를 선두로 하는 열광적인 배외주의자들의 다수파에 의하여서도, 무정부주의자 브루슈에 의하여서도…《찜메르왈드파》의 메렝에 의하여서도 **만장일치로** 채택된 급진로동조합대회의 결의문이다.

《전국 동업조합련맹, 급진로동조합동맹(로동조합), 직업소개소의 회의는 〈전쟁을 종결시킬수 있는 제 조건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설명할것을 모든 교전국들에 권고하고있는〉 미국대통령의 각서를 고려하여—

이 제의에 동의할것을 프랑스정부에 요청한다.

강화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우선 자기 동맹국들앞에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할것을 권고한다.

종국적평화의 담보의 하나인 민족련맹은 모든 대소민족의 독립, 령토의 불가침,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의 조건하에서만 보장될수 있다는것을 성명한다.

본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단체들은 로동계급이 언제나 반대하여온 비밀외교에만 유리한 불안정하고 애매한 국면을 종식시키도록 이 사상을 지지하고 로동자대중속에 보급시킬 책임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카우쯔키류의 《순수한》 평화주의,

즈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으며 대다수가 배외주의자들로 구성되여있는 공식적인 로동자단체들의 찬동을 받고있는 평화주의의 전형이다. 우리가 본것은 공허한 평화주의적문구의 정강을 토대로 한 배외주의자들과 《카우쯔키주의자들》의 정치적련합에 관한 훌륭한, 가장 심중한 주의를 돌릴 가치가 있는 문서이다. 앞의 론문에서는 우리들은 배외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들, 자산자들과 사회주의적개량주의자들의 견해의 일치한 리론적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증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지금은 우리들은 이 일치성이 다른 제국주의국가에서 실지로 실현된것을 보게 된다.

1915년 9월 5~8일의 찜메르왈드대표자회의[316]에서 메렝은 《Le parti, les Jouhaux, le gouvernement, ce ne sont que trois têtes sous un bonnet》(《당, 쥬오씨일파, 정부—이것은 3위일체인것이다.》, 즉 그들은 일치한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916년 12월 26일의 로동조합총동맹회의에서는 메렝은 쥬오와 더불어 평화주의적결의문에 찬성투표하였다. 1916년 12월 23일에 독일사회제국주의자들의 가장 로골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기관지의 하나인 켐니쯔의 신문 《인민의 목소리》[384]는 《자산계급당들의 와해와 사회민주당통일의 회복》이라는 편집부론설을 게재하였다. 이 론설은 물론 쥐데쿰, 레긴, 샤이데만 일파의, 즉 독일사회민주당 다수파전체의, 그리고 또한 독일정부의 평화애호정신을 크게 찬양하고있으며 또 《전후에 소집되는 최초의 당대회는 당비납부를 거부하고있는 소수의 광신자들》〔즉 칼 립크네히트의 옹호자들!〕을 《제외하고 당의 통일—당집행위원회,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 및 직업동맹의 정책에 기초한 당의 통일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있다.

여기에는 독일의 로골적인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카우쯔키일파, 즉 《사회민주당근로파》와의 《통일》,—평화주의적문구에

기초한 통일—프랑스에서 1916년 12월 26일에 쥬오와 메렝간에 실시된 《통일》의 사상이 가장 명백히 표현되고있으며 이 통일의 정책이 가장 명백히 선언되고있다!

이딸리아사회당 중앙기관지 《전진!》은 1916년 12월 28일부의 편집부론평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비쏠라띠와 쥐데쿰, 보노미와 샤이데만, 쌍바와 다위드, 쥬오와 레긴이 자산계급민족주의진영으로 넘어갔고 국제주의자들의 사상적통일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그들이 이제 와서는 그것을 배반하였다〔hanno tradito,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변절하지도 않았고 동요하지도 않은 렵크네히트, 레데부르, 호프만, 마이에르와 같은 우리의 독일동지들과, 메렝, 블랑, 브리종, 라펭-뒤쟝과 같은 우리의 프랑스동지들과 함께 있을것이다.》

보라, 어떤 혼란이 생기고있는가.

비쏠라띠와 보노미는 이미 전쟁전에 개량주의자이며 배외주의자로서 이딸리아사회당으로부터 제명되였다. 《전진!》은 그들을 쥐데쿰 및 레긴과 같은 수준에 놓고있는데 물론 이것은 아주 정당하다. 그러나 쥐데쿰, 다위드 및 레긴은 독일의 사이비사회민주주의적인, 실지에 있어서는 사회배외주의적인 정당의 선두에 서있는데 같은 《전진!》은 그들의 제명, 그들과의 결렬, 제3국제당의 결성을 반대하고있다. 《전진!》은 레긴과 쥬오를 자산계급민족주의진영으로 넘어간것으로 선언하고 그들에게 렵크네히트와 레데부르, 메렝과 브리종을 대립시키고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것을 알고있다. 메렝이 쥬오와 같이 투표하고있으며 레긴은 —켐니쯔의 《인민의 목소리》란 신문을 통하여—렵크네히트의 동지들만을 제외한 당의 통일, 즉 레데부르가 가입하고있는 《사회민주당근로파》(카우쯔키도 포함하여)와의 《통일》을

회복할데 대한 자기의 신념을 선언하고있다!!

이 혼란은 《전진!》이 자산계급적평화주의를 혁명적인 사회민주주의적국제주의와 혼동하고있는데서 생겼는데 레긴이나 쥬오와 같은 경험있는 정객들은 사회주의적평화주의와 자산계급적평화주의가 동일하다는것을 훌륭히 리해하고있었다.

만장일치로 채택되였고 우리가 그 전문을 인용한 결의문속에는 실지로 자산계급평화주의적문구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으며 혁명적의식은 조금도 없으며 하나의 사회주의적사상도 없다면 쥬오와 메렝파의 《의견일치》에 대하여 쥬오씨와 그의 배외주의적신문 《전투》385가 어찌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는가!

자산계급정부들이 전복되지 않고 자산계급이 수탈되기전에 《모든 대소민족의 경제적자유》라는것은 현대사회에서의 공민일반의, 즉 소농과 부농, 로동자와 자본가의 《경제적자유》라는 문구와 같이 인민을 기만하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모든 대소민족의 경제적자유》에 대하여 운운한다면 그것은 가소롭지 않은가?

쥬오와 메렝이 일치하게 찬성투표한 결의문은 《자산계급민족주의》사상으로 철두철미 일관되여있다. 《전진!》은 정당하게도 쥬오에게 자산계급민족주의가 있다는것을 지적하면서도 똑같은 그 신문이건만 이상하게도 메렝에게도 그런것이 있다는것을 보지 못하고있다.

자산계급민족주의자들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민족련맹》일반이라든가 《모든 대소민족의 경제적자유》라든가 하는 《일반적인》 문구들을 과시하여왔다. 자산계급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민족들(례하면 영국이나 프랑스)이 수백억프랑의 자본을 외국에 투하하고있는 한, 즉 이 자본을 락후한 약소민족들에 높은 리자률로 대부하고 약소민족들은

그들의 채무노예의 상태에 있는 한《대소민족들의 경제적자유》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은 가증스러운 위선이라고 말해왔고 또 말하고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쥬오와 메렝이 일치하게 찬성투표한 결의문속의 어느 한 문구에 대해서도 단호한 항의를 하지 않고 두어둘수는 없을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결의문에 정면으로 대립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할것이다. 즉 윌슨의 연설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위선이다. 왜냐 하면 윌슨은 전쟁에서 수십억의 돈을 번 자산계급의 대표자이며 분명히 제2차제국주의대전을 목표로 하여 발광적으로 미국을 무장시키고있는 정부의 수반이기때문이다. 금융자본의 노예이며 이 금융자본에 의하여 그리고 영국, 로씨야 등등과의 제국주의적인, 철두철미 략탈적이며 반동적인 비밀조약들에 의하여 손발을 결박당하고있는 프랑스의 자산계급정부는 민주주의적이고《공정한》강화의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할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와 같은 강화를 위한 투쟁은 일반적인, 공허한, 무의미한, 무책임한, 실지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추악성을 미화하는데 불과한, 선량하고 달콤한 평화주의적 문구들을 반복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즉 민주주의적이고 공정한 강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교전국의 자산계급정부들을 전복하며 또 이를 위하여서 수백만 로동자들의 무장을 리용하며 또한 물가등귀와 제국주의전쟁의 참화로 인한 주민대중의 전반적분격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있다라고.

쥬오와 메렝의 결의문 대신에 사회주의자들이 말하여야 할것은 바로 이런것이다.

프랑스사회당은, 로동조합총동맹대회와 동시에 빠리에서 진행된 자기 대회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찬성

2.838표, 반대 109표, 기권 20표로, 즉 사회배외주의자들(려노델일파, 소위 《majoritaires》 즉 다수파의 지지자들)과 롱게파(롱게지지자들 즉 프랑스의 카우쯔키주의자들)와의 련맹에 의하여 더 나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때에 찜메르왈드파인 부르데롱과 킨탈파(kinthalien, 킨탈회의[367]참가자)인 라펭-뒤장도 이 결의문에 찬성투표하였다!!

우리는 이 결의문의 원문은 인용하지 않겠다. 왜냐 하면 그것은 너무도 길고 전혀 흥미가 없기때문이다. 그것은 강화에 관한 선량한, 달콤한 말들을 하면서 동시에 또 프랑스의 소위 《조국보위》를 계속 지지할, 즉 프랑스가 영국이나 로씨야와 같은 더 강대한 강도들과 동맹하여 진행하고있는 제국주의전쟁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성명하고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사회배외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들(즉 카우쯔키주의자들) 및 찜메르왈드파의 일부와의 련합은 로동조합총동맹내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사회당내에서도 사실로 되였다.

제4편(또는 제4장)
갈림길에 선 찜메르왈드

12월 28일에는 로동조합총동맹대회에 관한 기사가 실린 프랑스의 신문들이 베른에 도착하였고 12월 30일에는 베른과 쮜리히의 사회주의당신문들에 찜메르왈드련맹의 집행기관인 베른의 I.S.K.(《Internationale Sozialistische Kommission》, 국제사회당위원회)의 새로운 선언이 게재되였다. 1916년 12월말에 발표된 이 선언은 독일측과 윌슨 및 기타 중립국들로부터 제기된 강화제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이 모든 정부들의 언론을 《강화를 희롱하는 희극》, 《자국인민을 우롱

하는 연극》, 《외교관들의 위선적인 평화주의적수완》이라고 부르고있다. 물론 이렇게 부르는것은 아주 정당하다.

강화 및 기타를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력량》으로서 이 희극과 허위에 대치되고있는것은 《자기의 형제들에게가 아니라 자국내의 적들에게 투쟁의 무기를 돌리려는》 국제무산계급의 《견강한 의지》이다.

우에서 든 인용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개의 정책이 지금까지 찜메르왈드련맹내에 공존하고있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결렬되였다는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일방으로는 뚜라띠가 독일, 윌슨 등등의 제의는 이딸리아 《사회주의적》평화주의를 《바꾸어 말한것》에 불과하였다고 명확하게 또 완전히 정당하게 말하고있다. 독일사회배외주의자들의 성명과 프랑스사회배외주의자들의 투표는 량자가 다 그들의 정책을 평화주의적으로 은폐하는 리익을 훌륭하게 평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타방으로는 국제사회당위원회의 선언이 모든 교전국과 중립국정부들의 평화주의를 희극이며 위선이라고 부르고있다.

일방으로는, 쥬오는 메렝과 련합하고 부르데롱, 롱게 및 라펭-뒤쟝은 러노델, 쌍바 및 또마와 련합하고있으며 독일사회배외주의자들인 쥐데쿰, 다위드, 샤이데만은 카우쯔키 및 《사회민주당근로파》와의 《사회민주주의적통일의 회복》이 박두하고있다고 선포하고있다.

타방으로는 국제사회당위원회의 호소문이 《사회주의적소수파》가 《자국정부들》과 《그리고 그들의 사회애국파적고용병들(Söldlinge)》과 정력적으로 투쟁할것을 호소하고있다.

둘중의 하나이다.

자산계급적평화주의의 무내용, 어리석음, 위선을 폭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회주의적》평화주의로 《바꾸어 말할》것인가? 정부들의 《고용병》들인 쥬오와 러노델, 레긴과 다위드따위들과 투쟁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식 또는 독일식의 공허한 평화주의적선언을 토대로 그들과 련합할것인가?

지금은 이것이 찜메르왈드우파와 찜메르왈드좌파를 구별하는 경계선이다. 우파는 항상 전력을 다하여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분렬을 반대하여왔고 좌파는 이미 찜메르왈드회의기간에 우파와 공공연히 계선을 긋는데, 또한 회의에서나 회의후에 출판물에서 자기의 특별강령을 발표하도록 하는데 류의하였는데 이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강화가 가까와온것, 혹은 적어도 약간의 자산계급분자들이 강화문제를 열심히 토의하고있는것은 우연하게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두가지 정책의 특히 선명한 차이를 야기하였다. 왜냐 하면 평화는 언제나 자산계급적평화주의자들과 그들의 《사회주의적》모방자들 또는 추종자들에게는 전쟁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어떤것으로 생각되였고 또 생각되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전쟁은 평화시의 정치의 연장이며 평화는 전시의 정치의 연장》이라는 사상이 이 두가지 색채의 평화주의자들에게는 언제나 리해되지 않은채 남아있었다. 1914～1917년의 제국주의전쟁은 1898～1914년의 제국주의정치의—그 이전시기의 정치는 아니라 하더라도—연장이라는것을 자산자들도 사회배외주의자들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보려고 하지 않고있다. 만약 자산계급정부들이 혁명에 의하여 전복되지 않는다면 강화는 현재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전쟁을 연장하는 제국주의적강화로밖에는 될수 없다는것을 자산계급적평화주의자들도 사회주의적평화주의자들도 보지 않고있다.

그들은 공격 또는 방위 일반에 관한 무의미한, 비속한, 속

물적인 공담으로써 이번 전쟁에 대한 평가를 내렸던것과 같이 동일한 속물적인, 일반적인 문구로써 강화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구체적인 력사적정세, 제국주의렬강간의 투쟁의 구체적인 현실을 망각하고있다. 그런데 사회배외주의자들, 로동자당내에 있는 정부와 자산계급의 이 앞잡이들이 전쟁에 의하여 폭로된 그들의 개량주의, 그들의 기회주의의 내막을 덮어감추기 위하여, 대중속에서 파산된 자기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히 강화의 접근, 지어는 강화에 관한 론의까지 리용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본바와 같이 사회배외주의자들은 독일에 있어서도 프랑스에 있어서도 《반대파》중의 불견정한, 무원칙한, 평화주의적인 부분들과 《련합》하려고 열심히 시도하고있는것이다.

찜메르왈드련맹내에 있어서도 화해할수 없는 두 정책로선의 불일치를 덮어감추려는 시도가 아마 있을것이다. 이런 종류의 두가지 시도를 예견할수 있다. 《실제적》인 화해는 단지 고답적인 혁명적문구들(례하면 국제사회당위원회의 호소문에 있는 문구들과 같은)을 기회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실천과 기계적으로 결합시킬것이다. 제2국제당에서 그러하였다. 유이스망스와 완데르웰드의 호소들과 대회들의 약간의 결의문들에 있는 초혁명적문구들은 대다수의 구라파정당들의 초기회주의적실천을 은폐하였을따름이고 이 실천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타파하지도 않았고 그것과 투쟁하지도 않았다. 찜메르왈드련맹내에서 이 전술이 또다시 성공할수 있을는지는 의심스럽다.

《원칙적조정자》는, 례하면 개량은 혁명을 배제하지 않는다든가, 국가의 경계, 국제법 또는 군비지출예산 등등의 일정한 《개선》을 동반하는 제국주의적강화는 혁명운동의 《전개의 한개 계기》로서 혁명운동과 병존할수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론단으로써 맑스주의를 위조하려고 시도할것이다.

이것은 맑스주의의 위조로 될것이다. 물론 개량은 혁명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이것이 아니라 혁명가들은 개량주의자들앞에서 자기가 물러서서는 안된다는것, 즉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혁명적활동을 개량주의적활동으로 바꾸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구라파는 혁명적정세에 처해있다. 전쟁과 물가등귀는 이 정세를 첨예화시키고있다.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의 이행도 결코 반드시 혁명적정세를 제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수중에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있는 수백만 로동자들이 칼 립크네히트의 충고를 실행할 대신에, 즉 자국의 자산계급에게 총부리를 돌릴 대신에 자산계급에게 《평화적으로 무장해제》당하는것을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리라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기때문이다.

문제는 평화주의자들, 카우쯔키주의자들이 제기하고있는 바와 같이 개량주의적정치운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량의 기부냐 하는 식으로는 제기되고있지 않다. 그것은 자산계급적인 문제의 제기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는 혁명적투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량에 관한 잡담과 개량에 대한 거짓약속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든가, 이렇게 제기되고있는것이며 혁명적투쟁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왕왕 개량이 이 투쟁의 부산물로 되는것이다. (전 세계의 혁명의 전체 력사는 이것을 증명하였다.)

현재 평화주의형태로 등장하고있는 카우쯔키, 뚜라띠, 부르데롱의 개량주의는 비단 혁명문제를 포기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것은 벌써 사회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비단 실천에서 온갖 계통적이고 완강한 혁명적활동을 거부하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결국은 가두시위는 모험이라고 성명하는데까지 이르고있으며(카우쯔키가 1915년 11월 26일부 《신시대》지에서 이

말을 하였다.) 혁명적투쟁의 로골적이고 단호한 반대자들인 쥐데꿈, 레긴, 러노델, 또마 등등파의 통일을 옹호하며 실현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 개량주의는 혁명적맑스주의와 절대로 상용될수 없다. 혁명적맑스주의는 혁명의 직접적선전, 자산계급정부들의 전복, 무장한 무산계급에 의한 정권의 탈취를 위하여 구라파의 현재의 혁명정세를 전면적으로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동시에 혁명을 위한 투쟁의 발전을 위하여서나 혁명행정에 있어서나 결코 개량을 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도 않으며 개량의 리용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가까운 장래에 일반적으로는 구라파의 제 사건의 행정이, 특히는 찜메르왈드련맹내의 두개 부분의 투쟁도 포함하여 개량주의-평화주의와 혁명적맑스주의와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1917년 1월 1일,. 쮜리히

1924년에 《레닌론문집》 제2권에 처음으로 수록

서명: 엔.엘.

원고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177~196페지

주 해

1 쁘루동주의는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의 한 류파로서 프랑스무정부주의자 뻬예르 죠제프 쁘루동에 의하여 명명된것이다. 쁘루동은 소자산계급적립장에서 자본주의적대소유제를 비판하였으며 소소유제의 영구화를 환상하였다. 그는 《인민》은행과 《교환》은행을 세울것을 주장하면서 로동자들이 이런 은행의 도움을 받아 자기에게 필요되는 생산수단을 구입하며 자기의 생산물을 《공정하게》 팔수 있게 되리라고 인정하였다. 쁘루동은 무산계급의 역할과 의의를 알지 못하였으며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과 무산계급독재를 극력 반대하였다. 그는 무정부주의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쁘루동파는 소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리상화하였다. 《자본주의와 그 기초인 상품생산을 폐절할것이 아니라 이 기초에서 갖은 병집과 혹 등을 제거할것, 교환과 교환가치를 폐절할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구성하며〉 그것을 전면적이며 절대적이며 〈공정하며〉 동요, 위기, 병집이 없는것으로 만들것—바로 이것이 쁘루동의 사상이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0권, 17페지를 보라.)—2, 897페지

2 바꾸닌주의는 무정부주의사조로서 엠.아.바꾸닌에 의하여 명명된것이다. 바꾸닌주의는 계급의 평등을 주장하며 상속권폐절을 사회혁명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로동계급에게 모든 정치활동을 포기할것을 고취하였다. 바꾸닌주의는 무산계급독재와 무산계급정당을 반대하며 국가를 모든 재난의 근원으로 보면서 모든 국가를 즉시 철폐하고 무정부상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바꾸닌주의자는 맑스주의의 흉악한 적이다. 바꾸닌과 그 옹호자들은 맑스가 령도하는 제1국제당내에서 분렬활동을 획책하면서 국제로동운동의 령도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1872년에 바꾸닌은 제1국제당에서

제명되였다.

바꾸닌주의자의 리론과 전술은 맑스와 엥겔스의 엄한 비판을 받았다. 레닌은 바꾸닌주의를 《자기들의 구원에 절망적인 소자산자의 세계관》(《레닌전집》, 한문판, 제18권, 11페지를 보라.)이라고 하였다. —2페지

3 **신칸트주의**는 19세기 하반기에 독일에서 산생된 자산계급적철학류파이다. 그것은 칸트철학에서 가장 반동적인 관념론원리의 재판이다. 신칸트주의자들은 《칸트에게로 돌아가자!》는 구호하에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과학을 칸트의 관념론철학과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사물 그자체》를 부인하면서 사회의 객관적법칙 등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사회민주당내의 신칸트주의자들(에.베른슈타인, 카.쉬미트 및 기타 사람들)은 맑스의 철학, 맑스의 경제리론 및 계급투쟁과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학설을 수정하였다. 로씨야에서는 《합법적맑스주의자》,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이 바로 신칸트주의의 옹호자들이였다. —3, 33페지

4 맑스의 《자본론》, 제1권, 제2판 후기(《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18페지를 참조하라.)에서 인용. —3페지

5 **오이겐 뵘-바웨르크**는 오지리자산계급의 용속한 경제학자로서 정치경제학에서의 소위 《오지리학파》의 대표적인물이다. 그는 맑스의 잉여가치설을 반대하면서 리윤은 로동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재부에 대한 주관적예측의 차이에서 온다고 허튼소리를 쳤다. 그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덮어감춤으로써 혁명투쟁을 포기하도록 로동계급을 유인하려고 시도하였다. —5페지

6 **립헌민주당**은 로씨야의 주요한 자산계급정당인 자유주의군주파자산계급의 정당으로서 1905년 10월에 창립되였다. 지도자는 빼.엔.밀류꼬브였다.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을 민주주의자로 가장하고 《인민자유》당으로 자처하면서 농민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그들은 립헌군주제의 형식으로 짜리제도를 유지하려고 시도

하였다. 그후 멘쉐비크 는 제국주의—자산계급정당으로 전락하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한후 멘쉐비크자들은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는 반혁명적 음모활동과 폭동을 조직하였다. —6, 253, 469, 486, 495, 520, 534, 596, 615, 667, 725, 773, 868페지

7 **밀레랑주의**(또는 입각주의 즉 입각파)는 기회주의의 한 류파로서 프랑스의 사회당원인 밀레랑이 반동적내각에 참가한데 의하여 명명된것이다. 밀레랑은 1899년에 프랑스의 반동적자산계급정부에 참가하여 빠리꼼뮨을 진압한 사형리인 갈리페장군과 결탁하였다. —8, 818, 839페지

8 **게드파**는 지.게드의 지지자들이다. 게드와 라파르그를 지도자로 한 게드파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프랑스사회주의운동에서의 좌익이다. 게드파는 일찍 무산계급의 독자적인 혁명적정책을 견지하였으며 1901년에는 프랑스사회당을 결성하였다.

브루쓰파(가능파)는 브루쓰, 말롱 등을 위수로 한 프랑스사회주의운동에서의 기회주의류파이다. 브루쓰와 말롱 등은 1882년에 프랑스로동자당의 분열을 조작하고 새로운 당—《프랑스사회주의혁명로동자당》을 조직하였다. 이 파벌의 지도자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혁명적전술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다만 《가능한》(《possible》) 것만을, 즉 로동계급의 활동을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가능한》 범위내에만 국한시킬것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적원칙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능파》로 불리우게 되였다. 1902년에 가능파의 다수는 죠레스가 창설한 개량주의적당인 프랑스의 사회당에 참가하였다. 1905년에 프랑스사회당과 프랑스의 사회당은 한 당으로 통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지.게드는 프랑스의 사회당의 전체 지도자들과 함께 사회배외주의적립장에로 넘어갔다.

죠레스파는 죠레스의 옹호자들이다. 죠레스는 프랑스사회주의운동에서의 우익개량파의 두목으로서 90년대에 밀레랑과 함께 《독립사회당》을 결성하였다. 죠레스파는 《비판의 자유》를 요구한다는 허울을 쓰고 맑스주의의 기본원리를 수정하였으며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과의 계급적합작을 고취하였다. 1902년에 그들은 개량주의적 프랑스의 사회당을 성립하였다. —9, 818페지

9 **사회민주주의련맹**은 영국의 사회주의적단체로서 1884년 8월에 성립되였다. 이 단체는 각양각색의 사회주의자들, 주로는 지식인들 가운데의 사회주의자들로 결성되였다. 련맹은 기회주의적 및 종파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여온 하인드만을 위수로 한 개량주의분자들에게 장기간 장악되여있었다. 련맹에 가입한 일부 혁명적맑스주의자들(이.맑스-에이블링, 에드워드 에이블링, 톰 멘 등)은 하인드만의 로선과는 반대로 대중적로동운동과의 밀접한 련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1884년 가을에 련맹이 분렬되여 그 좌익은 독자적조직인 사회주의동맹을 조직하였다. 그후로부터 사회민주주의련맹내에서의 기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은 강화되였다. 그러나 대중의 혁명적정서의 영향하에 련맹내부에는 기회주의적태도에 불만을 가진 혁명자들이 의연히 산생되였다. 1907년에 로동운동이 앙양되는 조건하에서 련맹은 사회민주당으로 재조직되였으며 1911년에는 또 독립로동당내의 좌익과 합병하여 영국사회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영국독립로동당은 1893년에 성립되였다. 이 당의 지도자는 키어 하디, 아르.맥도날드 등이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립로동당은 《시종 자산계급에 예속된 기회주의정당으로서》《사회주의에만 〈독립〉적이고 자유주의에는 대단히 예속되여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450페지; 제18권, 354페지를 보라). 제1차세계대전기간인 1914년 8월 13일에 독립로동당은 전쟁을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후 1915년 2월에 열린 협약국사회주의자련던대표회의에서 독립당원들은 대표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배외주의적결의에 동의하였다. 그때로부터 독립당의 지도자들은 평화주의란 허울밑에 사회배외주의를 실시하였다. 1919년에 국제공산당이 성립된후 좌익당원군중들의 압력하에서 독립로동당의 지도자들은 제2국제당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21년에 독립당원들은 소위 제2절반국제당에 참가하였으며 제2절반국제당이 해산된후에는 다시 제2국제당에 가입하였다. —9, 818, 826, 1108페지

10 **전일파**는 19세기말 프랑스, 이딸리아와 벨지끄 로동운동내의 소자

산계급사회주의류파로서 사회주의는 로동계급에만 의거할것이 아니라 어느 계급이든 가릴것없이 모든《억압받는 사람들》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계급평화를 주장하고 계급투쟁을 반대하였다. 이 파벌의 주요한 대표자는 프랑스의 말롱과 이딸리아의 엔리꼬 페리였다. 90년대에 일부 문제에 있어서 이딸리아전일파는 극단적인 기회주의립장을 취하며 반동적인 자산계급과 결탁하는 개량파들을 반대하였다. —9, 259페지

11 《혁명적급진로동조합주의》는 19세기말 서구라파 일부 나라의 로동운동가운데 있은 소자산계급적절반무정부주의적파벌이다.

급진로동조합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부인하였으며 당의 령도적역할과 무산계급독재를 부인하였다. 그들은 로동조합(급진로동조합)은 로동자총파업만 조직하고 혁명은 진행하지 않아도 자본주의를 뒤엎을수 있으며 생산의 관리권을 얻을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9페지

12 《보고자에게 제기하는 열가지 질문》은 레닌이 제네바에서 소집된 보그다노브의 철학보고회에 참가하는 볼쉐위크령도핵심의 성원이며 《무산자》지 편집위원인 두브로윈스끼(인노겐찌)를 위하여 1908년 5~6월에 쓴 발언제강이다. 이 제강은 볼쉐위크파가 보그다노브 및 그 옹호자들의 철학적관점과 공개적으로 계선을 나누는 토대였다. —12페지

13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83페지를 보라. —12, 145, 220페지

14 같은 책, 99페지 —13, 326, 344페지

15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74~75, 153~154페지를 참조하라. —15페지

16 1908년 2월 25일에 고리끼에게 보낸 레닌의 서한(《레닌전집》, 한문판, 제13권, 425~432페지)을 보라. —13페지

17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은 변증법적유물론철학발전에 있어서의 하나의 새시대를 의미한다. 레닌은 이 저서에서 변증법적유물론의 관점과 력사적유물론의 관점으로써 엥겔스서거후의 전 력사시기의 혁명의 경험과 과학발전의 성과를 개괄하였으며 당시에 유

행되고있던 가짜맑스주의의 반동적철학사조에 대하여 혁명적인 비판을 가함으로써 맑스주의당들의 리론적기초를 수호하였다. 레닌의 이 저서는 철학적분야에서 당성원칙을 견지하고 맑스주의의 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본보기이다.

1908년 2월에 레닌은 제네바에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1908년 5월에 레닌은 제네바로부터 런던으로 갔다. 그는 영국박물관 열람실에서 제네바에서 입수할수 없는 문헌을 전문 연구하였다. 런던에서 레닌은 약 한달동안 지냈다.

1908년 10월에 집필이 끝나고 원고는 모스크바의 비밀주소로 발송되였다. 이 저서는 모스크바 환절출판사에 의하여 출판되였다.

레닌의 누이 옐리자로와가 모스크바에서 이 저서의 교정사업을 맡아하였다. 그는 교정지 한부를 국외에 있는 레닌에게 보내였다. 레닌은 교정지를 상세히 심열하고 발견된 모든 오식을 지적하고 수정을 가하였다. 레닌이 지적한 시정은 일부분은 저서의 원문에 가해지고 다른 일부분은 초판에 붙은 중요정오표에 들어갔다.

레닌은 짜리출판물검열기관에 이 저서의 출판금지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부 개소의 표현을 온화하게 만드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레닌은 이 저서를 신속히 출판할것을 견결히 주장하였으며 이 저서의 출판에 대하여 문필상의 책임뿐만아니라 중대한 정치적책임도 진다고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이 저서는 1909년 5월에 출판되였는데 발행부수는 2,000부였다. —14페지

18 신앙주의라는 술어는 레닌의 원고에서 처음에는 승려주의로 되여있던것을 후에 출판물검열을 고려하여 바꾸어놓은것이다. 레닌은 1908년 11월 8일에 옐리자로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술어에 대하여 설명을 가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7권, 361페지를 보라.)—15페지

19 이른바 《창신론》을 가리킨다. 이것은 맑스주의를 적대시하는 문학

계에서의 종교적철학사조로서 1905～1907년혁명실패이후의 스똘리삔반동시기에 맑스주의로부터 리탈한 당내의 일부 지식인들사이에서 산생하였다.

《창신론자들》(루나챠르스끼, 바자로브 등)은 새로운 《사회주의적》종교의 창립을 고취하면서 맑스주의를 종교와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한때 고리끼도 그들과 접근하고있었다. 《무산자》지 편집부확대회의(1909년)는 《창신론》을 규탄하고 그 특별결의에서 볼쉐위크파는 《과학적사회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외곡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성명하였다. —15, 484, 608페지

20 넴스끼의 론문은 레닌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제2판에 부록으로 게재되였었다. —17페지

21 보그다노브 등이 《무산계급문화》라는 허울밑에서 퍼뜨린 반동적인 자산계급철학관점(마흐주의)과 반동적인 문화예술관점(미래주의)을 가리킨다. 보그다노브 및 그 일파는 문화건설에 있어서의 공산당 및 쏘베트국가의 령도적역할을 부인하고 쏘베트문화의 발전을 사회주의건설의 총적과제로부터 리탈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무산계급이 문화유산의 탁월한 성과를 리용해야 할데 대하여 부인하였다. 레닌은 《무산계급문화》조직내에서 보그다노브의 반맑스주의적 리론이 자라나고있는것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1920년 12월 1일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는 《무산계급문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된 서한을 《쁘라우다》에 발표하여 이 유해한 리론을 질책하였다. 《무산계급문화》조직은 1922년후부터 점차 와해되였다. —17페지

22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1페지를 참조하라. —33, 122, 158페지

23 엥겔스의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영문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87페지)을 보라. —33페지

24 《신시대》(《*Die Neue Zeit*》)는 독일사회민주당의 리론잡지로서 1883년부터 1923년 가을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발간되였다. 1890년 10월까지는 월간으로 발간되다가 그후부터는 주간으로 발간되

였다. 잡지의 편집은 1883년부터 1917년 10월까지는 카.카우쯔키였고 1917년 10월부터 1923년 가을까지는 하.쿠노브였다. 1885~1894년에 엥겔스는 이 잡지에 많은 론문을 발표하였으며 늘 충고로써 잡지편집부를 도와주고 또 맑스주의관점을 리탈하는 편집부를 수시로 비판하였다. 엥겔스가 서거한후인 90년대 후반기부터 이 잡지는 수정주의자들의 론문을 체계적으로 싣기 시작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잡지는 중간파립장을 취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배외주의자들을 지지하였다. —33, 643, 789, 918, 975, 1070, 1116, 1141폐지

25 **백과전서파**는 18세기 프랑스의 부분적사상계몽가들로 형성된 분파이다. 그들은 《백과전서》(1751~1780년)편찬과정에서 한때 결속되였기때문에 백과전서파로 불리웠다. 《백과전서》의 주필은 디드로이다. 백과전서파는 천주교회, 스콜라학 및 봉건적신분제도를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18세기말 프랑스자산계급혁명의 사상적준비면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일으켰다. —36, 476폐지

26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61, 73~74폐지를 보라. —44폐지

27 **《신스콜라학평론》**(《*Revue Néo-Scolastique*》)은 1894년에 루웽(벨지끄)에서 천주교철학협회에 의하여 창간된 신학-철학잡지이다. —53폐지

28 **《투쟁》**(《*Der Kampf*》)은 오지리사회민주당의 기관간행물로서 1907년부터 1938년까지 윈에서 발간되였다. 이 잡지는 기회주의적중간파의 립장에 서서 좌적언사로써 무산계급의 혁명사업에 대한 자기의 배반과 반혁명적자산계급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덮어감추고있었다. —59폐지

29 **《국제사회주의평론》**(《*The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은 미국수정주의적류파의 월간잡지로서 1900년부터 1918년까지 시카고에서 발간되였다. —59폐지

30 **《과학적철학계간》**(《*Vierteljahrsschrift für wissenschaftliche Philosophie*》)은 경험비판론자들(마흐주의자들)의 철학잡지

로서 1877년부터 1916년까지(1896년이전까지는 아베나리우스가 주필이였다.) 라이프찌히에서 발간되였다. 1902년부터 이 잡지는《과학적철학및사회학계간》으로 이름을 고치였다. —64페지

31 《철학연구》(《*Philosophische Studien*》)는 주로 심리학문제를 연구한 관념론적류파의 잡지로서 1883년부터 1903년까지 라이프찌히에서 분트에 의하여 발간되였으며 1905년부터 1918년까지는《심리학연구》로 이름을 고치였다. —70페지

32 페트루슈까는 고골리의 소설《죽은 넋》에 나오는 인물이다. 서적애독가인 그는 아무 책이나 다 읽었으나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흥미있다고 생각한것은 언제나 문자에서 말이 나온다는것이였다. —71페지

33 엥겔스의《루드위히 포이에르바호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08페지)을 보라. —73페지

34 크릴로브의 우화《파랑새》를 보라. 우화는 이러하였다. 파랑새 한마리가 해변가에 날아와 바다를 불태워버리겠노라고 흰소리를 쳤다. 온 세상은 이 괴상한 일을 분분히 의논하면서 도대체 바다물이 어떻게 타는가를 보자고 하였다. 그런데 파랑새는 소문은 굉장히 냈지만 결국 바다를 태우지 못하고 부끄러워 제둥지로 도망치고말았다. 이 우화는 주로 허풍을 잘 치는 사람을 풍자한것이다.—74페지

35 《사상》(《*Mind*》)은 주로 철학 및 심리학 문제를 연구한 관념론적류파의 잡지로서 1876년부터 런던에서 발간되였다. —83페지

36 1908년 12월 19일에 엘리자로와에게 보낸 레닌의 서한에서 볼수있는바와 같이 처음에는 원고에《루나챠르스끼는 심지어 신이란걸〈꾸며내였다〉》고 씌여있었으나 출판물검열기관의 박해를 피하기위하여 나중에 좀 부드럽게 고쳤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신이란걸 꾸며내였다〉를…(좀 부드럽게 말하여)〈종교적개념을 꾸며내였다〉라든가 혹은 그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7권, 369페지를 보라.)—93페지

37 크릴로브의 우화 《새끼쥐와 어미쥐》를 보라. 그 우화는 이러하다. 하루는 새끼쥐가 사자가 고양이를 붙잡았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도 기뻐서 어미쥐한테 알리려 달려갔다. 그때 어미쥐는 《뭘 그리 좋아 야단이냐. 좋아해도 헛것이란다! 그 둘이 싸운다 해도 사자는 죽고말것이다. 왜냐 하면 고양이보다 더 사나운 짐승은 없으니말이다.》라고 말하였다. —105, 178, 680페지

38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74페지를 보라. —106페지

39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3, 213페지를 보라. —106페지

40 뚜르게네브의 산문시 《처세의 길》을 보라. 그 시에는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소리치는 교활한 사기군이 묘사되여있다. 이 교활한 사기군은 자기의 추행으로써 대방을 공격하는 처세철학을 설교하고 있다. 례컨대 자기가 반역자라고 할 때 대방을 보고 신념이 없는 놈이라고 공격해야 하고 자기가 노복이라고 할 때 대방을 보고 줄개라고 공격해야 남들이 자기한테는 그런 추행이 없는것으로 본다는것이다. —107페지

41 《체계적철학문고》(《*Archiv für systematische Philosophie*》)는 관념론적류파의 잡지로서 잡지 《철학문고》(주 81을 보라.)의 일부분이였다. 1895년부터 1931년까지 베를린에서 단독으로 발간되였다. 이 잡지에는 신칸트주의자 및 마흐주의자들의 문장이 독일문, 프랑스문, 영문 및 이딸리아문으로 게재되였다. —116페지

42 《칸트연구》(《*Kantstudien*》)는 독일의 철학잡지이다. 관념론자-신칸트주의자들의 간행물로서 1897년부터 1937년까지 발간되였다. 이 잡지에는 다른 관념론적류파의 대표자들도 기고하였다. —116페지

43 《자연》(《*Nature*》)은 자연과학주간잡지로서 영국자연과학자들의 간행물이였다. 1869년부터 런던에서 발간되였다. —116페지

44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의 초판을 인쇄에 교부하려고 준비할 때 엘리자로와는 《더 정직한 문필상의 적》이라는 말을 《더 원칙적인 문필상의 적》이라는 말로 고쳐놓았다. 레닌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7권, 389페지를 참조하라.) —120페지

45 위로쉴로브는 뚜르게네브의 장편소설 《연기》에 나오는 인물로서 박식가인체하는 선비의 전형이다. —122페지

46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1～222페지를 보라. —123페지

47 맑스의 《포이에르바호에 관한 제강》(《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16페지)을 보라. —127페지

48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86페지를 보라. —132, 265페지

49 같은 책, 386～387페지 —136페지

50 오르또독스는 류보위 이싸꼬브나 악셀로드의 필명이다. 그는 1892년에 로동해방단에 참가하고 1903년에 멘쉐위크에 가입하였다. 한때 경제주의, 신칸트주의 및 경험비판론에 대하여 비판을 한적이 있으나 다시 플레하노브의 멘쉐위크주의관점을 따라가 플레하노브의 철학적오유를 되풀이하였다. —137페지

51 오이겐 디쯔겐은 요제프 디쯔겐의 아들이다. 에.디쯔겐은 자기 아버지의 철학저작가운데 있는 일부 약점들을 절대화함으로써 자기 아버지의 변증법적유물론사상을 외곡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학설을 《자연1원론》, 《디쯔겐주의》 등등으로 부르면서 이것으로써 맑스주의를 《보충》하고 유물론을 관념론과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149페지

52 벨리또브란 플레하노브의 필명이다. 플레하노브는 1895년에 저서 《1원론적력사관의 발전에 관한 문제》를 출판할 때 이 필명으로 서명하였다. —151페지

53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25～126페지를 보라. —168페지

54 같은 책, 130페지 —169페지

55 1868년 12월 5일에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2권)을 보라. —170, 319페지

56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가리키고있다. 맑스의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제강》(1845년)과 엥겔스의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1888년) 및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 즉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영문판 서문(1892년)(《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16～19페지; 제4권, 210～254페지; 제3권, 379～403페지를 보라.) —173페지

57 맑스의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제강》과 엥겔스의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 및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영문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16페지; 제4권, 221페지; 제3권, 387페지)을 참조하라. —173페지

58 맑스는 《자본론》 제1권에서 속류경제학가 써니어의 리론을 비판하였다.(《자본론》, 한문판, 제1권, 제7장, 제3절을 보라.) —174페지

59 **게.에.슐제**는 고대회의론을 현대화하려고 시도한 독일의 관념론철학자이며 흄의 신도이다. 그는 고대희랍의 회의론철학자 에네지데무스의 이름을 그의 주요한 철학저작의 이름으로 삼았기때문에 철학사상에서 슐제-에네지데무스라고 불리웠다. —177페지

60 **《철학평론》**(《*Revue de Philosophie*》)은 프랑스의 관념론적잡지로서 1900년부터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189페지

61 **캉캉무**란 프랑스의 연회장소에서 류행되던 저급적인 무용이다. —194페지

62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60, 62, 74～75페지를 보라. —198페지

63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39, 242페지를 보라. —198페지

64 **《자연철학년감》**(《*Annalen der Naturphilosophie*》)은 관념론적실증론류파의 잡지로서 1902년부터 1921년까지 라이프찌히에서 웨.오스트왈드의 편집하에 출판되였다. —210페지

65 **키메라**란 희랍신화에 나오는 사자대가리, 양의 몸뚱이에 뱀의 꼬리를 가진 불을 뿜는다는 짐승이다. —212페지

66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81~82페지를 참조하라. —220페지

67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91페지를 보라. —224페지

68 《자연과학》(《*The Natural Science*》)은 평론성을 띤 월간잡지로서 1892년부터 1899년까지 런던에서 발간되였다. —223페지

69 《철학평론》(《*The Philosophical Review*》)은 미국의 관념론적 철학잡지로서 1892년부터 보스톤에서 발간되였다. —235페지

70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의 초판에서는 《웃음이 아니라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말 대신에 《웃음이 날뿐만이 아니다.》라고 인쇄되여있었다. 레닌은 교정지를 본후 엘리자로와에게 이 개소를 시정하거나 또는 정오표에 《〈웃음이 날뿐만이 아니다〉를 〈웃음이 아니라 혐오감을 일으킨다.〉로 고쳐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레닌의 시정은 이 저서 초판의 중요정오표에 게재되였다. —239페지

71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53~154페지를 보라. —240페지

72 19세기 70년대 후반기에 독일사회민주당내에 형성되였던 기회주의적류파를 가리킨다. 이 류파의 주요한 대표인물들로는 칼 회히베르그, 에.베른슈타인, 제.아.쉬람, 즉 악명높은 쮜리히3인조였다. 그들은 계급투쟁, 무산계급정당, 무산계급의 력사적사명에 관한 맑스주의학설을 전면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들은 계급합작을 설교하면서 압박자들을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을 일반적인 인류박애라는데다 융화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무산계급정당을 참된 인예정신을 가지고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른바 전면적당으로 변화시키려고 주장하였으며 로동자들은 교양이 부족하여 자기스스로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없으므로 《교양있는》 대소자산자들에 의하여 해방되여야 한다고 그들을 모욕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그들의 철두철미한 기회주의를 사정없이 비판하였으며 이 류파의 대표인물들을 《반혁명공담가》들이라고 하였다. 이 류파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비판에 관하여는 맑스와 엥겔스가 《아.베벨, 웨.립크네히트, 웨.브라케 등에게 보낸 회람편지》를 보라.(《맑스엥겔스전

집》, 한문판, 제19권, 172～190페지) —259페지

73 《사회주의자》(《*Le Socialiste*》)는 프랑스의 주간신문으로서 겔게드에 의하여 1885년에 빠리에서 창간되였다. 1902년이전에는 로동당기관지였고 1902～1905년에는 프랑스사회당기관지였으며 1905년부터는 프랑스의 사회당기관지였다. 80～90년대에는 엥겔스, 뽈 라파르그, 게.웨.쁠레하노브가 이 신문에 기고하였다. —260페지

74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6페지를 참조하라. —263, 310, 741페지

75 엥겔스의 다음과 같은 저서들, 다시말하면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1888년)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1892년), 즉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영문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10～254페지; 제3권, 379～403페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263페지

76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9페지를 보라. —264페지

77 《내재론철학잡지》(《*Zeitschrift für immanente Philosophie*》)는 유아론인 가장 반동적인 주관적관념론을 설교한 독일의 철학잡지이다. 1895년부터 1900년까지 베를린에서 발간되였다. —270페지

78 우편기관내에 짜리정부에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서신을 비밀리에 검사하는 《우편검열실》이 있다는것을 부인한 내각대신 스똘리삔의 허위적인 성명을 가리킨다. —283페지

79 노즈드료브는 고골리의 소설 《죽은 넋》에 나오는 지주로서 싸움질과 협잡질을 일삼았다. —287, 624페지

80 엥겔스의 《반듀링론》(《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54～356페지)을 참조하라. —295, 477페지

81 《철학문고》(《*Archiv für Philosophie*》)는 신칸트주의자 및 마흐주의자들이 발간하는 독일관념론적류파의 철학잡지로서 1895년부터 1931년까지 베를린에서 발간되였다. 이 잡지는 동시에 두가지 책, 즉 철학사를 취급한 책과 철학의 일반적문제를 취급한 책 두가지로 발간되였다. —305페지

82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4페지를 보라. —326페지

83 《심리학년감》(《Année Psychologique》)은 프랑스의 관념론적 심리학자집단의 간행물로서 1894년부터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334페지

84 《리론과학 및 실용과학의 일반적평론》(《Revue générale des Sciences pures et appliquees》)은 프랑스잡지로서 1890년부터 1940년까지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337페지

85 이스크라파란 《이스크라》지의 옹호자들을 말한다.

《이스크라》(《Искра》)는 1900년에 레닌에 의하여 창간된 최초의 전 로씨야적 맑스주의의 비합법적신문이였다. 《이스크라》는 로씨야로동계급의 혁명적맑스주의정당을 창건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경찰의 박해로 하여 로씨야에서는 혁명적신문을 발행할수 없음을 고려하여 레닌은 씨비리류형당시에 벌써 국외에서 신문을 발간할 상세한 계획을 생각하였다. 1900년 1월에 레닌은 류형이 끝나자 곧 이 계획의 실현에 착수하였다.

《이스크라》 창간호는 1900년 12월 24일에 라이프찌히에서 발간되였으며 그후부터는 뮨헨에서, 그리고 1902년 4월부터는 런던에서, 1903년 봄부터는 제네바에서 발간되였다.

《이스크라》 편집부에는 레닌, 게.웨.플레하노브, 유.오.마르또브, 빠.베.악셀로드, 아.엔.뽀뜨레쏘브, 웨.이.자쑬리치가 참가하였다. 1901년 봄부터 엔.까.크룹스까야가 편집부의 비서로 있었다. 사실에 있어서 《이스크라》의 주필과 지도자는 레닌이였다. 그는 《이스크라》에 당의 건설 및 로씨야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모든 기본문제들에 관계되는 론설들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생활에서의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론평을 썼다.

로씨야의 많은 도시들(뻬쩨르부르그, 모스크바 등)에서 레닌적이스크라파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소조 및 위원회가 건립되였다.

이스크라파조직들은 레닌에 의하여 배양된 직업적혁명가들(엔.

에.바우만, 이.웨.바부슈낀, 에스.이.구쎄브, 엠.이.깔리닌 등)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산생되고 사업하였다.

《이스크라》 편집부는 레닌의 창의와 그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당의 강령초안을 작성하고 1903년 7～8월에 진행될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를 준비하였다.

대회가 소집되기전에는 로씨야의 사회민주당 지방조직들의 대다수가 《이스크라》를 옹호하였으며 그의 전술, 강령 및 조직계획을 찬성하였고 그것을 자기들의 지도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대회는 특별결의에서 당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이스크라》의 특수한 역할을 지적하고 《이스크라》를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중앙기관지로 선포하였다.

제2차대회에서 레닌, 쁠레하노브, 마르또브를 성원으로 하는 편집부가 확정되였다. 마르또브는 당대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편집부에 드는것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이스크라》 제46～51호는 레닌과 쁠레하노브의 편집하에 출판되였다. 후에 쁠레하노브는 멘쉐위크주의의 립장으로 넘어가 대회에서 이미 부결되였던 원 멘쉐위크편집원들을 《이스크라》 편집부에 죄다 참가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레닌은 이에 동의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를 강화하며 거기에서 멘쉐위크적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기 위하여 레닌은 1903년 11월 1일에 《이스크라》 편집부를 탈퇴하였다. 제52호는 쁠레하노브 한사람의 편집하에 출판되였다. 1903년 11월 26일에 쁠레하노브는 대회의 의사를 어기고 제마음대로 이전의 멘쉐위크 편집원들을 《이스크라》 편집부에 보충하여넣었다. 이리하여 멘쉐위크들은 《이스크라》를 제52호로부터 자기들의 기관지로 만들었다. 《이때로부터 당내에서는 레닌의 볼쉐위크적<이스크라>를 구<이스크라>라고 부르고 멘쉐위크의 기회주의적<이스크라>를 신<이스크라>라고 부르게 되였다.》(《쏘련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판, 57페지를 보라.) —85, 635, 705, 885페지

86 경제파인 아끼모브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발언을 가리킨다. 아끼모브는 《이스크라》에서 제출한 당의 강령을

반대하였는데 그 리유의 하나는 당강령에서 《무산계급》이라는 말이 주어로 되지 않고 보조어로 되였다는것이다. —350페지

87 《철학 및 심리학 제 문제》(«*Вопросы Философии и Психологии*»)는 로씨야의 관념론적류파의 잡지로서 1889년부터 1918년 4월까지 모스크바에서 발간되였다. 1894년부터는 모스크바 심리학협회에 의하여 발간되였는데 주필은 로빠찐이였다. 《합법적 맑스주의자》들인 스뜨루웨와 불가꼬브가 일적 이 잡지의 출판사업에 참가하였었다. 스똘리삔반동년대에 이 잡지는 보그다노브 및 기타 마흐주의자들의 철학론문들을 게재하였었다. —388페지

88 로씨야인민동맹은 짜리정부가 혁명을 탄압하기 위하여 1905년 10월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만들어낸 극히 반동적인 군주파흑백단조직이다. 동맹은 반동지주, 부농, 대방산주, 상인, 경관, 신부, 무직업룸방자, 형사범죄분자들로 조직되였다.

동맹은 실제상 《정교(政教), 전제, 민족》이라는 농노제시대의 낡은 구호를 자기의 반동강령으로 삼았다. 동맹이 혁명을 탄압하는 주요한 수단은 유린과 살해였는바 그들은 혁명적 로동자들과 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모임을 가진 군중들을 몰아내고 총질하였으며 유태인을 유린하는것과 같은 비로씨야민족에 대한 미친듯한 박해를 감행하였다. 동맹은 1917년 2월자산계급민주혁명시기에 취소되였다. —388페지

89 《로씨아의 부》(«*Русское Богатство*»)는 1876년부터 1918년 중기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행되던 월간잡지이다. 이 잡지는 90년대초부터 자유주의적인민파의 기관지로 되였으며 크리웬꼬와 미하일롭스끼에 의하여 편집되였다. 이 잡지는 짜리정부와 타협할것을 주장하였고 짜리정부에 대한 모든 혁명투쟁을 포기할것을 고취하였으며 맑스주의 및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을 혹독하게 반대하였다. 1906년부터 이 잡지는 절반립헌민주당인 《인민사회당》의 간행물로 되였다. —407, 597, 715, 867페지

90 E가치란 아베나리우스의 용어이다. 아베나리우스는 《순수경험비판》 제1권 15페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서술할수 있는 어미한

가치든지 만약 우리 주위환경의 구성부분으로 가정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R라고 한다.》《서술할수 있는 어떠한 가치든지 만약 타인이 서술한 내용으로 간주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E라고 한다.》 E는 독일어의 Erfahrung(경험)이란 단어의 첫째 자모이며 또한 독일어의 Erkenntnis(인식)란 단어의 첫째 자모이기도 하다. —409페지

91 엥겔스의 《맑스와 로드베르투스 〈철학의 빈곤〉 독일문판 서문》(《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1권, 209페지)을 보라. —410, 549페지

92 이 구절은 뚜르게네브의 소설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괴테의 4행으로 된 시를 고쳐서 말한것인데 레닌은 그것을 뚜르게네브의 소설 《처녀지》에서 인용하였다.(《뚜르게네브전집》, 1930년 로문판, 제9권, 183페지를 보라.) —411페지

93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81～85페지)을 가리킨다. —417페지

94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2권을 보라. —426페지

95 맬사스주의란 자본주의를 변호하기 위한 일종 반동적인 인구론으로서 영국자산계급경제학자 말사스에 의하여 명명된것이다. 말사스는 단언하기를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장하지만 생활수단은 산수급수로 증장하기때문에 인구의 증장속도가 생산수단의 증장속도를 초월하는 이것은 자연현상의 영구한 법칙이라고 하였다. 그는 빈궁, 기아, 온역, 번중한 로동, 전쟁 등은 인구를 감소시켜 인구와 생활수단이 서로 적응되게 하는 결정적요소라고 여기면서 온갖 방법으로 인구의 번식을 제한할것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으로부터 근로인민을 리탈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본주의제도에 의하여 조성된 상대적잉구과잉 및 사회의 모든 재난을 모두 자기가 구상해낸 이 자연법칙에 귀결시켰다.

맑스-레닌주의경전저작가들은 말사스주의의 반과학성 및 그 반동본질을 폭로하였으며 절대적인구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근로인민들의 빈궁은 착취에 기인된다는것을 증명하였다. —426페지

96 바자로브는 뚜르게네브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 나오는 인물이다. —431페지

97 이 서한의 날자는 1843년 10월 3일로 되여야 한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7권, 443～446페지를 보라. —436페지

98 《독일-프랑스년지》(《*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는 빠리에서 출판되던 독일문잡지인데 맑스와 아.루게가 주필을 담당하였다. 이 잡지는 1844년 2월에 쌍월간 한호밖에 내지 못하였다. 이 잡지가 폐간된 주요원인은 맑스와 자산계급급진주의자인 루게와의 사이에 원칙적인 의견상이가 있었기때문이다. —436, 733페지

99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2권을 보라. —437페지

100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3권을 보라. —437페지

101 엥겔스의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영문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92～395페지)을 보라. —437페지

102 본문에서 지적된 그 몇해동안에 엥겔스는 다음과 같은 저서의 집필을 끝냈다. 즉 《반듀링론》(1878년),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1888년) 및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영문판 서문(1892년)이다. —438페지

103 엥겔스의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2페지)을 참조하라. —439페지

104 《국외신문》(《*Заграничная Газета*》)은 1908년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로씨야교민집단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로씨야문으로 출판된 주간신문이다. 이 신문을 꾸리는데는 보그다노브, 루나챠르스끼 및 기타 소환파분자들이 참가하였다. —455페지

105 《교육》(《*Образование*》)은 문학, 통속과학 및 사회정치를 취급한 종합적월간잡지로서 1892년부터 1909년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1902～1908년에는 맑스주의자들도 이 잡지에 기고하였다. —445페지

106 이 구절은 성경 《마가복음》에서 나온 말이다. 유다는 예수를 저버린 배반자로서 예수와의 키스를 밀고의 암호로 삼았다. —451페지

107 보브친스끼와 도브친스끼는 고골리의 희극《검찰관》에 나오는 두 지주이다. 그 두사람은 용모도 비슷하거니와 특징도 비슷하다. 그들은 진종일 할일없이 쓸데없는 론쟁을 즐기며 도처에서 소식들을 알아다가는 그것을 퍼뜨리기를 좋아하였다. 어느 하루 그들은 《검찰관》에 대한 소식을 탐문하고서 시장한테 보고하러 갔다. 한 사람이 자기가 검찰관에 대한 소식을 듣자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야!》 하고 웨쳤다고 말하자 다른 한사람도 앞다투어 자기가 먼저 《야!》 하고 웨쳤다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었다. —455페지

108 1908년에 발간된 두 소책자 즉 왈렌찌노브의《맑스주의의 철학체계》와 유슈께위치의《유물론과 비판적실재론》을 가리킨다. —460페지

109 《제4장 제1절의 보충. 체르늬쉡스끼는 어느 편으로부터 칸트주의를 비판하였는가?》의 원고는 레닌이 저서가 이미 인쇄에 교부된후인 1909년 3월 하반월에 엘리자로와에게 보낸것이다. 레닌은 1909년 3월 23일 또는 24일에 엘리자로와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추가부분을 보냅니다. 이것때문에 출판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시간이 허락된다면 책의 결론뒤에다 다른 활자체로, 례컨대 소활자로 첨부하기 바랍니다. 저는 체르늬쉡스끼를 마호주의자들에 대치시켜놓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7권, 394～395페지를 보라.) —464페지

110 《언론》(《*Речь*》)은 1906년 2월부터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된 로씨야립헌민주당의 중앙기관지이다. 1917년 11월 8일에 뻬뜨로그라드쏘베트군사위원회에 의하여 폐간된후 다른 이름으로 출판되다가 1918년 8월에 정간되였다. —469, 608, 667페지

111 이 시는 엔.아.네크라쏘브의 장편시《로씨야에서 유쾌하고 자유로운자 그 누구냐》(《네크라쏘브작품집》, 1950년 로문판, 241페지)에서 인용하였다. —470페지

112 근로파는 소자산계급민주주의파집단으로서 1906년 4월에 제1차국회내의 농민의원들로 조직되였다. 근로파의원단은 4차의 국회에

다 존재하였다.

근로파는 일체 신분적제한 및 민족적제한의 철폐, 지방 및 도시 자치기관의 민주화, 일반적선거에 의한 국회선거를 요구하였다. 근로파의 토지강령은 인민파의 토지평균사용제원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였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관유지, 황족령지, 황실령지, 사원(寺院)소유지 및 사적소유토지(만일 차지한 면적이 규정된 로동토지량을 초과하였다면)로써 전인민적토지를 구성하고 토지경작자본인만이 토지사용권을 가지는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내놓은 사적소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기로 규정한다. 토지개혁은 지방농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근로파는 배외주의립장을 취하였다. 2월자산계급민주혁명후에 근로파는 인민사회당원들과 함께 반혁명진영으로 넘어갔다. 근로파는 10월혁명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472, 496, 532, 539, 547, 630, 869페지

113 **인민의지당**은 인민파의 조직인 토지 및 자유그루빠가 분렬된후 1879년에 조직된 비밀단체이다. 이 당은 짜리정부의 개별적대표인물들에 대한 암살을 주요한 투쟁수단으로 삼았다. 짜리 알렉싼드르2세가 인민의지당원들에게 암살(1881년 3월 1일—신력 13일)당한 얼마후 인민의지당은 짜리정부에 의하여 분쇄되였다. 그후 인민파의 다수가 짜리제도와의 혁명투쟁을 단념하고 짜리전제제도와의 조정과 타협을 설교하였다. 19세기 80년대 및 90년대의 자유주의적인민파들은 부농계급의 리익을 대표하였다. —472, 536페지

114 맑스의 《〈헤겔법철학비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2페지)을 참조하라. —476페지

115 엥겔스의 《망명자문헌》(《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87~595페지)을 보라. —476페지

116 **문화투쟁**이란 19세기 70년대에 비스마르크정부가 취한 일련의 법률적조치들에 대하여 자산계급자유주의파가 붙인 명칭이다. 이 조치들은 세속문화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허울밑에 독일서남부 각 중소국가의 지주와 자산계급들의 분렬주의경향을 지지하고있는 천주

교회와 중앙당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였다. 비스마르크의 이 정책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바 그것은 종교적광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써 일부 로동자들을 계급투쟁으로부터 리탈시키려는것이였다. 80년대에 비스마르크는 반동세력을 그러모으기 위하여 이 조치들중의 대부분을 취소하였다. —477페지

117 독일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강령**은 1875년의 고타강령을 대신하는것으로서 1891년 10월 에르푸르트대회에서 채택되였다. 에르푸르트강령은 라쌀주의의 교조적인것을 없애버렸기때문에 고타강령보다 진보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에르푸르트강령에는 주로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원리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군주제를 뒤엎고 민주공화국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지 못한 등의 엄중한 오유도 있다. 1891년 6월에 엥겔스는 이 강령의 초안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2권, 263～280페지를 보라.) —477페지

118 맑스의 《프랑스국내전쟁》 독일문 제3판에 대한 엥겔스의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331페지를 참조하라.)을 가리킨다. —478페지

119 《**리정표**》는 립헌민주주의자들의 론문집으로서 1909년에 모스크바에서 발간되였다. 이 론문집에는 엔.베르쟈예브, 에스.불가꼬브, 뻬.스뜨루웨, 엠.게르쉔존 및 기타 반혁명적자유주의자산계급대표자들의 론문이 수록되였다. 로씨야지식인들에 관한 론설들에서 리정표파들은 로씨야의 혁명적민주주의의 전통을 비방하려고 시도하였으며 1905년의 혁명운동을 모독하였고 짜리정부가 《총검과 감옥으로써》 자산계급을 구원하여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 론문집은 지식인들에게 전제정부에 복무할것을 호소하였다. 레닌은, 론문집 《리정표》의 강령은 철학면에 있어서나 정론면에 있어서 흑백단적신문인 《모스크바시보》의 강령에 못지않으며 이 론문집을 《**자유주의자적변절의 백과사전**》, 《민주주의파에 대한 반동적모독》이라고 불렀다. —486, 507, 596페지

120 **요한 모스트**는 독일사회민주주의자이며 후에 무정부주의자로 되였

다. —486, 503, 768페지

121 《무산자》(《*Пролетарий*》)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통일)대회이후 볼쉐위크들이 창간한 비합법적신문이다. 1906년 9월 3일부터 1909년 12월 11일까지 레닌의 편집하에 모두 50호가 발간되였다. 《무산자》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모스크바위원회 및 뻬쩨르부르그위원회 기관지의 이름으로 발간되였으며 한때는 모스크바주, 뻬름, 꾸르스크, 까잔 위원회 기관지의 이름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무산자》는 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였다. 《무산자》의 첫 20호는 핀란드에서 발간되였다. 1908년 2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 신문은 제네바에서 발간되였고 1909년 1월 21일부터는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이 신문에는 레닌의 론문과 단평이 100여편이나 실렸다. 스똘리삔반동시기에 《무산자》는 볼쉐위크조직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면에서 탁월한 역할을 놀았다. 1910년 1월에 소집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뜨로쯔끼의 숨어있는 대리인이며 조력자인 융화파들은 수단을 꾸며 《무산자》를 폐간할데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488페지

122 불리긴국회는 1905년에 짜리정부가 소집하기로 약속한 자문성《대의기관》이다. 자문성국회를 건립할데 관한 법안과 국회선거조례는 내무대신 불리긴을 위수로 한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여 1905년 8월 6일(신력 19일)에 공포되였다. 볼쉐위크는 불리긴국회를 적극적으로 보이꼬트할것을 선포하였다. 《불리긴국회가 전혀 소집되지 않았다. 그것이 소집되기전에 혁명적선풍이 그것을 소탕하여버렸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253페지를 보라.)—490, 636, 810페지

123 짜리는 로씨야의 혁명적대중투쟁의 핍박에 의하여 1905년 10월 17일(신력 30일)에 조서를 반포하여 공민들에게 자유를 줄것과 《립법》국회를 성립할것을 약속하였다. 이것은 시간을 쟁취하여 혁명력량을 분열시키고 파업운동을 파괴하며 혁명을 탄압하기 위한 짜리정부의 정치적기만술책이였다. 볼쉐위크당은 이 음모를 철저히

폭로하면서 무산계급에게 짜리전제제도의 철저한 전복을 위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할것을 호소하였다. —490, 596페지

124 **1907년 6월3일(신력 16일)정변**은 반동적인 정변이였다. 이 정변에서 정부는 제2차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선거법을 뜯어고치였다. 새 선거법은 국회내에서의 지주와 공상업자산계급의 의원석을 많이 증가시키고 원래 많지 않던 농민과 로동자의 의원석을 태반이나 축소시켰다. 새 선거법은 로씨야의 아세아부분의 주민대부분의 선거권을 박탈하였으며 뽈스까와 깝까즈의 의원석을 절반이나 축소시켰다. 이 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되였으며 1907년 11월에 소집된 제3차국회는 그 의원들의 구성요소로 보아 흑백단-립헌민주당적국회였다.

6.3정변으로부터 《6.3체제》로 소문난 스똘리삔반동시기가 시작되였다. —490, 595, 667페지

125 **10월당 또는 10월17일동맹**은 대공업자산계급과 자본주의적방식으로 산업을 경영하는 대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반혁명적정당으로서 1905년, 짜리의 10월 17일(신력 30일)조서가 발표된후에 성립되였다. 10월당원들은 10월17일조서(이 조서에서 혁명에 질겁한 짜리는 인민에게 공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를 말로는 승인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짜리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하려하지 않았으며 짜리정부의 대내대외정책을 완전히 지지하였다. 이 당의 지도자는 대공업가 아.구치꼬브와 대령지소유자 엠.로쟌꼬였다. 1906년 가을부터 10월당은 집정당으로 되였다. —491, 520, 638, 667페지

126 1905년 1월 9일(신력 22일)에 정탐국의 간첩인 가뽄신부는 도발적목적으로 뻬쩨르부르그로동자들의 평화적인 대오를 조직하여가지고 동궁에 들어가 짜리에게 청원서를 바치도록 하였다. 이에 짜리는 적수공권인 로동자들에게 사격할것을 군대에 명령하였다. 짜리정부의 이런 폭행은 전국로동자들의 거대한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1월 9일은 1905～1907년의 로씨야혁명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493, 841페지

127 독일사회민주당 청년파는 소자산계급적절반무정부주의적집단으로서 1890년에 조직되였다. 이 집단의 기본핵심은 《중퇴한 대학생들》과 청년문학가들이다(집단의 이름은 여기에서 생겼다). 이 집단의 강령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어떠한 의회활동에의 참가도 거부하였다. 엥겔스는 《청년파》를, 《알목과 음모로써 당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혁명적공담》만 쾌치는 영웅들이라고 하였다. 1891년 10월에 청년파는 독일사회민주당 에르푸르트대회에서 출당당하였다.—127페지

128 에프.아.조르게에게 보낸 엥겔스의 1886년 11월 29일부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56페지)을 참조하라.—505, 1117페지

129 소환주의는 로씨야 1905～1907년혁명이 실패한후에 볼쉐위크대오내에 산생된 기회주의적파벌로서 그 대표인물들로는 보그다노브, 포크롭스끼, 루나챠르스끼, 부브노브 등이다. 이 파벌은 제3차국회로부터의 사회민주당대표의 소환과 합법적조직내에서의 활동정지를 요구하였다. 소환주의는 1907년 볼쉐위크내부에 존재한, 보그다노브와 까메네브를 위수로 한 기회주의적조류—보이꼬트주의를 직접 계승하였다. 1908년에 소환파는 레닌을 반대하는 단독적집단을 형성하였다. 소환파는 국회, 직업동맹, 협동조합 및 합법적 또는 절반합법적 군중조직에의 참가를 견결히 거부하였으며 비밀활동만을 극력 주장하였다. 소환파는 《혁명적》언사를 허울로 내걸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취소파의 로선을 집행하였다. 즉 그들은 당으로 하여금 합법적투쟁형식을 리용할수 없게 하고 비당적대중들로부터 리탈되게 함으로써 반동파의 타격을 받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레닌은 소환파를 《새형의 취소파》, 《문패를 바꾸어 단 멘쉐위크》라고 불렀다.—510페지

130 산악파와 지롱드파는 18세기말 프랑스자산계급혁명시기의 두 자산계급정치파벌이다. 산악파는 일명 쟈꼬벵파이라고도 하는데 당시의 혁명적계급 즉 자산계급중의 가장 견결한 대표자들로서 군주제도와 봉건주의를 소멸할것을 주장하였다. 지롱드파는 산악파와는 달리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뒤흔들리다가 나중에는 군주파와

결탁하는 길로 나아갔다.

레닌은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파를 《사회민주당적지롱드파》라고 불렀으며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을 무산계급적쟈꼬뱅파(산악파)라고 불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이 볼쉐위크와 멘쉐위크로 분렬된후 레닌은 멘쉐위크들을 로동운동내의 지롱드파라고 여러 번 지적하였다. —513페지

131 **《우리의 서광》**(《*Наша Заря*》)은 멘쉐위크취소파의 합법적월간잡지로서 1910년부터 1914년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이 잡지를 둘러싸고 로씨야취소파의 중심이 형성되였다. 이 잡지가 폐간된후 1915년 1월부터 잡지 《우리의 사업》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515, 572, 585, 623, 826, 862페지

132 **취소파**는 로씨야의 1905~1907년혁명이 실패한후인 스똘리삔반동시기에 나타났다. 그 당시 멘쉐위크들은 당강령에 제기된 혁명적요구와 당의 혁명적구호를 포기하고 비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무산계급의 혁명적당을 취소하려고 시도하면서 합법적범위내에서 활동하는 《합법적인 로동자당》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취소파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1912년의 쁘라하대표자회의는 취소파들을 당에서 몰아냈다. 레닌의 저서 《론쟁문제》(이 책 580~607페지)를 참조하라. —516, 572, 608, 614, 641, 783, 871, 1042페지

133 **《생활사업》**(《*ДеЛо Жизни*》)은 멘쉐위크취소파의 합법적잡지로서 1911년 1~10월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부흥》(《*Возрождение*》)은 멘쉐위크취소파들의 합법적잡지로서 1908년 12월부터 1910년 7월까지 모스크바에서 발간되였다. —517, 590페지

134 1908년 12월 21~27일(신력 1909년 1월 3~9일)에 빠리에서 열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전국대표회의의 결의를 가리킨다. 회의에 참석한 16명의 표결권을 가진 대표중에는 볼쉐위크가 5명, 멘쉐위크가 3명,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가 5명, 분드파가 3명이 있었다. 레닌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대표였다. 그는

대표회의에서 《당면형세와 당의 과업에 관하여》란 보고와 또한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에 관한 연설, 조직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회의에서 볼쉐위크들은 당내의 두 기회주의의, 즉 취소주의와 소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대표회의는 취소주의를 규탄하였으며 전체 당조직들에 당을 취소하려는 시도와 견결히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대표회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볼쉐위크의 결의를 채택하였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판, 제1분책, 245～260페지를 참조하라.)—517, 580, 623페지

135 《사회민주주의자의 목소리》(*«Голос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а»*)는 멘쉐위크취소파의 국외기관지로서 1908년 2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처음에는 제네바에서, 다음에는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517페지

136 1906년 11월 9일(신력 22일)에 반포된 《농민토지소유 및 토지사용현행법에 대한 약간한 규정에 관한 보충》법령과 1910년 6월 14일(신력 27일)의 《농민토지소유에 대한 약간한 규정에 관한 수정과 보충》법률은 농민들이 공동체로부터 퇴출하는데 관한 규정과 분여지를 그들의 사유로 할데 관한 규정을 확정하였다. —520페지

137 이와누쉬까란 로씨야 민간이야기에 나오는 바보의 이름이다. —523페지

138 당옹호파 멘쉐위크(멘쉐위크당옹호파)란 멘쉐위크취소파로부터 떨어져나와 취소주의를 반대하여나선 쁠레하노브를 위수로 한 멘쉐위크소단체를 말한다.

1908년 12월에 쁠레하노브는 취소파의 신문 《사회민주주의자의 목소리》 편집부로부터 탈퇴하였으며 1909년 8월에 자기의 《사회민주주의자의 일지》를 재간하였다. 쁠레하노브와 그의 집단은 멘쉐위크의 립장에 머물러있으면서 당의 비합법적조직과 비합법적사업을 보존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볼쉐위크들과의 협의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레닌은 볼쉐위크들에게 멘쉐위크당옹호파들의 취소파로부터의

분리를 백방으로 촉진시키며 사상성과 당성을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그들과 접근하며 련맹내의 《의견상이》가 당을 보위하며 취소파를 반대하기 위한 《공동사업, 공동공격, 공동투쟁을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당옹호파분자들의 통일련맹을 창설하라고 호소하였다. 레닌은 쁠레하노브의 건의를 접수하고 그와의 잠시적인 련맹을 체결하였다. 쁠레하노브일파들도 볼쉐위크들과 함께 지방위원회와 볼쉐위크의 신문인 《별》, 《로동자》의 사업에 참가하였다. 쁠레하노브는 또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기관지인 《사회민주주의자》의 사업에 참가하였다.

일부 로동자대중들을 가지고있던 쁠레하노브일파와 통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레닌적전술은 볼쉐위크들이 합법적로동조직에서 자기 영향을 더욱 광범히 확대하며 취소파들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레닌의 주장은 쓰딸린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1911년말에 이르러 쁠레하노브는 볼쉐위크들과의 련맹을 파괴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내의 《파벌활동》 및 분렬활동을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그는 볼쉐위크와 기회주의자들을 타협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쁠레하노브일파는 뜨로쯔끼분자, 분드파 및 취소파들과 더불어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쁘라하대표회의를 반대하였으며 볼쉐위크들을 제멋대로 중상하였다. —524, 584, 617페지

139 **《론쟁전란》**(《*Дискуссионный Листок*》)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부간이다. 1910년 3월 19일부터 1911년 5월 12일까지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도합 3호가 나왔다. —524페지

140 **스똘리삔로동당**이란 로동자들이 멘쉐위크취소파를 가리켜 부른 이름이였다. 그것은 그들이 스똘리삔제도에 양보하고 그와 타협하면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강령과 전술을 포기함으로써 소위 《로동자적》정당의 합법적존재에 대한 짜리정부의 허락을 받으려 하였기때문이다. —526페지

141 **비론**은 로씨야 녀황제 안나 이와노브나통치시기(1730～1740년)에 총애를 받던 대신이다. 게르만귀족출신인 그는 권세를 리용하여

갖은 술책으로써 인민을 기만, 박탈하였으며 또 포악무도하여 력사상에서 그 시기를 《비론폭정시기》라고 부른다.

아락체예브는 짜리 빠웰1세와 알렉싼드르1세 시기의 륙군대신이다. 그는 포악한 군벌통치의 실시자로서 소문이 났다. — 529페지

142 **12월당원**이란 짜리정부와 농노제를 반대하여 일으킨 1825년 12월 14일봉기에 의하여 명명된 로씨야의 귀족혁명자들이다.

12월당원은 세개의 비밀단체 즉 엔.엠.무라위예브가 지도하는 북방협회, 뻬.이.뻬스쩰리가 지도하는 남방협회 및 아.이.보리쏘브와 뻬.이.보리쏘브 형제가 지도하는 슬라브인련합회로 구성되였다. 이런 단체들에는 모두 농노제의 페지와 짜리전제통치의 제한을 요구하는 자기의 강령이 있었다. 그러나 12월당원들은 귀족의 국한성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들의 봉기를 두려워하였으며 군사적 정변으로 자기들의 강령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였다.

12월당원들의 봉기는 짜리정부의 잔혹한 탄압을 당하여 몇백명의 봉기자들이 체포되고 무라위예브, 뻬스쩰리 등 저명한 12월당원들이 교형을 당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혁명가들의 범위는 협소하다. 그들은 인민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은 허사로 되지는 않았다. 12월당원들은 게르쩬을 깨우쳐주었고 게르쩬은 혁명적선동을 벌리였다.》(본 선집, 536~537페지를 보라.)—529, 774페지

143 아.이.게르쩬의 저서 《종말과 시초》(《게르쩬선집》, 1937년 로문판, 349페지를 보라.)에서 인용하였다. —529페지

144 자산계급공화파정부가 1848년 6월 23~26일의 빠리무산계급봉기를 잔포하게 진압한것을 가리킨다. —530, 566페지

145 아.이.게르쩬의 서한 《옛친구에게 보내는 서한》(네번째 서한과 두번째 서한)(《게르쩬선집》, 1937년 로문판, 385, 379페지를 보라.)에서 인용하였다. —531페지

146 **사회혁명당**은 로씨야의 소자산계급정당으로서 1902년초에 몇개의 각이한 인민파 단체와 소조들이 혼합되여 이루어진것이다. 사회혁명당은 부농계급의 리익을 대표하였다. 사회혁명당원들의 견해는

인민주의와 수정주의가 절충된 혼합물이다. 사회혁명당원들은 《인민주의의 결함들을 맑스주의에 대한 류행식기회주의적〈비판〉의 조박지들로 미봉하려고 애쓴다.》고 레닌은 지적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295페지를 보라.)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혁명당원들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917년 2월자산계급민주혁명후 사회혁명당원들은 멘쉐위크, 립헌민주주의자들과 함께 반혁명림시정부의 주요골간으로 전락되였다. 사회혁명당원들은 지주토지소유를 폐절하려는 농민들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고 지주토지사적소유권을 보존할것을 주장하였다.

1917년 12월 사회혁명당원좌익들은 자립적좌익사회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은 겉으로는 쏘베트정권을 승인하고 볼쉐위크와 협의를 달성하였으나 인차 또 쏘베트정권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무력간섭 및 내전 기간에 사회혁명당원들은 수차 부농반란을 획책하고 공산당과 쏘베트국가의 지도자들을 암해하기 위한 반혁명적음모를 책동하였다. 내전이 끝난후 사회혁명당은 쏘베트국가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 감행하여오다가 나중에는 쏘베트정권에 의하여 분쇄되고말았다. —532, 539, 725, 796, 869, 931페지

147 **농민동맹**(전로씨야농민동맹)은 1905년에 건립된 혁명적민주주의조직이다. 1905년 8월과 11월에 모스크바에서 소집된 제1차 및 제2차 동맹대회에서 동맹의 강령과 전술이 제정되였다. 농민동맹은 정치적자유와 립헌회의의 즉시적소집을 요구하였으며 제1차국회에 대하여 보이꼬트하는 전술을 취하였다. 동맹의 토지강령에는 토지사적소유제의 폐지, 사원, 교회당, 황실, 각부(阁部) 및 국가의 토지를 무대가로 농민들에게 넘겨줄 요구가 들어있다. 동맹은 자기의 정책에서 한때 불철저성과 동요성을 나타냈었다. 동맹은 일면 지주토지사적소유의 취소를 요구하는 동시에 또 지주에게 일부분의 보수를 주는데 동의하였다. 농민동맹은 그 활동의 첫시작부터 경찰의 박해를 받았다. 전로씨야농민동맹은 1906년말에 해산되였다.

—532, 539폐지

148 《종소리》(《Колокол》)는 정치잡지로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노라!》라는 구호밑에 발간되였다. 이 잡지는 게르쩬이 창설한 자유로씨야인쇄소에서 아.이.게르쩬과 엔.뻬.오가료브가 1857년부터 1865년 4월까지는 런던에서, 1865년부터 1868년 12월까지는 제네바에서 매달 1호 또는 2호씩 간행하였다. 1868년에 이 잡지는 프랑스문으로 발간하고 뒤에 로문부간을 첨가하였다. —533폐지

149 《북극성》은 문학정치론문집으로서 첫 3권은 주로 아.이.게르쩬에 의하여 출판되였고 그후의 몇권은 주로 게르쩬과 엔.뻬.오가료브에 의하여 1855년부터 1862년까지 런던의 자유로씨야인쇄소에서 출판되였다. 마지막 한권은 1868년에 제네바에서 간행되였다. 모두 8권이 나왔다. —533폐지

150 《인민》(《*Le Peuple*》)은 벨지끄로동당(개량주의당)의 중앙기관지로서 1884년부터 브뤼쎌에서 발행되였다. —538폐지

151 손중산의 저서 《중국혁명의 사회적의의》를 가리킨다. 이 론문의 역고와 레닌의 론문은 동시에 신문 《네와의 별》에 발표되였다.—538폐지

152 헨리 죠지는 19세기 미국의 소자산계급경제학자이며 정론가이다. 그는 인민대중이 토지를 박탈당한것이 인간이 부유한자와 가난한자로 나뉜 유일한 원인이라고 그릇되게 인정하면서 사적토지에 대한 단일한 부진세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의한 자산계급국가의 토지국유화를 설교하였으며 이것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일체 모순을 해결하려고 망상하였다. 헨리 죠지의 관점은 맑스, 엥겔스와 레닌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5권, 191～193페지;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58～260페지; 《레닌전집》, 한문판, 제13권, 379페지를 보라.)—543폐지

153 (1) 맑스의 《철학의 빈곤》(《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144～154페지를 보라.), (2)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47장, 제5절, (3) 《잉여가치설》, 제2책, 제9장, 제10절을 가리킨다. —544폐지

154 엘.구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1871년 4월 12일부 서한을 가리킨다.

서한은 빠리꼼뮨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93페지를 보라.)—547페지

155 《계몽》(《*Просвещение*》)은 볼쉐위크의 사회-정치-문학월간잡지로서 1911년 12월부터 뻬쩨르부르그에서 합법적으로 발간되였다. 이 잡지는 모스크바에서 발간되다가 짜리정부에 의하여 페간된 볼쉐위크들의 잡지 《사상》 대신에 레닌의 지시에 의하여 창간된것이다. 레닌은 국외에 있으면서 《계몽》잡지를 지도하였다. 이 잡지에는 레닌의 다음과 같은 저작들 즉 《맑스주의의 세가지 원천과 세가지 구성부분》, 《선거운동에서의 몇가지 원칙문제》, 《선거의 총화》, 《민족문제에 관한 비판적의견》, 《민족자결권에 관하여》 등이 발표되였다.

쓰딸린은 1912년과 1913년에 뻬쩨르부르그에 체류하는 동안 이 잡지 사업에 직접 참가하였다. 《계몽》잡지에는 쓰딸린의 론문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즉 《맑스주의와 민족문제》)이 게재되였다.

《계몽》은 1914년 6월 제1차세계대전전야에 짜리정부에 의하여 페간되였다. 1917년 가을에 《계몽》은 복간되였으나 합간호 한호가 나왔을뿐이다. 거기에는 레닌의 두편의 저서 《볼쉐위크들은 국가정권을 유지할수 있는가?》와 《당강령의 수정에 대하여》가 게재되였다. —572, 592, 641페지

156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260페지)을 보라. —575, 746페지

157 《쁘라우다》(《*Правда*》)는 레닌의 지시에 좇아 쓰딸린의 발기로 창간된 볼쉐위크의 합법적일간신문으로서 1912년 5월 5일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발행되였다.

《쁘라우다》는 대중적인 로동자신문으로서 로동자들의 의연금에 의하여 발행되였다. 《쁘라우다》는 많은 로동자통신원과 로동자작가를 가지고있었다. 《쁘라우다》는 한해동안에만 해도 1만 1,000여편의 로동자통신을 실었다. 《쁘라우다》의 발행부수는 매일 평균 4만부인데 어떤 달에는 매일 평균 6만부에 달하였다.

당시 볼쉐위크는 쁘라우다파로 불리웠다. 쓰딸린은 《1912년의 〈쁘라우다〉는 1917년의 볼쉐위크주의의 승리에 기초를 닦아주었다.》고 말하였다.

레닌은 국외에서 《쁘라우다》의 사업을 지도하면서 거의 매일 신문에 글을 쓰고 편집부에 지시를 주었다. 쓰딸린은 1912년 9월에 나림류형지에서 탈주한후 《쁘라우다》의 지도사업에 참가하였다. 1913년 1~2월에는 야.엠.스웨르들로브가 이 신문의 편집을 담임하였다. 1913년 2월에 쓰딸린은 스웨르들로브와 함께 레닌의 지시에 의하여 《쁘라우다》 편집부를 재조직하였다.

《쁘라우다》는 창간된후의 2년 남짓한 동안에 8차나 짜리정부에 의하여 페간되였다. 그러나 페간되였을 때마다 이 신문은 《로동자쁘라우다》, 《북방쁘라우다》, 《로동쁘라우다》, 《진리옹호》, 《무산계급쁘라우다》, 《진리의 길》, 《로동자신문》, 《로동의 진리》 등 다른 명칭으로 계속 발행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야인 1914년 7월 21일에 《쁘라우다》는 페간되였다. 2월혁명후 1917년 3월 18일부터 《쁘라우다》는 복간되여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의 중앙기관지로 되었다. 3월 28일, 중앙위원회 상무국확대회의에서는 쓰딸린을 《쁘라우다》편집부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레닌은 1917년 4월에 로씨야로 돌아온후 《쁘라우다》를 직접 령도하였다. 7월사변후 레닌이 지하로 들어감에 따라 쓰딸린이 신문의 책임편집을 담당하였다. 1917년 7~10월기간에 림시정부의 박해로 하여 《쁘라우다》는 《〈쁘라우다〉소형신문》, 《무산자》, 《로동자신문》, 《로동자의 길》 등으로 4차나 명칭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발행되였다. 11월 9일부터 신문은 다시 《쁘라우다》라는 옛이름으로 발행되였다. —580, 616, 628, 667, 668, 826, 888페지

158 《광선》(《Луч》)은 멘쉐위크취소파의 합법적인 일간신문으로서 1912년 9월부터 1913년 7월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레닌은 이 신문은 《자산계급동료들의 돈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말하였다. 《광선》은 1913년 7월부터 처음에는 《현대생활》로, 후에는 《신로동자》, 《북방로동자》 및 《우리의 로동자신문》 등으로 바뀌

였다. —580, 625, 888페지

159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통일)대회에서 채택된 지방자치체소유에 관한 멘쉐위크의 토지강령을 가리킨다. 레닌은 그의 저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통일대회에 관한 보고》 및 《1905～1907년 제1차로씨야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에서 이 강령을 비판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10권, 295～315페지; 제13권, 234～342페지를 보라.)—584페지

160 《사회민주주의자의 일지》(《*Дневник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а*》)는 게.웨.쁠레하노브에 의하여 발간된 비정기적기관간행물로서 1905년 3월부터 1912년 4월까지 제네바에서 나오며말며하면서 도합 16호가 발간되였다. 《일지》는 1916년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다시 복간되였으나 겨우 한호가 나왔을뿐이다. —160페지

161 전진파(전진집단)는 1909년 12월에 아.보그다노브와 게.알렉씬스끼의 창의에 의하여 소환파, 최후통첩파, 창신파 및 마호주의자들로 구성된 반혁명집단이다. 1912년에 전진파분자들은 멘쉐위크취소파분자들과 함께 볼쉐위크를 반대하는 반당련맹을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곧 뜨로쯔끼에 의하여 조직된 8월련맹이다.

전진집단은 로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데서 실제상에서는 1913년에 이미 와해되였으며 1917년의 2월혁명후에는 철저히 와해되였다. —586, 619페지

162 1910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 1월전원회의에서 당내의 상태를 취급하여 채택한 취소주의 및 소환주의를 비난하는 결정을 인용하였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인민출판사, 제1분책, 299～300페지를 보라.)—586페지

163 《네와의 목소리》(《*Невский Голос*》)는 멘쉐위크취소파의 합법적신문으로서 1912년 5～8월기간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586페지

164 안은 깝까즈멘쉐위크의 수령 엔.엔.죠르다니야의 필명이다. —591, 628페지

165 《현대생활》(《*Живая Жизнь*》)은 멘쉐위크취소파의 합법적신

문으로서 1913년 7월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592페지

166 《신로동자신문》(《*Новая Рабочая Газета*》)은 멘쉐위크취소파의 합법적일간신문으로서 1913년 8월에 뻬쩨르부르그에서 창간되였다. 1914년 1~5월에는 《북방로동자신문》이, 같은 해 5~7월에는 《우리의 로동자신문》이 이 신문을 대체하여 발간되였다. 레닌은 늘 이 신문을 《신취소파신문》이라고 불렀다.—592, 614, 717, 711페지

167 진보파는 로씨야자유군주파자산계급의 정치집단으로서 《그 구성으로 보나 그 사상체계로 보나 이것은 10월당 당원과 립헌민주주의자와의 잡종이다》(《레닌전집》, 한문판, 제18권, 496페지). 진보파의 수령으로서는 모스크바공장주 랴부쉰스끼와 꼬노왈로브였다. 1912년 11월에 진보파는 자립적인 정당으로 되였다.—596, 667, 773페지

168 《해방》(《*Освобождение*》)은 자산계급자유파의 격주간잡지로서 1902~1905년기간에 뻬.베.스뜨루웨의 편집하에 국외에서 발간되였다. 1904년 1월부터 《해방》은 자유군주파해방단의 기관간행물로 되였다. 후에 해방파는 립헌민주주의자의 핵심으로 되였다.—596페지

169 모스크바무장봉기가 절정에 도달하였던 1905년 12월 11일(신력 24일)에 짜리정부가 반포한 《립법적》국회의 소집에 관한 법령을 가리킨다. 1905년 12월11일법령에 의하여 선거된 제1차국회는 립헌민주주의자의 국회였다.—597페지

170 1912년 제4차국회선거시에 짜리로씨야 주교공회의 총감이며 반동분자인 싸블레르는 국회의 의원구성을 짜리정부에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신부들에게 선거에 적극 참가할것을 지시하였다. 레닌은 그 신부들을 가리켜 《싸블레르파신부들》이라고 불렀다. —597페지

171 스뜨루웨주의 즉 《합법적맑스주의》란 맑스주의에 대한 자산계급개량주의적외곡이다. 뻬.베.스뜨루웨 및 기타 《합법적맑스주의자》들은 맑스주의기치와 로동운동을 리용하여 자산계급의 리익을 도모하려고 시도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에서 스뜨루웨주의는

국제기회주의의 맹아이며 후에는 베른슈타인주의 및 카우쯔키주의 형태를 취하게 된 수정주의의 맹아라는것을 폭로하였으며 스뜨루웨주의는 필연적으로 자산계급의 민족자유주의에로 발전하게 되리라는것을 지적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스뜨루웨는 로씨야제국주의사상가의 한사람으로서 맑스주의어구들을 리용하여 사회배외주의를 고수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승리는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할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도래를 촉진할것이다.》(이 책 797페지를 보라.)라는 허위적구실로 략탈적인 전쟁, 병란과 민족압박을 위하여 변호하였다. —600, 786, 861페지

172 **분드** 즉 리트와, 뽈스까 및 로씨야유태인로동자총동맹은 1897년에 건립되였는데 주로 서부로씨야 각 성의 유태인수공업자들을 련합하고있었다. 1898년 3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1차대회에서 분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분드파는 분드를 유태인무산계급의 유일한 대표자로 인정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대회에서 분드의 조직상의 민족주의를 규탄한후 분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서 탈퇴하였다.

1906년 제4차(합동)대회후 분드는 다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다. 분드파는 줄곧 멘쉐위크를 지지하고 볼쉐위크를 반대하였다. 분드는 형식상으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으나 실상은 자산계급민족주의적성격을 띤 조직이였다. 분드는 볼쉐위크의 민족자결권이라는 이 강령적요구와는 상반되는 민족적-문화적자치요구를 제기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분드파는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으며 1917년에는 반혁명적림시정부를 지지하여 10월사회주의혁명의 적들편에 서있었다. 국내전쟁시기에 분드파의 저명한 성원들은 반혁명세력과 결탁하였고 보통성원들은 전변하기 시작하여 쏘베트정권과 합작할것을 주장하였다. 국내의 반혁명과 외국무장간섭자들에 대한 무산계급독재의 승리가 날로 가까와오자 분드는 더는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지 않을것을 성명하였다. 1921년 3월에 분드는 자체로 해산되였다. 그리하여 그 부분적성원들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 가입하였다. 볼쉐위크당에 가입한 어떤 분드파성원들은 량면파로서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당에 가입하였다. 후에 그들은 인민의 원쑤로 적발되였다. —602, 641, 892폐지

173 1912년 8월에 윈에서 열린 취소파의 8월대표자회의를 가리킨다. 이 회의에서 뜨로쯔끼의 조직하에 반당적8월련맹이 결성되였다. 회의에는 분드대표, 깝까즈구역위원회대표, 라트위야변강구역 사회민주당대표 및 국외에 거주하는 각 취소파단체 즉 《사회민주주의자의 목소리》 편집부, 윈에서 발간되는 뜨로쯔끼의 《쁘라우다》와 전진집단 및 기타 단체의 대표들이 출석하였다. 로씨야국내에서는 뻬쩨르부르그와 모스크바의 취소파의 《발기소조》 및 취소파의 잡지 《우리의 서광》과 《네와의 목소리》 편집부가 대표를 파견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사회민주로동당의 조직 《스삘까》(《련맹》) 국외위원회의 대표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대표의 대다수는 국외에 거주하는, 로씨야로동계급과는 아무런 련계도 없는 사람들이였다.

대표자회의는 사회민주당의 전술상의 모든 문제에서 취소파의 반당적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비합법적당의 존재를 거부하였다.

형형색색의 분자들로 조직된 8월련맹은 대표자회의가 열리자 사분오렬되기 시작하였으며 취소파는 중앙위원회를 선출할수가 없게 되자 조직위원회만을 내왔다. 볼쉐위크의 타격하에 반당적8월련맹은 재빨리 철저히 와해되였다. —603, 625, 711, 891폐지

174 모스크바예술극장이 에프.엠.도스또옙스끼의 반동소설 《악령》을 개편하여 상연하는것을 반대항의하여 아.엠.고리끼가 신문지상에 발표한 글을 가리킨다. 자산계급신문은 도스또옙스끼의 이 극을 비호하였다. —608폐지

175 《로씨야사상》(《*Русская Мысль*》)은 자유주의적인민파의 월간잡지로서 1880년부터 1918년중기까지 모스크바에서 발간되였다. 1905년혁명이후에는 립헌민주당우익의 기관간행물로 되였으며 뻬.베.스뜨루웨가 주필이였다. —611, 654폐지

176 《투쟁》(《*Борьба*》)은 뜨로쯔끼가 꾸린 잡지로서 1914년 2~7월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뜨로쯔끼는 《비파벌성》이라는

가짜간판을 내걸고 이 잡지에서 레닌을 반대하고 볼쉐위크당을 반대하였다. —613, 707페지

177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합동)대회**는 1906년 4월 23일~5월 8일기간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57개 지방당조직을 대표하여 표결권을 가진 대표 112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22명이 참가하였다. 그밖에도 대회에는 또 각 민족 사회민주당대표—뽈스까 및 리트와 사회민주당, 분드 및 라트위야 사회민주로동당의 대표 각기 3명, 우크라이나사회민주로동당과 핀란드로동당의 대표 각 1명, 또 벌가리아사회민주로동당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볼쉐위크대표는 46명이였고 멘쉐위크대표는 62명이였다. 대회에서는 주로 토지문제, 현정세와 무산계급의 계급적임무에 대한 평가문제, 국회에 대한 태도문제, 조직문제들이 심의되였다. 이 모든 문제들에서 볼쉐위크와 멘쉐위크들간에는 치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레닌은 대회에서 토지문제, 현정세에 관한 문제, 국회선거에 대한 전술문제, 무장봉기문제에 관하여 보고와 연설을 하였다.

보잘것없는것이기는 하였으나 대회에서의 멘쉐위크의 우세는 대회의 모든 결의들의 성격을 결정하였다. 일련의 문제들에서 대회는 멘쉐위크의 결의들(토지강령, 국회에 대한 태도문제 및 기타에 관하여)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레닌이 제기한 당원자격에 관한 당규약 제1조의 조항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뽈스까 및 리트와의 사회민주당, 라트위야사회민주로동당과 같은 민족적사회민주주의 단체들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였으며 분드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가입문제를 미리 결정하였다.

대회에서 선거된 중앙위원회는 볼쉐위크 3명, 멘쉐위크 7명으로 구성되였고 중앙기관지 편집부는 멘쉐위크들만으로 구성되였다.

대회의 사업에 대한 분석은 레닌의 론문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합동대회에 관한 보고》(《레닌전집》, 한문판, 제10권, 286~351페지)와 쓰딸린의 《현정세와 로동당합동대회》(《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권, 231~253페지)와 《제1권에 대한 저자의 서문》(《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권, 7~10페지)을 보라.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대회는 1907년 5월 13일～6월 1일 기간에 런던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표결권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도합 336명이 참석하였다. 그중 볼쉐위크대표가 105명, 멘쉐위크대표가 97명, 분드대표가 57명, 뽈스까사회민주당 대표가 44명, 라트위야사회민주당 대표가 29명, 《무파벌》대표가 4명이였다. 뽈스까대표와 라트위야대표가 볼쉐위크를 지지하였기때문에 볼쉐위크는 대회에서 충분한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회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 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 (2) 국회의원단의 사업보고와 국회의원단의 조직, (3) 자산계급정당에 대한 태도, (4) 국회, (5) 《로동자대회》 및 비당적로동자조직, (6) 직업동맹 및 당, (7) 유격활동, (8) 실업, 경제공황 및 동맹휴업, (9) 조직문제, (10) 슈투트가르트국제대회(5.1, 군국주의), (11) 군대내에서의 사업, (12) 기타. 자산계급정당에 대한 태도문제에 관한 레닌의 보고는 본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대회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에서 볼쉐위크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가 선출되였는데 볼쉐위크가 5명, 멘쉐위크가 4명, 뽈스까사회민주당원이 2명, 라트위야사회민주당원이 1명이였다. 그리고 볼쉐위크는 10명, 멘쉐위크는 7명, 뽈스까사회민주당원은 3명, 라트위야사회민주당원은 2명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였다.

대회는 당내의 기회주의파벌인 멘쉐위크에 대한 볼쉐위크의 승리로 끝났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대회의 정황에 관해서는 레닌의 《자산계급정당들에 대한 태도》(《레닌전집》, 한문판, 제12권, 476～496페지)와 쓰딸린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런던대회(한 대표자의 수기)》(《쓰딸린전집》, 한문판, 제2권, 49～75페지)를 보라. —615페지

178 1912년 1월 18～30일에 열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6차(쁘라하)전국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가리킨다. 이번 대표회의에는 20여개 당조직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므로 실제상에 있어서는 한차례의 당의 대회였다. 레닌은 이번 대표자회의를 지도하였다. 그는 일련의 보고들을 하였으며 회의일정에 오른 각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결의초안을 작성하였다.

회의는 멘쉐위크취소파를 출당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볼쉐위크와 멘쉐위크와의 한 당내에 있던 형식상의 통일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었다. 볼쉐위크는 하나의 정치적파벌로부터 하나의 자립적당으로 되였다. 쁘라하대표자회의는 신형의 정당, 레닌주의의 당 즉 볼쉐위크당을 창립하였다. —615, 887페지

179 전진파가 분렬되여 생긴 두 집단—워이노브(즉 루나챠르스끼)를 위수로 한 집단과 알렉센스끼를 위수로 한 집단—을 가리킨다. —617페지

180 이른바 **볼쉐위크당옹호파**라는것은 인수가 극히 적은 하나의 융화파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레닌측에 선 볼쉐위크들파의 대항을 표명하기 위하여 볼쉐위크당옹호파라고 자칭하였다. 그들은 취소파, 전진파 및 뜨로쯔끼 등과 함께 레닌과 쁘라하대표자회의의 결의를 맹렬히 반대하였다. —617페지

181 **이우두슈까 골로블로브**는 쌀띄꼬브-쉐드린의 소설《골로블료브나으리들》에 나오는 극히 리기적이고 허위적이며 잔혹하고 탐욕적이며 미련한 지주이다. —624페지

182 《전진》(《*Vorwärts*》)은 독일사회민주당의 중앙기관지로서 1876년 10월에 라이프찌히에서 발행되였다. 엥겔스는 일찍 이 신문에서 온갖 기회주의적인 표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90년대 후반기 즉 엥겔스가 서거한후 《전진》은 독일사회민주당과 제2국제당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던 기회주의자들의 론문들을 자주 신군 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전진》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에 서있었다. 이 신문은 베를린에서 1933년까지 발간되였다. —626, 821, 1069페지

183 **7인조**(치헤이제의원단)란 제4차국회에 참가한 사회민주당의원단의 7명의 멘쉐위크취소파의원을 말한다.(이 책 872페지를 참조하라.)—627, 872, 1131페지

184 **6인조**(로동자유권자단체6인소조)란 제4차국회 사회민주당볼쉐위크의 6명 의원들인 아.예.바다예브, 엠.까.무라노브, 게.이.뻬뜨롭

스끼, 예프.엘.싸모일로브, 엔.에르.샤고브, 에르.웨.말리놉스끼(후에 발견된데 의하면 간첩이였음.)를 말하는데 그들은 로동자유권자단체의 선거에 의하여 국회에 참가하였다. —629페지

185 당사업일군들의 참석하에 진행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회의(비밀을 기하기 위하여 《하기회의》 또는 《8월회의》라고 불렀다.)는 1913년 9월 23일～10월 1일(신력 10월 6～14일)기간에 뽀로닌촌에서 열리였다. 이해 여름에 레닌은 이곳에 거주하였다.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들 즉 중앙위원회, 중앙기관지 편집부, 《계몽》잡지 편집부,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 뻬쩨르부르그, 모스크바, 하리꼬브, 예까쩨리노슬라브, 꼬스뜨로마, 끼예브 및 우랄 조직의 대표 22명이 참가하였다. 뽈스까사회민주당의 대표는 회의에 렬석으로 참가하였다. 중앙위원들인 쓰딸린, 야.엠.스웨르들로브, 에스.에스.스빤다랸은 그 당시 류형지에 있었기때문에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심의하였다. (1) 각 지방의 보고, 뽈스까사회민주당의 사업보고, 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 (2) 민족문제, (3) 사회민주당의 국회사업에 관하여, (4)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의 정형에 관하여, (5) 조직문제 및 당대회, (6) 파업운동에 관하여, (7) 합법적단체들에서의 사업에 관하여, (8) 인민파에 관하여, (9) 당출판물에 관하여, (10) 윈에서 열리게 될 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 관하여. 첫 이틀동안은 국회의 실제사업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의 전문회의가 열리였다.

회의는 레닌의 지도하에 진행되였다. 레닌은 개회사를 하고 중앙위원회사업보고, 민족문제에 관한 보고, 윈에서 열릴 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이밖에도 레닌은 일정에 오른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자기의 제안을 내놓았으며 결정초안들을 작성하였다.

지방의 보고들에서는 로동운동의 가일층의 앙양이 지적되였다. 회의는 로동계급의 전국적규모에서의 진출을 지도하기 위하여 당사업을 전 로씨야적으로 통일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레닌은 중앙위원회의 총결보고에서 1912년에 열린 로씨야사회

민주로동당 쁘라하대표자회의이래의 중앙위원회사업을 총화하였다. 1914년에 윈에서 열릴 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 관한 보고에서 레닌은 비밀적 및 합법적 조직들로부터 될수록 많은 수의 대표들을 대회에 파견할것을 제의하였으며 이 대회와 동시에 당대회를 열것을 지적하였다. 회의는 레닌의 폐회사로 끝났다.

뽀로닌회의의 회의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정은 중앙위원회가 《당사업일군들의 참석하에 진행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 1913년 하기회의 통보 및 결정》이란 제목으로 국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비밀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결정들은 원문을 그대로 발표하지 못하였다. 례컨대 파업운동에 관한 결정 제6조와 당출판물에 관한 결정 제1～5조는 생략되여있었다. 제 결정의 완전한 원문은 비밀적인 옵세트판으로 발표되였다. —629페지

186 1906년에 뽈스까소자산계급민족주의당인 뽈스까사회당은 뽈스까사회당좌익과 뽈스까사회당우익(프라크파)으로 분렬되였다.

뽈스까사회당《좌익》은 민족주의를 완전히는 버리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뽈스까사회당의 허다한 민족주의적요구와 테로적투쟁수단을 버리였다. 전술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로씨야멘쉐위크취소파와 비슷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볼쉐위크를 반대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당좌익의 대다수 사람들은 국제주의적립장에 서있었으며 뽈스까사회민주당에 접근하였다. 1918년 12월에 그들은 공동으로 뽈스까공산주의로동당을 조직하였다. 뽈스까사회당《우익》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민족배외주의정책을 집행하여 독일-오지리제국주의를 지지하였다. 후에 뽈스까사회당우익은 다시 뽈스까사회당이라는 이 명칭을 채용하였다. —633, 680페지

187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는 1903년 7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회의 전13차회의는 브류쎌에서 열리였다. 그후에는 경찰들의 박해로 하여 런던에 옮겨가서 열리였다. 회의는 도합 37차 진행되였다. 대회의 일정에는 모두 20개 문제가 들어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주요한것은 당의 강령, 당의 조직(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규약비준), 당의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

부의 선거문제였다. 대회에는 26개 조직을 대표하여 43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51표의 표결권을 가지였고(그중 8명의 대표는 제각기 표결권 2표씩 가졌다.) 14명의 대표들이 발언권을 가지였다.

대회는 레닌이 지도하는 《이스크라》에 의하여 준비되였다. 레닌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하였다.

이 대회의 주요한 임무는 《<이스크라>가 제창하고 작성한 원칙적 및 조직적 기초우에서 진정한 당을 창건하는데 있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195페지를 보라). 로씨야에 혁명적무산계급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진행한 레닌의 거대한 투쟁은 제2차대회에서 끝내 승리하였다.

제2차대회의 력사적의의는 바로 맑스, 엥겔스가 서거한후의 국제로동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한 혁명적강령을 채택한데 있다. 레닌은 무산계급독재의 승리를 전취하기 위한 임무를 제기하면서 농민혁명투쟁의 중대한 의의를 치중하여 지적하였다. 대회는 민족자결권을 당강령에 기입함으로써 무산계급국제주의원칙을 수호하였다.

제2차대회에서는 건당조직원칙을 둘러싸고 치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레닌과 그의 전우들은 당의 역할에 대한 맑스주의기본원리를 수호하였다. 즉 당은 로동계급의 선진적이고 자각적이며 조직적인 부대로서 혁명적리론, 사회발전법칙과 계급투쟁법칙의 지식 및 혁명운동의 경험으로 무장되였다. 오직 이처럼 고도로 자각적이고 조직적이며 단결집중되고 통일적인 의지가 있는 당만이 로동계급을 인도하여 승리에로 나아갈수 있으며 정권을 탈취할수 있다. 제2차대회에서 기회주의자들과 진행한 레닌의 비타협적투쟁은 중대한 국제적의의를 가진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의 의의에 대한 평가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 한문판, 55～56페지를 보라. —638, 701, 920페지

188 《12개 민족의 침공》이란 1812년 로씨야에 대한 나뽈레옹1세의 침공을 형용한것이다. 그때 나뽈레옹침략군은 그 민족적구성으로 보

아 매우 복잡하였는바 프랑스사람이 3분의 1밖에 안되였다. 여기에서는 이 말로써 맑스주의강령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형용하였다. —641페지

189 렌네르와 바우에르의 소위 《민족문화자치》의 반동사상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레닌의 론문 《〈민족문화〉자치에 관하여》와 《민족문제에 관한 비판적의견》(《레닌전집》, 한문판, 제19권, 504～507페지; 한문판, 제20권, 1～35페지) 및 쓰딸린의 《맑스주의와 민족문제》(《쓰딸린전집》, 한문판, 제2권, 289～358페지)를 보라. —644, 867, 911페지

190 《사회민주당평론》(《*Przeglad Socialdemokratyczny*》)은 에르.룩셈부르그의 비밀적인 참가하에 뽈스까사회민주당에 의하여 발간된 잡지이다. 1902～1904년, 1908～1910년에 크라꼬브에서 발간되였다. —645페지

191 맑스의 《자본론》, 한문판, 제1권, 제25장을 참조하라. —646페지

192 **련합귀족평의회**는 로씨야지주들의 반혁명조직으로서 1906년 5월에 성립되였다. 이 평의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다. 제3차국회시기에는 매우 많은 회원들이 국무회의 및 흑백단조직의 지도중심에 가담하였다. —666, 774페지

193 《길》(《*Шляхи*》)은 민족주의적경향을 가진 우크라이나학생련맹의 기관지로서 1913년 4월부터 1914년 3월까지 리워브에서 발간되였다. —668페지

194 《신시대》(《*Новое Время*》)지는 1868년부터 1917년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던 일간신문으로서 처음에는 온화한 자유주의자의 신문이였으나 1876년부터는 반동적귀족 및 관료집단의 후설로 변하여 혁명운동뿐아니라 자유주의적자산계급운동도 반대하였다. 1905년부터 이 신문은 흑백단단원들의 기관지의 하나로 되였다. 레닌은 《신시대》지는 매수당한 신문의 전형이라고 지적하였다. 2월혁명후 이 신문은 자산계급림시정부의 반혁명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볼쉐위크를 미친듯이 공격하였으며 1917년 11월 8일에 뻬뜨로그라드의 쏘베트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하여 페간되였다.

《서민》(《Земщина》)은 흑백단적일간신문으로서 국회의 극우익의원들의 기관지였다. 1909년 7월부터 1917년 2월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670페지

195 우스펜스끼의 단편소설 《보초막》에서 나온 말이다. 이 소설에는 직권을 람용하여 걸핏하면 사람을 잡아가두고 석방하려 하지 않는 쁘리쉬브예프라고 하는 경찰이 묘사되여있다. 《끌어들이고 내보내지 말라》는 말은 짜리경찰의 전횡을 형용하는 격언으로 되였다. —671페지

196 《끼예브사상》(《Киевская Мысль》)은 로씨야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일간신문으로서 1906년 12월부터 1918년 12월까지 끼예브에서 발간되였다. 이 신문의 사업에는 멘쉐위크취소파들이 적극 참가하였다. —673페지

197 아.에스.그리보예도브의 희극 《지혜의 슬픔》(《그리보예도브전집》, 1945년 로문판, 39페지를 보라.)에서 인용한 말이다. —676페지

198 《전진》(《Naprzód》)지를 가리킨다. 이 신문은 1892년부터 크라꼬브에서 발행된 갈리찌야 및 실레지엔의 뽈스까사회민주당 중앙기관지이다. —679페지

199 농노제를 철페한 1861년의 로씨야의 개혁을 말한다. 이것은 농노제적착취를 반대하는 농민대중운동의 앙양 및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짜리정부가 부득이 실시한 개혁이다. 1861년 2월 19일(신력 3월 3일) 짜리 알렉싼드르2세는 농민들을 농노제적예속관계로부터 해방할데 관한 개혁법령을 비준하였으며 로씨야에서 농노제를 철페할데 관한 특별조서에 서명하였다. 레닌은 이 농민개혁의 기본특점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악명높은 〈해방〉은 기실 농민들에 대한 가장 잔혹한 략탈이였으며 포혁의 련속이였으며 그들에 대한 순전한 모욕이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17권, 102~103페지를 보라.)—689, 1147페지

200 1863년 1월 중앙민족위원회(1863년 5월부터 국민정부로 개칭했음.)가 령도한, 짜리로씨야에 소속된 뽈스까지역의 해방봉기를 가리킨다. 짜리전제제도의 압박을 반대하는것을 목표로 한 1863~1864년

의 봉기는 뽈스까왕국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가심화에 의해 야기되였다. 소자산계급들과 소귀족계급분자들로 구성된 민족위원회는 봉기초기에 뽈스까민족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강령 및 일련의 토지문제와 민주주의문제에 관한 요구를 공포하였다. 로씨야의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은 봉기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였다. 엔.게.체르늬쉡스끼와 련계를 맺고있던 비합법적 토지및자유그루빠의 성원들은 봉기자들을 힘껏 도왔다. 토지및자유그루빠의 중앙위원회는《로씨야관병들에게 알리는 글》이란 삐라를 뿌렸는바 이 호소문은 봉기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파견된 군대들속에 전파되였다. 아.이.게르쩬과 엔.빼.오가료브는《종소리》에 뽈스까인민의 투쟁을 성원하는 많은 문장을 발표하였으며 또 봉기자들에게 물질적원조를 주었다. 그러나 봉기정부의 불철저성, 불견결성 및 토지의 대소유자에 대한 타협으로 하여 농민의 기본대중은 봉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봉기가 실패하게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1863년 가을에 봉기는 짜리정부에 의해 기본상 탄압되였다. 개별적봉기대오의 투쟁은 1864년말까지 계속되였다. —689페지

201 민족문제에 관한 결정을 가리킨다. 이 결정은 레닌에 의하여 작성되였으며 당의 지방일군들이 참가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이 결정은《레닌전집》, 한문판, 제19권, 426～428페지에 게재되여있다. —691, 921페지

20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2권을 보라. —692페지

203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7권, 258, 286페지를 참조하라. —693페지

204 맑스의《국제로동자협회성립선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126～135페지를 보라.)을 말한다. —693페지

205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1권, 16～17페지를 보라. —693페지

206 우와 같은 책, 224페지 —694페지

207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59～360페지를 보라. —694페지

208 《타임스》(《*The Times*》)지는 영국의 가장 큰 보수파의 일간신

문으로서 1785년부터 런던에서 발간되였다. —694페지

209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1권, 307페지를 보라. —694페지

210 피니아운동이란 아일랜드의 독립과 아일랜드공화국의 창건을 위한 피니아그루빠성원들의 운동을 말한다. 19세기 50년대말에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아일랜드인들가운데서 나타났으며 후에는 아일랜드본토에서 나타난 피니아그루빠성원들은 비합법적단체인 아일랜드혁명적자매회의 참가자들이였다. 아일랜드의 농민의 리익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있는 피니아그루빠성원들은 그 사회적구성으로 보아 주로 도시소자산계급과 비귀족출신의 지식인들이였다. 피니아그루빠성원들은 음모적전술, 종파주의 및 자산계급적민족주의의 오유로 하여 아일랜드인민의 광범한 층을 리탈하였으며 자기의 활동을 당시 영국의 일반적민주주의운동과 련계시키지 못하였다. 60년대후기에, 피니아그루빠성원들이 오래동안 준비해온 1867년 2~3월무장봉기가 실패한후 이 단체의 활동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피니아운동의 약점을 거듭 지적하면서도 그의 혁명성에 대하여 매우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 운동을 대중적인 진출 및 영국로동계급의 공동행동의 길에 올려세우려고 노력하였다. —695페지

21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1권, 381페지를 보라. —695, 915페지

212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63페지를 보라. —695페지

213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1권, 418페지를 참조하라. —695페지

214 맑스에게 보낸 1868년 11월 20일부, 1869년 10월 24일부 엥겔스의 서한과 엥겔스에게 보낸 1869년 8월 18일부 맑스의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2권)을 보라. —696페지

215 토리당은 영국의 대토지귀족과 대금융귀족의 정당이다. 토리당은 17세기에 창건된후 줄곧 영국국가제도내의 보수적이고 부패한 체제를 견결히 지지하고 국내의 민주주의적개혁을 반대한 반동적대내정책의 수호자였다. 19세기 50년대말부터 60년대초사이에 낡은 토리당의 토대우에서 영국보수당이 건립되였다. —697, 1130페지

216 **국제로동자협회** 즉 제1국제당은 맑스가 런던에서 1864년 가을에 창건한것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지도한 제1국제당은 각국 로동자들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령도하였으며 쁘루동주의, 바꾸닌주의, 로동조합주의, 라쌀주의 등 반맑스주의적조류들과 날카롭게 투쟁하였으며 각국 로동자들간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하였다. 제1국제당은 1872년 헤그대회후에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활동을 중지하였으며 1876년에 정식으로 해산을 선포하였다. 제1국제당의 력사적의의는 그것이 《자본에 대한 로동자들의 혁명적습격의 준비를 위한 국제로동자조직의 기초를 닦아놓았다.》(이 선집, 한문판, 제3권, 809페지를 보라.)는데 있다. —697페지

217 **《뉴욕매일연단》**(《*New-York Daily Tribune*》)은 1841년부터 1924년까지 발간된 미국의 신문이다. —697페지

218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2권을 보라. —697페지

219 레닌은 1902년에 잡지 《서광》 제4호에 수록된 쁠레하노브의 론문 《로씨야사회민주당강령초안》을 인용하고있다.

《서광》(《*Заря*》)은 맑스주의적과학-정치잡지로서 《이스크라》 편집부에 의하여 1901~1902년기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발간되였다. 이 잡지는 도합 4호(3책)가 발간되였는데 첫호는 1901년 4월에 발간되였고 제2, 제3호는 합본으로 1901년 12월에 발간되였으며 제4호는 1902년 8월에 발간되였다. 《서광》잡지는 《시론》, 《지방자치국의 압박자들과 자유주의의 한니발들》 및 《토지문제와 〈맑스의 비판가들〉》의 전4장, 《내정평론》 및 《로씨야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과 같은 레닌의 글을 실었다. —702페지

220 크릴로브의 우화 《은사와 곰》을 보라. 이 우화에서는 은사와 곰이 벗이 되여 어느날 함께 산보를 나갔다가 도중에서 은사가 피곤하여 단잠이 들었는데 곰은 은사의 코등에 앉은 파리를 쫓기 위하여 큰 돌을 들어 벗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도우려고 한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것을 가리켜 부질없는 곰의 봉사라고 한다. —707페지

221 이것은 쌀띄꼬브-쉐드린의 《국외에서》(《쌀띄꼬브-쉐드린선집》, 1947년 로문판, 344~350페지를 보라.)란 수필에서 나온 말이다.—

709페지

222 《종소리》(《Дзвін》)는 멘쉐위크의 합법적민족주의적월간잡지로서 1913년 1월부터 1914년중순까지 끼예브에서 우크라이나어로 발간되였다. —710페지

223 레닌은 크림전쟁당시, 1855년 8월 4일의 쵸르나야강전역을 묘사하여 세와스또폴의 병사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를 인용하고있다. 이 노래의 작자는 엘.엔.똘스또이였다.(《똘스또이전집》, 1935년 로문판, 제4권, 307~308페지를 보라.)—712페지

224 인민사회당은 1906년에 성립된 소자산계급정당으로서 사회혁명당우익으로부터 갈라져나온 사회혁명당원들로 구성되였다. 이 당은 립헌군주제범위내에서의 온화한 민주주의적요구를 제기하였다. 인민사회당원들은 토지사회화에 대한 사회혁명당원들의 강령적원칙을 거부하고 속배하는 방법으로 지주의 토지를 징수할것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인민사회당원들을 《소시민적기회주의자》, 《사회립헌민주당원》, 《사회혁명당멘쉐위크》라고 불렀다. 인민사회당의 지도자들로는 아.웨.뻬쉐호노브, 웨.아.먀꼬찐, 엔.에프.안넨스끼 등이였다.

2월자산계급민주혁명이후 인민사회당은 자산계급림시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반혁명진영으로 넘어갔다. —715페지

225 《시보》(《Цайт》)는 분드의 기관지로서 1912년 12월부터 1914년 6월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주간신문으로 발간되였다. —717페지

226 《전쟁과 로씨야사회민주당》은 레닌이 자기가 작성한 전쟁에 관한 제강 《구라파대전에서의 혁명적사회민주당의 임무》에 근거하여 고쳐쓴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언이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선언은 그 당시 진행되고있던 전쟁의 제국주의적성질을 철저히 폭로하였고 구라파의 여러 주요한 나라의 사회당수령들의 변절행위를 날카롭게 규탄하였으며 혁명적사회민주당이 준행하여야 할 유일정확한 투쟁로선을 규정한 강령적문헌이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언은 전쟁에 대한 당의 태도를 천명하는 정식문건으로서 국제사회당 집행국(제2국제당의 집행기구)

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리예, 스위스 및 기타 나라들의 일부 사회주의적신문들에 부송되였다。 스위스사회민주당 기관지 《초병》은 1914년 11월 13일호에 이 선언의 요지를 실었다. 레닌의 지시에 의하여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언을 중립국사회주의자대표자회의에 부송하였다.

로씨야에서는 이 선언의 전문이 1915년 2월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뻬쩨르부르그위원회에 의하여 발간되는 볼쉐위크신문 《무산자의 목소리》 창간호에 실렸다. 볼쉐위크들이 로씨야의 많은 대공업중심지에서 산포한 삐라들에는 선언에서 제기된 당의 가장 중요한 론점과 구호들이 반영되여있다. —719, 892페지

227 **《사회주의월간》**(*《Sozialistische Monatshefte》*)은 독일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자들의 주요한 기관지인 동시에 국제기회주의자들의 기관지의 하나로서 1897년부터 1933년까지의 사이에 베를린에서 발간되였다. 이 잡지는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724, 825, 877페지

228 **제2국제당슈투트가르트대회**는 1907년 8월 18~24일에 열렸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37명의 대표가 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볼쉐위크의 대표들로는 레닌, 루나챠르스끼, 리트위노브 등이였다.

대회의 주요한 사업은 몇개 결의의 기초위원회내에서 진행되였다. 레닌은 군국주의와 국제분쟁문제에 관한 결의작성위원회의 사업에 참가하였다. 레닌은 로자 룩셈부르그와 함께 베벨의 결의초안에, 사회주의자에게는 전쟁에 의하여 조성된 위기를 대중의 궐기와 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하여 리용할 의무가 있다는 력사적의의를 가진 수정안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이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대회의 정황에 대해서는 레닌의 론문 《슈투트가르트국제사회주의자대회》(《레닌전집》, 한문판, 제13권, 59~65페지와 본 선집, 제1권, 966~977페지)를 보라. —724, 779, 856페지

229 **제2국제당코뻰하븐대회**는 1910년 8월 28일~9월 3일에 열렸다. 레닌, 쁠레하노브, 루나챠르스끼, 꼴론따이, 뽀크롭스끼 등이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을 대표하여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일부 문제에

대한 결의를 사전에 토의하고 작성하기 위하여 대회는 몇개의 위원회를 선출하였다. 레닌은 협동조합위원회에서 사업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 《군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투쟁》은 슈투트가르트대회결의 《군국주의와 국제분쟁》을 확인하고 사회당의원들이 의회에서 전쟁을 반대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들간의 일체 분쟁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것, (2) 전반적군비축소, (3) 비밀외교를 철폐할것, (4) 모든 민족에게 자치를 주며 군사적 침공과 간섭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것. —724페지

230 제2국제딤바젤대회는 1912년 11월 24～25일에 열렸다. 이 대회는 박두한 구라파전쟁의 위협과 관련하여 소집된 비상대회였다. 대회는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은 박두한 세계대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각국 사회주의자들에게 반전투쟁에 적극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724, 779, 855, 929, 1109페지

231 론문 《칼 맑스》는 레닌이 그라나트형제회사백과사전출판사를 위하여 쓴것이다. 1914년 봄 갈리찌야의 뽀로닌에서 쓰기 시작하여 1914년 11월 스위스의 베른에서 탈고하였다. 191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 론문의 서문에서 레닌은 론문을 1913년에 쓴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하였다.

이 론문은 웨.일리인이라는 서명으로 1915년에 사전에 수록되였는데 거기에는 부록 《맑스주의문헌》이 첨부되여있었다. 편집부는 출판물검열기관의 검열을 고려하여 《사회주의》와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전술》이라는 두절을 삭제하고 원고에 일련의 수정을 가하였다.

1918년에 파도출판사는 부록 《맑스주의문헌》은 없으나 백과사전에 수록된 형태로 레닌의 서문과 함께 이 론문을 단행본으로 발행하였다.

이 론문의 완전한 수고는 1925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레닌연구소에서 편찬한 론문집 《맑스, 엥겔스 및 맑스주의에 대하여》에 처음으로 발표되였다. —729페지

232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34페지를 보라. —729, 767페지

233 엥겔스의 저서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18페지)을 보라. —732페지

234 《라인정치상업공업신문》(《*Rheinische Zeitung für Politik Handel und Gewerbe*》)은 1842년 1월 1일부터 1843년 3월 31일까지 쾰른에서 발간된 일간신문이다. 이 신문은 프로씨아의 전제정치를 반대하는 라인성의 일부 자산계급인사들에 의하여 창간되였다. 이 신문은 몇명의 청년헤겔분자를 기고자로서 받아들이였다. 맑스는 1842년 4월부터 이 신문의 기고자로 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는 이 신문의 편집자로 되였다. 《라인신문》에는 엥겔스의 허다한 론문들도 발표되였다. 맑스가 편집자로 있던 기간에 이 신문은 혁명적민주주의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띠게 되였다. 정부는 《라인신문》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였으며 후에는 이 신문을 폐간시켰다. —732페지

235 루게에게 보낸 맑스의 1843년 9월부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권, 416페지)과 《〈헤겔법철학비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9페지)을 보라. —733페지

236 공산주의자동맹은 무산계급의 최초의 국제공산주의조직이다. 이 동맹은 맑스와 엥겔스의 지도하에 1847년 6월초에 런던에서 창건되였다. 동맹의 강령 및 조직원칙도 맑스와 엥겔스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제정되였다. 동맹의 제2차대회(1847년 11월 29일~12월 8일)는 맑스와 엥겔스가 제정한 과학적공산주의원칙을 일치하게 채택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대회의 위탁을 받고 강령적문헌 즉 1848년 2월에 발표된 《공산당선언》을 기초하였다.

1851년 5월, 경찰들이 박해하고 맹원들이 체포된 결과 독일에서는 공산주의자동맹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였다. 1852년 11월 17일에 쾰른공산주의자공판이 있은후 얼마 안되여 동맹은 맑스의 건의에 의하여 해산되였다.

공산주의자동맹은 거대한 력사적역할을 놀았다. 그것은 무산

계급혁명가를 배양하는 학교였으며 무산계급정당의 맹아였다. 공산주의자동맹맹원이였던 허다한 사람들이 국제로동자협회를 창건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동맹의 력사에 관하여서는 엥겔스의 저서 《공산주의자동맹의 력사에 대하여》(《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186～206페지)를 보라. —733페지

237 《신라인신문. 민주파기관지》(《*Neue Rheinische Zeitung Organ der Demokratie*》)는 1848년 6월 1일부터 1849년 5월 19일까지 쾰른에서 발간된 일간신문인데 이 신문의 주필은 맑스였다. 편집부에는 엥겔스, 웨.월프, 게.웨르트, 에프.월프, 에.드롱케, 에프.프라일리그라트 및 하.뷔르게르스가 참가하였다.

민주파가운데의 무산계급적일익으로서의 전투적기관지 《신라인신문》은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역할을 놀았으며 그들에게 반혁명파의 투쟁에 궐기할것을 호소하였다. 독일과 구라파 혁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신문의 립장을 규명하는 사설들은 흔히 맑스와 엥겔스가 집필하였다.

《신라인신문》의 비타협적인 확고한 립장과 전투적인 국제주의정신, 프로씨아정부와 쾰른지방당국에 대한 정치적폭로로 하여 이 신문은 창간초기부터 봉건적왕당파 및 자유주의자산계급의 출판물들의 공격과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 이런 박해는 1848년 11～12월에 있은 프로씨아반혁명정변후 더욱 혹심해졌다.

이러저러한 박해와 경찰당국의 저애에도 불구하고 《신라인신문》은 혁명적민주주의의 리익, 무산계급의 리익을 영용하게 수호하였다. 1849년 5월에 반혁명세력이 전반적공세를 들이대는 정형하에서 프로씨아정부는 맑스가 프로씨아국적을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구실로 명령을 내려 그를 프로씨아경외로 추방하였다. 맑스가 추방당하고 《신라인신문》의 기타 편집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였으므로 이 신문은 더는 발간될수 없었다. 1849년 5월 19일에 《신라인신문》은 마지막호인 제301호를 붉은 등사용잉크로 찍어냈다. 신문의 편집자들은 쾰른로동자들에게 보내는 작별인사에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그들의 마지막말은 로동계급의 해방일것이다!》라

고 하였다. —734폐지

238 1849년 6월 13일 빠리에서 소자산계급정당인 산악당은 프랑스공화국 헌법에 타국인민의 자유를 반대하여 프랑스군대를 사용할수 없게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딸리아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프랑스군대를 파견하는 헌법파괴행위에 항의하여 평화적시위를 조직하였다. 이 시위는 군대에 의하여 해제되였는데 이 실패는 프랑스에서의 소자산계급민주주의의 파산을 실증하였다. 6월 13일이후 당국은 민주주의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에는 외국교민들도 포괄되여있었다. —734폐지

239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4권, 397~754폐지를 보라. —734폐지

240 **프랑스사회당**은 1902년에 죠레스파에 의하여 창건된 개량주의적당이다. 1905년에 프랑스사회당은 게드파에 의하여 1901년에 창건된 프랑스의 사회당과 합병하여 통일적사회당을 구성하였다. 이 당에는 사회주의 당파들과 단체들의 성원들(게드분자, 블랑끼분자, 죠레스분자 등)이 가입하였다. 통일적프랑스사회당의 령도권은 당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있은 죠레스를 위수로 한 개량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당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는바 그의 국회의원단은 군사비용지출에 찬성투표하였으며 그의 대표는 자산계급정부에 참가하였다. 1920년 12월 25~30일에 열린 뚜르대회에서 프랑스사회당은 분렬되여 다수파는 프랑스공산당을 구성하였고 레옹 블룸을 위수로 한 우경기회주의소수파는 대회에서 퇴출하여 독립적인 정당을 구성하였는데 그 이름은 여전히 프랑스사회당이라고 불렀다.—736, 828, 861, 1148폐지

24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권, 159폐지를 보라. —737폐지

242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83, 98~99, 74~75, 64폐지를 보라. —737폐지

243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19, 220, 222폐지를 보라. —738폐지

244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53폐지를 보라. —739폐지

245 맑스의 저서 《포이에르바호의 제강에 관하여》(《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16～19페지)를 참조하라. —739페지
246 엥겔스의 저서 《반듀링론》(《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51, 62페지)을 보라. —740페지
247 엥겔스의 저서 《루드위히 포이에르바호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39～240, 213, 239페지)을 보라. —740페지
248 엥겔스의 저서 《반듀링론》(《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65페지)을 보라. —740페지
249 맑스의 저서 《자본론》, 한문판, 제1권, 제13장의 1절을 보라. —742페지
250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82～83페지를 보라. —743페지
251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250～251, 261～262페지를 보라. —746페지
252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07페지를 보라. —747페지
253 맑스의 저서 《자본론》, 한문판, 제1권, 제1장의 4절, 1절, 3절의 A 및 제4장의 3절을 보라. —749페지
254 우와 같은 책, 제4장의 3절을 보라. —749페지
255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66～267페지를 보라. —753페지
256 맑스의 저서 《자본론》, 한문판, 제3권, 제47장의 4절을 보라. —757페지
257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52페지를 보라. —757페지
258 맑스의 저서 《자본론》, 한문판, 제1권, 제23장의 4절을 보라. —757페지
259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474페지를 보라. —758페지
260 우와 같은 책, 696페지를 보라. —758페지
261 우와 같은 책, 473페지를 보라. —758페지
262 맑스의 저서 《자본론》, 한문판, 제3권, 제47장의 5절을 보라. —759페지
263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270페지를 보라. —762페지
264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168페지를 보라. —762페지
265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20페지를 보라. —762페지
266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170페지를 보라. —763페지

267 우와 같은 책, 310페지를 보라. —763페지

268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1863년 4월 9일부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48페지)을 보라. —764페지

269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159페지를 보라. —765페지

270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7권, 201페지를 보라. —765페지

27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9권, 344～345페지;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38페지를 참조하라. —765, 1041, 1123페지

272 **헌장파**란 헌장운동의 참가자들을 말한다. 헌장운동은 19세기 30년대로부터 50년대중기까지 인민헌장의 채택을 쟁취하기 위한 영국로동자들의 정치운동이다. 인민헌장에는 일반적선거권에 대한 요구 및 로동자들에게 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규정된 일련의 조건들이 망라되여있다. 레닌은 헌장운동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되는 광범하고 참으로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무산계급혁명운동이다.》(본 선집, 한문판, 제3권, 811페지를 보라.)라고 하였다. 영국공상업의 독점적지위가 강화되고 영국자산계급이 초과리윤으로 영국로동계급의 상층(《로동자귀족》)을 매수한데서 영국로동계급가운데의 기회주의적경향은 날로 커갔으며 로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더는 헌장운동을 지지하지 않게 되였다. 이리하여 헌장운동은 점차 약화되였다. —766페지

273 맑스에게 보낸 엥겔스의 1863년 4월 8일부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0권) 및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48페지;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1권, 199페지를 보라. —766페지

274 맑스에게 보낸 엥겔스의 1869년 11월 19일부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2권) 및 맑스에게 보낸 엥겔스의 1881년 8월 11일부 서한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5권, 19페지)을 참조하라. —766페지

275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284페지를 보라. —766페지

276 맑스의 저서 《자산계급과 반혁명》(《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322～323페지)을 보라. —767페지

277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1권, 48, 58페지를 보라. —767

페지

278 맑스에게 보낸 엥겔스의 1863년 6월 11일부 서한,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1863년 6월 12일부 서한, 맑스에게 보낸 엥겔스의 1863년 11월 24일부 서한과 1864년 9월 4일부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0권) 및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1권 40, 48, 55, 376, 408, 418페지를 보라. —768페지

279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은 비스마르크정부가 사회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반대하기 위하여 1878년 10월 21일에 제국국회의 다수의 지지하에 채택한것이다. 이 법률은 독일사회민주당을 비합법적지위에 처하게 하였으며 당의 모든 조직, 대중적인 로동자단체, 사회주의적 및 로동자들의 간행물들을 금지시키고 사회주의저작을 몰수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맑스와 엥겔스의 적극적인 방조하에 자기 대오내의 기회주의자들과 극히 《좌》적인자들을 타승하였으며 특별취체법의 유효기간에 비밀사업을 합법적기회의 리용과 정확하게 결합시켰으며 대중가운데서의 자체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확대하였다. 대중적인 로동운동의 압력하에 특별취체법은 1890년 10월 1일에 철폐되였다. 이 법률에 대한 엥겔스의 평가는 《비스마르크와 독일로동자당》이라는 론문에 있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9권, 308～310페지를 보라.) 768, 834—페지

280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4권, 54～55, 64, 89～90, 101～102, 105페지를 보라. —768페지

281 체르늬쉡스끼의 소설 《서막》(《체르늬쉡스끼전집》, 1949년 로문판, 제13권, 197페지를 보라.)에서 인용하고있다. —774페지

282 엥겔스의 《망명자문헌》(《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86페지)을 보라. —775, 867, 915, 1088페지

283 국제사회주의집행국은 제2국제당의 집행기관으로서 1900년 빠리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직되였는데 레닌은 1905년부터 1912년까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주의집행국에 참가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국제사회주의집행국은 사회배외주의적립

장을 취하였다. —779, 869페지

284 **《분드재외조직통보》**(《*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Листок Загранич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Бунда*》)는 1911년 6월부터 1916년 6월까지 제네바에서 발간되였는데 도합 11호가 나왔다. 후에 《통보》를 대신하여 계속 발행된것이 《분드재외위원회통보》인데 도합 두호가 나왔다. —779페지

285 **독일사회민주당 켐니쯔대회**는 1912년 9월 15～21일에 진행되였다. 대회는 제국주의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은 《파렴치한 략탈과 침략의 정책》이라는것을 해명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것》을 전당에 호소하였다. —781, 933페지

286 **《우리의 언론》**(《*Наше Слово*》)은 뜨로쯔끼파멘쉐위크의 일간신문으로서 1915년 1월부터 1916년 9월까지 《목소리》를 대신하여 빠리에서 발행되였다. —781, 892페지

287 **《국제당》**(《*Die Internationale*》)은 로자 룩셈부르그와 프란쯔 메링이 창간한 잡지로서 1915년 4월에 베를린에서 한호가 나왔을 뿐이다. 1922년에 뮨헨의 《미래》출판사에 의해 번인되였다. —783, 878, 1067페지

288 **세 협약국**은 1907년에 영국, 프랑스, 로씨야 세 나라가 체결한 군사적정치적동맹이다. 1915년에 3국동맹(독일, 오지리-웽그리아, 이딸리아)에서 이딸리아가 탈퇴하여 이 협상에 참가함으로써 영국, 프랑스, 로씨야, 이딸리아 네 협약국이 성립되였다. —783, 853페지

289 **《사회민주주의자》**(《*Социал-Демократ*》)는 비합법적으로 발간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기관지로서 1908년 2월부터 1917년 1월까지 발간되였는데 도합 58호가 나왔다. 창간호는 로씨야에서 나왔고 그후는 국외로 옮겨가서 처음에는 빠리에서, 다음에는 제네바에서 발행되였다. 중앙기관지 편집부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볼쉐위크, 멘쉐위크 및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의 대표들로 구성되였다.

신문 《사회민주주의자》에는 80편이상의 레닌의 론문과 론평

및 쓰딸린의 많은 론문이 게재되였다. 신문편집부내에서 레닌은 철저한 볼쉐위크적로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편집부의 일부 성원들(까메네브와 지노위에브)은 취소파에 대하여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레닌의 로선이 집행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멘쉐위크인 편집자 마르또브와 단은 중앙기관지 편집부에서 태업한 동시에 자기들의 소집단적신문 《사회민주주의자의 목소리》에서 취소파를 공공연하게 변호하였다.

취소파에 대한 레닌의 비타협적투쟁으로 하여 마르또브와 단은 1911년 6월에 《사회민주주의자》 편집부에서 탈퇴하였다. 1911년 12월부터 《사회민주주의자》는 레닌에 의하여 편집되였다. —790, 844, 895, 1117페지

290 《목소리》(《*Голос*》)는 뜨로쯔끼파멘쉐위크의 일간신문으로서 1914년 9월부터 1915년 1월까지 빠리에서 발행되였다. 이 신문은 중간적립장을 취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초기에 《목소리》에는 사회배외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마르또브의 론문들이 게재되였다. 마르또브가 오른쪽으로 전화한후에는 이 신문은 극력 사회배외주의자들을 비호하게 되였으며 바로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사회배외주의에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 사람들과 접근하기보다는 사회배외주의자와의 통일을 택하고있다는 의미밖에 없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94페지). 1915년 1월부터 《목소리》가 정간되고 《우리의 언론》이 따로 발행되게 되였다. —792, 892페지

291 《생활》(《*Жизнь*》)은 사회혁명당의 신문으로서 폐간된 신문 《사상》을 대신하여 1915년 3월에 창간되였는데 선후하여 빠리와 제네바에서 발행되였다. 이 신문은 1916년 1월에 정간되였다. —796페지

292 스똘리삔반동시기에 로씨야사회혁명당원 싸윈꼬브는 롭쉰이라는 필명으로 《비루먹은 말》과 《없는것》이라는 두편의 반동소설을 썼다. 작품에는 사회혁명당지식인들가운데 널리 류행되고있던 신비주의, 1905년혁명에 대해 실망을 느끼는 퇴폐적정서와 혁명투쟁을 완전히 포기하는 반동사상이 침투되여있다. —796페지

293 《경제학자》(《*The Economist*》)는 영국의 경제, 정치 문제를 취

급한 주간잡지로서 1843년부터 런던에서 발간되였다. 이 신문은 공업대자산계급의 후설이였다. —803페지

294 **갑속에 든 사람**은 체호브의 동명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낡은것을 고집하는 전형적인물이다. —804페지

295 이것은 괴테의 명언이다. 《괴테전집》, 1893년 베를린 제6판, 제2권, 593페지를 보라. —809페지

296 크릴로브의 우화 《수탉과 뻐꾸기》를 보라. 이 우화는 주로 서로 추어주고 서로 떠받드는 사람을 풍자한것이다. —818페지

297 **《사회주의》**(《*Le Socialisme*》)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쥘 게드에 의하여 창간, 편집된 잡지로서 1907년부터 1914년 6월까지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818페지

298 **베른슈타인주의**는 19세기말에 나타난 국제로동운동에서의 수정주의적사조인데 그것은 독일사회민주주의자 에.베른슈타인의 이름으로 명명한것이다. 베른슈타인은 1896~1898년에 독일사회민주당의 리론잡지 《신시대》에 발표한 론문과 《사회주의의 전제 및 사회민주당의 과업》(1899년)이라는 소책자에서 맑스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는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주의의 리론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붕괴의 불가피성에 관한 학설을 반대하고 사회주의혁명과 무산계급독재를 반대하였으며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개량을 전취하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베른슈타인의 기회주의적 및 수정주의적 견해는 독일사회민주당의 우익과 제2국제당의 기타 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볼쉐위크당만이 베른슈타인주의와 그 옹호자 및 추종자들에 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로씨야에서는 《합법적맑스주의자》, 경제파, 분드분자, 멘쉐위크가 베른슈타인의 교리를 따라갔다. —818페지

299 성경 《루가복음》 제18장을 참조하라. —819페지

300 **영국사회당**은 영국사회민주당이 1911년에 독립로동당가운데의 좌익과 합병하여 성립된 당이다. 영국사회당은 일찍 맑스주의정신에 립각하여 선전과 선동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당은 그 수효가 적고 대중을 리탈하였으며 따라서 종파주의적성격을 띠고있었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당내에는 두가지 조류가 나타났다. 그 하나는 하인드만을 위수로 한 공공연한 사회배외주의적조류였고 다른 하나는 에이.잉크핀과 에프.로트슈타인 등을 위수로 한 국제주의적조류였다. 1916년 4월에 이 당은 분렬되였다. 하인드만파 그의 지지자들은 소수파로 되여 이 당에서 탈퇴하였다. 이때로부터 영국사회당의 선두에는 국제주의분자들이 서서 제국주의대전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825, 881페지

301 로동당은 영국의 기회주의당으로서 1900년에 로동조합, 페이비안협회 등의 련합으로 조직되였다. 최초에는 《로동자대표위원회》라고 불렀고 1906년에 로동당으로 개칭하였다. 로동당은 자산계급과의 계급합작정책을 공공연하게 실시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로동당의 지도자들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825페지

302 페이비안협회 회원들은 1884년에 영국자산계급지식인들에 의하여 건립된 개량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페이비안협회의 참가자들이다. 그의 주요지도자로서는 씨.웨브와 비.웨브이다. 페이비안협회란 고대로마의 통수 페이비안 막씸의 이름으로 명명한것이다. 페이비안은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결전을 회피하고 기회를 엿보는 전술을 썼기때문에 《쿵크타토르》(우물쭈물하는 사람)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였다. 페이비안협회 회원들은 무산계급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맑스의 학설을 반대하고 소소한 개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사회를 개조할것을 고취하면서 이른바 《지방공동소유의 사회주의》의 방법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할것을 설교하였다. 페이비안협회는 영국로동운동에서의 기회주의와 개량주의 사상의 발원지의 하나로서 로동계급내부에 자산계급영향을 전파하였다. 레닌은, 페이비안협회는 《기회주의와 자유주의적로동자정치를 가장 완성된 형태로 표현하고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237페지를 보라.)고 하였다. 1900년에 페이비안협회는 로동당에 통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페이비안협회 회원들은 사회배외주의립장을 취하였다. —825, 1043페지

303 《매일신문》(《*The Daily Herald*》)은 영국사회당의 기관지로

서 1912년부터 런던에서 발행되였는데 1922년부터 로동당의 기관지로 되였다. —826페지

304 《시민일보》(《*The Daily Citizen*》)는 영국로동당, 페이비안협회 및 독립로동당의 기회주의적동맹의 기관지로서 1912년부터 1915년까지 런던에서 발간되였다. —826페지

305 《쩨쓰냐크파》는 1903년에 사회민주당이 분렬된후 창건된 벌가리아사회민주당의 혁명파이다. 쩨쓰냐크파의 창건자이며 지도자는 데.블라고예브였으며 그다음에 이 파를 지도한것은 블라고예브의 제자들인 게.지미뜨로브, 웨.꼴라로브 등이였다. 1914~1918년에 쩨쓰냐크파는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였다. 1919년에 쩨쓰냐크파는 벌가리아공산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국제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신시대》(《*Ново Време*》)는 쩨쓰냐크파의 격주간리론잡지로서 데.블라고예브에 의하여 편집되였다. 1923년에 벌가리아반동정부에 의하여 폐간되였다. —827, 881페지

306 《인민의 권리》(《*Volksrecht*》)는 스위스사회민주당 및 쮜리히주사회민주당조직의 기관지로서 1898년부터 쮜리히에서 발행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신문은 찜메르왈드좌익의 론문들을 게재하였다. 이 신문에는 레닌의 다음과 같은 론문들 즉, 《하.그로일리히에 의한 조국보위론옹호에 관한 12개조의 간단한 테제》, 《로씨야혁명에서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제 과업에 대하여》, 《공화주의적배외주의자들의 책략》 등이 게재되였다. 후에 이 신문은 반공산주의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립장을 취하였다. —827, 1112, 1144페지

307 《베른의 초병》(《*Berner Tagwacht*》)은 스위스사회민주당의 기관지로서 1893년에 베른에서 창간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초기에는 카.립크네히트, 에프.메링 기타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론문들이 이 신문에 게재되였다. 1917년부터 이 신문은 사회배외주의자들을 공공연하게 지지하였다. 후에 이 신문은 반공산주의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립장을 취하였다. —827, 1112페지

308 《인도》(《*L' Humanité*》)지는 1904년에 지.쬬레스에 의하여 창간된 프랑스사회당의 기관지이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신문

은 프랑스사회당 극우익의 수중에 있었으며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920년 12월대회에서 사회당이 분렬된지 얼마 안되어 프랑스공산당이 형성되자 이 신문은 프랑스공산당의 기관지로 되였다. —827, 881폐지

309 헤로스트라토스는 기원전 4세기의 희랍사람이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그의 고향도시 에페쓰에 있는 유명한 신전 아르테미스를 불태웠다고 한다. 헤로스트라토스의 이름은 개인의 명예라면 범죄행위도 서슴지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로 되였다. —828폐지

310 브류쎌련맹(《7월3일》련맹)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통일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국제사회주의집행국 집행위원회가 소집한 1914년 7월 3~5일(신력 16~18일) 브류쎌《합동》협의회때에 결성되였다. 이 협의회에 대표를 파견한 단체들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볼쉐위크), 조직위원회(멘쉐위크) 및 그에 가담한 단체들 즉 깝까즈 지방위원회, 투쟁집단(뜨로쯔끼파),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멘쉐위크), 쁠레하노브의 통일파, 전진집단, 분드, 라트위야변강사회민주당, 리트와사회민주당, 뽈스까사회민주당, 뽈스까사회민주당반대파, 뽈스까사회당(사회당좌파)이다.

협의회는 의견교환에 그치고 의무적인 결정은 채택하지 말아야 할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통일에 관한 카우쯔키의 결정서를 표결에 붙였다. 볼쉐위크와 라트위야사회민주당원들은 이 결정서표결에 참가할것을 거부하였으나 다수표에 의해서 결정서는 채택되였다.

볼쉐위크와 취소파의 《화해》라는 구실밑에, 《당내평화》의 수립이라는 구실밑에 제2국제당은 볼쉐위크에게 취소파의 타협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볼쉐위크는 화해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제2국제당의 결정에 복종할것을 거부하였으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 —828, 829페지

311 카.펠크네히트가 쓴 호소문 《주요한 적은 자기 나라에 있다.》를 가리킨다. —829페지

312 《프로씨야년보》(《*Preussische Jahrbücher*》)는 보수파의 정치, 력사 및 문학 잡지로서 독일 자본가와 지주의 기관지이며 1858년부터 1935년까지 베를린에서 발행되였다. —830, 883페지

313 성경 《창세기》에서 온 말이다. 에서는 빵과 팥죽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상속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긴다. 후에 이것은 《작은 일을 탐내여 큰일을 망치는》것을 비유하는 이야기로 되였다. —833페지

314 《로동자사상》(《*Рабочая Мысль*》)은 경제파들의 신문이다. 1897년 10월부터 1902년 12월까지 선후로 뻬쩨르부르그, 베를린, 와르샤와, 제네바에서 발간되였는데 도합 16호가 나왔다. 레닌은 허다한 저서들에서 특히는 《이스크라》지에 발표한 론문들과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신문 《로동자사상》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로씨야에서의 국제기회주의의 변종이라고 지적하였다. —842페지

315 《로동자사업》(《*Рабочее Дело*》)은 경제파의 잡지로서 재외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의 비정기적기관지이다. 베.엔.크리쳅스끼, 아.에스.마르띄노브, 웨.뻬.이완쉰이 편집을 맡은 이 잡지는 1899년 4월부터 1902년 2월까지 제네바에서 발간되였다. 이 잡지는 도합 12호에 9책이 나왔다. 레닌은 《이스크라》에 발표한 론문들에서와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로동자사업》지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842페지

316 **국제사회주의자 제1차대표자회의**(찜메르왈드대표자회의)는 1915년 9월 5~8일에 찜메르왈드에서 진행되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레닌을 선두로 하는 혁명적국제주의자들과 다수를 차지한 카우쯔키주의자들간에 투쟁이 전개되였다. 레닌은 좌익국제주의자들로써 찜메르왈드좌파를 결성하였는바 이 좌파내에서 전쟁을 반대하여 유일하게 정확하고 철저한 국제주의적립장을 취한것은 오직 볼쉐위크당뿐이였다.

대표자회의는 세계대전을 제국주의전쟁으로 인정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대표자회의는 군비지출에 찬성투표하고 자산계급정부에 참가한 《사회주의자》들의 행동을 규탄하였으며 전쟁을 반대하

는 투쟁을 전개하며 령토할양과 배상이 없는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을 구라파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대표자회의는 또한 전쟁희생자들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국제사회당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찜메르왈드대표자회의는 국제주의자들을 분리되여나오게 하였으며 그들을 단합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기회주의를 반대함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였고 철저한 국제주의립장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에로 전환시키며 자국의 제국주의정부들을 전쟁에서 패배시키며 제3국제당을 건립하는 등 볼쉐위크정책의 기본원칙을 접수하지 않았다.

찜메르왈드대표자회의의 의의에 관해서는 레닌의 론문 《제1보》와 《1915년 9월 5～8일의 국제사회주의자대표자회의에서의 혁명적 맑스주의자들》(《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362～367, 368～372페지)을 보라. —316, 845, 921, 1107, 1149페지

317 클라우제위쯔의 저서 《전쟁에 관하여》, 제1권, 제1편, 제1장, 24절을 보라. —852페지

318 브렌타노주의는 《무산계급의 비혁명적〈계급〉투쟁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적자산계급학설》(본 선집, 한문판, 제3권, 616페지를 보라.)로서 엘. 브렌타노에 의하여 명명되였다. 엘. 브렌타노는 독일자산계급경제학자이며 이른바 《국가사회주의》의 지지자이다. 그는 개량적인 방법, 자본가와 로동자의 리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본주의범위내에서 사회평등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브렌타노와 그의 추종자들은 맑스주의어구들을 방패로 로동운동을 자산계급의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시도하였다. —861페지

319 엥겔스의 《독일의 사회주의》(《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2권, 292페지)를 보라. —864페지

320 협약국사회주의자런던대표자회의는 1915년 2월 14일에 열렸다. 이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벨지끄 사회당들의 사회배외주의자의 대표들과 평화주의파의 대표 및 로씨야의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

들이 참석하였다.

볼쉐위크는 초청되지 않았으나 레닌의 위임에 의하여 리트위노브(막씨모위치)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이 회의에 출석하였다. 이 성명서는 레닌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하였는바 거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은 자산계급정부로부터 탈퇴할것, 제국주의자들과 철저히 관계를 끊을것, 그들과의 협조를 거부할것, 자국자산계급정부를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할것, 군비지출에 대한 찬성투표를 비난할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를 랑독할 때에 리트위노브는 발언을 중지당하고 발언권을 박탈당하였기때문에 성명서의 원문을 주석단에 주고 퇴장하였다.

런던대표자회의에 관하여서는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112～114, 155～157페지를 참조하라. —869페지

321 《신문》(《*Новости*》)은 사회혁명당의 일간신문으로서 1914년 8월부터 1915년 5월까지 빠리에서 발행되였다. —869페지

322 《무산자의 목소리》(《*Пролетарский Голос*》)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뻬쩨르부르그위원회의 비합법적기관지로서 1915년 2월부터 1916년 12월까지 발행되였다. 모두 4호가 나왔다. 이 신문의 창간호에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언 《전쟁과 로씨야사회민주당》이 전재되였다. —871페지

323 로까르노대표자회의는 이딸리아와 스위스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1914년 9월 27일에 로까르노에서 소집되였다. 이 회의의 준비사업에는 레닌이 참가하였다. 전쟁에 관한 레닌의 제강은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그 일부가 결의문에 들어갔다. 이 회의에 스위스측에서는 에르. 그림, 샤를 넨 등이 참석하였고 이딸리아측에서는 쎄라띠, 라짜리, 모르가리아니, 뚜라띠, 모딜리아니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의 결정서는 전쟁의 제국주의적성격을 밝혔으며 국제무산계급에게 평화를 위하여 투쟁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서는 비록 철저한 국제주의적성격과 철저한 혁명성을 띠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무산계급의 국제적련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일정한 추동적역할을 놀았다.

코펜하븐대표자회의는 중립국(스웨리예, 노르웨이, 단마르크, 화란)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제2국제당의 재건을 목적으로 1915년 1월 17~18일에 코펜하븐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중립국사회당의회의원을 통하여 각기 자국정부들에 교전렬강간의 중재자로서 행동하며 전쟁정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제안할것을 결정하였다.

국제사회주의녀성대표자회의는 전쟁에 대한 태도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1915년 3월 26~28일에 베른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산하 녀성조직들의 발기와 국제녀성운동지도자 클라라 쩨트킨의 참가밑에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화란, 스위스, 이딸리아, 로씨야 및 뽈스까 등 나라의 대표 도합 25명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대표가운데는 엔. 까. 크룹스까야와 이네싸 아르만드가 있었다.

국제사회주의청년대표자회의는 전쟁에 대한 태도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1915년 4월 4~6일에 베른에서 소집되였다. 이 회의에는 로씨야, 노르웨이, 화란, 스위스, 벌가리아, 독일, 뽈스까, 이딸리아, 단마르크 및 스웨리예 등 10개국의 청년조직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청년절을 매년 기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제사회주의청년국을 선출하였다. 이 국은 회의의 결정에 따라 잡지 《청년인터나쇼날》을 발간하였다. 이 잡지 사업에는 레닌과 카. 립크네히트가 참가하였다. —878페지

324 **《광선》(《*Lichtstrahlen*》)**은 독일좌익사회민주당(《독일국제사회주의자》)의 기관지로서 요트. 보르햐르트에 의하여 편집되였나. 이 잡지는 1913년부터 1921년까지 베를린에서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였다. —878페지

325 **연단파**는 신문 《연단》을 둘러싸고 형성된 화란사회민주로동당좌익그루빠이다. 1909년에 이 그루빠는 화란사회민주로동당에서 제명되여 독립적인 당(화란사회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연단파는 화란로동운동의 좌익그루빠이기는 하였으나 철저한 혁명적정당은 아니였다. 1918년에 연단파는 화란공산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연단》(《*De Tribune*》)은 화란좌익사회민주로동당의 신문으로서 190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발행되였다. 이 신문은 1909년부터는 화란사회민주당의 기관지로 되였고 1918년부터는 화란공산당의 기관지로 되였다. —882페지

326 **조직위원회**는 멘쉐위크의 중앙지도부로서 1912년에 취소파멘쉐위크 및 모든 반당적 집단과 파별들이 련합으로 거행한 8월대표자회의에서 성립되였다. 1917년 8월에 멘쉐위크당 중앙위원회가 개선된후 그 활동이 정지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조직위원회는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884, 1078, 1117페지

327 **로동해방단**은 1883년 제네바에서 게. 웨. 쁠레하노브가 창설한 로씨야의 첫 맑스주의적단체로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1903년)때까지 존재하였다.

로동해방단은 《로씨야에 맑스주의사상을 전파하는 면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그는 리론면에서 사회민주주의운동을 발기하였으며 로동운동을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을 실현하였다》(《쏘련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 한문판, 32페지를 보라). 로동해방단은 맑스주의창시자들의 저서들, 즉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 맑스의 《임금로동과 자본》, 엥겔스의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등을 로어로 번역하고 국외에서 발간하여 로씨야경내에 비밀리에 전파하였다. 쁠레하노브 및 로동해방단은 인민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로동해방단은 인민주의관점의 잔여, 농민의 혁명성에 대한 과소평가, 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등과 같은 엄중한 오유들도 범하였다. 이런 오유들은 쁠레하노브와 로동해방단의 기타 일부 성원들이 후일에 범한 멘쉐위크적견해의 맹아로 되였다. —885페지

328 1914년 7월 당출판사 《파도》에서 출판된 《맑스주의와 취소주의. 현대로동운동의 기본문제에 관한 론문집》 제2분책을 가리킨다. 이 론문집에는 취소파를 반대한 레닌의 일부 론문들이 수록되여있다. 의연금에 관한 재료는 바로 그중에 있는 두편의 론문 《로동계급과

로동자출판물》,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국회로동자의원단결성에 대한 로동자들의 반향》가운데에 상세하게 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0권, 366～374, 543～551페지를 보라.)—888페지

329 《라이프찌히인민신문》(《*Leipziger Volkszeitung*》)은 독일사회민주당좌익의 기관지이다. 이 신문은 1894년부터 1933년까지 일간으로 발행되였다. 오래동안 에프. 메링과 에르. 룩셈부르그가 이 신문의 편집사업에 참가하였다. 《라이프찌히인민신문》은 1917년부터 1922년까지 독일(독립당)의 기관지였으며 1922년후에는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기관지로 되였다. —888, 895페지

330 《국제통신》(《*Internationale Korrespondenz*》)은 국제 정치와 로동 운동의 제 문제에 관한 독일사회배외주의자들의 주간잡지로서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베를린에서 발간되였다. —892페지

331 《현대세계》(《*Современный Мир*》)는 로씨야의 문학, 과학 및 정치 월간잡지로서 1906년부터 1918년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행되였다. 이 잡지의 사업에는 게. 웨. 쁠레하노브를 포함한 멘쉐위크들이 직접 참가하였다. 쁠레하노브의 멘쉐위크당옹호파와 동맹을 맺었던 시기와 1914년초에는 볼쉐위크들도 이 잡지에 기고하였다. 1914년 3월 《현대세계》에는 레닌의 론문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분쇄》가 발표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잡지는 사회배외주의자들의 간행물로 되였다. —893페지

332 《구라파련방의 구호에 대하여》라는 론문은 사회주의가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 우선 승리할수 있다는 리론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 저서는 1915년 8월에 집필되여 1915년 8월 23일에 《사회민주주의자》 제44호에 사설로 발표되였다. —895페지

333 요트. 디쯔겐이 과장된, 과도한, 무제한한이라는 의미의 술어 überschwenglich를 사용한 사실을 가리킨다. 례컨대 1903년 슈투트가르트에서 발간된 《단편철학론문집》 제204페지에서 디쯔겐은 이 술어를 사용하면서 《절대적인것과 상대적인것은 무제한하게 구분되여있지는 않다.》고 썼다. 또한 요트. 디쯔겐의 《인간의 두뇌활

동의 본질》, 제4장, 2절에서 정신세계와 감성적세계간의 차이의 정도를 론하고있는 개소를 참조하라. —906페지

334 **드레퓌스사건**은 프랑스의 반동적군주주의적군벌집단이 1894년에 총참모부의 유태인군관 드레퓌스가 간첩활동과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거짓죄명으로 벌린 도발적심판을 말한다. 군사법정은 드레퓌스를 무기도형으로 언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드레퓌스사건재심을 위한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공화주의자들이 군주주의자들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1906년에 드레퓌스는 끝내 무죄선고를 받았다.

짜베른사건은 1913년 11월에 알자스의 짜베른시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프로씨아군관이 알자스인을 모욕한데서 일어났다. 당지주민(다수는 프랑스인)들은 그 당시 프로씨아군벌의 억압을 반대하여 노한 파도마냥 들고일어났다. 짜베른사건에 관해서는 《레닌전집》, 한문판, 제19권, 514～516페지를 보라. —910페지

335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1권, 381페지와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63페지를 참조하라. —911페지

336 엥겔스의 《쁘라하폭동》(《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5권, 95페지)을 보라. 이 론문은 엥겔스가 집필한것이였지만 그때 레닌은 그것을 프란쯔 메링이 편집한 저서《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및 페르디난드 라쌀의 유작》, 1902년 슈투트가르트판, 제3권, 108～114페지에서 인용하였기때문에 이 책에서 론문의 저자를 밝히지 않았다. —915페지

337 희랍신화가 전하는데 의하면 아우기아스왕에게는 3,000마리의 소를 키우는 큰 외양간이 있었는데 30년동안 한번도 청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사람들은 제일 더러운 곳을 《**아우기아스외양간**》에 비유하였다. —915페지

338 《**종소리**》(《*Die Glocke*》)는 1915년부터 1925년까지 처음에는 뮨헨에서, 그후에는 베를린에서 독일사회민주당 당원이며 사회배외주의자인 빠르부스(겔판드)에 의하여 발행된 잡지이다. —916페지

339 엥겔스의 《민주주의적범슬라브주의》(《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

6권, 322~342페지)를 보라. 이 론문은 엥겔스가 집필한것이였지만 그때 레닌이 프란츠 메링이 편집한 저서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및 페르디난드 라쌀의 유작》, 1902년 슈투트가르트판, 제3권, 246~264페지에서 인용하였기때문에 이 책에서 론문의 저자를 밝히지 않았다. —916, 1086페지

340 **《우리의 사업》(《Наше Дело》)**은 로씨야멘쉐위크취소파의 잡지이며 사회배외주의자들의 주요한 기관지이다. 1914년 10월에 페간된 잡지 《우리의 서광》 대신에 1915년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창간되였다. —921, 1131페지

341 **국제사회주의위원회**(I. S. K.—Internationale Sozialistische Kommission)란 1915년 9월 찜메르왈드회의에서 구성된 찜메르왈드련맹의 집행기구를 말한다. 국제사회주의위원회는 1915년 9월부터 1917년 1월까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기관간행물 《베른국제사회주의위원회. 통보》를 발간하였는데 모두 6호를 발행하였다. —922, 1067페지

342 저서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는 맑스의 《자본론》의 직접적계속으로서 《자본론》이 나온후 반세기동안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총화하였으며 제국주의에 대해 전면적인 맑스주의적분석을 가하고 제국주의는 독점적이며 부패하고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로서 사회주의혁명의 전야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자기가 제시한 제국주의의 경제 및 정치 발전의 불균형법칙에 근거하여 사회주의가 한개 또는 몇개 자본주의나라에서 우선 승리할수 있을뿐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승리할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레닌의 이 새롭고 완벽한 사회주의혁명리론은 맑스주의를 대단히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10월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지도하였으며 세계무산계급혁명이 승리한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였다.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는 1916년에 집필되였다. 레닌이 제국주의에 관한 세계문헌연구에 착수한것은 일찌기 1915년 베른에서였으며 이 저서를 집필하기 시작한것은 1916년 1월이였다. 이해 1월말에 레닌은 쮜리히로 이주하여 쮜리히주립

도서관에서 이 저서의 저술을 계속하였다. 레닌이 수백권의 외국서적, 잡지, 신문 및 통계집에서 뽑아 작성한 발취, 요강, 비망록, 통계표 등은 인쇄전지로 40매이상이다. 이 자료들은 1939년에 《제국주의에 관한 필기》라는 제목하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

1916년 7월 2일에 레닌은 저술을 끝마치고 원고를 《빠루스》출판사에 보냈다. 출판사내에 있던 멘쉐위크분자들은 카우쯔키와 로씨야멘쉐위크들(마르또브 등)의 기회주의적리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저서로부터 삭제하였다. 《성장전화》(자본주의의 자본주의적제국주의로의 성장전화)라는 레닌의 말을 《전화》라는 말로, 《반동성》(《초제국주의》론의 반동성)을 《락후성》이라는 말 등등으로 바꿔놓았다. 저서는 《자본주의의 최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라는 표제하에 1917년초에 뻬뜨로그라드의 《빠루스》출판사에서 인쇄되였다.

로씨야에 돌아온후 레닌은 이 저서의 서문을 썼다. 1917년 9월에 이 저서는 세상에 나왔다. —924페지

343 이 서문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1921년 10월에 발간된 잡지 《국제공산당》 제18호에 처음으로 발표되였다. —926페지

344 **독일독립사회민주당**은 중앙파의 당으로서 1917년 4월에 창건되였으며 그 지도자는 카우쯔키였다. 이 당의 주요부분은 카우쯔키주의의 조직인 《근로친선그루빠》였다. 《독립파》는 공공연한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단결》을 선전하며 그들을 옹호, 비호하고 계급투쟁의 포기를 주장하였다.

1920년 10월 할레에서 열린 독립사회민주당대회에서 분렬이 생겼다. 그 많은 부분은 1920년 12월에 독일공산당과 합병하였다. 우익분자들은 따로 당을 조직하여 독립사회민주당이라는 낡은 명칭을 그냥 보전하였다. 이 당은 1922년까지 존속하였다. —931페지

345 **스파르타쿠스파**(국제당그루빠)는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성립된 독일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혁명조직이다. 스파르타쿠스파의 창시

자 및 지도자들은 카. 립크네히트, 에르. 룩셈부르그, 에프. 메링, 클라라 제트킨 등이였다. 1915년 4월에 룩셈부르그와 메링은 잡지 《국제당》을 창간하여 대부분의 독일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을 그의 주위에 단결시킴으로써 국제당그루빠를 형성하였다. 국제당그루빠는 1916년부터 스파르타쿠스라는 서명으로 《정치통신》을 출판하였는데 이로 하여 스파르타쿠스파라고도 불리우게 되였다. 1917년 4월에 이 그루빠는 독일중앙과독립사회민주당에 가입하였으나 조직상에서는 독립되여있었다. 1918년 11월, 독일혁명과정에서 스파르타쿠스파는 스파르타쿠스동맹을 결성하였다. 11월혁명후 스파르타쿠스파는 《독립파》들과 결렬하고 그해 12월에 독일공산당을 건립하였다.

스파르타쿠스파는 대중속에서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혁명적선전을 진행하여 독일제국주의의 략탈정책 및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적지도자들의 반역행위를 폭로하였다. 그러나 스파르타쿠스파—독일좌파는 일부 중대한 리론문제와 정책문제에서 절반멘쉐위크적오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은 절반멘쉐위크주의적인 제국주의리론을 발휘하였으며 민족자결에 관한 맑스주의원칙(즉 분리 및 독립국가형성에 이르기까지의)을 부인하였으며 제국주의시대에서의 민족해방전쟁의 가능성을 부인하였으며 혁명적당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운동의 자연생장성을 숭배하였다. 독일좌파들의 오유에 대한 비판은 레닌의 저서 《유니우스의 소책자에 관하여》, 《맑스주의의 만화와 〈제국주의적경제주의〉에 관하여》(이책1067～1085페지, 《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18～72페지를 보라.) 등과 쓰딸린의 서한 《볼쉐위크주의력사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3권, 76～91페지를 보라.)에 제시되여있다. —931, 1067, 1100페지

346 《은행》(《*Die Bank*》)은 독일금융가의 잡지로서 1908년부터 1934년까지 베를린에서 출판되였다. 레닌은 저서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준비과정에서 이 잡지에 실린 문장과 재료들을 여러차례 분석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9권, 60～78, 172～195. 544～545페지를 보라.)—949페지

347 맑스의 《자본론》, 한문판, 제3권, 제36장을 보라. —959페지

348 **투기회사창립소동**은 19세기 70년대초의 독일에서의 급격한 주식회사창립시기에 발생하였다. 투기회사창립의 장성은 치부한 자산계급투기업자들의 사기적흥정과 취인소에서의 토지 및 유가증권의 발광적인 투기를 수반하였다. —961페지

349 **《프랑크푸르트신문》**(《*Frankfurter Zeitung*》)은 《프랑크푸르트신문과 상업신문》(《Frankfurter Zeitung und Handelsblatt》)의 략칭이다. 이 신문은 독일소자산계급민주주의파의 일간신문으로서 1856년부터 1943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발간되였다. (1866년부터 이 이름을 썼다.)—963페지

350 게. 웨. 쁠레하노브를 가리킨다. —973페지

351 **프랑스의 빠나마사건**이란 1892～1893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빠나마운하개통회사에 매수된 국가활동가, 관리 및 신문의 대규모의 직권람용, 매수행위를 폭로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가리키는것이다. —984, 1116페지

35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5권, 18페지를 보라. —1041, 1123페지

353 우와 같은 책, 353페지를 보라. —1041, 1079, 1102, 1123페지

354 모히칸족은 아메리카에서 이미 멸종된 민족이다. **《최후의 모히칸인들》**이라는 말은 미국작가 쿠퍼의 소설 《최후의 모히칸사람》에서 나왔는데 후에 이 말은 최후의 대표자란 말의 동의어로 되였다.—1045페지

355 **스뻭따또르** 즉 로씨야경제학자이며 분드분자인 엠. 이. 나힘쏜이다. —1047, 1078, 1117페지

356 맑스의 《자본론》, 한문판, 제3권, 제6장, 2절을 보라. —1049페지

357 **전독일좌익사회민주주의자대표자회의**를 가리킨다. 이 회의는 1916년 1월 1일에 베를린에 있는 카. 립크네히트의 저택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로자 룩셈부르그가 작성한 국제당그루빠의 테제를 채택하였다. —1069페지

358 **《브레멘시민신문》**(《*Bremer Bürger-Zeitung*》)은 독일사회민

주당 브레멘파의 기관지로서 1890년에 창간되였다가 1919년에 페간되였다. 1914년부터 1915년까지 이 신문은 사실상 독일사회민주당좌익의 기관지였으며 1916년에는 카우쯔키분자의 수중에로 넘어갔다. —1070페지

359 《인민의 벗》(《*Volksfreund*》)은 1871년에 브라운슈와이그에서 창간된 독일사회민주당의 일간신문이다. 1914년부터 1915년까지의 기간에 이 신문은 사실상 독일사회민주당좌익의 기관지였으며 1916년에는 카우쯔키분자의 수중에로 넘어갔다. —1070페지

360 독일국제사회주의자들은 제1차세계대전초기에 독일에서 나타난 사회민주당좌익그루빠(보르햐르트 및 기타)이다. 이 그루빠는 찜메르왈드좌익을 지지하였으며 사회배외주의자들 및 중앙파들과의 분리문제에서는 로자 룩셈부르그의 지지자들보다 더욱 철저한 립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그루빠는 대중과의 광범한 련계가 부족하였기때문에 인차 해산되였다. —1070페지

361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398페지를 보라. —1078페지

362 호소파라는 이름은 신문 《호소》에 의하여 붙게 된것이다.

《호소》(《*Призыв*》)지는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의 사회배외주의적그루빠의 기관지로서 1915년 10월부터 1917년 3월까지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1081페지

363 엥겔스의 《로동계급과 폴스까의 련계는 어떠한가》(《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6권, 175페지)를 보라. —1089페지

364 《무산계급혁명의 군사강령》은 《구라파련방의 구호에 대하여》라는 론문에 뒤이어 사회주의가 처음에는 한개 나라 또는 몇개 나라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이 유명한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재차 론술하였으며 정의의 전쟁과 비정의의 전쟁에 관한 맑스주의원리를 가일층 론술하였다.

《무산계급혁명의 군사강령》은 원래 스칸디나비아의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출판물에 발표할 예정으로 1916년 9월에 독일어로 집필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좌익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민주당강령중의 《인민의 무장》이라는 조항을 반대하여나섰으며

《무장철폐》라는 그릇된 구호를 들고나왔다.

1916년 12월에 수정을 거친 이 론문은 《〈무장철폐〉의 구호에 대하여》(《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92～102페지)라는 표제로 《사회민주주의자론문집》 제2호에 발표되였다.

1917년 4월 로씨야로 돌아오기 얼마전에 레닌은 독일어로 된 이 론문의 원고를 《청년인터나쇼날》잡지의 편집부에 넘겨주었다. 이 론문은 1917년에 《청년인터나쇼날》잡지 제9호와 제10호에 게재되였다.

《청년인터나쇼날》(《*Jugend-Internationale*》)은 찜메르왈드좌파에 접근하고있는 사회주의청년단체국제동맹의 기관지로서 1915년 9월부터 1918년 5월까지 쮜리히에서 발간되였다. 《청년인터나쇼날》에 대한 평가는 《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163～167페지를 보라. —1099페지

365 스위스사회민주당 림시대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1916년 여름에 에르. 그림(스위스사회민주당 지도자의 한사람)이 작성한 군사문제에 관한 테제를 가리킨다. 이 대회는 전쟁에 대한 스위스사회주의자들의 태도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원래는 1917년 2월에 소집하기로 되여있었다. —1099페지

366 《신생활》(《*Neues Leben*》)은 스위스사회민주당의 기관지로서 1915년 1월에 베른에서 창간되여 1917년 12월에 폐간되였다. 이 잡지는 찜메르왈드우파의 견해를 선전하였으며 1917년초부터는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선구자》(《*Vorbote*》)는 찜메르왈드좌파의 리론적성격을 띤 기관지로서 1916년에 베른에서 독일문으로 발간되였다. 전부 두호가 나왔는데 1916년 1월에 제1호가 발간되고 1916년 4월에 제2호가 발간되였다. 이 잡지는 레닌의 저서 《기회주의와 제2국제당의 파산》 및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테제)》을 게재한적이 있었다. —1099페지

367 제2차국제사회주의자회의(킨탈회의)는 1916년 4월 24～30일에 킨탈에서 열리였다. 이 회의에서 국제주의분자들이 떨어져나감으로

제 좌익은 찜메르왈드회의때보다 더 단합되였고 강해졌다. 레닌의 정력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의에서는 사회평화주의와 국제사회주의 집행국의 기회주의적활동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킨탈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은 찜메르왈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에 비하여 일보 전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는 여전히 기회주의를 반대할데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국제주의적립장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키며 자국의 제국주의정부를 전쟁에서 패배시키며 제3국제당을 창건할데 관한 볼쉐위크정책의 기본명제를 접수하지 않았다. —1107, 1153페지

368 **사회민주당근로파**(근로친선그루빠)는 독일중앙파들의 조직으로서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에서 떨어져나간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1916년 3월에 조직되였다. 이 그루빠는 1917년에 성립된 중앙파적인 독일독립사회민주당의 기본핵심으로 되였다. 이 당은 로골적인사회배외주의자들을 변호하였고 그들과의 통일을 유지할것을 주장하였다. —1108, 1140페지

369 **전시공업위원회**는 로씨야에서 1915년에 제국주의대자산계급이 짜리정부를 도와 전쟁을 진행하기 위하여 창설한것이다. 자산계급은 로동자들을 자기들의 영향밑에 두고 그들에게 조국방위사상을 주입하려고 이 위원회밑에 《로동자그루빠》를 조직하였다. 자산계급에게는 군수공장들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도록 로동자대중속에서 선동을 할 로동자대표들을 이 그루빠에 인입하는것이 유리하였다. 멘쉐위크들은 자산계급이 꾸며낸 이 가짜애국주의적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볼쉐위크들은 전시공업위원회에 대한 보이꼬트를 선언하였으며 대다수 로동자들의 지지밑에 보이꼬트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1108, 1127페지

370 **《초병》**(*《La Sentinelle》*)은 뇌샤뗄주(스위스의 프랑스어구역)의 스위스사회민주당 단체의 기관지로서 1884년에 쇼-더-퐁에서 창간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의 첫 몇해동안에 이 신문은 국제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914년 11월 13일 이 신문의 제265호에는 로

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선언《전쟁과 로씨야사회민주당》(이 책719～728페지를 보라.)의 요지가 실렸다. —1112페지

371 1915년 11월 20～21일에 아라우에서 진행된 **스위스사회민주당대회**를 가리킨다. 이 대회의 의정의 중심은 국제주의자들의 찜메르왈드련맹에 대한 스위스사회민주당의 태도에 관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스위스사회민주당내의 세개 류파, 즉 (1) 반(反)찜메르왈드파(그로일리히, 플뤼게르 및 기타), (2) 찜메르왈드우파의 지지자들(에르.그림 및 기타), (3) 찜메르왈드좌파의 지지자들(플라텐 및 기타)의 투쟁이 벌어졌다.

그림에 의하여 결의안이 제출되였는데 이 결의안은 스위스사회민주당이 찜메르왈드련맹에 가입하며 찜메르왈드우파의 정치로선에 찬동할것을 제의하였다. 스위스사회민주당좌파는 그림의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수정안은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적혁명투쟁을 벌릴것을 제의하였으며 오직 무산계급의 승리적혁명만이 제국주의전쟁을 종식시킬수 있다는것을 선언하였다.

대회는 다수가결로 좌파의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1113페지

372 맑스의 저서《루이 보나빠르트의 안개달18일》(《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600페지)을 참조하라. —1116페지

373 **《공산주의자》**(《*Коммунист*》)는 레닌이 꾸린 잡지로서 1915년에《사회민주주의자》지 편집부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발행되였다. 한호(두호 합간본)만 나왔을뿐인데 여기에는 레닌의 세개 론문 즉《제2국제당의 파산》,《한 프랑스사회주의자의 정직한 목소리》,《이딸리아에서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가 발표되였다.

잡지편집부내에서 레닌은 부하린-빠따꼬브반당집단을 반대하여 투쟁하였고 그들의 반볼쉐위크적 견해와 잡지를 종파적활동에 리용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폭로하였다. 이 집단의 반당적립장으로 말미암아 레닌은 그들과 관계를 끊고 잡지의 공동발행을 중지할것을《사회민주주의자》편집부에 제의하였다. 1916년 10월부터《사회민주주의자》편집부는 자기의《사회민주주의자론문집》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117페지

374 《로씨아사회민주로동당 조직위원회 재외서기국 통보》(《*Известия Заграничного Секретариата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йской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абочей Партии*》)는 멘쉐위크의 신문으로서 1915년 2월에 스위스에서 창간되여 1917년 3월에 페간되였다. 모두 10호가 나왔다. —1121페지

375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3권을 보라. —1123페지

376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68페지를 보라. —1124페지

377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7권, 391페지를 보라. —1124페지

378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8권, 44, 151페지를 참조하라. —1124페지

379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71～287페지를 보라. —1124페지

380 《로동의 목소리》(《*Голос Труда*》)는 멘쉐위크의 합법적신문으로서 1916년에 싸마라에서 창간되였다. 그 전신은 《우리의 목소리》이다. —1131페지

381 레닌은 론문 《자산계급적평화주의와 사회주의적평화주의》를 로씨야의 망명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뉴욕에서 발행되던 《신세계》지에 게재할 작정이였다. 그러나 론문은 이 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 이 론문의 첫 두장은 개작되여 《세계정치의 전환》(《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269～277페지를 보라.)이라는 표제로 《사회민주주의자》지 마지막호인 제58호에 게재되였다. —1135페지

382 《전진!》(《*Avanti!*》)은 이딸리아사회당의 중앙기관지로서 1896년 12월에 창간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신문은 불철저한 국제주의적립장을 취하였으며 개량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1143페지

383 로동조합총동맹(로동총련합회)은 1895년에 조직된 프랑스의 로동조합련합회이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로동총련합회의 지도적핵심은 제국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계급협조와 《조국보위》를 설교하였다. —1148페지

384 《인민의 목소리》(《*Volksstimme*》)는 독일사회민주당의 기관지로서 1890년 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켐니쯔에서 발간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인민의 목소리》는 사회배외주의자들의 신문이였다. —1149폐지

385 《전투》(《*La Bataille*》)는 프랑스의 무정부적급진로동조합주의자들의 기관지로서 1915년 11월에 빠리에서 창간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신문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151폐지

인 명 색 인

ㄱ

ㄴ

ㄷ

ㅁ

ㅂ

大

ㅋ

ㅌ

ㅍ

ㅎ

ㄲ

ㄸ

ㅆ

本书根据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翻译，人民出版社1976年5月出版的汉文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중공중앙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저작편역국에서 번역한, 인민출판사에서 1976년 5월에 출판한 한문판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列宁选集

(第二卷)

(朝鲜文)

中央马列著作毛泽东著作
民族语文翻译局翻译

民族出版社出版 新华书店发行
民族印刷厂印刷

开本：850×1168毫米1/32 印张： 40 1/8
1981年6月第1版
1981年6月北京第1次印刷

印数：0001—1.000册 定价：(上下册) 2.15元
书号：M 1049 (6) 298